



東北亞歷史論叢

동북아역사논총

63호 2019. 3

차례

특집 고대 요서지역 청동기문화의 다양성과 그 상호작용
- 기원전 14~5세기를 중심으로

오대양 ▣ 기원전 14~11세기 요서지역 토착문화와 중원문화의 상관성 검토
- 묘제 양상의 비교를 중심으로 11

최호현 ▣ 요서지역 출토 상주(商周) 청동용기 연구
- 황하중류유역과의 비교를 중심으로 71

이유표 ▣ 요서 출토 상말주초 족씨(族氏) 명문(銘文)에 대한 일고찰 125

민후기 ▣ 한(燕)의 형성 전후 접경의 변화
- 상(商) 후기, 서주(西周) 초기 태항산맥(太行山脈) 동쪽 출토 청동기 명문(銘文)의 분석 177

이후석 ▣ 하북~요서지역 북방계통 청동단검문화의 전개와 성격
- 하가점상층문화와 옥황묘문화를 중심으로 231

논문

주홍규 ▣ 고구려 귀면문수막새의 변천 양상 287

이경란 ▣ 고구려의 미륵신앙 고찰 - 장천1호분의 예불도를 중심으로 323

윤석정 ▣ 관대한 대일강화조약과 이승만 정권의 강화조약외교
- 일본의 군사적 주권 문제와 이를 둘러싼 한미 간의 마찰 367

서평

김진한 ▣ 요서를 통해 본 고구려-수 관계사 - 『고구려-수 전쟁: 변경 요서에서 시작된 동아시아 大戰』(이정빈 지음, 2018, 주류성) 399

동북아역사논총 규정 및 규칙 413

Contents

Special Issue **The Bronze Age's Culture Diversities and their Interactions in the Ancient Liaoxi District: Focused on the 14th to 5th centuries B.C.**

- Oh Daeyang ■ Antagonistic Relationships between Indigenous Culture of the Liaoxi Region and Zhongyuan Culture in the 14th-11th Century B.C.: Focusing on Comparison of Tomb Patterns 11
- Choi Hohyun ■ A Study on Bronzeware Excavated from the Liaoxi Area in the Shang and Zhou dynasty: Focusing on Comparison with Those from the Middle Stream Basin of the Yellow River 71
- Lee Youpyo ■ A Study on Clan Insignias of Late Shang and Early Zhou period excavated from Liaoxi 125
- Min Hooki ■ The Transition of the Frontier Lines in the East of the Taihang (太行) Mountains in the Late Shang Dynasty and Early Western Zhou Dynasty 177
- Yi Whoseok ■ The Development and Characteristics of the Northern Style Bronze Daggers Culture in the Hebei and Liaoxi Area of China: Focused on the Upper Xiajiadian Culture and Yuhuangmiao Culture 231

Articles

- Ju Honggyu ■ The Acceptance of Koguryo's Roof Tiles with Goblin Pattern Changes 287
- Lee Kyongran ■ A Study on the Maitreya faith of Koguryo: Centering on Buddhist service painting in The tomb Jangcheon 1 323
- Yoon Sukjung ■ The Leniency of the Peace Treaty with Japan and the Syngman Rhee Administration: The Issues of Japanese Military Sovereignty and ROK-US Friction 367

Book Review

- Kim Jinhan ■ Related History of Koguryo-Sui seen through Liaoxi 399

특집

고대 요서지역 청동기문화의 다양성과 그 상호작용
- 기원전 14~5세기를 중심으로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서문

중국에서는 각 지역별로 문화적 특색을 살리는 구호가 유행하고 있다. 예컨대, 산둥성(山東省)의 ‘제로문화(齊魯文化)’, 섬서성(陝西省)의 ‘한당문화(漢唐文化)’, 감숙성(甘肅省)의 ‘주진문화(周秦文化)’, 산서성(山西省)의 ‘진문화(晉文化)’, 허베이성(河北省)의 ‘연조문화(燕趙文化)’ 등이다. 이는 대체로 각 지역에 존재했던 대표적인 고대 국가의 국명을 가지고 문화적 특색을 만들어가는 양상을 잘 보여주고 있다. 한편 지금의 요령성(遼寧省)은 이와는 약간 다른 성격의 타이틀을 내세우고 있는데, 바로 ‘요하문명(遼河文明)’이라는 것이다. 이는 고대 국가가 아닌 지역의 고고학적 지형지물을 가지고 타이틀을 만든 특이한 사례로, 여타 지역의 고고문화 작명법과는 다른 성격을 띠고 있다. 그렇다면 요령성의 경우 ‘요하’를 그 문화를 대표하는 타이틀로 삼은 까닭은 무엇일까?

먼저 요령지역의 선사문화가 이 지역을 대표하는 문화라는 사실을 들 수 있다. 특히 ‘황하문명’보다 더 오래되었다고 하는 이른바 ‘홍산문화(紅山文化)’가 바로 요하권역에서 잉태되었기 때문이다. 이는 요령지역의 문화적 자부심을 내세우기에 충분한 것이다. 다시 말해 이른바 ‘중화문명(中華文明)’을 구성하는 여러 문화적 요소 가운데, ‘홍산문화’를 대표로 하는 이른바 ‘요하문명’이 여타 지역 문화보다 훨씬 더 우수하다는 것을 내세울 수 있는 근거가 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요하문명’을 타이틀로 내세울 수밖에 없는 지역적 고충 또한 내포된 것으로 보인다. 예컨대, 장강하류 절강성(浙江省)을 대표하는 선사문화인 ‘양저 문화(良渚文化)’의 우수성은 결코 황하유역과 요하유역에 뒤지지 않지만, ‘양저

문화'는 '오월문화(吳越文化)'라는 절강지역 고대 국가를 모체로 한 타이틀에 묻혀 버리고 말았다. 이로 미루어 보면, 요령성이 '요하문명'을 내세운 것은 곧 고대 중국으로 편입시켜 볼 수 있는 지역적으로 내세울 만한 국가가 없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물론 요하유역에 고대 국가가 없었던 것은 아니다. 우리의 고대 국가인 고구려와 선비족의 삼연(三燕) 등이 이 지역을 발판으로 성장하였다. 그러나 요령성의 입장을 고려했을 때, 이들이 아무리 강성했다고 하더라도 중원계 국가를 타이틀로 내세우는 것보다는 손색이 있을 수밖에 없다.

곧 '요하문명'이라는 타이틀은 요령지역의 이러한 열등감을 불식시키고, 오히려 지역의 우수성을 좀 더 강조할 수 있는 구조지만, 결국 이는 요령지역을 대표하는 중원계 국가가 없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다시 말해, 중원의 세력이 요하유역에 큰 영향을 끼치지 못했고, 이 지역의 문화 또한 비중원계 문화이지 결코 중원계 문화가 아니라는 것이다.

이 지역의 고고문화를 통시적으로 놓고 봤을 때, 중원계 문화요소가 나타나는 상말주초(商末周初)부터 중원의 연국(燕國)이 요하유역에 본격적으로 진출하기 시작한 전국시대(戰國時代) 후반기까지, 중원계 문화요소가 영성하게 나타나기는 하지만, 결코 토착계 문화요소보다 짙게 나타나지는 않는다. 그럼에도 중국 학계 일각에서는 영성적으로 나타나는 일부분에 불과한 중원문화적 요소를 중원 국가의 정치적인 진출과 관련 있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이 기획연구는 바로 이 중원계 문화요소가 요하유역에 드문드문 나타나는 시기, 곧 기원전 14~5세기까지를 시간적 범위로 삼고, 중원계와 함께 다양한 계통의 문화가 나타나는 요서지역을 지리적 범위로 삼아, 이 지역에 존재했던 다양한 집단들의 문화적 존재 및 그들 사이의 상호 길항관계에 대해 논하고, 이를 중국 학계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중원문화의 적극적인 진출로 해석할 수 있는지 검증하는 차원에서 마련되었다.

먼저 오대양은 기원전 14세기에서 기원전 11세기 무렵 요서지역에 있었던 이른바 '위영자문화(魏營子文化)'의 무덤을 중심으로, 요서지역으로 유입된 중원문화가 토착문화에 어떻게 선택적으로 수용되었는지를 연구하고, 요서지역

에서 확인되는 중원계 문화요소는 중원세력의 직접적인 진출이 아닌, 외래문화의 유입에 대한 토착문화의 대응이라는 결론을 얻었다(「기원전 14~11세기 요서 지역 토착문화와 중원문화의 상관성 검토-묘제 양상의 비교를 중심으로」). 최호현은 이러한 양상이 비단 묘장뿐만 아니라 청동기 및 청동기 교장갱에서도 유사하게 나타난다는 것을 밝혔다(「요서지역 출토 상주(商周) 청동용기 연구-황하중류유역과의 비교를 중심으로」). 이유표 또한 족씨 명문을 비롯한 청동명문(靑銅銘文)에서도 비슷하게 나타난다는 것을 지적하였다(「요서 출토 상말주초 족씨(族氏) 명문(銘文)에 대한 일고찰」).

서주 왕조가 들어선 후 동북 최일선에 책봉된 연나라는 토착문화와의 충돌 속에서 자신의 입지를 다지고자 노력하였다. 민후기는 연과 관련된 중원계 고고 유적 및 이 지역에서 출토된 상주(商周) 청동명문을 정리·분석한 결과, 연국(燕國)이 비록 요서지역 진출을 계속해서 타진하였으나 소기의 성과를 얻지 못하고 오히려 지리적으로 후퇴하는 양상이 나타난다는 결론을 도출하였다(「연(燕)의 형성 전후 접경의 변화-상(商) 후기, 서주(西周) 초기 태항산맥(太行山脈) 동쪽 출토 청동기 명문(銘文)의 분석」). 이후석은 하북~요서지역으로 북방계 청동기 문화가 남하하여 중원계 문화가 퇴축되는 것을 북방지역 고대 종족인 산융과 관련시켜 논하였고, 더 나아가 청동단검문화가 하북~요서지역의 문화적 판도를 바꾸는 새로운 국면을 창출했음을 밝혔다(하북~요서지역 북방계통 청동단검문화의 전개와 성격-하가점상층문화와 옥황묘문화를 중심으로).

이 다섯 편을 종합해보면, 기원전 14~5세기에 이르는 기간 동안 요서지역에 영성적으로 나타나는 중원계 문화요소는 토착문화의 중원문화에 대한 주체적 수용과정에서 혹은 중원세력의 진출에 대한 토착문화 및 북방문화의 대응과정 속에서 나타난 부분적인 현상으로 설명할 수 있다. 결코 중국 학계 일각의 주장처럼 중원문화의 적극적인 진출로 설명할 수 없는 것이다.

전래문헌이 극히 부족한 현실 속에서, 고대 요서지역에 대한 연구는 결국 고고학적 자료에 크게 의존할 수밖에 없다. 고고학적 연구는 그 자체로 가치중립적으로 연구되어야 하지만, 역사적으로 검증되지 않은 여러 문헌자료와 결합시

켜 파악하고자 하는 연구자적 욕심이 배제되기는 어렵다. 물론 왕국유(王國維)가 주장한 대로 지상의 자료와 지하의 새로운 자료가 효과적으로 결합된다면 가늠할 수 없는 긍정적 시너지 효과를 낼 수도 있겠으나, 개인적 혹은 집단적 이기주의라는 달콤한 유혹에 넘어가는 순간 학문적 주화입마라는 무저갱에서 허우적거리게 되기도 한다.

이번 연구과제 또한 이러한 달콤한 유혹의 최전선에서 진행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 과정에서 공동 연구원들의 가치중립적인 태도로 이러한 유혹을 극복해낸 것이 이 기획연구의 가장 큰 성과라고 생각한다. 물론 각 연구자들의 연구방법에 따라 관점의 차이가 존재한다. 공동 연구를 진행하면서 많은 토론을 거쳐 이러한 차이를 최소화하고자 노력했으나, 한편으로는 이러한 차이를 인정하고 존중하는 것이 오히려 학문적인 자세가 아닌가 생각되기도 하였다. 그럼에도 각 연구결과의 전체적인 맥락이 서로 맞물리는 것 또한 이 기획연구의 성과라 할 수 있다. 그 논리적·내용적 타당성은 독자의 판단에 맞기면서, 이 글을 마무리하고자 한다.

집필자를 대표하여
2019년 2월 24일 이유표

기원전 14~11세기 요서지역 토착문화와 중원문화의 상관성 검토

– 묘제 양상의 비교를 중심으로

오대양 | 단국대학교 동양학연구원 연구전담조교수

- I. 머리말
- II. 기원전 14~11세기 요서지역의 토착문화
- III. 중원지역과의 상관성 검토
- IV. 맺음말



I. 머리말

기원전 15세기를 기점으로 요서지역의 청동기문화는 급격히 변화되는 양상을 보인다. 당대 가장 선진성을 보유하고 있던 정착 농경사회의 夏家店下層文化가 소멸하며, 대략 2백여 년의 공백기를 거쳐 수렵과 목축 위주의 魏營子文化가 태동된다.¹ 이 시기 그 접경지역인 요동지역에서는 雙坨子3기 문화의 등장과 함께 도작 농경이 시작된다.² 또한 서남쪽의 중원지역은 상대의 세력범위가 점차 확산·강화되는 시기로 볼 수 있다. 이처럼 당대의 요서지역은, 주변지역의 물질문화가 보다 성숙·안정화되는 현상과 비교하여 그와 상반된 결과를 보이는 점에서 비교가 된다.

夏家店下層文化의 소멸 배경에 관하여 기후환경의 변화가 가장 유력한 원인이 된다는 보고가 있다.³ 이를 참고 할 때, 당시 급격한 환경의 변화는 기존 재지계 세력들의 이탈을 촉발하였고, 이 지역 일대에서는 더 이상 안정적인 농경사회를 유지할 수 없게 되었다는 결론에 도달한다. 당지에서 후속하여 전개된 魏營子文化의 주요 분포권은 大·小凌河流域에 집중되며, 努魯兒虎山 이서지역에서는 관련유적이 지극히 제한적으로 확인되고 있다. 이 지역(努魯兒虎山 이서)은 한동안 문화의 공백지대로 남아 있다가 기원전 11세기 무렵에서야 西拉木倫河 상류지역을 중심으로 夏家店上層文化의 龍頭山類型이 출현하는 것으로 파악

* 투고: 2018년 11월 12일, 심사 완료: 2019년 2월 6일, 게재 확정: 2019년 2월 15일

- 1 오강원, 2006, 『비파형동검문화와 요령지역의 청동기문화』, 청계, 383~394쪽.
- 2 吳靑雲, 1995, 「大嘴子遺址炭化稻米的考察與研究」, 『文部省科學研究費による國際學術研究報告論文集』(大連市文物考古所, 2000, 『大嘴子青銅時代遺址1987年發掘報告』, 大連出版社, 268쪽 참조).
- 3 宋豫秦, 1995, 『遼西下流域全新世沙質荒漠化過程的人地關係』, 北京大學 博士後研究工作報告; 王立新, 2004, 「遼西區夏至戰國時期文化格局與經濟形態的演變」, 『考古學報』2004-3.

된다. 이러한 사실은 대략 3~4백 년의 시간 동안 이 지역 일대에 사람들이 정착하여 안정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환경이 제공되지 못하였음을 의미한다.

유사한 양상이 建平·朝陽 일대의 大·小凌河流域에서도 전개되는데, 夏家店下層文化의 소멸 이후 대략 2백 년이 지나야 비로소 새로운 물질(魏營子)문화가 등장하였다는 사실은 두 문화의 비연속성을 단적으로 표현해준다. 당시의 이러한 환경변화와 문화변동은 그 이동지역의 물질문화에도 영향을 주었을 것이 분명하다. 아마도 그에 대한 적응과정으로서, 이를테면 당시 사람들의 생계방식 전환과 전략적 대응과정 중 요령지역의 비파형동검문화가 형성되었을 것으로 예상된다.

본고의 출발점은 바로 이러한 비파형동검문화의 기원과 그 형성 배경에 대한 의문에서 시작된다. 그 주체세력에 대한 다양한 논의 중 요서지역의 十二臺營子文化를 주목한다면,⁴ 해당 집단의 선계문화로서 魏營子文化와의 관계가 반드시 규명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두 가지 문제가 선결되어야 한다. 첫째는 魏營子文化의 성격에 대한 명확한 규정, 둘째는 해당 문화의 분포범위에 대한 재설정이다. 그간 선행연구에서 다루어진 魏營子文化의 분포범위는 연구자별로 조금씩 상이하였던 관계로 주요 분석대상으로 삼았던 관련 자료 역시 상이할 수밖에 없었고, 결국 문화의 주요 특징과 성격을 고찰하는 부분에서도 다소간의 차이가 발생되었다. 바로 이러한 점이 문화 전반에 걸친 이해와 계통성 문제를 파악하는 데 난관으로 작용하고 있다.

4 이와 관련된 주요 연구성과를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지면관계상 그간 가장 많이 인용되어 왔거나 최근의 글 위주로 제시함을 양해 부탁드린다. 임병태, 1991, 「고고학상으로 본 예맥」, 『한국고대사논총』 1, 94~95쪽; 이청규, 1993, 「청동기를 통해 본 고조선」, 『국사관논총』 42, 18~31쪽; 오강원, 2013, 「청동기-철기시대 요령·서북한지역 물질문화의 전개와 고조선」, 『동양학』 53, 173~222쪽; 오강원, 2017, 「중국 동북 지역 瓢形 長頸壺의 부장 양상과 확산의 배경과 맥락」, 『영남고고학』 78, 109쪽; 박준형, 2014, 『고조선사의 전개』, 서경문화사, 67~88쪽; 조진선, 2014, 「중국 동북지역의 청동기문화와 고조선의 위치 변동」, 『동양학』 56, 103~131쪽; 이후석, 2017, 「고고학을 통해 본 초기 고조선의 성장과정-십이대영자문화의 변천과정을 중심으로」, 『승실사학』 38, 6~41쪽.

특히 현재 대부분의 연구자들이 이 문화의 전형유물로 평가하는 카라속계의 청동도구류와 화변구연력 등은 당시의 토착문화요소로 볼 수 없으며, 분포범위가 매우 넓은 특징을 보인다. 게다가 해당 문화의 주요 분포권인 대·소릉하 일대에서는 카라속계의 청동도구류가 정식 발굴을 통해 출토된 사례가 단 1건도 없기 때문에 문화의 대표성을 부여하기도 힘들다.⁵ 그렇다면 그러한 오해가 발생된 요인을 규명하여 해당 오류들을 하나씩 제거하는 과정을 거쳐 魏營子文化 자체의 본질적 특징과 성격 규정 및 분포범위에 대한 재설정이 가능하다. 이를 바탕으로 그러한 요소들이 향후 十二臺營子文化로의 전환에 어떻게 작용되는지를 분석해낼 수 있다면 본고의 최종 목적인 요령지역 비파형동검문화의 출현과 형성과정에 대한 시론적 대안으로 제시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내용 중 魏營子文化의 성격과 분포범위 재설정에 관해서는 선행연구⁶를 통해 대략적인 내용이 정리된 바 있다. 해당 논고에서는 그간의 조사와 연구성과 정리를 통해 문화 특징과 성격에 대한 전반적인 논의를 검토하였고, 그러한 과정에서 재설정된 분포범위와 주요 유적·유물의 현황 정리를 통해 문화의 중심지역과 주변지역의 구분 및 각 지역별 문화내용의 특징을 고찰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魏營子文化의 성격과 그 형성과정을 시론적으로나마 추론하였다.

이 글은 그에 연속하여, 주변문화와의 관계를 중점적으로 살펴 魏營子文化의 전개 양상 및 그 계통성 문제를 고찰하는 데 집중하고자 한다. 비교대상으로는 그 상관문화로 거론되고 있는 상·주교체기의 중원지역 물질문화, 陝西-河

5 大·小凌河流域에서 관련유물이 확인된 사례는 모두 채집품에 해당되며, 출토지점과 입수과정 역시 불분명하다. 이 외에 阜新 平頂山유적에서 1점의 동도가 출토된 바 있으나, 해당 유적은 魏營子文化의 중심분포권 외곽에 위치하여 문화의 대표성을 부여하기에 곤란해 보인다(오대양, 2019, 「비파형동검 등장 이전 청동기문화의 변동」, 『영남고고학』 83, 148쪽).

6 오대양, 2018, 「비파형동검 등장 이전 청동기문화의 변동」, 『요하유역 초기 비파형동검문화의 전과 후(자유패널3분과): 토지 활용과 경관의 고고학』, 42회 한국고고학전국대회 발표자료집; 2019, 「비파형동검 등장 이전 청동기문화의 변동-요서지역 위영자문화를 중심으로」, 『영남고고학』 83.

北-內蒙古東南部로 연결되는 동 시기 초원계 토착문화, 하요하유역 일대를 중심으로 전개된 高臺山과 新樂上層文化, 그리고 당지의 夏家店上·下層文化(선후 연속성 문제)와의 관계 분석을 들 수 있다. 하지만 이상의 내용을 한 편의 글에서 모두 정리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였다. 따라서 우선적으로 상주교체기 중원지역과의 관계에 집중하여, 그중에서도 묘제에 반영된 제반 특징의 비교를 통해 두 지역 물질문화 간의 상관성 문제를 검토하고자 한다. 이 외에 나머지 지역과의 종합적인 비교검토는 별도의 논고에서 순차적으로 정리할 계획이다. 만약 이상의 내용들이 계획대로 정리되어진다면, 그러한 성과를 종합하여 후속되는 十二臺營子文化와의 관계를 고찰하고, 그러한 양상이 향후 하요하유역 비파형동검문화의 형성과 발전에 끼친 영향, 즉 고조선의 물질문화 혹은 상관문화로서의 지위와 계통성 문제를 파악하는 데 의미 있는 자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II. 기원전 14~11세기 요서지역의 토착문화

1. 조사 및 연구 현황 검토⁷

그간의 연구성과에 의하면 기원전 14~11세기 요서지역의 토착문화는 크게 두 가지 계통으로 구분된다. 첫 번째는 努魯兒虎山 이동지역의 大·小凌河流域을 중심으로 전개된 魏營子文化이며, 나머지 하나는 그 이서지역의 夏家店上層文化이다. 夏家店上層文化의 상한연대에 대해서는 그간 다양한 견해가 제기되고 있지만, 주로 기원전 11세기 무렵 西拉木倫河 상류지역에서 태동된 것

7 해당 부분은 필자의 선행 논고(2019, 앞의 글)에서 이미 분석된 바 있는 ‘魏營子文化의 연구사적 검토’의 내용과 일부 중복된다. 선행 논고를 작성할 당시 누락된 부분과 본고에서 반드시 언급되어야 할 새로운 사항들이 유기적으로 연관된 관계로, 논지의 전개상 불가피하게 일부의 내용이 중복되는 점을 밝혀둔다.

으로 이해하는 것이 보편적이다. 그렇다면 본고의 시·공간적 범위 내에 위치하는 논의대상으로서 魏營子文化를 선택할 수 있다.

주지하다시피, 魏營子文化가 처음으로 알려진 것은 1970년 朝陽 魏營子 유적의 발굴을 통해서이다.⁸ 당시 서주 초기의 연계문화로 인정받던 昌平 白浮 유적과의 연관성이 거론되면서 학계로부터 주목을 받기 시작한다.⁹ 이후 연속되는 喀左縣 일대 관련유적들의 발굴성과에 힘입어 夏家店上·下層文化 사이에 위치하는 ‘魏營子類型’이라는 용어가 제안되었고, 당시까지의 조사자료는 1987년 郭大順에 의해 기본적인 정리가 이루어진다.¹⁰

이후 1990년대에 진입하면서 董新林의 주도하에 문화 성격을 규정하는 문제로 논의가 확장된다(1993, 1998, 2000).¹¹ 그는 郭大順의 연구에 기초하여 ‘魏營子文化’라는 보다 확장된 개념을 제안하였는데, 大·小凌河流域을 중심으로 十二臺營子文化에 계승되는 상말주초시기 요서지역의 토착문화로 규정하였다. 이후의 연구는 周永剛(1987, 1998)¹²과 복기대(1998, 2002),¹³ 楊建華(2002),¹⁴ 王立新(2004),¹⁵ 趙賓福(2005),¹⁶ 烏恩(2007)¹⁷ 등으로 연결되어 문

-
- 8 遼寧省博物館工作隊, 1977, 「遼寧朝陽縣魏營子西周墓和古遺址」, 『考古』 5, 306~309쪽.
 - 9 北京市文物管理處, 1976, 「北京地區的又一重要考古收藏-昌平白浮西周木槨墓的啓示」, 『考古』 4, 246~258쪽.
 - 10 郭大順, 1987, 「試論魏營子類型」, 『考古學文化論集』 1, 文物出版社, 79~91쪽.
 - 11 董新林, 1993, 「魏營子文化初步研究」, 北京大學 碩士學位論文; 董新林, 1998, 「魏營子文化的界定及相關問題略論」, 『青果集』, 知識出版社; 董新林, 2000, 「魏營子文化初步研究」, 『考古學報』 1期.
 - 12 朱永剛, 1987, 「夏家店上層文化的初步研究」, 『考古學文化論集』 1輯, 文物出版社; 朱永剛, 1998, 「東北青銅文化的發展階段與文化區系」, 『考古學報』 2期.
 - 13 복기대, 1998, 「위영자문화의 최근 성과와 해석」, 『선사와 고대』 11; 복기대, 2002, 『요서지역의 청동기시대문화 연구』, 백산.
 - 14 楊建華, 2002, 「燕山南北商周之際青銅器遺存的分群研究」, 『考古學報』 2期.
 - 15 王立新, 2004, 「遼西區夏至戰國時期文化格局與經濟形態的演進」, 『考古學

화 성격과 기원 및 주변문화와의 관계를 고찰하는 데 집중된다.

이 중 2007년 烏恩의 연구서 발표를 기준으로 해당 문화의 성격에 대한 국내와 중국 학계의 인식 차이가 발생된 것으로 파악된다. 국내에서는 2002년 복기대의 발표 이후 최근까지 오강원(2007, 2011)¹⁸과 김정렬(2009),¹⁹ 박대재(2010),²⁰ 천선행(2010)²¹ 등이 관련된 논의를 지속해 나간 반면, 중국에서는 더 이상의 진전된 논의가 없었던 점에 1차적인 원인이 있다. 나아가 개별 연구자들이 제시하였던 문화의 분포범위와 대상유적들 간의 차이 역시 해당 문화의 성격을 상이하게 인식하는 주요한 원인이 된 듯하다.

〈표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관련 연구자들에게 공통적으로 거론되는 전형유적으로서 朝陽 魏營子, 喀左 和尚溝와 道虎溝, 高家洞, 阜新 平頂山 등 무덤유적과 義縣 向陽嶺, 喀左 后墳, 南溝門 등의 생활(취락)유적 및 喀左縣 일대 청동기 매납유적이 있다. 이 중 그 문화 성격에 대한 규정이 여전히 불명확한 청동기 매납유적을 제외하면 실제 발굴된 유적의 숫자는 많지 않다. 게다가 정주생활의 흔적을 엿볼 수 있는 취락유적의 사례로서 向陽嶺 단 1곳을 제외하면 대부분 단순 회갱이나 파괴된 무덤 및 지표수습유물에 불과하며 그마저도 보고된 내용이 매우 소략하다.²²

報』3期.

- 16 趙賓福, 2005, 「中國東北地域夏至戰國時期的考古學文化研究」, 吉林大學 博士學位論文.
- 17 烏恩岳斯圖, 2007, 『北坊草原考古學文化研究』, 科學出版社.
- 18 오강원, 2007, 「비파형동검문화 십이대영자 단계 유물 복합의 기원과 형성과정」, 『고조선단군학』 16; 오강원, 2011, 「상말주초 대릉하유역과 그 주변지역의 문화 동향과 대릉하유역의 청동예기 매납유구」, 『한국상고사학보』 74.
- 19 김정렬, 2009, 「요서지역 출토 상·주 청동예기의 성격에 대하여」, 『요하유역의 초기 청동기문화』, 동북아역사재단.
- 20 박대재, 2010, 「기자 관련 상주청동기명문과 기자동래설」, 『선사와 고대』 32.
- 21 천선행, 2010, 「비파형동검 성립전후 요서지역 토착문화의 전개」, 『요하문명의 확산과 중국 동북지역의 청동기문화』, 동북아역사재단.
- 22 오대양, 2019, 앞의 글, 130~131쪽.

〈표 1〉 魏營子文化에 대한 연구자별 주요 유적 현황(오대양, 2019, 앞의 글, 150쪽 (표 2) 전제)

연구자	분포 범위	주요 유적										青銅 甞藏	
		內蒙古 東南部 - 遼西											遼北
		河北	綏中	興城	敖漢	建平	朝陽	喀左	錦州	阜新	新民		
중국	郭大順 1987	大·小凌河流域	-	綏中	興城	-	-	魏營子	南溝門, 后墳和尚溝, 道虎溝	義縣 錦西	-	-	喀左縣 일대
	董新林 1993 1998 2000	北方長城地帶 東端	小白陽抄道溝	馮家村	楊河仙靈寺	-	水泉	魏營子	南溝門, 后墳和尚溝, 道虎溝	向陽嶺 山河營子	平頂山	-	河北 - 內蒙古 東南部 - 喀左縣 일대
	복기대 1998a	大·小凌河流域	-	-	-	-	水泉	魏營子	南溝門, 后墳和尚溝, 道虎溝, 高家洞	向陽嶺	平頂山	-	-
	吳恩 2007	內蒙古 東南部, 大·小凌河流域	-	馮家村	楊河仙靈寺	水泉村	大荒1호	魏營子 波羅赤	南溝門, 后墳和尚溝, 道虎溝, 高家洞	向陽嶺 山河營子	平頂山	大紅旗	內蒙古 東南部 - 喀左縣 일대
국내	복기대 1998b 2002	大·小凌河流域	-	-	-	-	水泉	魏營子	南溝門, 后墳和尚溝, 道虎溝, 高家洞	向陽嶺	平頂山	-	-
	오강원 2007 2011	大·小凌河流域	-	-	-	-	水泉	魏營子	南溝門, 后墳和尚溝, 道虎溝, 高家洞	向陽嶺	平頂山	-	喀左縣 일대
	박대재 2010	大·小凌河流域	-	-	-	-	-	魏營子	南溝門, 后墳和尚溝, 道虎溝	-	-	-	喀左縣 일대
	친선행 2010	大·小凌河流域	-	-	-	-	-	魏營子	南溝門, 后墳和尚溝, 高家洞	向陽嶺 山河營子	平頂山	-	-

대표적으로 后墳유적의 경우 저장 용도로 추정되는 파괴된 회갱 내부에서 토기 19점이 일괄 출토된 것이 전부이며, 유사한 성격의 山河營子와 南溝門, 仙靈寺유적 등의 조사내용은 거의 알려진 바 없다. 그리고 建平 水泉유적의 중층문화층에서 魏營子文化 단계에 속하는 주거유적의 가능성이 제기된 바 있지만,²³ 이 역시 자세한 내용이 보고된 바 없다. 이 외에 주로 중국 내 연구자들에 의해 관련유적으로 거론되어 오던 綏中 馮家村, 興城 楊河, 河北 抄道溝 등 청동기 매납유적은 略左縣 일대의 그것과 비교하여 유물구성과 입지, 성격 등 방면에서 분명한 차이가 존재한다.

각 해당 유적들이 魏營子文化에 속하는 것으로 인식된 주요 원인은 그것이 상주교체기의 청동기 매납유적이라는 점과 청동기의 주요 구성이 카라숙계 도구류에 포함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아직까지 魏營子文化의 중심분포권 내에서는 이러한 카라숙계 도구류가 정식 발굴을 통해 확보된 사례가 없으며, 외곽지역에서 찾아진 유일한 사례로서 阜新 平頂山유적은 공반유물 관계상 魏營子文化의 전형유적이 될 수 없다.²⁴ 물론 해당 문화의 중심분포권인 建平和 朝陽 일대에서 일련의 채집품들이 보고된 바 있지만, 대부분 출토지점이 불명확하거나 夏家店上層文化 단계의 유물과 공반되는 양상을 보여 주의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유물과 유구의 공반상을 알 수 없는 상태에서 확보된 카라숙계의 청동도구류 자체만을 가지고서 魏營子文化로 설정하는 것은 다소 무리가 있어 보인다.

카라숙계의 청동기류가 매납유구나 무덤에서 찾아지는 사례는 인접한 河北 지역의 張家園上層文化 단계에서도 찾을 수 있다. 張家園上層文化의 연대범위는 대략 기원전 11~9세기로 편년되는데, 관련유적에서 초원계와 중원계 청동기가 공존하는 양상 및 회색의 화변력과 승문토기 조합 등 魏營子文化와 상당히 유사한 특징을 보인다. 하지만 魏營子文化와 비교하여 초원계의 청동도

23 遼寧省博物館·朝陽市博物館, 1986, 「建平水泉遺址發掘簡報」, 『遼海文物學刊』 2期; 董新林, 2000, 앞의 글, 11쪽 참조.

24 관련된 내용은 선행 논고(2019, 앞의 글, 143~149쪽)에서 상세하게 검토하였다.

구나 무기류가 강세를 보이는 점에서 이상 河北과 요서의 접경지역에 배치된 抄道溝와 馮家村, 楊河 등 카라속계 청동기 매납유적은 張家園上層文化의 범주 내에서 이해하는 것이 합리적일 듯하다.²⁵

이상의 내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魏營子文化의 분포권은 大·小凌河流域 일대로 한정될 수 있으며, 분석에 활용될 수 있는 전형유적으로서 무덤자료는 朝陽 魏營子和 喀左 和尚溝, 道虎溝, 高家洞유적, 생활유적으로서 義縣 向陽嶺과 喀左 后墳建平 水泉유적 등의 자료가 전부이다. 이처럼 실질 조사가 매우 한정적이며 분석대상 자료 역시 부족한 상황에서 이 문화를 특정 시기와 지역을 대표하는 고고학적 문화유형으로 설정 가능한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1987년 郭大順에 의해 ‘魏營子類型’이 제안될 당시까지만 해도 중국 고고학에서는 고고학적 ‘문화’와 ‘유형’이라는 개념이 유사한 의미로서 혼용되는 사례가 빈번하였다. 이후 林滢 등으로 대표되는 원로학자를 중심으로 고고학적 문화, 유형의 구분과 사용례에 대한 다양한 논의가 전개되었고,²⁶ 현재에 이르러 ‘文化－類型－遺存’으로 등급화된 일종의 구분법이 체계화되었다. 여기서 문화란 특정 시기와 지역을 대표하는 고고학적 물질문화(유물·유적 복합체)로서 특히 시대성이 강조되며, 유형은 문화의 하위 단위로서 지역성이 강조되고, 유존은 새로운 유적의 발굴 이후 유사성을 보이는 기타 유적이 발견되지 않은 상태에서 유형으로 설정되기 전 단계에 임시적으로 사용되는, 주로 발굴보고서를 통해 제안되는 사례가 많다.²⁷ 따라서 현재 중국 고고학에서 통용되는 특정 시기와 지역을 대표하는 고고학적 물질문화로서 魏營子文化의 설정과 지위를 확고히 하기 위해서는 그 문화내용과 성격에 대한 명확한 정의가 수반되어야 한

25 오강원, 2011, 앞의 글, 23쪽.

26 林滢, 1989, 「考古學文化研究的回顧與展望」, 『遼海文物學刊』 2, 12쪽. 이에 대한 내용은 선행 논고(2018, 「산동 악석문화의 최근 연구 동향과 쟁점」, 『한국상고사학보』 101, 55쪽)에서 상세하게 검토되었기에, 자세한 언급은 피하도록 하겠다.

27 오대양, 2019, 앞의 글, 138쪽, 각주 10 참조.

〈표 2〉 魏營子文化 전형유적의 성격과 출토유물 현황

유적	성격	청동기류						토기류		기타
		중원계		초원계				삼족기	평저	
		예기	수레부속	도구	무기	장신구	용기			
義縣 向陽嶺	생활							花邊甬, 甌	瓮, 罐, 盆, 豆, 繩文鉢, 無文鉢	
義縣 山河營子	생활							鼎足	승문분, 승문발, 관	
喀左 后墳	생활							화변력 鼓腹甬	관, 壺, 분, 승문발, 무문발, 杯	
喀左 南溝門	생활							화변력	승문옹(기면조정), 관(승문, 삼각문), 이중구연 盆	
建平 水泉중층	생활							화변력	옹	
朝陽魏營子	문화층	생활						화변력	승문발, 분, 옹편, 정족, 豆柄, 豆座	
	7603	묘		當盧		투구				
	7101	묘		鑿鈴, 鈴狀器, 車軸, 銅甲, 泡飾		羊頭飾 금팔찌				
喀左和尙溝	A1	묘	卣, 壺			금팔찌			무문발, 승문발	海貝
	A2				귀걸이		관			
	A3						발편	돼지발굽		
	A4						정	승문관(기면조정)	석부	
喀左 高家洞	묘	銅甌						무문발, 승문발	녹송석, 羊頭骨	
喀左 道虎溝	묘	銅鏡			귀걸이			승문발	옥걸	
喀左 咕嚕溝	교장		鼎1							

咯左 馬廠溝	교장	鼎1·甗2·簋3· 壺1·卣2·尊1· 盤1·罍2·盂1· 기타 2						
咯左 北洞村	교장	1호(甗1·罍5) 2호(鼎3·簋1·罍 1·鉢1)						
咯左 山灣子	교장	鼎1·甗3·鬲1· 罍3·卣1·簋10· 盃1·盤1·尊1						
咯左 小波汰溝	교장	鼎2·罍4·簋1, 盤1, 기타3(초원계 鉢形 蓋, 懸鈴簋, 鈴首匙 등)						
朝陽 大廟	교장	罍 1						
朝陽 木頭城子	교장	簋 1						
義縣 花兒樓	교장	鼎1·甗2·簋1· 기타1						

다. 이러한 내용을 구체화하기 위하여 그간 魏營子文化의 전형유적으로 거론되어온 곳에서 출토된 유물들을 그 성격별로 정리하면 <표 2>와 같다.

위의 표를 토대로 할 때 현재까지 조사된 魏營子文化 관련유적의 성격은 크게 무덤, 생활유적(주거지와 회갱), 교장유적 등으로 분류가 가능하며, 여기서 출토된 유물은 청동기류와 토기류, 기타류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이와 관련된 분석은 선행 논고에서 상세하게 검토되었기에 여기에서는 그 주요 내용만을 간추려 제시하도록 하겠다.²⁸

먼저 교장유적에서는 모두 청동기만 확인되는데, 중원계의 상주교체기 청동예기가 대부분이다. 무덤에서는 청동기와 토기류가 공반되는데, 중원계로서 동경이나 예기류 등이 초원계의 팔찌나 귀걸이류 및 토착계 토기와 공반되는 양상을 보인다. 무덤에 부장되는 토착계 토기는 주로 무문발과 기면조정된 승문발

28 오대양, 2019, 앞의 글, 151~155쪽.

의 조합이 특징적이며, 이 외에 관, 용, 분 등이 개별 조합을 보이기도 한다. 중원계 청동기에 속하는 수레부속이나 투구류는 魏營子무덤에서만 확인되었고, 여기에 초원계의 양두식과 팔찌류가 공반되지만, 토기류는 확인되지 않는다. 생활유적에서는 모두 토기류만 확인되었다. 화변구연력이 공통적으로 확인되며, 기면조정된 승문 발, 용, 분 등이 거의 예외 없이 공반된다. 또한 무덤 내에는 좀처럼 삼족기를 부장하지 않는 점이 부각되는데 이는 동시기 요북 평원지역에서 병행된 高臺山文化와도 닮아 있어 비교가 된다. 따라서 해당 지역의 초원계 물질문화에서는 화변력을 대표로 하는 토기문화를 중심으로 중원지역과의 접촉을 통해 유입되는 과정을 살필 수 있다. 아울러 劍과 戈, 鉞 등 무기류가 부재한 점에서 해당 집단의 군사적 요소를 찾을 수 없으며, 생계형태는 미약하게나마 정주생활의 흔적이 관찰되지만, 뚜렷한 농경의 흔적은 없고, 목축과 수렵이 병행되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이상의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의 <표 3>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표 3> 魏營子文化의 관련유적 성격별 출토유물 종류와 특징

교장유적	무덤유적			생활유적 (회갱 및 주거지)			
	청동기		토기	토기류			
	중원계	초원계	토착계	색깔	삼족	평저	문양
중원계 청동예기 위주, 일부 초원계 포함	동경, 예기, 수레부속	금팔찌, 귀걸이, 양두식	무문과 승문발(기면조정) 조합이 대표적	회색, 홍색 계열 공존	력, 정, 언	관, 용, 발, 완, 분, 두	무문과 승문, 압인 삼각문, 부가퇴문 등, 이 중 부가퇴문과 기면조정된 승문이 대표적

이상의 내용을 상주교체기 大·小凌河流域 일대에서 확인되는 고고학적 물질문화로서 소위 魏營子文化의 관련유적에서 찾아지는 보편적 특징으로 정의할 때, 몇 가지 의문점이 제기될 수 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고고학적 물질문화의 성격을 규정할 때, 특정 시기와 지역(군) 내 다수의 유적에서 보편적으로 확

인되는 유물·유적의 양식적 공통성을 우선적으로 고려하게 된다. 예를 들면, 주저형태나 무덤양식, 토기의 종류와 문양 시문방식 및 석기와 청동기 등 생산 도구나 무기류 등의 양식적 공통성을 들 수 있다. 위 표에서 제시된 내용은 사실상 기원전 14~11세기 무렵 大·小凌河流域 일대에서 확인되는 초기 청동기시대 관련유적의 출토유물 특징들을 일괄적으로 정리한 것에 불과하다. 여기에는 그간 해당 시·공간역의 물질문화를 魏營子文化라는 단일한 문화체로 규정해 오던 관행적 인식이 수용되었음을 인정하는 바이다.

연구 초창기에 처음으로 魏營子文化의 내용과 성격을 정의한 董新林의 글에서는 “고고학문화 명명의 기본원칙에 근거하여” 魏營子文化로 설정함을 밝힌 바 있다.²⁹ 이때 가장 중요한 지표로 삼은 것이 바로 1992년 발굴된 義縣 向陽嶺유적의 자료이다. 向陽嶺유적에서는 모두 5개의 문화층위가 확인되어 총 4시기로 구분되었는데 이 중 제3기 문화층이 상주교체기의 魏營子 단계에 속하며, 4기는 춘추시기 문화층으로서 十二臺營子 단계에 해당된다.³⁰ 魏營子 단계의 문화층에서는 파괴된 주저지 5기와 회갱 129개가 발굴되었고, 여기에서 다수의 토기와 골·석기류가 출토되었다. 董新林은 바로 여기에서 출토된 일련의 토기조합, 즉 화변구연력과 승문 관, 발, 분류의 조합 등이 기존에 발굴된 관련유적 출토품들과 유사한 점, 해당 토기들이 바로 다음 시기인 춘추시기 문화층(十二臺營子단계³¹)에서도 연속적으로 확인되며, 상호 계승·발전관계에 있다고 보아, 이러한 점들이 종합적으로 고려될 때 소위 ‘魏營子文化’로의 설정이 가능해진다고 본 것이다. 그렇다면 그가 글 속에서 제시한 “고고학문화 명명의

29 董新林, 2000, 앞의 글, 2쪽.

30 遼寧省文物考古研究所, 2000, 「遼寧義縣向陽嶺青銅時代遺址發掘報告」, 『考古學集刊』 13集.

31 董新林은 회갱유적 간의 중복과 층위관계를 바탕으로 向陽嶺유적의 魏營子文化層을 크게 두 시기(2기 4단)로 나누었는데, 이 중 제1기가 전형적인 魏營子文化層에 속하며, 2기는 보고서 상의 춘추시기 문화층에 해당된다. 董新林은 이러한 2기 문화층 역시 魏營子文化 후기단계로 파악하였으나, 현재 대부분의 연구자들은 해당문화층을 十二臺營子文化 단계로 편년하고 있다.

기본원칙”이란 “일련의 전형토기와 그에 공반되는 기타의 보편적 유물군”³²에 국한됨을 알 수 있다. 이처럼 특정 토기의 양식적 유사성만을 가지고서 고고학적 문화·유형으로 설정하는 방식의 문제점은 최근 국내 관련 연구자들에 의해 자주 지적되고 있는데,³³ ‘魏營子文化’로의 설정과 성격 문제 역시 여기에서 자유로울 수 없어 보인다.

그렇다면 위에서 제시한 상주교체기 大·小凌河流域 일대 관련유적의 현황과 특징을 성격별로 다시 한번 검토해보자. 먼저, 교장유적에서는 상주교체기 청동기만 출토되었다. 화변력 등 魏營子文化를 대표하는 전형토기들이 공반된 바 없으며, 小波汰溝에서 3점의 초원계 청동기가 출토되었지만 동시기 주변유적 출토품(장식품류)과는 이질성이 강하다. 또한 이러한 교장유적이 오로지 喀左縣 일대에서만 확인되는 점도 주목된다. 두 번째, 喀左 일대 和尚溝와 高家洞 등 무덤에서도 중원계 청동예기가 확인되며, 道虎溝에서는 중원계 동경이 출토된 바 있다. 해당 무덤에서는 魏營子文化의 특징인 초원계 장식품류와 토착계 토기가 공반되기는 하지만, 이 역시 喀左 일대에 국한됨을 알 수 있다. 동류의 무덤으로 추정되는 朝陽 魏營子무덤에서는 관련유물이 전혀 출토된 바 없으며, 중원계에 속하기는 하지만 다소 이질적인 성격의 투구와 수레부속 장식품 등이 초원계 장신구와 공반될 뿐이다. 뒤에서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지만, 심지어 魏營子무덤의 연대가 서주 중기 혹은 보다 늦은 시기에 해당될 가능성을 전제로 전형유적에서 제외시켜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된 바 있다.³⁴

이처럼 간간 魏營子文化의 가장 큰 특징으로 거론되던-앞서 분석된 카라

32 董新林, 2000, 앞의 글, 2쪽.

33 고일홍, 2012, 「고고학 해석의 지평 넓히기-고고학 자료에 대한 다양한 인식 검토」, 『인문논총』 68; 김종일, 2017, 「민족주의적 고고학의 이론과 방법론에 대한 비판적 검토」, 『한국상고사학보』 96; 성춘택, 2017, 「고고학과 물질문화의 기원과 계통:비판적 검토」, 『한국고고학보』 102; 崔鐘圭, 2008, 「考古學文化 實踐」, 『考古學探究』 4; 오대양, 2017, 「山東 龍山文化的의 최근 연구 동향과 쟁점-東夷 관련 연구의 비판적 검토-」, 『백산학보』 109.

34 趙賓福, 2005, 앞의 글, 61쪽.

속계 청동기를 제외할 경우-중원계 청동예기가 매납 혹은 부장된 유적들은 略左縣 일대라는 한정적인 분포상을 보인다. 즉 중원계 청동예기가 매납된 유적군은 소위 魏營子文化의 일부 지역적 요소가 될 수는 있어도, 문화 전반을 아우르는 보편적 특징은 될 수 없다. 이와 함께 전형토기로 거론되는 화변력의 경우, 무덤과 교장에서 확인되지 않으며 오직 생활유적에서만 출토되는 특징을 보인다. 이처럼 중원계 청동예기와 화변력의 요소를 제외할 경우, 魏營子文化만의 보편적 특징으로 거론될 수 있는 것이 기면조정된 승문발과 무문발의 조합 정도로 볼 수 있다.³⁵

이상과 같이, 그간 우리가 특정 시·공간 내 하나의 단일한 문화체로 인식해 오던 魏營子文化人들의 실체는 그 뚜렷한 윤곽을 잡아내기가 쉽지 않다. 아마도 당시 급변하던 시대적 상황과 정세 속에서, 불특정 다수의 집단들이 이합집산을 반복하다 구성된 소규모 지역집단 정도로 생각해볼 수 있을 것이다. 만약 그렇다 할지라도, 이러한 성격의 사람들과 이들이 남긴 문화내용 및 그 정체성 문제에 대한 고민 역시 필요하다. 그 이유는 이러한 단계를 거쳐 당지에서 연속된 사람들이 소위 비파형동검문화를 창조·발전시킨 이들과 특별한 상관성이 인정되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和尚溝유적에서 魏營子 단계(A지점)를 거쳐 비파형동검이 출토되는 十二臺營子 단계 무덤군(B~D지점)이 등장하는 점과 向陽嶺유적에서 魏營子 단계와 十二臺營子 단계 문화층이 층위관계를 이루는 점, 그리고 이들 간에 문화적 연속성이 인정되는 점 등을 제시할 수 있다.³⁶ 이것이 바로 상주교계기 大·小凌河流域 일대 물질문화로서 ‘소위 魏營子文化에 대한 새로운 이해와 규정’ 및 그것을 구성하는 다양한 성격의 사람들을 과연

35 먼저 생활유적으로서 義縣 向陽嶺과 略左 后墳유적 및 무덤유적인 略左 和尚溝와 高家洞유적에서 양자의 조합이 확인된다. 이 외에 略左 道虎溝무덤과 朝陽 魏營子遺址(생활문화층)와 義縣 山河營子, 略左 南溝門 등에서 기면조정된 토착계의 승문토기(발, 용, 분, 판 등)가 다수 확보되었다.

36 오강원, 2006, 앞의 책, 251~252쪽; 2011, 「商末周初 大凌河 流域과 그 周邊 地域의 文化 動向과 大凌河 流域의 青銅禮器 埋納遺構」, 『韓國上古史學報』 74, 22~23쪽.

‘단일한 문화체’로 파악할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이유이다.

그러한 이유로서, 첫째, 요서지역 일대의 청동기 매납유적은 魏營子文化라는 특정 집단의 소산으로 결론지을 수만은 없을 것이며, 해당 시·공간 내에서 활동한 다수의 불특정 집단들이 각자의 매장 목적에 따라 청동예기 중심(略左縣 일대) 혹은 초원계 청동기 중심(河北과 그 접경지)으로 남겨졌을 가능성이 보다 크다. 둘째, 화변구연력은 魏營子文化집단의 정체성을 반영하지 못한다. 해당 토기는 무덤과 교장유적에서는 확인되지 않으며, 또한 陝西와 山西 북부, 河北과 內蒙古東南部-遼西지역 등 매우 광역적인 분포상을 보인다. 따라서 화변력 단 하나만을 표지로 한 魏營子文化로의 설정과 합류는 인정될 수 없다. 셋째, 이상의 내용을 제거하였을 때 상주교체기 大·小凌河流域 일대 관련유적에서 확인되는 보편적 특징으로서 승문을 장식한 후 기면조정되는 토착계 토기 단 하나가 남는다. 이러한 요소는 동시기 주변지역에서 찾을 수 없는 해당 지역의 고유한 토기 제작방식으로 인정될 수 있다.

하지만 이처럼 한정적인 특정 토기의 양식적·제작적 특성만을 고려하여 특정 시·공간을 대표하는 고고학적 문화유형 혹은 동일 문화집단으로 설정하는 것은 무리가 있어 보인다. 특정 토기의 양식적 유사성과 공반상은 동시기 인접한 주변문화들과의 다양한 상호작용이라는 측면에서 충분히 설명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함께 고려되어야 할 사안으로서, 주거형태나 묘제양식 및 당시 사람들의 생계방식 등이 종합적으로 비교되어야 할 것이다.

그런데 주거유적의 경우 보고된 자료가 向陽嶺유적의 5기가 전부이며, 이마저도 대부분 파괴되어 구체적인 양상을 알 수 없다. 아울러 생계방식을 알게 해주는 각종 생산도구들 역시 매우 제한적인 상황이기에 분석에 어려움을 더한다. 다만 역시 소량이지만 무덤자료의 경우 목관묘제의 사용이 보편적이라는 공통성을 보이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본 장의 핵심이 되는 ‘魏營子文化의 새로운 정의와 그 성격’에 대한 논의를 구체화하기 위해서는 그나마 가장 많은 자료가 확보된 무덤자료를 중심으로 그 상관자료와의 면밀한 비교분석이 수반되어야 할 것이다.

2. 묘제와 장속 특징 검토

1) 무덤유적의 현황과 특징

그동안 발굴된 魏營子文化 관련 무덤자료는 朝陽 魏營子, 喀左 道虎溝, 高家洞, 和尚溝유적 등이 대표적이며, 전형유적에 해당되지는 않으나 그 상관유적으로서 阜新 平頂山과 北京 인근의 昌平 白浮村유적을 포함시킬 수 있다.

먼저 魏營子유적은 遼寧省 朝陽市 六家子鄉 魏營子村에 위치한다. 유적은 1970년에 조사를 통해 木棺의 판재와 청동기, 토기편 등이 확인되었고 이후 1971·1972·1976년 등 세 차례의 후속조사를 통해 무덤 9기와 1곳의 遺址가 조사되었다.³⁷ 보통 중국의 보고서에서 ‘遺址’로 표현되는 대상물은 주로 주거지를 지칭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魏營子유적에서는 명확한 형태의 주거지가 발굴된 것은 아니며, 단지 무덤구역 서북쪽에 인접하여 관련유물이 다수 산포된 정황만 포착되어 관련시설의 구체적인 정보는 알 수 없다. 즉 보고서에서 遺址로 표현된 대상물을 번역하면 생활유적 정도로 이해할 수 있겠다.

이러한 생활유적에서 수습된 토기들은 대부분 홍색 혹은 홍갈색 계통이며, 기종은 罐, 甗, 甗, 鼎, 盆, 豆 등이 있다. 무문이 대다수이지만 細繩文과 附加堆文(花邊口沿) 등이 소량 확인된다. 무덤은 모두 9기가 발굴되었다. 모두 평면 장방형의 木棺墓 계열이며 土壙과 木棺 사이로 약 10~30cm 두께의 회반죽(灰膏泥)이 채워져 있다. 보고서에서는 이상의 무덤들에 대하여 일괄적으로 목곽묘로 표현하였으나, 그 내부에 별도의 棺 시설이 존재하지 않는 점에서 단순 목곽묘로 보는 게 합리적일 듯하다. 그런데 보고서의 내용을 꼼꼼하게 살펴보면 7101호의 목제 바닥판(목관 바닥면) 상부에 絹布類의 絲織品 20여 겹이 넓은 범위에 걸쳐 잔존하였다는 설명이 부가되어 있다. 아마도 시신을 매장할 당시 감싸놓았던 絹織物로서 이 역시 일련의 관 시설과는 차이가 있어 보인다. 이 외에 나머지 무덤들 역시 7101호와 유사한 구조라는 점에서 魏營子유적의 무덤

37 遼寧省博物館工作隊, 1977, 앞의 글.

들은 일괄적으로 목곽묘로 분류하고자 한다. 보고서에서 魏營子유적의 무덤을 목곽묘로 보고한 배경에는 뒤에서 언급할 昌平 白浮유적과의 관계를 부각시킴으로써 중원식 목곽묘제의 출현을 강조하기 위한 것으로 여겨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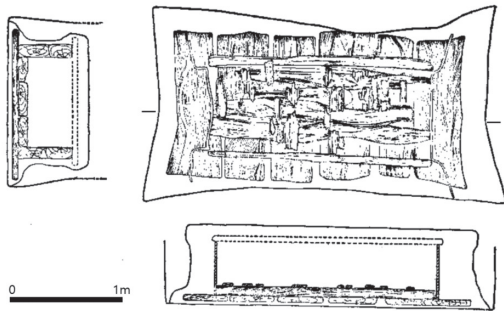
자료가 발표된 2기의 무덤 중 7603호의 보존 상태가 가장 좋은 편이다. 土壙의 길이는 3.02~3.15m이며 너비는 1.51~1.78m, 깊이는 1.58m 정도이다. 내부에 설치된 木棺의 조성법을 보면, 먼저 바닥에 6개의 잘 다듬어진 목판을 가로 방향으로 깎 후 그 위에 다시 3개의 목판을 세로 방향으로 길게 놓아 바닥 판이 되게 하였다. 양 측벽과 단벽은 모두 바닥판을 따라 각각 2개씩의 목판을 세웠으며, 그 상부에 다시 목판을 덮어 마무리하였다. 인골은 남아 있지 않았으며, 유물은 투구(銅盔) 1점과 수레부속(獸面當盧) 2점 등 청동기가 출토되었다.

7101호는 土壙의 길이가 3.25m, 너비 2.76m, 깊이는 1.1m 정도이다. 내부에 설치된 木棺은 대부분 파괴된 상태였으며, 棺室의 바닥과 동벽부의 일부만 남아 있었다. 인골은 모두 부식되었으나, 묘실 동단 쪽에서 치아 조각과 녹송 석주가 확인되었다. 출토유물은 銅甲, 수레부속, 馬頭飾, 泡飾, 양머리장식 등의 청동기류이며 모두 묘실의 발치 쪽에 놓여 있었다. 이 외에 묘실 바닥면에 부식된 면직물의 흔적이 20점 정도가 남아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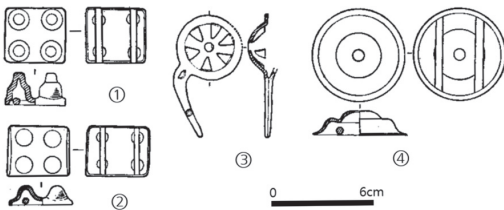
다음으로 喀左 和尚溝유적은 遼寧省 喀左縣 동남쪽 27km 지점의 興隆場鄉 和尚溝村의 저평한 구릉성 대지에 위치한다. 1978년 1기의 파괴된 무덤이 발견되었고, 1979년 발굴을 통해 魏營子文化부터 十二臺營子文化 단계에 속하는 대규모의 무덤군이 조사되었다.³⁸ 무덤군은 분포한 군집에 따라 A~D지점으로 구분되는데, 모두 22기의 무덤이 조밀한 상태로 배치되어 있었다. 이 중 A지점의 무덤만 魏營子文化에 속하며 B~D지점은 琵琶形銅劍 및 관련유물이 출토되는 十二臺營子文化 단계의 무덤들이다.

A지점은 산사면의 중턱부에 위치하며 4기의 무덤이 발굴되었다. 모두 土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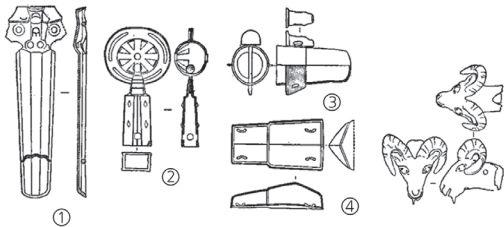
38 遼寧省考古文物研究所·喀左縣博物館, 1989, 「喀左和尚溝墓地」, 『遼海文物學刊』 2期.



1. 7603호 무덤 평단면도



2. 7101호 出土 靑銅器



3. 7606호 및 7101호
出土 靑銅器

그림 1 朝陽 魏營子遺蹟 목관묘 평단면도 및 출토유물

墓로 보고되었으나 묘실 내부에서 木棺의 흔적이 검출되어, 木棺墓 계열로 볼 수 있다. 이 중 1호 무덤은 1978년 발굴된 것이다. 土壙의 길이는 2.5~3m, 너비는 1~1.5m, 깊이는 0.6~1.5m 정도이며, 내부에서는 銅卣, 銅壺, 금팔찌 2점, 鉢, 조개껍질 등이 출토되었다. 그중 鉢 1점은 머리 쪽에 부장되었으며, 손목 부근에서 금팔찌 1쌍, 다리 쪽에 銅卣와 銅壺 등이 놓여 있었다. 이 외에 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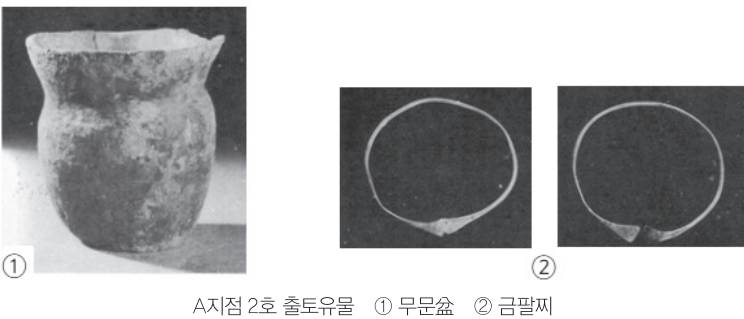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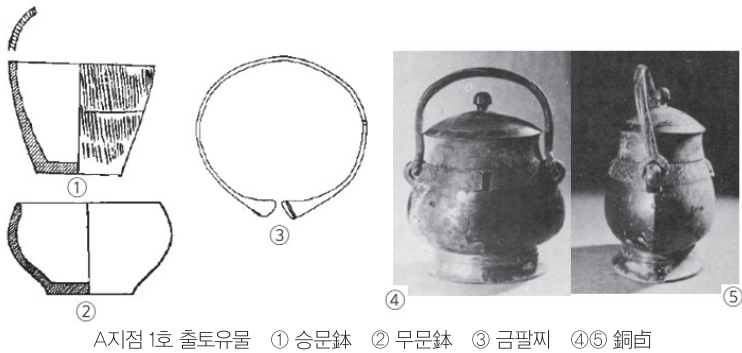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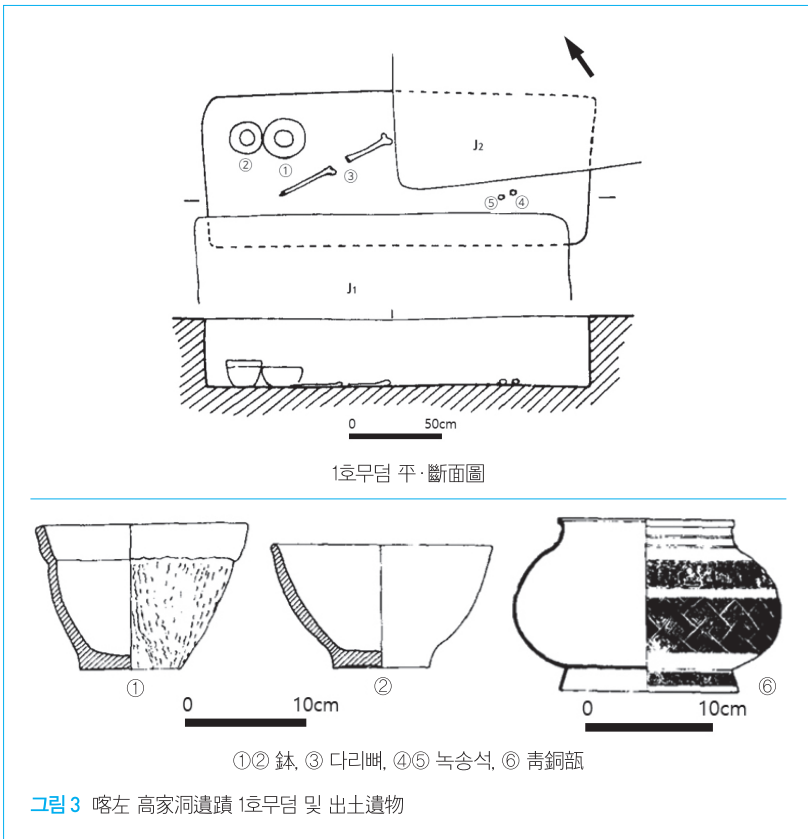


그림 2 喀左 和尚溝유적 A지점 출토유물

壺 내부에는 海貝 70여 점이 확인되었다. 2호의 土壙은 길이 3m, 너비 1.48m, 깊이 1.4m 정도이며, 내부에 설치된 木棺은 길이 2.1m, 너비 0.72~0.92m이며, 목판 두께는 3cm이다. 木棺의 덮개는 4개의 목판을 이용하여 덮었다. 木棺 내부에서 여성의 인골 1구가 확인되었고 머리 왼쪽으로 陶罐 1점이, 양쪽 귀에서 귀걸이(銅耳環) 1쌍이 출토되었다. 3호와 4호는 2호와 구조 및 규모가 거의 유사하다. 3호에서는 두개골 앞에서 鉢 1점이, 왼쪽 다리 옆에서 돼지 발굽이 출토되었다. 4호에서는 두개골 앞에서 鼎과 罐 1점씩, 왼쪽 다리 부근에서 石斧 1점이 출토되었다. 4기의 무덤 모두 葬法은 單人의 仰身直肢葬이며, 頭向은 동쪽으로 통일되어 있다.

B지점에서는 3기의 무덤이 조사되었으며, 葬法은 單人의 仰身直肢葬, 頭向은 동쪽으로 일지된다. 그중 6호는 B지점에서 규모가 가장 크며, 木棺과 벽감시설이 확인되었고 인골 옆에서 비파형동검 1점이 출토되었다. C지점에서는 4기가 조사되었으며, 동서 방향으로 5m씩의 간격을 두고 배치되었다. 모두 土壙 내부에 木棺이 설치되었는데, 그중 10호의 木棺 외측으로 석재를 쌓아서 石槨을 조성한 후 다시 그 상부에 석재를 쌓았다. 내부에서는 청동목걸이(銅項環), 石斧 등이 출토되었다. D지점에서는 모두 11기의 무덤이 발굴되었는데, 대략 1~3m의 간격을 두고 조밀하게 배치되었다. 모두 土壙 내부에 木棺이 있



며 그중 19호에는 木棺 외측으로 石槨이 설치되었다. 葬法은 單人의 仰身直肢葬이며, 頭向은 동쪽으로 일치된다. 묘실 내부에서는 琵琶形銅劍, 銅刀, 銅項環, 銅泡飾, 토기, 골기, 석기 및 양머리와 소머리뼈 등이 출토되었다.

高家洞유적은 喀左縣 平房子鄉 高家洞의 산사면에 위치한다. 역시 1979년 마을사람이 商代 靑銅容器(靑銅甌) 1점을 신고하면서 알려졌으며, 1991년 파괴된 무덤 1기(1호묘)가 발굴되었다. 1979년 발견된 靑銅甌는 바로 이 무덤(1호묘) 내부에서 수습된 것이다. 무덤의 구조는 평면 장방형의 土壙墓 계열이다. 土壙의 길이는 2.2m이며, 너비는 0.9m로서, 발굴 당시 이미 묘실이 대부분이 파괴된 상태였기에 본래의 구조는 명확하지 않다. 무덤 안에는 황색의 고운 흙을 채웠으며, 그 내부에서 夏家店下層文化 단계의 토기편들이 수습되었다. 묘실 서부에서 양의 두개골 2개가 토기 2점과 함께 확인되었고, 동쪽에서 녹송석 2개가 출토되었다. 또한 인골의 다리뼈가 묘실 서쪽에서 확인된 점으로 미루어 頭向은 동쪽으로 추정된다.

道虎溝유적은 喀左縣 小東溝村 山嘴子公社 道虎溝大隊에서 발견되었다. 1979년 마을 사람이 땅을 파던 중에 발견한 인골과 토기, 소형 동기 등을 통해 알려졌으며, 바로 인근에서는 토광묘 1기가 추가로 확인되었다.³⁹ 2기의 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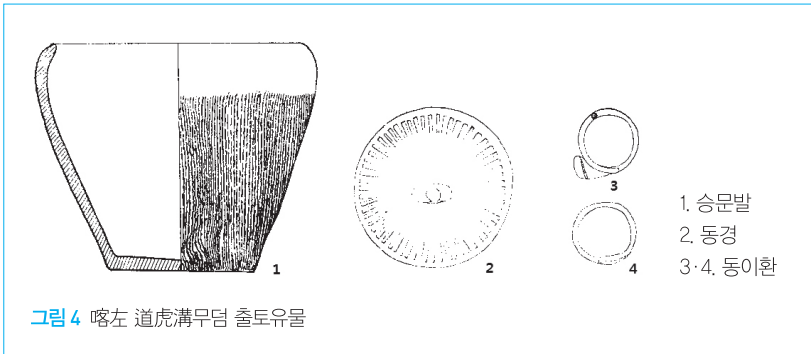


그림 4 喀左 道虎溝무덤 출토유물

39 郭大順, 1987, 앞의 글, 86~87쪽.

덤 중 정확하게 어느 무덤의 출토품인지는 알 수 없지만, 당시의 조사를 통해 확보된 유물로서 상대 후기 安陽 婦好墓 출토 동경과 유사한 형태의 동경 1점과 청동귀걸이 5점, 옥걸 1점 등이 토착계 토기인 승문발(夾沙紅陶)과 함께 공반되었다.

2) 무덤의 구조와 장속 특징

지금까지 알려진 魏營子文化 관련 무덤자료는 대부분 목관묘 계열에 속한다. 하지만 喀左 高家洞과 道虎溝 등의 파괴된 무덤들은 토광의 구조와 규격, 木棺의 사용 여부 등이 구체적으로 알려진 바 없다. 따라서 본래부터 단순 토광묘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지만, 쉽게 부식되는 목재의 특성과 기타 다른 유적들과의 관계로 미루어 잠정적으로 목관묘 계열에 포함시켜 이해하고자 한다.

명확하게 목관의 구조를 보이는 사례로서 魏營子の 9기 무덤과 和尚溝 A 지점의 4기 무덤을 들 수 있다. 대표적으로 魏營子무덤의 사례를 보면 길이 2~2.5m, 너비 1~1.5m 사이의 묘광을 마련하고, 그 내부에 여러 개의 목관을 깔아 바닥면을 조성한 후 그 위로 다시 판재를 세워 길이 2m, 너비 1m 전후의 목관을 설치하였다. 魏營子무덤의 경우 관개가 잘 남아 있지 않지만, 和尚溝 A 지점 2호 무덤의 사례를 보면 목관 상부로 4개의 목관을 덮개 관개로 삼았다.

한 가지 주목되는 특징으로서 魏營子무덤의 土壙과 木棺 사이에 약 10~30cm 두께의 회반죽(灰膏泥)을 채워 넣은 점이다. 이러한 흔적은 동시기 중원지역의 무덤에서도 일부 관찰되어 두 지역 묘제의 특징을 비교하는 데 좋은 자료가 된다. 이러한 회반죽은 아마도 부식되기 쉬운 목관재의 보호가 주요 목적으로 예상된다. 이와 별도로 회반죽이 완벽하게 굳어 목관의 외곽을 둘러쌀 경우 이것이 마치 회곽⁴⁰과 같은 기능을 했을 것이라고도 생각해볼 수 있다. 이

40 회격무덤을 만드는 방법은 먼저 광을 파고 관곽을 안치한 다음에 삼물(三物), 즉 석회와 황토 그리고 가는 모래를 각각 '3:1:1'의 비율로 느릅나무 껍질을 달인 물에 섞어 만들어, 광과 광 사이를 채우고 다진 후에 봉토를 한다. 그리고 광을 사용하지 않고 관 바깥에 바로 회격을 한 것을 회곽(灰槨)무덤이라고 부르기도 한다(네이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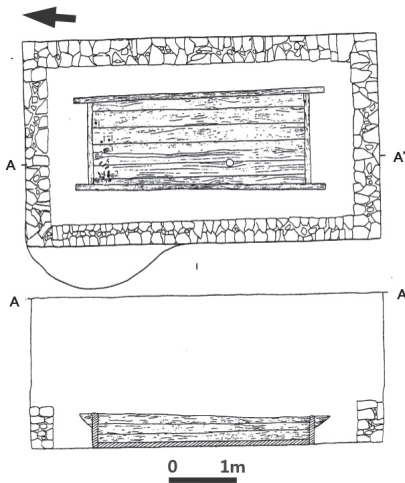
러한 구조는 <그림 1-1>에서 보듯이 토광 바닥면에 가로 방향으로 깔아놓은 목 판부가 그 상부에 설치된 세로 방향의 목관 바닥면의 범위를 초과하고 있으며, 그 초과되는 부분의 상면으로 목관 높이까지 회반죽을 채워 굳히면 최종적으로 회곽과 유사한 강도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하지만 아쉽게도 그러한 가능성을 확실하게 증명해줄 만한 자료가 확보되지 못한 상황이기에 단정짓기 어렵다.

이와 함께 좀 더 고려되어야 할 사안으로서 和尚溝의 C구와 D구에서 보고된 十二臺營子文化 단계 무덤 중 목관 외부로 석곽이 부가된 사례이다. 이와 유사한 구조가 十二臺營子유적에서도 보고되었으나 도면이나 사진이 제공되지 못하였기에 그 명확한 구조는 알 수 없다. 다만 동시기에 병행된 內蒙古 東南部の 夏家店上層 단계의 小黑石溝와 南山根, 夏家店遺蹟 등에서 유사한 형태가 보고되어 대략적인 구조를 유추할 수 있다. 이러한 石槨木棺墓는 다시 세 가지 형태로 구분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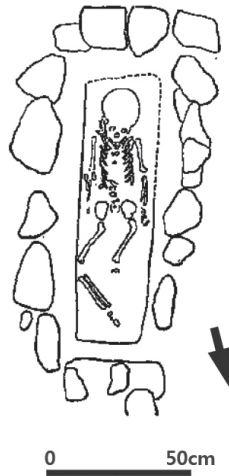
첫 번째는 小黑石溝와 南山根유적을 대표로 하는데, 구조를 보면 土壙 내부로 석곽을 정교하게 쌓은 후 그 내부에 木棺을 둔 형태이다. 木棺 위로는 다시 다량의 석재를 쌓거나 혹은 흙을 채워 봉분을 두었다(도 5-1). 두 번째는 夏家店上層遺蹟에서 淺壙墓로 보고된 13호무덤이 대표적이다(도 5-2). 구조를 보면 얇은 토광 내부로 할석재를 1층 가량 둘러놓고 그 내부에 목관을 둔 형태이다. 상부는 봉토로 마무리하였다. 세 번째는 夏家店上層의 17호무덤을 예로 든다. 구조를 보면 土壙과 木棺 사이에 진흙과 함께 석재를 다져 놓은 형태인데 목관 둘레의 석재들은 木棺의 단벽이나 장벽 일부구간에만 간헐적으로 배치되었다(도 5-3). 이와 동일한 구조가 魏營子文化의 분포권인 大凌河 상류지역 建平 水泉유적의 중층 8호무덤에서도 확인된다(그림 5-4).

이 중 특별히 주목되는 부분이 바로 세 번째 구조로, 진흙과 석재를 섞어 다져놓은 점에서 현대의 시멘트공법이 연상된다. 이러한 시멘트 공법의 차용은 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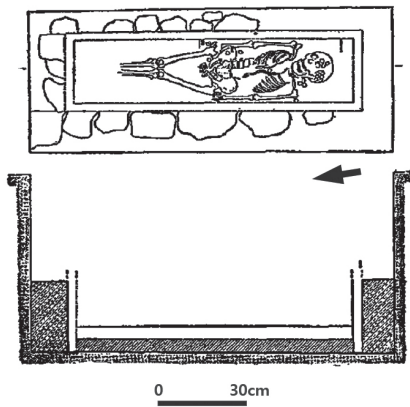
지식백과, “돌방무덤에서 회격무덤으로”, 『장례의 역사』, 2006, 서해문집, 2018, 10.15. 검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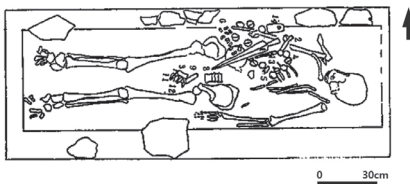
1. 小黒石溝 85년1호묘(85NDXA1M1)



2. 夏家店 13호묘



3. 夏家店 17호묘



4. 建平 水泉 중층 8호묘

그림 5 夏家店上層文化의 석곽목곽묘 구조

시 부식되거나 쉽게 파괴되기 쉬운 목질 장구의 보호에 목적을 두었음이 분명해 보인다. 그렇다면 석재와 함께 사용된 진흙의 재질은 회반죽일 가능성이 농후한데, 시멘트와 회반죽의 주요 구성 성분이 석회가루라는 점에서 양자의 사용목적과 기능은 유사한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夏家店유적이 1960년에 발굴된 정황에 비추어 당시 이러한 회반죽의 기능이나 중요성이 간과되어 보고내용에 누락되었을 수도 있다.

이러한 양상을 魏營子무덤의 회반죽 현상과 비교하기 위하여 建平 水泉유적의 사례를 검토하고자 한다. 해당 유적에서는 夏家店下層과 上層文化 그리고 戰國 燕文化 등으로 이어지는 3개의 문화층위가 보고되었다.⁴¹ 보고서에서는 이들을 水泉 하·중·상층 문화층(유존)으로 명명하였고, 이 중 중층에서 주거지 13기와 무덤 18기가 발굴되어 일괄적으로 夏家店上層文化에 귀속되었다. 그런데 앞서 언급한 중층 8호무덤의 경우 鏃柄式銅劍과 齒柄銅刀 등 夏家店上層文化의 전형유물이 출토된 반면, 주거지 관련시설물에서는 화변구연력 2점이 출토되어 魏營子文化와 연관된 것으로 해석된다.⁴² 이를 근거로 建平 水泉유적은 魏營子文化 후기에 적봉지역의 夏家店上層文化인들이 이 지역 일대로 진출하였다는 증거로 활용되기 시작한다.⁴³

그동안 魏營子文化의 주요 분포권인 大·小凌河流域에서는 魏營子-十二臺營子文化로 연결되는 층위관계가 다수 확인된 바 있다. 반면 魏營子文化層이 夏家店上層文化와 중복관계를 이루는 사례는 거의 찾아볼 수 없다. 1990년대 초반까지 十二臺營子文化를 夏家店上層文化의 하위유형으로 보

41 遼寧省博物館·朝陽市博物館, 1986, 앞의 글.

42 중층에서 발굴된 13기의 주거지는 모두 파괴되어 구체적인 양상을 알 수 없었다. 보고서는 대략적인 잔존 현황에 대한 설명만 소개하였을 뿐 출토유물을 비롯하여 동 일문화층에서 조사된 18기 무덤들과의 관계 등을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다. 출토된 2점의 화변력이 각각 T27②:3과 T9H6:1로 편호된 정황으로 보아, 주거지 출토품으로 볼 수는 없고 같은 층위 내 관련시설물에서 찾아진 것으로 판단된다.

43 童新林, 2000, 앞의 글, 11쪽.

는 인식이 강하였던 탓에 당시의 보고서에서 夏家店上層(실제로는 十二臺營子文化層)과 魏營子文化層이 중첩되었다는 내용을 확인할 수는 있지만, 사실상 이들의 대부분이 十二臺營子文化에 해당되어 실제 夏家店上層과 魏營子 단계문화층이 중복관계를 이루는 사례는 建平 水泉유적이 거의 유일한 사례로 볼 수 있다.⁴⁴ 따라서 水泉유적의 경우, 적어도 중층문화층에서 확인되는 두 갈래 계통의 문화집단은 상당히 친연성이 강할 것으로 예상된다. 요컨대 和尚溝 C와 D지점에서 확인되는 석곽목관묘의 구조는 비록 문화의 성격에는 차이가 있지만 시간적으로 병행관계에 있는 水泉 중층 8호묘와 비교될 수 있으며, 이는 다시 魏營子무덤의 회반죽과 연결되어 회곽에서 석곽으로의 변화상을 유추해볼 수 있겠다. 즉 和尚溝유적의 A와 C~D지점 무덤들의 관계는 목관묘에서 석곽목관묘로의 단순 전환이 아닌, 목관묘-회곽목관(추정)-석곽목관묘로의 단계별 변화상도 고려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무덤의 구조적 변화에서 확인되는 일련의 연속적 속성은 동일지역 내에서 시간차를 두고 전개된 두 문화 간의 혹은 주민집단 간의 연관성을 살피는 데 한 자료가 될 수 있다.⁴⁵

다음은 무덤 내 장속 특징과 부장 양상에 관하여 검토해보자. 먼저 和尚溝 遺蹟은 대략 250m 범위 내의 산줄기를 따라 A~D의 4개 지점으로 구분되어 있다. 그중 A지점은 전체 무덤구역 내 가장 중심적 위치에 자리하며 나머지 B~D지점은 그 동서 양쪽의 산사면 하단부에 배치되었다. 이 중 魏營子 단계에 속하는 A지점의 4기 무덤은 20m의 간격을 두고 마름모꼴로 배치되었으며, 葬

44 中國《人民日報》의 2018년 6월 19일자 보도에 따르면 敖漢旗 林家地鄉 熱水湯村에서 魏營子文化와 夏家店上層文化시기에 해당되는 무덤 3기가 발굴되었다고 전한다. 아직까지 구체적인 조사내용이 공개되지 않아 유구 간의 중복관계인지 혹은 동시기 병존관계인지는 명확하게 알 수 없다(<http://www.kaogu.cn/cn/xccz/20180619/62283.html>//2018년6월21일자검색).

45 이와 관련된 내용은 향후 十二臺營子文化 단계 무덤과 비교하는 과정에서 보다 구체적으로 다루기로 하겠다. 본 절에서 해당 내용을 간략하게나마 언급함으로써 그 단계적 변화상과 상호 연관성에 대한 가능성 및 관련 연구의 필요성을 제시하고자 한다.

法은 모두 單人의 仰身直肢葬으로서, 머리는 동쪽에 두었다. 또한 묘실 내부 부장품의 배치 양상을 보면 토기류는 모두 머리 쪽에 놓여 있으며, 청동기와 석기 등은 발치 쪽에 부장되어 있는 공통점을 보인다. 이와 동일한 특징이 魏營子遺蹟에서도 확인된다. 발굴된 9기의 무덤 중 인골이 확인된 것은 7101호 단 1기에 불과한데, 묘실 동단 쪽에서 머리장식인 녹송석과 치아 조각이 검출된 점에서 두향이 동쪽으로 판단된다. 또한 부장품은 청동기만 확인되었는데, 모두 시신의 발치 쪽에 배치되어 和尚溝 A지점과 동일하다.

부장품 종류를 보면 魏營子 7603호에서 투구와 獸面當盧 등이, 7101호에서 각종 다양한 형태의 수레부속과 방울장식, 양머리 장식 등이 출토되었다. 和尚溝 A지점 1호에서는 중원계 청동예기인 銅卣, 銅壺 등이, 토착계 토기인 無文鉢과 繩文鉢 및 초원계로 볼 수 있는 금팔찌 2점과 공반되었다. 그중 중원계의 銅壺 내부에는 말조개껍질 70여 점이 담겨 있어 일종의 제의용 부장품으로 판단된다. 인접한 高家洞무덤에서도 중원계의 銅甌가 토착계 토기조합(발류) 및 녹송석 구슬과 공반되었다. 魏營子유적의 사례로 보아 이러한 녹송석은 머리장식으로 예상되는데, 출토지점으로 보아 역시 두향은 동쪽으로 판단된다. 高家洞유적에서 중원계 청동기는 그 출토지점이 불명확하지만, 토기는 다리 쪽에 배치되어 和尚溝유적과 차이를 보인다. 道虎溝유적의 보고서는 아직 정식으로 발표된 바 없지만, 郭大順의 소개에 의하면 파괴된 무덤 내부에서 중원계의 청동거울 1점과 토착계 繩文鉢 1점 및 옥걸 1점, 초원계 청동귀걸이 5점이 공반되었다.⁴⁶ 아쉽게도 유물의 출토 정황은 알려진 바가 없다. 이 외에 和尚溝 A지점 2호 무덤에서는 토착계의 罐 1점이 머리 쪽에서 청동귀걸이와 공반되었고 인접한 3호와 4호에서는 역시 머리 쪽에서 토착계 토기류만 확인된다. 이 중 3호무덤의 경우 발치 쪽에서 돼지발굽이 확인되었는데, 高家洞무덤의 채움토에서 확인된 양머리뼈와 함께 동물순생 습속의 흔적으로 추정된다.

이상의 내용을 종합하면 魏營子文化 단계에 喀左와 朝陽 일대를 중심으로

46 郭大順, 1987, 앞의 글, 81쪽.

〈표 4〉 魏營子文化 무덤의 장속 및 부장 특징

유적	매장방식		두향	부장품 배치			기타
				청동(석)기	토기	장식품	
和尙溝 A지점	單人	仰身直肢葬	동쪽	발치	머리 쪽	착장	돼지발굽(발치 쪽) 부장 銅壺(발치 쪽) 내 조개 70여 점
魏營子	單人	仰身直肢葬 (추정)	동쪽	발치	-	착장	채움토 내 전형 토기편
高家洞	單人	仰身直肢葬 (추정)	동쪽 (녹송석)	?	발치 쪽	착장	채움토 내 양머 리뼈
道虎溝	-	-	-	출토지 불명확			-

활동했던 사람들은 주로 단인의 양신직지장 및 두향을 동쪽으로 두는 매장풍습을 공유하였으며, 청동기나 석기류는 주로 주검의 발치 쪽에, 토기류는 머리나 발치 쪽에 나누어 배치되는 양상을 보인다. 道虎溝유적의 부장품 배치관계가 알려진 바 없어 좀 더 유의미한 고찰은 어렵겠지만, 정황상 주요 부장품이나 제의용 동물들(조개 포함)은 주로 발치 쪽에 배치되는 보편성을 확보할 수 있다.

한편 무덤 내 부장되는 토착계 토기의 대부분은 외면이 마연된 진흙질의 紅陶이거나 굵은 모래가 섞인 홍갈색 혹은 회색토기가 섞여 있다. 대부분 손으로 빚은 후 낮은 온도에서 굽기 때문에 외면이 거칠고 경도가 약하다. 즉 부장만을 위해 특별히 제작된 고급명기와 같은 성격은 찾을 수 없다. 관과 호류는 무문이 많지만 발과 분 등에는 승문이 자주 확인된다. 승문이 장식될 경우 대부분 기면조정을 하여 무문화한 흔적이 뚜렷하다. 단순히 식기 정도로 사용되었을 도구에 왜 이처럼 번거로운 공정을 추가하였는지에 관해서는 좀 더 고민해볼 문제이겠지만, 해당 지역에서 이러한 기면조정의 특징이 크게 유행되는 단계를 거쳐 완전한 무문화로 전환된다는 점만은 동시기 주변에서 찾을 수 없는 고유한 특성이 된다. 이러한 특징의 승문발이 단독 부장되거나 무문 鉢 혹은 盃이나 罐, 瓮 등과 조합되는 것 역시 해당 지역의 독특한 부장 특징이 된다. 아울러 무덤 내에서

는 魏營子 단계의 생활유적에서 거의 예외 없이 출토되는 화변력을 부장하지 않는 점에서 공통성을 보이는데, 이처럼 무덤 내 부장 토기를 생활유적의 것과 구분짓는 특징, 그중에서도 특히 삼족기를 부장하지 않는 전통은 동시기 요북 평원지역의 高臺山文化에서도 확인되어 양자의 장속 특징이 유사함을 지적할 수 있다.⁴⁷

앞서 상주교체기 大·小凌河流域 일대 물질문화를 관통하는 가장 주요한 특징으로서 승문을 장식한 후 기면조정된 토착계 토기를 제시하였다. 무덤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러한 토기양식은 부장토기에서도 동일하게 관찰되며, 이와 함께 주검의 머리를 동쪽으로 안배하여 단인의 양신직지장으로 매장하는 습속 및 주로 발치 쪽에 중요 유물을 배치하는 특징, 묘제는 대부분 목관묘를 사용하는 보편성을 확보할 수 있었다.

이상의 무덤들은 비록 현재적 기준에서 볼 때 朝陽과 喀左라는 지역적 구분이 가능하지만, 사실상 모두 大凌河상류라는 동일한 생활권에 속할 수 있다. 물론 朝陽과 喀左 일대 무덤군 간에는 유물구성에서 일정한 차이가 존재할지라도, 이는 무덤의 조성연대나 피장자의 성격 차이라는 측면에서 충분히 이해될 수 있다. 중요한 것은 그러한 무덤의 구성과 의례과정에서 주요하게 작용되었을 정신문화의 공유, 즉 장속 특징(매장풍습과 부장 양상)의 보편성이다. 당시의 정신문화 혹은 신앙체계를 알려주는 자료가 매우 제한적인 상황에서 이러한 묘제 전반의 보편성은 상당히 희소성을 가진 정보라고 할 수 있다.

喀左縣 일대 청동기 매납유적에서는 대부분 중원계의 청동예기만 출토된다. 이러한 유적의 성격을 오로지 청동기의 매납이라는 목적만을 부각시킨다면, 이 외에 토착계 토기나 장신구류가 조합되지 않는 양상이 그다지 어색하지 않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본고에서 새롭게 정의하는 魏營子文化의 유적에서는 카라숙계 청동기들이 확보된 바 없다. 이 역시 喀左縣 일대 청동기 매납유

47 이와 관련된 내용은 오대양의 글(2017, 「고대산문화의 묘제와 장속 특징-하가점 하층문화와 비교를 중심으로」, 『동양학』 66)을 참고할 수 있다.

적의 성격이, 인접한 河北 抄道溝나 興城 楊河, 綏中 馮家村 등 카라숙계 청동기 매납유적과 다르게, 魏營子집단에 보다 가까울 수 있음을 보여준다. 동일한 종류의 예기류가 토착계 토기류 및 장신구와 함께 喀左縣 일대 무덤에서 확보된 점 역시 그러한 가능성에 무게를 더해준다. 동일한 맥락에서 무덤 내 부장토기 중 화변력이 보이지 않는 현상은 당시 요하유역 일대 부장풍습 중 하나로 해석할 수 있다. 동일한 양상이 高臺山文化에서도 확인되는데, 예를 들면 생활유적 내 보편적으로 확인되는 삼족기 계열의 토기들이 부장품에서 제외되거나, 대부분의 유물이 발치 쪽에 배치된 점이 그러하다. 부장토기 중 가장 전형성을 보여주는 것으로 기면조정된 승문발이 부각된다. 이러한 종류의 토기는 생활유적인 義縣 山河營자와 喀左 后墳, 朝陽 魏營子文化層 및 유일하게 주거지가 발굴된 義縣 向陽嶺유적에서도 다수 확보되어, 이들을 실제 유사한 생활습관과 매장풍습 등을 공유한 단일한 문화집단으로 볼 여지가 생긴다. 다만 그간 魏營子文化의 전형유적으로 거론되던 阜新 平頂山유적은 문화층 내 유물공반상에서 동시기 주변지역 여러 계통의 문화내용이 복합된 점, 화변력 외에 승문발 등이 조합되지 않는 양상, 모제와 부장 양상의 차이점 등에서 魏營子文化에서 제외하고자 한다.⁴⁸ 아울러 요서와의 접경지역에 배치된 興城 楊河, 綏中 馮家村, 河北 抄道溝 등의 카라숙계 청동기 매납유적과 努魯兒虎山 이서지역의 赤峰지역 일대에서 간헐적으로 확인되는 청동예기 출토유적 역시 본고의 魏營子文化의 범위에서 제외시키고자 한다. 이렇게 볼 때 소위 魏營子文化로 특정되는 상주교계기 요서지역 일대의 물질문화는 大·小凌河流域으로 한정될 수 있으며, 大凌河상류의 喀左와 朝陽 일대를 그 중심 생활권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렇게 볼 때 그간 魏營子文化의 가장 대표적인 주거유적으로 거론되어 왔던 義縣 向陽嶺유적에서 중원계 청동기를 비롯하여 초원계의 청동장신구류 등이 확보되지 못한 점이 설명될 수 있을 것이다. 향후 大凌河상류지역의 조사 성과에 기대를 가져본다.

48 오대양, 2019, 앞의 글, 148쪽.

현재까지의 분석자료를 대상으로 본고에서 새롭게 정의하는 魏營子文化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문화의 분포범위는 大·小凌河流域으로 한정되며 연대범위는 상주교체기로 특정되는 기원전 13~10세기로 편년된다. 둘째, 해당 문화의 구성원들은 자체적인 청동기 제작기술을 확보하지 못하였다. 아울러 중원계 청동예기는 유사한 문화내용을 보이는 河北지역 주민집단과의 교류 속에서 제한적으로만 확보할 수 있었다. 셋째, 이들의 생계방식은 소규모의 정주생활이 인정되지만, 농경의 흔적은 극히 제한적이며, 수렵과 목축 위주의 생활방식을 유지하였다. 넷째, 묘제와 장속 특징 및 생활토기의 유사성에서 高臺山文化和 친연성이 강하다. 다섯째, 당지의 선행문화인 夏家店下層文化和 생계방식, 부장 특징 및 시간적 단절성 등 측면에서 고려할 때 상호 이질성과 비연속성이 강하다. 마지막으로 화변구연력의 보편적 사용과 초원계 장신구류의 유행이



라는 측면에서 魏營子文化의 형성과정에는 초원계 물질문화가 일정부분 개입되어 있다. 다만 그 핵심이 되는 청동 도구나 무기류가 부재한 점에서 주변집단에 대한 약탈적 생계방식은 고려될 수 없다.

아마도 魏營子文化의 형성 배경에 대하여, 夏家店下層文化의 소멸 이후 당지에 잔류하였던 일부 사람들이 동쪽의 高臺山文化人들과 상호작용하면서 동시에 중원과 河北지역을 거쳐 유입되어 오던 외래계 물질문화를 제한적으로 받아들이는 과정을 거쳐 구축된 것으로 생각해볼 수 있을 것이다.⁴⁹

III. 중원지역과의 상관성 검토

그간 중국 학계에서는 略左縣 일대 청동기 매납유적의 사례를 들어 당시 중원 세력이 요서지역까지 진출한 증거로 해석하는 경향이 존재해 왔다. 이와 함께 앞서 살핀, 魏營子文化 관련 무덤자료의 내용들이 상주교체가 중원지역과 닮아 있는 점 역시 중요하게 거론되는 듯하다. 특히 중원과 요서의 중간지대에 위치한 昌平 白浮유적에서 조사된 서주 초기 연계무덤이 魏營子유적과 유사하다는 점에서 그러한 주장에 힘을 실어주게 된다.

그런데 사실상 魏營子文化의 묘제가 주로 목관묘 양식을 채용하였다는 점을 제외하면, 무덤의 구조나 제반 특징들에 있어서 중원지역과 별다른 유사성이 발견되지는 않는다. 실제 중원지역과의 연관성이라는 것은, 白浮유적과의 유사성에서 비롯된 일종의 확대해석에 불과할 뿐이다. 白浮유적의 성격에 대해서는 그간 다양한 논의가 전개되어 왔으나, 주로 河北지역 내 토착세력이 상주교체가 중원문화의 영향을 받아 형성된 것으로 파악하는 듯하다. 따라서 그와 유사성이 언급되는 魏營子文化 역시 그 연장선상에서 이해하려는 의도가 다분하다.

白浮유적은 北京市 인근의 昌平區 동남쪽으로 8km 지점에 위치한다.

49 오대양, 2019, 앞의 글, 158쪽.

1975년 3기의 목곽묘가 발굴되었고, 내부에서 수백여 점의 청동기와 소량의 토기 및 옥·석기, 갑골편(西周帶字甲骨殘片) 등이 출토되었다. 발굴 당시 무덤의 구조와 장속 특징 및 출토유물 종류가 河南 浚縣 辛村, 陝西 灃西 西周墓 및 차마갱, 北京 房山 琉璃河 상주묘 등의 그것과 유사하여 크게 주목받게 된다.⁵⁰

1호무덤은 대부분 파괴되어 구체적인 양상을 알 수 없지만, 잔존형태로 보아 두향을 북쪽으로 둔 양신직지장묘로 판단된다. 피장자는 노년의 남성이며, 부장품은 허리 부근에서 소형 옥벽 1점이 발견되었다. 2호무덤은 1호 동쪽에 위치한다. 묘광 중앙부로 목곽이 설치되었는데, 관곽의 덮개는 이미 파괴되어 구조를 알 수 없고 바닥부만이 완전하게 보존된 상태였다. 잔존한 관곽의 구조를 보면 단벽 쪽의 횡판에 구멍을 내어 장벽 종판의 끝을 끼워 넣음으로서 견고하게 맞물림을 한 흔적이 보인다. 또한 토광과 목곽 사이에 白膏泥(고령토 계열의 백색 진흙)를 20cm 정도 채워 넣었고, 바닥에도 60cm 가량 깔아놓았다. 바닥 중부에 길이 1.15m, 너비 0.45m, 깊이 0.25m 정도의 타원형 요갱이 관찰되는데, 내부에는 시신의 두향과 일치되는 개의 골격이 확인(순생)되었다. 시신은 단인의 양신직지장으로 매장되고, 두향은 북쪽으로 하는 중년 여성의 무덤이다. 바닥에서는 흑홍색의 직물흔이 관찰된다. 부장품은 머리 쪽과 주검 동서 양쪽에 배치되었다. 그중 토기와 청동예기는 피장자의 머리 앞쪽에, 병기류는 양쪽에 배치하였으며, 依甲과 玉角 등 장식품은 착장 상태로 부장된 듯 보인다. 이 외에 대량의 수레부속이 한 무리를 이루어 배치되었는데, 아마도 관곽 상부의 덮개에 배치된 것이 매몰되면서 쌓인 현상으로 추정되었다.

3호는 1호 남쪽에 위치하며 2호와 동일한 구조이다. 목재의 잔존형태가 좋지 못하였는데, 이는 관 둘레에 채워진 백색 진흙(白膏泥)이 얇은 점이 원인인 것으로 보인다. 관곽의 덮개는 잘 보존되었으나 바닥으로 무너져 내린 상태였다. 두향은 북쪽이며 양신직지장된 중년 남성의 무덤이다. 역시 바닥 중부에 타

50 北京市文物管理處, 1976, 「北京地區的又一重要考古收獲—昌平白浮西周木槨墓的新啟示」, 『考古』 4, 246~258, 281~284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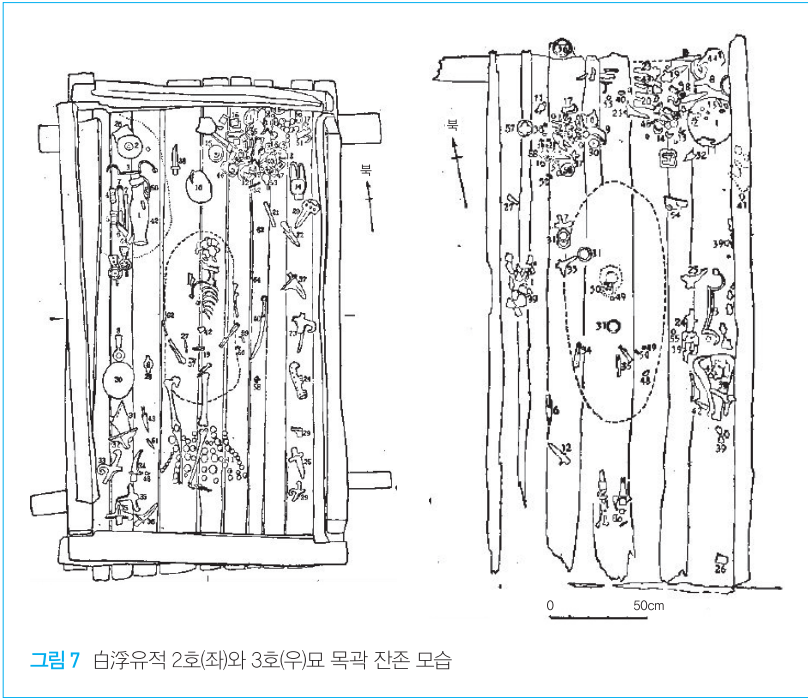


그림 7 白浮유적 2호(좌)와 3호(우)묘 목곽 잔존 모습

원형의 요갱이 존재하나 그 내부에 순장물은 남아 있지 않았다. 곽 내부 바닥에는 흑홍색 침적물이 퇴적된 가운데 주사가 섞여 있었다. 卜甲과 卜骨 및 부장품이 주검의 머리 앞과 동서 앞쪽에 배치되었고, 1점의 鬲 내부에는 소형의 동물 머리뼈가 담겨 있는데 이는 부장된 육류의 잔골로 판단되었다.

이상 3기의 무덤에서 출토된 유물은 청동기와 토기, 石, 玉, 骨, 牙器와 卜甲, 卜骨, 貝飾 등 총 600여 점에 이른다. 먼저 청동기는 무기와 도구, 예기와 수레부속(車馬具) 등으로 구분된다. 먼저 무기류로서 30여 점의 戈와 戟 9점, 短劍 6점 등이 대표적이며, 이 외에 刀, 匕首, 斧, 鉞, 矛 등이 1~2점씩 보이며, 또한 투구(盔) 2점과, 弓形器 2점 및 다수의 무기·장신구류(甲과 盾飾)가 확인된다. 도구류는 斧 2점, 鎖 2점, 鑿 3점이, 예기로서 穿帶壺 1점과 銅簋 3점, 銅鼎 3점 등이 있다. 수레부속은 주로 軛와 轄, 當廬, 節約 등으로 구성되

는데, 이 외에도 장식적 속성을 지닌 長方形銅飾(92점)과 角形飾, 馬冠, 竹節形飾, 圓鏡形飾 등이 확인된다. 이 중 轄과 當盧, 節約, 長方形銅飾 등이 魏營子무덤 출토품과 상당히 닮아 있으며, 가죽신발의 장식으로 볼 수 있는 泡飾類와 圓鏡形飾 등은 심양 정가와자유적과 거의 동류로 볼 수 있다. 이 외에 토기는 鬲 2점과 鼎 1점, 석기, 옥기, 象牙器, 貝飾 등이 있다. 이상의 내용을 정리하여 白浮유적의 각 무덤별 출토유물을 표로 제시하면 <표 5>와 같다.

<표 5> 白浮유적 무덤별 출토유물 비교

무덤	청동기	토기	기타
1호	-	-	옥기(小系璧1)
2호	무기류(戈18, 秘冒1, 戟5, 刀2, 短劍2, 矛1, 鏃2, 弓形器1, 甲125, 盾飾6), 도구류(斧1), 예기류(穿帶壺1, 銅簋1, 銅鼎1), 수레부속 다수 등	鬲1	옥기(戈1, 器把1, 瑪璃環1), 象牙器(梳子1)
3호	무기류(戈9, 秘冒1, 戟1, 短劍4, 匕首1, 斧1, 矛2, 弓形器1, 甲145, 盾飾10), 도구류(斧1, 鏃3), 예기류(銅簋2, 銅鼎2), 수레부속 다수 등	鬲1, 鼎1	석기(石錘1), 옥기(魚3, 柄形飾1, 瑪璃環1), 貝飾

이상 출토유물의 제작연대에 관하여 발굴보고서에서는, 무기류 중 각종 형식의 戈 및 수백여 점에 이르는 수레부속 등이 상주교체기 중원지역의 그것들과 유사하다고 평가하였다.⁵¹ 또한 弓形器는 은허 말기에 보이는 것과 유사하며, 도구류 중 斧, 鏃, 鏃 등은 상주교체기의 전형적 특징이 된다고 한다.⁵² 이 외에 貫耳壺⁵³은 長安 普渡村⁵⁴ 黃縣 歸城,⁵⁵ 房山 琉璃河 M253에서 출토된 것

51 中國科學院考古研究所 等, 「北京附近發現的西周奴隸殉葬墓」, 『考古』 5期, 309~321쪽.

52 「《澧西發掘報告》讀後」, 『考古』 12期, 1964, 629~632쪽.

53 보고서에서는 貫耳壺라고 제시되었지만, 출토유물 설명 중 어디에서도 해당 유물의 설명을 찾을 수 없었다. 아마도 2호무덤에서 출토된 예기류 중 穿帶壺의 오기로 보인다.

과, 銅鼎, 簋 등은 琉璃河 M54, 灋西 長家坡 M178⁵⁶에서 출토된 것과 유사하며, 縹紋陶鬲은 琉璃河 M54의 鬲과 形制가 일치한다고 보았다. 따라서 이상의 출토유물들은 늦어도 서주 초기에 귀속되는 것으로 판정하였으며, 목곽에 대한 탄소연대값 역시 B.P.3070±90년(기원전 1120년±90년)으로 측정되어 이상의 편년안에 무리가 없음을 반증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2호무덤에서 출토된 戈과 戟에 새겨진 “兪”과 “兀”의 명문 등은 서주 초기 昌平 일대에서 활동하였던 중원계 씨족의 족휘로 추정하고 있다.

이상 白浮유적의 조성연대와 그 성격 문제에 관하여 가장 쟁점이 되는 부분은 역시 무덤의 주인에 대한 해석 문제이다. 白浮유적은 무덤의 구조와 출토유물 정황상 전형적인 서주시기 무덤으로 볼 수 있다. 하지만 서주 초 연의 세력범위로 확실시되는 琉璃河유적보다 훨씬 북쪽에 위치한 점(영정하 이북)과 주변지역 동시기 유적에서 거의 발견되지 않던 갑골 및 전형적인 형태의 초원계 무기류가 상당수 출토된 점으로 보아 온전하게 중원계 유적으로만 보기도 어렵다. 특히 2호의 묘주는 중년 부인인데, 상당량의 무기류와 갑골이 부장되어 있어 북방민족의 여성무사로 해석되기도 한다.⁵⁷ 또한 유사한 양상을 보이는 서주시기의 여성 무덤 및 상대의 부호묘 등과 비교되면서 그녀 역시 당대의 ‘여장군’이었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⁵⁸

주지하다시피 白浮유적의 유물구성은 상주교체가 중원계와 토착계 요소를 아우르고 있다. 그렇다면 해당 유적의 성격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3가지 가능성이 존재한다. 첫째는 서주 초기 연나라와 관련된 유적이며, 둘째는 당대 河北지

54 何漢南, 1957, 「長安普渡村西周墓的發掘」, 『考古學報』 1期, 75~85쪽.
 55 齊文壽, 1972, 「概述近年來山東出土的商周青銅器」, 『文物』 5期, 3~18, 66, 70쪽.
 56 中國科學院考古研究所等, 1974, 앞의 글, 309~321쪽.
 57 韓建業, 2011, 「略論北京昌平白浮M2墓主身分」, 『中原文物』 4期, 36쪽.
 58 陳平, 2006, 앞의 글, 72쪽; 韓金秋, 2008, 「白浮墓葬的微觀分析與總觀比較」, 『邊疆考古研究』 7輯, 110~112쪽.

역 토착문화의 중심이 되는 張家園上層文化人들이 중원계 요소를 받아들여 형성되었을 가능성, 셋째는 상유민과 관련된 유적 등이다. 먼저 발굴보고서에서는 서주 초기 北京지역까지 연이 진출한 증거로 해석하였고, 陳平 등이 그에 대한 확장연구를 발표하면서 현재 많은 수의 연구자들에게 수용되고 있다.⁵⁹ 반면 白浮유적의 위치와 연대범위가 張家園上層文化에 속하기 때문에 중원문화에 영향을 받은 토착세력의 무덤⁶⁰ 혹은 서주문화와 상호작용하였던 지역 엘리트라는 입장이 존재한다.⁶¹ 이 외에 白浮 2호무덤에서 출토된 戈와 戟에 새겨진 “兪”과 “兀” 등의 명문이 갑골문의 其族(眞族) 혹은 其國과 관련된 족휘라 보고 상유민인 其族(眞族)이 토착화하는 과정에서 남긴 유적이라는 견해도 제시된 바 있다.⁶²

“兪”과 “兀” 등의 명문과 관련해서는 이러한 문양들이 유라시아 초원지역에서 자주 발견되는 사슴돌에 새겨진 고리문양과 닮아 있음을 지적한 韓金秋의 견해도 주목된다.⁶³ 그는 ‘其’자의 하반부로 추정되는 “兀”형 도상이 상주 갑골문에서는 보이지 않으며 전국시기에 이르러서야 확인된다는 점을 지적하며, 白浮유적의 “兪”나 “兀”자 도형은 其자와 상관이 없을 가능성을 제기하였다. 이러한 도상은 초원지역에서 말을 타고 다니던 유목민족들을 형상화했을 가능성이 높는데, 상대 후기의 수레 관련유물이 중원지역에서 강세를 보이는 점 역시 이와 관련되었을 것으로 추론하였다. 아울러 白浮유적의 청동무기류에서 관찰되는 여러 특징들이 동시기성을 보이는 카라숙계 청동기들과 상당히 닮아 있는 정황 속에서, 해당 유적의 형성과정에 이러한 북방 초원계 세력들의 영향이 강하게 작용되었음을 강조하고 있다. 비록 그의 가설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보다

59 陳平, 2006, 앞의 글, 72~74쪽.

60 烏恩岳斯圖, 2007, 앞의 책, 259쪽.

61 배진영, 2009, 앞의 책, 96쪽; 오강원, 2011, 앞의 글, 19~20쪽.

62 박대재, 2010, 앞의 글, 130쪽; 박상빈, 2014, 앞의 글, 220쪽.

63 韓金秋, 2008, 앞의 글, 109쪽.

다양한 자료와 비교·검토할 필요가 있지만, 이러한 무기류에 시문된 명문이 반드시 묘주가 소속된 중원계 씨족을 가리킨다는 증거 또한 없기에 그 가능성만은 충분히 인정될 수 있을 것이다.

다음으로 白浮유적의 조성연대에 관한 문제를 살펴보자. 발굴보고서에서는 출토유물이 주변지역 서주 초기 유적과 유사한 점과 탄소연대측정값을 통해 서주 초기로 판정하였다. 그러나 최근에는 白浮유적 출토 청동예기의 사용시기가 서주 중기까지 내려올 수 있으며, 특히 2호와 3호에서 각 1점씩 출토된 기고가 낮은 형태의 繩文陶甗은 서주 중기의 전형적 특징이 된다는 점에서 그 연대범위를 서중 중기 혹은 그보다 늦은 단계일 가능성이 제시되고 있다.⁶⁴

이와 관련해서는 2014년 발표된 박상빈의 연구에서 매우 구체적으로 논증된 바 있기에 참고할 수 있다.⁶⁵ 그의 분석에 의하면 白浮유적의 위치는 전통적으로 연나라의 세력범위로 인정되는 영정하의 이북지역에 해당된다. 만약 해당 유적이 張家園上層文化에 귀속된다면 해당 문화의 전형적 특징이 확인되어야 할 것인데, 두 유적 간에는 상당한 차이가 존재한다. 예를 들면 張家園上層文化에서는 목관(곽)묘, 토착계통의 승문력, 화변구연력, 중원지역에서 발견되지 않는 금귀걸이 등의 북방계 장신구, 서주 청동예기 등이 보편적으로 확인된다. 이러한 요소 중 일부는 白浮유적과 닮아 있지만, 특히 토착계 요소 중 귀걸이와 팔찌 등의 북방계 장식품이 발견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아울러 몸체부 전체에 가는 승문이 시문되어 있는 회색의 화변구연력이 부재한 점 역시 부각되는 점이다. 張家園上層文化 계열의 유적에서도 중원식 예기의 존재와 북방계 금귀걸이의 공반 여부 등에 따라 토착계와 중원계로 나누거나 토착계와

64 林滢, 1994, 「早期北坊系青銅器的幾個年代問題」, 『內蒙古文物考古文集』 1輯, 中國大百科全書出版社, 293쪽; 陳光, 1999, 「北京考古五十年」, 『新中國考古五十年』, 文物出版社, 10~11쪽; 烏恩岳斯圖, 2007, 앞의 책, 255~256쪽; 韓金秋, 2008, 앞의 글, 104쪽; 董新林, 1998, 「魏營子文化的界定及相關問題略論」, 『青果集』, 知識出版社, 190쪽; 趙賓福, 2005, 앞의 글, 61쪽.

65 박상빈, 2014, 앞의 글, 217~220쪽.

중원계가 공반된 사례로 분류될 정도로 보편적인 유물이, 白浮유적에서는 보이지 않는 점에서 해당 유적의 성격을 가늠할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서주 연의 전형유적인 황토파 무덤의 형식이나 장속 특징, 부장품 등과 상당히 유사한 점을 주목한다면, 白浮유적이 張家園上層文化보다는 중원계에 가깝다는 사실을 보다 확신할 수 있을 것이다. 아울러 白浮유적에서 확인되는 요갱과 그에 순장된 개의 골격 등은 河北지역 토착 무덤에서 볼 수 없는 현상이며, 이러한 특징은 은허 등지의 전형적인 중원계 무덤에서만 확인되고 있다. 특히 卜甲이 상당수 발견된 것은 무덤 주인이 상나라와 관련된 인물인 점을 시사해준다. 다만 白浮유적에서 발견되는 북방식 무기류는 유리하나 황토파 같은 주변지역의 서주 무덤에서는 보이지 않는 것으로서, 이는 무덤 주인이 중원지역에서 이주하여 토착화하는 과정을 보여주는 사례가 될 수 있다. 따라서 출토유물의 정황을 따져 볼 때 白浮유적은 張家園上層文化에 귀속되는 토착세력의 무덤으로 판정하기에 무리가 있으며, 유적의 조성연대는 서주 중기로 보는 것이 합당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그런데 이처럼 白浮유적의 조성연대를 서주 중기로 내려서 볼 경우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의문점이 발생된다. 먼저 白浮유적과 유사한 양상을 보이는 유리하와 황토파유적의 경우 대부분 서주 초기에 해당된다는 점이다. 황토파유적의 경우 일부 무덤은 서주 중기까지 내려오지만, 그도 논문에서 밝힌 바와 같이 무덤의 규모가 소형화되며 청동예기 역시 부장되지 않는 특징을 보인다.⁶⁶ 유리하 유적도 서주 중기에는 폐기된 것으로 보이는데, 해당 시기에는 문헌에서도 연나라 관련 기사를 찾을 수 없다. 즉 주변의 서주계에 속하는 유적들이 모두 쇠퇴하는 상황에서 중원계 유물을 다수 부장한 白浮유적만 서주 중기에 출현했다는 것이 어색하다. 특히 중원지역에서 갑골문이 서주 전기까지 사용되지만 서주 중기에는 이미 대부분 사라지는 현상을 보이는데, 하물며 그 변방지역에서 상당수의 복갑을 매장한 무덤이 조성되었다는 사실은 매우 특수한 사례로 볼 수 있다.

66 박상빈, 2014, 위의 글, 215쪽.

변방이라 오히려 중심지와 다르게 갑골문화가 오래 남아 있었을 수도 있겠으나, 갑골문화가 해당 지역에서 초기부터 지속되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다른 사례가 확인되지 않는다는 지적 역시 받아들일 만하다.⁶⁷

하지만 白浮 2호와 3호에서 출토된 기고가 낮은 형태의 승문도력이 대체로 서주 중기 무렵부터 출현한다는 林灃의 지적 역시 무시할 수 없다.⁶⁸ 아직까지 서주 초기로 판별되는 유적에서 유사한 형태의 토기류가 확인되지 못한 점이 주요한 근거가 된다. 파손되기 쉬어 장기간의 연용이 어려운 토기의 경우에 특정한 제작기법과 형태적 변화에 따라 시기편년이 가능하다는 다수의 고고학적 정황으로 볼 때, 白浮유적의 승문도력은 현재까지의 자료만을 근거로 하여 서주 중기로 편년될 가능성이 보다 높다. 또한 탄소연대측정에 활용된 시료가 목곽으로 사용된 목재의 잔존물이라는 점에서 목곽의 매장연대를 보여주는 것은 아닐 것이다. 다소 이해하기 어려운 측면이 존재하는 것도 사실이지만, 추후 편년에 활용될 좀 더 구체적인 자료가 확보되기 전까지, 白浮유적의 연대범위는 서주 중기 전단으로 잠정적인 결론을 내리고자 한다.

이상의 내용을 종합하면 白浮유적의 조성 배경은 서주 중기 전단부로 편년되는, 기원전 10세기 무렵 중원계 세력이 당시 서주 연의 중심지 외곽에 거점한 토착집단에 성공적으로 안착되는 과정으로 추론할 수 있다. 당시 연의 거점인 유리하 일대는 서주 왕실의 강력한 통제력이 작용되었을 것이기에, 그 외곽인 영정하 이북지역에 정착한 사람들은 그와는 조금 다른 성격의 세력집단으로 예상된다. 보존 상태가 가장 양호한 2호무덤의 경우 묘주가 중년 여성이라는 점에서, 두 집단 간의 혼인과 같은 교류상도 생각해볼 여지가 있다. 해당 여성은 비록 중원계이기는 하지만 토착집단 내에서도 상당한 지위를 가진 남성과 결합하였기에, 두 집단의 위세품들을 고루 확보할 수 있었을 것이다. 여기에 토착계의

67 이러한 견해는 현재 필자와 함께 河北지역 토착문화의 성격에 관하여 별도의 논고를 준비 중인 조원진 선생의 의견을 반영한 것이다. 해당 논고가 아직 정식으로 발표되지 못한 상황이기에 저자의 동의를 구하여 그 주된 논점만을 인용함을 밝혀둔다.

68 林灃, 1994, 앞의 글, 293쪽.

장식품이 없는 점과 무덤 내 요갱과 개의 순장 등 상대의 부장풍속을 지니고 있는 점에서 묘주의 출신은 상대 유이민일 가능성이 농후하다.

일반적으로 무덤 바닥의 중심부나 한쪽으로 장방형 혹은 타원형의 요갱을 조성하고 그 안에 개를 비롯한 순장물을 부장하는 풍속은 상대 무덤의 가장 전형적인 특징이다. 상대 후기의 수도인 殷墟에서 50% 이상의 무덤에서 확인되고, 특히 대형의 왕릉급 무덤에는 거의 예외 없이 확인되며, 중소형 규모의 귀족묘에서도 내용물의 차이를 보일 뿐 보편적으로 조성된다.⁶⁹ 반면 姬姓 周人의 서주 대형무덤에서는 아직까지 이러한 흔적이 관찰된 바가 없다. 소수의 중대형 무덤에서 요갱이 확인된 바 있지만, 이는 주로 鹿邑 太淸宮과 涇陽 高家堡 등지의 상대 유이민 무덤에 국한된다.⁷⁰ 따라서 이러한 요갱의 존재 유무는 해당 묘주의 출신성분을 판별하는 주요한 지표로 활용되기도 한다.

여기에 韓金秋가 제시한 “兪”과 “兀”의 도상이 초원지역의 사슴돌에서 확인되는 고리문과 연결될 수 있다면, 2호의 묘주와 교류한 토착집단의 성격 역시 그와 유사한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을 듯하다. 즉 白浮유적의 토착계 유물구성이 당대 河北지역 토착문화의 중심이 되는 張家園上層文化와 구분되는 이유로, 당시 이 지역 일대에 지속적으로 유입되던 초원계 세력과의 상호작용을 충분히 짐작할 수 있을 것이다. 이는 곧 유사한 구조의 무덤과 출토유물이 확인된 魏營子유적의 성격 및 그 조성 배경에도 일정한 단서를 제공해준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본 논의를 구체화하기 위하여 魏營子和 白浮 무덤 관련 내용을 비교하면 <표 6>과 같이 정리될 수 있다.

<표 6>을 통해 알 수 있듯이, 魏營子和 白浮유적의 무덤 구조는 목재를 葬具로 한 목관묘와 목곽묘라는 공통점을 보인다. 하지만 이러한 두 종류의 무덤은 분명히 구분되는 묘제로서, 중원지역에서는 부장품의 종류와 수량 및 무덤

69 張明東, 2016, 『商周墓葬比較研究』, 中國社會科學出版社, 117~118쪽.

70 韓巍, 2003, 「西周墓葬的殉人與殉牲」, 北京大學 碩士學位論文(張明東, 2016, 앞의 책, 118쪽 참조).

〈표 6〉 魏營子유적과 白浮유적 무덤 특징 비교

특징	魏營子유적	白浮유적	
구조	목관묘	목곽묘	
	회반죽(회고니: 석회질의 점토흙)	회반죽(백고니: 백색의 고령토 계열 진흙)	
부 장 품	청동기	중원계: 수레부속 초원계: 장신구류	중원계: 청동예기, 무기류, 수레부속 초원계: 도구 및 무기류
	토기	없음(다만 채움토 내 토착계 토기와 초원계 화변력련 포함)	서주식 승문력과 정
	옥기	없음(다만 道虎溝무덤에서 옥걸)	戈 및 魚形 장신구, 象牙器
	석기 (구슬)	없음(다만 喀左縣 일대 무덤에서 다수 확인)	石錘, 瑪璃
장 속 특 징	동물 순생	없음(다만 喀左縣 일대 무덤에서 돼지와 양골격, 바닷조개 확인)	무덤 중부 요갱 내 개 순장
	장법	단인	단인
		양신직지장(추정)	양신직지장
	두향	동쪽	북쪽
	부 장 품 배 치	토기: 없음(다만 喀左縣 일대 무덤은 발치와 머리 쪽 구분 배치)	토기와 청동예기: 머리 쪽
청동기: 발치		무기와 장식품: 착장 상태	
장식품: 착장 상태			

규격 등에서 차이를 보여 묘주의 신분을 반영하는 중요한 지표로 활용되기도 한다. 또한 초기 청동기시대 요하유역 일대에서는 이처럼 관과 곱을 동시에 설치하는 구조의 묘제가 거의 유행되지 않는 점에서, 이는 지역과 시간성 혹은 그 주민집단의 정체성을 반영해줄 가능성 역시 고려될 수 있다.

또한 두 유적 모두 토광과 목관(곽) 사이에 회반죽을 채워 넣은 공통점을 보인다. 이러한 회반죽의 주요 기능은 앞서 간략하게 살펴본 바와 같이 부식되기 쉬운 목재의 보호와 방수에 목적을 둔다. 이러한 회반죽은 상주교체기의 중원지

역에서도 간헐적으로 확인되는데, 주로 그 변방지역인 남방의 長江유역에서 일부 유행되었을 뿐이며 중심지로 볼 수 있는 殷墟나 西安 등지에서는 거의 확인되지 않는다.⁷¹ 즉 이처럼 회반죽을 채워 넣는 구조적 특징은 상주교체기 중원 지역의 매장풍습과 별반 상관관계가 없을 가능성이 크다. 아울러 중원지역에서 사용된 회반죽은 모두 백고니나 청고니로 불리는 고령토 계열의 진흙이 대부분이다. 이러한 고령토는 도자기의 원료로서 주로 방수를 목적으로 사용되는데, 목관의 부식을 방지하는 데 탁월한 효능을 보인다.⁷²

반면 魏營子유적의 회반죽은 회고니로 지칭된다는 점에서 중원지역의 것과 차이가 있다. 회고니는 소석회(消石灰)로서 화학구조가 Ca(OH)₂로 구성되며, 석회질의 진흙 정도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소석회는 현대 시멘트의 주원료 중 하나로 벽재 바탕에 사용되고 있다.⁷³ 과연 당시의 발굴 보고자들이 이러한 회반죽의 주요 구성성분을 염두에 두고서 백고니나 회고니 등의 용어를 선별적으로 사용했는지 모르겠으나, 중원지역에서 보편적으로 사용하는 백고니나 청고니라는 용어를 두고 구태여 회고니라는 용어를 선택한 데에는—심지어 魏營子유적의 보고자가 당시 중원지역과의 영향관계를 크게 부각시키고 있던 점에서, 회반죽의 성분 차이가 분명하게 구분되었을 가능성이 커 보인다. 즉 회고니와 백고니를 구분하여 사용한 이유는 토질의 화학성분 및 사용 목적에 분명한 차이가 있음을 염두에 둔 것으로 판단되는데, 이 역시 마찬가지로 목관의 부식을 막기 위한 방수와 보호를 목적으로 하였을 것으로 여겨진다.

이 외에 魏營子유적과 白浮유적의 유사점으로 거론될 수 있는 것으로 수레부속 중 일부 장식품 정도를 들 수 있다. 그중에서도 수면당로라 불리는 것이 양

71 張明東, 2016, 앞의 책, 142~143쪽.

72 바이두백과, [https://baike.baidu.com/item/%E7%99%BD%E8%86%8F%E6%B3%A5/1695330\(2018,11,11.검색\)](https://baike.baidu.com/item/%E7%99%BD%E8%86%8F%E6%B3%A5/1695330(2018,11,11.검색)).

73 바이두백과, <https://baike.baidu.com/item/%E7%81%B0%E8%86%8F/8807264?fr=aladdin>, 및 [https://baike.baidu.com/item/%E7%9F%B3%E7%81%B0%E8%86%8F/256648\(2018,11,11.검색\)](https://baike.baidu.com/item/%E7%9F%B3%E7%81%B0%E8%86%8F/256648(2018,11,11.검색)).

식적으로 상당히 유사한데, 이러한 종류의 것이 중원지역 상주시기 무덤에서도 간혹 보고된 정황에 따라 白浮유적, 나아가 중원세력과의 연관성이 부각되는 것이다. 하지만 魏營子집단 내부에서 수레 관련 청동부속을 자체적으로 생산할 여력이 없었다는 전제를 다시 한번 상기할 경우, 그 역시 교역품의 일종으로 생각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특히 당시 사람들의 정신문화 혹은 집단의 정체성을 반영할 수도 있는 장속 특징이나 부장 양상에서 상당한 차이가 발견된다는 점은, 그들의 문화적·혈연적 바탕에 근본적인 차이가 있을 수 있음을 말해준다.

다음으로 중원계 청동예기가 확인되는 청동기 매납유적의 성격에 관하여 고민해보자. 해당 논의는 1987년에 발표된 郭大順의 글에서부터 본격화된다. 그는 和尚溝와 道虎溝 등 喀左縣 일대 무덤유적에서 출토된 중원계 청동예기가 인근의 청동기 매납유적 출토품과 유사성을 보이는 점에 착안하여, 당시 중원문화가 燕山 이북지역에까지 진출하였다는 결론을 제시하고 있다.⁷⁴ 이와 관련하여 최근 논의되고 있는 보다 설득력 있는 해석들을 살펴보자.

첫째, 서주 초 北京을 중심으로 河北 북부에 거주하던 상대 유이민집단을 군대에 편입시킨 연나라가 일시적으로 군사적 진출을 한 증거물이라는 해석,⁷⁵ 둘째는 요서 일대 토착집단이 전쟁이나 약탈 등을 통해 획득한 전리품이라는 설명,⁷⁶ 셋째는 기증이나 사여 혹은 교류적 관점에서 연나라가 직접 분여한 것이

74 喀左縣 일대 청동기 매납유적이 魏營子類型에 속할 수 있다는 견해가 처음 확인되는 글은 1977년에 발표된 喀左山灣子유적 보고서라고 할 수 있다(喀左縣文化館等, 1977, 「遼寧省喀左縣山灣子出土殷周青銅器」, 『文物』 12期, 27쪽). 하지만 그러한 인식에 보다 설득력을 더하게 된 것은 郭大順의 1987년 글부터로 볼 수 있겠다.

75 町田章, 1981, 앞의 글, 286쪽; 박대제, 2010, 앞의 글, 139쪽.

76 韓嘉穀, 1995, 「燕史原流的考古學考察」, 『燕文化研究論文集』, 中國社會科學出版社, 69쪽; 甌燕, 1999, 「燕國開拓祖國北疆的歷史功績」, 『文物春秋』 4期, 2쪽; 배진영, 2009, 『고대 북경과 연문화』, 한국학술정보, 105쪽; 오강원, 1997, 「고조선 위치 비정에 관한 연구사적 검토」, 『백산학보』 48, 92~94쪽; 김정렬, 2009, 「요서지역 출토 상·주 청동예기의 성격에 대하여」, 『요하유역의 초기 청동기문화』, 동북아역사재단, 116~117쪽.

라는 입장⁷⁷이나 혹은 略左 일대 魏營子類型 중심집단과 華北大平原 복단의 제집단들 사이의 다양한 교류상 속에서 교환 혹은 제공된 것으로 일종의 종교의례행위의 산물이라는 설명 등이 있다.⁷⁸ 이상의 견해들이 충분히 설득력 있는 논거들을 적절히 제시함으로써 저마다의 지지층을 확보하고 있는 상황인데, 첫 번째 사례의 경우 사실상 연구 초창기부터 제기되어 왔던 연국의 요서진출설과 맥락을 같이하며, 두 번째는 중원에서 요서지역까지의 거리가 당시로서는 쉽게 오갈 수 없었던 거리에 해당됨을 지적할 필요가 있다.

만약 河北지역을 대상으로 할 경우, 상대적으로 가까운 지리적 이점과 풍부한 청동제 무기류의 존재로 보아 전리품 획득을 위한 소규모 전투나 약탈 등을 예상할 수도 있다.⁷⁹ 하지만 略左縣 일대 魏營子집단이 중원지역까지 진출하

참고로 이러한 가능성이 처음 제기되는 것은 鄭紹宗의 1977년 글(『夏商時期河北古代文化的初步分析』, 『考古學文化論集』 4, 文物出版社, 161쪽)부터라고 파악된다. 韓嘉穀 역시 1995년 글에서 유사한 맥락의 논지를 언급한 바 있으며, 1999년 甌燕에 의해 보다 체계적으로 정리되어 전쟁이나 약탈을 넘어 교환이나 饋贈, 賞賜의 가능성도 제기되었다. 국내에서는 오강원(1997) 역시 ‘약탈이나 전쟁에 의한 전리품’설에 주목한 바 있지만, 그것이 출토되는 정형상의 문제를 지적하며 河北省 일대의 주민집단이 모종의 사건으로 인해 遼西地域으로 피난하면서 남겨졌을 가능성도 언급하였다. 아울러 2011년 글(『상말주초 대릉하유역과 그 주변지역의 문화 동향과 대릉하유역의 청동예기 매납유구』, 『한국상고사학보』 74)에서는 장기원상층유형집단 등이 서주로부터 약탈한 청동예기를 위영자집단의 수장층과 교환한 것일 가능성도 언급한 바 있다. 이후 배진영(2009)과 김정렬(2009), 조원진(2010, 「요서지역 출토 상주 청동기와 기자조선 문제」, 『백산학보』 88, 114쪽) 등이 중국 학계의 전통적인 견해, 즉 상주 유이민의 직접이주나 연세력의 진출에 대한 관점을 비판적으로 검토하는 과정에서 그간 소수의견으로 치부하던 ‘전리품’설 쪽에 무게를 두어 소개하였고, 이내 국내 학계의 다수의견으로 자리잡게 된다. 이후 박대재(2010)는 당시 略左縣 일대 토착집단이 연국과 교전하여 청동기를 탈취할 만한 무력을 갖추지 못하였음을 지적하면서, 그렇다면 결국 일시적이긴 하지만 연나라의 군사적 진출을 인정할 수밖에 없음을 재차 강조하였다.

77 宮本一夫, 2000, 앞의 책, 119~148쪽.

78 오강원, 2011, 앞의 글, 12·39쪽.

79 甲元眞之, 1990, 「燕の成立と東北アジア」, 『東北アジアの考古學—天地』, 六興出版, 71~73쪽; 박대재, 2010, 앞의 글, 138쪽.

여 노획한 물품을 온전히 챙겨서 복귀하기란 쉽지 않았을 것이다. 당시 청동예기가 가지는 희귀성을 고려할 때 이들이 복귀하는 과정에서 그 중간지대의 또 다른 세력들에게 표적이 될 가능성이 높다. 이미 노획의 과정 중 상당한 전투력을 소비하였을 것이기에, 회귀하는 길목을 노려 재약탈하는 것이 군사력이 월등한 중원세력과 직접적으로 충돌하는 것보다 훨씬 이득이 됨은 분명하다. 과연 당시 魏營子집단이 그렇게 먼 거리까지 이동하여 중원세력과의 전투를 성공적으로 마치고, 중간지대에서의 마찰을 피해 신속히 이동할 수 있을 만큼의 기동성과 전투력을 보유하고 있었을지에 대한 의문이 든다.

여기에 河北지역과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빈약한 수준의 청동기 공반상을 고려한다면, 魏營子집단이 河北지역에 진출한 중원계 세력이나 토착민을 상대로 한 약탈적 노획 역시 가능성이 낮아 보인다.⁸⁰ 따라서 河北지역 내 제집단들과의 다양한 상호작용을 통해 교환, 교역 혹은 제공된 것이라는 해석에 보다 귀 기울여진다.⁸¹ 하지만 이 역시 청동기 매납유적의 성격을 해당 집단의 의례행위와 관련된 종교·의식적 측면에서 접근하였다는 점에서 의문이 남는다. 당시의 토착세력인 魏營子집단이 중원계 청동예기를 통해 의례나 종교의식을 거행하였던 이유가 무엇인지 잘 납득되지 않기 때문이다. 이러한 점을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해서는 청동예기가 직접 제작·사용된 중원지역에서의 사례와 비교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이와 관련해서는 본고와 함께 기획연구 주제로 수록된 다음 순서의 논고들에서 보다 구체적으로 다루어질 예정이기에 본고에서는 자세한 언급을 피하도록 하겠다. 다만 필자의 개인적 소견을 짧게나마 덧붙이는 것으로서 맺음말을 대신하고자 한다.

80 박대재, 2010, 위의 글, 139쪽.

81 오강원, 2011, 앞의 글, 39쪽.

IV. 맺음말

喀左縣 일대의 청동기 매납유적은 중원지역과 비교하여 상당한 차이점이 발견된다. 입지의 차이는 물론이며, 예기의 매납에 적용된 엄격한 예제를 찾을 수 없고, 특히 의례나 제사에 활용되었다는 실질적인 증거가 확보되지 못하였다.

아울러 청동무기와 예기 혹은 장신구류 등에 사용되는 청동기 원료의 차이, 예를 들면 원재료가 되는 구리에 주석이나 비소를 어느 정도 비율로 섞어내는 지에 따라 그 정도에 미치는 영향은 상당하다. 만약 청동예기를 녹여 재활용할 경우, 그러한 합금비율의 원리를 미처 파악하지 못했던 魏營子文化人들로서는 무기나 도구류 혹은 용기류 등의 비교적 경도가 강한 제품으로 재가공하는 것은 시도조차 불가능했을 것이다. 다만 경도와 상관없이 일정한 빛깔과 형태만 확보할 수 있는 정도의 제품, 즉 팔찌나 귀걸이 같은 장신구류 정도라면 충분히 가능하지 않았을까. 선행 연구성과에 의하면, 大·小凌河流域에서는 아직까지 청동기 제작에 적합한 동광유적이 조사된 바 없다. 그 접경지역인 西拉木倫河 상류지역에서 大井 및 喜鵲溝유적 등 상주교체기 단계의 동광 및 제련유적이 다수 발굴된 것과 대비되는 상황이다.

河北지역과의 교류를 통해 어렵게 확보된 중원계 청동예기는 魏營子文化人들에게 상당히 가치가 있는 수입품이었을 것이다. 쉽게 깨지지 않는 특성상 오랫동안 보관하고 사용할 수 있었을 것이며, 그 미적 가치 또한 우수하여 소장용 혹은 위세용으로도 충분히 활용되었을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이처럼 출처와 입수과정이 불분명한 외래 수입품을—심지어 그것이 제작집단의 제사와 의례에 사용되었던 의기라는 것을 인지하면서도, 자신들이 속한 집단의 안녕이나 풍요를 기원하는 제의나 종교의식에까지 사용할 수 있었는지 의문이 든다. 비록 청동기 제작공정과 그 메카니즘에 무지한 필자의 정황론적 추론에 불과하겠지만, 실생활 용기나 위신재로 사용되던 것이 안타깝게 파손되었을 경우에 그것을 녹여 장신구류 정도로 재활용하였을 가능성은 충분히 예상될 수 있는 부분이다.

이러한 가정하에서 다시 한번 고려해볼 경우, 喀左縣 일대에서 특정한 법칙

없이 무작위로 매납되었을 증원계 청동예기 매납유적은, 魏營子文化의 중심 생활권 내에서 상대적으로 우세한 위치를 점하는 특정 사람들이 독점적으로 점유한 일종의 전용 창고 역할을 했던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略左縣 일대는 전체 魏營子文化 분포권 중 河北지역과 가장 근접한 곳이다. 또한 요서회랑이 연결되는 길목으로서 바다와 육로를 모두 이용할 수 있는 교역의 중심지가 될 수 있다.

한 가지 아쉬운 점은 해당 지역에서 아직까지 이러한 사실을 뒷받침해줄 만한 일정 규모 이상의 취락유적이 확인되지 못하였다는 점이다. 물론 당시의 시대적 정황상 그 후대의 사회와 동일한 수준의 취락이나 시장 규모가 형성되지는 못하였을 것이다. 다만 魏營子文化圈 전체에서 그나마 생활유적의 범주에 포함될 수 있는 회갱이나 파괴된 주거시설들이 略左縣 일대에 가장 밀집되었다는 정황으로 볼 때, 이 또한 향후의 조사를 기대할 수 있는 요인이 된다.

마지막으로 묘제와 장속 특징에 반영된 魏營子文化人들의 정신문화 속에는 그들이 생존을 위해 선택적으로 받아들였을 외래계의 물질문화와 대비되는, 상당히 보수적이고 독특한 풍격이 고수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외래계 토기의 대표적인 화변구연력이 그들의 정신문화를 반영해주는 부장품 내역에 포함되지 못한 점, 비록 청동예기나 동경 등 외래계 요소가 일부 포함되기는 하였지만 위세품의 성격이 강한 점, 주검의 두향을 통일시킴으로서 자신들의 사후인식과 행보를 결정하고 기원한 점, 중요 부장품을 발치 쪽에 배치함으로써 그에 대한 사후 용도를 스스로 선택하고 그 가치를 재규정한 점 등이 그러하다.

이러한 정황에서 볼 때, 상주교체가 요서지역에서 확인되는 증원계 문화요소는 증원세력의 직접적인 진출이라기보다는 외래문화의 유입에 대한 토착문화의 대응으로서, 이른바 요서와 증원 두 지역집단 간의 상호작용 또는 문화변용이라는 측면에서 고려될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 김정렬, 2009, 「요서지역 출토 상·주 청동예기의 성격에 대하여」, 『요하유역의 초기 청동기문화』, 동북아역사재단.
- 박대재, 2010, 「기자 관련 상주청동기명문과 기자동래설」, 『선사와 고대』 32.
- 박상빈, 2014, 「북경 영정하유역의 청동기문화 연구-상호작용권역과 문화변동을 중심으로」, 단국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박준형, 2014, 『고조선사의 전개』, 서경문화사.
- _____, 2018, 「한국 학계의 고조선사 연구」, 『2000년 이후 국가별 쟁점과 전망: 고조선사 연구 동향』, 동북아역사재단.
- 복기대, 1998, 「위영자문화의 최근 성과와 해석」, 『선사와 고대』 11.
- _____, 2002, 『요서지역의 청동기시대문화 연구』, 백산.
- 배진영, 2009, 『고대 북경과 연문화』, 한국학술정보.
- 조진선, 2014, 「중국 동북지역의 청동기문화와 고조선의 위치 변동」, 『동양학』 56.
- 조원진, 2010, 「요서지역 출토 상주 청동기와 기자조선 문제」, 『백산학보』 88.
- 오강원, 2007, 「비파형동검문화 십이대영자 단계 유물 복합의 기원과 형성과정」, 『고조선단군학』 16.
- _____, 2011, 「상말주초 대릉하유역과 그 주변지역의 문화 동향과 대릉하유역의 청동예기 매납유구」, 『한국상고사학보』 74.
- 오대양, 2017, 「고대산문화의 묘제와 장속 특징-하가점하층문화와 비교를 중심으로」, 『동양학』 66.
- _____, 2018, 「산동 약석문화의 최근 연구 동향과 쟁점」, 『한국상고사학보』 101.
- 이후석, 2017, 「고고학을 통해 본 초기 고조선의 성장과정-십이대영자문화의 변천과정을 중심으로」, 『송실사학』 38.
- 이청규, 1993, 「청동기를 통해 본 고조선」, 『국사관논총』 42.
- _____, 2009, 「요하유역 북방계 청동기의 출현」, 『요하유역의 초기 청동기문화』, 동북아역사재단.
- 임병태, 1991, 「고고학상으로 본 예맥」, 『한국고대사논총』 1.

천선형, 2010, 「비파형동검 성립 전후 요서지역 토착문화의 전개」, 『요하문명의 확산과 중국 동북지역의 청동기문화』, 동북아역사재단.

建平縣文化館 等, 1983, 「遼寧建平縣的青銅時代墓葬及相關遺物」, 『考古』8期.

甌燕, 1999, 「燕國開拓祖國北疆的歷史功績」, 『文物春秋』4期.

高美瑤, 1985, 「興城縣仙靈寺夏家店下層文化遺址」, 『中國考古學年監 1984』, 文物出版社.

郭大順, 1987, 「試論魏營子類型」, 『考古學文化論集 1』, 文物出版社.

_____, 1999, 「遼西窖藏商周青銅器發見和研究的新進展」, 『青銅文化研究』1輯, 黃山書社.

喀左縣博物館, 1974, 「遼寧省喀左縣北洞村出土的殷周青銅器」, 『考古』6期.

喀左縣文化館, 1982, 「記遼寧喀左縣后墳村發現的一組陶器」, 『考古』1期.

喀左縣文化館 等, 1977, 「遼寧省喀左縣山灣子出土殷周青銅器」, 『文物』12期.

唐蘭, 1973, 「從河南鄭州出土的商代前期青銅器談記」, 『文物』7期.

董新林, 1993, 「魏營子文化初步研究」, 北京大學 碩士學位論文.

_____, 1998, 「魏營子文化的界定及相關問題略論」, 『青果集』, 知識出版社.

_____, 2000, 「魏營子文化初步研究」, 『考古學報』1期.

北京市文物管理處, 1976, 「北京地區的又一重要考古收藏—昌平白浮西周木槨墓的啓示」, 『考古』4期.

蘇赫, 1982, 「從昭盟發現的大形青銅器試論北方的早期青銅文明」, 『內蒙古文物考古』2期.

宋豫秦, 1995, 『遼西下流域全新世沙質荒漠化過程的人地關係』, 北京大學博士後研究工作報告.

張博泉, 1985, 『東北地方史稿』, 吉林大學出版社.

張長壽, 1979, 「殷商時代的青銅容器」, 『考古學報』3期.

張明東, 2016, 『商周墓葬比較研究』, 中國社會科學出版社.

鄭紹宗, 1977, 「夏商時期河北古代文化的初步分析」, 『考古學文化論集』4, 文物出版社.

朱永剛, 1987, 「夏家店上層文化的初步研究」, 『考古學文化論集』1輯, 文物出版社.

_____, 1998, 「東北青銅文化的發展階段與文化區系」, 『考古學報』2期.

- 中國科學院考古研究所等, 1974, 「北京附近發現的西周奴隸殉葬墓」, 『考古』5期。
- 趙寶福, 2005, 「中國東北地域夏至戰國時期的考古學文化研究」, 吉林大學 博士學位論文。
- 齊曉光, 1991, 「內蒙古克什克騰旗龍頭山遺址發掘的主要收穫」, 『內蒙古東部區考古學文化研究文集』, 海洋出版社。
- 齊文濤, 1972, 「概述近年來山東出土的商周青銅器」, 『文物』5期。
- 陳光, 1999, 「北京考古五十年」, 『新中國考古五十年』, 文物出版社。
- 陳夢家, 1955, 「西周銅器斷代(二)」, 『考古學報』第10冊。
- 晏琬, 1975, 「北京, 遼寧出土銅器與周初的燕」, 『考古』5期。
- 烏恩岳斯圖, 2007, 『北坊草原考古學文化研究』, 科學出版社。
- 楊建華, 2002, 「燕山南北商周之際青銅器遺存的分群研究」, 『考古學報』2期。
- 熱河省博物館, 1955, 「熱河凌源縣海島營子村發見的古代青銅器」, 『文物參考資料』8。
- 遼寧省博物館·朝陽地區博物館, 1973, 「遼寧喀左縣北洞村發見殷代青銅器」, 『考古』4期。
- 遼寧省博物館·朝陽市博物館, 1986, 「建平水泉遺址發掘簡報」, 『遼海文物學刊』2期。
- 遼寧省博物館工作隊, 1977, 「遼寧朝陽縣魏營子西周墓和古遺址」, 『考古』5期。
- 遼寧省文物考古研究所, 2000, 「遼寧義縣向陽嶺青銅時代遺址發掘報告」, 『考古學集刊』13集。
- 遼寧省文物考古研究所·吉林大學考古學系, 1992, 「遼寧阜新平頂山石城址發掘報告」, 『考古』5期。
- 王立新, 2004, 「遼西區夏至戰國時期文化格局與經濟形態的演進」, 『考古學報』3期。
- 王夫想, 1994, 「內蒙古林東塔子溝出土的羊首銅刀」, 『北方文物』4期。
- 李伯謙, 1994, 「張家園上層類型若干問題研究」, 『考古學研究』2。
- 林滢, 1994, 「早期北坊系青銅器的幾個年代問題」, 『內蒙古文物考古文集』1輯, 中國大百科全書出版社。
- 「《豐西發掘報告》讀後」, 『考古』12期, 1964。
- 何漢南, 1957, 「長安普渡村西周墓的發掘」, 『考古學報』1期。

- 韓建業, 2011, 「略論北京昌平白浮M2墓主身分」, 『中原文物』4期.
- 韓金秋, 2008, 「白浮墓葬的微觀分析與總觀比較」, 『邊疆考古研究』7輯.
- 韓巍, 2003, 「西周墓葬的殉人與殉牲」, 北京大學 碩士學位論文.
- 韓嘉毅, 1990, 「花邊甬尋踪」, 『內蒙古東部區考古學文化研究文集』, 文物出版社.
- _____, 1995, 「燕史原流的考古學考察」, 『燕文化研究論文集』, 中國社會科學出版社.
- 甲元眞之, 1990, 「燕の成立と東北アジア」, 『東北アジアの考古學—天地』, 六興出版.
- 宮本一夫, 2000, 「西周の燕と遼西」, 『中國古代北疆史の考古學的研究』, 中國書店.
- 町田章, 1981, 「殷周と孤竹國」, 『立命館文學』.
- 濱田耕作, 1929, 『貔子窩』, 東方考古學總刊 第1冊.

기원전 14~11세기 요서지역 토착문화와 중원문화의 상관성 검토 - 묘제 양상의 비교를 중심으로 -

오대양

기원전 14~11세기 요서지역의 토착문화는 魏營子文化로 대표되며, 주요 특징은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첫째, 분포범위는 大·小凌河流域으로 한정되며 중심연대는 상주 교체기, 하한연대는 기원전 10세기 무렵이다. 둘째, 해당 문화의 구성원들은 자체적인 청동기 제작기술을 확보하지 못하였다. 그렇기에 중원계 청동예기는 유사한 문화내용을 보이는 河北지역 주민집단과의 교류 속에서 제한적으로만 확보할 수 있었다. 셋째, 이들의 생계방식은 소규모의 정주 생활이 인정되지만, 농경의 흔적은 극히 제한적이며, 수렵과 목축 위주의 생활 방식을 유지하였다. 넷째, 묘제와 장속 특징 및 생활토기의 유사성에서 高臺山文化和 친연성이 강하다. 다섯째, 당지의 선행문화인 夏家店下層文化와는 생계방식과 부장 특징 및 시간적 단절성 등 측면에서 고려할 때 상호 이질성과 비연속성이 강하다. 마지막으로 화변구연력의 보편적 사용과 초원계 장신구류의 유행이라는 측면에서 魏營子文化의 형성과정에는 초원계 물질문화가 일정부분 개입되어 있다. 다만 그 핵심이 되는 청동 도구나 무기류가 부재한 점에서 주

변집단에 대한 약탈적 생계방식은 고려될 수 없다.

본문에서는 이러한 위영자문화의 성격과 형성과정을 구체적으로 논증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중원지역과의 상관성 문제를 모체 양상의 비교를 중심으로 검토하였다. 결론적으로 모체와 장속 특징에 반영된 魏營子文化人들의 정신문화 속에는 그들이 생존을 위해 선택적으로 받아들였을 외래계의 물질문화와 대비되어, 상당히 보수적이고 독특한 풍격의 전통이 고수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외래계 토기의 대표격인 화변구연력이 그들의 정신문화를 반영해주는 부장품 내역에는 포함되지 못한 점, 비록 청동예기나 동경 등 외래계 요소가 부장품 내역에 포함되어 있지만, 이는 위세품의 성격이 강한 점, 주검의 두향을 통일시킴으로서 자신들의 사후인식과 행보를 결정하고 기원한 점, 중요 부장품을 받치쪽에 배치함으로써 그에 대한 사후 용도를 스스로 선택하고 그 가치를 재규정한 점 등이 그러하다.

이러한 정황에서 볼 때, 요서지역에서 확인되는 중원계 문화요소는 중원세력의 직접적인 진출이라기보다는 외래문화의 유입에 대한 토착문화의 대응으로서, 소위 요서와 중원 두 지역집단 간의 상호작용이나 문화변용의 측면에서 고려될 수 있을 것이다.

주제어: 위영자문화, 고대산문화, 중원문화, 카라속계 청동기문화, 길항관계, 비파형동검문화

ABSTRACT

Antagonistic Relationships between Indigenous Culture of the Liaoxi Region and Zhongyuan Culture in the 14th-11th Century B.C.: Focusing on Comparison of Tomb Patterns

Oh Daeyang

Indigenous culture in the Liaoxi region in the 14th–11th century B.C. was represented by Weiyingzi culture. This study newly defines the culture of which characteristics and nature can b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as for the scope of distribution, the culture was distributed restrictively to Dalinghe and Xiaolinghe basins. The period was assumed to be 13th–10th century B.C., which was characterized by a transition period of the Shang Dynasty and the Zhou Dynasty. Second, people of the culture did not have their own production technology for bronzeware. The ritual bronzeware in the Zhongyuan-line culture could be restrictively obtained through exchanges with the residents in Hebei who showed similar cultural characteristics. Third, although their

means of living were recognized in a small-sized settlement, farming was rarely detected. Their primary means of living were hunting and cattle breeding. Fourth, they had a strong affinity to Gaotaishan culture in terms of the characteristics of tomb systems and funeral ritual services. Fourth, compared with Lower Xiajiadian culture, which was prior to the Weiyngzi culture, it had a strong heterogeneous nature and discontinuity in consideration of means of living, burial characteristics and time discontinuity. Lastly, in the aspect of universal use of Habiankouyanli and boom of steppe-style accessories, part of Material Culture of the Steppe was involved in the formation process of Weiyngzi culture. However, it was not considered that they used predatory means of living against neighbor groups due to the absence of bronze tools or weaponry.

This study specifically demonstrates the formation process and the characteristics of Weiyngzi culture. Based on the findings, it also investigates correlations with the culture in the Zhongyuan region through comparison of their tomb systems. In conclusion, it has been found that people in Weiyngzi culture were stuck to very conservative and unique tradition of their own, which was reflected in their tomb systems and funeral services. It was contrasted with foreign material culture, which they had to selectively accept for survival. Those aspects are shown in the fact that Habiankouyanli, a representative foreign earthenware, was not found in the grave goods, which reflected their spiritual culture; that although ritual bronzeware and bronze mirrors, foreign cultural elements, were contained in the list of grave goods, they were used for the purpose of showing off the authority of the high class; that they decided their own post-mortem performances with self-

developed recognition on the post-mortem world by unifying the direction of the head of the deceased in the tombs; and that they selected the post-mortem usages of main grave goods by putting them at the feet side of the deceased and defined the values of the goods by themselves.

With that said, the Zhongyuan-line cultural aspects found in the Liaoxi region could be considered as a reaction of the indigenous culture against influx of foreign cultures, rather than direct advance of Zhongyuan power. It could be considered that there was antagonistic relationship between the cultures in two regions of Liaoxi and Zhongyuan.

Keywords: Weiyngzi culture, Gaotaishan culture, Zhongyuan culture, Karasuk-line bronze culture, antagonistic relationship, culture with lute-shaped bronze swords

요서지역 출토 상주(商周)

청동용기 연구

– 황하중류유역과의 비교를 중심으로

최호현 | 대전대학교 역사문화학과 강사

- I. 머리말
- II. 요서지역 출토 商周 청동용기 분석
- III. 황하중류유역 窖藏坑 출토 청동기와의 비교
- IV. 맺음말



I. 머리말

요서지역에서 출토된 유물 중 商周 청동용기는 中原의 商문화뿐만 아니라 周原을 중심으로 한 關中의 西周문화도 포함하고 있어, 이와 황하중류유역 상주 시기 핵심지역과의 비교는 당시 요서지역 청동문화를 이해하는 데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 이들 청동기는 어떤 의도를 가지고 매납되어 보존되다가 우연히 발견된 것도 있고, 부장품으로 墓에서 출토되는 것도 있다.

1970년대 초 객좌현 북동 窖藏坑 발굴 이후 한국 학계에서는 이러한 중원계 청동기¹가 출토되는 窖藏坑에 대한 연구가 시작되었다. 그러나 출토 청동 명문을 통한 기초조선, 고죽 등과의 관계에 대한 관심은 고조된 반면, 정작 그러한 청동기를 禮器로 사용하던 상주 시기 중심지역과의 비교 연구는 소홀하였다. 중국 학계에서도 중원과 장강유역의 비교 연구는 비교적 심화되었으나, 그와 요하 유역에 분포하는 문화 혹은 집단과 어떻게 경쟁하고 교류했는지에 대한 연구는 상대적으로 미흡한 편이다. 그 주요 원인 중 하나는 북방에서 중원과의 교류를 엿볼 수 있는 자료가 적을 뿐만 아니라, 그나마도 窖藏坑 등으로 시대상을 반영하는 유물조합이나 명확한 지층관계를 파악하는 데 한계가 있었기 때문으로 볼

* 투고: 2018년 11월 12일, 심사 완료: 2019년 2월 1일, 게재 확정: 2019년 2월 15일

1 中原은 洛陽에서 開封 일대를 가리키는데, 황하 중하류에 속하고, 역대로 여러 왕조에 걸쳐 수도가 자리했으며, 정주와 안양 등 상대 수도가 포함된다. 周原은 섬서성 關中의 서부를 가리키는데, 鞏의와 鎡의로 구분된다. 鞏의의 주원은 지금의 關中平原 서부로, 千河의 동쪽, 漆水의 서쪽, 渭河의 북쪽, 岐山 남쪽의 좁고 긴 구역을 말한다. 鎡의의 주원은 현재 주원유적이 분포하는 범위로, 扶風, 岐山 두 縣의 북부에 위치한 法門, 黃堆, 京當 관할의 자연 촌락 대부분을 포함한다. 주원은 古公亶父가 邰에서 이주해 온 곳으로 周人의 발원지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이 지역에서 발견되는 서주 전기 청동기는 상 후기의 청동기 양식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였기 때문에, 본문에서 중원지역과 주원지역에서 출토된 청동예기를 통칭하여 ‘중원계’ 청동기라 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는 ‘비중원계’ 청동기라 칭하고자 한다.

수 있다. 한국 학계는 이와 관련하여 명문을 통한 문헌사적인 연구와 중원지역 窖藏坑과의 포괄적인 비교를 거쳤으나, 현재 답보 상태로 새로운 연구방법을 통한 돌파구가 필요한 시점이다.²

지금까지 요서 일대에서 발견된 상주 청동기는 주로 窖藏坑과 墓에서 출토되었는데, 전자가 대부분으로 그 연대를 분석하는 데 있어 한계를 안고 있다. 窖藏坑은 기물을 매납하기 위해 일정한 지점에 인위적으로 설치한 구덩이로, 그 형태와 매납방식이 차이를 보이는 만큼 형성 원인도 다양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대한 분석은 기물의 형태와 매납방식에 대한 인식뿐만 아니라 주조 혹은 매납시기에 따른 분류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이유로 그간 진행된 이 지역에서 중원계 청동용기 窖藏坑이 집중적으로 출현한 배경과 그 성격을 기초로 하고, 중원과 주원을 중심으로 하는 관중 지역에서 출토된 청동용기와의 형식학적 비교를 비롯하여 청동기 窖藏坑의 제양상에 대한 검토를 진행하고자 한다. 중국 고대 사회는 왕권통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등급에 따른 엄격한 차별을 규정하였는데, 제사와 연회에 사용되는 기물에 특수한 의미가 부여되면서 더욱 구체화되었다. 이처럼 예제에 사용된 기물을 ‘禮器’ 혹은 ‘彝器’라고 한다. 예기는 예제의 중요 내용이고, 그중 청동예기는 가장 중요한 지위를 차지한다. 이 시기 墓에 부장된 청동예기의 조합은 당시 사회의 예제, 등급제도와 매장풍습 등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어 서로 다른族群과 문화를 구분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수단 중 하나가 된다. 그러나 본문에서 다룰 청동용기의 경우 반드시 그렇다고 할 수는 없는데, 기왕 연구성과를 통해

2 李亨求, 1991, 「大遼河流域의 殷末周初 青銅器文化和 箕子 및 箕子朝鮮」, 『韓國上古史學報』 5; 송호정, 2005, 「大遼河流域 殷周 青銅禮器 사용 집단과 箕子朝鮮」, 『韓國古代史研究』 38; 김정열, 2009, 「요서지역 출토 상주 청동예기의 성격에 대하여」, 『요하유역의 초기 청동기문화』, 동북아역사재단; 박대재, 2010, 「기자 관련 상주청동기 명문과 기자동래설」, 『선사와 고대』 32; 조원진, 2010, 「요서지역 출토 상주 청동기와 기자조선 문제」, 『白山學報』 88; 오강원, 2011, 「商末周初 大遼河 流域과 그 周邊 地域의 文化 動向과 大遼河 流域의 青銅禮器 埋納遺構」, 『韓國上古史學報』 74.

서도 알 수 있듯이 제작 주체와 매납 주체가 다를 수 있으며 窖藏坑 출토품이라는 것에도 그 원인이 있다.

서요하유역은 기원전 20세기경 청동기시대로 진입한 것으로 보고 있는데, 이 시기 대표적인 고고학문화는 하가점하층문화이다. 그러나 고고자료로 볼 때, 하가점하층문화시기에는 아직 현지에서 주조된 것으로 보이는 청동용기가 출현하지 않았으며, 하가점상층문화에 이르러서야 寧城 南山根과 小黑石溝 墓에서 현지에서 주조된 청동용기가 나타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한 그보다 이른 시기의 청동용기가 매납된 현상이 발견되기 시작한 것은 1940년대부터로 지금까지 10여 곳에서 출토되었다. 지리적 범위는 북으로 내몽고자치구 克什克騰旗 天寶同, 남으로 내몽고 寧城, 요령 喀左縣, 서로 동으로 義縣을 포함한다.

지금까지의 연구에 따르면, 서주 초기부터 銅鏡가 출토되는 장강유역 窖藏坑과 달리 요서지역 窖藏坑 출토 청동기는 대부분 중원계의 鼎, 簋, 甗, 鬲를 위주로 하는 청동용기이고, 재지계와 북방계는 상대적으로 적게 확인되며 청동 약기는 아직 출토되지 않는 특징이 있다. 또한 이 지역에서 청동용기는 단지 신분과 부귀의 상징이고, 중원식의 등급 예제가 형성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요서지역 청동기 출토 窖藏坑의 성격에 대한 연구는 이미 상당히 진행되었지만, 정작 청동기 자체에 대한 연구는 진행되지 못하였다. 그 가장 큰 이유는 아마도 중원 청동기에 대한 연구가 미진하였기 때문일 것이다. 그러나 중원계 청동기와 상당한 유사성을 보이는, 혹은 중원에서 제작된 것으로 추정되는 청동기가 출토된 이상, 그와 상주시기 핵심지역에서 출토되는 청동기와의 비교는 필수일 것이다.

따라서 이 연구는 상말주초³ 전후로 시기를 한정하여 하북성 북부(冀北) 지

3 상말주초는 상대적 시간 개념으로, 그중 商末은 상 말기를 가리키며, 구체적으로 상왕조의 가장 마지막 두 왕, 즉 帝乙과 帝辛의 재위기간을 포함하는데, 중국 학계에서 구분하는 은허4기에 해당한다. 周初는 서주왕조의 초기로, 서주 무왕, 성왕, 강왕의 시기이고, 학계에서는 서주 전기의 이른 단계로 구분된다. 중국 학계에서 일

역을 포함한 광의의 요서지역에서 출토된 청동용기를 황하유역 중앙 왕조의 墓와 窖藏坑에서 출토된 청동기와 비교하여 편년하고, 시기별 기형, 문양과 일부 청동기의 제작기술 등을 함께 살펴보고자 한다. 이에 그동안 기피되어 왔던 상주시기 중원과 주원 등 황하중류유역 墓와 窖藏坑 출토 청동기 자료에 대한 이해를 통하여 동시기 요서 일대에서 출토된 청동기와와의 관련성에 대한 한국 학계의 주의를 환기시키고자 한다.

요서지역 청동기 窖藏坑의 고고학 조사내용은 이미 상세히 소개되었기 때문에 이 글에서는 필요에 따라 일부만 언급하도록 하겠다.

II. 요서지역 출토 商周 청동용기 분석

요서 일대에서 상주 청동기가 발견되는 지역은 북쪽으로 서랍목륜하 남안까지, 동쪽으로 의무려산 서록에 이른다(그림 1). 출토유물은 주로 墓와 窖藏坑에서 출토되는데 청동용기가 대부분을 차지한다. 아래는 우선 청동기 출토 유적의 매납 상황을 살펴보고 기물의 형태적 특징과 문양을 근거로 하여 주요연대를 추정할 후, 가능하다면 주조 흔적과 사용 흔적 등을 종합하여 매납연대를 살펴보고자 한다.

1. 요서지역 窖藏坑 출토 청동용기

1) 서랍목륜하유역: 遼河의 상류이다. 요하는 전체 길이 약 1,430m에 달하는 중국 동북 남단의 최대 하류로, 하북 平泉縣에서 발원하여 요령 盤山縣에서 발해로 유입된다.

반적으로 사용되는 시기 구분에서 早, 中, 晩 3期는 한국 학계에서 사용되는 前, 中, 後 3期와 대응된다. 또한 각 시기의 이른 단계는 '偏早' 혹은 '前段'으로, 늦은 단계는 '偏晩' 혹은 '後段'으로 표현되는데, 본문에서 사용된 '初期'는 전기의 이른 단계를 일컫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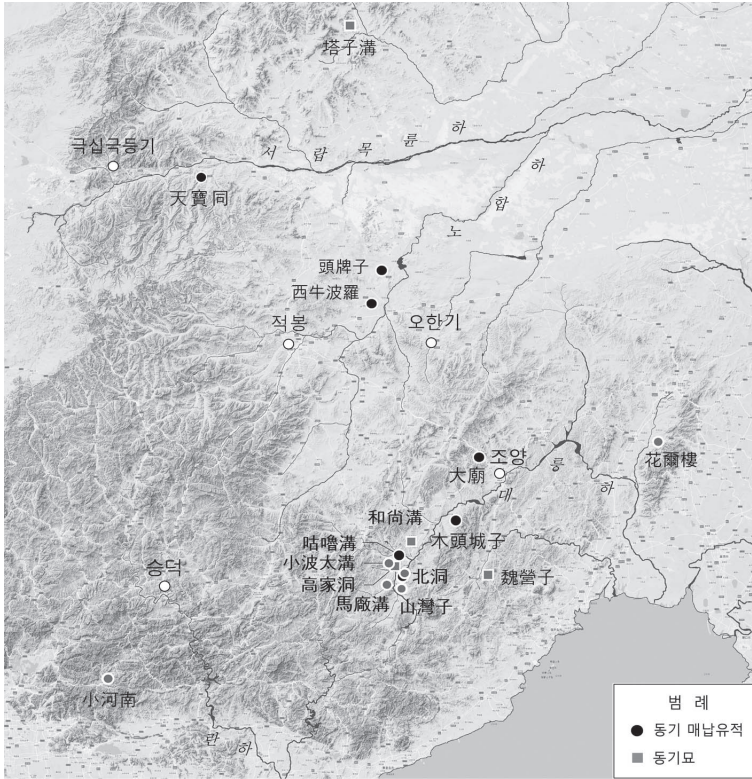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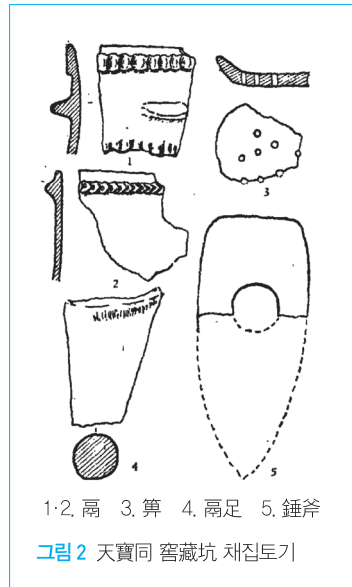


그림 1 상말주초 요서지역 청동용기 출토유적 위치도(●표시는 비증원계 요소가 포함된 유적)

天寶同 窖藏坑은 상주시기 최북단에 위치한 청동 窖藏坑으로, 서라목문하 남안의 克什克騰旗 土城子鎮에서 발견되었는데,⁴ 지금까지 요하의 상류에서 유일하다. 이 窖藏坑은 마을의 북쪽 敖包山 서남 비탈에 자리하고 구덩이는 발견되지 않았으나, 정남북 방향의 立石을 표지로 한 것이 가장 특징적이며, 입석

4 克什克騰旗文化館, 1977, 「遼寧克什克騰旗天寶同發現商代銅甗」, 『考古』 1977-5.

의 주위에 석괴가 둘러져 있다. 이 입석과 서측의 한 판상석 사이에서 銅甗 1점이 발견되었고, 깊이는 약 0.5m이다. 다른 기물은 공반되지 않았으나 窖藏坑에서 동측으로 500m 떨어진 한 유적에서 商 전기의 승문 협사회갈도, 승문 각획도편과 서주~춘추시기의 협사홍갈도 甗의 구연부(화변력), 鑿耳(손잡이), 襠部(삼족 기 기족의 상단부), 陶甗의 筭, 器足, 穿孔錘斧가 채집되었고(그림 2), 그 밖에도 홍산시기, 전국시기, 요대의 도기편이 있다.



弦紋甗: 복부가 깊고 곧은 편이며, 경부에 3조의 弦紋이 장식된 것을 제외하면 무문이다. 器耳가 직립하고, 복부 단면이 말각 삼각형에 가까워 상 후기에서도 이른 단계에 속하는데, 이러한 형태의 언이 安陽 小屯村(M18:32)에서 발견되는 것으로 보아 주조연대는 은허2기까지 올라갈 수 있다.

천보동 窖藏坑은 상술한 매납 정황으로 볼 때 제사의 성격이 강한 것으로 보인다. 매장시기는 단정할 수 없으나 출토기물로만 판단할 때 유적의 상한연대는 은허2기까지 올라갈 수 있다.

2) 노합하유역

① 頭牌子 窖藏坑⁵은 赤峰市에서 북쪽으로 약 50km 떨어진 높은 산자락에 위치한다. 청동기는 弦紋圓鼎, 獸面紋圓鼎, 弦紋甗이 각 1점씩 모두 3점이 출

5 蘇赫, 1982, 「從昭盟發現的大型其他器試論北方的早期青銅文明」, 『內蒙古文物考古』 1982-2.

토되었다. 그중 동정의 내부에는 주황색을 띠는 광물질 결정체, 즉 鑛砂가 가득 담겨 있었고,⁶ 동언의 복부와 족부에서 흑색 그을음이 발견되었다. 출토 청동기는 모두 옹우특기박물관에 전시(2015.8)되어 있어 자세히 관찰할 수 있었는데, 세 점 모두 비슷한 시기에 주조된 것으로 보인다.

圓鼎: 2점으로, 경부와 족부에 각각 현문과 수면문이 장식되어 있는데, 기형과 범선 구조는 모두 유사하다. 기형은 新干 大洋洲 XDM:2 동정과 유사하나 器足에 비룡이 없고, 器耳 외측에 고랑이 형성되지 않아 그보다 이른 시기의 특징을 보인다. 그러나 저부에서 확인되는 범선은 기족 안쪽을 따라 올라와 저부와 복부의 경계를 가르며 호선 삼각형이 형성되었는데, 이는 상 후기에서 서주 전기에 자주 보이는 형태이다. 또한 족부 상단에 거칠게 표현된 현문이 1줄 형성되어 있는데 이는 중원 지역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형태이고, 도범 제작시 수면문 문양을 넣을 자리를 표시하였다가 최종적으로 문양이 추가되지 않음으로써 남겨진 흔적으로 보인다. 수면문정은 경부와 족부 상단에 細陽線으로 수면문이 장식되어 있는데, 중원의 경우 문양은 도범을 따로 제작하며 수면문은 陰線 寬陽紋으로 표현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또한 2점의 원정에 시문된 장식이 현문과 수면문으로 차이를 보이는 것은 상 전기 이리강문화에서 자주 보이던 조합이다. 따라서 이 청동기들이 상 후기 중원 이외의 지역에서 주조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데, 만약 그렇다면 아직 기술적인 한계를 극복하지 못한 상태에서 상대 이리강유형의 청동기를 모방하여 주조되었을 가능성을 상정해볼 수 있다.

弦紋甗: 구연이 비교적 두꺼운 편이고, 구연과 경부 사이에 단이 형성되어

6 분석에 따르면, 이 광사의 주석 함량이 약 50%에 가까워 喜鵲溝와 伊和沃門特 유적에서 생산된 광석의 성분과 같다고 한다. 또한 천보동 窖藏坑 부근에서 희작구유적과 유사한 도편이 출토되어, 이들 청동용기와 희작구유적의 관련성이 제기되었다(王立新·付琳, 2015, 「論克什克騰旗喜鵲溝銅鑛遺址及相關問題」, 『考古』 2015-4). 희작구유적은 장강 이북에서 지금까지 발견된 것 중 가장 이른 시기에 해당하는 동광유적으로, 연대는 대체로 상 후기에 해당하고 하한은 서주 초까지 내려가는 것으로 보고 있다(吉林大學邊疆考古研究中心·內蒙古自治區文物考古研究所, 2014, 「內蒙古克什克騰旗喜鵲溝遺址發掘簡報」, 『考古』 2014-9).

있다. 복부가 깊고 곧은 편으로 천보동, 서우파라, 안양 소둔 출토 M18:32⁷와 매우 유사하다. 따라서 이 기물의 상한연대 역시 은허2기로 볼 수 있다. 내복부 하단에 “𠄎”형과 “𠄎”형 명문이 있다.⁸

② 西牛波羅 窖藏坑⁹은 적봉시 西牛波羅鄉에 위치하며, 銅甌 1점이 출토되었다.

弦紋甌: 기형과 문양이 두패자와 천보동에서 출토된 언과 유사하다. 복부 횡단면이 말각 삼각형으로 주조연대도 그와 상응할 것으로 보인다(그림 3 참조).



그림 3 西牛波羅 窖藏坑 출토 銅甌

3) 대소릉하유역

대소릉하유역에서 발견된 청동기 출토 窖藏坑은 현재까지 9기가 알려져 있으며, 대부분 대릉하상류 양안에 위치한다.

① 北洞 1호 窖藏坑¹⁰은 요령성 喀左縣 北洞溝에서 발견되었으며, 대릉하의 동안에 위치한다. 구덩이는 지표로부터 0.8m 깊이에 있고, 방향은 45도이

7 中國社會科學院考古研究所安陽工作隊, 1981, 「安陽小屯村北的兩座殷代墓」, 『文物』1981-4.

8 蘇赫(1982)은 갑골문상의 “𠄎”자를 ‘貯’로 해석하고, 고고학상의 ‘매납’의 의미로 보았다. 그리고 “𠄎”는 명사로 줄곧 ‘郭’ 혹은 ‘壙’으로 해석되는 글자로, 사당(廟堂)이라고 해석될 수 있다고 보았다. 따라서 두패자촌 오포산에는 ‘商民族’의 사당이 있었고, 3점의 청동기는 상민족이 조상에 제사를 지내고 묻은 것으로 판단하였다.

9 蘇赫, 1982, 앞의 글.

10 遼寧省博物館·朝陽地區博物館, 1973, 「遼寧喀左縣北洞村發現殷代青銅器」, 『考古』1973-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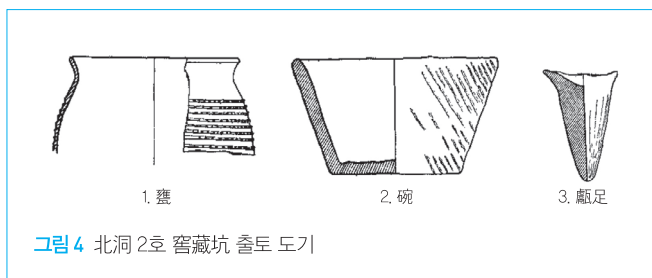
다. 평면은 장방형이고, 길이 약 1.35m, 너비 약 1.1m, 깊이 0.2m이다. 구덩이 주변과 출토 청동기 내부에 모두 깎돌이 채워져 있고, 구덩이 주변과 내부에서 많은 도기편이 발견되었다. 청동기는 甗 1점, 罍 5점 등 모두 6점이 출토되었다. 출토 시 기물이 질서 있게 배열되어 있었다.

雷紋甗: 북부 최대경이 견부에 있으며, 권족이 비교적 높은 편이다. 전체적으로 기형과 문양은 안양 소둔 188호묘,¹¹ 大司空村 東南 M663:51과 유사하며 은허2기에 속한다.¹² 甗의 구연과 북부 여러 곳에서 수리한 흔적이 발견되었다.

渦紋罍: 5점. 외의 구조연대는 대체로 상말주초에 해당하나, 2·4·6호 罍의 구연부와 권족이 비교적 낮아 상대적으로 이른 것으로 보인다. 2호 罍(孤竹父丁罍)의 두耳 내측 상부에 홈이 형성되어 있는데, 잦은 사용으로 인해 닳아서 형성된 것으로 보는 견해도 있으나 사용상 편의를 위해 고안되었을 가능성이 크다. 전체적으로 기형과 문양이 安陽 戚家莊 東 M269:35,¹³ 1973년 賀家村 1호묘 출토 罍와 유사하여 은허3기에 가까운 것으로 판단된다. 나머지 2점은 권족이 높은 편이나 아직 저부에 段이 형성되지 않았고 안양 郭家莊 北 6호묘 출토 罍¹⁴와 유사한데, 주봉한은 이 罍의 연대를 은허 후기 늦은 단계에서 서주 전기 이른 단계로 보았다.

② 北洞 2호 窖藏坑¹⁵은 북동 1호 窖藏坑에서 동북쪽으로 약 3.5km 떨어진 곳에 위치한다. 구덩이는 장방형이고 남북 방향이다. 흑회토층을 파괴하고

11 石璋如, 1947, 「殷墟最近之重要發現附論小屯地層」, 『考古學報』 1947-2.
 12 朱鳳瀚, 1995, 『古代中國青銅器』, 南開大學出版社(이하 주석을 달지 않은 것은 모두 이 책을 참고한 것이다).
 13 孟憲武, 2003, 「殷墟戚家莊東269號墓的發掘與研究」, 『安陽殷墟考古研究』, 中州古籍出版社, 20~50쪽.
 14 安陽市文物工作隊, 1991, 「河南安陽郭莊村北發現一座殷墓」, 『考古』 1991-10.
 15 喀左縣文化館·朝陽地區博物館·遼寧省博物館·北洞文物發掘小組, 1974, 「遼寧喀左縣北洞村出土的殷周青銅器」, 『考古』 1974-6.



지표로부터 깊이 0.2m에 있고, 길이 2.5m, 너비 1.2m이며, 바닥은 길이 2.0m, 너비 1.0m이다. 구덩이 높이는 0.8~1.1m이고, 청동기는 입구에서 0.3m 아래에 놓여 있었는데, 그 상부에 부정형의 석판이 한 층을 이루고 있는 것이 주목된다. 기물 내부와 구덩이 벽에 많은 양의 석편이 채워져 있다. 내부에서는 니질회도에 부가되문이 장식된 옹과 夾砂褐陶 繩紋罐 파편, 甗足 등(그림 4)이 출토되었는데, 흑회토층에서 출토된 陶片과 같다.

청동기는 方鼎 1점, 圓鼎 2점, 罍 1점, 方座簋 1점, 鉢形器 1점 등 모두 6점이 출토되었다. 출토 시 기물이 질서 있게 놓여 있었는데, 구덩이 바닥을 북고남저형으로 비스듬하게 하거나 바닥에 돌을 받쳐놓음으로써 기물의 구연부 높이를 맞추려 하였다.

罍 方鼎: 구연부가 밖으로 꺾이고 구순 단면이 방형을 이루며, 그 상단에 器耳가 직립한다. 기복은 아래로 내려갈수록 좁아지다가 평저를 이룬다. 복부 모서리와 기족에 비룡이 부가되어 있다. 기족은 圓柱形이다. 기복에는 수면문과 乳釘紋이, 기족에는 수면문이 장식되어 있다. 기고는 52cm로 80.1cm인 司母辛大方鼎(은허2기)¹⁶보다 작은 편이나, 두 기물의 기형과 문양이 매우 유사하다. 명문에 상 후기 帝乙·帝辛의 집정대신¹⁷인 “**雚**”이 출현하였으며, 朱鳳瀚은 은허 후기로 보았다.

16 中國社會科學院考古研究所 編著, 1985, 「殷墟青銅器」, 『文物出版社』, 圖板 3.

17 吳鎮鋒 編撰, 2006, 『金文人名彙編』(修訂本), 中華書局, 193쪽.

𩇛父辛鼎: 기형과 문양이 모두 殷墟西區GM907:3¹⁸과 유사하며, 주봉한 은 은허 후기로 보았다. 琉璃河 253호묘에서도 이와 유사한 수면문 정이 출토되어, 그 하한이 서주 전기까지 내려가는 것으로 판단된다. ‘𩇛’명문은 小屯 M17:6 銅觚에서도 보인다.

蝸身獸面鬚(卷體夔紋蟠龍蓋鬚): 경부는 좁고 견부는 넓으며, 器耳에 원형 고리인 獸首銜環이 있다. 뚜껑에 蟠龍이 부조되어 있다. 권족은 높은 편이고 외반하며 단이 부가되어 있다. 견부에는 측면을 향한 달팽이모양의 수면문 2쌍이 장식되어 있고 복부와 권족에 각각 수면문과 기룡문이 장식되어 있는데, 서주시기 표준기인 天亡簋의 복부와 방좌에서도 확인되는 문양이다. 이 같은 기물이 섬서성 기산현 賀家村 서쪽에서 발견된 서주 전기 墓에서 출토되는 것으로 볼 때,¹⁹ 武·成시기에 가까울 것으로 보인다.

蟬紋鼎: 복부 최대경이 하단에 있고, 蹄足이다. 문양은 경부와 족부 상단에 수면문이, 복부에 蟬紋이 장식되어 있고, 경부와 족부에 짧은 비름이 있다. 기형과 문양이 섬서 扶風 劉家村 1호묘 출토 원정,²⁰ 寶鷄 紙坊頭 출토 BZFM1:8,²¹ 장안 灃西 張家坡 출토 67M87:1 등과 매우 유사한 것으로 보아, 연대는 成·康시기로 볼 수 있다.

方座簋: 簋身이 서주 전기 대부분의 동궐과 매우 유사하여 서주 전기로 볼 수 있다.

鉢形器: 출토 시 동궐 안에 놓여 있었다. 전체적으로 반구형을 띠며 圓底이고, 한쪽에 짧은 주둥이가 위를 향해 달려 있다. 문양은 없다. 이러한 형태는 지금까지 단 1점만 출토되었다.

18 中國社會科學院考古研究所安陽工作隊, 1979, 「1969~1977年殷墟西區墓葬發掘報告」, 『考古學報』 1979-1.

19 長水, 1972, 「岐山賀家村出土的西周銅器」, 『文物』 1972-6.

20 陝西省考古研究所·陝西省文物管理委員會·陝西省博物館 編, 1980, 『陝西出土商周青銅器(三)』, 文物出版社, 單色圖版 36~80쪽, 圖版 설명 6~8쪽.

21 盧連成·胡智生, 1988, 『寶鷄獫狁墓地』, 文物出版社.

③ 花爾樓 窖藏坑²²은 요령성 義縣 稍戶營子鎮에 위치하고, 醫巫闔山의 서쪽이다. 구덩이 평면은 원형이고, 지표로부터 1m 깊이에 있다. 출토 시 기물이 어지러이 놓여 있었다.

청동기는 모두 鼎 1점, 甗 2점, 簋 1점, 案 1점이 출토되었다. 화이루 窖藏坑 출토 청동용기는 錦州市博物館에 전시(2017.9)되어 있다.

案: 저부에 ‘ㄱ’자형 받침(板足)이 있어 전체적인 형태가 도마와 유사하다고 하여 俎形器라고 부르기도 하고, 복부의 형태에 따라 方形器 혹은 盤形器라 불리기도 한다. 요서지역에서 지금까지 발표된 것은 화이루 출토 1점(그림 5-1) 뿐이나 요령성박물관에는 이와 기형과 문양이 거의 흡사한 소파태구 출토품이 전시되어 있다. 그리고 금주시박물관에 또 다른 한 점이 전시되어 있는데(그림 5-2), 두 점 모두 복부가 淺盤狀이고 기저에 銅鐘이 부착되어 있는 점이 같



22 遼寧義縣文物保管, 1982, 「遼寧義縣發現商周銅器窖藏」, 『文物』 1982-2; 孫思賢·邵福玉, 1982, 「遼寧義縣發現商周銅器窖藏」, 『文物』 1982-2.

다.²³ 이러한 기물은 安陽 郭家莊과 苗圃(그림 5-3, 4)²⁴에서도 출토되었는데, 복부가 方形이고 복부 양측에 索狀提梁(손잡이)이 부가되어 있으며, 족부에 화이루 출토품과 같이 원각장방형의 缺口가 있다. 문양은 화이루의 경우 족부에 상 전기 늦은 단계인 백가장기유형의 수면문이 장식되어 있는 반면, 광가장 출토품은 대부분 무문이고 기복과 판족에 1~2줄의 현문이 장식되어 있다. 이를 종합해 볼 때, 화이루 출토 銅案의 연대는 대체로 상 후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고, 상한은 은허3기 혹은 그보다 이를 것으로 판단된다.

無耳簋: 安陽 戚家莊 東 M269:40²⁵이 복부 양측에 器耳가 부가되어 있는 것을 제외하면 기형, 문양이 거의 유사하다. 따라서 연대는 은허3기에 가까울 것으로 판단된다.



그림 6 花爾樓 窖藏坑 출토 銅甗과 경부 문양

弦紋甗: 기형과 문양이 安陽 郭家莊 M160:51²⁶과 흡사하여, 은허3기로 판단된다.

獸面紋甗: 기복과 기족이 낮아 전체적으로 육중한 느낌을 준다. 이러한 기형은 서주 중기에 유행한다. 경부에 장식된 수면문은 중원의 상 전기부터 나타나는 수면문이나, 서주 전기에 출현하는 봉황 문양을 모방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눈과 눈썹, 귀, 하악 등 모두 전형적인 서주 장식문양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이 기물의 상한은 서주 전기인 것으로 판단된다.

23 廣川守에 의하면 이 동종은 이후에 추가로 부가된 것이라고 한다.

24 岳洪彬 主編, 2008, 『殷墟新出土青銅器』, 雲南人民出版社.

25 孟憲武, 2003, 앞의 책.

26 岳洪彬 主編, 2008, 앞의 책.

(그림 6). 삼족 모두 後鑄 흔적이 관찰되나, 주조 후 바로 수리한 것인지 사용 중 보수를 한 것인지 확인되지 않는다. 기물 내부에서 많은 기포 흔적이 확인된다.

獸面紋鼎: 기형과 문양이 2005년 안양 은허 西家橋綜合樓基建工地 M1:3과 戚家莊 M269:35와 매우 유사하다. 따라서 주조연대는 은허3기까지 올라갈 수 있다. 복부 하단에서 裂痕이 관찰된다.

현재 발표된 자료를 통해서도 사용·수리 흔적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 그러나 수면문언과 정 등에서 발견되는 일부 흔적을 통해서 이들 기물의 주조기술이 중원에서 출토되는 청동기에 비해 숙련이 덜 된 장인에 의해 제작되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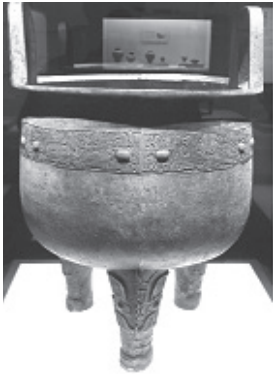
④ 小波太溝 窖藏坑은 객좌현 坤都營子鄉 小波太溝村에 위치한다.²⁷ 1978년 소파태구촌에서 출토된 청동용기는 鼎 2점, 罍 4점과 簋, 盤, 鈴首匙, 기물 뚜껑 각 1점씩 등 10점으로 발표되었으나, 기물 및 도면은 지금까지 대부분 발표되지 않은 상태이다.²⁸ 다만 일부는 박물관에 전시되어 있어 참고가 된다. 이미 발표된 기물과 필자가 확인한 박물관 전시기물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요령성박물관에 이 窖藏坑의 출토품으로 전시(2017.9)된 유물은 圍簋, 無名簋, 圓鼎, 有蓋罍,²⁹ 登逆方罍, 渦紋圓罍와 案이 각 1점씩 모두 7점이다. 그러나 이 중 유개되는 북동 2호 출토품으로 확인되며, 無名簋는 소파태구 출토품이 아닐 수 있다. 그리고 원정 1점은 조양박물관에 전시(2015.8)되어 있다.

圍簋: 명문이 琉璃河 253호묘에서 출토된 圍簋와 일치하여 같은 시기 주

27 魏凡, 1983, 「就出土青銅器探索遼寧商文化問題」, 『遼寧大學學報』(哲學社會科學版) 1983-5.

28 小波太溝 窖藏坑에서 출토된 청동기의 수량에 대하여 9점에서부터 14점까지 연구자마다 상이한 통계를 발표하였다.

29 박물관 설명문에는 소파태구 窖藏坑 출토라고 되어 있으나, 北洞 2호 기물인 것으로 파악된다.



1. 요령성박물관 전시



2. 조양박물관 전시

그림 7 小波太溝 窖藏坑 출토 獸面紋鼎

조된 것으로 보이며, 彭裕商은 이 기물의 연대를 成王시기로 보았다.³⁰ 張長壽는 利簋와 유사하다고 보고 서주 전기로 판단하였다.³¹ 또 학계에서 鬲器 명문에서 보이는 언후가 제1대 언후일 것으로 보고 있는데, 그렇다면 成王 전기일 가능성이 크다.

不明簋(요령성박물관 전시, 2017.9): 위궤에 비해 기북이 얇은 편이고, 기신과 방좌 네 모서리에 비름이 부가되었으며, 방좌 네 면이 수면문으로 장식되었다. 그러나 대체적으로 기형과 문양이 위궤와 유사하여 같은 시기에 주조된 것으로 보인다.

요령성박물관과 조양박물관에 소파태구 출토품으로 전시된 圓鼎 2점(그림 7)은 형태상 주조시기에 차이가 있어 보인다. 먼저 廣川守가 실견 후 기북이 먼저 주조되고 후에 器底와 器足を 後鑄한 것으로 분석한 원정(그림 7-1)은, 『文

30 彭裕商, 2003, 『西周青銅器年代綜合研究』, 巴蜀書社, 228~234쪽(이하 주석을 달지 않은 것은 모두 이 책을 참고한 것이다).

31 王世民·陳公柔·張長壽, 1999, 『西周青銅器分期斷代研究』, 文物出版社.

物』1982년 2호에 발표된 獸面紋圓鼎으로 판단된다. 그는 이 기물의 주조기법이 鄭州 杜嶺 窖藏坑과 강서 新干 大洋洲에서 출토된 대방정과 유사하다고 보고 그 주조연대를 二里崗 상층시기로 판단하였다.³² 그의 설명을 따를 경우, 원래는 이리강시기에 주조되었으나 장기간 사용으로 파손되어 후대에 당시 유행하는 문양으로 器足を 수리한 것일 수도 있다. 그러나 필자가 볼 때, 이 기물은 경부와 기족의 수면문이 각각 이리강시기와 서주시기에 유행하는 문양이므로 동시기에 제조된 것으로 보기 어렵고, 기족의 장식으로 보아 주조연대는 상후기보다 늦을 것으로 판단된다.

조양박물관에 전시된 또 다른 圓鼎(그림 7-2)은 기벽이 두꺼운 편이고, 경부에 수면문 6組가 장식되어 있는데 수면문의 중앙에 두꺼운 비름이 형성되어 있다. 기저 외벽의 범선은 周原 출토 岐FQM1:1 원정과 같아, 이 기물의 상한 연대는 서주 전기로 판단된다.

方鼎: ‘登逆’이라는 명문이 있다. 함께 출토된 다른 기물과 비교해 볼 때 서주 전기에 가까울 것으로 판단된다.

圓鼎: 기형은 북동 1호와 2호 窖藏坑에서 자주 보이던 원뢰와 유사하나, 북동 출토 되는 모두 무문인 데 반하여 이 기물은 전체적으로 세선문으로 장식되어 있는데 운뢰문을 지문으로 한 수면문이다. 연대는 상말주초로 보인다.

기타 기물은 현재 확인 불가하다. 이 窖藏坑의 매장연대는 서주 전기를 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⑤ 咕嚕溝 窖藏坑³³은 요령성 객좌현 小成子鄉 咕嚕溝에 위치한다. 1941년 銅鼎 2점이 출토되었다고 하나 이미 모두 유실되었고, 陳夢家가 그중 1점을 발표하였다. 이 圓鼎은 기벽이 깊은 편이고, 垂腹이다. 문양은 경부에 獸面紋帶가 있고, 獸蹄足 상단에 수면문이 장식되어 있다. 陳夢家は 成王시기

32 보고자는 殷代 武丁 시기로 판단하였다.

33 陳夢家, 1955, 「西周銅器斷代(二)」, 『考古學報』 1955-10; 魏凡, 1983, 앞의 글.

로 판단하였고, 학계에서도 큰 이견이 없는 상태이다.

⑥ 馬廠溝 窖藏坑³⁴은 요령성 객좌현 海島營子村 小轉山子에 위치한 산의 북쪽 비탈에서 발견되었다. 소전산자 주변에서 灰土가 넓은 범위에 걸쳐 확인되고 도기와 석기 파편이 산재되어 있다. 구덩이의 유무는 확인되지 않았으나, 지표로부터 약 15cm 깊이에서 16점의 청동기가 발견되었다.³⁵

마창구 窖藏坑 청동기는 簋 3점과 甗, 提梁卣, 罍 각 2점, 盂, 壺, 尊, 盤, 鼎(三足盤이라고 하기도 한다) 각 1점과 이미 파손되어 기형을 알 수 없는 2점 등 총 16점이 있다. ‘匜侯’, ‘史伐’, ‘戈父庚’, ‘蔡’, ‘魚父癸’ 등 명문이 있는 기물이 많은 편이다.

대부분의 기물에 보수한 흔적과 焊接한 흔적이 있고, 문양의 사이사이에서 검은 탄과 재가 확인된다. 청동기 주변에서 20~30cm 두께의 회층과 도기 파편, 석부, 석도, 석검 잔편이 발견되었다. 도기는 대부분 흑도이고, 기형은 鬲, 鉢, 甗 등이며, 문양은 승문, 현문, 捺紋이 있다.

貫耳壺: 기형이 전체적으로 길쭉한 편이고, 표면에 십자 형태의 띠가 덧붙여 있다. 전체적인 기형이 1976년 莊白 출토 壺(76FZJ1:36)와 유사한데, 장백 출토 호는 십자형 띠가 없고 뚜껑 하단과 경부에 봉황문 문양대가 있다. 이 호의 연대를 주봉한은 康王시기로 보았고, 팽유상은 이 호가 匜侯盂, 史伐卣와 함께 출토된 것에 주목하여 成康시기로 보았으나, 기형과 문양으로 볼 때 하한이 서주 중기까지 내려갈 수도 있다.

匜侯盂: 복부에 전체적으로 顧首龍紋이 장식되어 있다. 기형과 문양이 주원 窖藏坑 출토 商尊, 商卣와 유사한데, 학계에서는 대체로 康王시기로 보고

34 熱河省博物館籌備組, 1955, 「熱河陵源縣海島營子村發現的古代青銅器」, 『文物參考資料』 1955-8.

35 간보에 의하면, 일제강점기에 현 객좌현 대성자진에서 周代 銅鼎 2점이 발견되었다고 하나 실물은 확인되지 않는다. 대성자는 해도영자에서 20리밖에 떨어져 있지 않아 이 두 지점에서 출토된 청동기 간에 연관이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있다.³⁶

史伐卣: 鼓腹이고, 뚜껑에 圈足形 손잡이가 있다. 提梁은 겉면에 蟬紋이 장식되어 있으며, 끝부분을 장식한 獸首의 뿔이 돌출되었다. 이러한 유형의 銅卣는 昭王 이후에 유행하는 것으로, 하한은 穆王시기로 볼 수 있다.

蟬紋盤: 경부와 권족에 선문 문양대가 장식되어 있고, 천마-곡촌 6081호묘 출토 盤과 유사하다.³⁷ 연대는 서주 전기 혹은 서주 중기까지 내려갈 수 있다.³⁸

夔紋鼎: 淺盤에 器耳가 부가되어 있고 柱足이다. 경부에 長鳥紋이 시문되었는데, 꼬리가 두 갈래로 갈라져 있다. 그중 아래쪽 한 갈래의 끝부분이 다시 위로 말려 올라가 있는데 牆盤과 유사하다. 張長壽는 이러한 문양을 昭王보다 늦거나 穆王 혹은 懿王보다 늦다고도 보았다.³⁹

기형과 문양이 확인 가능한 청동기 중 弦紋甗은 은허3기 혹은 그보다 이른 시기까지 올라갈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史伐卣, 蟬紋盤과 夔紋鼎은 서주 중기에 속하고, 나머지는 대체로 은허4기에서 서주 전기에 해당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鴨耳尊과 蟬紋盤, 龜紋甗, 貫耳壺는 지방 특색을 강하게 띠는 기물로 뒤에서 다시 자세히 다루고자 하는데, 연대는 역시 상말주초를 크게 벗어날 것으로 보지 않으나 관이호 등은 연대를 추정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

⑦ 山灣子 窖藏坑⁴⁰은 요령성 객좌현 平房子山 山灣子村에 위치하고, 대릉하상류 동안의 第一臺地에 있다. 구덩이는 방형에 가까운 圓形이며, 長徑

36 晏琬, 1975, 「北京·遼寧出土銅器與周初的燕」, 『考古』 1975-5; 彭裕商, 2003, 앞의 책, 201쪽; 劉啓益, 2003, 『西周紀年』, 廣東教育出版社, 129쪽.

37 北京大學考古學系商周組·山西省考古研究所 編著, 2000, 『天馬—曲村(1980~1989)』, 科學出版社.

38 王世民·陳公柔·張長壽, 1999, 앞의 책, 151쪽.

39 陳公柔·張長壽, 1999, 「殷周青銅容器上鳥紋的斷代研究」, 『西周青銅器分期斷代研究』, 文物出版社, 251~256쪽.

40 喀左縣文化館·朝陽地區博物館·遼寧省博物館, 1977, 「遼寧省喀左縣山灣子出土殷周青銅器」, 『文物』 1977-12.

약 1.2m, 깊이 0.9m이다.

청동기는 方鼎 1점, 鬲 1점, 甗 3점, 盂 1점, 尊 1점, 提梁卣 1점, 圓罍 2점, 方罍 1점, 簋 10점과 盤狀器 1점 등 모두 22점이 출토되었으며, 그중 15점에 명문이 있다. 출토 시 獸面紋盂가 가운데에 있고 盤狀器로 덮여 있었으며, 그 둘레에는 簋 9점이 놓여 있었다. 그리고 나머지 기물들도 그 주위에 질서 있게 놓여 있었다.

이들 청동기에서도 장기간 사용으로 인한 마모흔 또는 수리하여 사용된 흔적이 확인된다. 乳釘紋簋의 기벽이 비교적 얇고, 바닥의 기포는 모두 정리되었으며, 鬲伯簋 역시 보수되었는데 한쪽 器耳의 중단에서 끊어진 것을 연결시킨 흔적이 확인된다. 盤狀器 구연부에는 대칭으로 2개씩 모두 8개의 작은 구멍이 뚫려 있는데, 테두리 내부에서 장기간 사용으로 인한 마모 흔적이 확인된다.

주조시기는 대부분 은허4기에서 서주 전기 사이에 집중되어 있으나 서주 중기에 이르는 기물도 일부 확인된다.

史方鼎: 이와 유사한 기형은 안양 劉家莊 北 M1046:25에서도 확인되며, 은허4기에 가장 먼저 출현하였다. 또 부평 莊白 1호 窖藏坑(76莊白1:17)에서도 출토되었는데, 주봉한은 서주 전기 늦은 단계로 판단하였다. 따라서 이 銅罍의 연대는 은허4기에서 서주 전기 사이인 것으로 보인다.

圓罍: 2점, 기형은 모두 북동 2호 蝸身獸面罍와 유사하나 문양에 차이가 있다. 그중 渦紋罍는 상말주초로 판단되는 북동 1호 출토 5점 외보다 형태상 다소 늦은 것으로 보인다. 牛紋罍는 견부에 소와 말 문양이 장식되어 있는데, 중원 청동기의 수면문 구조에 북방의 문양요소가 대입된 것으로 보인다. 연대는 북동 1호 출토 渦紋罍와 가까울 것으로 판단된다.

提梁卣: 기형이 殷墟 西區 M1015:4⁴¹와 高家堡戈國묘지 M4:28⁴²과 매우 유사한 것으로 보아, 이 卣의 연대는 상말에서 서주 전기 이른 단계인 것으

41 中國社會科學院考古研究所安陽工作隊, 1979, 앞의 글.

42 陝西省考古研究所, 1994, 『高家堡戈國墓』, 三秦出版社.

로 판단된다. 경부에 문양대 자리를 마련해두고서 문양을 시문하지 않은 점이 주목된다. 기체에 ‘舟父甲’이, 뚜껑에 ‘車鳥丙父丁’이 새겨져 있는데, 글자체는 유사하다.

簋: 10점. 대체로 상말주초에 해당하는데, 2점의 菱格乳釘紋簋 중 器耳가 없는 것은 은허4기가 되면 이미 거의 보이지 않는다. 또 서주시기가 되면 복부가 낮아지고 대부분 뚜껑이 부가되면서 鬲伯簋1과 같이 구연부가 더 이상 외반하지 않으며, 尹簋와 같이 권족 하단에 단이 형성되어 있다. 기형과 문양으로 볼 때, 器耳가 있는 簋는 복부에 장식된 유정문이 이미 장형화된 것으로 보아 서주 전기에 가깝고, 直稜紋簋는 서주 전기 白草坡M1:10과 매우 유사하다. 그 외에는 대체로 상말주초에 가까운 것으로 판단된다.

魚尊: 구연에서부터 권족까지 모두 4조의 비름이 이어져 있고, 기고가 37cm로 높은 편이고 세장하며, 殷墟西區 M856:1과 유사하다. 기형으로 보아 서주 전기 利尊보다 이른 것으로 보이며, 대체로 은허4기로 판단된다.

獸面紋盃: 권각수면문은 서주 전기 다른 청동기에서 보이는 것과 유사하며, 주봉한은 이 동우의 연대를 서주 전기로 판단하였다.

獸面紋甗, 子荷戈甗, 伯矩甗: 외형과 문양 모두 은허4기에서 서주 전기 같은 유형의 기물과 매우 유사하다. 예를들어, 子荷戈甗과 伯矩甗은 1978년 섬서성 기산현에서 발굴된 齊家M19:22와 거의 같다. 그중 수면문은 경부에 장식된 索狀帶나 족부 상단 귀문의 장식기법이나 소재에서 토착요소가 가미된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獸面紋簋, 父乙簋, 父甲簋, 庚父戌簋, 匜父簋와 獸面紋甗, 子荷戈甗, 伯矩甗 등도 주조시기가 은허4기에서 서주 전기에 해당할 것으로 보인다.

叔尹方鼎: 기형은 伯冏墓 출토 방정⁴³과 유사하나 器耳의 위치와 형태에 차이가 있고, 경부에 수면문 대신 현문이 2줄 있다. 전체적으로 무문이고 기복

43 陝西省文物管理委員會, 1957, 「長安普渡村西周墓的發掘」, 『考古學報』1957-1,

이 아래로 갈수록 넓어져 연대가 늦을 것으로 판단되며, 주봉한은 昭·穆시기로 보았다. 중원의 경우 방정의 器耳가 대부분 경부에 부착되는 것과 달리 구연에 부착되어 있고, 구연부 단면이 상 전기처럼 반원형에 가까운 것 등을 고려할 때, 비중원계 요소가 강한 것으로 보인다.

分檔層: 기형은 雲塘 M13:17, 琉璃河 209호묘 출토품과 매우 유사하다. 팽유상은 昭·穆시기로 보았으나, 함께 출토된 다른 기물과 종합해 볼 때 하한은 서주 중기까지 내려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나머지 盞狀器 1점은 상주시기 중앙 왕조를 비롯한 주변지역에서도 발견되지 않는 기물로서 연대를 추정하는 데 어려움이 있으나, 함께 출토된 다른 기물로 판단할 때 상말주초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4) 冀北 지역

小河南 窖藏坑⁴⁴은 하북성 흥릉현 소동구 소하남촌에 위치한다. 청동기는 소하남촌으로 이어지는 산비탈의 깊이 0.5m 아래에서 농민에 의해 발견되었는데, 주변으로 회색 부식토가 얇은 층을 이루고 있고 그 아래에 돌이 산재해 있었다. 발견한 사람에 의하면 직경 0.5m가 안 되는 원형의 구덩이 안에 청동기들이 하나로 묶여 있는 듯 보였다고 한다. 이에 보고자는 이 窖藏坑이 제사 혹은 전쟁 등의 원인에 의해 계획적으로 매장된 것으로 추정하였다. 청동기는 모두 10점이 출토되었는데, 청동용기 뚜껑(簋蓋) 1점과 戈 4점, 矛 1점, 鉞 1점, 刀 2점, 劍 1점 등 병기와 공구가 있다. 기타 다른 공반 유물은 없다.

청동용기 뚜껑의 내부에 ‘水且乙’ 명문 3자가 있고, 연대는 상 후기에 속하는 것으로 판단되며, 나머지 청동 병기와 도구 등은 모두 북방식 청동기로 서주 전기에서 서주 중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인다.

44 鄭紹宗, 1994, 「長城地帶發現的北方式青銅刀子及其有關問題」, 『文物春秋』 1994-4.

그 외에도 1980년 발견된 窖藏坑으로, 朝陽縣 木頭城子(簋 1)와 大廟(罍 1) 등이 있으나, 도면과 사진자료가 발표되지 않았다. 이상에서 언급된 窖藏坑에서 출토된 청동기의 주조연대를 <표 1>에 정리하였다.

<표 1> 요서지역 출토 상주 청동용기 분기표(주조연대와 매납연대 참고)

	분포 지역	출토유적	은허 2기	은허 3기	상말 주초	서주 전기	서주 중기	연대 미상	
매 납 유 적	요하	天寶同	1						
	노합하	西牛波羅	1						
		頭牌子	1	2					
	대소 릉하	北洞 1호	1	2	3				
		北洞 2호			1	4		1*	
		花爾樓		3		1*		1*	
		小波太溝			2	3*		5*	
		咕嚕溝				1		1	
		馬廠溝		1	4*	5*	3*	3	
		山灣子				19*		2*	1*
		木頭城子							1
		大廟							1
	기북	小河南			1*				
무 덤	대소 릉하	和尚溝AM1		1	1				
		高家洞M1			1				
		魏營子M7101							
		魏營子M7603							
	요하	塔子溝							

(*는 비증원계 청동용기 포함. <그림 1> 참조)

2. 요서지역 墓유적 출토 청동용기

위영자유형에 속하는 墓 6기에서 청동기가 출토되었다. 그중 和尚溝와 高家洞 墓에서 상주시기 중원계 청동용기가 출토되었고, 魏營子和 道虎溝 墓에서는 차마구와 병기, 도구, 장신구 등이 출토되어 주변 窖藏坑에서 청동예기가 집중적으로 출토된 것과 차이를 보인다. 이들 墓는 규모가 작은 편이나 모두 청동기가 출토되고 시대와 분포지역이 모두 객좌 청동기 窖藏坑과 유사하여, 그와 관련하여 매납주체자 혹은 성격 등을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표 2) 참조).

〈표 2〉 요서지역 상주 청동기 출토 墓 일람표

	출토지점	청동기				기타(장식)	도기	기타
		용기	병기	도구	차마구			
대 소 릉 하	객좌 和尚溝 AM1	缶 1, 壺 1					무문발 1, 무문완 1	금팔찌 2, 海具
	객좌 高家洞	甗 1					승문발 1, 무문완 1	녹송석 구슬 2
	조양 魏營子 M7101		銅甲 3		鑾鈴 2, 鈴狀器 1, 車轄 1, 泡 90	羊頭飾 1		녹송석 12, 금팔찌 1
	조양 魏營子 M7603		투구 1		當廬 2			
요 하	파림좌기 塔子溝			刀 1		泡 1		

① 和尚溝 1호묘(AM1)⁴⁵: 대릉하 서안의 객좌현 興隆莊鄉 宣家窩鋪村에

45 郭大順, 1987, 「試論魏營子類型」, 『考古學文化論集(一)』, 文物出版社; 遼寧省文物考古研究所·喀左縣博物館, 1989, 喀左和尚溝墓地, 『遼海文物學刊』

위치한다. 이 객좌현 중부의 구릉 지대에 있는 묘지에서 발견된 상말 주초 墓 4기는 모두 토광묘이고, 목관(곽)을 사용하였으며 양신직지 장이다. 규모는 크지 않다. 그중 청동기가 출토된 1호묘는 墓 길이 약 2.5~3m, 너비 약 1.0~1.5m, 깊 이 0.6~1.5m이고, 銅卣 1점, 銅壺 1점이 출토되었다. 그 밖에도 무문발과 승문발 각 1점, 金釧 1쌍 과 海貝(현존 수량 77점)가 출토되었다(그림 8).

提梁卣: 복부 최대경이 하복부에 있으며, 索狀提梁은 圓角方形을 이루고 있다. 뚜껑과 경부에 뇌문이 있으며 그 양단을 聯珠紋이 장식하고 있다. 기형과 문양이 모두 은허 척가장 M269:10과 거의 유사하다. 따라서 기물의 연대는 은허3기까지 올라갈 수 있다.

‘丙’壺(그림 9): 저부에 ‘丙’자 명문이 있는데, 이는 1950년 섬서 부풍현 雲塘村 4호 窖藏坑에서 출토된 尊과 1973년 기산현 賀家村 1호묘에서 출토된 提梁卣⁴⁶에서도 확인이 되고 안양 소둔 M17:6 鼎에도 유사한 명문이 있다.⁴⁷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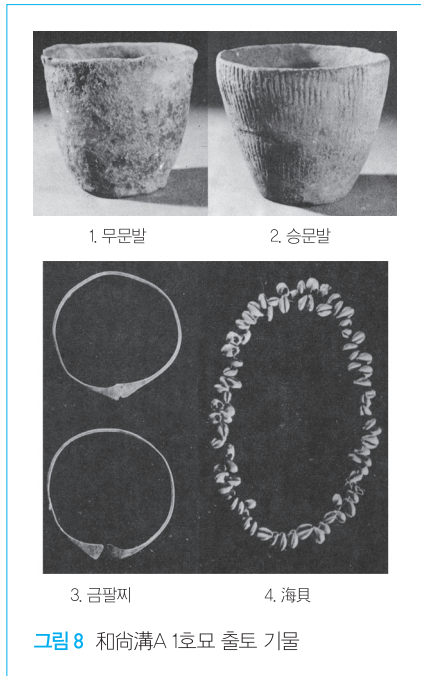


그림 8 和尙溝A 1호묘 출토 기물

1989-2.

46 陝西省博物館·陝西省文物管理委員會, 1976, 「陝西岐山賀家村西周墓葬」, 『考古』 1976-1.

47 상주시기 요서지역 출토 청동기에서 보이는 족씨 명문 관련 연구는 이유표 글을 참고하기 바란다(이유표, 2019, 「요서 출토 상말주초 族氏 銘文에 대한 일고찰」, 『동북아역사논총』 63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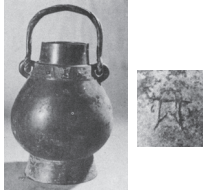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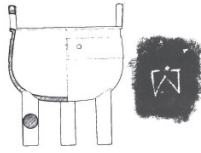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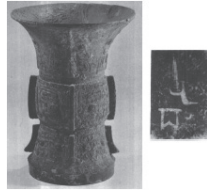
	罍(객좌 和尚溝AM1)	鼎(안양 小屯M17)	尊(부풍 云塘村4호 窖藏坑)
기물 (명문)			
	丙	丙	父丙

그림 9 '丙'자 명 동기(요서, 중원, 관중)

그중 운당촌 출토 준은 서주 전기에, 하가촌 1호묘 출토 제량유는 상 말기에 속하고 소둔 17호묘는 은허2기 묘이다.⁴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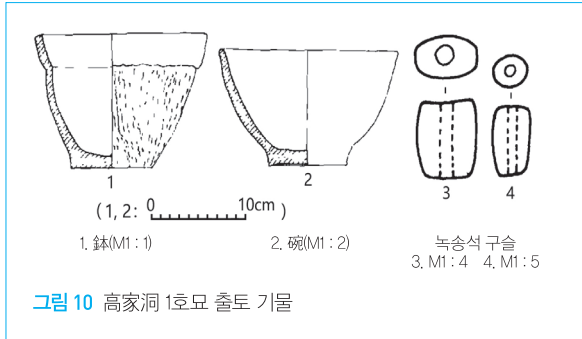
'丙'자 명문은 기타 죽군의 기물과 함께 산서 靈石 旌介商墓⁴⁹에서 많이 발견되는데, 이 묘지의 성격에 대해 학계에서는 상말주초 병국의 수령 혹은 병국 귀족과 그 종족으로 보는 견해가 일반적이다.

② 高家洞 1호묘(M1)⁵⁰: 객좌현 남쪽 대릉하 서안의 산비탈에 위치한다. 북동 窖藏坑과 강을 사이에 두고 마주하고 있다. 묘의 규모는 길이 2.7m, 너비 1.8m, 깊이 약 1.0m이다. 동서 방향의 토광(목곽)묘이고 일인 양신직지장이다. 銅甗 1점과 鉢, 碗 등 도기와 녹송석 구슬 2점이 출토되었다(그림 10).

48 '丙'자 명 청동기가 34점 출토된 영석 정개상묘에서는 여러 형태의 변형된 병자 명 청동기가 출토되었는데, 모두 같은 글자라고 보았다. 병자 명 청동기는 武丁시기부터 서주 전기까지 발견된다(殷璋璋·曹淑琴, 1990, 『靈石商墓與丙國銅器』, 『考古』 1990-7).

49 王源, 2016, 「從靈石旌介商墓青銅器觀族氏銘文與紋飾的關係」, 『文物世界』 2016-4.

50 遼寧省文物考古研究所, 1998, 「遼寧喀左縣高家洞商周墓」, 『考古』, 1998-4.



銅甗는 方脣, 束頸, 圓肩, 曲腹이고 권족이 낮은 편이며 鏤孔이 있다. 문양은 경부에 2줄의 현문, 견부에 운뢰문을 지문으로 한 기룡문, 복부에 뇌문, 족부에 운문이 장식되어 있다. 기형과 문양은 은허1기에 해당하는 59武官M1:5와 은허2기에 해당하는 1983년 안양 대사공촌 동남 663호묘에서 출토된 동부(표 3) 참조⁵¹와 비교할 때, 후자의 족부 문양이 기룡문이라는 것만 제외하면 거의 유사하다. 따라서 동부의 주조연대 상한은 상 후기 이른 단계까지 올라갈 수 있다. 그러나 이와 함께 출토된 이중구연발과 무문완 등을 고려할 때, 이 墓의 연대는 상말주초에 해당할 것으로 보인다.

③ 魏營子 墓⁵²: 소릉하상류 우안의 서쪽 산지에 위치하는데, 묘지가 자리한 대지를 남에서 북으로 흐르는 한 지류가 에워싸고 굽이쳐 흐르고 있다. 묘지에서는 墓 9기가 발견되었는데, 모두 목곽묘이고 회고니가 채워져 있다. 그중 2기에서 청동기가 출토되었는데 7101호묘에서는 장방형 銅甲 2점, 원형 銅甲

51 岳洪彬 主編, 2008, 앞의 책, 圖板 33.

52 遼寧省博物館文物工作隊, 1977, 「遼寧朝陽縣魏營子西周墓和古遺址」, 『考古』 1977-5. 위영자유형의 대표적인 유물은 협사홍도 혹은 홍갈도이고, 기종은 鬲과 甗이 많고, 方脣大口罐과 승문이 시문된 鉢이 가장 특징적이다. 문양은 淺細繩紋이 시문되거나 승문이 시문된 후 마연하였으며, 壓印三角窩紋이 많이 보인다.

1점, 鑿鈴 2점, 鈴狀器 1점, 車馬 1점, 羊頭飾 1점, 장방형 銅泡 50여 점, 원형 銅泡 40여 점과 녹송성 12매, 금팔찌 1점 등이 출토되었다. 7603호묘에서는 투구 1점, 수면문 當盧 2점이 출토되었다. 이들은 대표적인 서주 전기 특징을 갖는 기물로, 서안 張家坡 墓 출토품과 유사하다.

④ 塔子溝 墓⁵³: 內蒙古 赤峰市 巴林左旗 林東鎮 부근 탑자구촌 주민이 요상경유적 南塔山의 동남쪽 산비탈에서 羊首青銅刀 1점, 銅泡飾 1점을 발견하였다. 간보에 따르면, 銅刀가 출토된 沙丘지대 여러 곳에서 적석이 발견되어 아마도 墓 부장품인 것으로 추정된다고 하였으며, 시기는 상 후기로 보았다.

〈표 1〉을 보면, 요서지역에서 중원계 청동용기는 적어도 상 후기 이른 단계에 해당하는 은허2기에 요하상류의 서랍목륜하와 노합하에서 출현하였고, 상말 주초 이후 특히 서주 전기에는 대릉하상류유역에 집중되어 나타나고 있다. 황하 유역의 청동예기는 상·주왕조 각 시기의 도움이 자리하던 황하중류에서 주로 출토되는데, 상대는 정주, 안양 등 中原과 關中 지역에서, 서주시기는 그중에도 주원에서 집중적으로 발견된다. 또한 시기적으로 보면, 요서지역 청동기 窖藏坑은 주로 상말주초에서 서주 전기에 집중된 반면, 중원은 상 말기, 즉 은허 4기에, 관중 지역은 대부분 본고의 범위를 벗어난 서주 말기에 매납되어 있어, 지역에 따른 매납시기의 차이가 분명하게 나타난다.

III. 황하중류유역 窖藏坑 출토 청동기와의 비교

위에서 요서지역에서 청동용기가 출토되는 유적을 중심으로 그 매납 정황과 출토유물을 정리하고, 황하유역 청동용기와 비교하여 매납시기를 추정하였다. 이

53 王夫想, 1994, 「內蒙古林東塔子溝出土的羊首銅刀」, 『北方文物』 1994-4.

를 통해 이 지역에서 출토된 중원계 청동용기가 지역과 시기를 달리하여 분포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상주시기 요서지역 窖藏坑과 墓에서 출토된 청동기의 주조시기와 매납 성격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당시 그러한 청동기 제작기술을 보유했던 지역, 즉 황하유역의 중원과 관중에서 출토되는 청동기 및 유적과 비교해볼 필요가 있다. 상말주초 요서지역에서 출토되는 청동기와 황하유역 중앙 왕조의 窖藏坑 및 墓에서 출토되는 청동기의 비교는 매납 정황과 조합관계 그리고 기물의 형태와 제작기법상의 차이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다. 이중 전자는 별고에서 논하기로 하고, 본고에서는 황하중류유역 출토 청동기의 분기를 참고하여⁵⁴ 추정된 요서지역 출토 상주 청동기의 주조연대를 기초로 기물의 형태와 제작기법상의 차이를 고찰해보고자 한다.

1. 황하중류유역 청동용기가 출토되는 窖藏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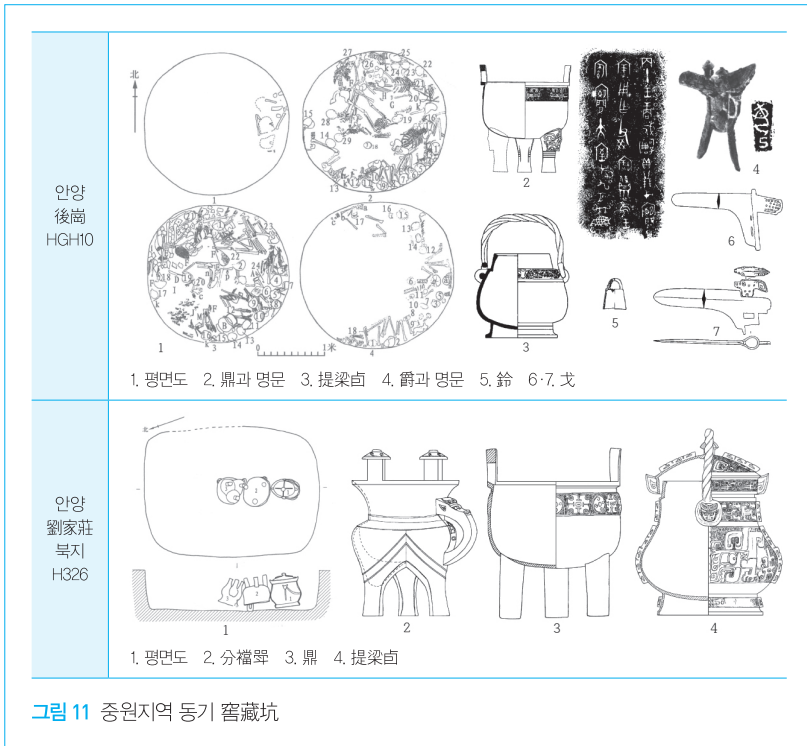
窖藏坑 출토 청동기는 매장 의의와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墓에서 출토되는 부장품과는 물론이고 각각의 窖藏坑에 매납된 기물의 수량과 기종 역시 모두 다르다. 또 그 경계가 모호할 때가 있는데, 어떤 형식이라 해도 모두 상주시기 귀족 활동의 산물로서 당시의 정치제도, 方國의 분포, 족속의 이동과 문화전파 등의 정보가 담겨 있다고 볼 수 있다. 중원계 청동예기가 매납된 유적은 상 전기부터 중심 지역과 그 주변지역에서 줄곧 발견되는데, 중원과 관중을 위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54 楊錫璋, 1983, 「殷墟青銅容器的分期」, 『中原文物』 1983-3; 岳洪彬, 2006, 『殷墟青銅禮器研究』, 中國社會科學出版社; 王世民·陳公柔·張長壽, 1999, 앞의 책; 彭裕商, 2003, 앞의 책; 朱鳳瀚, 2009, 『中國青銅器綜論』, 上海古籍出版社.

1) 中原 窖藏坑

중원에서는 상 전기의 도성으로 알려진 鄭州商城 밖에서 모두 3기의 청동기 窖藏坑이 발견되었는데, 구덩이의 전체적인 형태와 구조, 청동기가 매납된 깊이 등이 기본적으로 유사하다.⁵⁵ 다음은 상 후기 은허유적을 비롯한 중원에서 발견된 窖藏坑을 정리한 것이다(그림 11).

殷墟 後崗 59AHGH10⁵⁶: 구덩이는 평면 원형의 우물 형태로, 구경 2.2m,



55 河南省文物考古研究所·鄭州市文物考古研究所 編著, 1999, 『鄭州商代銅器窖藏』, 科學出版社.

56 中國社會科學院考古研究所, 1987, 『殷墟發掘報告 1958~1961』, 文物出版社.

저경 2.3m, 깊이 2.8m이다. 벽면과 바닥은 편평하게 정면되었는데 두드러서 다진 흔적이 있다. 구덩이 내부에서 5개 문화층이 확인되고, 인골과 부장품은 그중 3개 층으로 나뉘어 매장되어 있다.⁵⁷ 인골은 모두 73개체로, 대부분 성인 남성이고 성인 여성과 아이도 있는데, 비정상적인 사망에 의한 것이 적지 않다. 인골 주변에서 예기를 비롯하여 병기, 공구 등 청동기 10점과 소량의 장신구, 식물, 조개껍질(貝), 곡물이 함께 발견되었고, 그 밖에도 도기 32점, 옥기 5점, 貝 718점 그리고 상아기와 곡물, 식물 등이 있다. 곡물은 용기에 담겨 있는 것도 있고, 더미로 쌓여 있는 것도 발견된다. 인골과 부장품에는 대부분 朱砂가 뿌려져 있다. 매납된 기물은 모두 실용품이고, 銅鼎의 바닥에는 그을음이 두껍게 남아 있어 사용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매장연대에 관해서는 학계에서 두 가지 견해로 나뉘는데, 출토 청동기와 도기의 기형 등에 근거하여 상 말기로 보는 견해⁵⁸와 “戊嗣子鼎” 명문과 銅戈를 근거로 서주 전기 혹은 그보다 더 늦은 단계로 보는 견해⁵⁹가 있다. 보고자는 은허4기 늦은 단계로 판단하였다. 전체적인 형태와 인골 및 유물의 매납 정황으로 볼 때, 이 구덩이는 은허시기 墓⁶⁰이나 배장묘, 순장갱⁶¹이라기보다 제사⁶²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殷墟 劉家莊 北 H2498⁶³: H2498은 장방형 사합원식 건축기지인 F79의

57 상층에서 인골 25개체와 鼎, 卣, 爵, 刀, 鏃 등 청동기 각 1점씩과 銅戈 2점 그리고 貝와 곡물, 식물 등이 발견되었다. 중층에는 인골 29개체와 貝 등 소량의 부장품이 있다. 하층에서는 인골 19개체와 역시 貝 등 소량의 부장품이 발견된다.

58 中國社會科學院考古研究所, 1987, 앞의 책; 劉一曼·徐廣德, 「論安陽後崗殷墓」, 『中國商文化國際學術討論會論文集』, 中國大百科全書出版社, 191쪽.

59 劉克甫, 1961, 「安陽後崗圓形祭坑年代的商討」, 『考古』 1961-9.

60 杜金鵬, 2007, 「安陽後崗殷代圓形葬坑及其相關問題」, 『考古』 2007-6.

61 安志敏, 1960, 「關於安陽後崗殉葬圓坑的說明」, 『考古學報』 1960-1; 郭沫若, 1960, 「安陽圓坑墓中鼎銘考釋」, 『考古學報』 1960-1.

62 中國社會科學院考古研究所, 1987, 앞의 책; 中國社會科學院考古研究所, 1994, 『殷墟的發現與研究』, 科學出版社, 131쪽.

중앙에서 약간 동북쪽에 위치한다. 이 구덩이는 부정형으로 동서길이 2.6m, 남북너비 1.65m, 깊이 2.0m이다. 전체적인 형태는 입구가 좁고 바닥이 넓은 袋狀이고 평저이다. 내부에 다량의 홍소토, 벽체와 소량의 도기편이 포함되어 있고, 바닥에서 銅尊 2점, 銅罍 1점과 陶甕 1점 등 모두 4점이 출토되었다. 기물 주위는 흑회토가 한 층을 이루고, 그 위는 홍소토이다. 청동기 외벽에 많은 양의 조가 부착되어 있다. F79 출토 도기와 H2498에서 출토된 청동기로 판단할 때, 이 유구는 은허4기 늦은 단계에 해당한다.

그 밖에도 殷墟 小屯南地H33,⁶⁴ 安陽 大司空村 71M14(殷代殺殉坑)⁶⁵ 등 은허 2기에 속하는 제사갱이 다수 확인된다.

殷墟 劉家莊 北 H326⁶⁶: 2008년 유가장 북쪽에서 많은 부정형의 구덩이가 발견되었는데, 그중 H326은 F22 건축기지의 동쪽에 위치하고 지표로부터 1.3m 깊이에 있다. 평면은 말각 방형이며 남북길이 1.35m, 동서길이 1.02m, 높이 0.32m이다. 층진토는 황회색토이고, 토질은 성글다. 구덩이 가운데에 청동기 3점이 집중되어 있었는데, 圓鼎, 分襠罍와 提梁卣 각 1점씩이고, 분당가의 柱 1개는 제량유의 내부에 들어 있었는데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주조연대는 은허3기에서 은허4기에 해당한다. 이러한 소형 매납유구는 은허 이전에는 매우 드물게 발견되던 유형으로, 서측에 위치한 건축기지와 연관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며 매납시기는 은허4기 늦은 단계에 속한다.

그 외에도 상 말기에서 서주 초기에 속하는 청동기 窖藏坑은 殷墟 小屯 西 GT231,⁶⁷ 河南 舞陽縣 吳城 北高유지,⁶⁸ 河南 舞陽縣 御店鎮 西門 밖,⁶⁹ 河

63 中國社會科學院考古研究所安陽工作隊, 2012, 「河南安陽市殷墟劉家莊北地 2010~2011年發掘簡報」, 『考古』 2012-12.

64 中國科學院考古研究所安陽工作隊, 1975, 「1973年安陽小屯南地發掘簡報」, 『考古』 1975-1.

65 安陽市博物館, 1978, 「安陽大司空村殷代殺殉坑」, 『考古』 1978-1.

66 中國社會科學院考古研究所安陽工作隊, 2009, 「河南安陽市殷墟劉家莊北地 2008年發掘簡報」, 『考古』 2009-7.

南 駐馬店 正陽縣 伍莊⁷⁰과 騎嶺鄉 大張村⁷¹ 등에서 발견되었다.

안양과 그 주변지역에서는 이보다 이른 단계의 청동기 窖藏坑도 적지 않게 발견되었는데, 河南 鄆城縣 攔河潘⁷²와 河南 舞陽縣 玉皇廟村 寨壕 상대 유 지⁷³는 청동기의 형태와 문양으로 볼 때 주조연대는 상 전기 늦은 단계에 속하는 것으로 보이고, ⁷⁴ 三家莊 窖藏坑⁷⁵은 은허1기까지 내려 볼 수 있다. 河南 舞陽縣 北舞渡⁷⁶ 출토 청동기는 은허2기를 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정리하면, 상 후기 수도인 은허유적에서 청동기 窖藏坑이 滎河의 양안에 분포하는 건축유적과 墓의 주변에서 많이 발견된다. 환하는 은허유적을 서북 방향에서 동남 방향으로 가로지르며 흐르는 강이다. 이 시기 窖藏坑은 크게 두 가지 형식이 있는데, 단순히 청동예기를 매납한 구덩이와 그와 함께 공구, 도기 및 殉人 등이 함께 출토되는 경우가 있다. 전자는 2008년 劉家莊 北地에서 발견된 H326이 대표적이고 은허유적에서 드물게 나타난다. 후자는 은허유적에서 상당히 많이 발견되는 유형으로, 주로 왕릉구와 궁전구에 집중되어 있으며, 안양 後崗 원형 제사갱이 대표적이다. 인골은 대부분 사지가 완전하지 않은 상태로 비정상적인 사망에 의한 것으로 보이며, 청동기는 鼎, 卣, 爵, 刀, 戈, 鏃 등이 있고 鬲, 甗, 甗, 簋, 盆, 罐, 壺, 甗 등의 도기가 공반된다.⁷⁷ 여기에

67 岳洪彬 主編, 2008, 앞의 책, 408쪽.

68 朱軾, 1984, 「河南舞陽縣吳城北高遺址出土銅爵」, 『考古』 1984-5.

69 朱軾, 1987, 「河南舞陽縣陸續發現商代文物」, 『考古』 1987-3.

70 王文男·孫亞軒, 1992, 「河南正陽縣出土商代銅器」, 『考古』 1992-12.

71 楊澍, 1985, 「河南臨汝出土西周早期青銅器」, 『考古』 1985-12.

72 閻宏斌, 1987, 「鄆城縣出土一批商代青銅器」, 『考古』 1987-8.

73 朱軾, 1987, 앞의 글.

74 보고자는 古本竹書紀年에 언급된 “南庚自庇遷於奄”을 근거로 南庚遷奄의 鄆城으로 추정하였다.

75 孟憲武, 1985, 「安陽三家莊發現商代窖藏青銅器」, 『考古』 1985-12.

76 朱軾, 1983, 「北舞渡商代銅鬲」, 『考古』 1983-9.

77 杜金鵬, 2007, 앞의 글.

묻힌 인골은 墓의 주인이 아니며 기물과 함께 매납된 殉人에 속한다. 따라서 기물도 墓의 부장품이 아니라 제사 등의 목적으로 사용된 후 매납된 것으로 보인다.

이를 요서지역 窖藏坑과 비교해보면, 지리적으로 두 지역 모두 강의 양안에서 주로 발견되는 공통점이 있다. 그러나 안양에서는 劉家莊 北 H2498과 H326과 같이 주거지 내부 혹은 근처에서 발견되기도 하여, 요서 지역 窖藏坑이 단독으로 설치된 것과 차이가 있다. 출토 기물을 보면 두 지역 모두 청동용기만으로 구성된 것도 있고 공구나 도구 혹은 도기가 함께 출토되기도 한다. 기물 조합에서는 차이를 보이는데, 중원지역의 경우 罍, 爵, 卣, 鼎 등 墓 부장품과 유사한 조합을 이루고 있는 반면, 요서 지역 墓는 두 기뿐인 테다 모두 卣, 壺, 甗 각 1점으로 아직 비교할 만한 수량이 안 된다. 주목할 점은 지금까지 요서 지역에서는 안양 후강 HGH10과 같이 여러 층을 이루거나 직물, 곡물 그리고 순인이 매장된 사례가 아직까지 발견되지 않았으며, 觚, 爵, 罍 등 청동용기와 銅鈴 등 악기가 한 점도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다.

2) 關中 窖藏坑

서주 청동기는 澧河 양안과 周原을 중심으로 한 關中 등 섬서 중서부 지역에서 주로 출토된다. 서주의 京畿 지역이던 關中은 왕과 귀족들이 거주하던 곳으로 이 일대에서 예부터 청동기가 적지 않게 발견되었는데, 그중 상주시기 청동예기는 주원 일대에 집중되어 있고 그 주변에서는 산발적으로 발견되었다. 주원 유적은 先周문화를 연구하는 데 가장 중요한 지역으로, 송대부터 부풍현에서 출토된 청동기들의 출토지점과 시간이 기록되기 시작하였고, 청대 이래로 수십 기의 서주 청동기 窖藏坑이 발견됨에 따라 학계로부터 주목받게 되었다. 많은 고고조사와 발굴을 통해 현재는 주원의 지리적 범위가 어느 정도 확정지어졌다.⁷⁸

78 史念海, 1978, 「周原의 歷史地理與周原考古」, 『西北大學學報』(哲學社會科學版) 1978-2; 羅西章, 1995, 「從周原考古論西周農業」, 『農業考古』 1995-1;

청동기는 기산현과 부평현의 접경지대에서 집중적으로 출토되고, 천하와 칠수 하에 걸친 관중평원 서쪽과 진섬고원에 이르는 각지에서 산발적으로 출토되는 양상을 보이는데, 서로 직접적인 관련성을 갖고 있지는 않는 것으로 보인다. 이 지역에서 발견된 窖藏坑 중 상 말기에서 서주 초기에 해당하는 대표적인 청동기 窖藏坑을 간단히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岐山縣 京當村 窖藏坑⁷⁹: 1972년 1월 기산현 경당촌에서 觚, 爵, 罍, 鬲, 戈 각 1점씩 총 5점의 청동기가 출토되었다.⁸⁰ 이들 청동기는 돌을 쌓아 만든 원형의 窖藏坑에서 출토되었다. 조사 시 단애에 홍소토 흔적이 남아 있었으며, 발견한 사람에 의하면 인골이나 동물뼈는 발견되지 않았다고 한다. 보고자는 상 후기 이른 단계, 즉 은허 전기로 판단하였다.

麟遊縣 後坪村 窖藏坑⁸¹: 1988년 7월 20일, 인유현 久成官鎮 후평촌에서 농민에 의해 청동기 10점이 발견되었다. 후평촌은 남북으로 산이 있고, 杜水河가 서에서 동으로 흐른다. 청동기가 출토된 곳에서 서쪽으로 약 1km 거리에 商문화유적이 있고, 이 유적과 강을 사이에 둔 마안산촌 부근에서 1970년대에 서주 청동기 7점이 출토되었다. 후평촌 청동기는 두수 하상에서 약 500m 높이에 있는 산중턱에서 발견되었고, 토질은 홍색 점토이다. 청동기는 지표로부터 31cm 깊이에서 발견되었는데, 원래는 이보다 더 깊었으나 유실된 것으로 추정된다. 구덩이 평면은 불규칙한 방형이고, 길이 97cm, 너비 88cm, 깊이 73cm이며, 벽면은 정면하지 않았다. 출토 청동기는 모두 爵, 觶, 鼎, 尊, 鬲, 盃, 斗 각 1점, 卣 3점 등 10점이다. 기물은 한 층에 긴밀하게 모여져 있었는데 정과

徐天進, 2003, 「西周王朝的發祥之地—周原: 周原考古綜述」, 『考古學研究』 5, 科學出版社.

79 王光永, 1977, 「陝西省岐山縣發現商代銅器」, 『文物』 1977-12.

80 간보에는 총 5점이 출토되었다고 보고되었으나, 『周原出土青銅器』에서는 鬲 1점이 추가되어 총 6점이 언급되었다(曹璋, 2005, 『周原出土青銅器』, 巴蜀書社, 281쪽).

81 麟游縣博物館, 1990, 「陝西省麟游縣出土商周青銅器」, 『考古』 1990-10.

유, 준을 제외한 나머지는 없어져 있었다. 보고자는 연대를 상말주초로 판단하였다. 부근에서 다른 유물이나 墓가 발견되지 않아 窖藏坑으로 추정된다.

주원을 비롯한 관중에서 출토되는 청동기는 대부분 고고학적 발굴을 통해 발견된 것이 아니어서 매납 상황을 상세히 파악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 窖藏坑은 구덩이를 파고 바로 황토를 채운 경우도 있고, 먼저 풀과 흙으로 기물을 둘러싼 후 다시 황토로 덮은 경우도 있다. 구덩이 내 청동기의 배치에서도 일정한 규칙성이 발견되지 않아서, 상술한 매납 원인에 따른다면 매납할 때의 급박함을 반영하는 것으로 볼 수도 있다. 매납된 청동기의 수량에 규칙성이 발견되지 않는데, 상 후기에는 협의의 주원에서는 禮村 3호에서 5점이 출토되고, 광의의 주원에서는 인유현 후평촌에서 10점이 출토되어 가장 많으며, 그 외에는 대부분 1~2점이 출토된다. 서주시기에는 莊白 1호처럼 후기에 백여 점이 매납된 것도 있으나,⁸² 상 말기에서 서주 초기에는 대체로 1~2점에 불과하고 5점을 초과하지 않는다. 기물 종류는 鼎, 鬲, 甗, 簋 등 飲器와 食器, 尊, 卣, 爵, 觶, 觚, 斝, 方彝, 壺, 盃, 盥 등 酒器, 盤, 盂 등 水器, 그리고 勺(혹은 料), 匕 등이 있다. 매납된 기물의 종류는 서로 다른데 대부분 1점씩이고, 주로 개인 혹은 한 가족의 기물로 제작된 것이긴 하나 명문과 기형, 문양으로 볼 때 한 세트로 볼 수 있는 것은 적은 편이다. 또 窖藏坑에서 차마기, 도구, 도기, 옥기 등은 거의 출토되지 않는데 이러한 현상은 상말주초부터 서주 말기까지 일관된다.⁸³

이 시기 관중지역 窖藏坑은 요서지역에 비해 구덩이의 규모가 작고 매납된 기물의 수량도 상대적으로 적은 편이나 구덩이 깊이가 상대적으로 깊고 매납 시 유물을 보호하려 한 것으로 볼 때, 제사 후 가족 단위로 매납행위가 이루어진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또한 청동용기 기종이 다양하고 서주 말기까지 상당히 많

82 陝西周原考古隊, 1978, 「陝西扶風莊白一號西周青銅器窖藏發掘簡報」, 『文物』1978-3.

83 이는 서주 후기에도 극히 일부 지역에서만 나타나는 현상으로, 주원 喬家 1호나 장안현 馬王村 窖藏坑에서는 차마구(『考古』1974-1)가 출토되었고, 1976년 莊白 1호 窖藏坑에서는 청동기와 함께 옥기 7점이 출토되었다.

은 窀藏坑이 이 지역에서 발견되고 있어, 상말주초에서 서주 전기에 집중되어 있는 요서지역 窀藏坑에 비해 제작과 사용, 저장 혹은 폐기 행위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2. 황하중류유역 출토 청동예기와와의 형태적 비교

앞에서는 요서지역과 안양과 주원을 중심으로 한 상주시기 핵심지역에서 청동 용기가 출토되는 유적을 살펴보았다. 각각의 유구에 부장 혹은 매납되는 기물의 문양 및 형태상의 변화는, 조합관계와 함께 상주시기 청동기의 시간적 차이를 잘 반영해주는 요소이다. 그러나 이 시기 요서지역에서 발견되는 墓는 수량이 매우 적고 부장된 유물도 적은 편이어서, 본고에서는 窀藏坑과 墓 출토품을 함께 다루고자 한다. 아울러 동시기 황하중류유역에서 출토되는 청동용기와와의 비교는 그 기원과 성격을 밝히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된다.

1) 중원 및 주원 청동예기와 유사한 기물

대릉하를 중심으로 한 요서지역에서 출토된 청동용기는 기형과 문양 및 명문 등이 상주시기 중원 혹은 관중의 청동예기와 매우 흡사하여 대부분 중앙 왕조에 속한 鑄銅 장인에 의해 제작된 기물이라는 것을 부인하기 어렵다. 이 중에는 중원과 관중에서 모두 보이는 스타일도 있고, 두 지역 중 한 곳에서만 나타나는 특징도 있다. 요서지역 窀藏坑에서 출토된 弦紋鬲, 圓鼎, 方鼎, 雷紋甗, 提梁卣, 獸面紋簋, 渦紋簋, 圓罍, 方罍와 甗, 壺 등은 상 후기부터 서주 전기 사이에 중원과 관중 지역의 墓와 窀藏坑에서 그와 유사한 기물을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다(〈표 3〉, 〈표 4〉 참조). 북동 2호 窀藏坑에서 출토된 蟬紋鼎은 중원에서 발견된 것은 없으나, 서주 전기에 해당하는 부풍현 劉家村 1호묘에서 매우 유사한 것이 출토되었다. 또한 수면문을 대신하여 선문과 함께 서주시기 주문양으로 대표되는 鳳紋이 기산현 王家嘴 2호 窀藏坑 출토 簋에 장식되었다. 그리고 북동 1호 출토 銅甗의 경우, 상 말기 은허에서 출토되는 甗와 기형과 문양의 구

〈표 3〉 증원 및 관중지역과 유사한 청동용기(鬲, 鼎, 甗, 卣)의 비교

출토 지역	鬲	鼎				甗	卣
증원	 GM1102:1	 PNM172:2	 GM160:62		 GM160:134	 83ASM663:51	 GM1015:4
관중	 74麟游 蔡家河	 72鳳翔 丁家河	 眉縣 楊家村2	 扶風 劉家村M1	 岐山 李村2號		 88麟游 後坪村
요서	 山灣子	 花爾樓	 咕嗒溝	 北洞2號	 北洞2號	 北洞1號	 山灣子

〈표 4〉 증원 및 관중지역과 유사한 청동용기(簋, 罍, 甗, 壺)의 비교

출토 지역	簋			罍		甗	壺
증원	 成家莊M269:35	 小屯82M1:21		 04ASM303:59	 99ALNM1046:25	 94ASM7:22	 99ALNM1046:3
관중	 岐山 王家嘴2號	 94麟游 楊家莊		 陝銅(四)39	 61扶風張黃村	 74扶風楊家堡	 76扶風1號
요서	 馬廠溝	 山灣子	 小波太溝	 北洞 1호	 山灣子	 山灣子	 馬廠溝

조가 매우 유사하다. 그러나 이러한 유형은 주원에서 발견된 窖藏坑에서는 거의 찾아볼 수 없고 섬북지역 상 말기 窖藏坑에서 확인되어 주목할 필요가 있다. 또한 方座簋는 아직까지 황하중류유역 窖藏坑에서 발굴된 사례가 없으나 서주 전기부터 墓유적에 부장된다.

2) 지방 특색을 띠는 청동기

상말주초 요서지역 출토 청동기는 위에서 살펴본 것과 같이 중앙 왕조의 핵심지역에서 제작된 것으로 보이는 기물이 대부분이나, 자세히 관찰해 보면 전형적인 중원 혹은 주원의 스타일에서 벗어나는 요소들이 발견된다. 예를 들어, 중원 스타일이 일부 변형되어 나타나거나 그에 북방계 요소가 추가되기도 하고, 심지어 중원이나 주원 등 핵심지역 이외의 지역에서 제작되었을 가능성이 있는 기물도 관찰된다. 다음은 이러한 비중원계 요소를 문양의 모방과 변형, 특이한 기형, 제작기법 상의 차이 등으로 나누어 살펴보자.

첫 번째는 중원계 청동기 문양의 모방과 변형이다. 요서지역 출토 청동기의 문양은 종류가 다양하고 대체로 화려한 편이며 입체감이 살아 있고 얇은 부조로 표현된 것이 많다. 이러한 특징은 동시기 중원의 스타일과 같다. 또한 요서지역 출토 청동기의 문양에는 獸面紋, 夔龍紋, 蟬紋, 鳥紋, 聯珠紋, 渦紋, 雲雷紋, 菱格乳釘紋, 四瓣目紋, 蕉葉紋, 直楞紋 등이 있는데, 상주시기 황하중류 유역에서 보이는 문양이 대부분 확인된다. 그 중 수면문, 기룡문과 봉황문 등 조문이 주를 이루고, 나머지는 부문양으로 장식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드물게 단독으로 장식되기도 한다. 요서지역에서 이같은 황하중류유역 ‘중원계’ 청동예기의 주문양뿐만 아니라 이를 모방·변형한 것이 발견되는데, 산만자 출토 簋(표 5-2)는 경부와 권족에 수면문 문양대가 장식되어 있다. 얼핏 보기에 관중지역에서 서주 전기에 보이는 수면문(표 5-1)과 유사하나 뿔, 눈, 하악 등 세부 구조에서 차이가 확인된다. 鳳鳥紋 역시 화이루 출토 鬲(표 5-4)와 언에서 전형적인 봉조문(표 5-3)이 변형되어 나타난다. 특히 언의 경우, 경부에 장식된 문양은 중원에서 상 전기부터 유행하던 ‘기룡문+수면문+기룡문’ 조합이 한 조를 이루는

〈표 5〉 獸面紋 銅簋와 鳳鳥紋 銅簋의 비교

	중원·관중지역	요서지역
獸面紋	 <p>1(74麟游 蔡家河)</p>	 <p>2(山灣子)</p>
鳳鳥紋	 <p>3(岐山 王家嘴2號)</p>	 <p>4(花爾樓)</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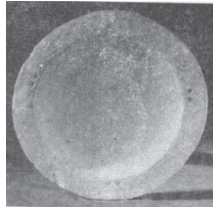
문양대를 모방한 것으로 보이는데, 수면문도 전형적인 상주시기 장식으로 보기 어려우며, 특히 기룡문이 장식되던 자리를 서주 전기에 출현하는 봉황문의 날개 문양으로 대체한 것이 특징적이다. 따라서 요서지역 출토 상주 청동용기 중 일부는 서주 전기 중원계 청동예기의 문양을 모방 혹은 변형하여 제작된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서주 중기 이후 청동예기의 주문양을 이루는 전형적인 冠顧獸鳥紋, 垂鱗紋, 重環紋, 波曲紋 등이 아직 출현하지 않으므로, 본고에서 다루고 있는 요서지역 窖藏坑 출토 청동기의 하한은 적어도 서주 중기 이른 단계보다 늦지 않은 것으로 추정된다.

두 번째로 황하중류유역에서는 보이지 않는 특이한 기형을 보자. 〈그림 12〉에 나열된 북동 2호 출토 鉢形器, 마창구 출토 鴨形尊, 蟬紋盤, 龜紋甗, 貫耳壺와 산만자 출토 渦紋壘 등에서는 기형과 문양에서 중원과 관중에서는 보이지 않는 특징이 발견된다. 그중 鴨形 기물은 1991년 부풍 齊家 5호묘에서 발견된 오리 머리 모양 동식과 1988년 平頂山 應國묘지에서 출토된 쫄가 있으며,⁸⁴ 그보다 이른 은허 부호묘에서는 鷹形 등 조류를 본 뜬 기형이 이미 출현하였다.



1. 鉢形器(北洞 2호)



2. 盤狀器(山灣子)



3. 鴨形尊(馬廠溝)



4. 蟬紋盤(馬廠溝)

그림 12 요서지역 출토 비중원계 청동기

마창구 출토 龜紋甗의 띠를 꼬아놓은 듯한 경부 문양은 다른 지역에서 보이지 않는 형태이다. 귀문은 상 전기 정주와 반룡성 등지에서 발견된 적이 있고, 상말 주초 섬북지역에서 출토되는 盤에서도 확인된다. 그 밖에도 貫耳壺의 ‘十’자 문양은 북방지역에서 관중지역으로 영향을 준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

산만자 舟父甲(舟身)提梁卣는 손잡이가 索狀이 아닌 板狀이고, 경부에 장식하기 위해 문양대 자리를 마련한 흔적은 보이나 문양이 장식되지 않았다. 이러한 등급이 낮은 기물 혹은 실패작을 다른 세력에게 증여했을 가능성은 높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그리고 소파태구 출토 청동용기 뚜껑(그림 13)은 황하유역에서는 발견되지 않는 형태로, 전체적으로 반원형에 가깝고 상단에 꼭지가 없으며 하단 가까이에 고리가 한 개 있다. 문양은 삼단으로 나뉘어 위부터 거치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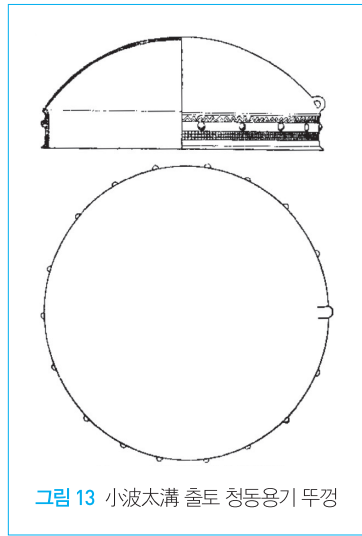


그림 13 小波太溝 출토 청동용기 뚜껑

84 王龍正·姜濤·婁金山, 1998, 「匍鴨銅盃與類聘禮」, 『文物』 1998-4.

유정문, 격자문으로 이루어져 있다. 광대순은 抄道溝 출토 녹수동만도에 장식된 문양이 이와 유사하다고 보고 두 지역의 관련성을 언급하였다. 雷紋甗와 마찬가지로 황하유역 窖藏坑에서는 銅盤이 거의 발견되지 않으나, 섬북지역에서는 魚紋과 龜紋이 장식된 동반이 출토되어 역시 이 지역과의 관련성이 확인된다. 산만자 출토 牛紋甗는 기형과 문양이 사천 彭縣 서주 교장 출토품과 매우 유사한데,⁸⁵ 모두 견부에 수면문 구조를 모방하여 牛紋을 가운데 두고 馬紋을 그 양쪽에 배치한 문양대가 있다.

세 번째는 한 기물에서 유행 시기에 비교적 큰 차이가 나는 기형과 문양이 동시에 나타나는 경우이다. 소파태구 출토 수면문정(요령성박물관 전시)은, 전체적인 기형과 器耳, 견부의 수면문 문양대는 전형적인 상 전기 스타일이나 器足 상단의 수면문과 비룡은 상말주초 스타일로 복부와 기족에서 나타나는 어색한 느낌을 지울 수가 없다. 廣川守는 이 기물을 실견하고, 복부를 먼저 주조하고 기저와 기족을 주조한 후 이들을 연결하여 동액을 부음으로써 기물을 완성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이는 상 전기 정주상성 窖藏坑과 강서 신간 대양주에서 출토된 방정과 같은 방법으로 주조된 것으로 본 것인데, 같은 시기에 서로 다른 시기의 특징으로 기복과 기족을 제작한 것인지, 아니면 상 전기에 주조되어 사용되던 기물의 기족을 후에 수리한 것인지 확인이 필요하다. 기족을 後鑄하는 이러한 주조기법은 서주 중기 이후에는 圓鼎 주조에 자주 사용된다.

〈표 6〉을 보면, 기저에서 확인되는 범선의 경우, 요서지역에서는 화이루와 두패자 窖藏坑에서 출토된 기물의 주조시기가 가장 이른 것으로 보이는데, 화이루 출토 동정의 기저에서 확인되는 三叉形 범선은 상 전기에 자주 보이는 기법이다. 두패자 출토 동정의 범선은 기저와 기복을 따라 이어져 弧線 삼각형을 이루다가 기족의 안쪽으로 흘러 바닥으로 이어진다. 이는 상 후기 은허 출토 청동기에서 나타나는 전형적인 형태이다. 또 소파태구에서 출토된 수면문 동정의 경우 상술된 호선 삼각형 범선 안쪽에서 또 다른 범선이 확인되는데, 이는 주원

85 範樞杰·胡昌鈺, 1981, 「四川彭縣西周窖藏銅器」, 『考古』 1981-6.

〈표 6〉 상주시기 銅鼎의 底部 範線 변화도

	상 전기 늦은 단계 ~상 후기	상 후기 ~서주 초기	서주 전기	서주 중기	서주 후기
요서 지역	기형 				
	저부 범선  花爾樓	 頭牌子	 小波太溝	 山灣子	
관중 지역	기형				
	저부 범선		 扶風 劉家村M1	 75岐山 黃家村J1	 81扶風 下務茲村

지역 출토 동정에서 확인되는 여러 형태의 범선에서도 보이며, 서주 후기까지 유사한 형태의 범선이 확인된다.

이처럼 요서지역 窖藏坑 출토 청동기는 중원과 주원을 중심으로 한 관중지역에서 출토되는 청동기와 기형과 문양뿐만 아니라 구조기법에서도 궤를 같이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차이점 또한 분명하게 나타나는데, 먼저 상 후기는 물론이고 서주시기에도 중기까지 청동예기 조합에 포함되는 觚, 爵, 罍와 觶 등은 한 점도 출토되지 않는 반면에 鼎, 鬲, 簋가 집중적으로 출토되는 점은, 요서지역에서 발견되는 이들 청동기가 예기로서 중원 및 관중 지역에서 갖는 의미와 큰 차이가 있었다는 점과 상대 후기보다는 서주 전기 조합에 가깝다는 점을 말해주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상대적으로 많은 수량을 차지하는 銅簋 중 方座簋는 요서지역에서 소파태구와 북동 2호 窖藏坑에서 각 1점씩 출토된 반

면, 중원과 관중 지역의 窖藏坑에서는 출토되지 않았으나 이후 서주 말기 관중에서 다수가 발견되는 점도 주목된다.

IV. 맺음말

본문의 연구대상인 요서지역 출토 상주 청동용기는, 지금까지 광의의 요서지역에서 발견된 상주시기 청동 그릇이다. 청동용기는 주로 祭祀에 사용되는 기물이며 지배층 사회의 위계를 표현하는 수단인 禮器의 주요 구성요소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청동예기라고 불린다.

상 말기부터 서주 중기 이른 단계까지는 사실상 상주문화의 과도기에 해당한다. 은허 후기, 즉 상 말기에는 상주문화가 동서로 병존하던 시기이고, 이때까지만 해도 周문화는 관중지역에 국한되어 있었으며 아직 商왕조의 제도를 따랐고 周人 특유의 매장풍습은 형성되지 않았다. 그리고 서주 초기 단계에 주문화는 동쪽으로 이동하여 전파되기 시작하였으나, 여전히 청동예기를 비롯한 상문화 요소가 매우 농후하게 남아 있었다. 따라서 서주 중기 이전 단계에는 아직 주문화만의 특징을 갖춘 예기가 나타나지 않았다고 볼 수 있다.

상주시기에는 본문에서 살펴본 안양과 주원처럼 핵심지역 이외의 주변지역에서 현지의 요소를 반영하는 청동기가 발견되었는데, 요서지역에서도 중원에서 제작된 동기뿐만 아니라 중원의 영향을 받아 타지에서 제작된 것으로 보이는 청동예기가 적지 않게 확인된다. 지금까지 요서지역에서 청동용기가 가장 먼저 출현한 시기는 적어도 상 후기 이른 단계로, 銅鑛이 풍부하여 일찍부터 청동 주조기술이 빠르게 발전할 수 있었던 장강유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늦다고 볼 수 있다. 서랍목료하에 위치한 天寶同 窖藏坑과 노합하 서안에 위치한 西牛波羅와 頭牌子 窖藏坑 등이 이에 해당하는데, 여기에서 출토된 정과 언 그리고 광사 등은 대흥안령 남단의 喜鵲溝와 같은 동석광산지와 함께 상 후기 이 지역과 중앙 왕조를 비롯한 주변지역과의 관계를 이해하는데 있어 주목해야할 부분이

다. 반면 대소릉하유역 窖藏坑과 墓에서 출토되는 청동기는 대부분 상말주초에서 서주 전기의 특징을 보이는 청동기가 집중되어 있고, 기물의 형태와 조합으로 볼 때 요하상류와 달리 서주문화의 영향이 강한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요서지역 窖藏坑과 墓에서 출토되는 청동기들은 어떤 원인으로 이곳에 매장된 것일까? 필자는 지금까지의 고고학 자료로 이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기엔 부족하다고 생각한다. 다만 유물이 보여주는 형태적 특징을 통해 매납 시기와 매장자의 신분에 대하여 약간의 실마리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만약 상 후기 요서지역에서 갑자기 출현한 이들 청동용기를 당시 燕이나 기타 方國으로부터 약탈해 얻은 것으로 본다면, 동일한 窖藏坑 혹은 墓에서 출토되는 청동용기의 연대 차이가 비교적 크고 기물 조합이 중원과 다른 점이나 명문 내용이 복잡한 점은 어렵지 않게 납득이 될 수 있다. 또한 요서의 이들 청동기 대부분이 상 말기에서 서주 전기에 집중되어 있으며 서주 중기 이후의 기물은 거의 보이지 않는 것은, 기본적으로 琉璃河유적에 서주 중기 이후 귀족墓가 없는 것과도 부합된다.

그러나 요서지역에서 출토된 청동용기에는 위의 추론으로 해결될 수 있는 다수의 중원계 청동기 외에, 頭牌子 圓鼎, 花爾樓 甗과 같이 중앙 왕조의 청동 예기를 모방하여 타지에서 제작된 것으로 보이는 기물과, 지금까지 중원과 주원에서 보이지 않는 스타일의 北洞 2호 출토 鉢形器, 馬廐溝 출토 鴨形尊, 獸面紋甗, 貫耳壺와 山灣子 출토 方鼎 등 비중원계 청동기가 포함된다. 이 같은 청동기의 경우는 적어도 일부가 중원에서 숙련된 장인이 아닌 다른 문화에 소속된 장인에 의해 제작되었을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다. 그러나 그것이 요서지역의 장인에 의해 제작되었다고 단정할 만한 증거 또한 발견되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요서지역 내에서도 지역별로 시기에 따른 차이를 보이고 있다. 따라서 본문에서 살펴본 세 가지 유형의 청동기가 요서지역 청동문화의 발전과정에서 외래 문화요소의 직접적인 유입, 흡수, 독립 발전된 서로 다른 단계를 보여주는 것으로 볼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좀 더 신중히 판단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후 요서지역 청동기 출토유적과 內蒙古, 陝北, 冀北 등 주변지역 고고문

화의 먼밀한 비교가 이루어진다면, 이 지역에서 증원계와 비증원계 청동용기가 집중적으로 출토되는 원인을 밝히는 실마리를 제공해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참고문헌

- 김정열, 2009, 「요서지역 출토 상주 청동예기의 성격에 대하여」, 『요하유역의 초기 청동기문화』, 동북아역사재단.
- 박대재, 2010, 「기자 관련 상주청동기 명문과 기자동래설」, 『선사와 고대』 32.
- 송호정, 2005, 「大凌河流域 殷周 青銅禮器 사용 집단과 箕子朝鮮」, 『韓國古代史研究』 38.
- 오강원, 2011, 「商末周初 大凌河 流域과 그 周邊 地域의 文化 動向과 大凌河 流域의 青銅禮器 埋納遺構」, 『韓國上古史學報』 74.
- 이유표, 2019, 「요서 출토 상말주초 族氏 銘文에 대한 일고찰」, 『동북아역사논총』 63호.
- 李亨求, 1991, 「大凌河流域의 殷末周初 青銅器文化와 箕子 및 箕子朝鮮」, 『韓國上古史學報』 5.
- 조원진, 2010, 「요서지역 출토 상주 청동기와 기자조선 문제」, 『白山學報』 88.
- 喀左縣文化館·朝陽地區博物館·遼寧省博物館, 1977, 「遼寧省喀左縣山灣子出土 殷周青銅器」, 『文物』 1977-12.
- 喀左縣文化館·朝陽地區博物館·遼寧省博物館·北洞文物發掘小組, 1974, 「遼寧 喀左縣北洞村出土의 殷周青銅器」, 『考古』 1974-6.
- 郭大順, 1987, 「試論魏營子類型」, 『考古學文化論集(一)』, 文物出版社.
- 郭沫若, 1960, 「安陽圓坑墓中鼎銘考釋」, 『考古學報』 1960-1.
- 克什克騰旗文化館, 1977, 「遼寧克什克騰旗天寶同發現商代銅甗」, 『考古』 1977-5.
- 吉林大學邊疆考古研究中心·內蒙古自治區文物考古研究所, 2014, 「內蒙古克什克騰旗喜鵲溝遺址發掘簡報」, 『考古』 2014-9.
- 盧連成·胡智生, 1988, 『寶鷄弓魚國墓地』, 文物出版社.
- 杜金鵬, 2007, 「安陽後崗殷代圓形葬坑及其相關問題」, 『考古』 2007-6.
- 劉克甫, 1961, 「安陽後崗圓形祭坑年代的商討」, 『考古』 1961-9.
- 劉一曼·徐廣德, 「中國商文化國際學術討論會論文集」, 『論安陽後崗殷墓』, 中國大百科全書出版社.

- 麟游縣博物館, 1990, 「陝西省麟游縣出土商周青銅器」, 『考古』 1990-10.
- 孟憲武, 1985, 「安陽三家莊發現商代窖藏青銅器」, 『考古』 1985-12.
- _____, 2003, 「殷墟戚家莊東269號墓的發掘與研究」, 『安陽殷墟考古研究』, 中州古籍出版社.
- 韓榷杰·胡昌鈺, 1981, 「四川彭縣西周窖藏銅器」, 『考古』 1981-6.
- 北京大學考古學系商周組·山西省考古研究所 編著, 2000, 『天馬—曲村(1980~1989)』, 科學出版社.
- 史念海, 1978, 「周原的歷史地理與周原考古」, 『西北大學學報』(哲學社會科學版) 1978-2; 羅西章, 1995, 「從周原考古論西周農業」, 『農業考古』 1995-1; 徐天進, 2003, 「西周王朝的發祥之地—周原: 周原考古綜述」, 『考古學研究』 5, 科學出版社.
- 石璋如, 1947, 「殷墟最近之重要發現附論小屯地層」, 『考古學報』 1947-2.
- 陝西省考古研究所, 1994, 『高家堡戈國墓』, 三秦出版社.
- 陝西省考古研究所·陝西省文物管理委員會·陝西省博物館編, 1980, 『陝西出土商周青銅器(三)』, 文物出版社.
- 陝西省文物管理委員會, 1957, 「長安普渡村西周墓的發掘」, 『考古學報』 1957-1.
- 陝西省博物館, 1976, 陝西省文物管理委員會, 「陝西岐山賀家村西周墓葬」, 『考古』 1976-1.
- 陝西周原考古隊, 1978, 「陝西扶風莊白一號西周青銅器窖藏發掘簡報」, 『文物』 1978-3.
- 蘇赫, 1982, 「從昭盟發現的大型其他器試論北方的早期青銅文明」, 『內蒙古文物考古』 1982-2.
- 孫思賢·邵福玉, 1982, 「遼寧義縣發現商周銅器窖藏」, 『文物』 1982-2.
- 岳洪彬, 2006, 『殷墟青銅禮器研究』, 中國社會科學出版社.
- 岳洪彬 主編, 2008, 『殷墟新出土青銅器』, 雲南人民出版社.
- 安陽市文物工作隊, 1991, 「河南安陽郭莊村北發現一座殷墓」, 『考古』 1991-10.
- 安陽市博物館, 1978, 「安陽大司空村殷代殺殉坑」, 『考古』 1978-1.
- 晏琬, 1975, 「北京·遼寧出土銅器與周初的燕」, 『考古』 1975-5.
- 安志敏, 1960, 「關於安陽後崗殉葬圓坑的說明」, 『考古學報』 1960-1.
- 楊錫璋, 1983, 「殷墟青銅容器的分期」, 『中原文物』 1983-3.

- 楊澍, 1985, 「河南臨汝出土西周早期青銅器」, 『考古』1985-12.
- 熱河省博物館籌備組, 1955, 「熱河陵源縣海島營子村發現的古代青銅器」, 『文物參考資料』1955-8.
- 閻宏斌, 1987, 「鄆城縣出土一批商代青銅器」, 『考古』1987-8.
- 吳鎮鋒 編撰, 2006, 『金文人名彙編』(修訂本), 中華書局.
- 王光永, 1977, 「陝西省岐山縣發現商代銅器」, 『文物』1977-12.
- 王文男·孫亞軒, 1992, 「河南正阳县出土商代銅器」, 『考古』1992-12.
- 王立新·付琳, 2015, 「論克什克騰旗喜鵲溝銅鑛遺址及相關問題」, 『考古』2015-4.
- 王夫想, 1994, 「內蒙古林東塔子溝出土的羊首銅刀」, 『北方文物』1994-4.
- 王世民·陳公柔·張長壽, 1999, 『西周青銅器分期斷代研究』, 文物出版社.
- 王龍正·姜濤·婁金山, 1998, 「匍鴨銅盃與頰聘禮」, 『文物』1998-4.
- 王源, 2016, 「從靈石旌介商墓青銅器觀族氏銘文與紋飾的關係」, 『文物世界』2016-4.
- 遼寧省文物考古研究所, 1989, 「喀左縣博物館, 喀左和尙溝墓地」, 『遼海文物學刊』1989-2.
- _____, 1998, 「遼寧喀左縣高家洞商周墓」, 『考古』1998-4.
- 遼寧省博物館文物工作隊, 1977, 「遼寧朝陽縣魏營子西周墓和古遺址」, 『考古』1977-5.
- 遼寧省博物館·朝陽地區博物館, 1973, 「遼寧喀左縣北洞村發現殷代青銅器」, 『考古』1973 4.
- 遼寧義縣文物保管, 1982, 「遼寧義縣發現商周銅器窖藏」, 『文物』1982-2.
- 魏凡, 1983, 「就出土青銅器探索遼寧商文化問題」, 『遼寧大學學報』(哲學社會科學版) 1983-5.
- 殷璋璋·曹淑琴, 1990, 「靈石商墓與丙國銅器」, 『考古』1990-7.
- 長水, 1972, 「岐山賀家村出土的西周銅器」, 『文物』1972-6.
- 鄭紹宗, 1994, 「長城地帶發現的北方式青銅刀子及其有關問題」, 『文物春秋』1994-4.
- 朱鳳瀚, 1995, 『古代中國青銅器』, 南開大學出版社.
- _____, 2009, 『中國青銅器綜論』, 上海古籍出版社.
- 朱幟, 1984, 「河南舞陽縣吳城北高遺址出土銅爵」, 『考古』1984-5.

- _____, 1987, 「河南舞陽縣陸續發現商代文物」, 『考古』 1987-3.
- 中國科學院考古研究所安陽工作隊, 1975, 「1973年 安陽小屯南地發掘簡報」, 『考古』 1975-1.
- 中國社會科學院考古研究所, 1987, 『殷墟發掘報告 1958~1961』, 文物出版社.
- 中國社會科學院考古研究所 編著, 1985, 『殷墟青銅器』, 文物出版社.
- 中國社會科學院考古研究所安陽工作隊, 1979, 「1969~1977年 殷墟西區墓葬發掘報告」, 『考古學報』 1979-1.
- _____, 1981, 「安陽小屯村北的兩座殷代墓」, 『文物』 1981-4.
- _____, 2009, 「河南安陽市殷墟劉家莊北地 2008年 發掘簡報」, 『考古』 2009-7.
- _____, 2012, 「河南安陽市殷墟劉家莊北地 2010~2011年 發掘簡報」, 『考古』 2012-12.
- 陳公柔·張長壽, 1999, 「殷周青銅容器上鳥紋的斷代研究」, 『西周青銅器分期斷代研究』, 文物出版社.
- 陳夢家, 1955, 「西周銅器斷代(二)」, 『考古學報』 1955-10.
- 彭裕商, 2003, 『西周青銅器年代綜合研究』, 巴蜀書社.
- 河南省文物考古研究所·鄭州市文物考古研究所 編著, 1999, 『鄭州商代銅器窖藏』, 科學出版社.

요서지역 출토 상주(商周) 청동용기 연구

— 황하중류유역과의 비교를 중심으로 —

최호현

본문은 지금까지 요서지역에서 발견된 상말주초시기 窖藏坑 출토 靑銅容器를 주요 대상으로 하였다. 청동용기는 주로 祭祀에 사용되는 용구이고 禮器의 주요 구성요소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청동예기라고 불린다. 상주시기에는 안양과 주원처럼 핵심지역 이외의 주변지역에서 현지의 요소를 반영하는 청동용기가 발견되었는데, 요서지역에서도 중원에서 제작된 혹은 중원의 영향을 받아 타지에서 제작된 것으로 청동기가 적지 않게 확인된다. 지금까지 요서지역에서 청동용기가 가장 먼저 출현한 시기는 적어도 상 후기 이른 단계로, 天寶同, 西牛波羅와 頭牌子 窖藏坑 등 요하상류유역에서 가장 먼저 나타난다. 반면 대소릉 하유역 출토 청동용기는 대부분 상말주초에서 서주 전기에 집중되어 있고, 기물의 형태와 조합으로 볼 때 요하상류와 달리 서주문화의 영향이 강한 것으로 보인다.

요서지역 窖藏坑과 墓에서 출토되는 청동기들은 어떤 원인으로 이곳에 매장된 것일까? 기존 연구결과처럼 여러 정황상 당시 燕과 기타 方國으로부터 약탈해 얻은 것으로 볼 수도 있다. 그러나 요서지역에서 출토된 청동용기에는 위

의 추론으로 해결될 수 있는 다수의 중원계 청동기 외에도 頭牌子 圓鼎, 花爾樓 甗과 같이 중앙 왕조의 청동예기를 모방하여 타지에서 제작된 것으로 보이는 기물과 北洞 2호 출토 鉢形器, 馬廐溝 출토 鴨形尊, 獸面紋甗, 貫耳壺와 山灣子 출토 方鼎 등 비중원계 청동기가 포함된다. 이 같은 청동기의 경우 적어도 일부는 중원에서 숙련된 장인이 아닌 다른 문화에 소속된 장인에 의해 제작되었을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다. 그러나 그것이 요서지역의 장인에 의해 제작되었다고 단정할 만한 증거 또한 발견되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요서지역 내에서도 지역별로 시기에 따른 차이를 보이고 있다. 따라서 본문에서 살펴본 세 가지 유형의 청동기가 요서지역 청동문화 발전의 서로 다른 단계를 보여주는 것으로 볼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좀 더 신중히 판단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주제어: 상말주초, 요서지역, 窖藏坑, 동기묘, 청동용기

ABSTRACT

A Study on Bronzeware Excavated from the Liaoxi Area in the Shang and Zhou dynasty: Focusing on Comparison with Those from the Middle Stream Basin of the Yellow River

Choi Hohyun

The main subject of this paper is bronzewares from burial sites of the Shang and Zhou dynasty period, which have been discovered in the Liaoxi area. Bronzewares are typically called “ritual bronze vessels” as they are usually used for sacrifices and are the main component of the ritual vessels. During the Shang and Zhou period, bronzewares were found not just in the key regions like Anyang and Zhouyuan, but also in the surrounding areas, reflecting the local elements. In the Liaoxi area as well, quite a few bronzewares crafted either in the Zhongyuan or other regions under the impact of Zhongyuan have been unearthed. The first time that bronzewares ever appeared in the Liaoxi area was the early stage of late Shang and it was in the upper stream basin areas of the Liao River such as Tianbaotong, Xinniuboluo and Toupaizi burial

sites. By contrast, most of the bronzewares from the basin of the Daxiaoling River are concentrated between late Shang and early Zhou and the first third of Western Zhou. Considering the shape and combination of the cultural artifacts from Western Zhou, they seem to have been affected by the Western Zhou culture, unlike those from the upper stream of the Liao River.

Then, what led the bronzewares unearthed in the burial sites and tombs in the Liaoxi area to be buried in these places? Some previous literature based on various circumstances concluded that they were plundered from Yan and other vassal states. The bronzewares in the Liaoxi area, however, include not only a number of Zhongyuan bronzewares that could be explained by such conclusion, but also non-Zhongyuan bronzewares such as Toupaizi round *ding* and Huaerlou *yan* — vessels which seem to have been crafted in other regions imitating the central dynasty's ritual bronze vessels — as well as bowl-shaped vessel from Beidong No. 2, duck-shaped *zun*, *yan* decorated with animal heads and *hu* with tubular ear from Machanggou, and rectangular *ding* from Shanwanzi. These non-Zhongyuan bronzewares suggest a possibility that at least some of them could have been made, not by master craftsmen from Zhongyuan, but by those who belonged to other cultures. Nevertheless, there has been no decisive evidence to confirm that they were crafted by artisans in the Liaoxi area. Furthermore, the bronzewares from the Liaoxi area themselves present regional differences by time. As such, it may warrant some caution in telling whether the three types of the bronzewares discussed in this study demonstrate different developmental stages of the bronze culture in the Liaoxi area.

Keywords: late Shang and early Zhou, Liaoxi (遼西) area, burial site, tombs with bronze vessels

요서 출토 상말주초 족씨(族氏) 명문(銘文)에 대한 일고찰

이유포 | 동북아역사재단 연구위원

- I. 머리말
- II. 遼西 출토 족씨 명문: 殷遺民의 遷徙 경향을 중심으로
- III. 商末周初 青銅禮器의 遼西 출현 배경
- IV. 맺음말



I. 머리말

商周시기 중원의 靑銅禮器는 고대 중국의 찬란한 청동문화를 보여주는 데 손색이 없다. 따라서 학자들은 靑銅禮器를 중원문화를 구성하는 중요한 요소로 인식하여, 중원문화의 주변 전파를 이야기할 때 靑銅禮器를 하나의 중요한 판단 기준으로 제시하곤 한다. 다시 말해, 중원 이외의 지역에서 나타나는 靑銅禮器는 곧 중원문화 진출의 결과라는 것이다. 대표적인 사례가 宜侯矢簋의 발견이다.¹ 1954년 중국 長江하류에 위치한 江蘇省 鎮江市 丹徒縣에서 출토된 宜侯矢簋는 周王이 虞侯 矢를 宜 땅으로 移封하면서 내린 책명을 기록하고 있다. 학자들은 이 동기가 발견된 지역을 바로 宜侯의 책봉지로 보아, 西周 초기 중원 세력이 이미 長江하류까지 진출한 것으로 이해하였다.² 그러나 西周의 세력이 어떻게 長江하류까지 진출할 수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설득력 있는 해석을 내리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³

이는 본문에서 다루는 遼西지역 또한 마찬가지다. 遼西지역에서는 1950년 대부터 중원식 靑銅禮器가 출토되기 시작했다. 필자의 통계에 의하면 지금까지 모두 76건이 확인되었다. 이를 지역별로 살펴보면, 咕嚕溝에서 2건,⁴ 馬廠

* 투고: 2018년 11월 12일, 심사 완료: 2019년 2월 1일, 게재 확정: 2019년 2월 15일

1 江蘇省文物管理委員會, 1955, 「江蘇省丹徒縣煙墩山出土的古代靑銅器」, 『文物參考資料』 1955-5.

2 李學勤, 1980, 「從新出靑銅器看長江下游文化的發展」, 『文物』 1980-8; 中國社會科學院考古研究所 編, 2004, 『中國考古學-兩周卷』, 北京: 中國社會科學出版社.

3 陳絮은 이러한 맥락에서 宜 땅을 장강하류가 아닌 지금의 山東省 萊蕪市 일대로 비정하였다(陳絮·劉洋, 2018, 「宜侯吳簋與宜地地望」, 『中原文物』 2018-3).

4 陳夢家, 2004, 『西周銅器斷代』, 北京: 中華書局. 기물은 이미 亡失되었다.

溝에서 16건,⁵ 喀左 北洞 1호窖藏에서 6건,⁶ 2호窖藏에서 6건,⁷ 天寶同에서 1건,⁸ 山灣子에서 22건,⁹ 小波汰溝에서 8건,¹⁰ 和尚溝에서 2건,¹¹ 高家洞에서 1건,¹² 花爾樓에서 5건,¹³ 頭牌子에서 1983년에 3건,¹⁴ 1984년에 1건이다. 이 밖에 大西牛波羅鄉, 朝陽 大廟, 朝陽 木頭城子 등에서도 청동기가 출토되었다고 한다.¹⁵

이 가운데 중국 西北大學의 吳鎮烽이 정리하고, 上海古籍出版社에서 출판한 『商周青銅器銘文暨圖像集成』과 그 『續編』¹⁶에 수록된 遼西 출토 商末周初 金文은 모두 29편으로, 馬廠溝에서 6편, 北洞 1호窖藏에서 1편, 2호窖藏에서 3편, 山灣子에서 16편, 小波汰溝에서 3편이 출토되었다(표1) 참고.¹⁷

-
- 5 李廷儉, 1955, 「熱河凌源海島營子村發現的古代青銅器」, 『文物參考資料』 1955-8.
 - 6 遼寧省博物館·朝陽地區博物館, 1973, 「遼寧喀左縣北洞村發現殷代青銅器」, 『考古』 1973-4.
 - 7 喀左縣文化館·朝陽地區博物館北洞文物發掘小組·遼寧省博物館, 1974, 「遼寧省喀左縣北洞村出土的殷周青銅器」, 『考古』 1974-4.
 - 8 克什克騰旗文化館, 1977, 「遼寧克什克騰旗天寶同發現商代銅甗」, 『考古』 1977-5.
 - 9 喀左縣文化館·朝陽地區博物館·遼寧省博物館, 1977, 「遼寧省喀左縣山灣子出土殷周青銅器」, 『文物』 1977-12.
 - 10 王成生·辛岩·劉大志, 1998, 「遼寧喀左縣高家洞商周墓」, 『考古』 1998-4.
 - 11 遼寧省文物考古研究所·喀左縣博物館, 1989, 「喀左和尚溝墓地」, 『遼海文物學刊』, 1989-2.
 - 12 孫思賢·邵福玉, 1982, 「遼寧義縣發現商周銅器窖藏」, 『文物』 1982-2.
 - 13 孫思賢·邵福玉, 1982, 「遼寧義縣發現商周銅器窖藏」, 『文物』 1982-2; 林永昌, 2007, 「遼西地區銅器窖藏性質再分析」, 『古代文明研究通訊』 34, 22쪽.
 - 14 蘇赫, 1982, 「從昭盟發現的大型青銅器試論北方的早期青銅文明」, 『內蒙古文物考古』, 1982-2.
 - 15 林永昌, 2007, 「遼西地區銅器窖藏性質再分析」, 『古代文明研究通訊』 34, 16~17쪽.
 - 16 吳鎮烽 編, 2012, 『商周青銅器銘文暨圖像集成』, 上海: 上海古籍出版社; 吳鎮烽 編, 2016, 『商周青銅器銘文暨圖像集成續編』, 上海: 上海古籍出版社.

〈표 1〉 요서 출토 상말주초 청동예기의 출토지 및 수량

遺蹟名	年代	出土 青銅禮器														備考			
		食器					酒器					水器	其他				計		
		鼎	鬲	甗	簋	盂	卣	壺	甗	尊	盤	水器	組形器	鉢形器	盤狀器			미상	
咕嚕溝	1941	2															2		
馬廠溝	1955	1		2	3	1	2	1		2	1	1					2	16	‘匱侯盂’ 포함 명문 6편
大西牛波羅鄉	1958			1														1	
天寶洞	1973			1														1	
朝陽 大廟	1973								1									1	
朝陽 木頭城子	1973				1													1	
北洞 1호	1973								1	5								6	‘齊竹’ 명문 1편
北洞 2호	1973	3			1					1				1				6	‘亞侯矣’ 명문 포함 3편
山灣子	1974	1	1	3	10		1			3	1					1	1	22	명문 16편
和尚溝	1978				1	1												2	
高家洞	1979								1									1	
小波汰溝	1979	2			1					4		1						8	명문 3편
花爾樓	1979	1		2	1								1					5	
頭牌子	1981	2		1														3	
頭牌子	1984	1																1	
計		13	1	10	18	2	3	1	2	16	2	2	1	1	1	1	3	76	명문 29편

17 〈표 1〉은 김정열(2009)의 「遼西지역 출토 상·주 靑銅禮器의 성격에 대하여」(『요하구역의 초기 청동기문화』, 서울, 동북아역사재단)를 기초로 수정·보완한 것임.

여기서 출토된 29편 금문 가운데 학계의 주목을 받은 것으로는 다음 세 편을 들 수 있다.

먼저, 喀左 北洞 1호 窖藏에서 출토된, 이른바 ‘孤竹銘’ 청동기로 알려진 亞兂父丁甬와 北洞 2호 窖藏에서 출토된 甬鼎을 들 수 있다. 亞兂父丁甬는 “父丁, 簞竹, 亞兂” 라는 명문 속의 ‘簞竹’을 학자들이 ‘孤竹’으로 釋讀하면서 학계의 큰 주목을 받았고,¹⁸ 甬鼎은 ‘亞 𠄎 侯 矣’라는 족씨 명문이 ‘箕子’와 유관한 것으로 해석되어 학계의 관심을 끌었다.¹⁹ 이는 ‘孤竹’이라는 古國의 실체와 이른바 ‘箕子朝鮮’ 혹은 ‘箕子族’의 실체를 인정하는 근거로 사용되었다.²⁰

다음으로, 1955년 喀左 馬廠溝에서 발견된 ‘燕侯盂’ 청동기다. ‘燕侯’의 청동기가 遼西 馬廠溝에서 출토되었다는 그 자체가 燕의 遼西 진출을 설명하는 데 적극적으로 활용될 수 있기 때문에 큰 주목을 받았다. 燕侯銘은 비록 遼西에서 지금까지 1건밖에 출토되지 않았지만, 西周 초기 燕의 遼西 진출을 긍정하는 설은 학계에 큰 영향을 끼치고 있다.²¹ 앞서 살펴본 이른바 ‘孤竹銘’ 청동기와 箕子와 연관된 것으로 추정되는 ‘亞 𠄎 侯 矣’ 또한 마찬가지다. 전래문헌에 따르면, 孤竹은 殷商에 속한 古國이었고, 箕子는 周王의 冊名을 받았다고 전해진다. 따라서 殷商 시기부터 遼西가 中원의 통제 하에 있었고, 西周에 들

18 晏琬(李學勤), 1975, 「北京·遼寧出土銅器與周初的燕」, 『考古』 1975-5, 274~279쪽; 李學勤, 1983, 「試論孤竹」, 『社會科學戰線』 1983-2, 204~205쪽.

19 喀左縣文化館·朝陽地區博物館北洞文物發掘小組·遼寧省博物館, 1974, 「遼寧省喀左縣北洞村出土的殷周青銅器」, 『考古』 1974-4.

20 張博泉, 1985, 『東北地方史稿』, 長春: 吉林大學出版社, 35~42쪽; 이형구, 1991, 「大凌河流域의 殷末周初 青銅器文化와 箕子 및 箕子朝鮮」, 『한국상고사학보』 5; 葛英會, 이유표 역, 2012, 「箕子朝鮮과 周代燕·箕」, 『고고학탐구』 11.

21 대표적인 성과로 晏琬(李學勤, 1975)의 「北京·遼寧出土銅器與周初的燕」(『考古』 1975-5), 甲元眞之(1990)의 「燕の成立と東北アジア」(『東北アジアの考古學—天池』, 東京: 六興出版) 등이 있다. 이 밖에 王震中(2017)은 「山東半島 초기 해양문명과 春秋戰國시기 韓中日 삼국의 해양 실크로드」(『사림』 59)에서 신석기 시대부터 지금의 중국 산둥지역과 동북지역 사이에 교류가 있었고, 중원문화가 어느 정도 영향을 끼쳤다고 논한 바 있으나, 단편적인 유물 증거를 가지고 단정짓기에는 무리가 있다.

어서 燕이 이를 계승했다는 정황적 증거로 활용되기도 하였다.

그렇다면 遼西 출토 청동기는 곧 중원문화 전파의 증거라 할 수 있을까? 여기서 생각해봐야 할 것이 있다. 전술한 대로 燕侯銘 청동기는 단 한 건에 불과하다. 청동기의 族의 귀속을 알 수 있는 대부분의 청동기에는 族氏 銘文이 새겨져 있다. 張懋鏞은 일련의 연구성과를 통해 周人은 ‘族氏 銘文(族徽)’을 쓰지 않으며, 또 ‘日名’을 쓰지 않는다는 점을 밝혔다.²² 물론 소수의 예외가 있기도 했지만, 그 경향성은 아직까지 인정받고 있다.²³ 그렇다면 遼西 출토 청동기 가운데 족적 귀속을 알 수 있는 것은 대부분 殷商遺民이 제작했다고 볼 수 있다.

이처럼 遼西 출토 족씨 명문은 燕 혹은 중원문화의 遼西 진출 여부를 판가름할 수 있는 중요한 자료이지만, 그동안 ‘箕’족에 대한 연구 외에는 거의 연구가 이뤄지지 않았다. 따라서 본문은 ‘족씨 명문’에 초점을 맞추어, 遼西 출토 청동기의 성격과 출현 배경에 대해 논함으로써, 이를 燕 혹은 중원문화의 遼西 진출을 증명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논해보고자 한다.

II. 遼西 출토 족씨 명문: 殷遺民의 遷徙 경향을 중심으로

전술한 대로 遼西 출토 청동기 가운데 銘文을 지닌 것은 모두 29편이다. 이 가운데 족씨 명문으로 판단되는 요소를 지닌 것은 총 17편이다.²⁴ 이 족씨 명문을 출토지와 연결해보면 <표 2>와 같다.²⁵

22 張懋鏞, 1993, 「周人不用日名說」, 『歷史研究』 1993-5; 張懋鏞, 1995, 「周人不用族徽說」, 『考古』 1995-9.

23 張懋鏞, 2009, 「再論‘周人不用日名說’」, 『文博』 2009-3; 張懋鏞·王靜, 2014, 「周人不用族徽·日名說的考古學意義—從隨州葉家山西周曾國墓地談起」, 『四川文物』 2014-4.

24 이 밖에 학자들이 ‘蔡’로 隸定하는 𠄎도 있지만, 인명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따라서 본문에서는 족씨 명문으로 다루지 않는다.

25 각 청동기의 기형과 명문은 <부표 1> 참조.

〈표 2〉 요서 출토 족씨 명문의 출토지 및 종류

출토지	기물 단계	족씨 및 저록
山嘴子	서주 초기	魚(魚父庚甬, 『銘圖』 13781); 魚(魚父癸簋, 『銘圖』 3848); 義(義卣, 『銘圖』 13126)
北洞 1호	서주 초기	亞(亞兕父丁甬, 『銘圖』 13810)
北洞 2호	상대 후기	辛(辛父辛鼎, 『銘圖』 896); 嬰(嬰鼎, 『銘圖』 2257)
山灣子	상대 후기	魚(魚卣, 『銘圖』 11238); 申(申窩父丁卣, 『銘圖』 12917)
	서주 초기	虘(虘父卣, 『銘圖』 1974); 父(父甲簋, 『銘圖』 3759); 虘(虘父戊簋, 『銘圖』 3810); 亞(亞父乙簋, 『銘圖』 4007); 史(史父甬, 『銘圖』 13729); 舟(舟父甲卣蓋, 『銘圖』 12843); 尹(尹簋, 『銘圖』 3567)
小波汰溝	상대 후기	登(登方父甬, 『銘圖』 13752); 朋(朋五父庚甬, 『銘圖』 13799)

이 17편 가운데 ‘魚’로 예정되는 족씨 명문이 3편 나온 것 외에, 중복되는 족씨 명문은 없다.²⁶ 적잖은 족씨 명문이 중원에서 멀리 떨어진 遼西지역에서, 그것도 ‘魚’로 예정되는 족씨 명문을 제외한 14종이 하나씩만 나타났다는 것도, 그 출현 배경에 대해 의문을 자아내게 한다. 혹시 시대에 따른 이들의 이동 경로가 어떠한 실마리를 던져주지 않을까? 따라서 필자는 이러한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각 족씨별로 그 출토지를 정리해보았다.

먼저 山灣子 출토 族氏를 보도록 하자.²⁷

何族과 관련된 족씨 명문 수량이 적은 편은 아니지만, 그 출토지가 확인되는 것은 위의 12건이다. 이를 시대별로 나누어보면, 商末로 편년되는 족씨 명문은 주로 지금의 河南省 安陽에서 출토되고, 陝西省 岐山에서 출토된 것도 한 건 확인되는 데 반해, 周初로 편년되는 것은 山灣子와 河南省 洛陽에서 출토

26 게다가 ‘魚’로 예정되는 족씨 명문의 형태가 魚, 魚, 魚로 각각 다르다. 하경성은 족씨 명문을 정리할 때, 각각 구분하여 정리하였다(何景成, 2009, 『商周青銅器族氏銘文研究』, 濟南: 齊魯書社).

27 각 族氏銘 青銅器의 구체적인 출토지와 『銘圖』 編號는 〈부표 2〉 참조.

된 것 각각 한 건 씩만 확인되고 있다.²⁸

〈표 3〉 何族銘 청동기의 출토지(簡表)

족씨	단대	출토지 ²⁹
何	상말	河南 安陽(9건), 陝西 岐山(1건)
	주초	遼寧 喀左 山灣子(1건), 河南 洛陽(1건)

何族 명문의 출토지를 살펴보면, 商代 후기로 편년되는 족씨 명문은 주로 지금의 河南省 安陽에서 주로 출토되고, 간혹 陝西 지방에서도 출토되고 있다. 西周로 편년되는 것은 宗周가 있었던 지금의 陝西 지역은 물론, 成周가 있었던 洛陽에서도 출토된다. 이 밖에, 曾國이 있었던 곳으로 추정되는 湖北省 隨州市 葉家山에서도 출토되고 있다.³⁰

〈표 4〉 夬族銘 청동기의 출토지(簡表)

족씨	단대	출토지
夬	상말	河南 洛陽(3건), 安陽(11건), 陝西 寶鷄(1건), 岐山(1건)
	주초	遼寧 喀左 山灣子(1건), 河南 洛陽(4건) 陝西 隴縣(2건), 扶風(1건), 武功(1건), 寶鷄(2건), 涇陽(2건) 湖北 隨州 葉家山(2건)

28 岐山은 주의 발상지라 불리는 이른바 '周原' 지역에 속하는 곳으로, 이 지역에서 西周時期 유적도 다수 발견되는바, 어쩌면 陝西 岐山에서 출토된 1건의 기물 또한 西周時期에 매납된 것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29 이 표는 족씨 명문 중 출토지가 명확한 것을 위주로 정리하였다. 단, 출토지가 명확하지 않지만, 명문 내용상 해당 족씨의 활동 범위를 유추할 수 있는 것도 아울러 정리하였다. 후자의 경우 『銘圖』編號도 병기한다. 이하 동일.

30 黃鳳春·陳樹祥·凡國棟, 2011, 「湖北隨州葉家山新出西周曾國銅器及相關問題」, 『文物』2011-11.

〈표 5〉 虜族銘 청동기의 출토지(簡表)

족씨	단대	출토지
虜	상말	河南 安陽(5건), 河北 正定(2건), 陝西 扶風(1건), 岐山(1건)
	주초	遼寧 喀左 山灣子(1건), 陝西 銅川(1건), 扶風(2건), 寶鷄(1건), 甘肅 靈臺(1건)

商代 후기로 편년되는 명문은 대체로 지금의 河北省과 河南省에서 출토되고 있다. 陝西지역에서도 2건이 출토되었지만, 이른바 周原지역에서 출토된 것으로, 西周시기에 매납된 것이다.³¹ 西周 초기로 편년되는 명문은 대체로 陝西省에서 출토되고 있고, 甘肅省 靈臺縣과 遼寧 山灣子에서도 출토된 바 있다. 이를 종합해 봤을 때, 원래 河南省과 河北省 일대에 거주하던 虜族이 商末 周初 언저리에 宗周 일대로 이동한 것으로 추정된다.

〈표 6〉 魚族銘 청동기의 출토지(簡表)

족씨	단대	출토지
魚	상말	遼寧 喀左 山灣子(1건), 河南 安陽(5건), 南陽(1건), 陝西 鳳翔(1건), 岐山(1건)
	주초	遼寧 喀左 山嘴子(2건), 河南 洛陽(4건), 河北 易州(1건) 山東 諸城(1건), 靑州(1건), 陝西 旬邑(1건), 湖北 隨州 羊子山(1건), 葉家山(1건)
	주중	陝西 西安(1건)

魚族 관련 동기명문 가운데,³² 商末 魚族의 활동지역을 직접적으로 보여주는 기물이 두 건 보인다.

31 段紹嘉, 「對師克盃蓋和癸鼎銘文鑑別的商榷」, 『文物』 1960-8·9, 90쪽; 陝西省博物館等, 「陝西岐山賀家村西周墓葬」, 『考古』 1976-1, 31~38쪽.

32 魚族 족씨 명문은 1장에서 언급한 것처럼 형태별로 세분화할 수 있지만, 여기서는 세부적으로 구분하지 않고 전체적으로 통계를 내었다.

壬申日, 王이 亞魚에게 貝를 하사하니, 兄癸를 위한 기물을 만드노라. 6월 王 7년 翌 제사를 드리는 날에.³³

辛卯日, 王이 寢魚에게 貝를 하사하니, 父丁을 위한 기물을 만드노라.³⁴

이는 魚族의 구성원과 商王 사이의 인적 관계를 보여주는 것으로, 王으로부터 魚族의 구성원 ‘亞魚’와 ‘寢魚’가 貝를 받은 것을 통해, 魚族이 王都 주변에서 활동했던 것으로 보인다. 이는 지금의 河南省 安陽 일대에서 商末로 편년되는 魚族 족씨 명문이 다수 출토된 것을 통해 방증할 수 있다. 周初로 편년되는 魚族 족씨 명문은 遼寧省 喀左 海島營子(馬廠溝)와 河北省 易州(지금의 河北省 易縣) 외에, 陝西省 旬邑 및 山東省 青州와 諸城에서도 출토되었다. 또한 曾國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湖北省 隨州市 葉家山과 鄂國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되는 湖北省 隨州市 羊子山에서도 魚族銘 청동기가 출토되었다.³⁵

〈표 7〉 舟族銘 청동기의 출토지(簡表)

족씨	단대	출토지
舟	상말	河南 安陽(4건), 山東 壽長(2건), 傳世(1건, 『銘圖』 4812)
	주초	遼寧 喀左 山灣子(1건), 河南 鹿邑(1건), 洛陽(1건), 山東 鄒平(2건) 陝西 西安(1건)
	주중	傳世(1건, 4735)
	주말	2012년 마카오 경매시장(1건, 30405)

舟族 족씨 명문의 출토 정황을 봤을 때, 舟族은 商末에 지금의 河南省 安陽 일대에 주로 거주했던 것으로 보인다. 이는 窩徽簋 명문(『銘圖』 4812)을 통

33 亞魚鼎 銘文(『銘圖』 2201): 壬申, 王易(錫)亞魚貝, 用乍(作)兄癸尊, 才(在)六月, 佳(唯)王七祀翌日.

34 寢魚鼎 銘文(『銘圖』 4635): 辛卯, 王易(錫)寢魚貝, 用乍(作)父丁彝.

35 張昌平, 2011, 「論隨州羊子山新出噩國青銅器」, 『文物』 2011-11.

이는 尹族과 舟族의 관계가 밀접했다는 것을 증명한다. 따라서 尹族 족씨 명문과 舟族 족씨 명문이 같은 곳에서 출토된 것 또한 이 두 집안 사이의 밀접한 관계를 방증해준다고 할 수 있다.

〈표 9〉 史族銘 청동기의 출토지(簡表)

족씨	단대	출토지
尹 舟 史	상말	河南 安陽(6건), 山東 泗水(1건), 滕州 姜屯鎮(5건), 滕州 前掌大(54건) 陝西 長武(1건), 延川(1건)
	주초	遼寧 喀左 山灣子(1건), 河南 鄭州(1건), 洛陽(1건), 山東(1건), 山東 鄒城(1건), 滕州 前掌大(4건) 陝西 岐山(1건), 銅川(1건), 西安(2건), 寶鷄(3건), 傳世(1건, 1865)

史族 족씨 명문 가운데 商末로 편년되는 것은 지금의 河南省 安陽, 山東省 滕州 일대에서 대량 출토된 바 있다. 山東省에서 유독 많은 족씨 명문이 나타나는 것은 商代 중기 이후 東夷 공략의 결과로 생각된다.³⁸ 周初로 편년되는 족씨 명문은 河南省과 山東省 외에 陝西省 일대에서도 출토되었는데, 이는 商末周初 언저리, 史族의 西遷을 의미한다.

山東지역의 史族으로는 薛侯가 대표적이다. 薛侯鼎 명문(『銘圖』 1865)을 보도록 하자. “薛侯가 父乙을 위한 鼎을 만드노라. 史.”³⁹ 전래문헌에 의하면, 薛侯는 任姓國으로,⁴⁰ 이는 任姓이 史族의 일원임을 증명하는 것이다. 문헌에 의하면 周族의 수장 王季는 任姓의 여자와 결혼했다고 전해진다.⁴¹ 이는 商末

38 劉緒, 박재복 역, 2011, 「商왕조의 東方 經略에 대한 고고학적 고찰」, 『고고학탐구』 제9호; 徐昭峰, 2012, 「商王朝東征與商夷關係」, 『考古』 2012-2.

39 薛(薛)侯(侯)戚乍(乍)父乙鼎彝, 史.

40 陳槃 譯, 1997, 『春秋大事表列國爵姓及存滅表譯異』, 臺北: 中央研究院歷史語言研究所, 256쪽.

41 『毛詩正義』 권16-3, 「大雅·思齊」, 『十三經注疏』, 上海: 上海古籍出版社, 1997, 516쪽, “思齊大任, 文王之母”, 「大雅·大明」, 507쪽, “摯仲氏任, 自彼殷商, 來嫁于周, 曰嬪于京. 乃及王季, 維德之行. 太任有身, 生此文王.”

周族과 史族 任姓 사이의 연합을 보여준다. 그 밖에 또 주목되는 것이 周初로 편년되는 榮仲鼎 명문(『銘圖』 2413)⁴²으로, 명문 끝에 ‘史’族의 족씨 명문이 들어가 있는 것을 통해, 榮仲家族 또한 史族의 일원임을 알 수 있다.⁴³

이상으로 山灣子에서 출토된 족씨 명문의 출토 정황을 살펴보았다. 위의 7개 족씨 외에도 山灣子에서는 𠄎族과 𠄎族 기물도 출토되었지만, 이 두 족씨와 관련된 명문이 극히 적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다루지 않겠다.

다음으로 遼寧省 喀左 山嘴子鎮과 小波汰溝에서 출토된 족씨와 관련된 족씨 명문의 상황을 보도록 하자. 山嘴子鎮에서는 두 종의 魚族 족씨 명문, 𩺰(魚父庚豊, 『銘圖』 13781)와 𩺰(魚父癸簋, 『銘圖』 3848) 외에, 𩺰族 족씨 명문도 출토되었다. 이 밖에 小波汰溝에서는 𩺰族과 𩺰族 명문이 출토되었다.⁴⁴

그러면 山嘴子鎮 출토 𩺰族 족씨 명문과, 小波汰溝 출토 𩺰族 족씨 명문의 상황을 보도록 하자. 𩺰은 聃과 義의 複合族氏 銘文 혹은 聃義라는 인명을 가리키는 것일 수도 있고, 𩺰은 登과 聃이 합쳐진 複合族氏 銘文 혹은 登聃이라는 인명을 가리키는 것일 수도 있다. 이 두 사례는 다른 청동예기에서 보이지 않지만, 이 두 족씨 명문을 각각 구성하는 ‘聃’와 ‘登’은 다른 족씨 명문에서도 간혹 나타난다. 이를 정리해보면 <표 10>과 같다.

<표 10> 聃族銘과 登族銘 청동기의 출토지(簡表)

족씨	단대	출토지	족씨	단대	출토지
聃	상말	河南 安陽(3건), 輝縣(8건)	登	상말	遼寧 喀左 小波汰溝(1건)
	주초	遼寧 喀左 山嘴子(1건)		주초	河南 洛陽(4건)

42 王乍(作)𩺰(榮)中(仲)序, 才(在)十月又二月生霸吉庚寅, 子加(賀)𩺰(榮)中(仲)珣(瑒)𩺰(瓚)一·牲大牢. 己子(巳), 𩺰(榮)中(仲)速(速)內(芮)白(伯)·𩺰(胡)疾(侯)·子, 子易(錫)白金𩺰(鈞), 用乍(作)父丁𩺰(肆)彝. 史.

43 이러한 맥락에서 西周 金文에 보이는 榮氏 또한 史族의 分族일 가능성이 있다.

44 𩺰族은 다른 사례가 없기 때문에 여기서는 구체적으로 다루지 않는다.

珣族 족씨 명문 가운데 출토지가 확인되는 것은 河南 安陽과 輝縣, 그리고 遼西 山嘴子에서 출토된 것뿐이지만, 安陽에서 출토된 것은 “珣鬲”의 형태로, 遼西에서 출토된 “珣義”의 형태와는 차이가 있다. 만약 ‘珣鬲’이 인명이라면 ‘珣’族은 商末 殷都 일대에서 활동하다가 周初에 이르러 그 흔적이 사라진 것이라 추정할 수 있다. 登族 족씨 명문 가운데 출토지가 확인되는 것은 遼寧 喀左 小波汰溝와 河南 洛陽뿐이다. 이 ‘珣’族과 ‘登’族 명문의 시대적 귀속을 보면, 商末로 귀속되는 珣族 명문은 殷都 일대에서 출토되었고, 周初로 귀속되는 것은 山嘴子에서 나타났다. 周初로 귀속되는 登族 명문은 河南省 洛陽 일대에서 나타나는데, 비록 商末로 편년되는 登族 기물이 小波汰溝에서 1건 나타나기는 하나, 이것만 가지고 이들이 商末에 遼西에서 활동했다고 여기기에는, 그 표본이 적기 때문에 무리가 있다. 오히려 珣族과 登族이 遼西에서 출토된 것은 族的 遷徙가 아니라 銅器만 비정상적으로 옮겨간 것은 아닌지 조심스럽게 추측해본다.

이어서, 遼寧省 喀左 北洞 1호 窖藏과 2호 窖藏에서 출토된 족씨 명문의 상황을 보도록 하자.

〈표 11〉 微族銘 청동기의 출토지(簡表)

족씨	단대	출토지
光 微	상말	河南 安陽(1건)
	주초	遼寧 喀左 北洞 1호(1건), 北京 房山 琉璃河(2건) 陝西 扶風 莊白 1호(12건), ⁴⁵ 陝西 寶鷄(1건)

微族과 관련된 청동명문 수량은 그리 많지 않다. 지금의 河南省 安陽에서 출토된 商末 족씨 명문과 周初 喀左 北洞 1호 窖藏, 그리고 西周시기 陝西 寶

45 이는 유명한 ‘微史家族’ 혹은 ‘微氏家族’의 銅器群으로 微 땅에서 ‘史’ 직을 지냈다는 것을 통해, 微族과의 밀접한 관계를 어렵지 않게 추측해볼 수 있다(尹盛平 主編, 1992, 『西周微氏家族青銅器群研究』, 北京: 文物出版社).

鷄 竹園溝에서 출토된 것이 전부다. 그러나 족씨 명문은 아니지만 1986년 北京 琉璃河에서 출토된 克罍(『銘圖』 13831)·克盃 명문(『銘圖』 14789)에 微族과 관련된 중요한 정보가 담겨 있다.⁴⁶

왕이 말하였다. “太保! 그대는 그대의 마음을 밝게 하여, 王에게 헌신하였소. 내 그대의 헌신에 대하여, 克을 명하여 匱(燕)의 제후로 삼아, 羗·馬·獻·霽·馭·微의 여섯 族을 관리하게 하오.” 克은 匱(燕)에 자리잡아, 그 땅과 그 有司들을 받았다. 이에 보배롭고 존귀한 彝器를 만드노라.⁴⁷

명문에 따르면, 周王은 燕을 책봉하면서 ‘羗·馬·獻·霽·馭·微’의 여섯 족을 팔려 보냈다. 흥미로운 것은 遼西 출토 微族 銅器가 바로 그 유명한 ‘孤竹銘’ 청동기라는 것이다. 그 명문을 보면 “父丁, 匱(孤)竹, 亞兕.”로, 孤竹이 바로 전래문헌에 나오는 孤竹이라면 孤竹이 곧 微族의 分族이라는 것을 나타내 주는 것이므로, 어쩌면 克罍·克盃의 여섯 족의 ‘微’族은 바로 孤竹을 염두에 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어서 冉族 족씨 명문의 출토 양상을 보도록 하자. <표 12>에서 알 수 있듯이 冉族銘 동기의 출토 범위는 매우 광범위하다. 이는 冉族이 商周시기에 大族이었음을 의미한다.

商末로 편년되는 冉族銘 동기는 지금의 河南省 安陽지역은 물론 河北省과 山東省, 그리고 湖北省에서도 출토되었고, 심지어 湖南지역에서도 출토되었다. 西周시기에 이르러서는 陝西省에서도 그 출현 빈도가 늘어났다. 비록 商末의 족씨 명문이 陝西지역에서 두 건 출토되었으나, 그중 寶鷄의 것은 西周

46 北京市文物研究所, 1995, 『琉璃河西周燕國墓地(1973~1977)』, 北京: 文物出版社.

47 王曰, 大(太)倬(保), 隹(唯)乃明乃心, 官(享)玠(于)乃辟. 余大對乃官(享), 令克戾(侯)玠(于)匱(燕), 旆羗·馬·獻·霽(霽)·馭(馭)·兕(微). 克罍(次)匱(燕), 入土眾畢(厥)鬲(司). 用乍(作)寶彝(尊)彝.


〈표 12〉 𠄎(冉)族銘 청동기의 출토지(簡表)

족씨	단대	출토지
𠄎冉	상말	遼寧 喀左 北洞2호(1건) 河南(2건), 河南 安陽(19건), 河北 遷安(1건), 靈壽(1건) 山東(1건), 山東 登州市 鋪集鎮(1건), 滕州市 前掌大(1건) 陝西 岐山(1건), 寶鷄(2건) 湖北 襄陽(1건), 鄂城(1건), 湘鄉(1건), 湖南 寧鄉(3건)
	주초	河南 浚縣(1건), 鶴壁(1건), 信陽(1건), 洛陽(6건), 山西 曲沃(1건) 陝西 隴縣(1건), 扶風(1건), 鳳翔(1건), 寶鷄(4건), 西安(6건) 湖北 隨州 葉家山(2건), 湖南 湘潭(1건) 1946년 傅斯年 구매(1건, 13048)

墓에서 출토된 것이고,⁴⁸ 岐山の 것 또한 西周시기로 편년되는 𠄎父辛爵과 같이 출토되었기 때문에,⁴⁹ 商末부터 이들이 陝西지역에 거주했는지 여부를 증명해주지는 못한다.

본문에서 정리한 冉族 족씨 명문 가운데 가장 눈길을 끄는 것은 바로 ‘北子’銘 청동기다.

〈표 13〉 冉族 北子銘 청동기

	北子卣『銘圖』13048	北子鼎『銘圖』1052	北子鬲『銘圖』3237
기물 · 탁본	 	 	 
단대	서주 초기	서주 중기	
명문	蓋銘：北子𠄎(冉)父辛； 器銘：𠄎(冉)父辛.	北子, 𠄎(冉).	𠄎北子, 𠄎(冉).
출토지	1946년 北平 구매, 史語所 所藏	1961년 현 湖北省 荊州市 荊州區 李埠鎮	

48 劉軍社 等, 「陝西寶鷄石鼓山西周墓葬發掘簡報」, 『文物』2013-2, 4~54쪽.

49 『銘圖』16卷, 326쪽.

‘北子’라는 명칭은 자연스럽게 ‘北伯’을 연상케 한다. ‘北伯’은 光緒 16년 (1890) 直隸 涿水 張家窪에서 처음 나타났다.⁵⁰ 이 ‘北伯’에 대해 혹자는 『詩經』 「邶風」의 ‘邶國’으로 여기기도 했지만,⁵¹ ‘北伯’ 기물이 출토된 涿水 張家窪가 殷都 朝歌에서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北’이 ‘邶’일 가능성은 크지 않다.⁵² 하지만 어쨌든 이 直隸 張家窪, 곧 지금의 河北省 保定市 涿水縣 일대가 北國의 故地였다는 것에 대해서는 큰 이견이 없다. 이는 ‘冉族’의 일부가 西周 초기에 이미 지금의 河北省 保定 일대에 자리하고 있었음을 증명해 준다.

다음으로 ‘亞𣎵侯矣’ 族銘 청동기의 상황을 살펴보도록 하자. 전술하였듯이, ‘亞𣎵侯矣’ 族 족씨 명문은 ‘𣎵侯’라는 명문 구성요소 때문에 많은 학자들의 주목을 받았다. ‘亞𣎵侯矣’ 族 족씨 명문을 구성하는 ‘𣎵’는 족씨 명문에 적잖이 보인다. ‘𣎵’자가 구성요소로 들어간 족씨 명문의 출토지를 정리해보면 <표 14>와 같다.

<표 14> 𣎵族銘 청동기의 출토지(簡表)

족씨	단대	출토지
𣎵	상말	遼寧 喀左 北洞 2호(1건), 河南 安陽(23건), 山東 滕州 姜屯鎮(2건), 陝西(1건)
	주초	北京 順義(5건), 河南 鄭州(1건) 陝西 扶風(1건), 旬邑(1건), 傳世(1건, 14763)

‘𣎵’는 商末周初 족씨 명문에서, 단독으로 쓰이기도 하고, ‘亞𣎵’, ‘亞𣎵矣’, ‘亞𣎵侯矣’ 등의 형태로도 나타난다. 여기서 ‘亞𣎵矣’는 ‘𣎵’와 ‘矣’의 複合族氏

50 羅振玉 編纂, 2003, 『貞松堂集古遺文』, 北京圖書館出版社.

51 王國維, 1959, 『觀堂集林』(附別集), 北京: 中華書局, 885쪽; 李衡梅, 1987, 「周初主要封國名稱由來初探」, 『齊魯學刊』 1987-2.

52 張海, 2017, 『西周建‘侯’制度與邊域政治地理研究』, 北京大學 博士學位論文, 303~304쪽.

銘文이고, ‘亞𠄎侯矣’는 ‘𠄎侯’와 ‘矣’의 複合族氏 銘文이다. 이는 ‘𠄎’族과 ‘矣’族의 밀접한 관계를 알려준다.⁵³ 矣와 𠄎는 商代 甲骨文에도 자주 보이는데, 이를 통해 商代에 이미 큰 세력을 형성한 족씨라는 것을 추측할 수 있다.⁵⁴

이 가운데 ‘亞𠄎侯矣’ 複合族氏 명문이 들어간 亞奭 명문(『銘圖』 14763)을 보도록 하자. “亞𠄎侯矣, 燕侯가 亞에게 貝를 하사하였다. 父乙을 위한 존귀한 기물을 만드노라.”⁵⁵ ‘亞𠄎侯矣’族의 일원인 ‘亞’가 ‘燕侯’로부터 貝를 하사받은 것을 통해 亞가 燕侯에 속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로 미루어, ‘亞𠄎侯矣’族은 燕의 통제를 받고 있었다는 것을 짐작해볼 수 있다. 이 밖에 燕都로 추정되는 지금의 北京 琉璃河에서 ‘其史’⁵⁶의 동기가 출토된 것과, 北京 牛欄山에서 ‘亞𠄎’族 동기가 다수 출토된 것을 통해서도⁵⁷ ‘𠄎’를 구성요소로 하는 족씨가 북경 일대에 자리잡고 있었다는 것을 방증할 수 있다.

이상으로 遼西지역에서 출토된 商末周初 族氏銘 青銅禮器와 그 족씨의 출토 양상에 대해 살펴보았다. 이어서 이를 바탕으로 이들 族氏銘 青銅禮器의 遼西 출현 배경에 대해 살펴보려고 한다.

53 葛英會는 ‘矣’를 ‘燕’으로 보고, ‘𠄎’族을 ‘燕’族의 分枝로 파악했다(葛英會, 이유표 역, 2012, 『箕子朝鮮과 周代燕·箕』, 『고고학탐구』 11).

54 𠄎族과 矣族 족씨 명문의 출토 상황 등에 대해서는 王長豐(2006)의 『殷周金文族徽整理與研究』(鄭州大學 博士學位論文, 128~131쪽)와 雒有倉(2007)의 『商周青銅器族徽文字綜合研究』(陝西師範大學 博士學位論文, 198쪽), 그리고 심재훈(2008)의 「商周 청동기를 통해 본 箕族의 이산과 성쇠」(『역사학보』 200) 등을 참고.

55 亞𠄎侯矣, 匱(燕)夙(侯)易(錫)亞貝, 乍(作)父乙寶匱(尊)彝.

56 其史觶 銘文(『銘圖』 10628): 𠄎(其)史乍(作)且(祖)己寶匱(尊)彝.

57 程長新, 1983, 「北京市順義縣牛欄山出土一組周初帶銘青銅器」, 『文物』 1983-11.

III. 商末周初 青銅禮器의 遼西 출현 배경

遼西 출토 15종 商末周初 족씨 명문은 어떠한 배경 속에서 출현한 것일까? 이 족씨 명문을 제작한 사람들이 殷遺民이라는 것을 감안해 봤을 때, 商末周初의 혼란기라는 시간적 배경을 먼저 생각해볼 수 있다. 또한 周王朝의 세력이 어디까지 미칠 수 있었느냐는 정치적·지리적 배경 또한 중점적으로 고려해 봐야 한다. 따라서 필자는 본 장에서 먼저 周王朝의 殷遺民 통제정책을 살펴보고, 이어서 周의 북방 확장에 대해 논해보고자 한다.

1. 周王朝의 殷遺民 통제정책

필자는 먼저 周初 殷遺民에 대한 통제정책에 주목했다. 周王室은 이른바 ‘武王克商’과 ‘周公東征’ 이후에 殷遺民을 통제하기 위한 여러 정책을 펴는데, 다음 세 가지로 귀납해볼 수 있다.

첫째, 殷商 王族을 책봉하여 殷遺民을 통제하게 하였다. 史書에 의하면 周武王은 殷나라를 멸망시킨 소위 ‘武王克商’ 후, “商紂의 아들 祿父를 봉해 殷의 遺民을 다스리게 했다. 武王은 殷이 이제 막 평정되어 결집되지 않았다고 생각해 동생 管叔 鮮과 蔡叔 度에게 祿父를 도와 殷을 다스리게 했다.”⁵⁸고 한다. 곧 殷의 왕자를 책봉하여 殷遺民을 다스리게 한 것이다. 그러나 史書에 의하면, 머지않아 武庚 祿父가 반란을 일으켰고, 이에 대응하여 成王과 周公이 군사를 일으켜 반란을 평정하였다. 이를 史書에서는 이른바 ‘周公東征’이라 한다.

成王과 周公은 ‘周公東征’ 이후, 다시 微子를 宋에 책봉하여 그 殷의 제사를 잇게 하였다.⁵⁹ 周王室이 비록 ‘武庚 祿父’의 실패를 겪었으나, ‘宋 微子’를

58 『史記』 「周本紀」, 北京: 中華書局, 1959, 126쪽, “封商紂子 祿父 殷之餘民. 武王爲殷初定未集, 乃使其弟 管叔 鮮·蔡叔 度相 祿父 治 殷.”

59 『史記』 권38 「宋微子世家」, 1621쪽, “武王崩, 成王少, 周公旦代行政當國. 管蔡疑之, 乃與武庚作亂, 欲襲成王周公. 周公既承成王命誅武庚, 殺管叔, 放蔡

다시 책봉한 것은, 바로 이러한 방법이 문화적 이질감을 최소화하면서 그들을 周王室의 통제 속으로 회유할 수 있는 방법이었기 때문이다.⁶⁰

둘째, 殷遺民을 周의 도읍인 宗周 혹은 成周로 이주시켜 周王이 직접 통제 하였다. 먼저 宗周로 이동한 정황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자. 史牆盤 명문에 다음과 같은 기록이 보인다.⁶¹

(前略) 安靜隱居하신 高祖께서는 微에 편안히 거처하셨도다. 武王께서 殷을 멸 하실 때, 微의 史官이셨던 烈祖께서 武王을 알현하셨네. 武王께서 周公에게 周에 거처할 땅을 주라고 명하시니, 甬 땅에 머무르게 되었네. (後略)⁶²

본 청동기의 作器者 史牆이 원래 微 땅의 史官이었던 조상이 ‘武王克商’ 무렵 周에 귀순하여 周의 영역 내의 ‘甬’이라는 곳에 머물게 된 가족사를 기록한 것이다. 이는 殷遺民의 宗周 부근 遷徙를 기록한 대표적 사례다.

이어서 ‘淸華簡’ 『繫年』⁶³에 기록된 秦의 西遷 기록을 보도록 하자.

周 武王이 殷을 이기고, 殷에 三監을 설치하였다. 武王이 죽자 商邑이 반란을 일으켰는데, 三監을 죽이고 寡子 耿을 세웠다. 成王은 商邑을 완전히 정벌하고,

叔, 乃命微子開代殷後, 奉其先祀, 作微子之命以申之, 國于宋.”

60 이유표, 2016, 「西周 金文에 보이는 ‘秦夷’와 『繫年』의 ‘商奄之民」, 『동양사학연구』 135, 149~150쪽.

61 번역문은 전광진(1999)의 「中國 青銅器 『史牆盤』 銘文에 대한 文獻學的 研究」(『중어중문학』 24)와 성균관대학교 유교문화연구소, 「동아시아 문명의 기원 탐구를 위한 서주시기 東夷·夷族 관련 출토자료 집성」[기초연구지원인문사회(토대연구, KRF-2009-322-A00046), 255~282쪽] 참고.

62 史牆盤 銘文(『銘圖』 14541): ……青幽高且(祖)才(在)散(微)靈處, 雱武王既戡殷, 散(微)史刺(烈)且(祖)邇來見武王, 武王則令周公舍(捨)甬(宇)于周, 卑(俾)處甬(甬)…….

63 李學勤 主編, 2011, 「淸華大學藏戰國楚竹簡(貳)」, 上海: 中西書局.

婁子 耿 을 죽였다. 飛廉은 동쪽 商奄氏(商蓋氏)에게 달아났다. 成王은 商奄을 정벌하여 飛廉을 죽이고, 商奄의 백성들을 서쪽인 朱圉로 옮겨, 奴虜의 戎을 제어하게 하였다. 이들이 秦의 선조로 대대로 周를 보필하였다. 周왕실이 쇠미해지자 平王은 東遷하여 成周에 자리하였다. 秦仲은 이때, 동쪽 옛 周지역에 자리하며 周의 분묘를 지키니, 秦은 이로써 비로소 강대해졌다.⁶⁴

이 기록에 의하면 周王은 商奄을 정벌한 후 秦의 先民으로 표현된 ‘商奄之民’을 지금의 甘肅省 天水 지역에 있었던 것으로 추정되는 ‘朱圉’로 이동시켰다고 한다.⁶⁵ 여기서 말하는 ‘商奄之民’이 ‘商奄’ 땅의 殷遺民뿐만 아니라 당시 西遷된 殷遺民을 아우르는 명사라는 것을 지적인 연구성과는, 周初 많은 殷遺民이 서쪽으로 이동했을 가능성에 힘을 실어주었다.⁶⁶ 이러한 殷遺民의 西遷은 豐西 지역, 곧 宗周 서쪽 지역에서 殷遺民의 흔적이 많이 나타나는 것을 통해 고고학적으로도 증명할 수 있다.⁶⁷

다음으로 殷遺民의 成周 遷徙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자. 周初 殷遺民의 西遷에 대해서는 전래문헌의 기록이 거의 없지만, 成周 遷徙에 대해서는 비교적 많은 문헌기록이 보인다. 먼저 『史記』 「周本紀」의 기록을 보도록 하자.

64 周武王既克殷(殷), 乃執(設)三監于殷, 武王陟, 商邑興反, 殺三監而立婁子耿, 成王屎(踐)伐商邑, 殺婁子耿, 飛廉(廉)東逃于商蓋(蓋)氏, 成王伐商蓋(蓋), 殺飛廉(廉), 西遷(遷)商蓋(蓋)之民于邾(朱)虜(圉), 以御(禦)奴虜之戎, 是秦先(先人), 殲(世)年(作)周屈(肱), 周室即(既)寧(卑), 坪(平)王東遷(遷), 止于成周, 秦中(仲)女(焉)東居周地, 以獸(守)周之壘(墳)墓(墓), 秦以訖(始)大. ㄸ

65 李學勤, 2011, 「談秦人初居‘邾虜’的地理位置」, 『出土文獻』第二輯, 上海: 中西書局, 1~3쪽.

66 이유포, 2016, 「西周 金文에 보이는 ‘秦夷’와 『繫年』의 ‘商奄之民」, 『동양사학연구』 135.

67 張禮艷, 2013, 「禮西地區殷遺民的社會地位及其變遷」, 『考古與文物』 2013-2; 張禮艷, 2015, 「從墓葬材料看豐鎬地區西周時期的人群構成」, 『華夏考古』 2015-2.

당초 管叔과 蔡叔이 周를 배반하자 周公이 그들을 토벌하여 3년 만에 완전히 평정되었다……. 成王이 豐에 머무르며 召公에게 洛邑을 다시 경영하여 武王의 뜻을 잇도록 했다. 周公이 다시 점을 치고 잘 살피서 마침내 도읍을 건설하여 九鼎을 그곳에 잘 모셨다. 그리고는 “여기가 천하의 중심으로 사방에서 공물을 바치러 오는 거리가 모두 같아졌다.”라 하고는 「召誥」, 「洛誥」를 지었다. 成王이 殷의 遺民을 그곳으로 옮기자 周公은 왕명을 알리기 위하여 「多士」, 「無佚」을 지었다.⁶⁸

이러한 殷遺民의 이동은 본문 Ⅱ장에서 정리한 족씨 명문의 출토지를 통해서도 파악할 수 있다. 商末로 편년되는 족씨 명문의 출토지를 보면, 대체로 殷都가 있었던 河南省 安陽 일대가 많은 데 비해 周初로 편년되는 족씨 명문이 대체로 周都 宗周가 있었던 지금의 陝西省 일대에서 많이 출토되었고 또 成周가 있었던 河南省 洛陽 일대에서도 나타나는 것을 통해, 이러한 周初 殷遺民 정책을 확인할 수 있다.

셋째, 諸侯를 각지에 冊封하여 殷遺民을 통제하게 하였다. 『史記』 「周本紀」에 의하면, “召公은 太保에, 周公은 太師에 임명되어 동으로 淮夷를 정벌하고 奄을 멸한 후 그 군주를 薄姑로 옮겼다.”⁶⁹ 고 한다. 이는 西周 금문을 통해 증명할 수 있다.

周公이 東夷를 정벌하여, 豐伯·薄姑를 다 정벌하였다. 周公은 돌아와 周廟에서 鬯 제사를 지내고, 戊辰日 飲秦禮를 올렸다. 공이 虘에게 貝 100朋을 하사하

68 『史記』 권4, 「周本紀」, 133쪽, “初, 管蔡畔周, 周公討之, 三年而畢定……. 成王在豐, 使召公復營洛邑, 如武王之意, 周公復卜申視, 卒營築, 居九鼎焉. 曰, ‘此天下之中, 四方入貢道里均.’ 作「召誥」, 「洛誥」, 成王既遷殷遺民, 周公以王命告, 作「多士」, 「無佚」.”

69 『史記』 권4, 「周本紀」, 133쪽, “召公爲保, 周公爲師, 東伐淮夷, 殘奄, 遷其君薄姑.”



그림 1 畀方鼎 器와 銘文

니, 보배로운 鼎을 만드노라.⁷⁰

이는 奄과 薄姑가 殷遺民 혹은 親商세력 중 중요한 세력이었다는 것을 보여준다. 成王과 周公은 이른바 ‘周公東征’ 이후, 魯를 ‘奄’의 故地에 책봉하고, 齊를 薄姑의 故地에 책봉하였다. 이는 殷遺民 혹은 親商세력의 근거지에 믿을 만한 諸侯를 책봉하여 직접 통제하려는 周王室의 정책이었다.

이 밖에 周王은 諸侯를 책봉할 때, 殷遺民을 딸려 보내곤 하였다. 『春秋左氏傳』 ‘定公 4년’ 기록에 의하면, 周王은 三監의 亂을 평정한 후, 康叔을 衛에 책봉하면서 ‘殷民七族’을 딸려 보냈고, 周公의 아들 伯禽을 魯에 책봉하면서 ‘殷民六族’을 딸려 보냈으며, 唐叔을 晉에 책봉하면서 ‘懷姓九宗’⁷¹을 딸려 보

70 畀方鼎(『銘圖』2364): 隹(唯)周公征玁(于)伐東尸(夷), 豐白(伯)·專(薄)古(姑)咸(戎), 公歸(歸)樂(于)周廟, 戊辰, 禽(飲)彝(秦)禽(飲), 公賞貝具百朋, 用乍(作)尊(尊)鼎.

71 懷姓九宗 같은 경우는 엄밀히 따지면 殷遺民이라기보다 商文化의 영향을 받은 이 민족집단으로 볼 수 있다(張海, 2015, 「商周時期的鬼方·媿姓族氏及其華夏

났다.⁷² 또 전술하였듯이, 燕을 책봉할 때는 ‘羌·馬·獻·雩·馭·微’의 여섯 족을 딸려보냈다. 이 또한 殷遺民을 통제하는 유효한 수단이었다.

遼西에서 출토된 족씨를 통해서도 이러한 정책의 흔적을 살펴볼 수 있다. 1975년 지금의 湖北省 隨縣(현 隨州市) 羊子山에서 魚族 족씨 명문이 출토되었는데, 이곳은 西周시기 鄂國의 세력권 내에 있었던 것으로 추정되고,⁷³ 1980년대에는 山西省 曲村 晉侯유적에서 冉族 족씨 명문이 출토되었으며,⁷⁴ 1993년에는 河南 平頂山 應國墓地에서 冉族 족씨 명문이,⁷⁵ 2011년 湖北省 隨州市 葉家山에서 夬族·魚族·冉族 족씨 명문이, 2013년에는 또 夬族과 冉族 족씨 명문이 출토되었는데, 이곳은 曾侯의 故地였다.⁷⁶ 이는 이들 족씨가 각각 鄂侯, 晉侯, 曾侯를 따라 이동했을 가능성을 추측하게 한다.

그렇다면 遼西 출토 족씨 명문도, 이러한 주초 殷遺民 통제정책으로 이해

化」,『殷都學刊』2015-2).

72 『春秋左傳正義』권54, 『十三經注疏』本, 上海: 上海古籍出版社, 1997, 2134~2135쪽, “子魚曰, 以先王觀之, 則尚德也. 昔武王克商, 成王定之, 選建明德, 以蕃屏周. 故周公相王室, 以尹天下, 於周爲陸. 分魯公以大路·大旗, 夏后氏之璜, 封父之繁弱, 殷民六族, 條氏·徐氏·蕭氏·索氏·長勺氏·尾勺氏, 使帥其宗氏, 輯其分族, 將其類醜, 以法則周公. 用即命于周, 是使之職事于魯, 以昭周公之明德. 分之土田陪敦·祝·宗·卜·史, 備物·典策, 官司·彝器, 因商奄之民, 命以伯禽而封於少皞之虛, 分康叔以大路·少帛·綉·旆·大呂, 殷民七族, 陶氏·施氏·繁氏·錡氏·樊氏·饑氏·終葵氏, 封畛土略, 自武父以南及圃田之北竟, 取於有閭之士以共王職, 取於相土之東都以會王之東搜, 聃季授土, 陶叔授民, 命以「康誥」而封於殷虛. 皆啟以商政, 疆以周索. 分唐叔以大路·密須之鼓·闕鞶·沽洗, 懷姓九宗, 職官五正. 命以「唐誥」而封於夏虛, 啟以夏政, 疆以戎索.”

73 張昌平, 2011, 「論隨州羊子山新出噩國青銅器」, 『文物』2011-11.

74 北京大學考古學系商周組·山西省考古研究所 編著, 2000, 『天馬—曲村』, 北京: 科學出版社, 480쪽.

75 河南省文物考古研究所·平頂山市文物管理局 編, 2012, 『平頂山應國墓地』, 鄭州: 大象出版社, 383쪽.

76 黃鳳春·陳樹祥·凡國棟, 2011, 「湖北隨州葉家山新出西周曾國銅器及相關問題」, 『文物』2011-11.

〈표 16〉 曾侯, 鄂侯, 晉侯의 故地에서 출토된 족씨 명문

족씨	출토지	제후
夨	2011年 6月 湖北 隨州市 曾都區 浙河鎮 蔣寨村 葉家山 西周墓地(10479) 2013年 湖北 隨州市 曾都區 浙河鎮 蔣寨村 葉家山(30647)	曾侯
魚	2011年 6月 湖北 隨州市 曾都區 浙河鎮 蔣寨村 葉家山 西周墓地(11622, 13159) 1975年 湖北 隨縣 安居鎮 羊子山(8102)	曾侯 鄂侯
冉	1984~1989年 山西 曲沃縣 曲村 西周墓葬(240) 2011年 6月 湖北 隨州市 曾都區 浙河鎮 蔣寨村 葉家山 西周墓地(10101) 2013年 湖北 隨州市 曾都區 浙河鎮 蔣寨村 葉家山(30747)	晉侯 曾侯

할 수 있을까? 克盃 명문을 통해 알 수 있듯이 微族은 燕의 통제를 받았고, 亞盃 명문을 통해 알 수 있듯이 ‘亞夨侯矣’族도 燕侯와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었다. 이는 諸侯를 책봉하여 殷遺民을 통제하는 정책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이 밖에 虜族 족씨 명문이 지금의 河北省 易縣 일대에서 출토된 바 있고 北伯이 지금의 河北省 保定 지역에 있었던 사실을 통해, 이들은 商末周初 언저리에 河北省 일대에 자리잡았을 것으로 추측된다. 魚族 족씨 명문이 山西 曲村에서 출토된 것 또한 魚族의 北遷을 방증해준다. 따라서 遼西 출토 15종 족씨 가운데 微族, 亞夨侯矣族, 冉族, 虜族, 魚族의 商末周初 北遷 정황을 확인 할 수 있다.

또 다른 가능성으로 殷遺民들 사이의 다양한 교류방식을 들 수 있다. 예컨대, 複合族氏 銘文 같은 경우 두 족씨 사이의 聯姻 혹은 主族과 分族 사이의 관계를 나타내는 것일 수도 있다. 대표적인 사례가 遼西 山灣子에서 출토된 ‘舟’族과 ‘尹’族이다. 앞서 언급한 대로 ‘尹’族 관련 족씨 명문(複合族氏 銘文 포함) 39건 가운데 ‘尹舟’ 複合族氏 銘文이 22건으로 과반수를 차지한다는 것을 통해, 이 둘 사이의 밀접한 관계를 엿볼 수 있다.

이러한 殷遺民 사이의 밀접한 관계는 한 묘장과 窖藏에서 여러 족씨 명문이 출토되는 것을 통해서도 유추해볼 수 있다. 山東省 滕州市 前掌大유적처럼 ‘史’族銘 청동기만 출토된 사례도 있지만,⁷⁷ 何景成의 정리에 의하면 최소한

52개 유적에서 두 개 이상의 족씨 명문이 동시에 출토되기도 하였다.⁷⁸ 이는 여러 족씨들 사이에 다양한 방식의 교류가 이루어졌음을 나타내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⁷⁹

이상, 周初 王室의 殷遺民 통제정책을 살펴보고, 遼西 출토 족씨 명문 또한 이러한 틀 속에서 이해할 수 있는 가능성을 타진하였다. 이를 통해 微族, ‘亞 畀侯矣’族, 魚族 등의 北遷을 설명할 수 있었고, 冉族과 麋族 또한 그 北遷 경향을 파악할 수 있었다. 기타 그 遷徙 경향이 직접적으로 파악되지 않는 여러 족씨들 가운데는 실제 북쪽으로 천사했을 가능성이 있으나 그 흔적이 아직 발견되지 않았을 수도 있고, 또 실제로 이동하지 않았으나 北遷이 확인되는 여러 족씨들과 다양한 방식으로 교류하는 중에 기물만 흘러 들어갔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상으로 周初 왕실의 殷遺民 통제정책을 중심으로 族氏銘 청동기의 北遷 가능성을 논하였다. 이어서 周王室의 북방 확장과 그에 대한 토착집단의 대응을 중심으로, 청동기의 遼西 유입 배경을 살펴보고자 한다.

77 胡秉華, 1992, 「滕州前掌大商代墓葬」, 『考古學報』 1992-3; 中國社會科學院考古研究所 編著, 2005, 『滕州前掌大墓地』, 北京: 文物出版社; 李朝遠, 2008, 「前掌大墓地中的“史”及其他—讀『滕州前掌大墓地』」, 山東大學東方考古研究中心 編, 『東方考古』 4, 北京: 科學出版社, 154~161쪽.

78 52개 유적을 시기별로 나눠보면, 商代 纣년 23곳, 西周 초기 纣년 22곳, 商末周初 纣년 3곳, 西周 중기 1곳, 연대 미상 3곳이다. 또 52개 유적을 종류별로 나눠보면, 묘장 38곳, 窖藏 9곳, 채집 5곳이다(何景成, 『商周青銅器族氏銘文研究』, 濟南: 齊魯書社, 283~286쪽).

79 이 밖에, 『史記』 권4 「周本紀」의 “제후를 봉하고 (殷의) 제기를 고루 하사하고는 「分殷之器物」을 지었다(封諸侯, 班賜宗彝, 作「分殷之器物」).”(126쪽)는 기록은 殷이 멸망한 후 殷의 기물을 각 공신들에게 나눠주었을 가능성을 암시해준다. 이를 통해 殷商과 관련된 여러 족씨의 명문들이 각 諸侯들에게 흘러 들어갔을 가능성도 있다. 이는 각 족씨가 실제로 이주한 것이 아니라 이들의 기물만 각 제후를 따라 여러 지역으로 흩어졌을 가능성도 암시해주지만, 「分殷之器物」의 원문이 실전되었기 때문에 「周本紀」의 기록만으로는 단정짓기 어렵다.

2. 周王朝의 북방 확장과 좌절

이른바 ‘周公東征’ 이후, 周王은 사방으로 세력을 확장시켜 나갔다. 먼저 ‘周公東征’ 이후 ‘康王東征’으로 동쪽 東夷세력을 압박하였고, 북쪽으로 ‘鬼方’을 대대적으로 정벌하면서 북쪽으로 확장해 나갔다. 이는 衛·邢·燕을 비롯하여 軻侯와 北伯 등 여러 ‘諸侯’의 책봉을 통해 알 수 있다.⁸⁰

지금까지의 자료를 놓고 보면, 西周 諸侯 冊封의 북방 한계는 바로 燕侯다. 물론 문헌에는 武王이 堯의 후예를 ‘薊’에 ‘褒封’했다고 하고,⁸¹ 후대 주석가들은 그 위치를 薊縣(지금의 北京 시내) 일대로 추정하기도 하였다.⁸² 그러나 堯 임금 자체가 春秋시기에 출현하기 시작한 전설 속 인물이라는 점을 고려했을 때,⁸³ 西周 초기 武王이 堯의 후예를 ‘薊’에 책봉한 것은 후대의 관점이 들어간 것이므로 신빙성이 떨어진다. 설사 ‘薊’의 실체를 인정한다 하더라도,⁸⁴ 周가 직접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한계 지역은 지금의 北京 일대를 벗어나지 못했다.

周가 燕이 있었던 北京지역을 넘어 북방으로 진출하기 위해서는 토착집단의 충돌이 불가피했을 것이다. 西周 초기, 지금의 北京지역에는 이른바 ‘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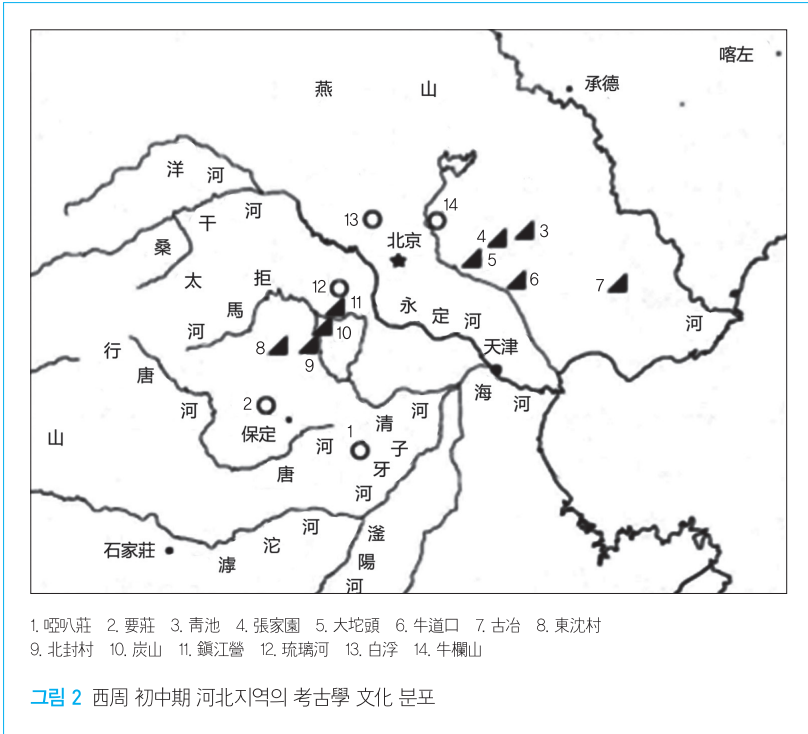
80 이와 관련해서는 任偉(2004)의 『西周封建考疑』(北京: 社會科學文獻出版社), 민후기(2016)의 「西周王朝의 晉, 豫, 燕 지역의 封建: 山西, 河南, 河北, 遼寧, 天津, 內蒙古 지역 遺址와 金文 出土지의 분석」(『동양사학연구』 134), 張海(2017)의 『西周建‘侯’制度與邊域政治地理研究』(北京大學 博士學位論文), 이유표(2017)의 「西周 초기 ‘箕子’의 朝鮮 冊封 가능성 검토: 諸侯 冊封 양상을 중심으로」(『인문학연구』 34) 등 참고.

81 『史記』 권4 「周本紀」, 126~127쪽, “封諸侯, 班賜宗彝, 作分殷之器物, 武王追思先聖王, 乃褒封神農之後於焦, 黃帝之後於祝, 帝堯之後於薊, 帝舜之後於陳, 大禹之後於杞.”

82 侯仁之, 1990, 「論北京建城之始」, 『北京社會科學』 1990-3.

83 顧頡剛, 1982, 「與錢玄同先生論古史書」, 『古史辨』 1, 上海: 上海古籍出版社, 60쪽.

84 韓嘉穀 등은 薊國이 곧 箕國일 가능성을 제기하기도 하였다(韓嘉穀, 1984, 『燕史源流的考古學考察』, 天津: 天津市歷史博物館, 71쪽; 韓嘉穀, 1995, 「論北京地區爲‘其’國(族)故地」, 『北京文博』 1995-1, 32~34쪽).



‘張家園上層文化’가 분포하고 있었다. 이른바 ‘燕文化’에 속하는 고고유적과 ‘張家園上層文化’에 속하는 고고유적의 분포를 보면 두 문화 사이의 관계가 결코 간단치 않다는 것을 알 수 있다(〈그림 2〉 참조).⁸⁵

〈그림 2〉를 보면, 燕의 도읍이 있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琉璃河(12) 남쪽에 張家園上層文化유적이 광범위하게 분포하고 있는데(8, 9, 10, 11), 다시 말해 ‘邢(현 河北省 邢臺市)-北(현 河北省 保定市)-燕’으로 이어지는 교통로 상에서도 張家園上層文化의 유적이 나타난다는 것은, 周가 북방으로 진출할 때 토착

85 蔣剛, 2010, 「冀西北京天津唐地區夏商西周北方青銅文化的演進」, 『考古學報』 2010-4, 414쪽, 圖 20. 〈그림 2〉는 蔣剛의 지도를 근거로 수정·보완한 것이다.

문화와의 충돌이 불가피했다는 것을 증명해준다.⁸⁶

또 <그림 2>의 지도에서 나타나듯이, 지금까지 발견된 고고유적 가운데 소위 ‘燕文化’의 북방 한계지역은 지금의 北京市牛欄山 일대로, 1982년 이곳에서 ‘亞罽’족 관련 족씨 명문 靑銅禮器가 다섯 건 출토된 바 있다.⁸⁷ 만약 이 ‘亞罽’族을 遼西에 나타난 ‘亞罽侯矣’族과 유관하다고 한다면, ‘亞罽’族 또한 ‘亞罽侯矣’族처럼 燕에 예속되었을 가능성이 있다.⁸⁸ 바로 이곳에서 遼西로 이어지는 길목에도 또한 張家園上層文化의 유적이 분포하고 있다. 이는 燕나라가 遼西로 진출하는 데 큰 걸림돌이 되었을 것이다. 게다가 燕은 토착문화에 배타적 정책을 폈다. 배진영은, 陳光이 琉璃河 일대 묘지를 여섯 등급으로 분류하였는데 張家園上層文化 묘장이 바로 최하위인 6등급으로 분류되었다는 것을 지적하였다.⁸⁹ 이는 燕이 琉璃河에 자리잡았지만 토착문화를 배척하고 周文化에 商文化를 가미한 이른바 ‘姬燕文化’를 지향하였다는 것을 의미한다.⁹⁰ 이들의 이러한 배타적 태도는 오히려 토착문화의 반발과 결집을 초래하면서 오히려

86 蔣剛·王志剛, 2010, 「關於圍坊三期文化和張家園上層文化的再認識」, 『考古』 2010-5; 蔣剛, 2010, 「冀西北京津唐地區夏商西周北方靑銅文化的演進」, 『考古學報』 2010-4.

87 程長新, 1983, 「北京市順義縣牛欄山出土一組周初帶銘靑銅器」, 『文物』 1983-11.

88 罽侯族과 罽族에 대해 같은 족씨로 파악할 수 있다. 그러나 엄격하게 말해서 ‘罽’와 ‘罽侯’는 다르다. 商末周初 족씨 명문으로 나타나는 ‘罽’라는 지명에 ‘侯’라는 직책이 더해진 것으로, 단순히 족씨를 나타내는 ‘罽’와는 구별된다고 할 수 있다. 商末 甲骨文에 보면 ‘罽侯’라는 인물이 이미 나타나기 시작하는데, 어쩌면 ‘亞罽侯矣’族은 商末 ‘罽侯’의 후예일 가능성이 있다.

89 陳光은 周初 琉璃河에서 발견된 묘장을 여섯 등급으로 나누었다. 제1등급은 燕侯 묘지, 제2등급은 燕侯 宗族 묘지, 제3등급은 異族 귀족, 제4등급은 周族 및 異族 중의 차등 귀족, 제5등급은 燕國 평민, 그리고 제6등급이 바로 張家園上層文化의 묘지로 정리하였다(陳光, 2000, 「西周燕國文化初論」, 『北京文博』 2000-1, 21~25쪽; 배진영, 2001, 「西周 前期 燕國의 成立과 姬燕文化의 형성」, 『동양사학연구』 73, 20쪽).

90 배진영, 2001, 「西周 前期 燕國의 成立과 姬燕文化의 형성」, 『동양사학연구』 73, 18~24쪽.

자신을 겨누는 화살로 돌아왔을 것이다.

설령 燕이 일시적인 성과로 張家園上層文化의 세력을 억누르고 遼西지역 진출의 교두보를 마련했다 하더라도, 당시 遼西 일대에 있었던 魏營子文化와 의 충돌이 불가피했을 것이다.⁹¹ 본문에서 다루는 遼西 출토 族氏銘 청동기는 당시 魏營子文化세력권 내에서 출토된 것이다. 한편으로는 燕의 군사력이 遼西지역에 진출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 遼西 출토 靑銅禮器를 일시적인 燕의 군사적 진출 증거라고 파악한 연구는 이러한 가능성을 지지해준다.⁹² 그러나 중원 왕조의 주력 병종인 전차가 遼西지역에서 그 전투력을 심분 발휘 했을지는 의문이다. 전차가 그 전투력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자유롭게 다닐 수 있는 비교적 넓고 평탄한 도로가 마련되어 있어야 하는데,⁹³ 北京市를 병풍처럼 감싼 서북쪽의 大馬群山이나 이와 연결된 동북쪽의 七老陽山, 동쪽의 黑山 때문에 더 이상 넓고 평탄한 도로를 구축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⁹⁴ 따라서 燕이 遼西에 진출하여 靑銅禮器를 남겼을 가능성은 크지 않다. 곧 遼西에서 발견된 靑銅禮器는 중원세력 혹은 문화의 적극적 전파 속에서 남겨진 것이라 보기는 힘들다.

그렇다면 遼西의 靑銅禮器는 어떻게 남겨진 것일까? 이에 대해 그동안 많은 연구가 있었다. 전술한 燕의 군사적 진출 흔적일 가능성 외에, 商末周初의 혼란기를 피해 殷遺民 등이 이곳으로 이주해서 남겼을 가능성,⁹⁵ 그리고 이 일

91 <그림 2>는 오대양(2019)의 「기원전 14~11세기 요서지역 토착문화와 중원문화의 상관성 검토-묘제 양상의 비교를 중심으로」(『동북아역사논총』 63)에서 인용하였다.

92 대표적인 성과로 晏琬(李學勤, 1975)의 「北京·遼寧出土銅器與周初的燕」(『考古』 1975-5), 甲元眞之(1990)의 「燕の成立と東北アジア」(『東北アジアの考古學-天池』, 東京: 六興出版)와 박대재(2010)의 「箕子 관련 商周靑銅器 銘文과 箕子東來說」(『선사와 고대』 32) 등이 있다.

93 민후기, 2016, 「西周王朝의 晉, 豫, 燕 지역의 封建」, 『동양사학연구』 134; 이유표, 2017, 「西周 초기 ‘箕子’의 朝鮮 冊封 가능성 검토」, 『인문학연구』 34.

94 민후기, 2016, 「西周王朝의 晉, 豫, 燕 지역의 封建」, 『동양사학연구』 134, 42~43쪽.



대에 자리잡았을 것으로 추정되는 孤竹國 사람들이 남겼을 가능성,⁹⁶ 그리고 箕子朝鮮 혹은 箕子族의 흔적 가능성,⁹⁷ 그리고 전쟁 혹은 교류 등을 통한 비정상적인 경로를 통해 遼西로 유입되었을 가능성도 제기되었다.⁹⁸

95 唐蘭, 1973, 「從河南鄭州出土的商代前期青銅器談起」, 『文物』 1973-3

96 대표적인 성과로 町田章(1981)의 「殷周と孤竹國」(『立命館文學』 立命館大學 人文學會), 李學勤(1983)의 「孤竹試論」(『社會科學戰線』 1983-2)과 孟克托力(2003)의 「孤竹國釋論」(馬大正 主編, 『中國東北邊疆研究』, 北京: 中國社會科學出版社) 등이 있다.

97 대표적인 성과로 張博泉(1985)의 『東北地方史稿』(長春: 吉林大學出版社), 이형구(1991)의 「大凌河流域의 殷末周初 青銅器文化와 箕子 및 箕子朝鮮」(『한국상고사학보』 5) 등이 있다.

98 대표적인 성과로 韓嘉毅(1995)의 「燕史原流的考古學考察」(『燕文化研究論文集』, 北京: 中國社會科學出版社, 69쪽), 오강원(1997)의 「고조선 위치비에 관

商末周初의 혼란기 속에서 많은 殷遺民이 북쪽으로 이동했을 가능성이 있다. 전술한 대로 周初 殷遺民 정책에 따라 직접 책봉되거나 被封된 諸侯를 따라 이동했을 가능성은 이미 확인되었고, 비록 직접적인 증거는 없지만 商末 혼란기를 피해 殷遺民이 북방으로 이주했을 정황적 가능성 또한 간과할 수 없다. 그러나 이들을 기다리고 있는 것은 또 한 번의 혼란, 곧 周의 책봉을 받은 燕과 토착문화 사이의 충돌이다. 앞서 언급한 대로, 燕은 토착문화에 대해 배타적인 정책을 취했기 때문에 토착문화와의 충돌은 불가피한 것이었다.

遼西지역에서 발견된 여러 靑銅禮器는 바로 이러한 상황을 반영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먼저, 河北지역으로 이주한 殷遺民은, 燕과 토착문화 사이의 충돌 속에서 큰 좌절을 겪을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燕과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던 殷遺民들은 토착문화와 충돌하면서 유리되어 여기저기로 흩어졌을 가능성이 있다. 馬哨村 묘장에서 출토된 冉族(혹은 𤓗族) 족씨 명문 또한 이러한 정황을 방증해준다.⁹⁹

이러한 의미에서 김정열의 연구성과는 시사하는 바가 크다. 김정열은 遼西 출토 靑銅禮器의 출토 정황을 증원지역과 비교하면서, 전쟁 혹은 약탈 등에 의한 비정상적인 경로를 통해 유입되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의견을 제시하였다.¹⁰⁰ 전술했듯이 遼西 靑銅禮器는 모두 魏營子文化의 영향권 속에서

한 연구사적 검토」(『백산학보』 48, 92~94쪽), 김정열(2009), 「요서지역 출토 상·주 청동예기의 성격에 대하여」(『요하유역의 초기 청동기문화』, 동북아역사재단, 116~117쪽) 등이 있다.

99 李宗山·尹曉燕, 1996, 「河北省遷安縣出土兩件商代銅器」, 『文物』 1996-6; 尹小燕, 1996, 「遷安縣發現商代器物」, 『文物春秋』 1996-1. 학계에서는 이곳 遷安縣을 옛 孤竹國의 故地로 보고, 이 기물을 孤竹國에 시집은 여자의 기물로 보아 교류의 증거로 보기도 한다.

100 김정열은 遼寧 일대에서 출토된 靑銅禮器를 사례로 들어 몇 가지 특이점을 지적하였다. 첫째, 기물의 연대는 商 중기에서 西周 중기로 다양하지만, 매납시점은 서주 초중기이다. 둘째, 中原지역 靑銅禮器 같은 경우 출토될 때 鬲과 尊, 盃(혹은 盩)와 盤, 鼎과 簋의 수량 등 일정한 규율성을 보이는데, 여기서는 규율성이 보이지 않는다. 셋째, 예기의 문양과 形制 또한 각각 다르기 때문에 세트로 제작된 것이 아니

출토된 것이다. 그러나 魏營子文化의 출토 武器가 그리 큰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했을 것이라는 연구는, 이들이 燕과의 전쟁 속에서 靑銅禮器를 전리품으로 가져갔을 가능성에 의문을 제기한다.¹⁰¹ 따라서 필자는 魏營子文化가 燕으로부터 직접적으로 이를 획득했을 가능성이 크지 않다고 본다.

여기서 다시 고려해볼 수 있는 것이 張家園上層文化이다. 張家園上層文化와 燕文化의 충돌 속에서 燕은 큰 좌절을 겪었을 것이다. 결과적으로 燕과 관련된 유적이 西周 중기 이후 지금의 北京 및 河北 일대에서 나타나지 않는 것은 바로 이러한 좌절을 방증해준다. 燕 및 殷遺民과 관련된 여러 靑銅禮器는, 이러한 배경 속에서 河北 각 지역으로 흩어지고 그중 일부가 遼西 지역으로 유입되었을 것이다. 그렇다고 遼西 지역의 靑銅禮器를 張家園上層文化의 구성원들이 남겼을 가능성은 크지 않다. 河北 지역에서 출토된 靑銅禮器는 鼎과 簋의 수량이 일정하게 나타나는 특성을 지니기 때문에,¹⁰² 어느 정도 중원문화의 특성을 받아들인 정황이 보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전쟁 혹은 교역으로 추정

다. 넷째, 靑銅禮器의 제작자 혹은 소속 씨족의 이름이 둘 이상 중복된 사례가 전무하다. 다섯째, 예기가 발견된 窖藏의 입지조건으로 봤을 때 중원지역에서는 구릉이나 대지, 유적 주변에서 인위적 구조물도 다수 확인되어 사람들의 일상적인 활동이 있었던 지역으로 보이지만, 遼寧 지역의 窖藏 같은 경우 사람들의 일상적인 활동이 있었다고 믿을 만한 어떠한 증거도 발견되지 않았다. 그리고 오직 靑銅禮器만 출토되고 다른 물품이 발견되지 않았기 때문에, 중원 사람들이 와서 이러한 예기를 직접 남겼을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점을 밝혔다(김정열, 2009, 『요서지역 출토 상·주 청동예기의 성격에 대하여』, 『요하유역의 초기 청동기문화』, 서울: 동북아역사재단).

101 대표적인 것으로 박대재(2010)의 「箕子 관련 商周靑銅器 銘文과 箕子東來說」(『先史와 古代』 32, 韓國古代學會)을 들 수 있다. 김정열의 연구 또한 여러 비정상적인 경로를 통한 이동을 제기한 것이지, 魏營子文化와 연의 직접적인 전쟁을 통한 이동을 이야기한 것은 아니다.

102 蔣剛은 河北 지역에 있었던 張家園上層文化의 전신이라 할 수 있는 圍坊3期文化에 속하는 유적에서 출토된 청동예기를 정리하였는데, 鼎과 簋의 수량이 대체로 일치하고 있다. 이는 商末周初 河北 토착문화가 이미 중원의 禮制를 이해하고 있었다는 것을 방증한다(蔣剛, 2006, 『太行山兩翼北方靑銅文化的演進及其與夏商西周文化的互動』, 吉林大學 博士學位論文, 59~60쪽).

되는 張家園上層文化와 魏營子文化 사이에 다양한 방식으로 교류한 흔적으로 생각한다.

그리고 또 하나의 가능성을 다음과 같이 조심스레 추측해본다. 어쩌면, 燕과 토착문화의 충돌 속에서 또 다른 혼란을 마주한 殷遺民들이 활로를 찾다 미지의 땅으로 이주했을 가능성이 있다. 그렇다면 遼西의 靑銅禮器는 바로 이 殷遺民들이 남긴 것일까? 혼란을 피해 遼西로 이주한 이들은 또다시 魏營子文化와의 충돌을 피할 수 없었을 것이고, 마침내 역사 속에서 그 자취를 감추고 말았을 수 있다. 그 와중에 殷遺民들이 직접 자신의 靑銅禮器를 매납하고 다시 피난길을 떠났을 가능성이 있다. 靑銅禮器가 가지런하게 정리되어 있던 北洞村 窖藏이 대표적이다.

그러나 여타 대다수의 靑銅窖藏은 그렇지 않다. 北洞村 窖藏과 대조적으로 기타 유적의 청동기들은 발견 당시 어지러이 흩어져 있었다. 비록 출토 당시의 모습이 매납 당시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은 아니지만, 어떠한 규율 없이 예기들이 분포되어 있는 것은 매납 당시에 그다지 큰 신경을 쓰지 않았다는 것을 나타내준다. 이는 이 예기의 매납주체가 결코 殷遺民 자신이 아니었을 가능성을 말해준다. 혼란을 피해 떠돌던 이들이 遼西에 대한 문화적·지리적 정보를 얼마나 파악하고 있었는지는 모르겠으나, 이들이 遼西에 들어선 이후 이들의 자취는 더 이상 파악할 수 없을 정도로 흩어지고 말았다. 이들이 사용했던 靑銅禮器는 발견되었지만 거주유적이 발견되지 않은 것은, 이들이 이 지역에 문화적 뿌리를 내리지 못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들의 靑銅禮器는 魏營子文化 영향권의 서쪽 언저리에서만 출토되고 있는데, 이는 어쩌면 殷遺民들이 遼西에 진입한 이후 魏營子文化의 응전을 받아 미처 자신들의 靑銅禮器를 수습하지 못한 채 흩어지자 나중에 이를 수습한 魏營子文化의 구성원들이 어지러이 매납한 흔적일지도 모른다.

IV. 맺음말

이상으로 商末周初로 편년되는 족씨 명문이 遼西지역에서 출토된 배경을 살펴 보면서, 일부 학자들처럼 이를 燕을 포함한 중원문화의 적극적인 遼西 진출을 증명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논해보았다.

필자는 遼西에서 보이는 족씨와 관련된 족씨 명문의 출토지를 정리하여, 각 족씨의 商末周初의 遷徙 양상을 살펴보고, 이는 周初 殷遺民의 통제정책과 관련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이러한 맥락에서 이들 족씨 명문이 遼西에서 나타난 배경에 대해, 衛·邢·燕 등의 周初 봉건 때 이들을 따라 여러 족씨들이 북쪽으로 이동한 정황, 그리고 족씨들 간의 상호작용으로 청동기가 북쪽에 흘러 들어왔을 가능성도 언급하였다. 이는 周의 북방 진출과 관련된 것이다. 그러나 周의 북방 공략은, 西周 중후기 지금의 北京 및 그 주변에 중원문화유적이 보이지 않는 점에 따라, 당시 河北 북부에 있었던 張家園上層文化, 遼西지역에 있었던 魏營子文化와의 충돌로 좌절을 겪을 수밖에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遼西에서 발견되는 여러 족씨 명문을 포함한 靑銅禮器는 중원문화의 적극적인 진출이라기보다 중원문화의 진출에 대한 토착문화의 대응이라는 요인 때문일 것이다.

또 필자는 燕과 토착문화의 충돌 속에서 殷遺民들이 활로를 찾아 이동하다가 遼西로 들어갔을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았다. 요서지역 출토 靑銅禮器는 魏營子文化 영향권의 서쪽 언저리에서만 출토되고 있는데, 이는 이곳으로 흘러 들어온 殷遺民들이 또 다른 토착문화의 대응 속에서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자신이 사용했던 청동예기만 남긴 채 흔적을 감추었고, 토착문화의 구성원들이 이를 수습하여 여기저기 어지러이 매납한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닌지 조심스레 추측해본다.

부표 1 | 遼西 출토 族氏銘 청동기 및 명문

出土地	斷代	器名 『銘圖』編號	器物	銘文	釋文	備考
1955년 山嘴子	서주 초기	魚父庚甬 『銘圖』13781			魚父庚	출토 시 기물 파손
		魚父癸簋 『銘圖』3848			魚父癸	
		義卣 『銘圖』13126			聃義乍(作)父庚 彝(尊)彝	
1973년 北洞1호	서주 초기	亞尙父丁甬 『銘圖』13810			父丁, 齊(孤)竹, 亞尙(微)	
1973년 北洞2호	상대 후기	夙父辛鼎 『銘圖』896			夙父辛	
		嬰鼎 『銘圖』2257		    	丁亥, 夙商(賞)又正 嬰嬰貝, 才(在)穆朋 二百, 嬰展(揚)夙商 (賞), 用乍(作)母己 (尊)夙 亞夙侯(侯)矣.	
1974년 山灣子	상대 후기	魚卣尊 『銘圖』11238			魚卣	
		串窩父丁卣 『銘圖』12917			串窩父丁	뒷개는 12843, 器身은 12917

서주 초기		<p>媯父甗 『銘圖』3269</p>  	何, 媯父(安)乍(作)寶彝.	
		<p>夊父甲簋 『銘圖』3759</p>  	夊父甲	
		<p>虜父戊簋 『銘圖』3810</p>  	虜父戊	
		<p>亞父乙簋 『銘圖』4007</p>  	亞父乙	
		<p>史方罍 『銘圖』13729</p>  	史	
		<p>舟父甲卣蓋 『銘圖』12843</p>  	舟父甲	덮개는 12843, 器身은 12917
		<p>尹簋 『銘圖』3567</p>  	尹	
1978년 小波汰溝	상대 후기	<p>登夊方罍 『銘圖』13752</p>  	彝(登)夊	
		<p>朋五條父庚罍 『銘圖』13799</p>  	朋五條(降)父庚	기물과 명문 조합 재검토 필요

부표 2 | 요서에서 나타난 족씨 명문의 출토지

族氏	斷代	出土地와『銘圖』編號	備考
何	商代後期	河南安陽郭家灣(今屬安陽市北關區)北地(221, 3451, 6568, 8942, 10915, 13702) 1953年河南安陽市殷都區大司空村商代墓葬(9443) 傳出安陽(10523, 18204) 傳陝西岐山出土(3687)	
	西周早期	<u>1974年12月遼寧喀左縣平房子鎮山灣子村西周銅器窖藏(1974)</u> 洛陽出土(4026)	

族氏	斷代	出土地와『銘圖』編號	備考
夙	商代後期	河南洛陽出土(847, 865, 3494) 河南安陽市殷都區苗圃南地商代墓葬(6844, 6845, 9180) 1992年河南安陽市殷都區苗圃南地商代墓葬(448) 1975年河南安陽殷墟西區商代墓葬(9243) 1984年11月河南安陽市殷都區戚家莊東269號商代墓葬(19297) 2001年2月河南安陽市殷都區花園莊殷墟宮殿宗廟區內商代墓葬(16192) 2009年河南安陽市殷都區王裕口村南地商代墓地(30289, 30563, 30898) 2010年河南安陽市殷都區劉家莊祭祀坑(31376) 1926~1928年地方軍閥黨玉琨(亦作黨毓坤)在陝西寶雞縣戴家灣(今屬寶雞市金臺區陳倉鄉)盜掘出土(10314) 1955年陝西岐山縣京當鄉賀家村(11971)	
	西周早期	<u>1974年12月遼寧喀左縣平房子鎮山灣子村西周銅器窖藏(3759)</u> 傳出於河南洛陽(3497, 13129) 民國十七年河南洛陽出土(8445) 己巳出洛陽(3135) 1963年陝西隴縣東風公社(今東風鎮)南村墓葬(8073) 1977年12月陝西隴縣天成公社(今天成鎮)韋家莊西周墓葬(310) 1978年8月陝西扶風縣法門鎮齊家村19號西周墓(3168) 1982年陝西武功縣游鳳鎮黃南窰村西周墓葬(3496) 1981年9月陝西寶雞市金臺區西周紙坊頭1號西周墓(10420) 1980年6月陝西寶雞市渭濱區竹園溝4號西周墓(10447) 1991年陝西涇陽縣興隆鎮高家堡西周墓(12639, 12640) 2011年6月湖北隨州市曾都區浙河鎮蔣寨村葉家山西周墓地(10479) 2013年湖北隨州市曾都區浙河鎮蔣寨村葉家山(30647)	
	西周中期	河南洛陽(11671)	

族氏	斷代	出土地외『銘圖』編號	備考
厲	商代後期	1942年河南安陽市(8293) 1982年河南安陽市小屯村(今屬殷都區)商代墓葬(8292, 9797, 10220, 10499) 1976年河北正定縣新城鋪鎮新城鋪村(6978, 9424) 1940年2月陝西扶風縣法門鎮任家村(2101) 1973年陝西岐山縣京當鄉賀家村一號西周墓(13954)	
	西周早期	<u>1974年12月遼寧喀左縣平房子鎮山灣子村西周銅器窖藏(3810)</u> 1956年陝西耀縣(今銅川市耀州區)丁家溝西周墓葬(11382) 1974年12月陝西扶風縣法門鎮楊家堡(1507, 3179) 1980年陝西寶雞市渭濱區竹園溝西周墓葬(10595) 1967年9月甘肅靈臺縣西屯公社(今西屯鄉)白草坡西周墓葬(12059)	

族氏	斷代	出土地외『銘圖』編號	備考
魚	商代後期	<u>1974年遼寧喀左縣平房子鎮山灣子村西周銅器窖藏坑(11238)</u> 1934~1935年河南安陽侯家莊西北崗(今屬安陽市殷都區)1001號大墓(143) 1984年6月河南安陽市殷都區孝民屯商代墓葬(2201, 8312, 8313, 8582) 河南南陽市宛城區白河鎮十里廟磚瓦廠(7815) 1978年7月陝西鳳翔縣彪角公社(今彪角鎮)董家莊(6711) 1953年陝西岐山縣京當鄉禮村(10371)	
	西周早期	<u>1955年5月熱河凌源縣海島營子村(今屬遼寧喀左縣山嘴子鎮)銅器窖藏坑(3848)</u> <u>1955年遼寧省喀左縣山嘴子鎮海島營子村馬廠溝小轉山子(13781)</u> 河南洛陽(669, 9535, 11281, 14333) 與伯魚鼎敦同出易州(6929) 鼎出諸城縣(今諸城市)巴山村濰河東岸(1376) 1973年5月山東青州市彌河鎮澇窪村(9688) 2003年8月陝西旬邑縣下魏洛村西周墓(11368) 1975年湖北隨縣安居鎮羊子山(8102) 2011年6月湖北隨州市曾都區浙河鎮蔣寨村葉家山西周墓地(11622, 13159)	
	西周中期	陝西西安市長安區(3578, 3579)	

族氏	斷代	出土地와『銘圖』編號	備考
舟	商代後期	傳出河南安陽(581, 14303, 19765) 1935年河南安陽侯家莊(今屬安陽市殷都區)1004號商代大墓(18518) 1950年河南安陽武官村(今屬安陽市殷都區)商代1號大墓陪葬墓(192, 16087) 乾隆末年出土於壽張縣梁山(8031, 8032) 傳世(4812)	
		1974年12月遼寧喀左縣平房子鎮山灣子西周銅器窖藏(12843) 1997年河南鹿邑縣太清宮長子口墓(10234) 傳1929年河南洛陽馬坡村(今屬洛陽市瀋河回族區瀋河鄉)(13308) 山東長山縣(1956年併入鄒平縣)(8470, 8471) 1963年陝西西安市長安區馬王鎮馬王村(7672)	
	西周中期	傳世(4735)	舟族 存續
	西周晚期	2012年11月出現在澳門大唐國際藝術品拍賣會(30405)	

族氏	斷代	出土地와『銘圖』編號	備考
尹	商代後期	1979年4月河南羅山縣蟒張鄉後李村商代墓葬(M1.16)(19269)	
	西周早期	1974年12月遼寧喀左縣平房子鎮山灣子村西周窖藏(3567) 1997年河南鹿邑縣太清宮長子口墓(M1.143)(10234) 1966年陝西岐山縣京當鄉賀家村西壕西周墓葬(675, 676) 1963年陝西西安市長安區馬王鎮馬王村(7672)	

族氏	斷代	出土地와『銘圖』編號	備考
史	商代後期	器出安陽(40, 14157) 傳河南安陽出土(30008) 河南安陽市龍安區劉家莊南商代墓葬(8853) 1979年河南安陽殷墟西區商代墓葬(12573) 2009年河南安陽市殷都區王裕口村南地商代墓地(30553) 1975年冬山東濰水縣泗張鎮窪壩堆村(9635) 1989年山東濰州市姜屯鎮莊里西西周墓(8550, 10389, 10655, 11662, 13199) 1994年山東省滕州市官橋鎮前掌大村商周墓地(18-27, 2613, 3128-3130, 3540, 6691-6702, 7758-7759, 8702-8703, 8855-8859, 10058-10059, 10940, 11976, 12571-12572, 12631-12632, 13728, 14302, 14586, 14766, 16049-16050)	

	<p>1995年山東省滕州市官橋鎮前掌大村商周墓地(8854, 9420, 10060, 10195)</p> <p>1998年山東省滕州市官橋鎮前掌大村商周墓地(8361, 8739, 8767-8768, 9778, 11301, 11362, 12056, 12096)</p> <p>1998~2001年山東滕州市官橋鎮前掌大村商周墓地(30551-30552, 30626)</p> <p>1975年3月陝西長武縣洪家鎮二十里鋪(10337)</p> <p>2002年6月陝西延川縣馬家河鄉畢家塬(12034)</p>	
西周早期	<p><u>1974年12月遼寧喀左縣平房子鎮山灣子村西周銅器窖藏(13729)</u></p> <p>1999年10月河南鄭州市重陽街窪劉村西周墓葬(903)</p> <p>1964年4月河南洛陽市北窯村龐家溝(今屬老城區邙山鎮)西周墓地(16393)</p> <p>傳山東出土(2413)</p> <p>1990年5月山東鄒城市北宿鎮西丁村西周墓(6924)</p> <p>1998~2001年山東滕州市官橋鎮前掌大村商周墓地(30773)</p> <p>2004年底山東滕州市官橋鎮前掌大村西周墓(30355, 30708-30709)</p> <p>1975年7月陝西岐山縣鳳鳴鎮北寨子西溝崖(1368)</p> <p>1956年7月陝西耀縣(今銅川市耀州區)西門外丁家溝(9691)</p> <p>1965年陝西西安市長安區馬王鎮大原村(12593)</p> <p>1975年陝西西安市長安區引鎮(10398)</p> <p>1976~1981年陝西寶雞市渭濱區竹園溝西周墓(6109)</p> <p>1992年2月陝西寶雞市渭濱區石壩河鄉西周墓(10481)</p> <p>2003年9月陝西寶雞市金臺區長青村紙坊頭(14650)</p> <p>傳世(1865)</p>	

族氏	斷代	出土地와『銘圖』編號	備考
聃	商代後期	河南安陽出土(989, 9508, 14178) 1952年河南輝縣褚邱村(今屬輝縣市冀屯鄉)(1217, 4002, 8355, 8356, 8357, 8769, 11467, 12938)	
	西周早期	<u>1955年5月熱河凌源縣海島子營村(今屬遼寧喀左縣山嘴子鎮)銅器窖藏坑(13126)</u>	

族氏	斷代	出土地와『銘圖』編號	備考
登	商代後期	<u>1978年遼寧喀左縣坤都營子鄉波汰溝村小波汰溝(13752)</u>	
	西周早期	1971年5月河南洛陽市北窯村南灘河西岸西周墓葬(9793, 11047, 11507, 13008)	

族氏	斷代	出土地와『銘圖』編號	備考
冉	商代後期	<p>1973年5月遼寧喀左縣平房子鎮北洞村2號西周銅器窖(896) 傳出土於河南(9556) 傳1927年河南出土(12582) 傳出安陽(425, 3680, 3815, 6727, 9239, 12014) 1934~1935年河南安陽侯家莊西北崗(今屬安陽市殷都區)1550號大墓(230, 6725) 1969~1977年河南安陽市殷都區孝民屯商代墓(16054) 1976年12月河南安陽市小屯村(今屬殷都區)北殷墟商代墓葬(6724) 1995年河南安陽市文峰區郭家莊商代墓(8036, 8037, 13511, 19274) 2006年11月河南安陽市文峰區郭家莊商代墓葬(986, 8038, 9654, 19275) 2005年河南安陽市文峰區徐家橋綜合樓基建工地商代墓葬(13964) 1992年10月河北遷安縣夏官營鎮馬哨村商代墓(3528) 1978年3月河北靈壽縣三聖院鄉西木佛村商代墓葬(6731) 山東(10198) 1975年山東膠縣(今屬膠州市鋪集镇)西庵村商代墓葬(7952) 1994年山東省滕州市官橋鎮前掌大村商周墓地(10100) 1953年陝西岐山縣京當鄉禮村(9555) 2012年6月陝西寶雞市渭濱區石鼓鎮石嘴頭村石鼓山西周墓(30851, 30953) 1979年4月湖北襄樊市(今襄陽市)(7843) 1975年湖北鄂城縣沙窩公社(今鄂州市鄂城區沙窩鎮)王家灣村(7867) 湖南湘鄉縣(今湘鄉市)(7810) 1962年4月湖南寧鄉縣黃材鎮張家坳水塘灣(415) 1963年5月湖南寧鄉縣黃材鎮炭河里(12684) 1989年3月湖南寧鄉縣黃材鎮(13772)</p>	
	西周早期	<p>1984~1989年山西曲沃縣曲村西周墓葬(240) 1982年1月陝西西安市長安區馬王鎮新旺村西周銅器窖藏(1701) 傳洛陽出土(2676) 1932~1933年河南濬縣辛村(今屬鶴壁市淇濱區龐村鎮)西周墓(3117) 1972年秋河南洛陽市東郊機車工廠西周墓(3169, 3749, 11371) 1994年4月陝西隴縣八渡鎮楊莊村西周銅器窖藏(3170) 1976~1981年陝西寶雞市渭濱區竹園溝墓葬(3535, 6934, 10270) 1976年10月陝西西安市長安區馬王鎮大原村(3770, 12844) 1974年陝西扶風縣法門鎮楊家堡(4014) 1998年9月河南洛陽市紗廠西路五女塚西周墓(6935, 6936)</p>	

	<p>1969年陝西西安市長安區王曲鎮青龍嶺臧家莊(7654)</p> <p>1978年5月陝西鳳翔縣長青公社(今長青鎮)化原村(7671)</p> <p>1981年湖南湘潭縣青山橋鎮老屋村窖藏(8106)</p> <p>1979年4月陝西寶雞縣(今寶雞市陳倉區)上王公社(今縣功鎮)强家莊西周墓葬(8139)</p> <p>2011年6月湖北隨州市曾都區浙河鎮蔣寨村葉家山西周墓地(10101)</p> <p>1961年河南鶴壁市龐村(今屬鶴壁市淇濱區)西周墓葬(10443)</p> <p>1976年陝西西安市長安區馬王鎮張家坡西周墓葬(11381)</p> <p>1986年8月河南信陽縣瀾河港鄉瀾河港村(今屬信陽市瀾河區瀾河港鎮)西周墓葬(12066)</p> <p>1967年陝西西安市長安區馬王鎮張家坡西周墓葬(12955)</p> <p>2013年湖北隨州市曾都區浙河鎮蔣寨村葉家山(30747)</p>
西周中期	<p>1961年12月湖北江陵縣西45里之萬城(今屬荊州市荊州區李埠鎮)西周墓葬(1052, 3237)</p> <p>1981年湖南湘潭縣青山橋鎮老屋村窖藏(10151)</p> <p>1973年3月陝西省鳳翔縣田家莊公社(今田家莊鎮)勸讀村(13829)</p> <p>1993年初河南平頂山市新華區滎陽鎮義學崗應國墓地(30052)</p>

族氏	斷代	出土地와『銘圖』編號	備考
吳	商代晚期	<p><u>1973年5月遼寧喀左縣平房子鎮北洞村2號西周窖藏(2257)</u></p> <p>傳1941年河南安陽出土(1688, 8536)</p> <p>1948年河南安陽(12644)</p> <p>1976年河南安陽市小屯村(今屬殷都區)殷墟婦好墓(7038~7046, 9353~9359, 10893, 10950)</p> <p>2009年河南安陽市殷都區王裕口村南地商代墓地(30769)</p> <p>1989年山東滕州市姜屯鎮莊里西西周墓(10583, 13227)</p> <p>陝西(8358)</p>	
	西周早期	<p>1982年6月北京順義縣牛欄山鄉金牛村(8394, 9786, 10545, 11484, 12957)</p> <p>1999年10月河南鄭州市重陽街窪劉村西周墓葬(1124)</p> <p>1971年9月陝西扶風縣法門鎮齊鎮1號西周墓(1620)</p> <p>2003年8月陝西旬邑縣赤道鄉下魏洛村周墓(8191)</p> <p>傳世(14763)</p>	

참고문헌

사료

- 『史記』, 北京: 中華書局, 1959.
- 『毛詩正義』, 『十三經注疏』本, 上海: 上海古籍出版社, 1997.
- 『春秋左傳正義』, 『十三經注疏』本, 上海: 上海古籍出版社, 1997.
- 吳鎮烽 編, 2012, 『商周青銅器銘文暨圖像集成』, 上海: 上海古籍出版社.
- _____, 2016, 『商周青銅器銘文暨圖像集成續編』, 上海: 上海古籍出版社.
- 李學勤 主編, 2011, 「清華大學藏戰國楚竹簡(貳)」, 上海: 中西書局.

연구 논저

- 葛英會, 이유표 옮김, 2012, 「箕子朝鮮과 周代燕·賁」, 『고고학탐구』 11.
- 김정열, 2009, 「遼西지역 출토 상·주 靑銅禮器의 성격에 대하여」, 『요하유역의 초기 청동기문화』, 서울: 동북아역사재단.
- 劉緒, 박재복 옮김, 2011, 「商양조의 東方 經略에 대한 고고학적 고찰」, 『고고학탐구』 제9호.
- 민후기, 2016, 「西周王朝의 晉, 豫, 燕 지역의 封建: 山西, 河南, 河北, 遼寧, 天津, 內蒙古 지역 遺址와 金文 출토지의 분석」, 『동양사학연구』 134.
- _____, 2016, 「西周王朝의 晉, 豫, 燕 지역의 封建」, 『동양사학연구』 134.
- 박대재, 2010, 「箕子 관련 商周靑銅器 銘文과 箕子東來說」, 『선사와 고대』 32.
- 배진영, 2001, 「西周 前期 燕國의 成立과 姬燕文化의 형성」, 『동양사학연구』 73.
- 성균관대학교 유교문화연구소, 2011, 「동아시아 문명의 기원 탐구를 위한 서주시기 東夷·夷族 관련 출토자료 집성」, 기초연구지원인문사회(토대연구, KRF-2009-322-A00046).
- 심재훈, 2008, 「商周 청동기를 통해 본 賁族의 이산과 성쇠」, 『역사학보』 200.
- 오강원, 1997, 「고조선 위치비정에 관한 연구사적 검토」, 『백산학보』 48.
- 오대양, 2019, 「기원전 14-11세기 요서지역 토착문화와 중원문화의 길항관계-묘제양상의 비교를 중심으로」, 『동북아역사논총』 63.

- 王震中, 2017, 「山東半島 초기 해양문명과 春秋戰國시기 韓中日 삼국의 해양 실크로드」, 『사립』 59.
- 이유표, 2016, 「西周 金文에 보이는 ‘秦夷’와 『繫年』의 ‘商奄之民」, 『동양사학연구』 135.
- _____, 2017, 「西周 초기 ‘箕子’의 朝鮮 冊封 가능성 검토」, 『인문학연구』 34.
- 이형구, 1991, 「大陵河流域의 殷末周初 青銅器 문화와 箕子 및 箕子朝鮮」, 『한국사고사학보』 5.
- 전광진, 1999, 「中國 青銅器 『史牆盤』 銘文에 대한 文獻學的 研究」, 『중어중문학』 24.
- 江蘇省文物管理委員會, 1955, 「江蘇省丹徒縣煙墩山出土의 古代 青銅器」, 『文物參考資料』 1955-5.
- 喀左縣文化館·朝陽地區博物館·遼寧省博物館, 1977, 「遼寧省喀左縣山灣子出土 殷周 青銅器」, 『文物』 1977-12.
- 喀左縣文化館·朝陽地區博物館北洞文物發掘小組·遼寧省博物館, 1974, 「遼寧省 喀左縣北洞村出土의 殷周 青銅器」, 『考古』 1974-4.
- _____, 1974, 「遼寧省 喀左縣北洞村出土의 殷周 青銅器」, 『考古』 1974-4.
- 顧頡剛, 1982, 「與錢玄同先生論古史書」, 『古史辨』 1, 上海: 上海古籍出版社.
- 克什克騰旗文化館, 1977, 「遼寧克什克騰旗天寶同發現商代銅甗」, 『考古』 1977-5.
- 唐蘭, 1973, 「從河南鄭州出土의 商代前期 青銅器談起」, 『文物』 1973-3.
- 羅振玉 編纂, 2003, 『貞松堂集古遺文』, 北京圖書館出版社.
- 雒有倉, 2007, 『商周 青銅器 族徽文字 綜合研究』, 陝西師範大學 博士學位論文.
- 孟克托力, 2003, 「狐竹國釋論」, 馬大正 主編, 『中國東北邊疆研究』, 北京: 中國社會科學出版社.
- 北京大學考古學系商周組·山西省考古研究所 編著, 2000, 『天馬—曲村』, 北京: 科學出版社.
- 徐昭峰, 2012, 「商王朝東征與商夷關係」, 『考古』 2012-2.
- 蘇赫, 1982, 「從昭盟發現의 大型 青銅器 試論北方의 早期 青銅文明」, 『內蒙古文物考古』, 1982-2.
- 孫思賢·邵福玉, 1982, 「遼寧義縣發現商周銅器窖藏」, 『文物』 1982-2.
- 晏婉(李學勤), 1975, 「北京·遼寧出土銅器與周初의 燕」, 『考古』 1975-5.

- 王國維, 1959, 『觀堂集林』(附別集), 北京: 中華書局。
- 王成生·辛岩·劉大志, 1998, 「遼寧喀左縣高家洞商周墓」, 『考古』1998-4。
- 王長豐, 2006, 『殷周金文族徽整理與研究』, 鄭州大學 博士學位論文。
- 遼寧省文物考古研究所·喀左縣博物館, 1989, 「喀左和尚溝墓地」, 『遼海文物學刊』, 1989-2。
- 遼寧省博物館·朝陽地區博物館, 1973, 「遼寧喀左縣北洞村發現殷代青銅器」, 『考古』1973-4。
- 尹小燕, 1996, 「遷安縣發現商代器物」, 『文物春秋』1996-1。
- 李廷儉, 1955, 「熱河凌源海島營子村發現的古代青銅器」, 『文物參考資料』1955-8。
- 李朝遠, 2008, 「前掌大墓地中的“史”及其他—讀『滕州前掌大墓地』」, 山東大學東方考古研究中心 編, 『東方考古』4, 北京: 科學出版社。
- 李宗山·尹曉燕, 1996, 「河北省遷安縣出土兩件商代銅器」, 『文物』1996-6。
- 李學勤, 1980, 「從新出青銅器看長江下游文化的發展」, 『文物』1980-8。
- , 1983, 「孤竹試論」, 『社會科學戰線』1983-2。
- , 2011, 「談秦人初居‘邾’的地理位置」, 『出土文獻』第二輯, 上海: 中西書局。
- 李衡梅, 1987, 「周初主要封國名稱由來初探」, 『齊魯學刊』1987-2。
- 林永昌, 2007, 「遼西地區銅器窖藏性質再分析」, 『古代文明研究通訊』34。
- 任偉, 2004, 『西周封建考疑』, 北京: 社會科學文獻出版社。
- 蔣剛, 2006, 『太行山兩翼北方青銅文化的演進及其與夏商西周文化的互動』, 吉林大學 博士學位論文。
- , 2010, 「冀西北京唐地區夏商西周北方青銅文化的演進」, 『考古學報』2010-4。
- 蔣剛·王志剛, 2010, 「關於圍坊三期文化和張家園上層文化的再認識」, 『考古』2010-5。
- 張禮艷, 2013, 「豐西地區殷遺民的社會地位及其變遷」, 『考古與文物』2013-2。
- , 2015, 「從墓葬材料看豐鎬地區西周時期的人群構成」, 『華夏考古』2015-2。
- 張懋鏞, 1993, 「周人不用日名說」, 『歷史研究』1993-5。
- , 1995, 「周人不用族徽說」, 『考古』1995-9。
- , 2009, 「再論‘周人不用日名說’」, 『文博』2009-3。
- 張懋鏞·王靜, 2014, 「周人不用族徽·日名說的考古學意義—從隨州葉家山西周曾

- 國墓地談起」,『四川文物』2014-4.
- 張博泉, 1985,『東北地方史稿』,長春:吉林大學出版社.
- 張昌平, 2011,「論隨州羊子山新出噩國青銅器」,『文物』2011-11.
- 張海, 2015,「商周時期的鬼方·媿姓族氏及其華夏化」,『殷都學刊』2015-2.
- _____, 2017,『西周建‘侯’制度與邊域政治地理研究』,北京大學 博士學位論文.
- 程長新, 1983,「北京市順義縣牛欄山出土一組周初帶銘青銅器」,『文物』1983-11.
- 町田章, 1981,「殷周と孤竹國」,『立命館文學』,立命館大學 人文學會.
- 中國社會科學院考古研究所 編著, 2005,『滕州前掌大墓地』,北京:文物出版社.
- 中國社會科學院考古研究所 編, 2004,『中國考古學—兩周卷』,北京:中國社會科學出版社.
- 陳光, 2000,「西周燕國文化初論」,『北京文博』2000-1.
- 陳夢家, 2004,『西周銅器斷代』,北京:中華書局.
- 陳槃 譯, 1997,『春秋大事表列國爵姓及存滅表課異』,臺北:中央研究院歷史語言研究所.
- 陳黎·劉洋, 2018,「宜侯吳簋與宜地地望」,『中原文物』2018-3.
- 何景成, 2009,『商周青銅器族氏銘文研究』,濟南:齊魯書社.
- 韓嘉毅, 1984,『燕史源流的考古學考察』,天津:天津市歷史博物館.
- _____, 1995,「論北京地區為‘其’國(族)故地」,『北京文博』1995-1.
- _____, 1995,「燕史原流的考古學考察」,『燕文化研究論文集』,北京:中國社會科學出版社.
- 胡秉華, 1992,「滕州前掌大商代墓葬」,『考古學報』1992-3.
- 黃鳳春·陳樹祥·凡國棟, 2011,「湖北隨州葉家山新出西周曾國銅器及相關問題」,『文物』2011-11.
- 侯仁之, 1990,「論北京建城之始」,『北京社會科學』1990-3.
- 甲元眞之, 1990,「燕の成立と東北アジア」,『東北アジアの考古學—天池』,東京:六興出版.

요서 출토 상말주초 족씨(族氏) 명문(銘文)에 대한 일고찰

이유표

주지하다시피, 1950년대 이후로 중국 요서지역에서는 商末周初 중원계 靑銅 禮器가 적잖이 출토되었다. 일부 학자들은 이를 중원문화의 적극적 요서 진출을 증명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몇몇 단편적 자료만 가지고 내린 결론으로, 재론의 여지가 남아 있다.

요서 출토 청동예기는 族氏 銘文이 새겨진 것이 많은데, 張懋鏞 선생이 ‘周人不用族徽說’에서 밝힌 바와 같이, 周族은 대체로 족씨 명문을 쓰지 않았다는 것을 통해, 요서 출토 청동예기는 殷遺民이 제작했을 가능성이 크다.

상주 교체기, 주왕실은 은유민을 통제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여러 정책을 시행하였다. 첫째, 殷商 王族을 책봉하여 은유민을 통제하게 하였고, 둘째, 은유민을 周의 도읍인 宗周 혹은 成周로 이주시켜 周王이 직접 통제하였으며, 셋째, 諸侯를 각지에 冊封하여 은유민을 통제하게 하였다. 요서 출토 상말주초 중원계 청동예기의 출현 또한 이러한 배경 속에서 이해할 수 있다. 관련 족씨 명문을 정리한 결과, 衛·邢·燕 등 제후가 책봉될 때 여러 은유민들이 북쪽으로 이동한 정황을 확인할 수 있었고, 여러 족씨들 간의 상호작용으로 청동기가 북쪽으로 흘러들어왔을 가능성도 파악할 수 있었다. 이는 주의 북방 진출이 일시

적으로 성과를 거두었다는 것을 보여준다.

그러나 주의 북방 공략은, 서주 중기 이후 좌절을 겪었던 것으로 보인다. 지금의 북경 및 그 주변에 중원문화유적이 보이지 않기 때문이다. 당시 하북 북부에 있었던 張家園上層文化와 요서지역에 있었던 魏營子文化의 대응에 결국 북방 진출을 포기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곧 요서지역에서 商末周初 중원계 靑銅禮器가 출토된 것은, 중원문화의 적극적인 요서 진출이라기보다는 중원문화의 진출에 대한 토착문화의 대응이라는 요인 때문일 것이다.

주제어: 족씨 명문(族氏銘文), 청동기(靑銅器), 금문(金文), 요서(遼西), 은유민(殷遺民)

ABSTRACT

A Study on Clan Insignias of Late Shang and Early Zhou period excavated from Liaoxi

Lee Youpyo

As is well known, there have been a number of excavations of Central plains-style bronze ritual vessels stemming from the late Shang/early Zhou period at the ruins of the Liaoxi (遼西) region since the 1950s. Some scholars interpret these excavations as an active advance of Central plains culture to this region. However, it is a conclusion drawn based on a few fragmentary materials and leaves much room for discussion.

A great proportion of the bronze ritual vessels excavated in the Liaoxi region have clan insignias (族氏 銘文), from which it can be inferred that they were fabricated by adherents from the Yin-Shang dynasty, given that the people of Zhou did not leave clan insignias, as demonstrated by Zhang Mao-rong (張懋鏞) in his hypothesis that the Zhou people do not use clan insignia (周人不用族徽說).

Over the long period during which the Yin-Shang dynasty was

gradually replaced by the Zhou dynasty, the Zhou court implemented various policies to control the Yin adherents. First, it appointed Yin-Shang royal families to control Yin adherents. Second, it displaced the Yin adherents to Zongzhou (宗周) or Chengzhou (成周) to control them directly. Third, it appointed feudal lords to control the Yin adherents dispersed across the Zhou territory. It was in this context that Central plains-style bronze vessels of the late Shang/early Zhou period are found in the Liaoxi region. Classification of the related clan insignias shows how the Yin adherents moved northwards when various feudal lords, such as Wei (衛), Xing (邢), Yan (燕), were given the authority to rule them. It also gives clues leading to the assumption that bronze vessels came to the northern regions through the interactions between various clans. This is also indicative of temporary success of Zhou's advance into northern regions.

However, Zhou's northern campaign seems to have failed towards the middle of the Western Zhou period, judging from the absence of Central plains-style cultural remains in and around Beijing (北京). It is presumably due to the resistance by the Upper Zhangjiayuan culture (張家園上層文化) and the Weiyngzi culture (魏營子文化) that thrived in the Northern Hebei (河北) and Liaoxi region, respectively.

In other words, excavations of Central plains-style bronze ritual vessels of the late Shang/early Zhou period in the Liaoxi region may be ascribed to the defence of indigenous culture against the intrusion of Central plains culture rather than to the active advance of Central plains culture to the Liaoxi region.

Keywords: Clan Insignia, Bronze Vessel, Bronze Inscription, Liaoxi, Yin Adherents

연(燕)의 형성 전후 접경의 변화

– 상(商) 후기, 서주(西周) 초기 태항산맥(太行山脈) 동쪽
출토 청동기 명문(銘文)의 분석

민후기 | 중앙대학교 접경연구단 연구교수

- I. 머리말
- II. 商代 중·후기 太行山脈 동쪽과 燕山山脈 주변의 有銘 청동기 출토 정황
- III. 西周 초기 太行山脈 동쪽, 燕山山脈 주변의 有銘 청동기 출토 정황으로 본 燕의 封建과 주변 지배
- IV. 맺음말

I. 머리말

燕(北燕)의 성립과 세력권의 확대는 商, 西周, 春秋, 戰國시기 중국의 북방 영역의 한계와 관련하여 중요하게 취급되어 왔다. 이와 관련하여 燕의 初封시기,¹ 燕과 邶의 관계² 등에 대해 많은 논의가 진행되었으며, 우리나라의 燕에 대한 연구도 燕이 그 북쪽에 있던 夏家店上層문화, 玉皇廟문화, 비파형동검문화와 어떤 관련이 있었으며, 고조선의 강역과는 어떤 관련이 있었는가 등과 관련하여 많은 관심을 받아왔다.³

그렇지만 고고학자료를 사료 속에 나타나는 족국과 연결하는 연구는 일정한 한계를 지녔는데, 玉皇廟문화와 夏家店上層문화만 하더라도 그 주체가 山戎인지 東胡인지에 대하여 논의가 분분한 상태이다.⁴ 이것은 고고학자료가 가지

* 투고: 2018년 11월 12일, 심사 완료: 2019년 2월 1일, 게재 확정: 2019년 2월 15일

- 1 金景芳, 1983, 『中國奴隸社會史』, 上海人民出版社, 114~115쪽; 唐蘭, 1986, 『西周青銅器銘文分代史徵』 卷2, 中華書局; 孫華, 1992, 「匱侯克器銘文淺見—兼談召公建燕及相關問題」, 『文物春秋』 1992-3; 晁福林, 1993, 「試論西周分封制的若干問題」, 『西周史論文集』(下), 陝西人民教育出版社.
- 2 楊寬, 1999, 『西周史』, 上海人民出版社, 131쪽; 許倬雲, 1993, 『西周史』, 聯經出版事業公司, 116~117쪽; 王國維, 1959, 『觀堂集林』, 中華書局, 883~884쪽.
- 3 국내의 琉璃河유지의 발굴을 중심으로 한 燕의 성립과 京津唐지역에 대한 연구로는 대표적으로 배진영의 연구를 들 수 있다. 張家園上層文化로 대표되는 전통문화 위에 군사적 봉건에 기반한 일부 商문화 인소가 포함된 姬燕문화를 인식하는 것이 서주왕조의 燕봉건의 핵심이었다고 지적하고 있다(배진영, 2009, 『고대 北京과 燕문화』, 한국학술정보, 27~122쪽).
- 4 중국 동북지역 청동기문화의 주체에 대해 일본의 아키야마 신고는 요령식동검문화를 동호, 세형동검문화를 고조선으로 비정하였다(秋山進午, 1968(上·中), 1969(下), 「中國東北地方の初期金屬器文化の様相(上·中·下)—考古資料とくに青銅短劍を資料として—」, 『考古學雜誌』 53-4, 54-1, 54-4). 十二臺營子 문화가 東胡일 것이라고 하는 설은 일본 학계에서 가장 많이 지지받고 있다(宮本一

는 근본적인 한계라는 점에서 기존 고고학의 연구성과를 보완할 수 있는 방법론을 모색해보는 것도 이 문제를 해결하는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된다.

夫, 2000, 「戰國燕の擴大」, 『中國古代北疆史の考古學的研究』, 中國書店). 이에 대해 斬楓毅는 요령지역의 청동기문화를 요동과 요서로 구분하고, 요동지역의 청동기문화를 동이계로 보고, 요서지역의 夏家店上層문화를 東胡로 보고, 이 문화를 다시 大井유형, 南山根유형, 十二臺營子유형으로 세분하였다(斬楓毅, 1982(上), 1983(下), 「論中國東北地區含曲刃青銅短劍的文化遺存」, 『考古學報』 1982-4(上), 1983-1(下); 同, 1987, 「夏家店上層文化及其族屬問題」, 『考古學報』 1987-2). 고조선과 연가의 전쟁 이전 고조선의 서쪽 경계를 요하하류 방면으로 보는 ‘평양중심설’의 경우 이 입장과 유사하다(송호정, 2003, 『한국고대사 속의 고조선사』, 푸른역사). 그렇지만 중국 학계에서 夏家店上層문화와 十二臺營子문화의 이질적인 면이 부각되면서(朱永剛, 1987, 「夏家店上層文化的初步研究」, 『考古學文化論集』 1, 文物出版社), 여러 연구자에 의해 十二臺營子문화의 독자성이 강조되어 독자적인 고고문화로 설정되었으며, 夏家店上層문화를 山戎, 十二臺營子문화를 예맥으로 보았으며(朱永剛, 1997, 「大, 小凌河流域含曲刃短劍遺存的考古學文化及相關問題」, 『內蒙古文物考古文集』 2, 中國大百科全書出版社; 劉國祥, 2000, 「夏家店上層文化青銅器研究」, 『考古學報』 2000-4; 烏恩岳斯圖, 2007, 『北方草原考古學文化研究』, 科學出版社), 1958~1965년 瀋陽 鄭家窪子유적이 확인되고 난 후에는 요중지역도 함께 거론되는 것이 일반화되었다. 이와 같은 연구성과는 국내 학계에도 수용되어 夏家店上層문화는 罽柄式銅劍과 三足鬲을 표지유물로 하여 기원전 11~7세기경 努魯兒虎山 이북에서 유행했던 북방계 청동기문화이며, 十二臺營子문화는 요령식동검(또는 비파형동검)과 二重口緣粘土帶土器鉢을 표지유물로 하여 기원전 9~4세기경 努魯兒虎山 이남에서 요서지역과 요동 서부지역을 중심으로 유행했던 토착계 청동기문화로 보았다(오강원, 2004, 「中國 東北地域 세 青銅短劍文化의 文化地形과 交涉關係」, 『선사와 고대』 20; 이청규, 2008, 「중국 동북지역과 한반도 청동기문화의 연구성과」, 『중국 동북지역 고고학 연구 현황과 문제점』, 동북아역사재단; 조진선, 2010, 「요서지역 청동기문화의 발전과정과 성격」, 『요하문명의 확산과 중국 동북지역의 청동기문화』, 동북아역사재단; 천선행, 2010, 「비파형동검문화 성립 전후 요서지역 토기문화의 전개」, 『요하문명의 확산과 중국 동북지역의 청동기문화』, 동북아역사재단). 이에 따라 최근에는 요서지역의 물질문화는 십이대영자문화이며, 이를 예맥이나 고조선과 밀접하게 관련되는 정치체로 보는 견해들이 증가하고 있다(李清圭, 2005, 「青銅器를 통해 본 고조선과 주변사회」, 『北方史論叢』 6; 박준형, 2012, 「대릉하~서북한지역 비파형동검문화의 변동과 고조선의 위치」, 『한국고대사연구』 66; 吳江原, 2013, 「청동기~철기시대 요령·서북한지역 물질문화의 전개와 고조선」, 『東洋學』 53; 趙鎮先, 2014, 「中國 東北地域의 青銅器文化와 古朝鮮의 位置 變動」, 『東洋學』 56).

이런 점에서 하상주시기 중국문화와 그 주위의 문화를 구분하는 문화적 표준이 무엇이었을까에 대해 고민해볼 필요가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左傳』에서 고대 중국의 특징을 ‘戎祀공동체’로 정의하고 있는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 가운데 ‘제사祀’를 특징짓는 문화적 요소가 청동예기와 약기이며, 이 둘로 대표되는 문화가 商周시기 ‘禮樂文明’일 것이다. 반면, ‘전쟁[戎]’ 방면에서는 전차의 사용이 商周시기 商周와 그 주변문화를 구분하는 대표적인 문화요소였던 것으로 생각된다. 이렇게 본다면 청동기가 나타나는 곳과 전차가 갈 수 있는 곳까지가 商周의 영역이자, 그 경계가 상주문화와 그 주변문화의 접경일 가능성이 높다.

그렇지만 청동기가 발견되는 모든 지역을 상주세력이 진출했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상·서주시기 중심지역이라고 할 수 있는 渭河평원이나 낙양, 산동성 등뿐만 아니라 현재의 중국의 영역 내에서 상주시기의 청동기가 광범위하게 발견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鼎, 鬲, 卣, 鐘과 같은 소위 商周의 대표적 예악기를 상주문화의 핵심으로 잡을 수도 있지만, 漢中, 新干 등 현재 비교적 중국의 중심이라고 할 수 있는 지역에서 발견된 청동기들 역시 상·주와 비슷한 예악기를 제작하는 경우가 있다. 그렇지만 설사 청동 예악기를 제작했다 해도, 漢中, 新干에서 발견된 청동기들은 청동기 자체에 銘文을 가지고 있지 않다. 따라서 예악문명을 대표하는 청동기 명문의 유무와 전쟁 방면을 대표하는 문화요소인 전차의 진출 여부(車馬坑)로 상주문화의 범위와 침투, 그리고 주변세력과의 접경을 그려보는 것은 일정한 의미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된다.

여기에서는 그 구체적인 작업으로 商, 西周 초기 太行山脈 동쪽과 古 황하의 서쪽이 만드는 공간과 燕山산맥 주변(중국 현재의 省, 市로는 河北省, 北京, 天津, 內蒙古, 遼寧)의 有銘 청동기의 출토지를 살펴봄으로써 이들 문제에 대한 실마리를 탐색해보고자 한다.

II. 商代 중·후기 太行山脈 동쪽과 燕山山脈 주변의 有銘 청동기 출토 정황

太行산맥 동쪽과 燕山산맥 주변지역은 商이 북방의 이민족들과 경계를 접한 지역으로, 商의 방어를 위한 최일선 지역이었다. 그렇지만 종래 商이 자신들의 생존과 밀접한 관련이 있었을 이들 지역의 방어를 위해 어떤 조치를 취하였는가 등에 대해서는, 이 지역의 일부 방국들에 대한 대단히 제한적인 정보만 갑골문에 나타날 뿐, 당시 이 지역의 상황을 알 수 없었다. 따라서 燕의 봉건을 살펴보기에 앞서, 燕의 封建 이전 商代 중·후기 太行산맥 동쪽과 燕山산맥 주변의 有銘 청동기의 출토 상황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1. ‘商代 중기’ 청동기 銘文

현재까지 太行산맥 동쪽에서 상대 중기 청동기 가운데 가장 북쪽에서 발견된 청동기는 1981년 內蒙古自治區 翁牛特旗 巴嘎塔拉蘇木 哈日敖包村에서 발견된 『殷周金文集成(修訂增補版)』(이하 『集成』으로 칭함) 편호 792의 〈宁草甗〉으로, 현재 赤峰市文物工作站在 소장하고 있다.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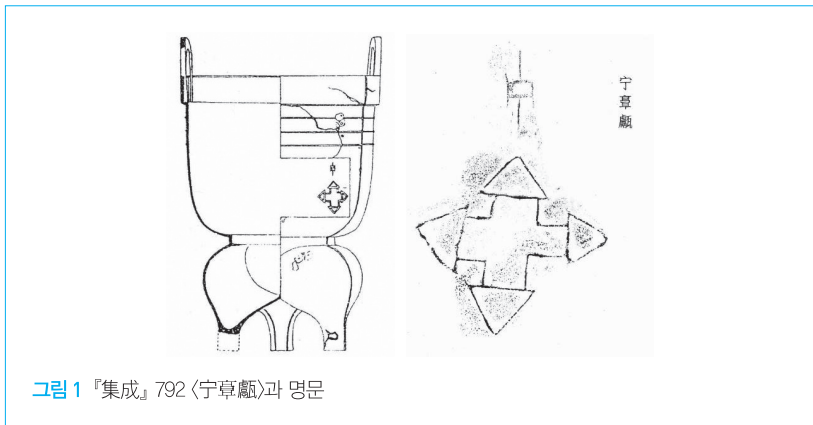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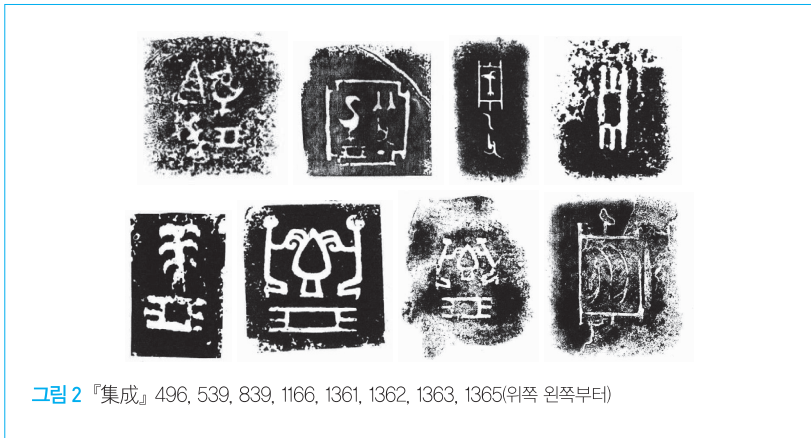


그림 1 『集成』 792 〈宁草甗〉과 명문

그렇지만, 『집성』에서 ‘宀’로 해석하고 있는 宀은 여타 청동기에 보이는 것과 확실히 다르다. ‘宀’로 상대와 관련된 대표적인 기물들은 『集成』 496, 539, 839, 1166, 1361, 1362, 1363, 1365 등에 보이는데, 이들 명문의 탁본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위의 탁본들에 나타나는 宀의 모양은 1362의 ‘宀’과 같은 모양을 높히거나 세운 모양으로, 792의 모양과는 현저하게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다만, 宀과 관련된 기물들 가운데, 496과 539는 甬, 1166, 1361, 1362, 1363, 1365은 鼎이며, 오직 839가 甗으로 792와 형태적 유사성은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5 中國社會科學院考古研究所 편, 2007, 『殷周金文集成(修訂增補本)』, 中華書局(이하 『集成』으로 약칭), 0792, (시대) 商중기, (출토지) 內蒙古 昭烏達盟 翁牛特旗 敖包村, (석문) 宀尊. 이에 대해서는 內蒙古自治區考古學會 등, 1982, 『內蒙古文物考古』 2期, 圖版 1.2; 圖 1.1 참조.



그림 3 『集成』 792



그림 4 『集成』 839

다음으로 ‘辜’로 해석하고 있는 ‘’은 서주시기 이후에는 ‘’ (『集成』 4241)의 형태로 쓰는 것이 일반적이다. 다만, 『집성』 1292와 1297은 상대 말기, 1296은 상대 말기 혹은 서주 초기로 비정되는데 ‘辜’의 형태가 『집성』 792와 유사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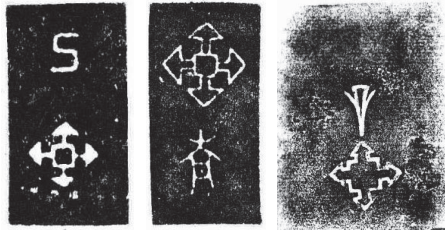


그림 5 『集成』 1292, 1297, 1296

따라서 『집성』 792는 기물의 형태로 볼 때, 중원지구 초기 鬲의 형태를 갖추고 있고 명문의 유사성이 있다는 측면에서 중원지구에서 제조된 것으로 보이

지만, 792의 ㉔과 유사한 명문을 가진 1292, 1296, 1297 등 중에 출토지가 밝혀진 것은 없다. 다만 명문의 유사성은 떨어지지만 ‘宀’와 관련된 기물들은 河南 安陽(1362, 1366, 1368, 7163, 8177, 8265 등), 北京(1836) 등에서 발견된다. 『집성』 792가 어떻게 內蒙古 翁牛特旗 巴嘎塔拉蘇木 哈日敖包村에서 발견되었는가에 대해서는, 지금은 상세하게 공간되지 않은 출토지의 상황 등에 대하여 보다 심도 있는 조사가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集成』 792를 제외하고 현재까지 太行산맥 동쪽에서 상대 중기 청동기 가운데 가장 북쪽에서 발견된 청동기는 北京市 平谷區 劉家店鎮 劉家店村에서 발견된 ‘거북이’ 그림이 있는 청동기⁶이다. 따라서 이 청동기를 본격적인 有銘 청동기로 분류하기는 어렵지만, 청동기가 발견된 묘장은 二里崗期 墓葬으로, 출토유물 등⁷을 볼 때 이 지역이 商代 중기 商세력의 太行산맥 동쪽과 燕山산맥 남쪽의 가장 북쪽 지역이었음을 알 수 있다.



그림 6 『集成』 1130 청동기와 명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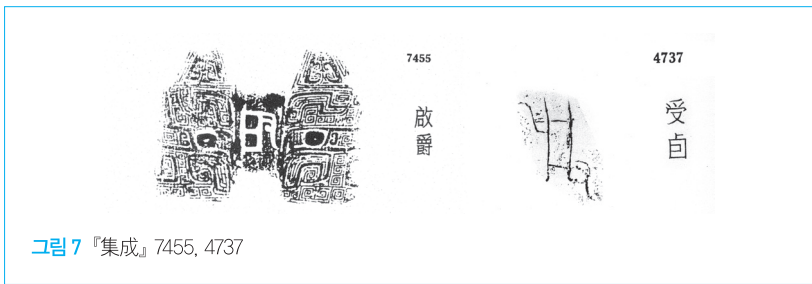
6 『集成』 1130, (시대) 商중기, (출토지) 北京市 平谷縣 劉家河 二里崗期 墓葬, (석문) 거북이(龜) 형상.

7 北京市文物管理處, 1977, 「北京市平谷縣發現商代墓葬」, 『文物』 1977-11.

2. ‘상대 후기’ 청동기 銘文

그렇다면 상왕조는 상대 후기에 들어서서 ‘大邑商’이 위치한 현재의 安陽 북쪽에서 자신들의 안위를 가장 위협했을 북방의 적들을 어떻게 방어했을까?

‘大邑商’이 위치했던 河南省 安陽의 바로 위 河北省 磁縣 下七垣村 墓葬에서는 ‘攸’의 명문을 가진 청동기가 5점,⁸ ‘受’의 명문을 가진 청동기가 2점⁹ 출토되었다.



‘攸’와 ‘受’는 후대 글자의 변화에서는 큰 차이를 보이지만, 金文을 보면 한 손과 두 손의 차이는 있지만 日을 잡고 있는 모습은 동일하다는 점에서 동일 즉 휘일 가능성도 높은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攸’의 족휘는 河北 磁縣 下七垣

- 8 『集成』 7455, (시대) 商代말기, (출토지) 河北省 磁縣 下七垣村 墓葬, (석문) 攸; 『集成』 6593, (시대) 商代말기, (출토지) 河北省 磁縣 下七垣村 墓葬, (석문) 攸; 『集成』 6594, (시대) 商代말기, (출토지) 河北省 磁縣 下七垣村 墓葬, (석문) 攸; 『新收』 NB0971, (시대) 商代말기, (출토지) 河北省 磁縣 下七垣村 商墓, (석문) 中攸(攸); 『新收』 NB0972, (시대) 商代말기, (출토지) 河北省 磁縣 下七垣村 商墓, (석문) 攸(攸). 『新收』 NB는 아직 출간되지 않았으며, 中央研究院歷史語言研究所의 ‘殷周金文暨青銅器資料庫’의 신수집자료를 이용한 것이다(http://bronze.asdc.sinica.edu.tw/qry_bronze.php).
- 9 『集成』 4737, (시대) 商代말기, (출토지) 河北省 磁縣 下七垣村 墓葬, (석문) 受; 『集成』 6601, (시대) 商代말기, (출토지) 河北省 磁縣 下七垣村 墓葬, (석문) 受.

묘장뿐만 아니라 河南 安陽 殷墟 부호묘, 殷墟 5호묘(M5: 1156) 등에서 출토되었는데, 이는 ‘攸’가 상의 대족이자 중심 족이었음을 알려준다. 磁縣 下七垣村은 漳河를 아래에 둔 지역으로, 漳河를 건너게 되면 바로 상의 수도 ‘大邑商’에 도달하게 되는 전략적 요충이었다. 따라서 商은 이 지역에 ‘攸’와 ‘受’라는 족을 배치하여 이 지역을 방어한 것으로 보인다.

다음으로 磁縣의 오른쪽 위 河北省 臨漳縣에서는 銘文을 가진 傳世 청동기 3점이 발견되었다. 『集成』 1237은 鄴郡 漳河의 가에서 발견되었는데 ‘攸’라는 명문을 가지고 있으며,¹⁰ 『集成』 1284는 『考古圖』에 실려 있는데 河南省 鄴郡 亶甲城, 즉 현재의 臨漳縣에서 발견된 것으로 나타나며 ‘乙𠄎’이라는 명문을 가지고 있다.¹¹ ‘𠄎’과 관련된 청동기가 新城舖墓葬에서도 출토되었기 때문에, 두 지역이 밀접한 관련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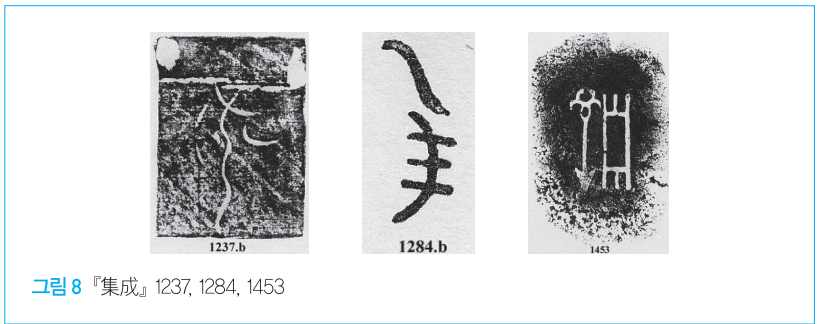


그림 8 『集成』 1237, 1284, 1453

『집성』 1453은 唐蘭이 소장한 탁본의 題拔에 따르면 鄴下, 즉 臨漳縣에서 출토된 것으로 이야기되고 있으며 ‘攸’라는 명문을 가지고 있다.¹² 그런데 ‘攸’

10 『集成』 1237, (시대) 商代말기, (출토지) 河南省 鄴郡 漳河之濱, (석문) 攸.
 11 『集成』 1284, (시대) 商代말기, (출토지) 河南省 鄴郡 亶甲城(呂大臨, 『考古圖』, 清 乾隆 18年(1753) 亦政堂(黃晟)刊本, (석문) 乙[𠄎].
 12 『集成』 1453, (시대) 商代말기, (출토지) 河南省 鄴下(唐蘭이 소장한 탁본의 題拔), (석문) 攸.

矢' 내지 '矢宁'의 명문을 가진 청동기는 은상의 수도였던 河南 安陽(『집성』 6727, 7007)과 陝西 岐山縣 禮村(『집성』 1825)에서도 발견되었고, 나머지 『집성』 8243, 8244, 9258은 명확한 출토지가 밝혀지지 않았다.

宁矢 내지 矢宁의 명문을 가진 청동기의 탁본들을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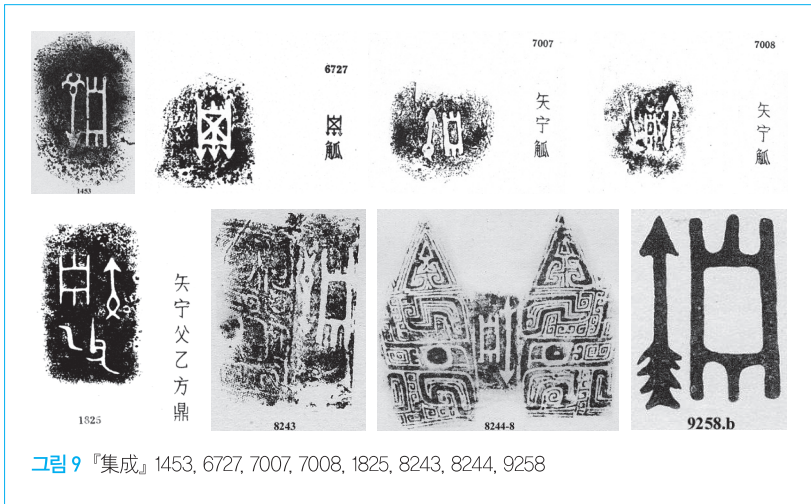


그림 9 『集成』 1453, 6727, 7007, 7008, 1825, 8243, 8244, 9258

宁矢 내지 矢宁의 명문을 가진 탁본들을 볼 때 臨漳縣에서 출토된 청동기 명문은 화살이 아래로 향하고 있는 측면에서는 8243이나 8244와 유사한 형태를 가지고 있다. 또한 '宁矢'의 명문을 가진 탁본들의 형태를 볼 때, 陝西 岐山縣 禮村에서 발견된 『집성』 1825는 河南 安陽에서 출토된 『集成』 7007과 거의 동일한 형태의 문양을 하고 있다. 이에 근거하면 陝西 岐山縣 禮村에서 발견된 『집성』 1825는 은주교체 이후 집단이 이주당하거나 청동기가 옮겨졌을 가능성도 있지만, 이것만으로 구체적인 상황을 추정하기는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다음으로 河北省 武安縣 趙窯遺址 M10:4와 M10:7 묘장에서는 각기 『新收殷周青銅器銘文暨器影彙編』(이하 『新收』로 간칭) 1294의 ¹³와 『新收』 1295의 ¹⁴의 명문을 가진 爵 1점과 鼎 1점의 청동기가 발견되었다.



그림 10 『集成』 1294, 1295

화살표의 모양은 다르지만 安陽 侯家莊 1004號 大墓나 山東 濟南市 大辛莊에서도 유사한 문양이 발견되었다.¹⁵ 銘文들의 도상을 정리하면 <그림 11>과 같다. 다만, 현재로서는 화살표 문양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직접적인 관련성을 강하게 주장하기는 쉽지 않은 것으로 생각된다.

다음으로 河北省 趙縣 雙廟村 洹河東岸墓葬에서는 『집성』 6631 ‘囿’의 명문을 가진 청동 觚 1점이 발견되었다(그림 12).¹⁶ 은상시기의 일정한 시기에 ‘囿’라는 족국이 이 지역을 관장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현재까지 발견된 족회

-
- 13 鍾柏生·陳昭容·黃銘崇·袁國華 編, 2006, 『新收殷周青銅器銘文暨器影彙編』(이하 『新收』로 부름, 藝文印書館, 편호 1294, (시대) 商代말기, (출토지) 河北省 武安縣 趙窯遺址(M10: 4), (석문) ♣.
- 14 『新收』 1295, (시대) 商代말기, (출토지) 河北省 武安縣 趙窯遺址(M10: 7), (석문) ♣.
- 15 『集成』 10492, 11770, 11823[1954년 山東 濟南市 大辛莊에서 採集], 11892[安陽 侯家莊 1004號 大墓], (석문) †; 『集成』 11771, (석문) ↓.
- 16 『集成』 6631, (시대) 商代말기, (출토지) 河北省 趙縣 雙廟村 洹河 東岸墓葬, (석문) 囿.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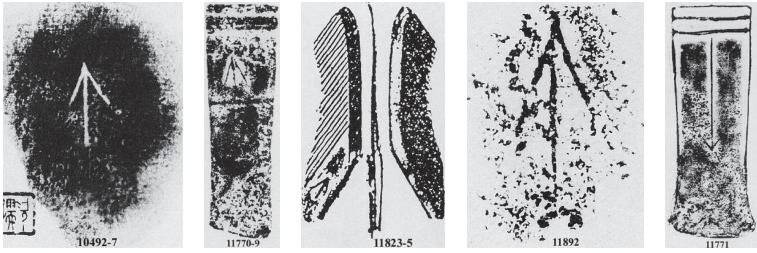


그림 11 『集成』 10492, 11770, 11823, 11892, 11771

가운데, 이 같은 형태는 이 청동기가 유일하다.

다음으로, 현재의 청동기 명문 출토 정황으로 볼 때, 石家莊市 북쪽 滹沱河와 大沙河 사이에 은상의 방어력이 일선으로 집중적으로 배치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우선, 가장 왼쪽 河北省 靈壽縣 三聖院鄉 西木佛村에서는 『집성』 4805의 ‘亞伐’이라는 명문¹⁷을 가진 銘文이 발견되었다(그림 1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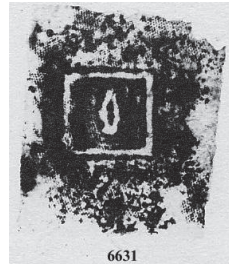


그림 12 『集成』 6631



그림 13 『集成』 4805

그렇지만 西木佛村 청동기에서 발견된 명문이 '伐'인지는 보다 신중한 고찰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伐'과 관련된 명문을 가진 청동기는 河南 安陽『集成』 6701, 6702, 6703, 6704, 10872, 10873, 11753에서 출토되었다(그림 14).¹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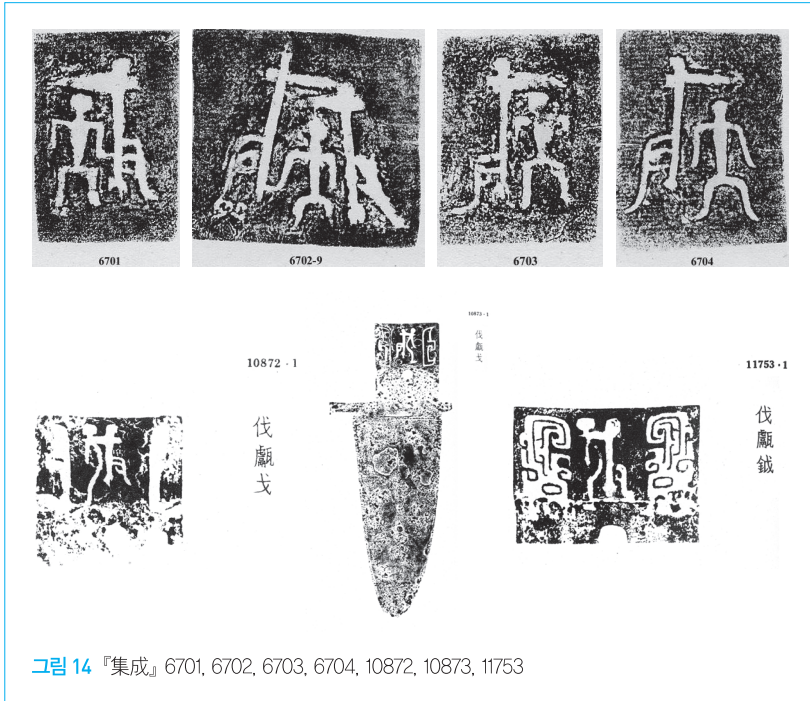


그림 14 『集成』 6701, 6702, 6703, 6704, 10872, 10873, 11753

그런데 하남 安陽에서 출토된 '伐'의 도상은 모은 손으로戈를 잡고 사람을 찌는 모양으로, 대개 찌히는 사람은 구부정하거나 꿇어앉아 있는 모양을 하고

17 『集成』 4805, (시대) 商代말기, (출토지) 河北省 靈壽縣 三聖院鄉 西木佛村, (석문) 亞伐.

18 『集成』 10872, 10873[安陽](于省吾, 2009, 『雙劍詒吉金圖錄』, 中華書局, 원 간은 1934년), 11753[安陽에서 출토되었다고 전함], (석문) 伐, 廟.

있다. 따라서 『집성』 4805처럼 무언가를 잡고 있는 모습으로 보이는 글자를 ‘伐’로 해석해야 하는가는 재고의 여지가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西木佛村 묘장에서는 『집성』 7679의 ‘冉’이라는 명문¹⁹을 가진 청동기가 발견되었다. ‘冉’이라는 족휘는 『集成』에 청동기 명문이 76개²⁰가 있을 정도의 대족으로, 그 출토지역은 西木佛村 외에도 河南 安陽 西北岡 1550호 대묘(『집성』 1176), 河南 安陽市 殷墟 M17(『집성』 7674), 河南 安陽市 侯家莊 M1550(『집성』 7675), 安陽 殷墟 西區 692호묘(『집성』 10714), 山東 膠縣 西庵村 묘장(『집성』 8723), 河南 安陽(『집성』 3192, 5620), 湖北 鄂城縣 沙窩公社 五家灣村(『집성』 8571), 湖北 襄樊市(『집성』 8533), 遼寧省 喀左縣 北洞村 2호 窖藏(『집성』 1651), 山東省 青州市 益都街道(『집성』 9216), 陝西 岐山縣 禮村(『집성』 7100) 등에서 보이고 있다. 이 가운데 宁矢(臨漳縣)와 冉(靈壽縣)이 상대 말기에 비슷한 지역에 배치되고 陝西 岐山縣 禮村에서 동시에 그 족휘가 나타나는 것을 볼 때, 이들은 비교적 밀접한 관계—예를 들어 ‘친족분

19 『集成』 7679, (시대) 商代말기, (출토지) 河北省 靈壽縣 三聖院鄉 西木佛村 墓葬, (석문) 冉.

20 『集成』 774, 1176[河南 安陽 西北岡 1550호 대묘], 1178, 1179, 1180, 1181, 1182, 3008, 3009, 3010, 3011, 4727, 4728, 4729, 4730, 4731, 5488, 6077, 6768, 7674[1976년 河南 安陽市 殷墟 M17], 7675[1934~1935년 河南 安陽市 侯家莊 M1550], 7676, 7677, 7678, 7679[1978년 河北 靈壽縣 西木佛村 묘장], 7680, 7681, 7682, 7683, 7685, 9155, 9319, 9756, 9945, 10714[1969~1977년 安陽 殷墟 西區 692호묘], 10715, (석문) 冉; 『集成』 1545, 3154, 5620[安陽에서 보임(『攷古錄』)], 7100[1953년 陝西 岐山縣 禮村], 8427, 9208, (석문) 冉父乙; 『集成』 1566, (석문) 冉父丙; 『集成』 1575, 6267, 7112, 8480, 8481, 8483, 9352, 父丁冉, (석문) 冉父丁; 『集成』 8533[1979년 湖北 襄樊市], (석문) 冉父戊; 『集成』 3191, 3192[河南 安陽], 4963, 6275, 8569, 8571[1975년 湖北 鄂城縣 沙窩公社 五家灣村], 9215, (석문) 冉父己; 『集成』 1651[1973년 遼寧省 喀左縣 北洞村 2호 窖藏], 1652, 4986, 8644, 8645, 9216[政和 丙申歲(1116) 北海縣 사람이 臨胸를 지나가다 岸圪에서 이를 얻었다. 山東省 青州市 益都街道], 9217, (석문) 冉父辛; 『集成』 0483, 5671, 8723[1975년 山東 膠縣 西庵村 묘장], 8724, 8725, 8726, 8727, 9365, (석문) 冉父癸; 『集成』 7084, (석문) 祖癸冉; 『集成』 0856, 3343, 5110, (석문) 彭母彝, 冉.

족 一에 있었을 가능성이 매우 큰 것으로 생각된다.

河北省 靈壽縣의 오른쪽 正定縣 新城鋪墓葬에서는 ‘羊田’의 명문을 가진 청동기가 4점(『집성』 5585, 6184, 8219, 『新收』 1288)²¹ 발견되었다. 殷商의 羊과 관련된 족휘 역시 상당수 발견되었고 安陽에서도 출토되었다.²²

또한 新城鋪墓葬에서는 ‘ㄹ父己’의 명문을 가진 청동기가 1점 발견되었다.²³ 앞서 살펴본 鄴郡 賈甲城(臨漳縣)에서 발견된 1284의 <ㄹ乙鼎>, 5507의 <ㄹ尊>, 6820, 6836의 <ㄹ乙觚>, 7136의 <ㄹ父己觚>, 8034의 <ㄹ己爵>이 ‘ㄹ’과 관련된 청동기들로, 이 가운데 08034만 상대 말기 혹은 서주 초기로 비정되고 나머지는 모두 상대 말기로 비정된다. ‘ㄹ’의 일지가 하남 안양 바로 위의 臨漳縣에, 그리고 다른 일지가 石家莊 위쪽의 新城鋪에 배치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또한, 新城鋪墓葬에서는 ‘ㄹ’의 명문을 가진 청동기²⁴와 ‘子刀’의 명문을 가진 청동기 1점,²⁵ ‘虜册’의 명문을 가진 청동기 2점²⁶이 발견되었다.

21 『集成』 5585, (시대) 商代말기, (출토지) 河北省 正定縣 新城鋪 墓葬, (석문) 羊田; 『集成』 6184, (시대) 商代말기, (출토지) 河北省 正定縣 新城鋪 墓葬, (석문) 羊田; 『集成』 8219, (시대) 商代말기, (출토지) 河北省 正定縣 新城鋪村 墓葬, (석문) 羊田; 『集成』 8220, (시대) 商代말기, (출토지) 河北省 正定縣 新城鋪村 墓葬, (석문) 羊田; 『新收』 1288, (시대) 商代말기, (출토지) 河北省 正定縣 新城鋪村 北城崗 墓葬, (석문) 羊田(尊).

22 『集成』 1105, 1106, 6656, 6657, 7510, 7511, 7513, 0484, 0713[1939년 安陽], (석문) 羊; 『集成』 9266, (석문) 羊父甲; 『集成』 6315 (석문) 羊父辛; 『集成』 7072, (석문) 羊祖甲; 『集成』 1850, (석문) 子羊父丁; 『集成』 6835, (석문) 羊己; 『集成』 2710, (석문) 庚午. 王令甯農省北田四品, 才二月, 乍朋友史易齒貝, 用乍父乙隣, 羊册.

23 『集成』 6283, (시대) 商代말기, (출토지) 河北省 正定縣 新城鋪 墓葬. (석문) ㄹ父己.

24 『集成』 6626, (시대) 商代말기, (출토지) 河北省 正定縣 新城鋪村 徵集. (석문) ㄹ.

기타 ㄹ 관련 청동기 명문을 정리하면 다음 표와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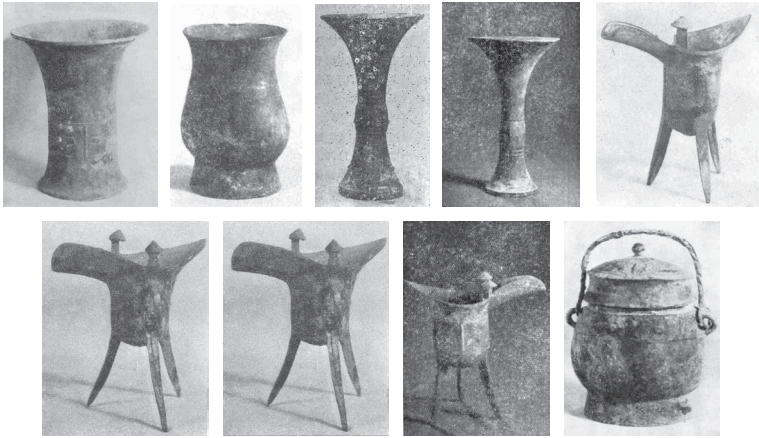


그림 15 청동가: 『集成』 5585, 6184, 6626, 6994, 8116
8219, 8220, 8256, 『新收』 NA1288

시대	釋文과 器物編號
상	奎(『集成』 6626[1967년 河北 正定縣 新城鋪村], 6627, 7707, 7708, 9259, 11733, 11912); 奎父己(『集成』 8582); 奎丁(『集成』 5550); 奎何(『集成』 8152); 𠄎奎(『集成』 8263); 甗奎父辛(『集成』 5084); 弓奎父癸(『集成』 5758); 父癸奎菴(『集成』 7249); 父癸奎鬯(『集成』 8970)
상 혹은 서주 초기	奎父庚(『集成』 1626); 奎菴(『集成』 8242)
서주	鬯口乍鼎, 其子子孫其永寶用, 奎(『集成』 2471)
서주 초기	亞奎夔(『集成』 1742), 奎父乙(『集成』 1540, 5625, 6225), 奎父丁(『集成』 6262), 奎父癸(『集成』 8705), 奎父癸(『集成』 8706), 奎父癸(『集成』 6425), 何奎(『集成』 8151), 奎旅, 祖丁(『新收』 666[1984년 3월 陝西省 扶風縣 新店鎮 唐村唐西塬])
서주 중기	鬯乍父辛寶隣彝, 奎(『集成』 9292, 9884, 9885, 9885), 蘇乍壺, 芻其萬年子子孫孫永寶用享, 奎(『新收』 677[1988년 9월 陝西 延長縣 安溝鄉 岔口村])

- 25 『集成』 8116, (시대) 商代말기, (출토지) 河北省 正定縣 新城鎮(傳), (석문) 子刀.
 26 『集成』 6994, (시대) 商代말기, (출토지) 河北省 正定縣 新城鋪, (석문) 虜册;
 『集成』 8256, (시대) 商代말기, (출토지) 河北省 正定縣 新城鋪村, (석문) 虜册.
 이 외에 虜(庚)과 관련된 청동기들은 다음과 같다. 『集成』 987, 988[京師에서 획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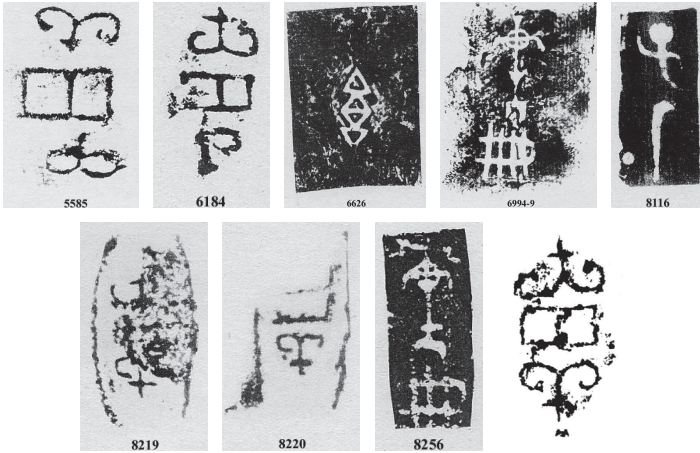


그림 16 탁본: 『集成』 5585, 6184, 6626, 6994, 8116
8219, 8220, 8256, 『新收』 NA1288

河北省 正定縣 馮家莊에서는 NA1287의 “亞東. ●齊口父癸.”라는 명문이 발견되었다. 그런데 ‘亞東’라는 명문은 陝西省 長安縣 灃東 斗門鎮 花園村 15호묘(『집성』 2408, 2486, 2726, NB0778)와 17호묘(『집성』 920, 2725, 9594, 9595)에서 다수 발견되었다. 花園村에서 발견된 청동기들이 거의 서주 초기(『집성』 920, 2725, 2726, 9594, 9595, NB0778) 내지 서주 초기 혹은 중기(『집성』 2408, 2486)로 비정되는 것에서 조심스럽게 유추할 때 상말에서 서주 초기에 亞東집단이 이들 지역으로 이주했을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考古圖』), 6721, 7670, 9947[1973년 陝西 岐山縣 賀家村 1호묘], “虜(庚); 『集成』 8412, “虜父乙”; 『集成』 816[1976년 陝西 扶風縣 楊家堡유지], “虜父己”; 『集成』 6380, 7227, 8875[1942년 河南 安陽市], “虜冊父乙”; 『集成』 8907, “虜冊父丁”; 『集成』 1897, “冊虜癸父”; 『集成』 1355, 8255, 8256 [1976년 하북 正定縣 新城鋪村], 9198, 6994[河北 正定縣 新城鋪], “虜冊”; 『集成』 9105, “庚申王才鬻(鬪, 管). 王各. 宰梳从. 易貝五朋. 用乍父丁隣彝. 才六月. 佳王廿祀. 翌又五. 虜齊”; 『集成』 5353, “辛卯. 子易鬻貝. 用乍凡彝. 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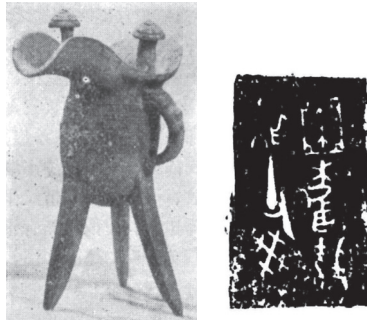


그림 17 『新收』 NA1287 청동기와 탁본

滹沱河와 大沙河 사이 은상의 방어진 가운데 가장 오른쪽 河北省 藁城縣 西關鎮 前西關村 前西關遺址에서는 ‘守’의 족휘를 가진 청동기 2점²⁷과 ‘心守’의 명문을 가진 청동기 1점²⁸이 출토되었다. ‘守’의 족휘는 은상시기에 상당히 큰 族 단위로 『集成』 6589[安陽 侯家莊 西北岡 1001호묘(R11003)], 6590[安陽 侯家莊 西北岡 1001호묘(R11004)] 등지에서 동일 銘文이 출토되었다.²⁹

〈그림 18〉을 보면 오늘날의 석가장 바로 위쪽 滹沱河와 磁哈河 사이에 은상의 족속들이 비교적 촘촘하게 배치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27 『集成』 1096, (시대) 商代말기, (출토지) 河北省 藁城縣 前西關遺址, (석문) 守.; 『集成』 7437, (시대) 商代말기, (출토지) 河北省 藁城縣 前西關遺址, (석문) 守.

28 『集成』 9488, (시대) 商代말기, (출토지) 河北省 藁城縣 前西關遺址, (석문) 心守.










29 『集成』 4739, 10687, 7438, 6591, 6592, 2967, 2968, “ (守)”; 『集成』 1402[河南 安陽 侯家莊 西北岡 1001호대묘(HPKM1133: 4殉葬坑)], 5566, “亞 (守)”; 『集成』 3082, 6145, 6146, “ (守)帚”; 『集成』 1617, “ (守)父己”; 『集成』 6287[1958년 安陽 大司空村], “ (守)父己”; 『集成』 6286, “父己”; 『集成』 6286, “ (守)”; 『集成』 6311[寶鷄 鬪鷄臺에서 출토로 전함], “ (守)父辛”; 『集成』 0813, “ (守)父丁”.



그림 18 靈壽縣, 新城舖, 西關鎮(왼쪽부터)

오늘날의 河北省 定州市에서는 北莊子 商墓에서 족휘가 출토되었다. 이 가운데 M61:14, M83:3, M95:1에서 모두 ‘𠄎’의 명문을 가진 청동기 3점³⁰과 ‘𠄎’의 족휘를 가진 명문³¹이 발견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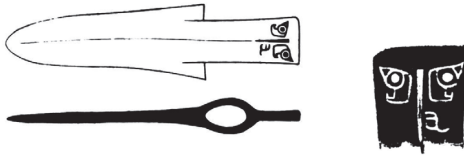


그림 19 『新收』 1291

- 30 『新收』 1290, (시대) 商代말기, (출토지) 河北省 定州 北莊子 商墓M61:14, (식문) 𠄎; 『新收』 1291, (시대) 商代말기, (출토지) 河北省 定州 北莊子 商墓 M83:3, (식문) 𠄎; 『新收』 1292, (시대) 商代말기, (출토지) 河北省 定州 北莊子 商墓M95:1, (식문) 𠄎, 父乙.
- 31 『新收』 1293, (시대) 商代말기, (출토지) 河北省 定州 北莊子 商墓M98:3, (식문) 𠄎, 父癸.

이 지역을 鬲과 卣 일족이 관할했음을 알 수 있다.

河北省 滿城縣 要莊에서는 ‘木’의 족휘가 발견되었지만 그 형태가 분명하지 않다.³²

河北省 易縣 내지 保定지역에서는 『集成』 11392의 〈大兄日乙戈〉,³³ 11401의 〈大且日己戈〉,³⁴ 11403의 〈且日乙戈〉³⁵가 출토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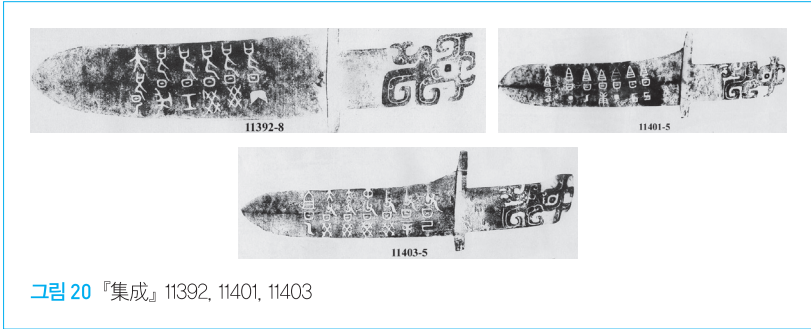


그림 20 『集成』 11392, 11401, 11403

서주왕조의 戰車노선에서 벗어나 산악지역으로 들어간 河北省 豐寧滿族自治縣에서는 『集成』 456의 ‘亞徹’의 족휘를 가진 청동기 1점³⁶이 발견되었다.

32 『集成』 8293, (시대) 商代말기, (출토지) 河北省 滿城縣 要莊, (글자수) 2, (석문) 木且.

33 『集成』 11392, (시대) 商代말기, (출토지) 河北省 易縣(『觀堂集林』); 或說出保定(羅振玉, 1917, 『夢鄣艸堂吉金圖(이하 『夢鄣』)]; 郭沫若, 1954, 『金文叢考』, 人民出版社), (석문) 兄日丙, 兄日癸, 兄日壬, 兄日戊, 大兄日乙.

34 『集成』 11401, (시대) 商代말기, (출토지) 河北省 易縣(『觀堂集林』); 혹은 保定이라고도 한다(『夢鄣』, 『金文叢考』), (석문) 且日己, 且日己, 且日丁, 且日庚, 且日乙, 且日丁, 大且日己.

35 『集成』 11403, (시대) 商代말기, (출토지) 河北省 易縣(『觀堂集林』); 혹은 保定이라고도 한다(『夢鄣』, 『金文叢考』), (석문) 父日己, 父日辛, 父日癸, 仲父日癸, 大父日癸, 大父日癸, 大父日癸, 且日己.

36 『集成』 0456, (시대) 商代말기, (출토지) 河北省 豐寧縣, (크기) 높이 17.7, (현장) 河北省博物館, (석문) 亞徹.



그림 21 『集成』 456

그렇지만 이 지점은 내몽고 쪽에 치우친 지점이자 商周의 전차 교통노선에서 벗어났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商의 영역범위의 포함 여부는 신중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오히려 상주교체기 殷商이 위치했던 安陽 이북의 상족 중 한 분족이 이산했을 가능성이나 약탈당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생각된다.

다음으로, 北京에서 동쪽으로 天津市 薊縣 張家園遺址 M2:1에서는 『新收』 1410의 ‘天’이라는 명문을 가진 商代 말기로 비정되는 청동기 1점이 발견되었다.³⁷ 그리고 張家園遺址 M4:2에서는 安陽에서 많이 보이는 ‘天’의 족휘를 가진 商代 말기 혹은 西周 초기로 비정되는 청동기 1점도 발견되었다.³⁸

北京의 왼쪽으로 河北省 遷安縣 小山東莊 묘장에서는 商代 말기 혹은 西周 초기로 비정되는 2점의 청동기, ‘天爵乍(作)寶尊彝(天爵이 보배로운 尊彝를 만들다)’³⁹의 명문을 가진 청동기와 ‘乍(作)寶尊彝(보배로운 尊彝를 만들다)’⁴⁰의

37 『新收』 1410, (시대) 商代말기, (출토지) 天津市 薊縣 張家園遺址 M2:1, (석문) 天

38 『新收』 1411, (시대) 商代말기 혹은 西周초기, (출토지) 天津市 薊縣 張家園遺址 M4:2, (석문) 天

39 『新收』 1301, (시대) 商代말기 혹은 西周초기, (출토지) 河北省 遷安縣 小山東莊 QXM1:1, (문헌) 翟良富·尹晓燕, 1997, 「河北遷安縣小山東莊西周時期墓葬」, 『考古』 1997-4, 또한 《中國文物報》 1988년 9월 23일자 2면에도 보인다. 그러나



그림 22 『新收』 1411



그림 23 『新收』 1301, 1302

명문을 가진 청동기가 발견되었다.

그 시기가 상으로 비정되는 명문을 가진 청동기 가운데 북경과 비슷한 위도의 가장 동쪽에 위치한 곳은 河北省 遷安縣 夏官營鎮 馬哨村이다. 여기에서는 『新收』 1303의 卜,⁴¹ 『신수』 1304의 ‘冉’의 명문을 가진 청동기가 발견되

석문을 “匡侯作寶尊彝”로 잘못 해석하고 있다. (글자수) 6, (석문) 坎爵乍(作)寶尊彝.

40 『新收』 1302, (시대) 商代말기 혹은 西周초기, (출토지) 河北省 遷安縣 小山東莊 QXM1:4, (석문) 乍(作)寶尊彝.



그림 24 『新收』 1303



그림 25 『新收』 1304

었다.⁴²

지금까지 발견된 ‘상대’와 ‘상 혹은 서주 초기’ 청동기 명문들의 발견 지점들을 지도에 표시하면 <그림 26>과 같다.

그림에 보이는 것처럼 保定의 위쪽에 있는 점이 易縣인데, 여기까지는 비

41 『新收』 1303, (시대) 商代말기, (출토지) 河北省 遷安縣 夏官營鎮 馬哨村, (식문) 𠄎.

42 『新收』 1304, (시대) 商代말기, (출토지) 河北省 遷安縣 夏官營鎮 馬哨村, (식문) 𠄎.



그림 26 商代 후기 有銘 청동기 출토지. 직선 이하는 商의 확실한 영역

교적 商의 청동기가 촘촘하게 배치되어 있어 商의 방어선이 이 근방에까지 미쳤던 것은 분명해 보인다. 따라서 현재까지 출토된 有銘 청동기 출토 정황을 보았을 때 商 세력은 易縣까지 진출한 것이 확실한 것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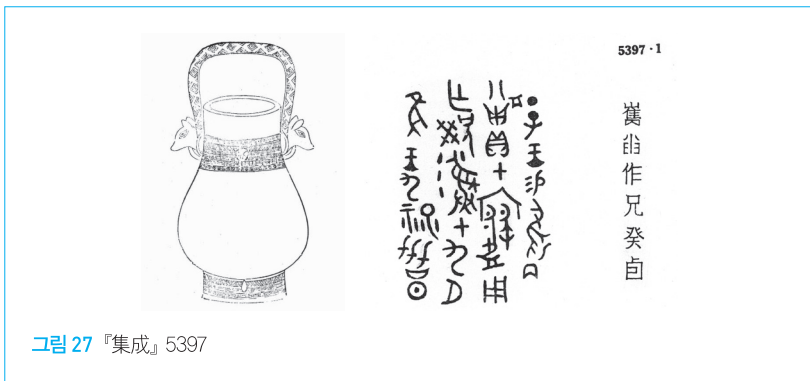
또한 商의 전차노선에서 벗어나 북쪽 산지로 올라간 河北省 豐寧滿族自治縣, 그리고 克商 이후 燕이 봉건되면서 서주세력에 의해 상족이 재배치된 이후의 사정이 분간되지 않은 天津市 薊縣 張家園遺址, 河北省 遷安縣 小山東莊, 그리고 河北省 遷安縣 夏官營鎮 馬哨村 묘장에서 발견된 有銘 청동기들은, 대체로 그 시기가 ‘상 혹은 서주 초기’로 비정되고 있다. 따라서 이들 有銘 청동기들은 첫째, 상의 세력이 진출한 최대 판도를 나타내거나, 둘째, 서주세력이 새로이 진출한 최대 판도를 나타내거나, 셋째, 殷商의 遺民들이 일부 이주하여 저항했을 가능성을 나타낼 수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Ⅲ. 西周 초기 太行山脈 동쪽, 燕山山脈 주변의 有銘 청동기 출토 정황으로 본 燕의 封建과 주변 지배

서주왕조에 들어와 현재의 太行山脈 동쪽과 古 황하의 동쪽이 만드는 공간 및 燕山산맥 주변(중국 현재의 省, 市로는 河北省, 北京, 天津, 內蒙古, 遼寧)의 상황은 어떻게 달라졌을까? 이를 서주 초기 有銘 청동기의 출토지를 통해 살펴보자.

1. 西周 초기 太行산맥 동쪽의 河北지역의 상황

하북성의 가장 남쪽에서 발견되는 금문은 河北省 臨漳縣에서 발견된 <犧卣乍兄癸卣>이다. 명문의 내용은 “丁巳날에 王이 犧卣에게 貝를 하사하셨다. 卣에 있으셨다. 이를 이용하여 兄인 癸의 彝를 만들었다. 九月. 王九祀卣日이었다 (丁巳. 王易犧卣貝. 才卣. 用乍兄癸彝. 才九月. 佳王九祀卣日).”⁴³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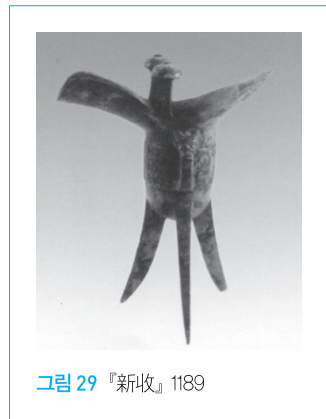


『殷周金文集成』 편집조는 이를 서주 초기의 기물로 분류하고 있지만, 이

43 『集成』 5397, (시대) 西周초기, (출토지) 河北省 臨漳縣. 得于鄴(『考古圖』). 전하여 내려오는 기물로 『考古圖』 4.5에 탁본이 있다.

청동기는 殷商으로 분류하는 것이 더 타당한 것으로 생각된다. 그 이유는 첫째, 이 청동기는 兄癸를 위해 청동기를 만들었는데 ‘兄+日名’이 결합한 경우는 상대의 전형적인 명문 형태 중의 하나로 서주에서는 거의 쓰이지 않기 때문이다. 두 번째는 ‘隹王九祀彝日’과 같은 날짜 형식 역시 전형적인 상의 제사주기를 이용한 날짜 주기이기 때문이다.

臨漳縣의 북쪽 河北省 邢臺는 서주시기 邢이 봉건된 곳으로 유명하다. 그렇지만 邢과 관련된 청동기가 출토된 곳은 보다 북쪽의 河北省 元氏縣 西張村 墓葬이고, 현재의 邢臺市에서는 『集成』 7241의 ‘亞矣父己’라는 명문을 가진 청동 觚⁴⁴가 출토되었다. 『集成』 7241의 청동기 명문이 출토된 곳에서 가까운 邢臺 南小汪 28號 西周墓에서 『新收』 1189가 출토되었는데, ‘日爲父癸’라는 명문을 가지고 있다.⁴⁵



邢臺의 북쪽에 위치한 臨城市에서는 『集成』 8709의 ‘ (享 혹은 烹)父癸’

44 『集成』 7241, (시대) 西周초기, (출토지) 河北省 邢臺市, (석문) 亞矣父己.

45 『新收』 1189, (시대) 西周초기, (출토지) 河北省 邢臺市 南小汪 西周墓 (M28:13), (석문) 日爲父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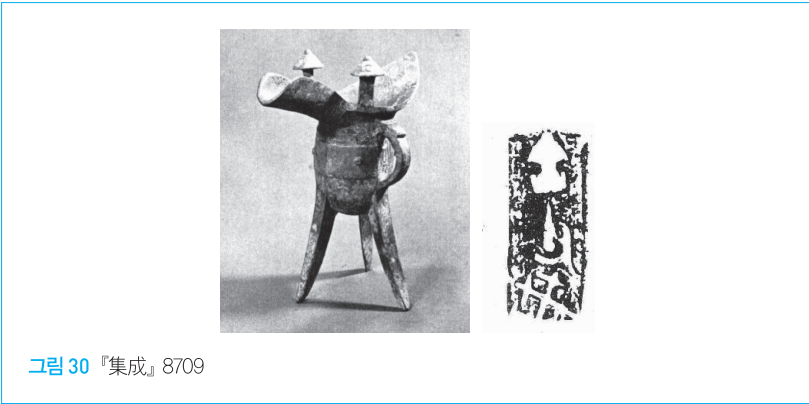


그림 30 『集成』 8709

라는 銘文을 가진 청동 爵 1점⁴⁶이 발견되었다. 출토지가 밝혀지지 않은 동일한 명문을 가진 청동기 2점이 있는데, 그중 하나는 상대 말기로 비정되는 『집성』 473의 '𠄎(享 혹은 烹)祖癸'의 명문을 가진 鬲이고, 다른 하나는 서주 초기로 비정되는 『집성』 6259의 '𠄎(享 혹은 烹)父丁'의 명문을 가진 解이다.



그림 31 『集成』 473



그림 32 『集成』 6259

46 『集成』 8709, (시대) 西周초기, (출토지) 河北省 臨城縣, (석문) 𠄎父癸.

河北省 元氏縣 西張村 墓葬에서는 鼎 1점과 卣 2점이 출토되었다. 먼저 『집성』 1971의 〈攸鼎〉은 1978년에 출토되었는데, “攸가 旅貞을 만들다(攸乍旅貞).”라는 내용의 명문을 가지고 있다.⁴⁷ 『집성』 5428과 5429는 〈叔釂父卣〉로 동일한 명문이 새겨진 2점의 卣⁴⁸이다. 그 명문은 “叔釂父가 ‘내가 늙어 일을 감당하지 못한다. 너 旣는 경건하게 너의 몸을 돌보거라. 더이상 어린아이가



47 『集成』 1971, (시대) 西周초기, (출토지) 河北省 元氏縣 西張村墓葬, (석문) 攸乍旅貞.

48 『集成』 5428, (시대) 西周초기, (출토지) 河北省 元氏縣 西張村墓葬, (석문) 卣

아니다. 내가 너를 위해 이 작은 𠄎彝을 주겠다. 너는 이것으로 너의 君主 軫侯에게 饗하고, 맞이하고?(逆衛), 出入하고, 사람을 부리는 데 사용하라. 嗚呼라, 旣여. 삼갈지어다…….’라고 말하였다.”이다. 이 청동기의 내용은 서주 중기의 『集成』 4237의 〈臣諫簋〉와 표리를 이루며 이 지역이 軫侯의 영역이었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河北省 元氏縣 東張鄉 西張村에서 동쪽으로 약간 위에 위치한 河北省 辛集市에서는 『집성』 5276의 〈卣作父丁卣〉가 출토되었다. 명문은 “卣가 父丁의 보배로운 隣彝을 만들다(卣作父丁寶隣彝).”⁴⁹ 라는 내용을 가지고 있다. 『집성』 9038 역시 ‘卣’이 작기자로 되어 있지만, 출토지가 밝혀지지 않았다.⁵⁰



그림 35 『集成』 5276

趯父曰，余考不克御事，唯女斨期敬辭乃身，母尚爲小子，余覲爲女茲小斨彝，女期用鄉乃辟軫侯，逆衛出入事人，烏虜，斨，敬戔，茲小斨妹吹見，余唯用謀衛女；『集成』 5429, (시대) 西周초기, (출토지) 河北省元氏縣 西張村墓葬, (소장처) 河北省文物研究所, (문헌) 『考古』 1979年 1期 圖版 玖:4, (글자수) 62(又合文1), (석문) 卣(叔)趯父曰，余考(老)不克御事，唯女(汝)斨期(其)敬辭(變)乃身，母(母)尚爲小子，余覲爲女茲小斨彝，女(汝)期(其)用鄉乃辟軫侯，逆(造)衛出入(入)事(使)人，烏虜，斨，敬戔(戔)，茲小斨妹(末)吹見，余唯用謀衛女。

49 『集成』 5276, (시대) 西周초기, (출토지) 河北省 東鹿縣(傳), (석문) 卣作父丁寶隣彝.

50 『집성』 9038, “隻乍(作)鞶(旅)彝. 鬲.”

元氏縣 東張鄉 西張村의 북쪽 河北省 正定縣 馮家莊에서는 ‘亞東. 𠄎口父癸.’⁵¹라는 명문이 출토되었다. ‘東’라는 족휘 역시 安陽에서 출토된 족휘임을 고려하면,⁵² 이 족도 은주혁명 이후 어느 시기에 正定縣 馮家莊 일대에 재배치되었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생각된다.

河北省 易縣에서는 ‘魚’라는 명문이 새겨진 청동기들이 출토되었다. 『集成』 7543은 현재 日本 京都 泉屋博古館에 소장되어 있는데, ‘魚’라는 명문을 가지고 있으며,⁵³ 『集成』 2168은 〈伯魚鼎〉, 『集成』 3534는 〈伯魚簋〉인데 모두 “白魚가 보배로운 隣彝를 만들다(白魚乍寶隣彝).”라는 명문을 가지고 있다.⁵⁴ 이 지역을 魚 일족이 다스렸음을 알 수 있다.



그림 36 『集成』 7543, 2168, 3534

- 51 『新收』 1287, (시대) 商代말기 혹은 西周초기, (출토지) 河北省 正定縣 馮家莊, (석문) 亞東, 𠄎口父癸.
- 52 ‘東(刺)’의 명문을 가진 『集成』 6744는 1976년 安陽 殷墟西區묘장(M1116:1)에서 출토되었다.
- 53 『集成』 7543, (시대) , (출토지) 河北省 易縣, 易州, (소장처) 日本京都泉屋博古館, (크기) 高20.5cm, (글자수) 1, (석문) 魚.
- 54 『集成』 2168, (시대) 西周초기, (출토지) 河北省 易縣(羅表), (소장처) 陳介祺舊藏, (글자수) 6, (석문) 白魚乍寶隣彝; 『集成』 3534, (시대) 西周초기, (출토지) 河北省 易縣(傳), (소장처) 北京故宮博物院, (글자수) 6, (석문) 白魚乍寶隣彝.

魚의 족휘는 商분기로 비정되는 청동기 중에서 다수 보이는데, 河南 安陽 西北岡 1001호 대묘, 河南 安陽市 殷墟 西區 M1713, 陝西 鳳翔縣 董家莊, 陝西 岐山縣 禮村 등지에서 발견되고 있다.⁵⁵ 출토지를 고려할 때 원래 이들이 ‘大邑商(安陽)’에 살고, 일부는 易縣 등에 배치되어 북방의 적을 방어하다가 三監의 난 이후에 陝西 鳳翔縣이나 岐山縣으로 이주당했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생각된다.

易縣에서는 서주 초기의 청동기로 “季犀가 보배로운 隣彝를 만들다(季犀乍寶隣彝).”라는 명문과 같이 ‘季犀’가 작기자로 나타나는 청동기 한 점⁵⁶과 “員父가 보배로운 隣彝를 만들다(員父乍寶隣彝)”와 같이 ‘員父’가 작기자로 나타나는 명문을 가진 청동기 한 점⁵⁷이 발견되었다.



그림 37 易縣 출토 청동기 銘文들: 『集成』 3556, 5861, 11774

- 55 『集成』 1126[河南 安陽 西北岡 1001호 대묘(HPKM1889殉葬坑)], 7538 [1978년 陝西 鳳翔縣 董家莊], “魚”; 『集成』 06343[1953년 陝西 岐山縣 禮村], “魚父癸”; 『集成』 08888[1984년 河南 安陽市 殷墟西區 M1713], 08889[1984년 河南 安陽市 殷墟西區 M1713], “亞魚父丁”; 『集成』 09101[1984년 河南 安陽市 殷墟 西區 M1713], “辛卯, 王賜寢魚貝, 用乍(作)父丁彝, 亞魚”.
- 56 『集成』 3556, (시대) 西周초기, (출토지) 河北省 易縣[『清愛堂家藏鐘鼎彝器款識法帖』에서 傳함, (소장처) 上海博物館, (크기) 高18.8, 口徑18.7, 底徑15.1cm, (글자수) 6, (석문) 季犀乍寶隣彝.
- 57 『集成』 5861, (시대) 西周초기, (출토지) 河北省易縣(分域), (글자수) 6, (석문) 員

그리고 易縣에서는 ‘豊王’이라는 명문이 새겨진 청동 도끼 한 점이 발견되었다.⁵⁸ 서주 초기까지 ‘王’이 절대적 호칭이 아니라 지배자를 의미하는 뜻으로 쓰였다는 王國維의 설을 참고하면, ‘豊王’이 당시 이 지역을 관할했을 가능성도 있지만, 이 청동기 자체가 묘장에서 직접 출토된 것이 아니라 전해져오는 기물이기 때문에 자세한 상황은 알 수 없는 형편이다. 오히려 기물의 형태로 봤을 때 지배자로서의 王이 아니라 도끼라는 기물 그 자체를 의미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安陽 쪽에서 北京을 향해 갈 때 北京을 지척에 두고 있는 河北省 涿水縣 明義鄉 張家窪村묘장에서는 北伯과 관련된 명문을 가진 청동기들이 출토되었다. 이 가운데 『集成』 1911은 “北白이 尊을 만들다(北白乍尊).”,⁵⁹ 『集成』 5299와 5890은 동일하게 “北白 殺가 보배로운 隣彝를 만들다(北白殺乍寶隣彝).”⁶⁰라는 명문을 가지고 있다.



그림 38 『集成』 1911, 5299, 5890

父乍寶隣彝.

- 58 『集成』 11774, (시대) 西周초기, (출토지) 河北省 易縣 (『夢鄴』), (글자수) 2, (석문) 豊王.
- 59 『集成』 1911, (시대) 西周초기, (출토지) 『貞松堂集古遺文』(이하 『貞松』)에서 “河北省 直隸 涿水 張家窪出古器十餘, 皆有北白字”라고 함, 此鼎其一也, (석문) 北白乍尊.

1919年 王國維는 「北伯鼎跋」에서 北國의 청동기가 河北에서 출토되었기 때문에 “(管叔의 衛, 蔡叔의 鄘, 霍叔의 邶의 三監 중의) 邶는 燕이고, 鄘은 魯(邶即燕, 鄘即魯)”라고 주장하였다.⁶¹ 그런데 청동기 출토 정황을 보면, 涑水縣 출토의 北國 청동기와 琉璃河 출토의 燕國 청동기가 각기 다른 곳에서 출토되는 상황 이어서 北과 燕의 관계는 다시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후 이 문제는 추후 일고가 필요하겠지만, 삼감 중의 北(즉 邶)이 河北省 涑水縣 明義鄉에 있다가 삼감의 난 으로 패망하자 이후 燕을 북경 琉璃河지역에 봉건하여 太行산맥의 북쪽 산록의 동쪽 면과 燕山산맥 남쪽 지역을 관할하게 했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생각된다.

2. 서주 초기 燕의 봉건과 지배범위

서주시기 燕의 봉건과 관련해서는 燕이 최초 봉건된 지역이 어디냐에 대해 논쟁이 있어 왔다.⁶² 琉璃河에서 발견된 일련의 청동기들은 北燕의 초봉지가 琉璃河지역에 있었고, 그 爵이 侯였다는 사실을 잘 보여준다. 실제로 『집성』 10887의 〈燕侯戈〉⁶³는 칼의 손잡이 부분의 한쪽 면에 ‘燕’을, 다른 한쪽 면에

60 『集成』 5299, (시대) 西周초기, (출토지) 河北省 涑水 張家窪, (소장처) Museum of Fine Arts, Boston, Massachusetts, USA, (석문) 北白殺乍寶隣彝; 『集成』 5890, (시대) 西周초기, (출토지) 河北省 涑水縣 張家窪 출토, (석문) 北白殺乍寶隣彝.

61 王國維, 1959, 「北伯鼎跋」, 『觀堂集林』 中華書局, 884~886쪽.

62 燕의 봉건과정에 대한 연구로는 郭大順·張星德, 2008, 『동북문화와 유연문명(하)』, ‘제4장 상·주시대의 연과 유연지역-다민족문화의 융합-’, 동북아역사재단, 711~986쪽; 김정열, 2012, 『서주국가의 지역정치체 통합연구』, ‘제3장 서주봉건의 내용과 성격’, 서경문화사; 배진영, 2008, 『西周時期 北京地域 政治體-周初 中原 勢力的 北京 進入과 衝突-』, 『中國史研究』 53집을 참고하라. 배진영은, 서주 초기 북경지역에는 중원세력을 대표하는 燕과 상유민집단 및 백부묘에서 보이는 세력집단 등이 존재하였던 것으로 추정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상말주초 중원세력이 북경으로 진입할 무렵 이 지역에 토착세력인 張家園上層文化세력이 존재하였으며 이들 간에 충돌이 일어났을 가능성을 제기하였다.

63 『集成』 10887, (시대) 西周초기, (출토지) 1983년 北京市 房山縣 琉璃河1029號墓(M1029:54), (소장처) 琉璃河考古隊, (문헌) 『考古』 1984年 5期, 413圖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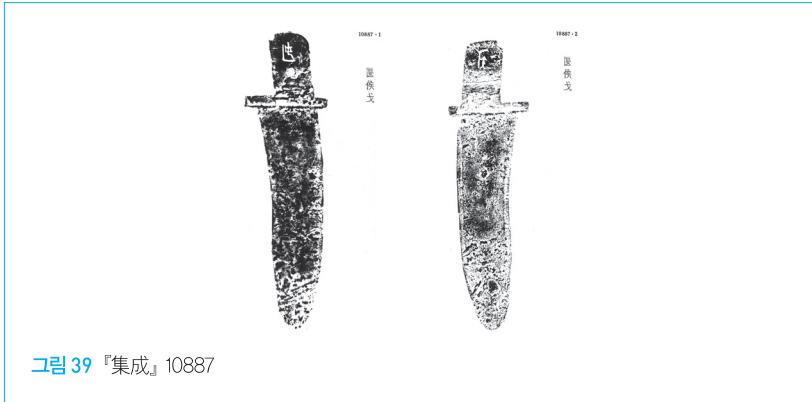


그림 39 『集成』 10887

‘侯’를 새겨놓았다.

琉璃河에서 발견된 『집성』 11854의 <燕侯銅泡>⁶⁴ 역시 ‘燕侯’를 합쳐 새겨 北燕이 처음 봉건된 곳이 유리하였으며 그爵이 ‘侯’였음을 잘 보여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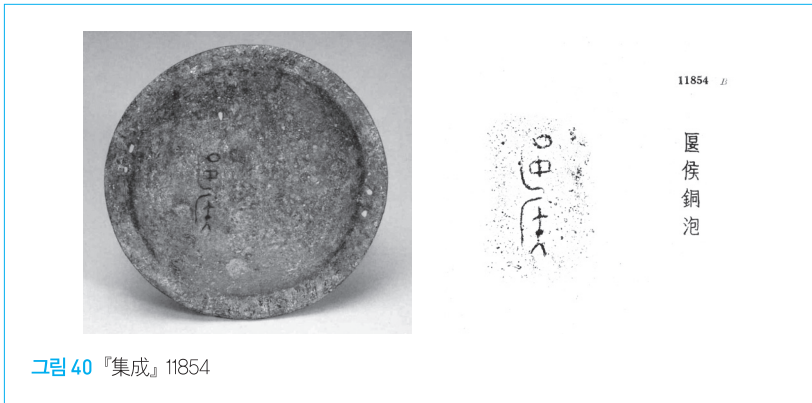


그림 40 『集成』 11854

10.1과 2, (글자수) 1, (석문) 匜[10887.1], 侯[10887.2], 이들 기물은 『集成』 10887과 관련되어 있다.

64 『集成』 11854, (시대) 西周초기, (출토지) 北京市 房山縣 琉璃河 黃土坡村 52號墓 (M52:40), (소장처) 北京市 文物研究所, (크기) 直徑14.5cm, (글자수) 2, (석문) 匜侯.

琉璃河 출토 청동기 중에는 周王이 燕侯 克에게 봉건을 명한 청동기 명문도 발견되었는데, “王께서 말씀하였다. ‘大保여, 마음을 밝게 하여 너의 군주를 섬겼다. 나는 너의 섬김을 크게 보답하여 克에게 명령하여 匭(燕)에 侯하도록 하였다. 鬻, 狸, 戲, 駮, 兕(微)를 부리도록 하라.’ 克이 匭(燕)에 들어와 土와 有司를 관할하고, 이로써 보배로운 尊彝를 만들었다.”⁶⁵라는 명문을 가지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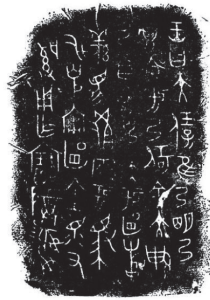


그림 41 『新收』 136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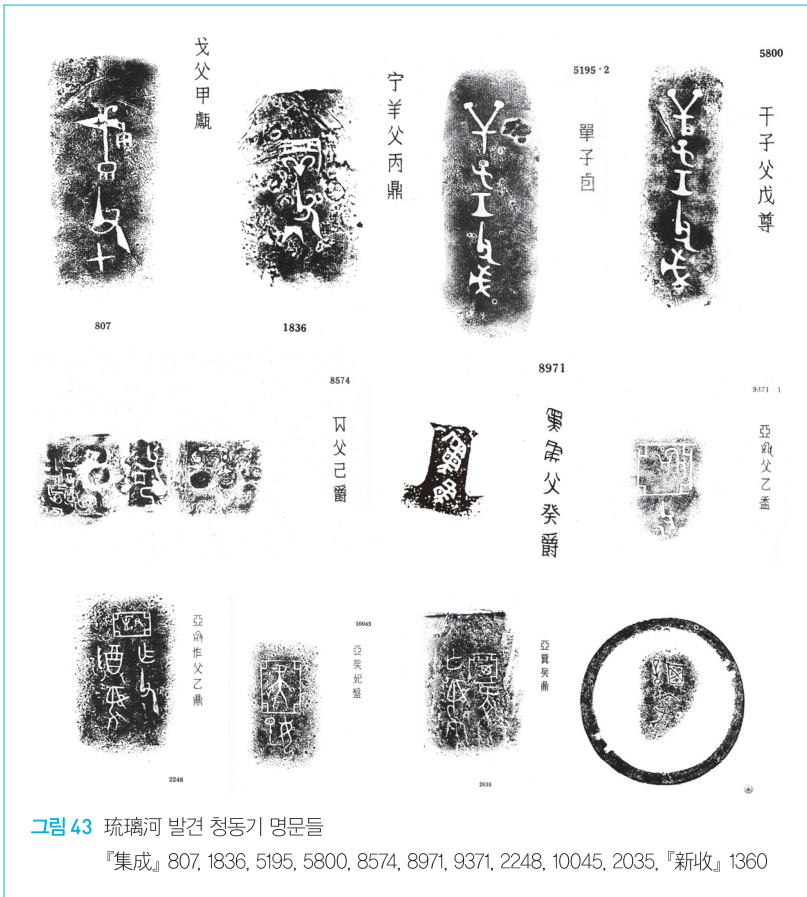


그림 42 『新收』 1368

또한, 琉璃河에서 발견된 청동기 가운데는 상의 유민과 관련된 족휘들이 많이 발견되고 있다. 예를 들어 琉璃河에서는 ‘戈’,⁶⁶ ‘宁羊父丙’,⁶⁷ ‘單子Ⅰ’,⁶⁸ ‘Ⅱ’,⁶⁹ ‘虘夷(虘夷)’,⁷⁰ ‘亞毘’,⁷¹ ‘亞矣’,⁷² ‘亞眞’,⁷³ ‘霰’,⁷⁴ ‘夙’,⁷⁵ ‘爵’,⁷⁶ ‘卣’,⁷⁷

-
- 65 『新收』 1367, 1368, (시대) 西周초기, (출토지) 北京市 房山區 琉璃河 西周 燕國 墓地M1193:167, (석문) 王曰: 大(褒)(保), 佳(唯)乃明乃心, 享(享)于乃辟, 余大對乃享(享), 令(命)克侯于匭(燕), 旃(使)毳, 狸, 獻, 孚, 駮, 兕(微), 克(宅)匭(燕), 入土眾又(有)亂(綱), 用乍(作)寶(尊)彝.
- 66 『集成』 0807, (시대) 西周초기, (출토지) 北京市 房山縣 琉璃河 黃土坡村 251號 墓(M251:25), (석문) 戈父甲; 『新收』 NB1006, (시대) 西周초기, (출토지) 北京市 房山縣 琉璃河 M1149, (석문) 戈父工.
- 67 『集成』 1836, (시대) 西周초기, (출토지) 北京市 房山縣 琉璃河 黃土坡村 253號 墓(M253:21), (석문) 宁羊父丙.
- 68 『集成』 5195, (시대) 西周초기, (출토지) 北京市 房山縣 琉璃河 黃土坡村 251號 墓(M251:6), (석문) 單子Ⅰ父戊; 『集成』 5800, (시대) 西周초기, (출토지) 北京市 房山縣 琉璃河 黃土坡村 251號墓(M251:7), (석문) 單子Ⅰ父戊.
- 69 『集成』 8574, (시대) 西周초기, (출토지) 北京市 房山縣 琉璃河 黃土坡村 50號 墓(M50:7), (석문) Ⅱ父己.
- 70 『集成』 8971, (시대) 西周초기, (출토지) 北京市 房山縣 琉璃河 黃土坡村 1043號墓(M1043:29), (석문) 虘夷(虘夷)父癸.
- 71 『集成』 9371, (시대) 西周초기, (출토지) 北京市 房山縣 琉璃河 黃土坡村 251號 墓(M251:1), (석문) 亞毘父乙. 이 청동기(『集成』 9371)는 『集成』 7232와 글자가 같음; 『集成』 2248, (시대) 西周초기, (출토지) 北京市 房山縣 琉璃河 黃土坡村 251號墓(M251:17), (석문) 亞毘, 乍父乙隣彝.
- 72 『集成』 10045, (시대) 西周초기, (출토지) 北京市 房山縣 琉璃河 54號墓 (M54:28), (석문) 亞矣妃.
- 73 『集成』 2035, (시대) 西周초기, (출토지) 北京市 房山縣 琉璃河 黃土坡村 253號墓(M253:24), (석문) 亞眞矣乍彝; 『新收』 1360, (시대) 西周초기, (출토 지) 北京市 房山區 琉璃河 西周 燕國墓地M253:39, (석문) 眞子.
- 74 『新收』 NB1005, (시대) 西周초기, (출토지) 北京市 房山縣 琉璃河 M509, (석 문) 乍(作)父丁尊彝. 霰.
- 75 『集成』 2255, (시대) 西周초기, (출토지) 北京市 房山縣 琉璃河 黃土坡村 209號墓(M209:28), (석문) 夙乍父辛寶(尊)彝.
- 76 『集成』 5599, (시대) 西周초기, (출토지) 北京市 房山縣 琉璃河 黃土坡村 50號 墓(M50:4), (석문) 爵且丙.

‘ㄴ 冊’, 78 ‘ㄱ 史父’⁷⁹ 등의 족휘가 발견되었다.



77 『新收』 1359, (시대) 西周초기, (출토지) 北京市 房山區 琉璃河 西周 燕國墓地 M253:10, (석문) ↓ 父辛.

78 『集成』 2703, (시대) 西周초기, (출토지) 北京市 房山縣 琉璃河 黃土坡村 253號墓(M253:12), (석문) 匱 戾 令 堯 大 保 于 宗 周, 庚 申 大 保 賞 堯 貝, 用 乍 大 子 癸 寶 隣 鬲, ㄴ 冊.

이것은 燕侯가 지배하던 ‘燕’에 다수의 商族이 배치되었다는 사실을 의미하는데, 이들 商의 유민이 대규모로 燕에서 중요한 직무를 맡아 활동했다는 사실은 아래의 금문을 통해서도 알 수 있다. 『集成』 3825에 보이는 ‘圉’라는 인물은 ‘魚’족에 속하는 인물로 보이는데, 成周에서 거행된 왕의 모종의 행사에 참여하고 貝를 받아서 청동기를 제작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⁸⁰ 연후에게 貝를 받아서 청동기를 제작하고 있다.⁸¹

『集成』 2703에 보이는 卣 일족에 속하는 堇 역시 연후의 명령을 받아 宗周의 태보에게 가서 모종의 임무를 수행하고 상으로 貝를 받아 청동기를 제작하고 있다.⁸²

『集成』 2507에 보이는 상의 유민이 확실한 鬲 일족에 속한 復 역시 “侯가 復에게 貝 三朋을 상으로 주었다. 復이 이를 사용하여 父乙의 보배로운 罍彝를 만들었다. 鬲(侯賞復貝三朋. 復用乍父乙寶罍彝. 鬲).”⁸³고 한 명문의 내용처럼 상의 유민이 燕에서 주요 직무를 맡고 있음을 알 수 있다.

79 『新收』 1362, (시대) 西周(구체적인 시대 분류 불가능), (출토지) 北京市 房山區 琉璃河 西周 燕國墓地 M1043:1, (석문) 卣, 父己.

80 『集成』 3825, (시대) 西周초기, (출토지) 北京市 房山縣 琉璃河 黃土坡村 253號墓(M253:14), (석문) 王率于成周. 王易圉貝. 用乍寶罍彝. (蓋內) 卣(伯)魚乍(作)寶罍(尊)彝. (器內底); 『集成』 0935, (시대) 西周초기, (출토지) 北京市 房山縣 琉璃河 黃土坡村 253號墓(M253:15), (석문) 王率于成周. 王易圉貝. 用乍寶罍彝.

81 『集成』 2505, (시대) 西周초기, (출토지) 北京市 房山縣 琉璃河 黃土坡村 253號墓(M253:11), (석문) 休朕公君匱侯易圉貝. 用乍寶尊彝; 『集成』 5374, (시대) 西周초기, (출토지) 北京市 房山縣 琉璃河 黃土坡村 253號墓(M253:4), (석문) 王率于成周. 王易圉貝. 用乍寶尊彝.

82 『集成』 2703, (시대) 西周초기, (출토지) 北京市 房山縣 琉璃河 黃土坡村 253號墓(M253:12), (석문) 匱侯令堇堯大保于宗周. 庚申大保賞堇貝. 用乍太子癸寶罍彝. 卣.

83 『集成』 2507, (시대) 西周초기, (출토지) 北京市 房山縣 琉璃河 黃土坡村 52號墓(M52:15), (석문) 侯賞復貝三朋. 復用乍父乙寶罍彝. 鬲; 『集成』 5978, (시대) 西周초기, (출토지) 北京市 房山縣 琉璃河 黃土坡村 52號墓(M52:11), (석문) 匱侯賞復內衣. 臣妾. 貝. 用乍父乙寶罍彝. 鬲.



그림 44 『集成』 250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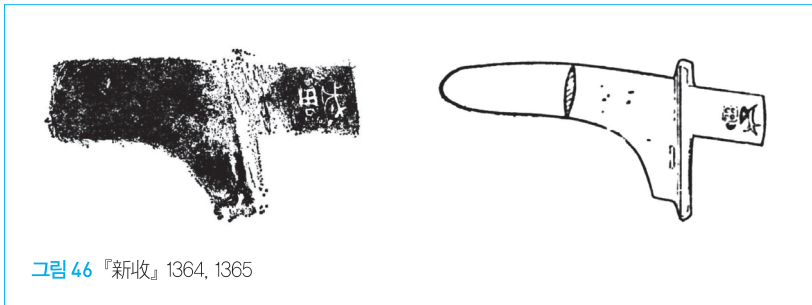
그림 45 『集成』 5978

그런데 琉璃河 묘장에서 발견된 청동기 銘文에 나타나는 족속들은 河北, 北京 인근 지역에서도 나타난다.

족위	출토지 1	출토지 2
亞矣	北京 琉璃河	河北 邢臺
攸	北京 琉璃河	河北省 元氏縣 西張村
亞戛	北京 琉璃河	北京市 順義縣 牛欄山 金牛村
魚	北京 琉璃河	河北省 易縣

이와 같이 연후가 위치했던 琉璃河지역과 그 주변지역에서 동일한 청동기가 나타나는 현상은, 侯志義가 지적한 대로 춘추시대에 채읍에는 자신의 궁실에서 사무를 보는 채읍공실을 두고 國都에서 직무를 맡으면 國都府第를 두었다는 현상과 유사하다.⁸⁴

또한, 琉璃河에서는 成周 洛陽과의 밀접한 관계를 암시하는 ‘成周’라는 명문이 새겨진 戈 2점⁸⁵이 발견되었다. 戈와 같이 무기에 새겨진 명문이 일반적으로 제작한 사람이나 장소를 표기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燕의 건국이 成周와 밀접한 관련이 있었음을 나타내는 것으로 생각된다.



3. 서주 초기 燕山산맥 이남의 燕의 북쪽과 동쪽의 族國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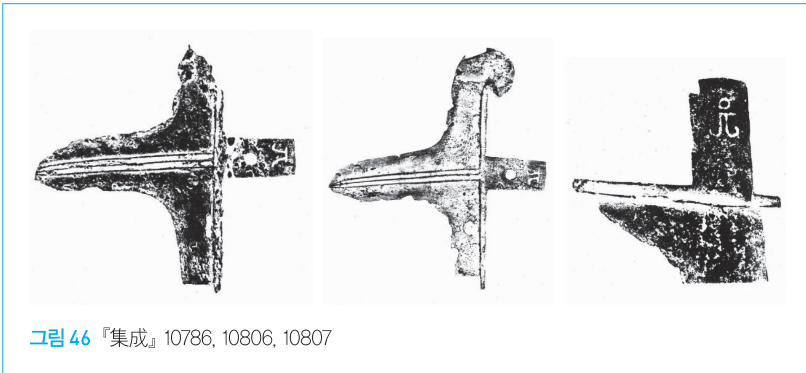
1절과 2절에서는 琉璃河에 위치했던 燕에 대해서 살펴보았지만 유리하 북쪽

84 侯志義, 1989, 『采邑考』, 西北大學出版社, 126~128쪽.

85 『新收』 1364, (시대) 西周초기, (출토지) 北京市 房山區 琉璃河 西周 燕國墓地 M1193:48, (소장처) 北京市文物研究所, (문헌) 「北京琉璃河1193號大墓發掘簡報」 七:2, 『考古』 1990-1. 『新收』 1365와 동일한 銘文, (글자수) 2, (석문) 成周; 『新收』 1365, (시대) 西周초기, (출토지) 北京市 房山區 琉璃河 西周 燕國墓地 M1193:62, (소장처) 北京市文物研究所, (크기) 全長21.6cm, (문헌) 「北京琉璃河1193號大墓發掘簡報」 五:3(墓本), 『考古』 1990-1, 『新收』 1364와 동일 銘文, (글자수) 2, (석문) 成周.

지역에도 봉건이 이루어졌던 것으로 보인다.

연보다 북쪽에 위치했던 첫 번째 족국은 北京市 昌平區馬池口鎮 白浮村 白浮龍山 養鹿場 2號墓에서 발견된 ‘ㄲ’의 족휘를 가진 족국이다. 『集成』 10786은 ‘윤’,⁸⁶ 10806과 10807은 ‘ㄲ’⁸⁷이라는 명문을 가지고 있는 戈 3점인데 銘文은 동일한 것으로 보인다.



다음은 北京市 順義縣 牛欄山 金牛村에서 발견된 청동기 명문들이다.

〈표 1〉에 보이는 9개(혹은 8개)의 銘文이 있는 청동기 가운데 『집성』 3588 한 건만 빼고는 모두 같은 지역에서 발굴된 것이 확실하다. 『집성』 3588은 〈屨簋〉 혹은 〈屨乍壺白銀〉라고 불리는데, 于省吾의 『雙劍詒吉金圖錄』에서 “河北 順義縣에서 출토되었다(出於河北順義縣).”⁸⁸라고 하고 있다. 또한 그 시기 도 서주 중기고 족휘도 다르기 때문에 별고를 통해 다루고자 한다.

86 『集成』 10786, (시대) 西周초기, (출토지) 北京市 昌平縣 白浮龍山 養鹿場 2號墓(M2:36), (글자수) 1, (석문) 윤.

87 『集成』 10806, (시대) 西周초기, (출토지) 北京市 昌平 白浮龍山 養鹿場 2號墓(M2:35), (글자수) 1, (석문) ㄲ; 『集成』 10807, (시대) 西周초기, (출토지) 北京市 昌平 白浮龍山 養鹿場 2號墓(M2:35), (글자수) 1, (석문) ㄲ.

88 于省吾, 2009, 『雙劍詒吉金圖錄』, 中華書局, 123~124쪽.

〈표 1〉 北京市 順義縣 牛欄山 金牛村에서 발견된 청동기 명문⁸⁹

자료	시기	크기(cm)	銘文	출토지
『集成』6805	商代말기 或 西周초기		〔父〕己.	1982年 北京市 順義縣 牛欄山 金牛村 墓葬
『集成』7125	西周초기		亞父己.	
『集成』6402	西周초기	通高12, 口徑6.2, 底徑4.4	亞異父己.	
『集成』5078	西周초기		亞異父己.	
『集成』5742	西周초기		亞異父己.	
『集成』2374	西周초기	通高23.3, 口徑18.4	𠄎年比辛隣彝. 亞異矣.	
『新收』NA1945	西周초기	通高16.8, 口徑7, 腹深8	〔亞〕父己.	
『新收』NB1013	西周초기	通高16.8, 口徑7	亞異父己.	
『集成』3588	西周중기		屨乍壺白寶毀.	『雙劍詔吉金圖 錄』에 “河北 順義 縣 출토”라고 함.



89 『集成』2374, 5078, 5742, 6402, 6805, 07125는 같은 시기에 출토된 것이 확실하지만, 『新收』NA1945와 NB1013이 하나의 기물인지, 2개의 기물인지의 여부는 불확실하다고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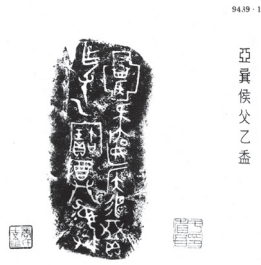


그림 48 『集成』 9439

〈표 1〉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처럼 현재의 北京市 順義縣지역에는 異族이 봉건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런 점에서 蘆溝橋 부근에서 출토된 ‘亞異戾矣戾易亞貝. 乍父乙寶隣彝.’의 명문을 가진 『集成』 9439⁹⁰도 牛欄山 부근이 원래 출토지거나 牛欄山과 밀접한 관계에 있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생각된다. 그렇지만 張亞初의 경우 노구교 출토 〈亞盃〉를 成王 혹은 康王으로 보고, 牛欄山 출토 기물들을 昭王과 穆王시기로 보고 있다.⁹¹

牛欄山の 異族에 대해서는 張亞初의 경우 이곳을 기족의 采地로 파악하고 있고,⁹² 李學勤이나 리펑 등은 기족을 포함한 동방족속들이 상의 관할 하에 있었음을 논하였다.⁹³ 심재훈 역시 異族 전체에 대한 일관성 있는 파악을 시도하

90 『集成』 9439, (시대) 西周초기, (출토지) 北京市 蘆溝橋 附近 出土(傳), (석문) 亞異戾矣戾易亞貝. 乍父乙寶隣彝.

91 張亞初, 1995, 「燕國青銅器銘文研究」, 陳光滙 편, 『燕文化研究論集』, 社會科學出版社, 227쪽.

92 張亞初, 위의 글, 1995, 223~235쪽.

93 李學勤, 2016, 「北京遼寧出土青銅器與周初的燕」, 『新出青銅器研究(增訂版)』, 人民美術出版社, 46~53쪽; Li Feng, 2006, *Landscape and Power in Early China: The Crisis and Fall of the Western Zhou, 1045-771 BC.*, Cambridge Univ. Press, 335~340쪽.

면서 牛欄山 출토 異族이 燕의 관할 하에 있었을 가능성에 동의하고 있다.⁹⁴

다음으로, 牛欄山 동쪽으로는 天津市 薊縣 張家園遺址 M4:2의 商代 말기 혹은 西周 초기로 비정되는 청동기 1점⁹⁵과 河北省 遷安縣 雞坨鎮 小山東莊 묘장에서는 商代 말기 혹은 西周 초기로 비정되는 2점의 청동기 『新收』 1301과 1302가 발견되었음은 Ⅱ장에서 살펴보았다. 상대 청동기로 비정되는 河北省 遷安縣 夏官營鎮 馬哨村의 『新收』 1303의 ‘卜’⁹⁶과 『신수』 1304의 상대 족휘가 명확한 ‘冉’의 명문⁹⁷과 함께 생각한다면 현재까지의 발굴 결과로는 서주세력이 河北省 薊縣 邦均鎮 張家園村을 넘어 더 동쪽으로 진출했다는 확실한 증거는 없다. 따라서 서주 초기의 청동기 명문이 주조된 牛欄山까지가 燕의 확실한 세력범위였던 것으로 보이며, 薊縣 張家園遺址 동쪽은 서주의 간접 지배를 받았을 가능성도 있지만 商의 세력이 張家園遺址 동쪽을 중심으로 流民化되어 저항했을 가능성도 있으므로, 이후의 발굴을 기다려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마지막으로 燕山산맥으로 들어가거나 넘어 서주 초기의 청동기 명문이 다수 발굴된 遼寧省 喀喇沁左翼蒙古族自治縣의 청동기 명문들과 河北省 興隆縣 小東區鄉 小河南村의 서주 초기 청동기 명문들에 대해서는 별고를 통해 그 성격을 다루고자 한다.

94 심재훈, 2018, 『청동기와 중국고대사』, 사회평론아카데미, ‘제9장 상주 청동기에 나타난 기족의 이산과 성쇠’를 참조(349~406쪽).

95 『新收』 1411, (시대) 商代말기 혹은 西周초기, (출토지) 天津市 薊縣 張家園遺址 M4:2, (석문) 天.

96 『新收』 1303, (시대) 商代말기, (출토지) 河北省 遷安縣 夏官營鎮 馬哨村, (석문) 卜.

97 『新收』 1304, (시대) 商代말기, (출토지) 河北省 遷安縣 夏官營鎮 馬哨村, (석문) 冉.

IV. 맺음말

그러면 지금까지 살펴본 서주 초기 有銘 청동기의 출토지를 지도에 구현해보자.

〈그림 49〉에 나타난 것처럼 서주 초기 琉璃河를 國都로 한 燕이 넓게는 지금의 河北 邢臺에서 琉璃河에 이르는 斜線을 지배하고, 다시 琉璃河를 중심으로 北京市 順義區 牛欄山地區 金牛村까지 지배한 것은 확실한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燕侯를 유리하에 봉건한 이유는, 첫 번째는 三監의 반란과 관계가 깊은 것으로 보인다. 三監 가운데 河北省 涿水縣 明義鄉에 위치했던 邶가 반란에 가담하면서 반란을 진압한 서주왕조의 입장에서는 邶를 대체하는 봉건국을 설정하여 이 지역을 관리할 필요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둘째, Ⅱ장에서 살펴본 것처럼 商은 현재의 石家莊 북쪽에서부터 燕山산맥이 시작되는 곳까지의 지배권을 놓고 太行산맥과 燕山산맥 북쪽의 북방세력과 공방전을 벌였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서주왕조는 상의 최대 판도였던 燕山산맥의 남쪽 기슭까지 장악하기 위하여 燕侯 아래 상족을 분산시켜서 재배치했던 것으로 보인다.



그림 49 서주 초기 有銘 청동기 출토지와 燕의 세력범위(직선의 안쪽은 확실한 서주의 세력범위)

그리고 琉璃河에서 발견된 車馬坑⁹⁸은 현재까지 太行산맥의 동쪽과 古황하의 서쪽 사이에서 발견된 가장 북쪽의 전차매장갱으로 서주시기 서주의 전차 군단이 이 지역까지 진출했음을 보여주는 증거이며, 주요 교통로는 太行산맥의 동쪽과 古황하의 서쪽 사이의 지금까지 살펴본 청동기 명문들이 발견된 遺址들이었을 것이다.

그렇지만 金牛村까지를 燕이 지배했는지, 아니면 金牛村를 넘어 동쪽으로 진출했는지는 분명하지 않다. 왜냐하면 河北省 薊縣 邦均鎮 張家園村이나 河北省 遷安市 野雞坨鎮 小山東莊村의 청동기 명문들은 그 시대가 ‘상대 말차 혹은 서주 초기’로 비정되기 때문이다. 이 지역에 서주세력이 진출하였는가, 아니면 은상의 유민이 이쪽을 근거지로 상에 저항하였는가는 앞으로 청동기 명문의 출토 상황을 지켜보아야 할 것으로 보인다. 비슷한 이유로 燕山산맥으로 들어가거나 燕山산맥을 넘어 위치한 遼寧省 喀喇沁左翼蒙古族自治縣에서 발견된 서주 초기의 청동기 명문들과 河北省 興隆縣 小東區鄉 小河南村의 서주 초기 청동기 명문들에 대해서는, 서주 초기 서주세력의 진출인지, 서주 초기의 마지막 단계에서 燕이 멸망하면서 약탈당하거나 이주당한 사람들의 기물인지에 대해서는 문화유형과 관련지어 별고를 준비하고 있다.

98 印群, 2011, 「談琉璃河遺址殷遺民墓之隨葬車馬坑」, 『三代考古』 2011.

참고문헌

- 郭大順·張星德, 2008, 『동북문화와 유연문명(하)』 동북아역사재단.
- 김정열, 2012, 『서주국가의 지역정치체 통합연구』 서경문화사.
- 李清圭, 2005, 「青銅器를 통해 본 고조선과 주변사회」, 『北方史論叢』 6.
- 박준형, 2012, 「대릉하~서북한지역 비파형동검문화의 변동과 고조선의 위치」, 『한국고대사연구』 66.
- 배진영, 2008, 『西周時期 北京地域 政治體 - 周初 中原 勢力的 北京 進入과 衝突 -』, 『中國史研究』 53집.
- _____, 2009, 『고대 北京과 燕문화』, 한국학술정보.
- 송호정, 2003, 『한국고대사 속의 고조선사』, 푸른역사.
- 심재훈, 2018, 『청동기와 중국고대사』, 사회평론아카데미.
- 오강원, 2004, 「中國 東北地域 세 青銅短劍文化의 文化地形과 交涉關係」, 『선사와 고대』 20.
- _____, 2013, 「청동기~철기시대 요령·서북한지역 물질문화의 전개와 고조선」, 『東洋學』 53.
- 이청규, 2008, 「중국동북지역과 한반도 청동기문화의 연구성과」, 『중국 동북지역 고고학 연구 현황과 문제점』, 동북아역사재단.
- 조진선, 2010, 「요서지역 청동기문화의 발전과정과 성격」, 『요하문명의 확산과 중국 동북지역의 청동기문화』, 동북아역사재단.
- _____, 2014, 「中國 東北地域의 青銅器文化와 古朝鮮의 位置 變動」, 『東洋學』 56.
- 천선행, 2010, 「비파형동검문화 성립 전후 요서지역 토기문화의 전개」, 『요하문명의 확산과 중국 동북지역의 청동기문화』, 동북아역사재단.
- 郭沫若, 1954, 『金文叢考』, 人民出版社.
- 靳楓毅, 1982(上), 1983(下), 「論中國東北地區含曲刃青銅短劍的文化遺存」, 『考古學報』 1982-4(上), 1983-1(下).
- _____, 1987, 「夏家店上層文化及其族屬問題」, 『考古學報』 1987-2.

- 金景芳, 1983, 『中國奴隸社會史』, 上海人民出版社.
- 內蒙古自治區考古學會 等, 1982, 『內蒙古文物考古』 2期.
- 唐蘭, 1986, 『西周青銅器銘文分代史徵』 卷2, 中華書局.
- 羅振玉, 1917, 『夢郿艸堂吉金圖』.
- 劉國祥, 2000, 「夏家店上層文化青銅器研究」, 『考古學報』 2000-4.
- 李學勤, 2016, 「北京遼寧出土青銅器與周初的燕」, 『新出青銅器研究(增訂版)』, 人民美術出版社.
- 北京市文物管理處, 1977, 「北京市平谷縣發現商代墓葬」, 『文物』 1977-11.
- 孫華, 1992, 「匜侯克器銘文淺見—兼談召公建燕及相關問題」, 『文物春秋』 1992-3.
- 楊寬, 1999, 『西周史』, 上海人民出版社.
- 烏恩岳斯圖, 2007, 『北方草原考古學文化研究』, 科學出版社.
- 王國維, 1959, 『觀堂集林』, 中華書局.
- 于省吾, 2009, 『雙劍詒吉金圖錄』, 中華書局(원간은 1934년).
- 印群, 2011, 「談琉璃河遺址殷遺民墓之隨葬車馬坑」, 『三代考古』 2011.
- 張亞初, 1995, 「燕國青銅器銘文研究」, 陳光滙 編 『燕文化研究論集』, 社會科學出版社.
- 翟良富·尹晓燕, 「河北遷安縣小山東莊西周時期墓葬」, 『考古』 1997-4.
- 晁福林, 1993, 「試論西周分封制的若干問題」, 『西周史論文集』(下), 陝西人民教育出版社.
- 鍾柏生·陳昭容·黃銘崇·袁國華 編, 2006, 『新收殷周青銅器銘文暨器影彙編』, 藝文印書館.
- 朱永剛, 1987, 「夏家店上層文化的初步研究」, 『考古學文化論集』 1, 文物出版社.
- _____, 1997, 「大,小凌河流域含曲刃短劍遺存的考古學文化及相關問題」, 『內蒙古文物考古文集』 2, 中國大百科全書出版社.
- 中國社會科學院考古研究所 編, 2007, 『殷周金文集成(修訂增補本)』, 中華書局.
- 許倬雲, 1993, 『西周史』, 聯經出版事業公司.
- 侯志義, 1989, 『采邑考』, 西北大學出版社.
- 宮本一夫, 2000, 「戰國燕的擴大」, 『中國古代北疆史的考古學的研究』, 中國書店.
- 秋山進午, 1968(上·中), 1969年(下), 「中國東北地方の初期金屬器文化の様相(上·中·下)—考古資料とくに青銅短劍を資料として—」, 『考古學雜誌』 53-4, 54-

1, 54-4.

Li Feng, 2006, *Landscape and Power in Early China: The Crisis and Fall of the Western Zhou, 1045-771 BC.*, Cambridge Univ. Press.

연(燕)의 형성 전후 접경의 변화

- 상(商) 후기, 서주(西周) 초기 태항산맥(太行山脈) 동쪽 출토 청동기 명문(銘文)의 분석 -

민후기

이 글은 有銘 청동기의 출토 상황을 정리하여 商과 西周세력이 太行산맥 동쪽 지역에서 북쪽으로 어디까지 진출했는가를 살펴보고자 했다. 그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우선, 商시기의 有銘 청동기의 출토 정황을 살펴보았다. 그 결과 商의 수도가 있었던 河南省 安陽에서 易縣까지 有銘 청동기가 촘촘하게 출토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商의 세력이 易縣까지 진출한 것은 확실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易縣의 북쪽 天津市 薊縣 張家園遺址, 河北省 遷安縣 小山東莊, 그리고 河北省 遷安縣 夏官營鎮 馬哨村 묘장 등에서도 ‘상 혹은 서주 초기’로 그 시기가 비정된 有銘 청동기들이 나타나고 있다. 그렇지만 이들 지역은 商세력이 진출한 최대 판도인지, 西周세력이 새로이 진출한 최대 판도인지, 殷商의 遺民들이 이주하여 저항한 흔적인가를 판단하기 어렵다.

다음으로 西周 초기의 有銘 청동기의 출토 정황을 살펴보았다. 有銘 청동기 출토 정황을 볼 때 서주 초기 琉璃河에 있었던 燕이 지금의 河北 邢臺에서 琉璃河까지, 그리고 琉璃河에서 北京市 順義區 牛欄山地區 金牛村까지 지

배한 것은 확실한 것으로 보인다. 그렇지만 金牛村까지가 燕의 지배하에 있었는지, 아니면 燕이 더 동쪽으로 진출하였는가는 분명하지 않다. 왜냐하면 河北省 薊縣 邦均鎮 張家園村이나 河北省 遷安市 野雞坨鎮 小山東莊村的 청동기 명문들은 그 시대가 ‘상대 말기 혹은 서주 초기’로 비정되기 때문이다. 이 지역에 서주세력이 진출하였는지, 아니면 殷商 유민들이 이쪽을 근거지로 상에 저항하였는지는, 앞으로 관련 자료의 발굴 상황을 지켜보아야 할 것으로 보인다.

주제어: 상, 서주, 태항산맥, 연산산맥, 연나라

ABSTRACT

The Transition of the Frontier Lines in the East of the Taihang (太行) Mountains in the Late Shang Dynasty and Early Western Zhou Dynasty

Min Hooki

This article summarizes the background of the excavated bronzeware based upon the characters on it to see how far the Shang Dynasty and the early Western Zhou Dynasty had advanced north from the eastern part of the Taihang Mountains. As a result, the following conclusions have been obtained:

First, we examined the excavation situation of the bronzeware engraved with the characters of the Shang Dynasty. As a result, we could see that the bronzeware with characters was excavated consecutively from AnYang (安陽), the capital city of the Shang Dynasty to Yi-xian (易縣). Therefore, it seems certain that the power of the Shang Dynasty reached Yi-xian (易縣). In addition, the bronzeware with characters was excavated from the tombs of Tianjin (天津市) Ji-xian (薊縣) Zhangjiayuan (張家園), Hebei (河北) Qianan-xian (遷安縣) Xiaoshandongzhuang (小山東莊), and Hebei (河北) Qianan-xian (遷安

縣) Xiaguanyingzhen (夏官營鎮) Mashaocun (馬哨村). However, it is hard to determine whether these regions cover the entire area that the Shang Dynasty entered, the entire area that the Shang Dynasty newly entered, or this is a trace of the remnants of the Shang Dynasty.

Next, we examined the excavation of the bronzeware engraved with the characters of the early period of the Western Zhou Dynasty. Looking at the excavation of the Bronzeware engraved with the characters, it seems certain that the country of Yan (燕) in early Western Zhou Dynasty ruled from today's Hebei (河北) Xingtai (邢臺) to Liulihe (琉璃河), and from Liulihe to Beijing's Mountain Niulan (牛欄山). It is not clear, however, whether Yan (燕) went further east. It will be necessary to observe the excavation of the bronzeware engraved with the characters.

Keywords: Shang Dynasty, Western Zhou dynasty, Taihang Mountains, Yanshan Mountains, Yan (燕) country

하북~요서지역 북방계통 청동단검문화의 전개와 성격

— 하가점상층문화와 옥황묘문화를 중심으로

이후석 | 송실대학교 사학과 초빙교수

- I. 머리말
- II. 하북~요서지역 청동단검문화 성격론의 동향
- III. 북방계통 청동단검문화의 전개와 특징
- IV. 북방계통 청동단검문화의 배경과 성격
- V. 맺음말

I. 머리말

중국 동북지역에서 북방계통 청동단검문화는 보통 요령계통 청동단검문화, 즉 비파형동검문화에 대비되는 문화권(Cultural Area)의 개념으로 이해되고 있다. 두 청동단검문화는 서주시대 이래 춘추전국시대까지 지역권을 달리하여 유행하였으며, 양식적인 측면에서 분포권이 뚜렷하게 구분되어 주민집단의 구성이나 성격 역시 달리 인식되고 있다.

중국 동북지역의 북방계통 청동단검문화는 서주~춘추시기 하북지역과 요서지역의 접경지대에서 크게 유행하였는데, 그 전개 과정에서 확인되는 지역문화로는 내몽고 동남부지역의 하가점상층문화와 정구자문화, 하북 북부지역의 옥황묘문화가 설정되어 있다. 또한 그 문화적인 연원으로 시베리아지역의 청동기문화가 언급되며, 가깝게는 몽골-자바이칼 일대의 초원계통 물질문화가 지목되고 있다.

북방계통 청동단검문화는 한국 선사문화와의 관련성이 적다 보니 그동안의 연구들은 주로 중국이나 일본 학계를 중심으로 진행되어 왔다. 국내 학계의 연구들은 많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나마도 비파형동검문화나 고조선사와의 관련성에 주목하는 것이 대부분이었고, 해당 문화 자체의 연구 동향이나 문화 내용을 종합적으로 다룬 것은 별로 없다.¹ 그리하여 북방계통 청동단검문화의 성격이나 담당자에 대한 논의들도 선진문헌에서 확인되는 산용, 동호 등의 종족이나 정치

* 투고: 2018년 11월 13일, 심사 완료: 2019년 1월 29일, 게재 확정: 2019년 2월 15일

1 최근 시베리아-장성지대의 '북방문화'를 소개하는 개설서가 간행되어 주목된다(중앙문화재연구원 편, 2018, 『북방고고학개론』, 진인진). 여기에서 '북방계통'은 '북방초원계통'의 약자임을 밝혀둔다. 관련 용어 사용에 대해서는 다음 글이 참조된다. 姜仁旭, 2007, 「中國 오르도스(鄂爾多斯) 青銅器의 概念과 初期研究에 대한 檢討-骨董學에서 新中國 成立以前까지」, 『中國史研究』 48, 中國史研究會.

체를 관련 고고문화에 직접 대입하는 방식에서 크게 진척되지 못한 상황이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연구성과를 한 단계 더 제고하기 위해서는 관련 자료에 대한 재정리를 바탕으로 우리 시각에서 비판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 선진 문헌이나 한대 문헌에서 언급되는 북방 종족이나 정치체는 관련 내용이 소략하고 후대 인식까지 더해져서 그 실체를 파악하기 쉽지 않다.² 이에 중국 동북 방면에서 활동했던 선진시기 주민집단의 동향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문헌사료에 대한 비판적인 인식 외에 청동단검문화 단계의 고고자료를 충분하게 고려해야 한다.

하북~요서지역의 고고문화에 대한 활용 역시 해당 자료의 시공간성과 문화 특징에 대한 규명부터 선행해야 한다. 북방계통 청동단검문화는 비파형동검문화와 달리 청동단검 양식이나 유물 구성이 다양하며, 주변 문화와의 상호작용이 매우 활발하여 정체성을 판단하기 쉽지 않기 때문이다. 물론 북방계통 청동단검이나 토기 양식, 또는 특정 묘제에도 주민집단의 정체성이 일정하게 표현되었다고 생각된다. 다만 그 분포권이 주민집단의 종족성을 바로 반영하지 않는다는 점과 함께 종족성은 고정불변의 것이 아니라는 점을 충분하게 고려해야 한다.³

선진 문헌에서 확인되는 북방 종족이나 집단 중에 하북~요서지역의 북방계통 청동단검문화와 가장 많이 겹쳐지는 것은 바로 춘추시대에 활동했던 산융 집단이다. 산융(또는 북융)은 중원지역까지 침입했던 적도 있고, 연국이나 제국과의 전쟁 대상으로 자주 언급된다. 산융 집단에 대한 기존 연구에서 하가점상층 문화나 옥황묘문화와 같은 북방계통 청동단검문화에 주목했던 것은 바로 그와 같은 사정 때문이다.

여기서는 이와 같은 점을 고려하여 춘추시대 전후 하북~요서지역에서 확인

2 박대재, 2013, 『중국 고문헌에 나타난 고대 조선과 예맥』, 경인문화사.

3 김정열, 2018, 「고고문화와 민족-중국학계의 시각에 대한 비판적 검토」, 『동북아 역사논총』 62; 김종일, 2008, 「고고학 자료의 역사학적 해석에 대한 비판적 고찰」, 『한국고대사연구』 52; 이성주, 2006, 「韓國 靑銅器時代 ‘社會’考古學의 問題」, 『古文化』 68; 이청규, 2018, 「고고학에서 본 민족·종족의 형성」, 『신화의 역사화』, 진인진.

되는 북방계통 청동단검문화의 전개 과정을 하가점상층문화와 옥항묘문화를 중심으로 검토하고, 그 역사적·문화적 배경에 대한 고찰을 바탕으로 기존 성격 논의의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한 대안을 제시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먼저 하가점상층문화와 옥항묘문화의 최근 연구성과에 의거하여 시기별·지역별 변천 과정과 주변 문화와의 교류 관계를 살펴보려 한다. 그 다음에 두 청동단검문화의 시공간성을 바탕으로 문화 내용의 상이성과 상사성을 함께 주목하여, 그 역사적인 배경과 성격을 산용 관련 논의와 함께 추정해보고자 한다. 본 연구가 연의 북방이자 고조선의 서방에서 전개됐던 역사문화상을 복원하는 데에 일부나마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II. 하북~요서지역 청동단검문화 성격론의 동향

하북~요서지역의 춘추시대 물질문화는 크게 북방계통 청동단검문화와 요령계통 청동단검문화로 구분된다. 이에 북방계통이나 요령계통 청동단검문화의 범주를 어디까지 볼 것이냐에 따라 그 전개 과정은 물론 역사적인 성격까지 달리 규정된다. 이를테면 일본이나 중국 학계의 경우 두 계통의 물질문화를 모두 산용이나 동호 등의 비중원계 주민집단으로 보는 견해들이 많고, 국내 학계의 경우에는 요령계통의 청동단검문화를 구분하여 예맥이나 고조선과 관련되는 토착집단으로 이해하는 견해들이 많다.⁴ 그러므로 하북~요서지역의 청동단검문화를 그동안 어떤 성격으로 규정하여 왔는지를 확인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요하유역 청동단검문화의 담당자를 예맥이나 고조선이 아닌 산용이나 동호 등의 북방계통 주민집단으로 보게 된 것은 중국이나 일본 학계의 과거 연구 전

4 이하 본 장의 내용들은 다음 글을 수정·보완하여 다시 정리하였음을 밝혀둔다. 이후석, 2017a, 「고고학을 통해 본 초기 고조선의 성장과정-십이대영자문화의 변천 과정을 중심으로」, 『崇實史學』 38; 2017b, 「북방계통 물질문화와 山戎·東胡」, 『湖南文化財研究』 23.

통에 기인한다. 이를테면 1930년대 일본 연구자가 적봉(赤峰) 홍산(紅山) 유적을 조사한 후 청동기시대의 ‘적봉 2기문화’ 유물들을 동호 등과 관련시켜 본 이래, 1958년 중국 연구자는 영성(寧城) 남산근(南山根) 유적과 조양(朝陽) 십이대영자(十二臺營子) 유적에서 북방계로 인식되는 청동기군을 확인하자 그 담당자를 역시 동호라고 보게 된다. 왜냐하면 이때에는 고고학적 조사연구가 충분하지 않은 상황에서 전통적인 역사인식 하에 청동단검문화를 모두 춘추말~전국초 또는 전국시대로 잘못 편년했기 때문이다.

내몽고 동남부지역과 요서지역의 청동단검문화가 청동기시대의 후기문화 또는 춘추시대를 전후로 한 물질문화임이 밝혀지게 된 것은, 1960년 적봉(赤峰) 하가점(夏家店) 유적과 1961년 영성 남산근 유적의 발굴성공에 기인한다. 중국 학계는 이를 하가점상층문화로 명명하고,⁵ 그 범위를 내몽고 동남부(남산근유형)를 중심으로 하여 요서지역(십이대영자유형)까지 포함시켜 보았는데,⁶ 이후 이 문화의 담당자를 동호라고 보는 견해들이 증가한다.⁷

이와 같은 주장들은 1985년부터 1991년까지 옥황묘(玉皇廟), 호로구(葫蘆溝), 서량광(西梁堯) 등의 연경 일대 유적에서 북방계통의 대형 묘지가 다수 조사되고 이를 ‘산용문화’로 보게 됨에 따라 더욱 강화되었지만,⁸ 지나치게 올려보는 연대관에 대해서는 많은 논란을 남겼다. 이에 연대관을 조정하여 약간 내려 보고 ‘복신보문화’나 ‘북적문화’로 다시 명명한 후, 산용 외의 다른 유적 집단들에 비정하는 견해들이 나오기에 이르렀다.⁹ 이후 하북 북부지역의 청동단검문

5 劉觀民·徐光冀, 1981, 「內蒙古東部地區青銅時代的兩種文化」, 『內蒙古文物考古』 1981-1; 中國科學院考古研究所內蒙古工作隊, 1974, 「赤峰藥王廟, 夏家店遺址試掘報告」, 『考古學報』 1974-1.

6 靳楓毅, 1983, 「論中國東北地區含曲刃青銅短劍的文化遺存(下)」, 『考古學報』 1983-1.

7 靳楓毅, 1987, 「夏家店上層文化及其族屬問題」, 『考古學報』 1987-2; 林幹, 1989, 『東胡史』, 內蒙古人民出版社.

8 靳楓毅, 1991, 「軍都山山戎文化墓地葬制與主要器物特徵」, 『遼海文物學刊』 1991-1.

화는 옥황묘문화로 확정된다.¹⁰

이에 비해 일본 학계는 일찍부터 내몽고 동남부지역과 요서지역의 청동단검 문화를 서로 다른 양상으로 인식하여 왔다. 1960년대부터 영성 남산근 유적과 조양 십이대영자 유적의 문화 성격을 서로 다르다고 보고, 하가점상층문화는 산용 집단, 요령식동검문화(십이대영자문화)는 동호 집단과 각각 관련시켜 이해했다.¹¹ 이는 일본 학계의 많은 연구자가 지지하는 견해라고 할 수 있다.¹² 다만 최근에는 하가점상층문화와 십이대영자문화를 구분한 뒤, 십이대영자문화를 동호나 산용과 구별되는 주민집단이 영위했던 물질문화로 인정하는 추세이다.¹³

한편, 중국 학계도 내몽고 동남부지역과 요서지역의 청동단검문화가 다르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하가점상층문화(남산근유형)와 십이대영자문화(십이대영자유형)의 일부 유물에서 차별성이 지적되고 난 후¹⁴ 여러 문화 요소에서 이 질적인 면이 드러남에 따라,¹⁵ 하가점상층문화와 십이대영자문화는 서로 다른

-
- 9 林濤, 1995, 「東胡與山戎的考古探索」, 『環渤海考古國際學術研討會論文集』, 知識出版社; 陳平, 1995, 「略論“山戎文化”的族屬及相關問題」, 『華夏考古』 1995-3; 韓嘉毅, 1994, 「從軍都山東周墓地談山戎·胡·東胡的考古學文化歸屬」, 『內蒙古文物考古文集』 1.
 - 10 靳楓毅, 2001, 「軍都山玉皇廟墓地的特徵及其族屬問題」, 『蘇秉琦與當代中國考古學』, 科學出版社; 楊建華, 2003, 「再論玉皇廟文化」, 『邊疆考古研究』 2. ‘옥황묘문화’라는 용어 그 자체는 1997년 佟柱臣이 처음 사용하였다고 한다.
 - 11 秋山進午, 1969, 「中國東北地方の初期金屬器文化の様相—考古資料とくに青銅短劍を中心として—(下)」, 『考古學雜誌』 54-4.
 - 12 加藤謙一, 1998, 『匈奴 帝國』, 第一書房; 宮本一夫, 2000, 「遼寧式銅劍文化圈とその社會」, 『中國古代北疆史の考古學的研究』, 中國書店.
 - 13 吉本道雅, 2009, 「先秦時代の內蒙古東南部における考古學的諸文化—近年の環境考古學的研究に寄せて—」, 『史林』 92-1; 石川岳彦, 2009, 「紀元前 10世紀前後の遼東·遼西」, 『彌生時代の考古學2: 彌生文化誕生』, 同成社.
 - 14 林濤, 1980, 「中國東北系銅劍初論」, 『考古學報』 1980-2; 王成生, 1985, 「遼河流域及隣近地區短劍曲刃劍研究」, 『遼寧省博物館學術論文集』; 朱永剛, 1987, 「夏家店上層文化的初步研究」, 『考古學文化論集』 1, 文物出版社.
 - 15 朱永剛, 1997, 「大, 小凌河流域含曲刃青銅短劍遺存的考古學文化及相關問題」, 『內蒙古文物考古文集』 2.

물질문화로 인정하게 되었으며, 최근에는 심양(瀋陽) 정가와자(鄭家窪子) 유적으로 대표되는 요하평원 일대의 정가와자유형 유적까지 십이대영자문화에 포함시켜 논의하고 있다.¹⁶ 이제 하가점상층문화는 산용문화, 십이대영자문화는 예맥 등의 문화로서 인정되는 추세이다.¹⁷

이와 같은 연구성과는 한국 학계에도 상당부분 수용되었는데, 하가점상층문화와 옥황묘문화는 내몽고 동남부지역과 하북 북부지역에서 유행했던 북방계통 청동단검문화이며, 십이대영자문화는 요서-요중지역을 중심으로 유행했던 토착계통 청동단검문화라는 점이 밝혀지게 되었으며, 이에 따라 두 문화권의 담당자를 서로 다른 집단으로 보게 된 것은 가장 의미 있는 성과라고 할 수 있다.¹⁸

Ⅲ. 북방계통 청동단검문화의 전개와 특징

1. 하가점상층문화

하가점상층문화는 보통 서주 전기~춘추 중기(또는 기원전 11~6세기대) 무렵 내몽고 동남부의 칠로도산에서 노로아호산에 걸친 산간지대에서 유행했던 후기 카라속계-스키토시베리안 단계의 북방계통 청동단검문화로 이해된다. 초기에

16 烏恩岳斯圖, 2007, 『北方草原考古學文化研究』, 科學出版社; 劉國祥, 2000, 「夏家店上層文化青銅器研究」, 『考古學報』 2000-4.

17 林滢, 1995, 「東胡與山戎的考古探索」, 『環渤海考古國際學術研討會論文集』, 知識出版社.

18 姜仁旭, 2018, 「초기 고조선 네트워크의 형성과 비파형동검문화」, 『한국고고학보』 106.; 吳江原, 2004, 「中國 東北地域 세 靑銅短劍文化의 文化地形과 交涉關係」, 『선사와 고대』 20; 이청규, 2008, 「중국 동북지역과 한반도 청동기문화 연구의 성과」, 『중국 동북지역 고고학 연구현황과 문제점』, 동북아역사재단; 이후석, 2017a, 앞의 글; 조진선, 2010, 「요서지역 청동기문화의 발전과정과 성격」, 『요하문명의 확산과 중국 동북지역의 청동기문화』, 동북아역사재단.

는 자바이칼-몽골 일원의 북방계통 물질문화를 수용하여 발전하며, 후기에는 중원계통이나 요령계통 문화요소까지 수용하여 중국 북방에서 가장 역동적인 문화 양상을 나타낸다.

하가점상층문화 유적들은 현재의 적봉시 일원을 중심으로 분포하며, 북쪽으로 시라무렌하의 임서 일원, 서쪽으로 난하 상류 양안의 용화-풍녕 일원, 남쪽으로 청룡하-대릉하 상류의 청룡-능원 일원, 동쪽으로 맹극하의 내만기-고륜기 일원까지 각각 확인되고 있어, 십이대영자문화나 옥황묘문화의 분포권과 일부 중첩된다.

초기 중심지는 임서 대정, 극십극등기 용두산, 옹우특기 대포자 등의 유적으로 대표되는 시라무렌하 일원이며, 후기 중심지는 영성 남산근과 소흑석구, 북산취 등의 유적으로 대표되는 노합하 중상류 일원이다. 각각 ‘용두산유형’과 ‘남산근유형’이 설정되었는데,¹⁹ 최근에는 난하 중상류의 유적군을 따로 구분하고 있다(도면 1).²⁰ 또한 처음에는 냉량 건조 환경이었다가 점차 온난해지면서 목축과 농업을 겸업하는 혼합농경이 발달했던 것으로 이해되고 있다.²¹

하가점상층문화의 상한과 하한의 연대관에 대해서는 다소 불분명한 점이 있다. 이는 기본적으로 성립 단계와 소멸 단계의 유적 수나 편년상의 변별력이 아직 충분하지 않기 때문이다. 다만 유행시기는 상말~주초²² 또는 서주 전기²³ 무

-
- 19 烏恩岳斯圖, 2007, 『北方草原考古學文化研究』, 科學出版社.
 - 20 朱永剛, 2004, 「夏家店上層文化向南的分布態勢與地域文化變遷」, 『慶祝張忠培先生七十歲論文集』, 科學出版社.
 - 21 王立新, 2004, 「遼西地區夏至戰國時期文化格局與經濟形態變遷」, 『考古學報』2004-3.
 - 22 姜仁旭, 2005, 「夏家店上層文化의 형성과 유라시아의 초원문화」, 『동북아시아의 청동기시대-동검과 묘제를 중심으로-』, 2005년 서울경기고고학회 춘계학술대회; 吳江原, 2004, 「中國 東北地域 세 靑銅短劍文化의 文化地形과 交涉關係」, 『선사와 고대』20; 朱永剛·王立新, 2006, 「西拉木倫河流域先秦時期文化遺存的編年與譜系研究」, 『邊疆考古研究』4.
 - 23 烏恩岳斯圖, 2007, 『北方草原考古學文化研究』, 科學出版社; 劉國祥, 2000, 「夏家店上層文化靑銅器研究」, 『考古學報』2000-4; 井中偉, 2012, 「夏家店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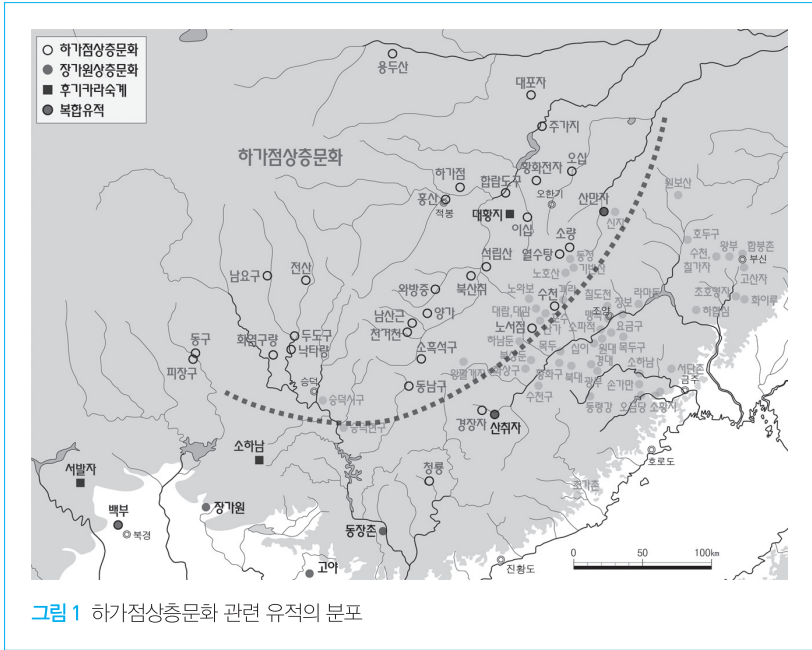


그림 1 하가점상중문화 관련 유적의 분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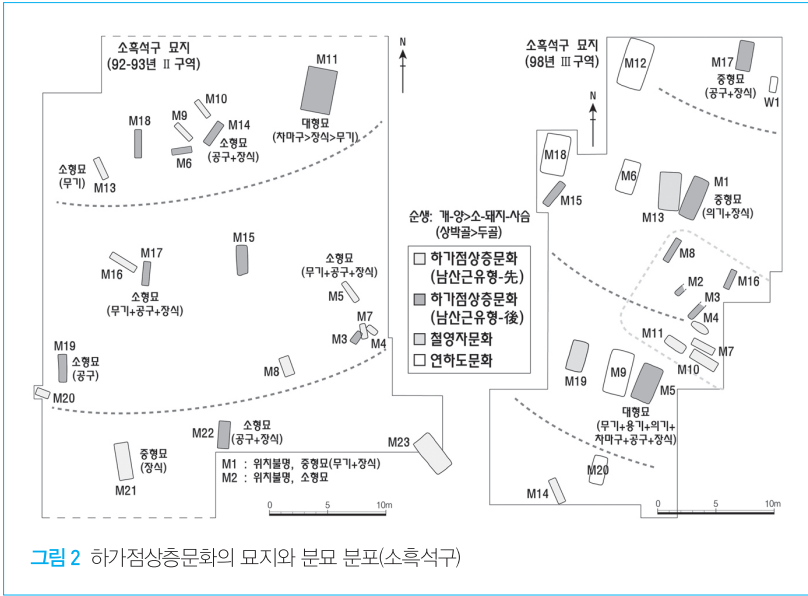
렵부터 춘추 중기²⁴ 또는 춘추 후기²⁵ 무렵까지 보는 견해들이 통설화된 상태이다.

하가점상중문화의 특징적인 면은 그 중심지인 영성 일대 분묘유적에서 가장 잘 확인된다. 남산근유형의 수장층은 중대형의 석곽묘를 조영하였는데, 종종 적석시설이 부가된다. 중소형의 간략화된 석관묘나 토광묘도 확인된다. 묘향은 등고선과 직교되는 남북 방향에서 크게 어긋나지 않게 조영된다. 두향 남동쪽의 분묘들이 선행하고, 남서쪽의 분묘들이 후행하는 예도 확인된다. 피장자는 측

上層文化的分期與原流, 『邊疆考古研究』 12; 趙賓福, 2007, 「遼西山地夏至戰國時期考古學文化時空檣架研究的再檢討」, 『邊疆考古研究』 5.

24 姜仁旭, 2005, 앞의 글; 烏恩岳斯圖, 2007, 앞의 글; 井中偉, 2012, 앞의 글; 朱永剛·王立新, 2006, 앞의 글.

25 吳江原, 2004, 앞의 글; 劉國祥, 2000, 앞의 글.



와굴신장(側臥屈身葬)과 양신직지장(仰身直肢葬)의 장법으로 안치되었으며, 동물 순생은 개와 양이 가장 많고, 소와 돼지 등의 두개골과 상박골도 확인된다(그림 2).

무덤 규모는 100기 내외가 분포하는 소흑석구 묘지에서 가장 잘 확인된다. 소흑석구 분묘들의 묘광 크기를 고려하면, 크게 대형(長 320~380cm, 幅 156~260cm)-중형(長 240~320cm, 幅 70~160cm)-소형(長 240cm 이하, 幅 80cm 이하)의 3개 유형으로 구분되며,²⁶ 부장유물 중에 무기류, 공구류, 예기류, 차마구류, 장식류 등의 청동유물 조합관계를 고려하면 4개 등급, 북방계통 물질문화의 특성과도 관련되는 골각기와 부장품이 없는 무덤들을 고려하면 최

26 소흑석구 85A I M1은 유일하게 초대형(長 540cm, 幅 300cm)에 해당된다. 그렇지만 원고와 도면의 묘광 크기가 석곽이나 목관 크기와는 어울리지 않아 보고서의 출판 과정에서 일부 착오가 있었던 것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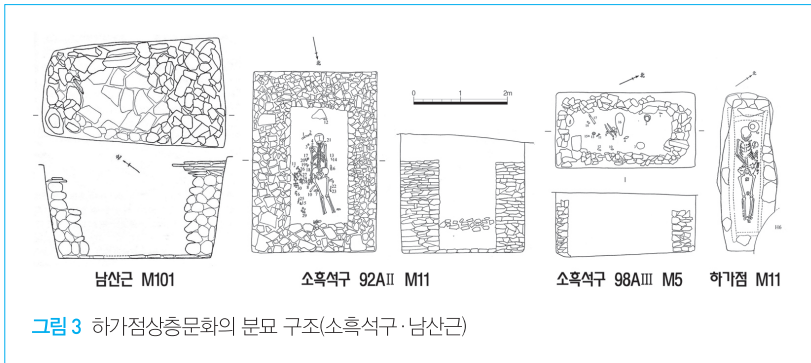


그림 3 하가점상층문화의 분묘 구조(소혹석구·남산근)

대 5개 등급으로 구분된다. 대형묘는 남산근 101호묘와 102호묘, 소혹석구 92년 11호묘 등이 대표적인 사례인데, 소혹석구 1958년 도굴분묘, 8501호묘, 9601호묘, 북산취 7501호묘 등과 같은 후장묘도 이에 속할 가능성이 높다(그림 3).

분묘 간의 상관관계를 살펴보면, 남산근과 소혹석구 묘지에서 확인되는 최상위급 수장묘는 최대 10기 내외인데, 대형 석곽묘는 많은 동물 순생이 확인되며, 여러 계통의 청동유물이 다종다량 부장되는 점이 특징이다. 특히 투구·쌍련검초(雙連劍鞘) 등의 청동무구와 중원계통 청동예기, 산개(傘蓋)·고삐걸이 등의 청동차구는 상위등급 무덤에만 부장된다. 또한 소혹석구 묘지의 분묘들은 완사면에 각각 3개 그룹으로 소구역을 달리하여 종상으로 조영되었는데, 전체적으로는 중대형묘 주변으로 5~10기의 중소형묘가 배치되어 있는 점이 특징이다(그림 2).²⁷

유적 간의 상관관계는 남산근유형의 상위유적에 해당되는 남산근과 소혹석구, 북산취를 통해 추정된다. 노합의 상류에서 소혹석구와 남산근은 약 20km 이격되어 있고, 주변에는 10개소 내외의 유적들이 밀집되어 있다. 이에 비해 노합의 중류 방면에서 북산취는 소혹석구에서 약 40km 거리이며, 그 사이에는

27 李厚錫, 2017b, 앞의 글.

3~4개소의 중위유적들이 분포한다. 이는 영성 일대 상위집단 간의 관계망이 노합하의 상류 반경 20~40km 범위에서 매우 긴밀하게 작용하였으며, 이곳에서 유적 밀집도가 높은 것도 중원문화와 북방초원문화가 교차하는 입지 환경 때문으로 생각된다.

한편 하가점상층문화 남산근유형의 정체성을 나타내는 특징적인 유물에는 공병식동검과 청동검초 같은 청동무기와 함께 삼족계통 취사용기(筒腹甬·雙耳鼎)가 주목된다. 공병식동검은 재지적인 전통하에 제작되었다고 보는 견해²⁸ 외에, 백부유형의 카라속계 동검에서 비롯되었다고 본다거나,²⁹ 상말~주초 단계의 유엽형동모를 동검화하였을 가능성이 제기되어 있다.³⁰ 쌍련검초 모양으로 보아 장검과 단검이 조합되어 사용되다 나중에는 단검만이 사용되는 것 같다.³¹

또한 상위 분묘에는 동쌍이정(銅雙耳鼎), 동력(銅甬), 동두(銅豆), 동합(銅盒), 동원저기(銅圓低器) 등의 독자적인 청동용기가 확인되는 점이 특징이다. 유병식동검(돌기형검격), 무경식양익축, 복합식의 청동재갈, 죽절형당로, 치병동도, 조형동식, 홍색마연 도두(陶豆), 도쌍이분(陶雙耳盆) 등도 전형적인 유물이라 할 수 있다(그림 4).

한편, 중원계통의 청동무기와 청동예기를 비롯하여 요령계통의 청동무기와 청동의기, 청동차마구도 출토되고 있어 주변 세력과 다양하고 빈번하게 교류하였으며, 외래문화에 대한 수용력이 높았음을 알 수 있다. 중원계통 청동무기나 청동예기는 전쟁(약탈)으로 인한 이차적인 유입으로 설명된다.³² 이에 비해 비파

28 姜仁旭, 2005, 앞의 글.

29 吳江原, 1997, 「西遼河上流域 青銅短劍과 그 文化에 관한 研究」, 『韓國古代史研究』 12; 朱永剛, 1992, 「試論我國北方地區 罽柄式柱脊短劍」, 『文物』 1992-12.

30 小林青樹, 2016, 「遼寧青銅器文化」, 『季刊 考古學』 35, 雄山閣.

31 小林青樹, 2016, 앞의 글.

32 김정열, 2011, 「하가점상층문화에 보이는 중원식 청동예기의 연대와 유입경위」, 『한국상고사학보』 7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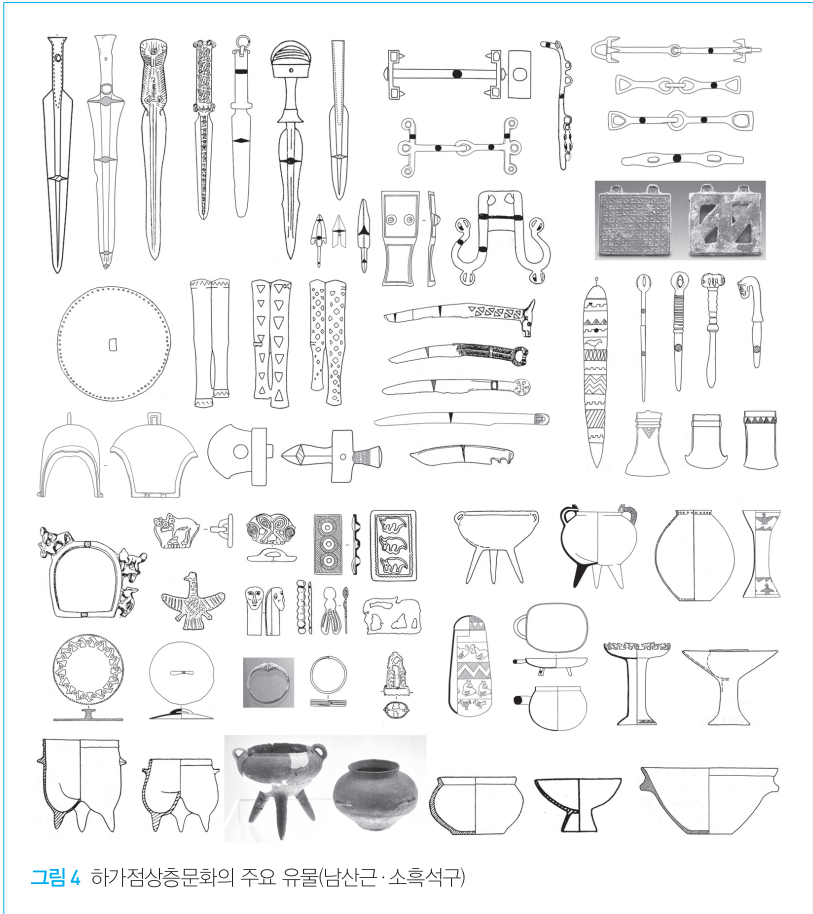


그림 4 하가점상층문화의 주요 유물(남산리·소흑석구)

형동검문화 관련 청동무기나 청동의기는 늦은 단계에야 확인되는 한편, 일정하게 변형되어 있어 전쟁 외의 교류 결과로 이해된다. 또한 이로 인해 비파형동검문화의 하가점상층문화 기원론은 인정되지 않는 상황이다. 즉 비파형동검은 별주식이 서주 후기 이른 단계 또는 그 이전으로 소급되는 고식으로, 합주식은 그보다는 늦은 것이라고 할 수 있다.³³ 다뉴동경이나 판상동령 역시 형식이나 공반유물로 보아 십이대영자문화에서 하가점상층문화로 전이되었다고

생각된다.³⁴

하가점상층문화 관련 청동무기는 요서지역의 십이대영자문화(객좌 산취자)나 요동지역의 쌍방문화(청원 이가보)에서 일부 확인되며, 공병식동검의 파인상(波刃狀) 검인 형태는 일부 비파형동검(내만기 청룡산)에 차용되고 있어 일부나마 기술적인 교류까지 있었다고 할 수 있다. 비파형동검의 제작 역시 하가점상층문화와의 교류 결과물일 가능성이 높다. 또한 적석구조의 토광묘나 복면 장속, 동물장식(호형패식·조형장식), 일부 토기류(평저관)는 하북지역에서 확인되고 있어 옥황묘문화의 형성 과정에도 일정하게 영향을 주었다고 할 수 있다.

하가점상층문화의 변천 단계는 다소 문화퇴적층이 얇고 북방초원과의 교류 관계가 특징적인 1단계와 2단계, 문화퇴적층이 두꺼우며 가장 발전하여 주변 문화와의 복합도가 높은 3단계, 유적 수가 급감하며 쇠퇴하는 한편으로 옥황묘 문화나 정구자문화와 관련되는 요소들이 확인되는 4단계의 네 단계로 구분하여 볼 수 있다.

먼저 1단계는 용두산 3층의 극십극등기 용두산 1호묘와 옹우특기 대포자 단검묘가 대표적인 사례이다.

용두산 1호묘의 방사성탄소연대치가 '3240±150(B.P.)'로 검출(목관 파편)되어 대략 서주 전기로 보고 있다. 용두산 1호묘의 공병식직인동검 출현 단계와 대포자 단검묘의 공병식곡인동검 출현 단계로 구분하고, 대포자 단검묘를 다음 단계로 보는 것도 가능하다. 다만 대포자 단검묘는 용두산 3층과 2층의 중간 단계로도 볼 수 있어 연대 차는 그리 크지 않다. 청동유물에서 자바이칼 판석묘문화의 영향 관계가 확인되고, 채문력(彩文鬲)의 비점문(窠點文)은 송눈평원지역의 백금보문화와 교류하였음을 보여주며, 일부 도력과 도두의 기형은 고대산문화의 것과 유사하여 성립 과정에서 교류 관계가 상정되고 있다.³⁵ 세이마-투르

33 이청규, 2013, 「中國東北地域과 韓半島의 合鑄式 劍柄 銅劍·鐵劍에 대하여」, 『白山學報』 97; 조진선, 2010, 「요서지역 청동기문화의 발전과정과 성격」, 『요하 문명의 확산과 중국 동북지역의 청동기문화』, 동북아역사재단.

34 이청규, 2015, 『다뉴경과 고조선』, 단국대학교 출판부; 조진선, 2010, 앞의 글.

비노계의 삼각집선문이 주출되어 있는 동부가 출토되는 것이 특징인데, 이는 다음 단계에도 일부 확인되는 문양 속성이다.³⁶

그 다음의 2단계는 적봉 하가점 3층과 영성 소흑석구 하층(유지), 임서 대정 동광 2호주거지 등의 생활유구와 영성 소흑석구 85 I AM2, 건평 수천성자 7701호묘·7801호묘, 목두영자 등의 분묘유구가 대표적인 사례이다.³⁷

생활유구의 경우 하가점 3층과 소흑석구 하층, 대정 2호주거지의 통복력(筒腹鬲)이 같은 형식에 해당되고, 대정 2호주거지의 목탄 방사성탄소연대측정치가 '2720±90(B.P.)'로 검출되는 점이 근거이다. 분묘유구의 경우에는 소흑석구 85A I M2의 유엽형동모(柳葉形銅鏃)와 공내식동과(鏃內式銅戈), 관공식 동부(管鑿式銅斧) 등의 카라속계 청동무기, 수천 7701호묘(또는 8호묘) 출토 중 원계통 양익유경동축을 고려하여, 서주 중기 무렵으로 편년된다.³⁸ 후기 카라속계 청동무기가 확인되며, 유엽형동모와 죽절형당로가 처음 출현한다. 소흑석구 85A I M2의 동부에는 대포자 1호묘 동부에서 이어지는 삼각문이 확인된다.

한편 3단계는 적봉 하가점 2층과 영성 남산근 1지점(수혈) 등의 생활유구와 영성 남산근 101호묘, 소흑석구 8501호묘·9601호묘, 복산취 7501호묘, 와방 중 791호묘, 천거천 7301호묘 등의 수장묘급 분묘유구가 대표적인 사례이다.

35 천선행, 2010, 「비파형동검 성립전후 요서지역 토기문화의 전개」, 『요하문명의 확산과 중국 동북지역의 청동기문화』, 동북아역사재단; 井中偉, 2012, 앞의 글; 趙賓福, 2007, 앞의 글.

36 세이마-투르빈계통 문화요소는 카라속계 청동기기의 동진 과정에서 함께 유입되었다고 생각된다. 요서지역의 조양 하장자 유적에서 수습되어 있는 세이마-투르빈계통 유엽형동모가 참조된다.

37 이 외에도 영성 남산근 102호묘에서 카라속계 차마구류가 확인되는 것을 들어 이 단계에 포함시키기도 한다(강인욱, 2018, 「초기 청동기시대의 북방초원과 한반도」, 『북방고고학개론』, 진인진).

38 中村大介, 2009, 「中國 東北地方과 韓半島의 靑銅器時代 並行關係」, 『동북아시아적 관점에서 본 북한의 청동기시대』, 제2회 한국청동기학회 학사분과 발표논문; 천선행, 2010, 앞의 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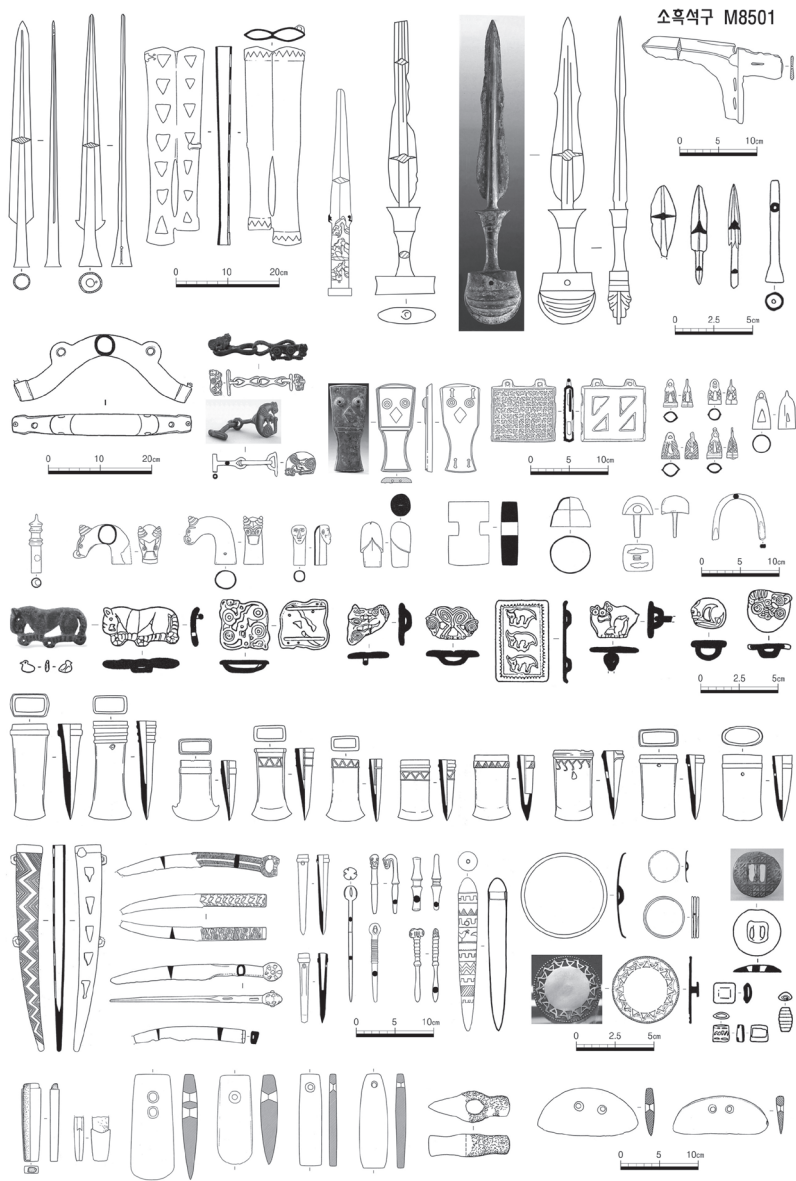


그림 5 하가점상층문화의 3단계 주요 유물(소흑석구 M8501)

이 외에도 오한기 열수탕, 산만자 등과 평천 동남구, 용화 서남구와 낙타랑 분묘군이 이 단계에 포함된다.

생활유구 출토유물이나 분묘 출토 북방계통 청동무기와 청동마구를 고려하면 서주 후기 이른 시기까지 올려볼 수 있다.³⁹ 그렇지만 분묘 출토 중원계통 청동예기⁴⁰나 요령계통 청동무기⁴¹를 기준으로 하면 대부분이 서주말~춘추초 무렵으로 편년된다. 즉 서주시기의 것과 춘추 초기의 청동예기가 공반되며 비파형동검의 경우 합주식은 별주식을 전제해야 하는 상황에서, 일부 유물의 연대가 이르다고 하여 분묘 자체의 연대를 지나치게 올려보는 것은 무리라고 생각한다. 세부적으로는 남산근 101호묘 단계와 소흑석구 8501호묘 단계로 구분되며,⁴² 동과 등을 비교하면 전자가 후자에 비해 약간 이를 가능성이 높다. 소흑석구 묘지만을 대상으로 투구·당로·절약 등을 비교하면 축조 순서는 ‘8061호묘→8501호묘→9601호묘→98AⅢM5’의 가능성도 있다.

생활유구에서 출토되는 이중구연 파수부분(把手附盆)과 홍색마연 두형토기(廣杯短脚)가 특징적인 토기이며, 대형 분묘유구의 경우 전형적인 청동무기(공병식동검 등) 외에 중원계통 청동무기(동과)와 청동예기(동정·동계 등), 요령계통 청동무기(비파형동검)와 청동의기(다뉴동검), 청동마구(판상동령)이 공반되며, 후기 카라숙계 장식요소(돌기형검격 등)와 초기 스키토-시베리아계통 장식 요소(일자형검격 등)가 함께 확인되는 점⁴³이 특징이다. 하가점상층문화가 가장 발전하며 다양하게 상호작용했던 때이기도 하다.

이후 4단계는 소흑석구 1992~1993년 조사구역 17호묘와 22호묘, 1998년

39 오강원 2004, 앞의 글; 井中偉, 2012, 앞의 글.

40 김정열, 2011, 앞의 글.

41 이청규, 2013, 앞의 글; 조진선, 2010, 앞의 글.

42 강인욱, 2009b, 「小黒石溝를 통해 본 하가점상층문화의 새로운 인식」, 『韓國靑銅器學報』 4; 吳江原, 2004, 앞의 글. 남산근 101호묘와 소흑석구 8501호묘의 선후 관계에 대해 강인욱은 전자가, 오강원은 후자가 이르다고 본다.

43 강인욱, 2018, 「초기 청동기시대의 북방초원과 한반도」, 『북방고고학개론』, 진인진.

조사구역의 17호묘와 같은 일부 중소형묘가 대표적인 사례이며, 이 외에도 오한기 주가지 45호묘 등을 이 단계에 포함시켜 볼 수 있다.⁴⁴ 동남구-낙타량 유적군에서도 이에 해당되는 것이 있으리라 생각되나 아직 보고자료가 부족하다.

소혹석구 1992~1993년 묘지의 층위 관계에서 17호묘와 22호묘는 가장 늦은 것에 해당되고, 1998년 묘지에서 17호묘도 층위 관계와 정구자문화나 연하도문화의 분묘들과 중첩 없는 공존 관계를 고려하면 가장 늦은 단계로 볼 수 있다. 또한 주가지 45호묘의 도관(陶罐) 등은 옥항묘문화나 정구자문화의 무덤에서 확인되는 것과 유사하며, 주가지의 분묘에서 확인되는 복면 장법이 옥항묘문화의 춘추시대 무덤에서 적지 않게 확인되고 있는 점도 고려된다. 그러므로 절대 연대에 대해서는 아직 불분명한 점이 있긴 하나, 다음 단계의 정구자문화를 고려하여 춘추 중기말~후기초 무렵으로 보는 것이 무난하다.

〈표 1〉 하가점상층문화 주요 분묘의 편년과 병행 관계

단계 \ 지역	적봉 이북	적봉 이남	적봉 이동
1단계 (서주 전기)	용두산 M1	?	?
	대포자		
2단계 (서주 중기)		남산근 M102	수천 M7701 (또는 수천 M8)
		소혹석구 85A I M2	
3단계 (서주말~춘추초)	관동고 M1 대관(남산)	남산근 M101, 58M동구 소혹석구 M8501·M9601 복산취 M7501 천거천 M7301, 와방중 M791 소혹석구 92A II M5·92A II M11	산만자, 열수탕 석랍산 M741
4단계 (춘추 중기)		소혹석구 93 II M17·M22 소혹석구 98A III M17	주가지

44 오한기 주가지 유적은 토기류가 이질적인 점에 주목하여 최근에는 하가점상층문화에서 배제한다거나(朱永剛, 2004, 앞의 글) 또는 늦은 단계 유적으로 본다(井中偉, 2012, 앞의 글).

2. 옥황묘문화

옥황묘문화는 춘추 중기~전국 전기(또는 기원전 7~4세기대) 무렵 연산산맥 일대를 중심으로 유행했던 스키토-시베리안 단계의 북방계통 청동단검문화로 이해되고 있다. 초기에는 하가점상층문화의 주변부에 해당되는 난하 중류 일대 집단이나 오르도스 일대의 북방계통 집단들과 교류하여 발전하였으나, 후기에는 중원계통 물질문화를 수용하는 과정에서 정체성이 변화된다.

옥황묘문화의 유적들은 북경시의 북쪽 산간지대를 중심으로 분포하나, 서쪽으로 영정하의 상류(상간하와 영하)의 장가구시-울현 일원에서 동쪽으로 난하 중류의 승덕시 일원까지 분포하고 있어, 대해지구의 스키토-시베리안계통 물질문화나 하가점상층문화의 분포권과 일부 중첩된다.⁴⁵ 이와 같은 문화 교류 및 접변 양상을 고려하여 옥황묘문화를 영정하 상류의 산간지대(장가구)를 중심으로 하는 ‘서부유형’, 북경 이북 군도산 일원(회래-연경)을 중심으로 하는 ‘중부유형’, 난하 중상류의 산간지대(난평-용화)를 중심으로 하는 ‘동부유형’으로 지역권을 세분하는 연구자도 있다.⁴⁶

초기 중심지는 연경 옥황묘 유적으로 대표되는 군도산 일대이며, 후기 중심지는 회래 복신보나 난평 이수구문 유적으로 대표되는 바와 같이 지역별로 분화되어 군도산권 외에 난하 중류권이 부상한다(그림 6). 온난 건조 환경에서 점차 냉량 건조 환경으로 변화하였다고 추정되며,⁴⁷ 무덤이나 제사유적에서 농경생활과 관련되는 돼지뼈가 적지 않게 확인되고 있어 목축을 주로 하는 혼합농경이 주된 생업으로 추정되고 있다.⁴⁸

옥황묘문화의 상한연대와 하한연대에 대해서는 여러 견해가 제기되었는

45 정대영, 2004, 「中國 河北省北部 ‘玉皇廟文化’ 연구」, 『문화재』 37; 洪猛, 2014, 「玉皇廟文化初步研究」, 吉林大學 博士學位論文.

46 楊建華, 2003, 「再論玉皇廟文化」, 『邊疆考古研究』 2.

47 王立新, 2004, 앞의 글.

48 烏恩岳斯圖, 2007, 앞의 글.



데,⁴⁹ 최근에는 춘추 초기~전국 초기(기원전 8~5세기대)로 올려보는 견해⁵⁰와 춘추 중기~전국 중기(기원전 7~4세기대)로 다소 내려보는 견해⁵¹가 가장 널리 수용되고 있다. 이는 연산 일원의 매납 유적군(연경 서발자 등)과 난하 중류의 분묘 유적군(용화 낙타량, 능원 오도하자 등)을 포함시키느냐, 제외하느냐에 따라 달라진다. 다만 매납유적들은 카라속계 또는 하가점상층문화와 관련됐을 가능성이 높아 난하 중류 유적군이 쟁점으로 남아 있는 상황이다.

즉, 옥황묘문화의 상한연대는 난하 중류의 ‘동남구-낙타량 유적군’을 어느 문화로 귀속시키느냐가 쟁점이다. 유병식동검과 일부 장식요소를 중시하여 옥황묘문화(또는 동남구문화)와 관련시키기도 하나,⁵² 공병식동검과 토기류를 중시

49 滕銘予·張亮, 2011, 「玉皇廟文化的發現與研究」, 『北方文物』 2011-4.
 50 烏恩岳斯圖, 2007, 앞의 글.
 51 楊建華, 2003, 앞의 글.

하여 하가점상층문화의 지방유형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⁵³ 다만 주축 동서 방향 분묘군이 확인되거나 옥황묘문화의 것과 상사성이 높은 화격경과 지역성을 띠는 토기류가 출토되는 유적들은 특정문화에 귀속되지 않는 지역군으로도 볼 수 있다.⁵⁴ 시공간적 중첩 관계 하의 전환기적 특징으로 이해된다. 옥황묘문화의 하한연대는 ‘포대산-오도하자 유적군’이 쟁점이다. 무덤 주축 방향이 남북 방향으로 바뀌거나 전국연계 유물들이 다수 복합되어 있어 최후 단계 유적으로 볼 수 있다. 다만 오도하자 유적군은 옥황묘문화와 연하도문화가 복합되어 있는 것이어서 별도 유형으로 구분되고 있다.

연산산맥 일대에서 춘추 전기로 볼 수 있는 중원계통 청동예기가 출토되지 않는 것⁵⁵에 비해, 춘추 전기 후반까지 소급되는 중원계통 동과(三角鋒直援戈) 또는 북방계통 재갈(馬橙形外環銜) 등이 일부 확인되며 전국 중기까지 내려가는 중원복합양식 동검이나 동물장식 등이 출토되는 점을 고려할 때, 옥황묘문화는 늦더라도 춘추 중기부터 전국 전기까지 유행하였다고 볼 수 있다. 옥황묘문화의 요소들은 연하도문화나 십이대영자문화와 복합되어 전국 중기까지 잔존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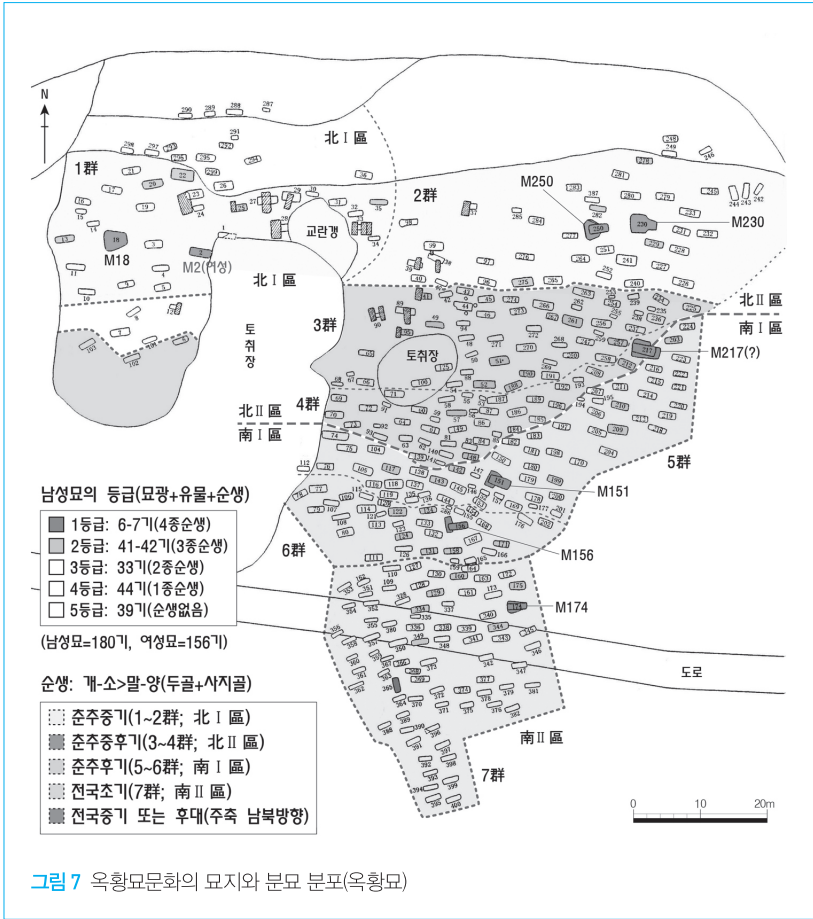
옥황묘문화의 특징적인 면은 유적의 전모가 밝혀진 연경 일대 유적에서 가장 잘 확인되고 있다. 옥황묘문화의 지배층은 주로 중대형의 목곽묘나 목관묘를 조영하였는데, 간략화된 적석이나 위석 시설이 부가되어 있는 중소형의 토광묘도 적지 않게 확인되고 있다. 대형묘는 평면 말각제형 또는 ‘凸’字形을 나타내

52 吳江原, 1999, 앞의 글; 吳江原, 2004, 앞의 글.

53 김동일, 2017, 「夏家店上層文化의 冀北地域 流入과 그 意味」, 『고고학으로 본 고조선』, 제41회 한국고고학전국대회 자유패널 발표요지; 이후석, 2017b, 앞의 글; 朱永剛, 2004, 앞의 글; 洪猛·王聰, 2014, 「淺探冀北地區夏家店上層文化遺存」, 『考古與文物』 2014-3.

54 동남구-낙타량 유적군에서는 초기단계 옥황묘문화와 관련되는 요소들이 적지 않게 확인되고 있어, 양 지역이 밀접하게 교류하였다고 볼 수 있다.

55 滕銘予·張亮, 2014, 「東周時期冀北山地玉皇廟文化的中原文化因素」, 『考古學報』 2014-4; 朱鳳瀚, 2009, 『中國青銅器綜論(下)』, 上海古籍出版社.



며, 모두 이단 묘광으로 깊이 파고 목곽을 설치하는 것이 특징이다. 목관은 평면 ‘교’자형으로 바닥판의 위에 안치하고 목개를 덮는 구조인데, 중원지역처럼 곽과 관이 구별되는 운구용이 아닌 것이어서 목곽으로 볼 수도 있다. 일부 소형묘를 제외하면 묘향은 기본적으로 등고선과 평행하는 동서 방향이며, 두향 또한 동쪽으로 통일성이 높게 나타난다. 양신직지장(仰身直肢葬)과 부신직지장(俯身直肢葬)이 주된 장법이며, 동물 순생은 개와 소가 많고 말과 양의 두골과 사지

골도 확인된다. 두향(동쪽) 쪽의 충진토나 매몰토에 매납하는 것이 특징이다(그림 7, 그림 8).

무덤의 규모는 총 400기가 분포하는 옥황묘 묘지에서 가장 잘 확인된다. 옥황묘의 분묘들은 묘광 규모에 따라 대형묘(長 350~380cm, 幅 300~320cm)-중형묘(長 250~300cm, 幅 90~150cm)-소형묘(長 170~250cm, 幅 50~90cm)의 3유형으로 구분되며,⁵⁶ 일부 분묘들을 제외하면 남성묘가 180기, 여성묘가 156기 확인된다. 남성묘의 경우에는 순생 및 부장유물 중에 무기류, 예기류, 차마구류, 공구류, 장식류 등의 청동유물 조합관계를 고려하면 최대 5개 등급으로 구분된다(그림 7).

분묘 간의 상관 관계를 고려하면, 묘구별로 60~120기 정도의 분묘들이 분포하며, 전체적으로 사면 위쪽에서 아래 방향으로 이동하며 조영되는 규칙성이 확인된다. 즉 묘지 북구와 남구의 층위 선후 관계를 바탕으로 북Ⅰ구는 1단계, 북Ⅱ구는 2단계, 남Ⅰ구는 3단계, 남Ⅱ구는 4단계로 설정된다. 다만 북Ⅱ구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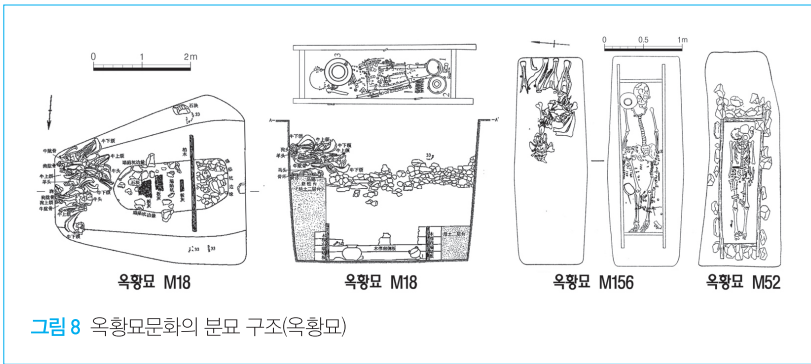


그림 8 옥황묘문화의 분묘 구조(옥황묘)

56 회래 북신보의 무덤 14기 중에 1호묘(長 1,510cm, 幅 410cm)와 2호묘(長 600cm, 幅 530cm)는 모두 초대형에 해당된다. 특히 1호묘는 묘도시설과 함께 순장(陪葬木棺)과 다차다량 순생, 증원계통 청동예기와 철기 등의 매장유물이 확인되어 최고 수장묘의 극적 면모를 보여준다.

북 I 구와 남 I 구의 요소들이 함께 확인되고 있어 과도기적 양상을 보여준다. 묘구 내부에는 열을 지어 조영되면서도 대형묘(1~2기)의 주변으로 중형묘(10기 내외)와 소형묘(다수)가 중첩 관계 없이 배치되는 것이 특징이다(그림 7).

남성묘는 180기가 확인되어 있다. 최상위급 수장묘(1등급묘)는 모두 대형묘로 6~7기인데, 4종 순생(개·소·말·양)이 확인되며, 청동유물 대다수의 기종들이 조합된다. 차상위급 분묘(2등급묘)들은 모두 41~42기이고, 3종 순생이 확인되며, 예기류가 없는 청동유물이 조합된다. 중위등급 분묘(3등급묘)들은 33기인데, 2종 순생이 확인되며, 예기류와 차마구류가 없는 청동유물이 조합된다. 중하위급 분묘(4등급묘)들은 모두 44기인데, 1종 순생이 확인되며, 주로 공구류와 장식류가 조합된다. 하위등급 분묘(5등급묘)들은 모두 66기인데, 순생 없이 공구류나 장식류가 1점 정도 있는 것(39기)과 토기 1점이나 그마저도 없는 것(17기)을 모두 포함한다.

이에 비해 여성묘는 156기가 확인되어 있다. 1등급묘는 1기(M2)에 불과하다. 묘광 규모는 중(대)형에 속하지만 다른 여성묘와 비교하면 가장 크고 깊다. 3종 순생이 확인되며, 특히 말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 특이하다. 무기류가 없는 대신 예기류가 많고, 1등급의 남성묘에 비해 약간 적긴 하나 대부분의 청동유물 기종들을 갖추었다. 2~3등급묘의 경우에도 순생이 확인되며, 역시 무기류가 없는 대신 마구류나 공구류와 장식류가 확인된다. 4등급묘는 순생이 없는 점을 제외하면 남성묘의 4~5등급 유물상과 유사하다.

그러므로 남성묘와 여성묘의 부장유물 중의 가장 큰 차이점은 무기류와 일부 공구류(동부)의 유무라고 할 수 있고, 동물순생 조합관계는 성별 구분 없이 신분이나 지위 등을 반영하는 것으로 판단된다.⁵⁷ 또한 중원계통 청동예기와 칠기, 금기 등도 위신제적 물품으로 상위계층 분묘에만 부장되었다고 할 수 있다.

유적 간의 상관관계를 살펴보면, 이른 시기에는 연경 일원의 묘지 중에 연경 옥항묘 유적에서 1등급의 수장묘(M18, M250 등)가 뚜렷하게 확인되며, 서쪽 약

57 이후석, 2017b, 앞의 글.

20km 지점에 있는 회래 감자보 유적에도 이에 버금가는 수장묘(M8 등)가 조영된다. 늦은 시기에는 이와 서쪽으로 인접하는 회래 복신보 유적에서 초대형의 수장묘(M1·M2)가 다른 무덤(12기)들과 이격된 채 조영되어 있어 수장 권력의 최절정기로 판단된다. 연산 서쪽(선화 백묘)이나 동쪽(난평 포대산) 일원까지 전국연계 물질문화가 확산되는 과정에서 문화 정체성이 변화한다.

한편 옥항묘문화의 정체성을 나타내는 유물로는 유병식동검(쌍환수검, 단환수검), 사형동표(蛇形銅鏢), 마형·호형패식, 환수동도, 초승달형패식(璜式), 전원후방형의 옥항묘식대구, 도관(折肩罐, 短頸罐) 등을 들 수 있다(그림 9). 특히 유병식동검은 단환형과 쌍환형의 병단을 지닌 일자형-V자형검격의 직인검이 가장 많고 특징적인 형식이다.⁵⁸ 이 외에도 자바이칼-몽골 일대 또는 난하 중류 일대와 관련성이 깊은 일자형병단의 직인검과 함께, 황하 상류 일대에서 기원하는 수면문검격의 소위 진식단검(秦式短劍)을 모방하였다고 생각되는 화격검(花格劍)이 확인되고 있는 점이 주목된다.⁵⁹ 이와 같은 두 계통성이 유병식동검은 물론 호형패식 등에서도 보이는데, 이는 옥항묘문화의 형성이나 발전 과정에서 두 지역과의 상호작용이 일정하게 작용하였음을 보여준다. 환수동도 외에 원공동도, 동물장식동포 등도 자바이칼-몽골에서 먼저 확인되는 것이지만 하가점상층문화에서 다수 확인되는 것이어서, 상대적이지만 하가점상층문화 권역에서 더 큰 영향을 받았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옥항묘문화의 유적에는 동검(扁柄劍), 동과(曲援戈) 등의 무기류와 동정(銅鼎), 동두(銅豆), 동호(銅壺), 동궤(銅簋) 등의 예기류는 물론이고 도두(高柄豆), 도분(繩文盆) 등의 토기류에 해당하는 중원계통 유물들이 적지 않게 확인되고 있어 중원문화와도 다양하게 교류하였음을 알 수 있다. 무기류는 많지 않아

58 姜仁旭, 2004, 「기원전 8~3세기 中國 北方 草原地帶의 銅劍文化—銅劍의 形式分類와 地域性을 중심으로」, 『동북아시아의 초기금속기문화』, 제31회 한국상고사학회 학술발표대회.

59 張天恩, 1995, 「再論秦式短劍」, 『考古』 1995-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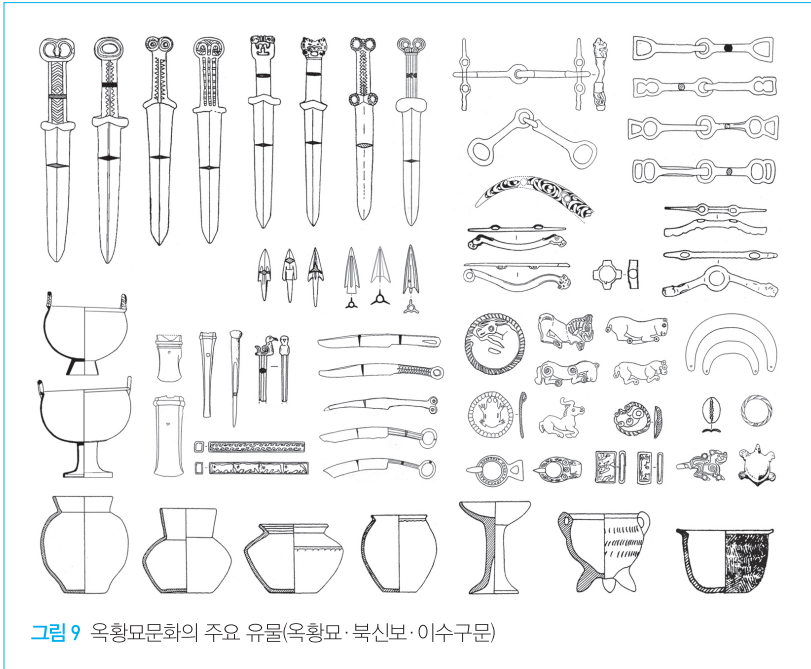


그림 9 옥황묘문화의 주요 유물(옥황묘·북신보·이수구문)

주로 전쟁 과정에서 입수했던 것으로 생각되나, 예기류는 계통이나 기종 등이 다양하여 약탈적인 취득 외에 다른 수단으로 받은 것도 있으리라 생각된다. 특히 옥황묘문화의 상위분묘에는 三晋·齊(옥황묘 M18·M171, 감자보 M1·M2, 북신보 M1 등)·燕(용경협 M30, 북신보 M1, 포대산 M6 등)뿐만 아니라 蔡·黃(감자보 57M·M19) 등의 하남 방면 제후국의 예기들도 확인되고 있어 입수 경로가 다양하였음을 보여준다. 또한 예기류의 관외 부장 정황과 기종 조합 관계(옥황묘 M2), 혼인 관련 명문(감자보 1957년) 등을 통해 옥황묘문화와 중원 제후국의 지배층 간 통혼으로 해석하는 주장들도 제기되어 있다.⁶⁰ 북방계통 공반유

60 滕銘予·張亮, 2014, 앞의 글, 498쪽; 朱鳳瀚, 2009, 앞의 글, 2136쪽, 洪猛, 2014, 앞의 글, 112쪽.

물이 적은 옥황묘의 경우 그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겠지만, 증원문화와 관련되는 다른 증거들이 보강되지 않는 이상 현재로는 통혼 관계를 단정하기 어렵다고 생각된다.

이 외에도 앞서 언급하였듯이 옥황묘문화의 요소들은 십이대영자문화에서 적지 않게 확인되고 있다. 무기류는 원수병검과 삼익유공동촉, 공구류는 환수동도, 장식류는 동물패식, 마구류는 이중외환재갈, 십자방형절약, 토기류는 만류기법 장경호가 확인되고 있어 물질 교류 외에 인적 교류까지 일부 있었다고 생각된다. 특히 마구류는 큰 시차 없이 문화와 집단을 초월하여 널리 전파되는 것이어서⁶¹ 지역 간 교류와 편년 관계를 추정하는 데에 유효하게 활용된다.

옥황묘문화의 변천 단계는 크게 전기와 후기의 두 단계로 구분되며, 세부적으로는 네 단계로 세분하는 것도 가능하다.⁶² 옥황묘문화의 표지 유적으로 가장 많은 수의 분묘들이 확인되어 있는 연경 옥황묘 유적의 층위 조사 결과 일단 전기(北區) 단계와 후기(南區) 단계는 뚜렷하게 구분된다. 또한 전체적으로는 구역별로 순차적인 조영 관계를 나타내는 것도 널리 인정되고 있다(그림 7). 다만 보고서에 제시되어 있는 ‘북Ⅰ구→북Ⅱ구→남Ⅰ구→남Ⅱ구’의 도식적인 변천 과정은, 북Ⅱ구가 이전 단계나 다음 단계에 속한 유물들이 확인되는 점을 고려하여 편년 관계를 다시 조정해야 한다.⁶³

전기(춘추 중기~후기)에는 군도산 일대를 중심으로 연산산맥 일원에서 전형적인 옥황묘문화가 정립된다. 전기 전반(1단계)에는 연경 옥황묘(북Ⅰ구), 회래감자보(1군) 등이 대표적인 유적이며, 군도산과 난하중류 일대에서 관련 유적들이 확인된다. 자바이칼-몽골 일원의 판석묘문화와 관련되는 요소들이 남하하

61 姜仁旭, 2016, 앞의 글.

62 이후석, 2017b, 앞의 글; 井中偉, 2012, 앞의 글; 小田木治太郎, 2012, 「燕山地域の北方青銅器文化墓の編年」, 『考古學雜誌』 96-2.

63 묘지 북동쪽의 경계에서 북Ⅱ구의 동단부와 남Ⅰ구가 접해 있는 점을 고려하면, 북Ⅰ구 동단부도 춘추 중기묘와 후기묘가 섞여 있을 가능성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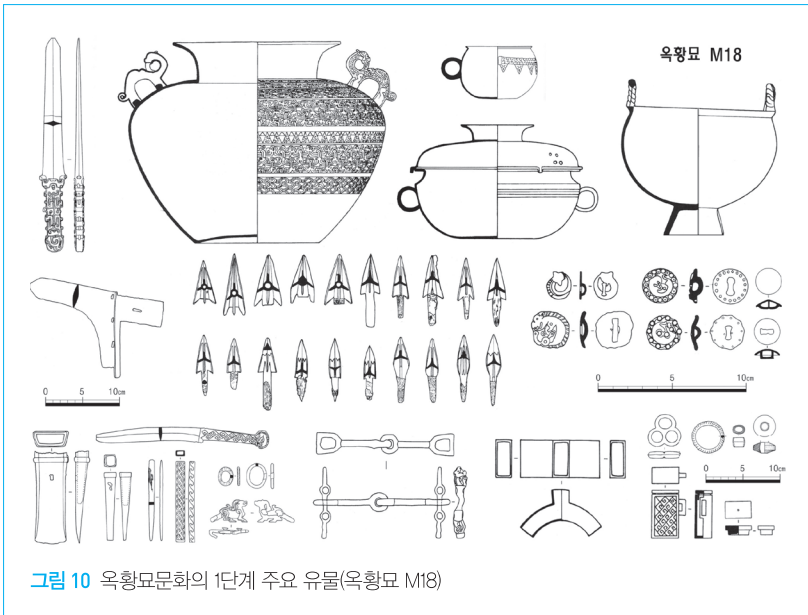


그림 10 옥황묘문화의 1단계 주요 유물(옥황묘 M18)

고, 하가점상층문화와의 접경지역 물질문화가 서쪽으로 전해지며, 황하 상류
 방면에서 동검 등이 동쪽으로 전이되어 전형적인 옥황묘문화가 성립하는 단계
 이다.

전기 후반(2단계)에는 연경 옥황묘(북Ⅱ구)·서량광(서1군)·호로구(북구), 회
 래 감자보(1군·2군) 등이 대표적인 유적이다. 군도산에 유적군이 형성되며, 연
 산산맥 전역으로 유적군이 확산된다. 옥황묘문화가 연산산맥 일대 전역에서 발
 전하는 단계이다.

전기(1~2단계)에는 수면문검격의 화격검과 일자형-V자형검격의 직인검이
 특징이다. 청동재갈(馬橙形環, 圓方形環), 사형동표, 유공동도, 평저관(平底罐)
 등이 확인되며, 이와 함께 중원계통 청동무기(直援戈)와 청동예기(三晉·齊·
 蔡·黃)가 적지 않게 출토된다. 간략화된 적석구조 목관묘나 복면 장속, 일부 장
 식류(조형장식)와 토기류(홍색마연관)는 하가점상층문화와, 화격검과 일부 장식

류(호형대구)는 황하상류 또는 모경구문화와 각각 관련된다. 또한 일부 마구류(사형동표)는 산동반도에서 출토되고 있어 전쟁이나 교류 관계가 상정된다. 한편 일부 문화 요소(호기식유공촉, 십자방형절약, 양형동식, 만륜기법 장경호 등)들은 요서지역에서도 확인되고 있어 옥황묘문화와 십이대영자문화가 교류하였음을 알 수 있다.

후기(춘추 후기~전국 전기)에는 군도산 일대의 연산산맥 중심부가 쇠퇴하고 주변부가 부상하며, 옥황묘문화의 정체성이 변화한다. 후기 전반(3단계)에는 연경 옥황묘(남 I 구)·서량광(동구)·호로구(중구), 회래 감자보(3군) 등과 같이 이전 단계 유적들이 지속되는 한편, 회래 북신보에서는 초대형의 수장묘(M1)가 등장하며, 난평 이수구문(1군), 풍녕 오도구문·사도구문 등과 같은 난하 방면 유적들이 부상한다. 이는 옥황묘문화의 토착화와 함께 보편성의 강화 현상으로 이해되며, 다른 한편으로 외래 위신재를 통해 최상층의 권력 기반이 강화되었음을 보여주는 현상으로 이해된다.

후기 후반(4단계)에는 선화 백묘, 난평 이수구문(2군), 난평 포대산, 능원 오도하자 등이 새로 확인되는 유적이다. 군도산 일대의 유적들은 쇠퇴하여 북방계 통 청동유물을 다량 부장하는 수장묘가 더 이상 확인되지 않고, 분묘 주축이 동서 방향에서 남북 방향으로 전환되며, 전국연계 유물들이 증가하기 시작한다. 이는 전국연계 목곽묘나 옹관묘가 북경-당산 일대에서 본격적으로 조영되는 것과 궤를 같이한다.⁶⁴ 내몽고 동남부나 요서지역으로 전국연계 청동무기와 청동예기가 다수 반입되는 것도 바로 이때부터라고 할 수 있다.

후기(3~4단계)에는 화격검은 거의 사라지고 단환형-쌍환형병단의 일자형-V자형검격을 지닌 직인검이 유행하며, 중원식과 복합되는 원환수병동검도 사용된다. 청동재갈(內圓外方形環), 골표, 환수동도, 녹형패식, 쌍이호(雙耳壺), 쌍이력(雙耳鬲), 승문분(繩文盆) 등이 확인되며, 이와 함께 중원계통 청동무기

64 북경 일대에는 방산 전주각장, 순의 용만둔, 통주 중조보 등의 유적들이, 당산 일대에는 당산 가각장, 천서 대흑정, 노룡 채가분 등의 유적들이 확인된다.

〈표 2〉 옥황묘문화 주요 분묘의 편년과 병행 관계

지역 단계	북경 이북(군도산 일대)			북경 이동			
1단계 (춘추 중기)	옥황묘北 1~2群	서량광西1 (주축동서)	호로구北	감자보1 (M8·9)	이수구문1 93M8·16	오도구문 사도구문	
2단계 (춘추 중후)	옥황묘北 3~4群			감자보2 (M4·11·18)			
3단계 (춘추 후기)	옥황묘南 5~6群	서량광東 (주축동서)	호로구中	북신보			이수구문2 88M4
4단계 (전국 전기)	옥황묘南 7群, M325	서량광西2 (주축남북)	호로구南				

(편병검, 곡원과)와 청동예기(三卣·齊·燕), 청동차구(차축두·개궁모) 등이 출토된다. 간략화된 적석구조 목관묘도 조영되나 점차 감소한다. 옥황묘문화의 유적 속에 일부나마 이중구연 쌍이관(雙耳罐)이 출토되고 있어 정구사문화와 교류하였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요서지역으로 무기류(원수병검)와 장식류(호형·마형 대구, 금제항식), 토기류(승문분, 쌍이호)가 일부 파급되고 있어 양 지역 간에 물질 교류 외에 인적 교류까지 있었다고 생각된다.

IV. 북방계통 청동단검문화의 배경과 성격

1. 북방계통 청동단검문화의 역사 배경

북방계통 청동단검문화가 요하유역에서 출현하는 상말주초 무렵, 하북지역의 북경 일대에는 상계(商系) 유민들이 증가하고 서주왕실에 의해 연이 세워지며, 토착문화는 위방3기문화에서 장가원상층문화로 변모한다. 이때 요서지역에는 북방계통(카라숙계) 청동이기 매납유적과 중원계통 청동예기 매납유적이 조영

되며, 토착문화는 하북지역과의 교류 관계 하에 위영자유형이 유행한다. 중국 동북지역에서 이 무렵은 그야말로 정치문화 변동의 격변기라 할 수 있다.

요하구역의 북방계통 청동단검문화와 가장 밀접하게 관련되는 것은 카라숙계 청동이기라고 할 수 있다. 카라숙계 청동기기는 주로 무기류와 공구류로 구성되며, 상대 후기부터 서주말~춘추초 무렵까지 중국 북방지역에서 널리 분포하는 것이 특징이다.⁶⁵ 황하 중상류의 주개구문화의 청동무기가 대표적인 사례인데, 북방계통 청동단검은 이때 처음 출현한다. 이 동검들이 바로 난하구역과 요하구역 최초의 청동단검으로 연결되는 기종이다.⁶⁶ 다만 요하구역 토착문화에서 북방계통 청동단검문화가 수용되는 것은 그 다음 단계라고 할 수 있다.

한편 하북지역 토착문화에서 출토되는 카라숙계 청동무기들이 중원계통 청동예기들과 함께 부장되는 예가 확인되는 것과 달리, 요서지역의 카라숙계 청동무기들은 중원계통 청동예기와는 공반되지 않고 서로 무관하게 분포하는 것이 특징이다. 이는 요서지역의 청동단검문화가 성립하게 되는 배경으로 중원계통의 물질문화는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었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한편, 북방계통 청동단검 제작·사용 집단들과 일정하게 관련되어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현상이다.⁶⁷

요서지역의 중원계통 청동예기 매납유적은 위영자유형의 분묘유적이나 생활유적들과 함께 주로 대릉하 상류의 객좌 일대에 밀집 분포하고 있는 점이 특징인데, 이는 객좌 일대 위영자유형의 집단들이 북경-당산 일대의 위방3기문화나 장가원상층문화의 집단들과 다양하게 상호작용했던 결과라고 생각된다.⁶⁸

65 姜仁旭, 2009a, 「기원전 13~9세기 카라숙 청동기의 東進과 요동·한반도의 초기 청동기문화」, 『湖西考古學』 21; 이청규, 2009, 「요하구역 북방계 청동기의 출현」, 『요하구역의 초기 청동기문화』, 동북아역사재단.

66 烏恩岳斯圖, 2007, 『北方草原考古學文化研究』, 科學出版社; 李明華, 2011, 「從青銅短劍看早期草原青銅文化的傳播」, 『草原文物』 2011-2.

67 이후석, 2018, 「비파형동검의 등장과 그 배경」, 『토지 활용과 경관의 고고학』, 제 42회 한국고고학전국대회 자유패널 발표요지, 한국고고학회.

68 김정열, 2009, 「요서지역 출토 상주 청동예기의 성격에 대하여」, 『요하구역의 초

위영자유형은 북방계통 청동단검문화를 거의 수용하지 않았는데, 이는 요서지역의 카라숙계 청동무기가 하가점상층문화의 권역에서 다수 확인되고 있는 것과 대조되는 양상이다.

요하유역의 청동단검문화는 카라숙계 청동이기 등과 함께 북방계통 물질문화를 적극 수용했던 하가점상층문화에서 처음 보이는데, 북방계통 청동무기와 중원계통 청동예기를 함께 부장하는 것도 하가점상층문화에서 처음 확인되는 현상이다. 하가점상층문화는 내몽고 동남부를 중심으로 하북 북부지역까지 널리 확인되며, 두 계통의 물질문화 집단과도 활발하게 상호작용하였다고 할 수 있다.

요하유역에서 하가점상층문화가 남하하는 때인 서주시기에는 하북지역에서 장가원상층문화가 유행하기 시작한다. 장가원상층문화는 이전 단계의 위방 3기문화 요소들을 일정 부분 계승하면서도 북경-당산 일대를 중심으로 특징적인 문화 양상을 나타낸다. 목관 또는 목곽 구조의 토광묘가 주로 조영되며, 주축 동서 방향, 두향 동쪽의 부신장(俯身葬)이 기본 장법이다. 이중구연(二重口緣) 통복력(筒腹鬲)과 부가퇴문(附加堆文) 고복력(高腹鬲)이 가장 특징적인 토기이며, 염구발(斂口鉢), 절견관(折肩罐) 등도 주된 기종이다.⁶⁹ 동정(銅鼎)과 동궤(銅簋)가 조합되는 서주계통 청동예기와 관공식동부(管鑿式銅斧)와 같은 카라숙계 청동무기, 금제팔찌 등이 확인되었는데, 계현 장가원 유적, 당산 고야 유적 등과 함께 연경 서발자 매납유적과 흥릉 소하남 매납유적이 주요 유적으로 언급되고 있다. 다만 토기류가 없는 매납유적의 경우에는 문화 귀속 관계가 분명하지 않으므로, 그보다는 카라숙계 청동이기 제작집단과 관련됐을 가능성도 있다.

이는 전형적인 상주문화와는 다른 특징이다. 북방계통이나 중원문화와도

기 청동기문화』, 동북아역사재단: 오강원, 2011, 「商末周初 大凌河 流域과 그 周邊 地域의 文化 動向과 大凌河 流域의 青銅禮器 埋納遺蹟」, 『韓國上古史學報』 74.

69 烏恩岳斯圖, 2007, 앞의 글. 특히 염구발과 절견관은 위방 3기문화 토기류를 계승하는 기종으로 위영자유형의 토기류에서도 확인된다.

일정하게 교류하였지만, 기본적으로는 하북지역 토착집단의 고고문화라고 할 수 있다. 그렇지만 북경 남부에서 연이 세워지고 상계 유민들과 북방계통 주민들이 유입되자, 장기원상층문화도 동쪽으로 퇴축되며 점차 쇠퇴한다. 장기원상층문화의 담당자에 대해서는 무종(無終), 숙신(肅愼), 선비(鮮卑) 등이 거론되나,⁷⁰ 모두 서지학적 검토 없이 단편적인 문헌 기록에 근거하는 것이어서 검증되기 힘든 주장이다. 다만 한때 산융(山戎) 일파로도 인식되었다는 고죽(孤竹), 영지(令支) 등에 대해서는 향후 재검토가 필요하다.⁷¹ 뒤에 언급하는 북경 방산 유리하 유적이 서주 초기 연국 봉건이나 상계 유민들이 유입되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면, 앞서 언급했던 연경 서발자 유적과 흥릉 소하남 유적은 북경 창평 백부 유적과 함께 서주 중기 전후 북방계통 집단들이 남하하였음을 나타내는 것일 수도 있다.

영정하의 이남지역에는 서주문화가 대거 유입되었음이 확인되고 있다. 북경 유리하 유적군에서는 서주계통의 토성구-거주구-묘장구가 확인되었는데, 이곳에서 ‘언후(匿侯)’ 관련 청동무기와 청동예기는 물론 상계(商系) 씨족명문 유물들이 다수 출토되어, 문헌 기록대로 연이 건립되었으며 상계 유민들도 적지 않게 유입되었음을 보여준다.⁷² 유리하의 서주 초기 유적군은 연후 집단과 관련되는 상계 유민들이 거주했던 거점으로 이해된다. 다만 서주 중기 이후에는 관련 유적들이 더 이상 확인되지 않아 서주 연국세력은 후퇴했을 가능성이 높다.⁷³

이에 비해 영정하의 이북지역에는 서주문화와는 다른 복합문화가 확인되고 있다. 북경 백부 유적이 대표적인 사례인데, 서주 계통의 주축 남북 방향 목곽묘

70 史廣峰·邊質潔, 2002, 「薊縣張家園商周遺存的族屬問題」, 『文物春秋』 2002-4.

71 배진영, 2006, 「출토자료로 본 孤竹」, 『梨花史學研究』 33.

72 귀다순·장상덕 저, 김정열 역, 2008, 『동북문화와 유연문명』(下), 동북아역사재단; 裴眞永, 2009, 『고대 북경과 燕文化』, 한국학술정보.

73 李厚錫, 2017b, 「북방계통 물질문화와 山戎·東胡」, 『湖南文化財研究』 23.

에 상계 방법으로 이해되는 요갱 안에 순생(개) 풍습이 확인되어 주목된다. 또한 중원계의 청동무기·청동예기·청동차마구와 북방계의 청동무기·청동공구는 물론이고 복골(卜骨) 등도 다량 출토되어 문화 복합이 다양하게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이 분묘군은 군사적·종교적 권위를 내세우며 카라숙계 청동단검문화와 주초 중원문화를 수용했던 서주 전기~중기 단계의 비서주계 지배자의 무덤으로 이해되고 있다. 다만 중심연대를 서주 중기로 보게 되면,⁷⁴ 서주왕실이 봉건시켰다는 ‘계국(薊國)’과는 관련짓기⁷⁵ 어려우며, 카라숙계 청동단검문화를 수용한 토착문화의 유력집단과 관련됐을 가능성이 인정된다. 물론 이를 북방계 통 장인집단과의 결합 흔적으로 볼 수도 있다. 유적 수가 극히 적고 분포 정형성이 확인되지 않는 점을 고려하면 단기간에 걸친 문화 현상으로 생각된다.

그러므로 서주 초기 무렵 북경 남쪽에서 연이 건립되었으나, 서주 중기 이후에는 그 북쪽에서 북방계통 물질문화를 수용한 비서주계 집단들이 강해짐에 따라 연은 남쪽으로 후퇴하였으며, 이후 하가점상층문화와 같은 북방계통 청동단검문화 집단들의 압박으로 더 이상 성장하지 못하였던 것으로 추정된다. 춘추시대의 연은 남쪽에서 명맥만을 유지하였으며, 이때 연산 일대에는 옥황묘문화로 대표되는 스키토-시베리안 단계의 북방계통 청동단검문화가 새로 출현하여 유행하게 된다.

옥황묘문화는 장가원상층문화에 이어 등장하는 문화지만, 두 물질문화 사이에는 문화적으로나 시공간적으로 많은 차이점이 있다. 우선 두 문화의 공백기(서주말~춘추초)가 존재하며, 장가원상층문화가 북경 이동의 평원지대에 주로 분포하는 것과 달리 옥황묘문화는 북경 이북의 산간지대에 주로 분포한다. 또한 장가원상층문화는 승문 삼족토기만을 취사용기로 사용하고 중원예제를 일부 수용했던 토착계통 문화이며, 옥황묘문화는 승문 없는 평저토기를 주로 사용하

74 林滢, 1994, 「早期北方系青銅器的幾介年代問題」, 『內蒙古文物考古文集』 1, 中國大百科全書出版社.

75 韓嘉谷, 1995, 「燕史原流的考古學考察」, 『燕文化研究論文集』, 文物出版社, 71쪽.

고 단검이나 동물장식 등을 특징으로 하는 북방계통 문화이다. 두 문화 사이에는 직접적인 계승 관계가 확인되지 않는다.

연산산맥 일대에서 옥항묘문화가 유행했던 시기에는 이수(易水) 이남지역에서 연이 재기하기 시작하였는데, 춘추 말기 무렵부터 북경-당산 일대에서 토착 문화가 쇠퇴하고 연계 문화 요소가 증가하는 것은 이를 반영하는 양상으로 이해된다. 북경 일대의 순의 용만둔, 방산 전주각장 유적, 당산 일대의 가각장 유적 등이 대표적인 사례이다. 전국시대 이후에는 연계 문화의 특징적인 양상들이 주로 확인된다.

한편 서주 후기 이래 춘추 후기까지 연나라가 쇠약해진 배경에는 용적(戎狄) 계통 집단들이 활발하게 활동했기 때문으로 이해되고 있다. 선진문헌에 등장하는 용적계통 집단들은 태항산맥 같은 산간지대에서 주로 활동했던 것으로 나오는데, 대표적인 세력으로 언급되는 것이 바로 북용(北戎) 또는 산용(山戎)으로 불린 집단이다.

중원 근처에서 활동했던 용적세력들에 대해 보통 지명이나 족명 등을 그 집단의 명칭으로 차용했던 것에 비해, 중원 북쪽 방면에서 활동했던 산용이나 북용의 경우에는 단순하게 지리환경(‘山’)이나 활동지역(‘北’)만을 고려하여 명칭을 부여했다.⁷⁶ 이는 당시 중원 사람들이 다른 용적 집단들에 비해 북용 또는 산용으로 불린 집단들을 잘 알지 못했거나, 북쪽 산간지대에서 활동했던 비중원계 지역집단들을 통칭하는 명칭으로 사용했기 때문으로 생각된다.⁷⁷

산용과 북용은 춘추 전기 무렵 중원지역을 자주 침략하였는데,⁷⁸ 두 명칭이 서로 혼용되고 있어 같은 계열의 집단들을 달리 표현하였다고 생각된다.⁷⁹ 다만

76 양재영, 2010, 「동주시기 중국 동북지역 북방민족 연구」, 『고구려의 등장과 그 주변』, 동북아역사재단.

77 李厚錫, 2017b, 앞의 글.

78 『史記』卷14, 年表第2, “齊釐公二十五年, 山戎伐我”.

79 박준형, 2016, 「기원전 7세기 중반 동북아시아의 국제관계와 고조선의 위상」, 『白山學報』 106; 裴眞永, 2009, 앞의 글.

‘북용’이 하남-산둥 방면에서 활동했던 흔적들이 많은 것에 비해 ‘산용’은 주로 연과 제의 근방에서 보인다는 점을 고려하면, 세부적으로는 서로 다른 집단으로 보는 것도 불가능하지는 않다.⁸⁰

이와 관련하여 제 환공(桓公)이 연을 구원하기 위한 산용 정벌 과정(기원전 664~663년)에서 ‘영지(令支; 離枝)’와 ‘고죽(孤竹)’이 함께 언급되고 있는 점이 주목된다.⁸¹ 영지와 고죽은 산용 정벌 이후 얼마 되지 않아 정벌되었는데(기원전 658~650년),⁸² 춘추시대에는 난하 하류 부근에 있었으며, 산용 일파로도 인식되었다는 것이 통설이다.⁸³ 제는 이 세력과도 조우하고 있으므로 이곳에서 멀지 않은 지역에서 산용 일파가 활동하였다고 볼 수 있다.

그러므로 ‘산용’이란 중원 이북 산간지대에 거주하는 여러 비종원계 지역집단을 포괄하는 명칭이며, 연은 물론 고죽·영지와도 멀지 않은 지역에서 활동하던 집단까지 포괄하는 명칭이었다고 할 수 있다. 산용으로 불린 집단들은 산곡간에 분산 거주하였다고 하였는데,⁸⁴ 시공간적으로 보면 태항산맥 북쪽에서 노로야호산맥 일대까지 이어지는 산곡지대에서 북방계통 물질문화를 영위했던 집단들일 가능성이 가장 높다.

80 양지영, 2010, 앞의 글. 이 무렵에 종족적인 통합을 이루었을 가능성도 있다(吳江原, 1999, 「青銅器時代 中國 東北地方의 主要種族 = 山戎族에 관한 研究」, 『白山學報』 53, 17쪽).

81 『管子』 卷7, 大匡, “桓公乃北伐令支 下梟之山 斬孤竹 過山戎”; 『國語』 卷32, 齊語, “遂北伐山戎 制令支 斬孤竹 而南歸”; 『史記』 卷32, 齊太公世家, “北伐山戎離枝孤竹”.

82 박준형, 2016, 앞의 글.

83 배진영, 2006, 앞의 글; 馮金忠, 2014, 「孤竹國研究的回顧與思考」, 『文物春秋』 2014-3.

84 『史記』 卷110, 匈奴列傳 第50, “各分散居谿谷 自有君長 往往而聚者百有餘戎 然莫能相一”.

2. 북방계통 청동단검문화의 담당자와 성격

하가점상층문화와 옥황묘문화로 대표되는 춘추시대를 전후로 한 중국 동북지역의 북방계통 청동단검문화는 주로 연나라의 북쪽 산간지대에서 유행했다. 대략 춘추 중기 또는 기원전 7세기대를 병행기로 하여 하가점상층문화가 쇠퇴하고 옥황묘문화가 부상하자 그 문화를 담당했던 주력집단이 마치 바뀐 것으로도 이해되어 왔다.

하가점상층문화와 옥황묘문화는 기본적인 시공간성이나 청동단검 양식, 상위계층 묘제, 취사용기 등의 문화적인 특징으로 볼 때 서로 구별되는 문화임에 틀림없다. 특히 하가점상층문화의 공병식동검은 옥황묘문화의 유병식동검에 비해 토착성이 강한 특징적인 유물이다. 그렇지만 두 문화는 분명 병행기가 존재하며, 석재 충진 목관묘나 간략화된 석관묘의 조성, 복면 장속이나 개·양·소 등을 순생하는 장법, 일부 유병식동검과 장식류나 토기류의 점진적인 진이 관계, 농경과 목축을 겸업하는 생업 방식 등은 일정하게 확인되는 공통점이라고 할 수 있다.

북방계통 청동단검문화의 이와 같은 시공간성이나 문화 내용으로 인해, 그 성격이나 담당자는 용적계통 또는 북방계통 주민집단으로 보는 것이 이미 통설화된 상황이다. 다만 기존 논의들은 문화 내용을 지나치게 이분법적으로 규정하고, 상사성보다는 상이성을 강조하며, 지역단위 고고문화에 선진문헌의 특정 종족집단을 바로 대입하는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다.⁸⁵

이를테면 林濤⁸⁶으로 대표되는 요령-길림지역 연구자가 주로 ‘하가점상층

85 지역단위 고고문화를 설정하고 상호 관계에 주목하는 것은 과거사회를 시공간적 체계로서 이해하기 위한 고고학적 연구 수단에 불과하다. 상호작용이 활발했던 지역집단 간의 종족성은 당시 중국인에게도 명확하게 인식되기 어려웠을 가능성이 높다.

86 林濤, 1995, 「東胡與山戎의 考古探索」, 『環渤海考古國際學術研討會論文集』, 知識出版社.

〈표 3〉 하북~요서지역 북방계통 청동단검문화의 주요 특징 비교

구분 내용	하가점상층문화	옥황묘문화
연대	서주 전기~춘추 중기	춘추 중기~전국 전기
지형	칠로도산~노로야호산맥	연산산맥
수계	서랍목문화~노합하	영정하상류~난하상류
표지 유적	극십극등 용두산, 옹우특기 대포자 영성 남산근·소혹석구	연경 옥황묘, 희래 복신보, 난평 이수구문
주요 묘제	석곽묘-석관묘 (다수 적석) 주축 주로 북남 방향	목곽묘-목관묘 (일부 적석) 주축 주로 동서 방향
표지 동검	공병식동검·유병식동검 (일자형병단)	유병식동검 (환수형병단)
전형 유물	치병동도, 삼족토기(력·정)	환수동도, 평저토기(호·관)
기타 유물	중월계 무기·예기 북방계 마구·동물장식	중월계 무기·차구·예기 북방계 마구·동물장식
순생	개·양>소·돼지·사슴	개·소>말·양>돼지
생업	혼합농경(목축, 농경)	혼합농경(목축, 농경)
문화성격	북방계통(후기카라숙계~ 스키토시베리안계)	북방계통(스키토시베리안계)

문화 산용설'을 주장하는 것과 달리, 靳楓毅⁸⁷로 대표되는 하북지역 연구자는 대개 '옥황묘문화 산용설'을 지지하는 경향이 많다. 다만 최근에는 조사연구 성과가 축적됨에 따라 두 문화의 연대관과 문헌 기록에 입각하여 '하가점상층문화 산용설'이 대세이며, 이에 대응하여 '옥황묘문화 대국설'과 '옥황묘문화 백적설'도 주장되는 상황이다.

87 靳楓毅, 1987, 「夏家店上層文化及其族屬問題」, 『考古學報』 1987-2; 靳楓毅, 2001, 「軍都山玉皇廟墓地的特徵及其族屬問題」, 『蘇秉琦與當代中國考古學』, 科學出版社.

‘하가점상층문화 산용설’에서는 남산근유형의 하가점상층문화가 춘추 전기 무렵 가장 성행하였다가 춘추 중기 이후 厚葬墓나 大形墓가 거의 찾아지지 않는 점에 근거하여, 이를 선진문헌에 기록되어 있는 제 환공의 산용 정벌 기사(기원전 7세기대 중엽)와 대응시켜 본다.⁸⁸ 또한 이에 대비시켜 옥황묘문화의 유행 시기를 춘추 후기 전후로 내려보고, 이를 다른 정치체나 종족 집단으로 이해한다. 즉 이는 하가점상층문화의 시간성을 중시하는 견해라고 할 수 있다.

그렇지만 영성 소흑석구 유적(1998년 조사구역)의 경우처럼 하가점상층문화의 일부 분묘들은 춘추 중기 이후에도 안정적인 조영 양상을 나타내며, 연경 옥황묘 유적(북 I 구)의 일부 분묘(M34 등)처럼 옥황묘문화의 상한연대가 춘추 전기 말~중기 초 무렵까지 소급되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또한 하가점상층문화에 후행하는 정구자문화(또는 철영자문화)에 속한 여러 지역군에서도 하가점상층문화와 관련되는 토기류나 장식품이 일부 확인되는 것을 보면, 역시 하가점상층문화와 옥황묘문화는 한동안은 병존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하가점상층문화가 융적계통 집단들과 관련되는 물질문화라고 하더라도 이것만을 ‘산용문화’라고 하기 위해서는, 제 환공의 산용 정벌 이후에도 하가점상층문화가 존속하며 그 이전부터 옥황묘문화가 유행하기 시작하였다는 점을 쉽게 설명해야 한다. 또한 제 환공의 북벌 과정에서 노로아호산맥에서 연산산맥 일대까지 분포하는 집단들을 서로 달리 인식하였다면 선진문헌에서 다른 명칭으로 언급되었어야 한다. 제의 정벌군이 난하하류지역이나 그 이북까지 진출하였다는 고고학적 증거 역시 뚜렷하지 않다.⁸⁹

‘옥황묘문화 산용설’은 옥황묘문화가 춘추시대 전 기간에 걸쳐 유행하였다

88 姜仁旭, 2016, 「기원전 9~3세기 요서지역의 고고학문화와 山戎·東胡」, 『白山學報』 106.

89 영성 소흑석구 8501호묘 출토 ‘허국(許國)’명문 청동예기(方鼎)를 하가점상층문화인(산용)의 증원(鄭國) 침략 과정에서 직접 얻은 전리품의 성격으로 보기도 하지만(강인욱, 2016, 앞의 글), 2차적인 전입품일 가능성도 있다(김정열, 2011, 「하가점상층문화에 보이는 증원식 청동예기의 연대와 유입경위」, 『한국상고사학보』 72).

고 보고, 그 성립 시기를 춘추 전기까지 소급시켜 이해하며, 연의 북방으로 인식되는 연산산맥 일대의 역사지리적 환경을 중시한다.⁹⁰ 즉, 이는 옥황묘문화의 공간성을 중시하는 견해라고 할 수 있다. 이 견해는 옥황묘문화의 본격적인 유행시기(춘추 중기~후기)와 제 환공의 산용 정벌 시점(기원전 7세기대 중엽)이 서로 부합하지 않는 점이 가장 큰 한계로서 언급되고 있다.

그렇지만 옥황묘문화의 성립 이전에도 연산 일대에는 주민들이 거주하였으며, 백부유형이나 장가원상층문화와 같은 비서주계 토착문화 유적들이 확인되어 있다. 또한 옥황묘문화와 관련되는 유적들은 하가점상층문화 유적들과 시공간적으로 일부 중첩되며, 점진적인 문화복합이나 문화변동 현상이 확인되고 있고, 연의 북방에서 동호(東胡)가 등장하기 이전까지 다른 이름으로 불린 종족이나 세력집단들은 찾아보기 어렵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 심지어는 제 환공의 북벌 대상으로 포함되어 있던 고족이나 영지 등도 한때 산용 일파로 인식되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결국 춘추 말기(옥황묘문화 3단계) 이전에는 연산산맥 일대에서 거주하는 집단들도 산용 일파로 인식됐을 가능성이 높다.

이 외에도 옥황묘문화의 담당집단에 대해서는 대국(代國),⁹¹ 백적(白狄),⁹² 무중(無終)⁹³ 등의 집단들이 거론되고 있다. 모두 ‘하가점상층문화 산용설’에 대응되는 견해로서, 옥황묘문화의 분포권이 상간하유역을 포함하는 태항산맥 북쪽까지 이어지는 점과 그 남쪽에서 확인되는 일부 옥황묘문화의 요소들을 고려하여 문헌 기록에서 춘추시대부터 확인되는 산용 외의 비서주계 융적 집단들에 주목한다.

대국설은 태항산맥 북쪽에서 활동했던 적족계통 집단 중에 춘추 말기 무렵 확인되는 대국(代國)과 관련시켜 보는 주장이다. 조(趙) 양자(襄子) 원년(기원전

90 吳江原, 1999, 앞의 글.

91 陶宗治, 2013, 「談玉皇廟文化的幾介問題」, 『文物春秋』 2013-1; 林灃, 1995, 「東胡與山戎的考古探索」, 『環渤海考古國際學術研討會論文集』, 知識出版社.

92 楊建華, 2003, 「再論玉皇廟文化」, 『邊疆考古研究』 2.

93 陳平, 1995, 「略論“山戎文化”的族屬及相關問題」, 『華夏考古』 1995-3.

457년)에 대(代)를 멸망시켰다는 것⁹⁴을 군도산 일대의 전국시대 이후 옥황묘문화가 쇠퇴하는 현상과 관련시켜 주목한다. 그렇지만 대국 중심부로 추정되는 하북 울현 일대는 옥황묘문화의 서남단에 해당되는 상간하의 남쪽 지역이다. 그 이전부터 옥황묘문화의 중심부는 북경 이북의 회래-연경 일원이었으며, 당시에는 그 동쪽의 난평 일대도 부상하는 시기였다. 옥황묘문화의 중심부가 연하도 문화로 대체되기 시작하는 때는 기원전 400년경부터라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

백적설은 태항산맥 남쪽에서 활동했던 적족계통 집단 중에 춘추 후기 무렵 확인되는 백적(白狄)과 연결시켜 보는 주장이다. 백적 집단은 선우(鮮虞)씨를 중심으로 춘추 후기 무렵(기원전 530년 이후) 진(晉)과 상쟁하는 과정에서 태항산맥 이동으로 옮겨와서, 춘추 말기 무렵(기원전 506년 전후) 호타하의 상류에서 중산국(中山國)을 건설한다. 평산 일대를 중심으로 중산국을 발전시킨 백적 집단들의 원류지를 군도산의 일원으로 확장시켜 보는 것이어서 설득력이 떨어진다. 태항산맥 동변에서 확인되는 옥황묘문화의 요소들은 춘추말~전국초 무렵 옥황묘문화의 쇠퇴 과정에서 확인되는 인적·물적 교류의 흔적으로 판단된다.

무종설은 연산산맥 일대에서 활동했던 용족계통 집단 중 춘추시대에 활동했던 무종(無終)과 관련시켜 보는 주장이다. 무종은 무종자국(無終子國)이라 하여 산용 일파로도 인식⁹⁵되었으며, 진국(晉國)과도 교류(기원전 569년)⁹⁶하였음에 주목한다. 무종의 중심지는 북경 동쪽의 계현 부근으로 추정되며, 연진(燕晉) 북방에서 춘추 후기 무렵 주로 활동하였다는 점을 감안하면⁹⁷ 어느 정도 부합되는 면이 있다. 그렇지만 중심지가 서쪽으로 이동하였다는 등의 여러 가지 문제들을 차치하고 이를 인정한다 하더라도 결국 산용으로 포괄되는 집단으로 인식되었

94 『戰國策』趙策 第2, “襄主 兼戎取代 以攘諸胡”.

95 『春秋左傳正義』卷3, 莊公, “莊公 三十年 …… 齊人伐山戎(杜預曰 山戎北戎 無終三名 其實一也)”.

96 『春秋左傳正義』卷29, 襄公, “襄公 四年 …… 無終子嘉父使孟樂如晉 因魏莊子納虎豹之皮 以請和諸戎”.

97 裴眞永, 2009, 앞의 글.

다는 점을 지적하고 싶다.

한편 북용이나 산용이라는 명칭 그 자체도 앞서 언급하였듯이 중원 이북 산간지대의 여러 지역집단을 포괄하는 명칭이며, 북용 또는 산용으로 지칭되는 집단 중에서는 연의 북방 외에 중원 방면에서 활동했던 세력들도 있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비록 같은 명칭으로 불리기는 하였지만, 춘추 전기 무렵 하남-산동 방면에서 활동했던 집단들은 연의 북방에서 활동했던 집단과는 약간 다른 집단으로 생각된다.⁹⁸

결국, 하가점상층문화나 옥황묘문화는 산용으로 불린 여러 집단 중에서도 한때 연나라의 북방에서 활동했던 유력집단의 문화로는 볼 수 있겠지만, 특정문화가 산용으로 불린 모든 집단들을 대표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수 있다. 춘추시대 산용으로 불린 집단들은 단일문화를 영위했던 동일 집단이 아닌, 중원 북쪽 산간지대이자 연나라에 인접하는 북방계통 물질문화 분포권과 관련되는 유사 성향의 비중원계(또는 비서주계) 주민집단을 통틀어서 부여했던 명칭으로 생각된다. 물론 ‘산용’ 그 자체는 ‘용족(戎族)’ 계통으로 인식되었다는 측면에서 ‘적족(狄族)’ 계통 집단과는 구별되는 족군(族群)으로 이해된다. 단일 집단이나 단일 정치체로 보기 힘든 문헌 기록으로 보아 산용문화를 고고학적 단일문화로 규정하는 것은 설득력이 떨어진다.

V. 맺음말

춘추시대 연의 북방지역으로 지칭되는 태항산맥 북단에서 노로아호산에 걸친 산간지대에는 하가점상층문화와 옥황묘문화로 대표되는 북방계통 청동단검문화가 크게 유행한다. 두 물질문화는 시공간성이나 묘제와 장법을 비롯한 문화적인 성향 등이 서로 달라 주민집단이나 종족성도 달리 이해하는 연구들이 많다.

98 김정열, 2011, 앞의 글; 양재영, 2010, 앞의 글.

하가점상층문화는 상말~주초 무렵 내몽고 동남부의 시라무렌하 일대에서 성립하여 점차 남하한다. 서주말~춘추초 무렵에는 노합하 상류지역에서 크게 발전하여 하북 북부지역이나 요서 서부지역까지 파급되며, 옥황묘문화의 성립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준다. 이때에는 영성 일대를 중심으로 북방계는 물론 중원계와 요령계의 여러 계통 청동유물들을 다량 부장하는 최상급의 수장묘가 조영되는 것이 특징이다. 춘추 중기~후기에는 다른 성향의 북방계통 물질문화(옥황묘문화, 정구자문화)가 유행하는 과정에서 급격하게 쇠퇴한다.

옥황묘문화는 황하상류 방면과 난하상류 방면의 문화요소들을 수용하여 춘추 전기말~중기초 무렵부터 하북 북부의 연산산맥 일대에서 성립한다. 춘추 중후기에 크게 발전하여 상간하구역과 난하구역까지 확산되며, 십이대영자문화와도 활발하게 교류한다. 이때에는 연경-회래 일대를 중심으로 북방계와 중원계의 청동유물이 다량 부장되는 수장묘가 조영되며, 대형 묘광을 지닌 순장묘도 확인되는 것이 특징이다. 전국 전기 이후에는 연하도문화의 확산 과정에서 점차 동화되어 정체성을 상실하는 것으로 이해된다.

하가점상층문화와 옥황묘문화는 상위계층 묘제, 동검, 토기 등의 양식적인 측면에서 보면 서로 구별되는 문화지만, 석재 총전 구조의 목관묘를 조영하고 복면 장속이나 개·양·소 등을 주로 순생하는 측면, 또한 일부 청동유물이나 토기류를 공유하며 목축과 농경을 겸업하는 생업 방식 등은 적지 않은 유사점이라고 할 수 있다.

하가점상층문화와 옥황묘문화는 시공간성이 일부 다르지만 둘 다 연나라의 북쪽에서 유행했던 북방계통 청동단검문화이다. 또한 이들 모두 춘추시대에는 중원질서에 편입되지 않은 ‘융적’으로 인식됐던 집단이다. 하가점상층문화와 옥황묘문화의 집단들이 대개 강경책과 타협책을 구사하며 중원 제후국과 다양하게 상호작용하였음은 두 문화에서 다양하게 확인되는 중원문화 요소들을 통해 알 수 있다.

그동안에 산융(또는 북융)으로 불린 집단들을 중원 이북의 산간지대에서 찾지 않고 요서지역까지 포함시켜 본 것은, 『사기』 흉노열전의 함축적인 기사에만

매몰된 채 하북~요서지역에 걸쳐 있는, 북방계와 요령계로 구별되는 청동단검 문화의 전개 과정이나 성격 등에 대한 이해가 부족했기 때문이다. 춘추 중기 이전 중원제국의 직접적인 관계망은 연산산맥 이북지역이나 난하유역 이동지역 까지 연결되지 못하였다.

‘산용’이라는 이름 그 자체가 춘추시대 중원 북쪽 산간지역이나 연나라의 주변에서 활동했던 중원질서에 편입되지 않은 여러 비중원계 지역 집단들을 통칭하는 명칭이다. 그러므로 연나라의 주변뿐만 아니라 중원지역에서 활발하게 활동했던 이 집단들을 단일집단 또는 고고학적 단일문화로만 대응시켜 보는 것은 타당하지 않은 방법이다.

명칭에서 드러나는 바와 같이 당시 중원 사람들은 산용 집단의 정체성을 자세하게 파악하지 못하였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산용 집단을 고고학적 개념으로 접근해야 하는 경우라면, 유사 문화 성향을 나타내는 문화권의 개념에서 접근하는 것이 합당하다. 이런 측면에서 보면 춘추시대의 하가점상층문화와 옥항묘문화의 주민들은 전혀 다른 집단으로 인식되었다고 할 수 없다.

참고문헌

- 姜仁旭, 2004, 「기원전 8~3세기 中國 北方 草原地帶의 銅劍文化－銅劍의 形式分類와 地域性을 중심으로」, 『동북아시아의 초기금속기문화』, 제31회 한국상고사학회 학술발표대회, 한국상고사학회.
- _____, 2005, 「夏家店上層文化의 형성과 유라시아의 초원문화」, 『동북아시아의 청동기시대－동검과 묘제를 중심으로－』, 2005년 서울경기고고학회 춘계학술대회, 서울경기고고학회.
- _____, 2007, 「中國 오르도스(鄂爾多斯) 青銅器의 概念과 初期研究에 대한 檢討－骨董學에서 新中國 成立以前까지」, 『中國史研究』 48, 中國史研究會.
- _____, 2009a, 「기원전 13~9세기 카라속 청동기의 東進과 요동·한반도의 초기 청동기문화」, 『湖西考古學』 21, 湖西考古學會.
- _____, 2009b, 「小黑石溝로 본 하가점상층문화의 새로운 인식」, 『韓國青銅器學報』 4, 韓國青銅器學會.
- _____, 2016, 「기원전 9~3세기 요서지역의 고고학문화와 山戎·東胡」, 『白山學報』 106, 白山學會.
- _____, 2018, 「초기 청동기시대의 북방초원과 한반도」, 『북방고고학개론』, 진인진, 권다순·장성더, 김정열 옮김, 2008, 『동북문화와 유연문명』, 동북아역사재단.
- 김동일, 2017, 「夏家店上層文化의 冀北地域 流入과 그 意味」, 『고고학으로 본 고조선』, 제41회 한국고고학전국대회 자유패널 발표요지, 한국고고학회.
- 김정열, 2009, 「요서지역 출토 상주 청동예기의 성격에 대하여」, 『요하유역의 초기청동기문화』, 동북아역사재단.
- _____, 2011, 「하가점상층문화에 보이는 중원식 청동예기의 연대와 유입경위」, 『한국상고사학보』 72, 한국상고사학회.
- _____, 2018, 「고고문화와 민족－중국학계의 시각에 대한 비판적 검토」, 『동북아역사논총』 62, 동북아역사재단.
- 김종일, 2008, 「고고학 자료의 역사학적 해석에 대한 비판적 고찰」, 『한국고대사연구』 52, 한국고대사학회.

- 박대재, 2013, 『중국 고문헌에 나타난 고대 조선과 예맥』, 경인문화사.
- 박준형, 2016, 「기원전 7세기 중반 동북아시아의 국제관계와 고조선의 위상」, 『白山學報』 106, 白山學會.
- 배진영, 2006, 「출토자료로 본 孤竹」, 『梨花史學研究』 33, 梨花史學會.
- _____, 2009, 『고대 북경과 燕文化』, 한국학술정보.
- 孫路, 2011, 「中國 東北地域 先秦時代 車馬具의 登場과 變遷」, 『韓國考古學報』 81, 韓國考古學會.
- 양재영, 2010, 「동주시기 중국 동북지역 북방민족 연구」, 『고구려의 등장과 그 주변』, 동북아역사재단.
- 吳江原, 1997, 「西遼河上流域 靑銅短劍과 그 文化에 관한 研究－銅劍의 系統과 使用集團 문제를 중심으로－」, 『韓國古代史研究』 12, 韓國古代史學會.
- _____, 1999, 「靑銅器時代 中國 東北地方의 主要種族 = 山戎族에 관한 研究」, 『白山學報』 53, 白山學會.
- _____, 2004, 「中國 東北地域 세 靑銅短劍文化의 文化地形과 交涉關係」, 『先史와 古代』 20, 韓國古代學會.
- _____, 2011, 「商末周初 大凌河 流域과 그 周邊 地域의 文化 動向과 大凌河 流域의 靑銅禮器 埋納遺蹟」, 『韓國上古史學報』 74, 韓國上古史學會.
- 이성주, 2006, 「韓國 靑銅器時代 ‘社會’考古學의 問題」, 『古文化』 68, 한국대학박물관 관협회.
- 이종수, 2010, 「송눈평원지역 청동기문화의 특징과 교류양상 검토－백금보문화를 중심으로」, 『요하문명의 확산과 중국 동북지역의 청동기문화』, 동북아역사재단.
- 이창규, 2009, 「요하유역 북방계 청동기의 출현」, 『요하유역의 초기 청동기문화』, 동북아역사재단.
- _____, 2013, 「中國東北地域과 韓半島의 合鑄式 劍柄 銅劍·鐵劍에 대하여」, 『白山學報』 97, 白山學會.
- _____, 2015, 『다뉴경과 고조선』, 단국대학교 출판부.
- _____, 2018, 「고고학에서 본 민족-종족의 형성」, 『신화의 역사화』, 진인진.
- 이후석, 2017a, 「고고학을 통해 본 초기고조선의 성장과정－십이대역자문화의 변천과 정을 중심으로」, 『崇實史學』 38, 崇實史學會.
- _____, 2017b, 「북방계통 물질문화와 山戎·東胡」, 『湖南文化財研究』 23, 湖南文化

- 財研究院.
- _____, 2018, 「비파형동검의 등장과 그 주변」, 『토지 활용과 경관의 고고학』, 제42회 한국고고학전국대회 자유패널 발표요지, 한국고고학회.
- 정대영, 2004, 「中國 河北省北部 ‘玉皇廟文化’ 연구」, 『문화재』 37, 국립문화재연구소.
- 조진선, 2010, 「요서지역 청동기문화의 발전과정과 성격」, 『요하문명의 확산과 중국 동북지역의 청동기문화』, 동북아역사재단.
- 中村大介, 2009, 「中國 東北地方과 韓半島의 靑銅器時代 並行關係」, 『동북아시아 적 관점에서 본 북한의 청동기시대』, 제2회 한국청동기학회 학사분과 발표논문, 한국청동기학회.
- _____, 2012, 「東北亞 靑銅器·初期鐵器時代 首長墓 副葬遺物の 展開」, 『韓國 上古史學報』 75, 韓國上古史學會.
- 전선형, 2010, 「비파형동검 성립전후 요서지역 토기문화의 전개」, 『요하문명의 확산과 중국 동북지역의 청동기문화』, 동북아역사재단.
- 靳楓毅, 1983, 「論中國東北地區含曲刃靑銅短劍的文化遺存(下)」, 『考古學報』 1983-1.
- _____, 1987, 「夏家店上層文化及其族屬問題」, 『考古學報』 1987-2.
- _____, 1991, 「軍都山山戎文化墓地葬制與主要器物特徵」, 『遼海文物學刊』 1991-1.
- _____, 2001, 「軍都山玉皇廟墓地的特徵及其族屬問題」, 『蘇秉琦與當代中國考古學』, 科學出版社.
- 陶宗治, 2013, 「談玉皇廟文化的幾介問題」, 『文物春秋』 2013-1.
- 滕銘予·張亮, 2011, 「玉皇廟文化的發現與研究」, 『北方文物』 2011-4.
- _____, 2014, 「東周時期冀北山地玉皇廟文化的中原文化因素」, 『考古學報』 2014-4.
- 史廣峰·邊質浩, 2002, 「薊縣張家園商周遺存的族屬問題」, 『文物春秋』 2002-4.
- 邵會秋·楊建華, 2015, 「從夏家店上層文化靑銅器看草原金屬之路」, 『考古』 2015-10.
- 楊建華, 2003, 「再論玉皇廟文化」, 『邊疆考古研究』 2.
- _____, 2008, 「夏家店上層文化在中國北方靑銅器發展中的傳承作用」, 『邊疆考古

研究』7.

烏恩岳斯圖, 2007, 『北方草原考古學文化研究』, 科學出版社.

王立新, 2004, 「遼西地區夏至戰國時期文化格局與經濟形態變遷」, 『考古學報』2004-3.

_____, 2005, 「探東胡遺存的一介新線索」, 『邊疆考古研究』3.

_____, 2012, 「關於東胡遺存的考古學新探索」, 『草原文物』2012-2.

_____. 齊曉光, 2002, 「龍頭山遺址的幾介問題」, 『北方文物』2002-1.

劉觀民·徐光冀, 1981, 「內蒙古東部地區青銅時代的兩種文化」, 『內蒙古文物考古』1981-1.

劉國祥, 2000, 「夏家店上層文化青銅器研究」, 『考古學報』2000-4.

李明華, 2011, 「從青銅短劍看早期草原青銅文化的傳播」, 『草原文物』2011-2.

林灃, 1980, 「中國東北系銅劍初論」, 『考古學報』1980-2.

_____, 1994, 「早期北方系青銅器的幾介年代問題」, 『內蒙古文物考古文集』1, 中國大百科全書出版社.

_____, 1995, 「東胡與山戎的考古探索」, 『環渤海考古國際學術研討會論文集』, 知識出版社.

田立坤, 2017, 「遼西地區先秦時期馬具與馬車」, 『考古』2017-10.

井中偉, 2012, 「夏家店上層文化的分期與原流」, 『邊疆考古研究』12.

趙賓福, 2007, 「遼西山地夏至戰國時期考古學文化時空樞架研究的再檢討」, 『邊疆考古研究』5.

朱鳳瀚, 2009, 『中國青銅器綜論』, 上海古籍出版社.

朱永剛, 1987, 「夏家店上層文化的初步研究」, 『考古學文化論集』1, 文物出版社.

_____, 1997, 「大、小凌河流域含曲刃青銅短劍遺存的考古學文化及相關問題」, 『內蒙古文物考古文集』2.

_____, 2004, 「夏家店上層文化向南的分布態勢與地域文化變遷」, 『慶祝張忠培先生七十歲論文集』, 科學出版社.

朱永剛·王立新, 2006, 「西拉木倫河流域先秦時期文化遺存的編年與譜系研究」, 『邊疆考古研究』4.

中國社會科學院考古研究所, 2004, 『中國考古學 兩周卷』, 中國社會科學出版社.

陳平, 1995, 「略論“山戎文化”的族屬及相關問題」, 『華夏考古』1995-3.

- 馮金忠, 2014, 「孤竹國研究的回顧與思考」, 『文物春秋』 2014-3.
- 韓嘉毅, 1994, 「從軍都山東周墓地談山戎·胡·東胡的考古學文化歸屬」, 『內蒙古文物考古文集』 1, 中國大百科全書出版社.
- _____, 1995, 「燕史原流的考古學考察」, 『燕文化研究論文集』, 文物出版社.
- 洪猛, 2014, 「玉皇廟文化初步研究」, 吉林大學 博士學位論文.
- 洪猛·王聰, 2014, 「淺探冀北地區夏家店上層文化遺存」, 『考古與文物』 2014-3.
- 宮本一夫, 2000, 「遼寧式銅劍文化圈とその社會」, 『中國古代北疆史の考古學的研究』, 中國書店.
- 石川岳彦, 2009, 「紀元前10世紀前後の遼東·遼西」, 『彌生時代の考古學2: 彌生文化誕生』, 同成社.
- _____, 2016, 「東北アジア青銅器時代の年代」, 『季刊 考古學』 35, 雄山閣.
- 小林青樹, 2008, 「遼寧式銅劍の起源に關する諸問題—小黑石溝遺蹟M8501墓出土短劍の觀察から—」, 『中國考古學』 8.
- _____, 2016, 「遼寧青銅器文化」, 『季刊 考古學』 35, 雄山閣.
- 小田木治太郎, 2012, 「燕山地域の北方青銅器文化墓の編年」, 『考古學雜誌』 96-2.

하북~요서지역 북방계통 청동단검문화의 전개와 성격

- 하가점상층문화와 옥황묘문화를 중심으로 -

이후석

중국 고대 문헌에는 춘추시대 연나라의 주변에서 산용 또는 북용이 활동하였으며, 심지어는 중원지역에서 여러 차례 전쟁까지 치렀다고 기록되어 있다. 산용(또는 북용)으로 불린 집단들은 중원 이북의 산간지대에서 주로 거주하였는데, 태항산맥 북단에서 노로아호산맥에 걸친 지역이 그 후보지에 해당된다.

이곳에서 확인되는 물질문화는 모두 북방계통 청동단검문화인데, 하가점상층문화와 옥황묘문화로 대표된다. 북방계통 청동단검문화는 춘추시기에 연산산맥에서 노로아호산맥에 걸친 산간지대에서 주로 유행했다. 두 물질문화는 상위 묘제, 동검, 토기 등의 양식적인 측면에서 볼 때 서로 구별되는 것이지만, 석재 충전 분묘, 도관 등의 일부 토기 기종, 개·양·소의 순생, 농경과 목축을 겸업하는 생업 방식 등의 측면에서 보면 유사성도 적지 않게 확인된다. 이 유사성은 두 문화의 시공간적 중첩 또는 인접 관계 하에 나타나는 문화권의 차원에서 이해된다.

하가점상층문화와 옥황묘문화의 주민들은 북방계통 물질문화를 바탕으로 주변 지역과도 다양하게 교류하였는데, 특히 두 문화의 집단들이 강경책과 타협

책을 구사하며 중원 제후국과 활발하게 교류하였음은 두 문화에서 다양하게 확인되는 중원계통 청동무기와 청동예기 등을 통해 알 수 있다.

‘산용’이라는 이름 그 자체가 춘추시대 중원 북방이나 연나라의 주변에서 활동했던, 중원질서에 편입되지 않은 여러 비중원계 또는 비서주계 지역집단들을 가리키는 명칭이다. 그 명칭에서 드러나는 바와 같이 당시 중원 사람들은 산용 집단의 정체성을 자세하게 파악하지 못하였다. 이런 측면에서 산용 집단의 물질 문화는 단일문화보다 유사 성향을 나타내는 문화권의 개념에서 접근하는 것이 합당하다. 춘추 중기를 전후하여 하가점상층문화와 옥황묘문화의 주요 집단들은 대개 산용이나 그 일파로 인식되었다고 할 수 있다.

주제어: 청동단검문화, 북방계통, 하가점상층문화, 옥황묘문화, 산용, 북용, 연

ABSTRACT

The Development and Characteristics of the Northern Style Bronze Daggers Culture in the Hebei and Liaoxi Area of China: Focused on the Upper Xiajiadian Culture and Yuhuangmiao Culture

Yi Whoseok

According to ancient documents in China, Shanrong (山戎) or Beirong (北戎) lived in the northern area of Yan (燕) during the Spring and Autumn period. The barbarian (Rongdi) groups called the Shanrong or Beirong resided in the mountainous areas north of Zhongyuan (中原), it is the area from the Mountain Taihang (太行山脈) to the Mountain Nuluerhu (努魯兒虎山脈). They shared similar Northern style bronze daggers culture, which encompassed people's livelihood, cultural traits and others.

The Upper Xiajiadian culture (夏家店上層文化, especially Nanshangen culture pattern) and Yuhuangmiao culture (玉皇廟文化) developed mainly around Mountain Yanshan and Mountain Nuluerhu in the northern area of Yan during the Spring and Autumn period. Th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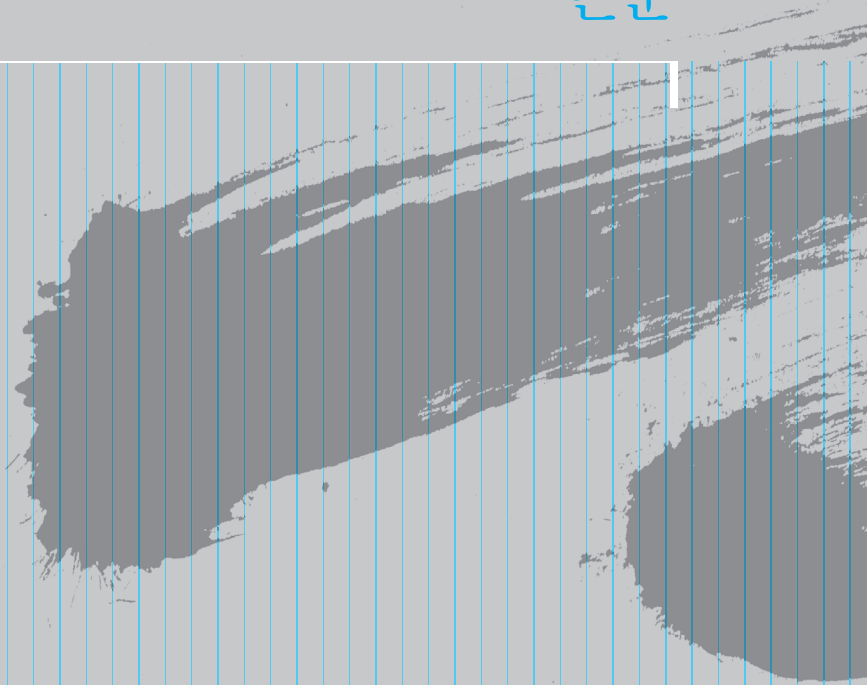
two material cultures were distinct from each other in terms of styles, including the upper tomb style, bronze dagger and pottery, but they shared common features in many aspects, including stone material-filled tombs, some types of pottery, burial of live dog, lamb and cow with the dead, and two professions of farming and ranching at the same time.

The Upper Xiajiadian culture and Yuhuangmiao culture shared similar Northern style bronze daggers culture. The groups that were regarded as the same barbarians called the Rongdi (戎狄). They interacted with vassal states of Zhongyuan in various ways, mainly through sticks, sometimes through carrots.

The name “Shanrong” itself is the term that refers to various local groups who were active around Yan during the Spring and Autumn period. It is highly likely that the groups of the Upper Xiajiadian culture and Yuhuangmiao culture were considered to be in the same Shanrong family.

Keywords: bronze daggers culture, Northern style, Upper Xiajiadian culture, Yuhuangmiao culture, Shanrong, Beirong, Yan

논문



동북아역사재단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고구려 귀면문수막새의 변천 양상

주홍규 | 영남대학교 문화인류학과 강사

- I. 머리말
- II. 선행연구의 검토
- III. 고구려의 귀면문수막새
- IV. 고구려 귀면문수막새의 수용과 변천
- V. 맺음말



I. 머리말

『구당서(舊唐書)』에 의하면 고구려에서는 사원·신묘·왕궁·관부 등에 기와를 사용했는데,¹ 그 사용처의 대부분이 왕권이나 국가 통치에 관계되는 건물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고구려에서 제작된 기와는 단순히 건물의 방수(防水)·방화(防火)를 위한 기능적인 목적 이외에도, 국가권력과 밀접한 관련성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추정해볼 수 있다. 이와 같은 고구려의 기와 중에서도 특히 수막새는 여타의 다른 주변국가 기와와 비교해보더라도, 문양의 특징이 매우 다양하며 독특한 제작기법에 의해 만들어진 것도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² 따라서 고구려의 수막새는 제 속성의 비교·분석을 바탕으로 편년을 행하기에 유리하고, 동 시기 주변국가 기와와 비교함으로써 대외교류의 양상까지도 확인할 수 있는 이점도 있다.

본 연구는 고구려의 수막새 중에서도 특히 반구형(半球形)의 큰 안구(眼球), 높고 큰 코, 크게 벌어진 입에 아래·위로 표현된 송곳니 등의 입체적인 단위문양으로 구성된 귀면문(鬼面紋)³ 수막새를 검토한 후, 그 제작연대와 수용 및 변천 양상을 파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기존에 고구려의 귀면문수막새로 보고

* 투고: 2018년 11월 12일, 심사 완료: 2019년 1월 28일, 게재 확정: 2019년 2월 15일

- 1 『舊唐書』 卷一百九十九上 列傳第一百四十九上 東夷高麗에 “…唯佛寺神廟及王宮官府乃用瓦…”라고 기술되어 있다.
- 2 고구려 기와 중에서도 특히 수막새의 종류와 제작기법에 관해서는 拙稿에서 검토한 바가 있다(주홍규, 2014, 「고구려기와의 분류와 특징에 관한 일고찰」, 『先史와 古代』 41, 한국고대학회). 이에 의하면 고구려의 수막새는 총 34종류로, 접합기법은 3형식으로 나눌 수 있다. 이는 고구려 수막새로 판단 가능한 3가지 조건을 제시한 결과에 의한 것이다.
- 3 귀면문은 벽사(邪)의 의미를 가지는 것으로 사람의 얼굴과는 달리 괴수의 얼굴을 형상화한 것을 일컫는다. 연구자에 따라서는 수면문(獸面紋), 인면문(人面紋), 용면문(龍面紋)으로 부르기도 하는데, 본 연구에서는 귀면문으로 지칭한다.

된 유물 중에는 발굴자료와 집성자료⁴가 있는데, 이 중에는 고구려의 기와로 판단하기 어려운 것도 있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고구려의 귀면문수막새로 판단할 수 있는 것을 대상으로, 동범(同范)·동형(同型)·동계(同系)⁵ 관계 속에서 연구대상을 분류하고 그 변화 양상을 파악하고자 한다. 고구려의 귀면문수막새에 관한 연구는 전체 고구려 기와의 편년의 한 축으로서 기능할 수 있을 뿐 아니라, 고구려사를 설명해줄 수 있는 기초자료로서도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된다.

II. 선행연구의 검토

고구려의 귀면문수막새에 관해서 세키노 다다시(関野貞)는 산성자산성(山城子山城: 현재 丸都山城)과 청암리토성(淸岩里土城), 평양철교 부근에서 발견되는 귀면문수막새를 매우 뛰어난 걸작이라고 평가하고, 고구려 말기의 것으로 보았다.⁶ 연대 판단의 명확한 근거를 제시하지 않았지만, 유적의 대략적인 연대를 감안해 시기를 추정했던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귀면문수막새가 출토된 각 유적이 조영된 정확한 시점을 알 수 없고, 각 유적의 조영기, 수리(수축)기, 개축기의 어느 시점에 제작된 기와인지에 관한 검토도 결여되어 있다. 나아가 연대를 판단한 귀면문수막새가 고구려의 것인지에 관한 기초적인 검토를 행하지 않았다.⁷

4 발굴조사를 통해 보고서에 정확한 출토지가 기재된 자료를 발굴자료로, 수집·수습 등의 행위에 의해 출토지가 불명확한 유물을 집성자료로 구분한다.

5 동범와(同范瓦)는 같은 범을 이용해 제작한 것으로 단위문양의 속성과 배치가 일치하는 것을 말한다. 동형와(同型瓦)는 단위문양의 구성 및 배치 양상은 동일하나, 단위문양의 형태에서 차이를 보이는 것을 일컫는다. 동계와(同系瓦)는 단위문양의 구성이 유사한 것을 가리킨다.

6 関野貞, 1928, 「瓦」, 『考古學講座』9, 雄山閣.

7 고구려 중기의 왕성유적인 국내성(國內城)에서는 발해의 유물이, 고구려 후기의 도

이우치 이사오(井内功)는 귀면문양이 표현된 집안지역과 평양지역 출토의 기와류를 모두 평양 천도(427년) 이후의 것으로 판단했는데, 그중에서도 청암리 토성에서 출토된 귀면문수막새는 표현법이 원시적이고 소박한 점을 들어 제작 시기가 가장 빠르다고 설정했다.⁸ 그는 중국 남북조시기의 귀면문양을 검토한 후, 북위(北魏)의 석굴사원에 표현된 귀면문양과 고구려의 귀면문양이 서로 밀접한 관련성이 있다고 보고, 고구려 귀면문양의 원류를 운강(雲岡)석굴 조영기인 북위시대 귀면문양에서 구했다. 그 결과, 북위에서 고구려에 귀면문수막새가 전래된 시기를 5세기 말경이나 늦어도 6세기 초두로 추정했다. 고구려의 귀면문양과 주변국가의 귀면문양을 상호 비교해 귀면문수막새의 연대를 추정할 점과, 고구려 귀면문수막새의 원류를 찾고자 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 연구로 평가된다. 하지만, 연구대상으로 삼은 귀면문수막새가 모두 고구려 시대의 것인지에 관한 기초적인 검토가 결여된 점과, 북위시대의 귀면문수막새와 고구려의 귀면문수막새를 직접 상호 비교하지 못했다는 점, 그리고 고구려의 귀면문수막새가 어떤 변화 양상을 보이는지를 밝히지 못한 점에서 아쉬움이 있다.

세키구치 히로쓰구(關口廣次)는 고구려의 유적에서 출토된 귀면문수막새의 문양과 북위 낙양(洛陽)성지에서 출토된 수막새의 문양이 유사하다고 보고, 493년에서 534년에 만들어진 북위의 귀면문수막새와 고구려의 유적에서 출토된 귀면문수막새가 거의 동일한 시기에 제작되었을 것으로 추정했다.⁹ 수막새에 한정해 비교·검토한 결과를 토대로 연대를 추정한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 하지만 비교대상으로 삼은 북위 낙양 출토의 귀면문수막새가 정확히 어느 시점에 만들어졌는지에 관한 검토가 결여되어 있어서, 고구려 귀면문수막새의

성이 있던 평양지역에서는 고려시대와 조선시대의 유물도 출토된다. 따라서 출토지가 불명확한 집성유물은 물론이고, 발굴조사에 의해 고구려유적에서 출토된 기와라고 하더라도 무비판적으로 연구대상으로 삼는 것은 지양해야 한다.

8 井内功, 1968, 「高句麗の鬼面紋屋瓦」, 『鬼面紋瓦の研究』, 井内古文化研究室.

9 關口廣次, 1977, 「瓦當文様雜考」, 『考古學ジャーナル』 285, ニューサイエンス社.

상세한 제작연대를 밝히기에는 한계가 있다. 또한, 연구대상으로 삼은 귀면문 수막새가 고구려 시대의 것인지에 관한 기초적인 검토도 결여되어 있다.

임지덕(林至德)·耿철화(耿鐵華)는 동대자(東臺子)유적에서 출토된 귀면문 수막새를 모두 고구려의 것으로 간주하고, 귀면문양의 입 속에 표현된 이빨의 개수와 혀의 유무를 기준으로 총 4형식으로 분류한 후, 가장 조잡하게 제작된 귀면문수막새(林至德·耿鐵華의 형식분류 Ⅱ·Ⅲ식)가 가장 이른 시기인 392년 전후에 제작된 것으로 추정했다.¹⁰ 이는 동대자유적의 축조연대를 392년 전후로 판단한 결과에서 도출된 결론이다. 하지만, 동대자유적의 조영연대가 4세기 말이라는 고고학적 증거는 확인되지 않았고, 고구려의 수막새가 조잡한 형태에서 세련된 형태로 변천한다는 형식학적 변화 양상의 정확한 근거도 논증하지 않았다.

백중오는 고구려에서 귀면문수막새가 제작된 시기를 7세기 이후로 보았다.¹¹ 귀면문수막새를 용면문으로 간주하고, 이는 도교의 도입과 더불어 만들어진 것으로 추정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북위의 사원지에서 출토된 수막새가 고구려의 귀면문수막새와 유사한 단위문양의 요소를 가지고 있다는 기존의 선행 연구를 무시하기 어렵다. 따라서 도교보다는 불교 사원의 건축을 위해서 귀면문 수막새가 만들어진 것으로 보는 것이 오히려 무리가 없다.

김희찬은 집안지역에서 출토된 귀면문수막새를 집성한 후, 입의 표현형태·혀의 유무·이빨의 개수 등, 개별 단위문양의 변화와 조합관계를 기준으로 총 6가지 형식으로 분류했다.¹² 그는 귀면문수막새의 각 형태요소가 어느 정도 시간성을 반영하는 것으로 보았는데, 역사다리꼴이나 장방형의 입모양 표현에서 족침형인 것으로, 혀는 유설에서 무설인 형태로, 수막새의 크기는 소형에서 대

10 林至德·耿鐵華, 1985, 「集安出土的高句麗瓦當及其年代」, 『考古』 7期, 科學出版社.

11 백중오, 2006, 『고구려 기와의 성립과 왕권』, 주류성출판사.

12 김희찬, 2009, 「고구려 귀면문수막새의 형식과 변천」, 『고구려발해연구』 34, 고구려발해학회.

형으로 변화한다고 판단한 후, 공반된 연화문(蓮華紋)·시체연화문(柿體蓮華紋)·입연화문(立蓮華紋)수막새의 연대를 근거로 귀면문수막새의 연대를 5세기 중엽에서 7세기로 비정했다. 고구려유적에서 출토된 귀면문수막새에 제작시기의 차이가 있을 가능성을 제시한 점에서 기존의 선행연구와는 차별화시킬 수 있다. 하지만, 연대 판단의 근거로 삼은 연화문·시체연화문·입연화문수막새 등은 절대연대를 비정할 수 없는 것들로서, 귀면문수막새의 시기 판단의 근거로 삼기에는 충분한 논의가 더 필요하다. 또한, 기존의 연구들과 같이 연구대상으로 삼은 귀면문수막새가 모두 고구려시대의 것인지에 관해서 검토하지 않았다는 점도 지적할 수 있다.

강현숙은 동대자유적의 초축(初築)과 하한(下限)의 시간적 범위를, 출토된 연화문·복합연화문·입체연화문·귀면문·인동문수막새의 연대 비정을 통해 구하고자 했다.¹³ 그중에서도 귀면문수막새는 중국 남북조시대의 것과 비교해 5세기 말 이후에 제작된 것으로 판단했다. 연구대상으로 삼은 귀면문수막새가 모두 고구려시대의 것인지에 관해서 검토하지 않았다는 점과, 비교대상으로 삼은 북위 평성(平城) 명당유지(明堂遺址)에서 출토된 귀면문수막새의 제작시기에 관한 검토작업이 결여된 점을 문제점으로 지적할 수 있다.

이상과 같이 기존의 선행연구에서 확인되는 문제점들을 정리해보면, 우선, 대부분의 선행연구에서 대상으로 삼은 귀면문수막새가 모두 고구려시대의 것인지에 관한 기초적인 검토가 결여되어 있다. 또한, 연대 판단의 근거로 삼은 중국과 고구려 기와의 연대를 명확히 제시하기 어려운 상태임에도, 이를 근거로 고구려의 유적에서 출토된 귀면문수막새의 연대를 파악하고자 하는 경향도 보인다. 반면, 다수의 기존 연구성과들은 고구려 귀면문수막새의 조형(造型)을 북위시대로 보는 점도 인식할 수 있다.

이상과 같은 선행연구의 문제점들을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집안지역과 평

13 姜賢淑, 2010, 「中國 吉林省 集安 東台子遺蹟 再考」, 『한국고고학보』 75, 한국고고학회.

양지역에서 출토된 고구려의 귀면문수막새에 대하여 하나의 동일한 범주 내에서 지역적·시기적 양상을 파악하고, 그 제작연대와 변천과정을 밝히고자 한다.

Ⅲ. 고구려의 귀면문수막새

1. 발굴자료

1) 국내성 출토 귀면문수막새

압록강을 사이에 두고 중화인민공화국(이하 중국)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하 북한)이 접하는 집안평야의 서쪽에는 통구하(通溝河)가 흐르는데, 그 동안(東岸)에 국내성이 자리잡고 있다. 국내성의 성벽은 동쪽이 약 554m, 서쪽이 약 751m, 남쪽이 약 664m, 북쪽이 약 715m로 방형에 가깝다(그림 1). 성벽은 돌을 안쪽으로 계단식 들어쌓기를 해 축조했다. 『國內城-2000~2003年集安國內城與民主遺址試掘報告-』(이하 『보고서1』)에 의하면 국내성유적에서는 각종 토기류와 철제무구류, 암·수키와류와 함께 권운문·연화문·귀면문·인동문·연화중권문수막새 등의 다양한 수막새가 출토되었으며 발해의 기와도 보고되어 있다. 『보고서1』 이외에도 국내성에서 출토된 귀면문수막새는 『朝鮮古蹟圖譜 一』(이하 『보고서2』)와 『通溝 上』(이하 『보고서3』)에서도 확인된다. 『보고서2』와 『보고서3』에서 출토된 것으로 보고된 귀면문수막새는 동형의 기와가 모두 『보고서1』에 게재되어 있으므로, 구체적인 출토 양상을 알 수 있는 『보고서1』을 기준으로 귀면문 수막새의 면모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그림 1-1〉은 문지 서쪽의 치에서, 〈그림 1-2〉는 시설험소학교지점에서, 〈그림 1-3〉은 서벽 바깥의 배수구에서, 〈그림 1-4〉는 체육장 지점에서, 〈그림 1-5〉는 개발공사루사에서, 〈그림 1-6〉은 체육장 지점에서 각각 출토되었다. 이와 같이 국내성에서 출토된 귀면문수막새는 단위 문양상의 제특징으로 살펴볼 때 총 3가지 유형으로 분류할 수 있다. 제1유형은 2중으로 돌아가는 큰 안구



위에 화염문양이 배치되어 있고 미간에 검릉형(劍菱形)이 중복되어 있는 <그림 1-1·2>, 제2유형은 큰 안구의 끝이 치켜 올라가듯이 표현되어 있고 미간에서 양쪽으로 휘날리듯 길게 뻗어 나온 문양이 배치되어 있는 <그림 1-4·5·6>, 제3유형은 작은 안구에 외부권선이 없고 크게 벌린 입의 하단에도 돌아가는 문양이 표현되어 있는 <그림 1-3>으로 구분이 가능하다. 이 중에서 제1유형과 제2유형에서는 고구려의 수막새에서 확인되는 접합기법인 다치구(多齒具) 굽기 접합기법이 관찰되므로,¹⁴ 고구려의 기와라는 것이 명확하다. 하지만 제3유형인 <그림 1-3>은 고구려의 기와일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지만, 현 단계에서

14 주홍규, 2014, 앞의 글.

고구려 기와로 단정 짓기도 쉽지 않다. 제1·2유형과 달리 양 안구의 크기가 매우 작고 외부권선이 돌아가지 않는 점에서 차이가 나기 때문이다. 또한 제3유형의 귀면문수막새가 출토된, 국내성의 서벽 바깥 배수구라는 유구의 성격은 후대의 유물이 뒤섞여 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¹⁵ 따라서 제3유형의 기와를 고구려의 귀면문수막새로 판단하기 위해서는 출토층위나 공반유물과의 관계 및 명확한 고구려의 기술에 의해 제작된 근거 등이 필요하다.

2) 환도산성 출토 귀면문수막새

환도산성은 집안시기에서 통구하를 따라 서북쪽으로 약 3km 정도 올라간 곳에 위치한다. 반듯하게 잘라 만든 돌을 질서정연하게 쌓아 올려 성벽을 돌렸는데, 동·북·서벽은 배후가 절벽으로 되어 있어서 적을 방어하기에 매우 유리한 지리적 이점을 가지고 있다(그림 2). 문지는 총 7군데에 설치되어 있고, 산성 안에서는 건물터도 발견되었다. 국내성의 배후에 위치하고 있어서 ‘긴급피난용의 대규모 산성’¹⁶으로 보기도 한다. 2004년에 간행된 『丸都山城-2001~2003年集安丸都山城調査試掘報告-』(이하 『보고서4』)에는 각종 토기류와 철제 무구 및 농구, ‘小兄’이나 ‘弗’ 등의 명문이 새겨진 암·수기와 편, 각종 수막새류가 출토된 것으로 보고되었다.

『보고서4』 이외에도 환도산성에서 출토된 귀면문수막새로 『보고서2』와 『보고서3』에도 보고된 것이 있으나, 모두 『보고서4』에 게재된 것과 동형인 것들이다. 따라서 구체적인 출토 양상을 알 수 있는 『보고서4』를 중심으로 살펴보면, 환도산성에서 출토된 귀면문수막새는 단위문양 상의 제특징을 통해 총 4유형으로 분류할 수 있다. 앞서 기술한 국내성 출토 귀면문수막새와 동형의 제1유형(그림 2-4~15), 제2유형(그림 2-16~22), 제3유형(그림 2-23~25) 외에도, 큰 안

15 예를 들어 『보고서1』에서는 국내성에서 고구려의 유물 외에도 중국 흑룡강성에 위치한 상경성(上京城) 출토의 수막새와 동형의 발해 기와도 발견되었다고 보고되었다.

16 東潮·田中俊明, 1995, 『高句麗の歴史と遺蹟』, 中央公論社, 26쪽.



구 사이의 미간에 검릉형이 중복되어 있으며 외부권선 안쪽으로 연주문(連珠紋)¹⁷이 촘촘하게 돌아가고 안구와 연주문 사이에 화염문을 촘촘히 배치한 제4유형(그림 2-1~2)이 추가된다.¹⁸

각 유형들의 출토 상황을 살펴보면 1호문지와 2호문지 및 전대대에서는 제1·2유형만이, 궁전지에서는 제1·2·3·4유형의 모든 귀면문수막새가 확인된다. 제4유형도 고구려의 수막새의 접합기법에서 보이는 다치구 굽기 접합기법(그림 2-2)이 관찰되므로 고구려의 수막새로 판단할 수 있다.¹⁹

반면, 전술한 바와 같이 제3유형이 고구려의 귀면문수막새일 가능성을 배제하지는 않지만, 이를 단정짓기 위해서는 고구려 수막새의 문양적 속성이나 제작 기법 상의 제특징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²⁰

3) 동대자유적 출토 귀면문수막새

이 유적은 국내성에서 동쪽으로 500m 정도 떨어진 지점에 위치하는데, 넓고 평탄한 황토대지 위에 있어서 동대자유적이라고 부른다.²¹ 『보고서2』와 『보고서3』에는 여기에서 채집된 기와류가 게재되어 있는데 그중에는 귀면문수막새도 포함되어 있다. 이후 중국 측에 의해 1958년 4월부터 7월에 걸쳐 조사가 진행되어 구조가 다른 4기의 건물터가 확인되었다(그림 3).

17 연주문은 페르시아의 사산조가 기원이며, 서역이나 중앙아시아를 통해서 중국으로 전래되었다는 견해가 있다(坂本知子, 2000, 「トルファン出土染織資料について」, 『シルクロード學研究』,シルクロード學研究センター).

18 한편, <그림 2-3>의 경우는 대부분의 문양면이 유실되었기 때문에 전체적인 양상을 알 수 없다. 외부권선 안쪽으로 촘촘히 연주문양이 돌아가는 점에서 <그림 2-1>이나 <그림 2-2>와 유사하지만, 그 외의 단위문양요소를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제외하기로 한다.

19 주흥규, 2014, 앞의 글.

20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일단 제3유형의 귀면문수막새를 배제하고 논지를 전개하고자 한다.

21 池内宏·梅原末治, 1938, 『通溝』上, 日滿文化協會.



각 건물터에서는 온돌시설이 설치되어 있었고, 건물군의 중앙에 위치하는 I 과 II가 다른 건물터보다 더 크다는 것이 드러났다. 유적의 층위는 총 4층으로 나누는데, 제2·3층에서 토기와 기와류 등, 대량의 고구려 유물이 출토되었다고 보고되었다.²² 동대자유적에서 출토된 귀면문수막새는 제2유형(그림

22 吉林省博物館, 1961, 「吉林輯安高句麗建築遺址의清理」, 『考古』1, 科學出版社.

3-2~4)과 제4유형(그림 3-1)인데, 전술한 바와 같이 모두 고구려의 수막새로 판단할 수 있다. 동대자유적에서 출토된 유물 중에는 절대연대를 알 수 있는 것이 없고, 층위에 의한 유물의 신·구 관계를 파악할 수도 없다. 따라서 동대자유적의 조영시기 판단은 출토된 수막새의 연대로 추정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다.

4) 청암리사지 출토 귀면문수막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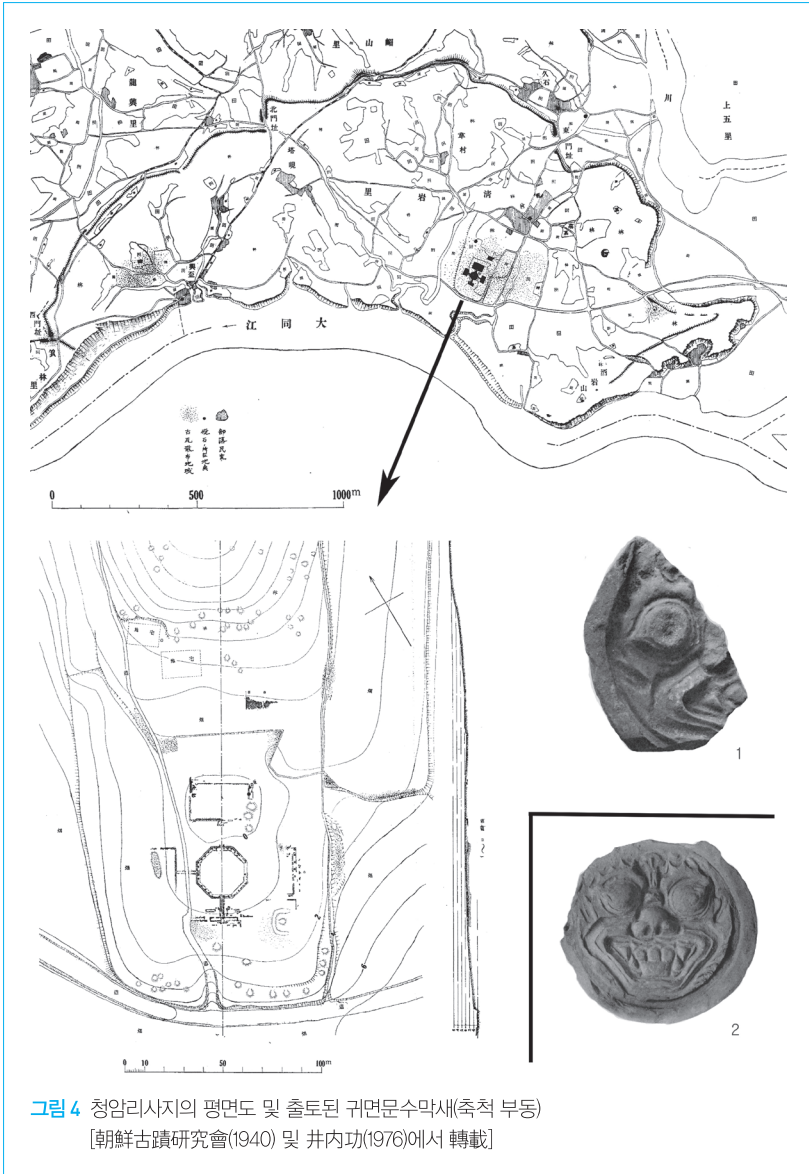
평양시가에서 대동강을 따라 북서쪽 약 3km 거슬러 올라간 강의 북안에 위치하는 청암리 토성은 동서로 약 2.4km인 긴 반월형이다(그림 4).

남쪽은 대동강에 접하는 절벽으로 되어 있고, 동·서·북쪽으로는 구릉의 능선을 따라 호상으로 성벽이 둘러 있다. 토성 중앙에서 동쪽으로 얼마 안 간 지점에 청암리사지가 위치한다. 1938년의 발굴 당시에 궁전의 건물일 가능성이 지적되었으나,²³ 팔각탑의 흔적과 불상, 광배, ‘寺’가 새겨진 명문기와 등, 불교 관련 유물이 확인되어 사원으로 추정한다. 2004년에도 북한에 의해 조사가 진행되어 수막새 등의 유물이 보고되었다. 지금까지의 조사결과로 볼 때, 청암리 토성 내부에는 2개소 이상의 큰 건축군이 존재했던 것으로 생각된다.

사원지로 추정되는 건물지의 기반부에서는 여러 유형의 수막새가 발견되었는데, 귀면문수막새도 수 점이 확인되었다. 하지만 출토된 귀면문수막새는 한 유형뿐으로, 집안지역에서 출토되는 것과는 달리 불거진 안구에 역사다리꼴에 가까운 입모양이 표현되어 있는 단위문양 상의 특징을 가진다. 이와 같은 것을 제5유형으로 분류할 수 있는데, 대부분 파편뿐으로 원형은 발견되지 않았지만 <그림 4-2>와 같은 집성자료를 통해 전체적인 양상을 파악할 수 있다.²⁴ 청암리사지에서 출토된 제5유형도 고구려의 수막새 접합기법에서 보이는 다치구 굽

23 朝鮮古蹟研究會, 1940, 『昭和十三年度古蹟調査報告』, 朝鮮古蹟研究會.

24 <그림 4-2>는 당시 평양에 거주하면서 많은 유물을 수집한 일본인 諸岡榮治가 수집한 것으로, 보고서에서는 동형인 수막새로 추정했다(朝鮮古蹟研究會, 1940, 앞의 글).



기 접합기법이 관찰되므로 고구려의 수막새로 판단할 수 있다.²⁵ 한편 2004년도에 북한에서 간행된 보고에 의하면, 일제강점기에 보고된 귀면문수막새(그림 4-1·2)와는 다른 형식의 귀면문수막새도 출토되었다고 보고했지만, 이 기와는 고려시대의 것으로 간주했다.²⁶ 이 외에도 청암리사지에서는 고려시대의 암·수막새, 시기미상의 철제농기구류, 금제 및 금동제의 장신구 등도 함께 출토되었다.²⁷

5) 정릉사지 출토 귀면문수막새

평양시가에서 동남쪽으로 약 20km 거리에 있는 력포구역 무진리 왕릉동에 위치한 정릉사지는 1974년 봄·가을에 조사가 행해진 후, 1976년에 『동명왕릉과 그 부근의 고구려유적』(이하 『보고서5』)이 간행되었다.

『보고서5』에 의하면 정릉사지유적은 전체의 규모가 남북으로 132.8m, 동서로 223m인 거대 사원터로서, 유구는 총 18동의 건물터와 10열의 회랑으로 구성되어 있다(그림 5). 회랑을 기준으로 총 5구역으로 나눌 수 있다. 중앙에 회랑으로 둘러싸인 건물터가 I 구역이고, 그 서쪽에 II·III구역이 배치되어 있다. I 구역의 동쪽으로는 IV·V구역이 배치되어 있는 양상이다. 유적의 정중앙에 해당하는 I 구역에서는 한 변이 약 8m에 이르는 8각 기단의 탑지로 추정되는 건물터가 확인되었다. 8각 기단의 좌우에는 비대칭의 건물터가 있고, 북쪽의 회랑을 끼고 3동의 건물터가 발견되었다. 전술한 청암리사지와 유사하게 중심에 8각 건물이 배치되어 있다.

정릉사지에서 출토된 유물로는 ‘寺’라는 문자가 새겨져 있는 기와 편을 비롯해 ‘衲’, ‘衆僧’, ‘陵寺’, ‘定陵’ 등이 인각된 토기편이 있는데, 정릉사라는 이름

25 주흥규, 2014, 앞의 글.

26 리광희, 2004, 「청암동 토성에서 새로 발견된 수기와 연대」, 『조선고고연구』 1, 사회과학출판사의 ㉔번 수막새.

27 朝鮮古蹟研究會, 1940, 앞의 글.

도 여기에서 기인했다.²⁸ 하지만 고문헌을 살펴보면 같은 이름의 고구려 사원은 발견되지 않는다.

『보고서4』에 의하면 정릉사지에서는 총 19종류의 수막새가 출토되었는데, 그중에는 청암리사지에서 발견된 것과 동형인 제5유형의 고구려 귀면문수막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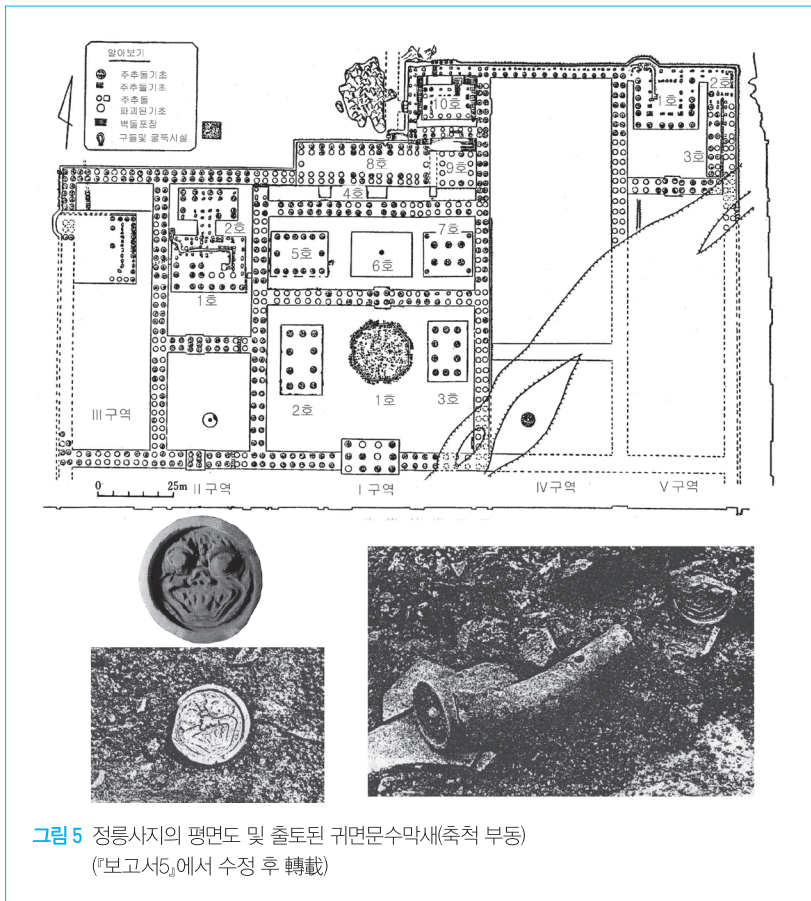


그림 5 정릉사지의 평면도 및 출토된 귀면문수막새(축척 부동)
(『보고서5』에서 수정 후 轉載)

28 김일성종합대학, 1976, 『동명왕릉과 그 부근의 고구려유적』, 김일성종합대학출판사.

가 있다(그림 5). 이 귀면문수막새는 유적의 중심으로 생각되는 I 구역의 10호 건물지에서만 출토되었다.

2. 집성자료

전술한 『보고서2』와 『보고서3』 외에도 『高句麗時代之遺蹟』, 『朝鮮瓦塼』, 『朝鮮瓦塼圖譜 II』, 『일본소재 고구려 유물 I·II·III』 등에는 상기의 유적들에서 발견되는 고구려의 귀면문수막새(제1·2·4·5유형)와 동형의 기와가 보고되어 있다. 이와 같은 유물들이 비록 출토지가 명확하지 않은 집성자료이기는 하지만, 고구려의 기와로 판단되는 유물들과 동형이므로 고구려의 수막새로 판단이 가능하다. 하지만 현 단계에서 고구려의 기와로 판단하기 곤란한 집성유물들도 확인된다. 예를 들어 <그림 6-1·2>는 『高句麗時代之遺蹟』에, <그림 6-3>은 『朝鮮瓦塼圖譜 II』에 수록된 수막새인데, <그림 6-1>은 전 평양출토의 유물로, <그림 6-2·3>은 전 청암리 토성으로 주기되어 있다. 이 귀면문수막새들의 경우에는 동형의 고구려 귀면문수막새가 존재하지 않고, 고구려의 기와에서 관찰되는 접합기법도 확인되지 않으므로, <그림 6>의 수막새들을 고구려의 수막새로 판단할 수 없다. 집성유물에는 위작이 포함되어 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상과 같은 출토자료와 집성자료에서 고구려 귀면문수막새로 판별할 수 있



그림 6 평양지역에서 집성된 귀면문수막새(축척 부동)
[朝鮮總督府(1929) 및 井内功(1976)에서 轉載]

는 기준으로는 다치구 굽기 접합기법을 이용해 수키와를 와당 뒷면에 붙인 기술적 속성이 있는 점이나, 미간의 검릉형 문양이 표현된 점, 안구 위쪽의 화염문양이 배치된 점 등을 들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와 같은 고구려 귀면문수막새의 판별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그림 6>의 집성자료를 모두 연구대상에서 제외하고, 전술한 제1·2·4·5유형의 수막새만을 고구려의 귀면문수막새로 간주하여 그 제작시기와 수용 및 변천 양상을 살펴보고자 한다.

IV. 고구려 귀면문수막새의 수용과 변천

고구려의 귀면문수막새로 판단 가능한 총 4유형의 수막새를 형식에 따라 분류해보면, 크게 평양지역에서만 출토되는 귀면문수막새 I 과 집안지역에서만 출토되는 귀면문수막새 II 로 대별할 수 있다.

양자에 있어서 가장 큰 단위문양 상의 차이점은 I 의 경우에는 역사다리꼴에 가까운 입의 형태를 가진 반면, II 의 경우에는 장방형에 가까운 입의 형태가 확인된다는 점이다. 한편 II 의 경우에는 문양부와 외부권선 사이에 배치된 연주

형식	I	II		
		A		B
		1	2	
문양적 특징	 1	 2	 3	 4
출토 유적	청암리사지 / 정릉사	국내성 / 동대자유적 / 환도산성		환도산성 / 동대자유적

그림 7 고구려 귀면문수막새의 형식 분류(축척 부동)

문의 유무에서 차이를 보이는데, 연주문이 배치되지 않은 것을 A로, 연주문이 외부권선의 안쪽으로 돌아가며 배치된 것을 B로 분류할 수 있다. A는 다시 2중으로 돌아가는 큰 안구 위에 화염문양이 배치되어 있는 1과, 안구의 끝이 치켜 올라가듯이 표현되어 있으며 미간에서 양쪽으로 휘날리듯 뻗어 나온 긴 선형의 문양이 배치되어 있는 2로 세분해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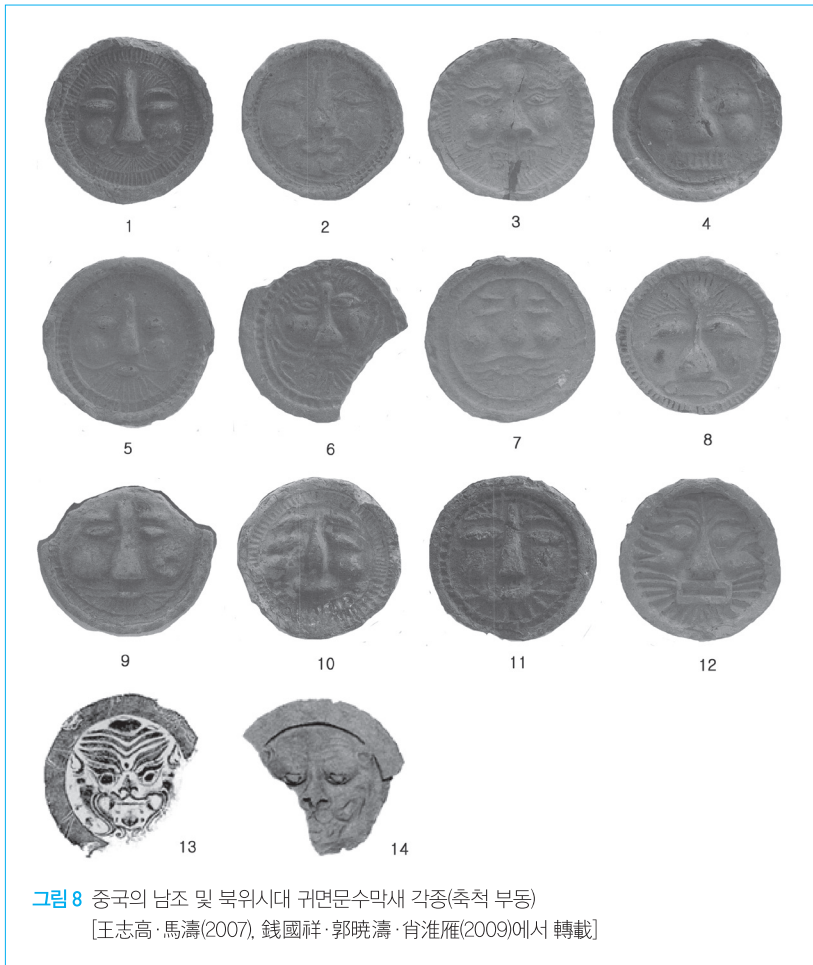


그림 8 중국의 남조 및 북위시대 귀면문수막새 각종(축척 부동)
[王志高·馬濤(2007), 錢國祥·郭曉濤·肖淮雁(2009)에서轉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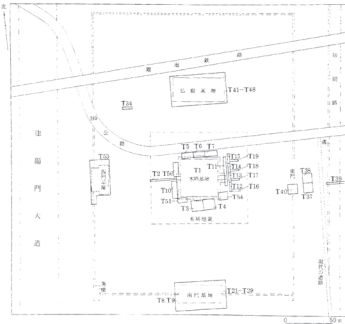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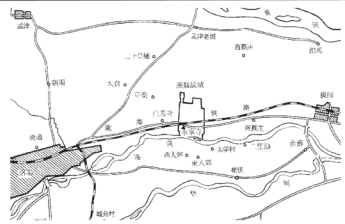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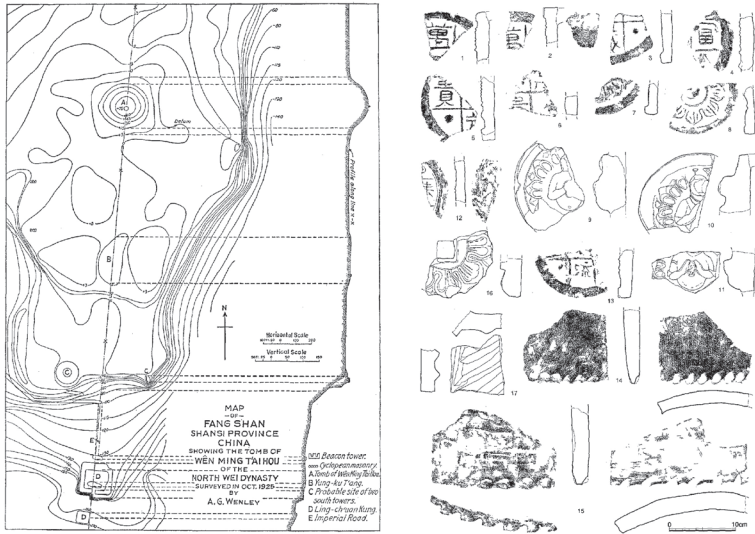


그림 9 북위 영고릉 및 영녕사지 출토 기와류(축척 부동)
 [도면 상: 岡村秀典·向井佑介 編(2007), 도면 하: 中國社會科學院考古研究所(1996)에서轉載]

이상과 같이 형식 분류한 고구려의 귀면문수막새 중에서 연대 판단의 기준이 될 수 있는 것이 귀면문수막새 I 식으로, 유사한 단위문양의 속성을 가지는 중국의 귀면문수막새 중에 비교대상으로 삼을 수 있는 것이 있다. 중국의 귀면문수막새에는 남경(南京)의 손오대행궁(孫吳大行宮) 등에서 출토된 오(吳)대 수막새²⁹(그림 8-1~12)와, 평성(平城)의 명당유지(明堂遺址) 및 낙양(洛陽) 영녕사지(永寧寺址) 출토의 북위(北魏)대 수막새(그림 8-13·14)가 있다. 이 중에서 인면문수막새로도 불리는 오대의 수막새는 얼굴의 표현이 인면(人面)에 가깝고 입체성이 떨어지는 점에서 고구려의 귀면문수막새와 비교해 볼 때 유사성이 떨어진다. 반면 북위대의 귀면문수막새(그림 8-13·14)는 크고 넓게 사다리꼴로 벌린 입의 표현이나 안구의 끝이 경사지게 치켜 올라간 점, 안구의 아래까지 입이 표현되어 있는 점 등의 특징이 고구려의 귀면문수막새 I 식과의 유사성이 인정된다. 따라서 고구려의 귀면문수막새 I 식의 제작연대를 북위대에 제작된 귀면문수막새에서 구할 수 있다.

북위의 귀면문수막새는 명당유지나 영녕사지에서 출토되지만, 북위가 낙양으로 천도하기 이전의 유적인 방산(方山) 영고릉(永固陵: 481~484)에서는 확인되지 않는다(그림 9). 그러므로 평성기의 북위시대에는 귀면문수막새가 사용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다. 한편, 영녕사지에서 출토된 귀면문수막새(그림 9-16·17)는 영녕사의 조영시기(516~534)를 생각해보면, 6세기 1/4기에서 6세기 2/4기경의 연대를 부여할 수 있다. 따라서 중국의 귀면문수막새 중에서 북위대의 것과 단위문양의 특징에서 가장 유사점이 보이는 고구려의 귀면문수막새 I 식도 6세기 1/4기에서 6세기 2/4기경의 제작연대를 상정해볼 수 있다. 앞서 선행연구에서 살펴본 기존의 연구성과들과는 달리 고구려 귀면문수막새의 제작 개시는 6세기 1/4분기 이후부터로 판단된다.

전술한 바와 같이 고구려 귀면문수막새 II 식의 가장 큰 특징은 I 식과 달리 장방형의 입부분이 안구에 거의 붙을 정도로 크게 벌어지게 표현된 점이다. 그

29 東晉 및 南朝의 吳·中期의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賀雲翱, 2005, 앞의 책).

러나 이러한 특징은 북위대의 귀면문수막새에서는 확인되지 않으므로, 제작개시기의 기와인 귀면문수막새 I 식보다 한 단계 늦은 6세기 3/4기 이후의 것으로 추정해볼 수 있다.

한편, 고구려 귀면문수막새 II B식은 고구려 귀면문수막새 II A식과 비교해볼 때 외부권선의 안쪽에 연주문이 배치된 점 이외에도 장방향으로 벌어진 입부분의 끝이 안구부까지 치켜 올라간 점에서 구별된다. 큰 안구와 장방향으로 넓게 벌어진 입부분의 끝이 안구부까지 치켜 올라가고 외부권선의 안쪽으로 연주문이 배치된 종합적인 특징을 가지는 북위대의 수막새는 확인되지 않는다. 반면, 고구려 귀면문수막새 II A식은 큰 안구의 아래쪽에 입이 표현된 점에서는 고구려 귀면문수막새 I 식과, 입부분이 장방향으로 넓게 벌어진 점에서는 고구려 귀면문수막새 II B식과의 유사성이 인정된다. 따라서 고구려 귀면문수막새 II A식은 귀면문수막새 I 식과 귀면문수막새 II B식의 사이에 위치시킬 수 있다. 한편, 고구려 귀면문수막새 II A1식과 고구려 귀면문수막새 II A2식은 안구 위에 배치된 화염문양의 유무와 미간에서 양쪽으로 휘날리듯 뻗어 나온 긴 선형문양의 배치 유무 외에는 큰 차이점이 확인되지 않는다. 그러므로 양자의 시기적 차이는 상정하기 어렵기 때문에, 범형의 제작에 따른 공인집단의 차이에 의한 결과로 추정된다.

이상을 종합해보면 고구려의 귀면문수막새는 아래와 같이 변화하는 것으로 상정할 수 있다.

6세기 1/4기~2/4기 6세기 3/4기 이후

귀면문수막새 I 식 → 귀면문수막새 II A식 → 귀면문수막새 II B식

고구려의 귀면문수막새를 출토지 별로 검토해보면, I 식은 평양지역의 건물지에서만 출토되는 반면에 II A·II B식은 집안지역의 건물지에서만 발견된다. 고구려 고분에서 귀면문수막새가 출토된 것으로 보고된 사례가 없으므로, 귀면문수막새는 주로 고구려의 도성이 위치했던 지역의 건물지에만 사용된 기

와로 판단된다. 또한 고구려의 귀면문수막새는 6세기 1/4기에서 6세기 2/4기경에 평양지역에서 우선적으로 채택되어 사용되었고, 집안지역에서 귀면문수막새가 사용되는 것은 6세기 3/4기 이후로 생각된다. 하지만, 평양지역에서의 귀면문수막새의 사용은 도입기인 6세기 1/4기에서 6세기 2/4기로 한정되고 그 이후에는 제작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반면, 집안지역은 평양지역에서보다 늦게 귀면문수막새가 제작되지만, 패턴의 변화 양상을 보이면서 제작이 지속되는 것으로 생각된다. 이와 같은 현상이 나타나는 원인 중 하나로 출토유적의 성격과 무관하지 않은 것 같다. 평양지역에서는 귀면문수막새가 사원유적에서 주로 발견되는 데 반해, 집안지역에서는 국내성과 환도산성, 동대자유적과 같이 고구려가 집안지역에서 평양지역으로 천도한 후에 지역의 거점지역으로 운영되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곳의 각종 건물지에서 출토된다. 벽사(辟邪)의 의미를 가지는 귀면문양을 장생과 다복을 기원하던 고구려인들이 평양지역의 사원유적에 우선적으로 채용했지만, 북방의 외부세력을 막는 중추적인 집안지역에서는 외세의 침입을 물리치고자 하는 의미를 더해 집중적으로 제작하였을 가능성을 유추해볼 수 있다.

고구려의 귀면문수막새는 <그림 2-2>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다치구 굽기 접합기법에 의해 제작되었다.³⁰ 5세기 4/4기에 사용되기 시작하는 이 접합기법³¹은 6세기에 접어들어서도 계속적으로 고구려 수막새의 주요한 제작기법 중의 하나로 자리매김하고 있다고 판단된다.

귀면문수막새를 포함해 고구려 수막새의 제작연대에 관해 살펴보면, 3세기 4/4기에서 4세기 3/4기경까지는 권운문수막새가 지속적으로 제작된 반면,³²

30 『보고서 4』, 『朝鮮瓦塚圖譜 II』, 『일본소재고구려유물 I · II · III』에는 고구려 귀면문수막새의 접합기법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들이 게재되어 있다.

31 주홍규, 2017, 「고구려 기와로 본 경신리 1호분(소위 「한왕묘」)의 조영연대와 피장자 검토」, 『韓國史學報』 68, 高麗史學會.

32 주홍규, 2015b, 「고구려 고분출토 수막새의 수용과 변천」, 『아름다운 공유 한성(漢城)에 모인 보물들』, 한성백제박물관, 207쪽.

구획선연화문수막새는 4세기 4/4분기에 만들어지기 시작해 6세기까지도 지속적으로 제작되었다.³³ 한편, 고구려의 연화문수막새는 5세기 4/4기 이후부터 만들어지게 된다.³⁴ 이와 같이 3~6세기 단계의 고구려 수막새는 권운문·구획선연화문·연화문수막새가 주류를 이루는 시기였다. 그러나 6세기 1/4기에 접어들게 되면 귀면문수막새와 같은 이전의 전통과는 단절된 새로운 문양속성을 가진 기와류가 제작되기 시작하는 흐름을 확인할 수 있다. 6세기 단계에 백제에서는 고구려와 달리 중국 남조의 양(梁)과 진(陳)에서 강한 영향을 받은 와전류가 제작되는 반면, 고구려의 새로운 조와술은 중국의 북조, 그중에서도 특히 북위에서 강하게 영향을 받은 것을 알 수 있다.

고구려의 조와술에서 북위의 영향이 확인되는 배경에는 당시 국제정세의 변화가 큰 영향을 끼치고 있었다고 생각된다. 북량(北凉)도 멸망시킨 북위가 화북의 재통일을 달성한 이후, 고구려는 북위에 적극적으로 사신을 보내 관계를 유지한다. 『三國史記』를 살펴보면 장수왕대에 총 41회, 문자왕대에 총 29회에 걸쳐 북위에 조공하는데, 이는 동 시기에 고구려가 제(齊)나 양(梁)에 조공한 횟수를 압도한다. 고구려는 북위와의 관계를 매우 중시하였고,³⁵ 양국의 우호관계는 북위의 분열 직전까지 계속된다. 적대적이지 않은 양국의 관계가 계속되는 때에, 고구려는 북위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받기 쉬운 상황이었음을 상정해볼 수 있다. 따라서 고구려가 북위에 활발하게 견사(遣使)한 6세기 1/4기에서 2/4기 사이에 새로운 문양요소가 도입되었을 가능성이 높는데, 영녕사의 귀면문수막새에 영향을 받아 고구려의 귀면문수막새가 이 시기에 출현한 것으로 생

33 주홍규, 2015a, 「고구려 고분출토 구획선연화문 수막새의 변천」, 『韓國上古史學報』 88, 韓國上古史學會, 132쪽.

34 고구려의 연화문수막새 중에서 가장 이른 단계의 것으로는 한왕묘(경신리 1호분)에서 출토된 것을 들 수 있다(주홍규, 2017, 앞의 글 참조).

35 『魏書』 등의 중국 역사서를 검토하여, 당시의 고구려가 북위의 천하관에 따른 하나의 변신(藩臣)의 입장이었다고 보는 연구도 있다(김진한, 2006, 「文咨王代の對北魏 外交 - 北魏 孝文帝 · 宣文帝的 對外政策과 關聯하여 -」, 『한국고대사연구』 44, 한국고대사학회, 174쪽).

각된다.

평양지역에서 출토된 고구려의 귀면문수막새는 청암리사지와 정릉사지에서만 보고되었다. 다수의 수막새류가 출토된 것으로 보고된 대성산성이나 많은 유물이 수집된 평양성 내부에서는, 귀면문수막새에 관한 보고가 확인되지 않는다. 따라서 고구려에 귀면문수막새가 수용되기 시작하는 단계에는 사원유적에만 이와 같은 기와가 제작되어 이용된 것으로 추정이 가능하다. 특히 정릉사지에서는 중심 유구인 I 구역의 10호 건물지에서만 출토되므로, 유적 전체라기보다는 유적 내부의 한정된 건물에서만 사용되었을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고구려의 귀면문수막새가 출토된 동대자유적의 조영시기에 관해서는 크게 4세기 4/4기와 5세기 말이라는 2가지의 견해가 있다. 우선 4세기 4/4기로 보는 견해는 I 실 중앙의 석주(石柱)를 『주례(周禮)』 정현주(鄭玄注)나 『여씨춘추(呂氏春秋)』 등의 문헌자료에서 보이는 사직신의 매체인 사주(社柱)로 보고, I 실을 지모(地母)를 제사지내는 곳으로, 인접한 II 실을 농신(農神)의 직(稷)을 제사지내는 곳으로 추정하여, 동대자유적을 고국양왕대(384~391)에 세운 ‘국사(國社)’로 본 것이다.³⁶ 이는 역사적 정황, 다시 말해 고구려가 평양지역으로 천도하면서 ‘국사’ 유적과 같은 중요한 시설을 활용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점에도 근거하고 있다. 따라서 동대자유적에서 출토된 유물도 모두 4세기 말에서 5세기 초의 것으로 본다. 한편, 동대자유적의 축조개시 시기를 5세기 말 이후로 추정하는 연구는 출토된 귀면문수막새를 북위대의 기와와 비교해 얻은 연대관에 입각한다.³⁷ 그러나 본 연구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동대자유적에서 출토된 고구려의 귀면문수막새 II A·II B식은 6세기 3/4기 이후의 것으로 추정된다. 동대자유적에서는 4·5세기에 주류를 이루던 권운문수막새나 구획선연화문수막새가 출토되지 않는다. 고구려에서는 이미 4세기대부터 건물에 수막새를 사용하고

36 方起東, 1982, 「集安東臺子高句麗建築遺址的性質和年代」, 『東北考古與歷史』1, 文物出版社.

37 姜賢淑, 2010, 앞의 글.

있었던 점을 생각해 보면, 4·5세기대의 고구려 수막새가 동대자유적에서 출토되지 않으므로, 동대자유적이 고국양왕대에 세워진 ‘국사’ 유적일 가능성은 낮다. 동대자유적의 조영시기에 관해서는 다른 수막새류를 포함한 출토유물을 상세하게 검토함으로써 파악되어야 하겠지만, 6세기 3/4기에 해당하는 귀면문수막새가 출토되는 점으로 미루어 이 시기에 기와를 올린 건물이 존재하고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동대자유적은 고구려가 평양으로 천도한 이후에 구도(舊都)로서 기능을 유지하고 있던 집안지역에서 모종의 역할을 했던 건축물이었을 가능성을 상정해 볼 수 있다.

국내성에서는 성의 거의 중앙을 남북으로 가로지르는 도로인 조양로(朝陽路)를 중심으로 서북쪽에서만 귀면문수막새가 출토되는 양상을 확인할 수 있다. 반면 3·4세기대의 유물인 권운문수막새는 국내성의 내부 각지에서 발견된다. 이와 같은 출토 양상으로 볼 때, 6세기 3/4기 이후에 고구려의 귀면문수막새를 사용한 건물이 성의 동북쪽에 치우쳐 존재했던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 중국의 고구려고고학 관련 연구는 기본적으로 임지덕·경철화의 연구³⁸를 근간으로 삼아, 집안지역 출토 고구려 기와의 연대적 하한을 평양 천도(427)로 삼는 경향이 강하다. 그러나 국내성에서 출토된 고구려 귀면문수막새의 연대로 볼 때, 집안지역에서의 기와 제작 하한연대를 평양 천도 이후로 볼 수밖에 없다. 동대자유적과 더불어 고구려가 평양지역으로 천도한 이후의 집안지역 양상을 파악할 수 있는 기초자료로서도 고구려 귀면문수막새의 중요성이 인정된다.

V. 맺음말

기원전 10세기경, 중국의 서주(西周)시대부터 제작되기 시작된 조와(造瓦)기술은 지역과 시대에 따라서 다양한 변화 양상을 보이면서 발전하게 된다. 그중에

38 林至德·耿鐵華, 1985, 앞의 글.

서도 수막새의 경우는 춘추·전국시대를 거치면서 반와당(半瓦當)이 부착된 수막새가 주로 제작되다가, 한(漢)대에 접어들어서는 원와당(圓瓦當)이 부착된 수막새로 통일되는 양상이 확인된다. 원와당이 부착된 수막새는 한반도, 일본열도, 베트남, 몽골 등 동북아시아의 각지에서도 제작되었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입체적인 문양표현의 속성을 가진 귀면문수막새의 제작은 북위와 고구려에 한정된다. 고구려도 고대 동북아시아의 제(諸)국가들처럼 중국과의 교섭을 통해 문화적 자극을 받았다고 생각된다. 고대 중국의 기술은 주변국가의 조와술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끼쳤다. 하지만 비록 중국의 조와기술이 고구려에 전해졌다고 하더라도, 북위와 고구려 귀면문수막새의 형태에서 차이를 보이고 있으므로, 완성품인 기와 자체의 이동이나 범(范)의 이동 및 조와기술자의 고구려 유입 등은 상정하기 어렵다. 외래 문화가 고구려 사회에 들어와서는 다양한 변화를 거치면서 다른 사회와 구별되는 독창적인 전통으로 변천해서 발전한 것으로 추정해볼 수 있다.

본 연구는 고구려의 귀면문수막새로 판단 가능한 자료를 선별한 후, 제작연대와 수용 및 변천 양상을 파악한 것이다. 고구려의 귀면문수막새와 가장 유사성을 가지는 중국의 기와는 북위시대에 만들어진 귀면문수막새이다. 중국과 고구려의 귀면문수막새의 비교 및 형식 분류를 통해 살펴본 결과, 고구려의 귀면문수막새가 'I 식 → II A 식 → II B' 식으로 변화하는 양상을 확인할 수 있었다. 고구려의 귀면문수막새는 6세기 1/4분기 이후부터 귀면문수막새가 제작되기 시작해, 6세기 3/4기 이후까지 형식의 변화를 거쳐가면서 제작의 전통이 이어진 것으로 추정된다. 고구려 귀면문수막새의 문양적 속성은 북위에서 고구려에 수용되었는데, 중국에서 가까운 집안지역보다 평양지역에서 우선적으로 제작되기 시작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평양지역에서는 한 가지 형식만의 귀면문수막새가 발견되므로 그 제작의 전통이 지속되지 않는 반면, 집안지역에서는 몇 가지 유형의 귀면문수막새가 출토되므로 이와 같은 계통의 수막새를 제작하는 전통이 집안지역에서 지속되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고구려가 평양지역으로 천도한 이후에도 집안지역은 기능을 완전히 상실하지 않았고, 고구려의 중요거점 지

역으로서 계속적으로 운영되었던 것을 알 수 있다. 집안지역과 평양지역에서 출토된 고구려의 귀면문수막새에는 다치구 굽기기법이라는 공통된 접합기법이 확인되는데, 이러한 접합기법은 5세기 말에 등장해 6세기대까지도 지속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이 고구려의 귀면문수막새에 관한 연구는 고구려 기와 편년의 한 축으로서 기능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문헌에서 확인되지 않는 고구려사를 설명해줄 수 있는 기초자료로서 그 중요성이 인정된다.

참고문헌

- 姜賢淑, 2010, 「中國 吉林省 集安 東台子 遺蹟 再考」, 『한국고고학보』 75, 한국고고학회.
- 국립경주박물관, 2000, 『新羅瓦塼』, 국립경주박물관.
- 김진한, 2006, 「文咨王代の對北魏 外交-北魏 孝文帝·宣文帝的 對外政策과 關聯 하여-」, 『한국고대사연구』 44, 한국고대사학회.
- 김희찬, 2009, 「고구려 귀면문수막새의 형식과 변천」, 『고구려발해연구』 34, 고구려발해학회.
- 김일성종합대학, 1976, 『동명왕릉과 그 부근의 고구려유적』, 김일성종합대학출판사.
- 동북아역사재단 편, 2008, 『일본 소재 고구려 유물 I-일제강점기 고구려 유적 조사 재검토와 關東地域 소재 고구려 유물 1』, 동북아역사재단.
- _____, 2009, 『일본 소재 고구려 유물 II-일제강점기 고구려 유적 조사 재검토와 關西地域 소재 고구려 유물 1』, 동북아역사재단.
- _____, 2010, 『일본 소재 고구려 유물 III-일제강점기 고구려 유적 조사·재검토』, 동북아역사재단.
- 리광희, 2004, 「청암동 토성에서 새로 발견된 수기와의 년대」, 『조선고고연구』 1, 사회과학출판사.
- 백종오, 2006, 『고구려 기와의 성립과 왕권』, 주류성출판사.
- 주흥규, 2014, 「고구려기와의 분류와 특징에 관한 일고찰」, 『先史와 古代』 41, 한국고대학회.
- _____, 2015a, 「고구려 고분출토 구획선연화문 수막새의 변천」, 『韓國上古史學報』 88, 韓國上古史學會.
- _____, 2015b, 「고구려 고분출토 수막새의 수용과 변천」, 『아름다운 공유 한성(漢城)에 모인 보물들』, 한성백제박물관.
- _____, 2017 「고구려 기와로 본 경신리 1호분(소위 「한왕묘」)의 조영연대와 피장자 검토」, 『韓國史學報』 68, 高麗史學會.

- 賀雲翱, 2005, 『六朝瓦當與六朝都城』, 文物出版社.
- 衢州市文物館, 1985, 「浙江衢州市隋唐墓清理簡報」, 『考古』5, 科學出版社.
- 吉林省博物館, 1961, 「吉林輯安高句麗建築遺址的清理」, 『考古』1, 科學出版社.
- 吉林省文物考古研究所·集安市博物館, 2004a, 『國內城—2000~2003年集安國內城与民主遺址試掘報告一』, 文物出版社.
- _____, 2004b, 『丸都山城—2001~2003年集安丸都山城調查試掘報告一』, 文物出版社.
- 方起東, 1982, 「集安東臺子高句麗建築遺址的性質和年代」, 『東北考古與歷史』1, 文物出版社.
- 王志高·馬濤, 2007, 「論南京大行宮出土的孫吳雲紋瓦當和人面紋瓦當」, 『文物』1, 文物出版社.
- 尹國有·耿鐵華, 2001, 『高句麗瓦當研究』, 吉林人民出版社.
- 林至德·耿鐵華, 1985, 「集安出土的高句麗瓦當及其年代」, 『考古』7, 科學出版社.
- 中國社會科學院考古研究所, 1996, 『北魏洛陽永寧寺』, 中國百科全書出版社.
- 中國社會科學院考古研究所·洛陽漢魏城隊, 1995, 「北魏洛陽永寧寺西門遺址發掘紀要」, 『考古』8, 科學出版社.
- 岡村秀典·向井佑介編, 2007, 「北魏方山永固陵の研究—東亞考古學學會1939年收藏品を中心として—」, 『東方學報』80, 京都大學人文科學研究所.
- 關野貞, 1928, 「瓦」, 『考古學講座』9, 雄山閣.
- 關口廣次, 1977, 「瓦當文様雜考」, 『考古學ジャーナル』285, ニューサイエンス社.
- 山崎信二, 2011, 『古代造瓦史—東アジアと日本—』, 雄山閣.
- 東潮·田中俊明, 1995, 『高句麗の歴史と遺蹟』, 中央公論社.
- 李久海·劉濤·王小迎, 2009, 「揚州城における近年の出土瓦」, 『古代東アジアにおける造瓦技術の變遷と傳播』, 科學研究費補助金(基盤研究A)研究成果報告書.
- 井内功, 1968, 「高句麗の鬼面紋屋瓦」, 『鬼面紋瓦の研究』, 井内古文化研究室.
- _____, 1976, 『朝鮮瓦塼圖譜 II』, 井内古文化研究室.
- 錢國祥·郭曉濤·肖淮雁, 2009, 「北魏洛陽城出土瓦の考古學的觀察」, 『古代東アジアにおける造瓦技術の變遷と傳播』, 科學研究費補助金(基盤研究A)研究成果報告書.
- 朝鮮古蹟研究會, 1940, 『昭和十三年度古蹟調查報告』, 朝鮮古蹟研究會.

- 朝鮮總督府, 1915a, 『朝鮮古蹟圖譜 一』, 朝鮮總督府.
_____, 1915b, 『朝鮮古蹟圖譜 二』, 朝鮮總督府.
_____, 1929, 『高句麗時代之遺蹟 上』, 朝鮮總督府.
池內宏·梅原末治, 1938, 『通溝』上, 日滿文化協會.
坂本知子, 2000, 「トルファン出土染織資料について」, 『シルクロード學研究』, シル
クロード學研究センター.
向井佑介, 2004, 「中國北朝における瓦生産の展開」, 『史林』87-5, 史學研究會.

고구려 귀면문수막새의 변천 양상

주홍규

고구려의 기와는 당시의 사회상과 물질적·정신적·사상적 측면의 변화상을 뒷받침해줄 수 있는 유물이기 때문에 중요하다. 이와 같은 고구려의 기와는 여타의 주변국가 기와와 비교해보더라도 문양의 특징이 다양하고 독특한 제작기법이 확인된다. 따라서 이러한 제 속성의 비교·분석을 바탕으로 편년을 행하기에 유리하고, 동 시기의 주변국가 기와와의 비교를 통해 대외교류의 양상을 확인할 수 있는 이점도 있다.

본 연구는 고구려의 귀면문수막새로 판단 가능한 자료를 선별한 후, 문양적 속성의 수용 및 제작연대와 변천 양상을 파악한 것이다. 그 결과 고구려의 귀면문수막새는 ‘I 식 → II A 식 → II B 식’으로 변화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기존의 연구와 달리 고구려에서는 6세기 1/4기 이후부터 귀면문수막새가 제작되기 시작하여, 6세기 3/4기 이후까지도 전통이 지속된다. 고구려 귀면문수막새의 문양적 속성은 북위가 평성(平城)에서 낙양(洛陽)으로 천도한 이후 단계에 처음으로 고구려에 수용되었는데, 중국에서 가까운 집안(集安)지역보다 평양지역에서 우선적으로 제작되기 시작한 것으로 보인다. 이후 평양지역에서는 귀면문수막새의 제작이 지속되지 않는 반면, 집안지역에서는 귀면문계통 수막새의 제작전

통이 지속되는 것으로 파악된다. 이를 통해 고구려가 평양지역으로 천도한 이후에도, 집안지역은 중요 거점지역으로서의 기능을 완전히 상실하지 않고 계속적으로 운영되었던 것으로 추정해볼 수 있다. 이와 같이 고구려의 귀면문수막새는 고구려의 기와 연구에 있어서 편년의 한 축으로 기능을 담당할 수 있을 뿐 아니라, 고구려사를 설명해줄 수 있는 기초자료로서도 그 중요성이 인정된다.

주제어: 귀면문수막새, 고구려, 형식 분류, 제작시기, 복위, 영고릉, 영녕사

ABSTRACT

The Acceptance of Koguryo's Roof Tiles with Goblin Pattern Changes

Ju Honggyu

Koguryo's roof tiles are important. We can make assumptions on the atmosphere of Koguryo society and physical, mental and ideological changes based upon the roof tiles. Compared with other countries' roof tiles, Koguryo's roof tiles have various patterns, and Koguryo had unique manufacturing techniques that cannot be found in other countries. Therefore, we can learn when the roof tiles were made through comparison and analysis. We can also look into Koguryo's interaction with other countries by comparing its roof tiles with those of neighboring countries.

This study intends to collect materials for Koguryo's roof tiles with goblin pattern and find out when they were made and accepted, and how they changed. As a result, it has been concluded that Koguryo's roof tiles with goblin pattern changed following I → II A → II B. Unlike previous studies, this article considers that Koguryo's roof tiles with

goblin pattern had been made since the first quarter of the sixth century. It is assumed that they had been made until the end of Koguryo, that they were accepted in Koguryo for the first time after the capital of Wei Dynasty was moved Píngchéng to Luòyáng, and that they were made in Pyongyang earlier than in Jíān near China. However, the roof tiles with goblin pattern had not been made in Pyongyang since then. On the other hand, it is thought that they continued to be made in Jíān. With the roof tiles with goblin pattern, we can assume that Jíān had not lost its function and had been an important place of Koguryo since the capital of Koguryo was moved to Pyongyang. This study for Koguryo's roof tiles with goblin pattern is significant as it shows the period system of Koguryo's roof tiles and contains basic data explaining Koguryo's history.

Keywords: roof tiles with goblin pattern, Koguryo, classification, manufacturing period, Wei Dynasty, the Yonggu Mausoleum at Fangshan, yǒngnúngsì

고구려의 미륵신앙 고찰

– 장천1호분의 예불도를 중심으로

이경란 | 부경대학교 사학과 박사 수료

- I. 머리말
- II. 고구려에 전해진 미륵상생신앙
- III. 장천1호분에 나타난 미륵신앙
- IV. 맺음말

I. 머리말

고구려 고분벽화에서 불교적 요소는 평양지역인 안악3호분에서와 같이 4세기 중반부터 등장하기 시작하여 5세기에 이르러 완전히 정착하게 된다. 특히 국내성이 오랜 시간 고구려의 수도였던 관계로 집안지역을 중심으로 전통문화 기반 위에 불교가 유입되고 수용·발전한다. 5세기의 고구려 고분벽화에서 나타나는 불교의 영향에 대해서는 많은 연구가 진행되었는데, 김원룡의 연구가 가장 앞선 연구이다.¹ 대부분의 연구는 불교의 상징인 연꽃²이나 불상, 보살상, 비천 등에 관한 제재가 연구의 주를 이루어왔다. 특히 불교적 요소가 농후한 장천1호분에 대해서는 ‘예불도’를 중심으로 불상양식에 관하여 상세한 고찰이 이루어졌다.³

이정효는 존상에 관한 불상양식에 따른 편년을 살폈고⁴ 문명대, 박아람은 선형연구에서 간다라양식의 콧수염 특징을 들어 서역의 영향에 의한 불상양식 연구⁵에 집중하여 서역관계를 파악하였다. 최연식, 김상현과 같이 미륵신앙으

* 투고: 2018년 10월 30일, 심사 완료: 2019년 2월 11일, 게재 확정: 2019년 2월 15일

- 1 김원룡, 1959, 「高句麗古墳壁畫에 있어서의 佛敎的 要素」, 『백성옥박사 송수기념 불교학논문집』, 동국대학교.
- 2 전호태, 1989, 「5세기 高句麗 古墳壁畫에 나타난 佛敎의 來世觀」, 『한국사론』 21, 서울대학교 국사학과; 전호태, 1990, 「高句麗古墳壁畫에 나타난 하늘연꽃」, 『美術資料』 46, 국립중앙박물관.
- 3 문명대, 1998, 「佛像의 受容問題와 長天1號墳 佛像禮佛圖壁畫」, 『講座 美術史』 10; 문명대, 1991, 「長天1號墓 佛像禮拜圖壁畫와 佛像의 始原問題」, 『先史와 古代』 1; 金理那, 1991, 「高句麗 佛敎彫刻」, 『高句麗 美術의 對外交渉』.
- 4 이정효·최덕경, 2005, 「장천1호분 예불도 벽화의 불상양식 고찰」, 『석당논총』 38집.
- 5 박아람, 2014, 「고구려 벽화의 북방문화적 요소」, 『고구려발해연구』 50, 고구려발해학회; 전호태, 2012, 「고분벽화로 본 고구려와 중앙아시아의 교류」, 『한국고대사연구』 68.

로 설명⁶하기도 하였다. 또 주수완은 석가모니불로 비정하고 있다.⁷

혹은 신앙에 대한 접근이 아니라 전호태는 장천1호분 벽화 전체에 대한 개괄이나 각 요소의 특징을 살펴보기도 하고,⁸ 김진순은 ‘예불도’에 나타난 보리수에 대해 언급하였다.⁹ 또한 명문을 통한 미륵정도와 아미타정도의 혼재 양상을 살펴기도 하였다.¹⁰

이와 같이 장천1호분에 대한 선행연구가 축적되어 있지만 당시 고구려 불교 신앙의 내용에 대한 고찰은 부족한 면이 없지 않았다.

고분벽화는 당대인의 생활양식과 사회풍습, 사후에 대한 생각과 염원 등이 나타난 기록화이므로 다분히 종교적 색채가 강해질 수밖에 없다. 집안지역은 기존 전통사회에 새 문물인 불교적 요소가 더해져 벽화 속 제재가 되었다. 새로운 기류가 기존 사회에 흡수되어 벽화의 제재가 되기 위해서는 전통문화와 상당한 기간 동안 융합할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하다.

시기적으로 4세기 중·후반 공식적으로 고구려에 불교가 유입되고 시간이 어느 정도 흐른 시점에서 축조된 장천1호분은 그러한 조건을 갖추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고구려인의 내세관이 어떠했는지를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고분벽화가 피장자의 살아생전 생활과 밀접한 연관이 있고, 사후에 가고자 하는 세계에 대한 염원을 담아 현세와 내세를 동일한 세계로 보는 계세사상(繼世思想)의 표현이라

6 최연식, 2002, 「삼국시대 미륵신앙과 내세의식」, 『장좌한국고대사』, 8. 가락국사적개발연구원; 김상현, 2007, 「고구려의 불교와문화」, 『고구려의 문화와사상』, 동북아역사재단.

7 주수완, 2018, 「장천1호분 예불도를 통해 본 고구려의 불교의례」, 동방문화대학원대학교 불교문화예술연구소.

8 전호태, 2015, 「고구려 장천1호분 연구」, 『고구려발해연구』 52 등이 있다.

9 김진순, 2008, 「5세기 고구려 고분벽화의 불교적 요소와 그 연원」, 『한국미술사학연구』 258, 한국미술사학회.

10 송철수, 2010, 「삼국시대 미륵신앙의 수용과 신앙형태에 대한 고찰」, 위덕대학교 석사학위논문.

고 지적한다.¹¹

5세기 중반 고구려 불교는 국가적인 차원의 장려정책과 왕실의 적극적인 지지, 그리고 안정된 북중국·유목민족과의 관계 속에서 수용되어 영향·발전의 단계를 거치며 고구려 불교문화를 전개해 나갔다. 전개된 불교문화는 고구려 사회에 깊숙이 뿌리를 내리고, 고구려의 기반 문화와 습합하여 고분벽화라는 특수한 장의미술문화를 이루게 된다.

필자는 불교문화가 반드시 경전에 근거하여 나타난 미술이라고 생각하는 바로서, 장천1호분에 나타난 고구려 불교신앙이 사후에 도솔천에 태어나고자 하는 미륵상생을 우선하고 하생을 바라는 신앙임을 밝히고자 한다. 그 근거로 『불설관미륵보살상생도솔천경(佛說觀彌勒菩薩上生兜率天經)』(이하 『상생경』)의 각 구절들을 예로 들어 장천1호분에 나타난 신앙을 살펴볼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 고구려에 전래된 불교사상이 무엇이었는지를 파악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할 수 있다.

II. 고구려에 전해진 미륵상생신앙

1. 미륵상생신앙의 개요

미륵상생신앙은 『상생경』에 근거한 신앙으로, 북량(北凉) 시조 저거몽손(沮渠蒙遜, 386~433)의 사촌아우 저거경성(沮渠京聲)에 의해 장천1호분 축조와 비슷한 시기인 남송 효무제 효건 2년(455)에 한역되었다.

『상생경』의 내용은, 옷빨리가 석가모니에게 그가 제자들과 권속들 앞에서 12년 후 범부인 아일다가 열반하여 도솔천에 태어나는 수기(受記)를 준 이유를 묻자 질문에 답하는 장면으로 시작한다. 이 장면은 서론이라 할 수 있고, 본론은

11 전호태, 2000, 『고구려 고분벽화 연구』, 사계절, 33~48쪽.

세 부분으로 구분된다.

전반부는 미륵보살이 태어날 묘한 즐거움이 가득찬 도솔천 풍광에 대한 설명 부분, 중반부는 그 도솔천에 태어나기 위하여 미륵보살을 신앙하는 자들이 행해야 할 사유관(思惟觀)과 계(戒)를 설명하는 부분, 후반부는 미륵보살이 56억 7천만 년 후에 도솔천의 4천 세를 채우고 염부제에 하생하는 것과 도솔천에 머물렀던 중생들이 미륵을 따라 함께 하생할 수 있는 공양방법에 대한 설명이다.

그리고 마지막 결론 부분은 경(經) 이름을 밝히는 장면과 모든 중생이 미륵과 함께 하생하기를 서원하며 석가모니에게 예를 올리고 물러서는 장면이다.

『상생경』에서 말하는 ‘도솔천 왕생(往生)’이란 사후에 미륵보살이 상주하고 있는 도솔천에 다시 태어나기를 바라는 신앙으로, 미륵정도가 있는 하늘세계에 오르기 위하여 현세에서 십선(十善)을 끊임없이 닦아야 함을 의미한다. 십선이란 무엇인가? 열 가지의 청정한 행위를 말한다. 십선을 닦기 위하여 무엇을 해야 하는가? 선근(善根)을 심어야 한다. 선근이란 무엇인가? 미륵보살의 질문에 부처는 선근에 대해 이렇게 말한다.

박복한 사람은 선근을 심으려고 애를 쓰지 않으며 가난하고 천하면서도 오욕락을 탐하여 윤회의 굴레를 벗어날 길이 없다. 속은 텅 비어 있고 교만하여 공경하는 마음을 내지 않으며, 부지런히 노력하여 성취하려고 하지 않는다. 부처가 세상에 오셨을 때 만나 뵈는 것은 어려운 일이므로 부처님을 만나기 어렵다는 생각에 부처님을 갈망하여 선근을 심게 된다.

- 『묘법연화경』, 「여래수량품」

선근이란 과보를 낳게 하는 착한 말과 행동과 의지 등을 항상 생활 속에서 실천해야 하며, 특히 욕심 부리지 않고 성내지 않고 어리석지 않은 삼선근(三善根)을 실천해 선근을 낳는 근본으로 삼아야 함을 의미한다. 『상생경』에서 말하는 ‘도솔천 왕생’의 필수조건인 십선이라 함은 바로 선근을 심어야 하는 것이다. 그 선근은 바로 연꽃봉오리 속에 저장된 씨앗으로 표현되었다. 봉오리로부터 땅

으로 떨어지는 씨앗은 현세에서부터 쌓아온 실천된 십선이며, 늘 이 십선을 닦아 미래의 세 교주인 미륵부처를 만나야 하는 것이다.

도솔천에 나기 위해서는 다섯 가지 계율 및 팔관재계와 구족계를 지녀 몸과 마음을 정진해야 하고, 또한 열 가지 선한 법을 닦아서 오로지 도솔천상의 홀륭하고도 묘한 쾌락을 염원하며 날날이 사유해야 한다.

장천1호분의 연화화생 그림이나 연꽃 속에 표현된 씨방은 그러한 선근이나 그 결과로 태어난 왕생을 의미한다고 보인다.

2. 고구려에 전해진 미륵상생신앙

고구려의 불교는 전진(前秦, 351~394)의 부견(苻堅, 재위 357~385)이 소수림왕(小獸林王) 즉위 2년(372)에 승려 순도와 함께 불상과 경문 등을 전해주니, 고평무제(孝武帝, 동진 함안 2년)가 즉위한 해이다. 2년 후 아도가 동진에서 오고, 이듬해 국내성 지역에 초문사(肖門寺)를 지어 순도를, 이불란사(伊弗蘭寺)를 지어 아도를 머무르게 했는데, 이것이 공식적인 시작이다.¹²

고구려에 전해진 불교가 미륵신앙이었는지에 대하여는 확실한 문헌적 근거가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나 공전되었을 당시 전해준 인물과 관련된 측면을 고려하면, 그 사상을 유추해보는 것이 어려운 것은 아니다.

당시 불교의 중국화를 시도한 중앙아시아 쿠차 출신의 불도징(佛圖澄, 232~348)의 제자이며 중국 불교의 기틀을 마련했다는 도안(道安, 312~385)이 장안에서 역승(譯僧)을 지도하며 미륵신앙을 수행하고 있었다. 부견은 늘 도안을 만나고 싶어하여, 칠 척 높이의 금박의상(金箔倚像)과 진주로 장식한 미륵상(結珠彌勒像) 등을 그에게 선물하고¹³ 쌀 천 섬을 보내기도 하였다.¹⁴

12 『三國遺事』, 「高句麗本紀」 제3권, 興法篇; 『三國史記』 권18, 「高句麗本紀」 小獸林王 2年 6月條.

13 『梁高僧傳』 卷5, 釋道安, “苻堅遺使 送外國金箔倚像高七尺 又金座像 結珠彌勒像 金縷繡像 織成像各一張.”

도안은 죽음 전에 미륵상 앞에서 도솔천 왕생을 기원하고 관법(觀法)을 통하여 서북쪽의 하늘 방향에서 도솔천의 아름다운 모습을 목격했다고 한다. 입적 무렵에 찾아온 이승(異僧)에 의해 도솔천의 모승지보(妙勝之報)를 수십 명의 대중과 함께 보았다고 한다.¹⁵ 도안의 관법수행으로 보아 그는 미륵상생신앙을 추구하였고, 도안의 제자 담계(曇戒)는 병이 들어 제자와 미륵의 명호를 염불하며 수행하여 도솔천에 오르고자 하였으나 오르지 못하여 그곳에 왕생하기를 기원 하다고 하였다.¹⁶

이러한 기록을 전제로, 부견이 전해준 불교는 도안의 제자들과 연관되었다고 알려진 아도와 순도가 전한 미륵상생신앙이 기본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4세기 말 전진의 미륵불교가 고구려로 공식 유입되고, 돈황석굴이 위치한 서량을 정복한 북량은 불교문화의 수준을 한껏 끌어올렸다. 북위는 북량을 차지함으로써 이러한 수준 높은 불교문화를 받아들여 왕족불교화하였다. 그러한 불교문화가 고구려에 영향을 끼쳤음을 감안할 때,¹⁷ 북방과 서방 이민족에게 널리 유포된 미륵신앙이 자연스럽게 고구려 상류사회에 한 장르로 자리잡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고구려에 전해진 불교가 미륵상생신앙이었음은 전진 왕 부견의 통치방식을 통해서도 알 수 있다. 그는 수많은 전쟁을 치르고 통일 왕조를 개창한 후, 국가 통치체제로 불교를 보호하고 포교한 인도 아쇼카왕의 통치방식을 그대로 표방하여 불교 신봉에 대단히 앞장선 열성적인 불교신자였다.¹⁸

14 김영태, 1997, 『佛敎思想史論』, 민족사, 102~103쪽.

15 김영태, 1997, 위의 책.

16 고희련, 2011, 『미륵과 도솔천의 도상학』, 일지사, 30~31쪽.

17 북량의 저거몽손은 고장(姑臧)을 점령하여 하서왕이라 칭하고 황하 중·하류까지 불교문화를 전파하였다. 돈황석굴의 서량(400~421)을 정복하고, 아들 저거몽건이 439년 북위 태무제에게 정복당하여, 북량의 불교문화가 북위에 깊은 영향을 끼쳤다.

18 김상현, 2005, 「중국 문헌 소재 고구려 불교사 기록의 검토」, 『고구려의 사상과 문화』, 96~98쪽; 정선여, 2007, 『고구려불교사 연구』, 20쪽.

더구나 불교가 중국에 후한 말 명제 10년(67)에 전래된 것이 통설이므로, 비록 전래 초부터 빛을 발한 것은 아니었지만 300여 년간 축적되고 내재되어 온 다양한 불교문화를 고구려에 전할 때 포교의 일환으로 불상이나 경전뿐만 아니라 석가모니 일대기에 관한 내용이나 불교 전반에 관한 문화도 전해주었을 것이라 짐작된다.

진진으로부터 그러한 불교문화를 받아들인 소수림왕은 국가 통치에 불교를 적극 활용하여 중앙집권적 귀족국가 체제를 정비하였다. 이는 불교를 수용하고 발전시키는 단계에서 고구려 왕실이 중요한 역할을 담당할 것을 통해 알 수 있다.¹⁹

소수림왕을 이은 고국양왕, 광개토왕, 장수왕대에 이르기까지 고구려는 영토 확장과 불교 확산이라는 일관된 정책으로 불교에 의한 왕권 강화에 힘썼다. 고국양왕은 요동으로의 진출 시도와 생산력 확대 등 국가 경쟁력을 키우는 정책을 표명하고, 불교 승신을 하교하여 고구려 사회에 불교를 더욱 확산시키게 하였다.²⁰

“불교를 믿어 복을 구하라(下教崇信佛法求福).”

위 기록은 고구려에 전래된 불교가 구복신앙임을 알 수 있게 하는 부분이다. 또한 공식적인 유입 이외에도 양(梁)나라 혜교(慧皎, 497~554)의 『고승전(高僧傳)』에서 고려도인(高麗道人) 기사에 관한 기록은 불교의 공식 수입 이전에 사적인 왕래가 있었음을 의미하며, 이미 생활 속에서 불교가 자리잡아 가고 있었음을 의미하기도 한다.

“지둔도림이 고구려 도인에게 서신을 보내어 축삼을 찬칭했다.”²¹

19 신동하, 1988, 「高句麗의 寺院造成과 그 意味」, 『한국사론』 19, 3~29쪽.

20 『삼국사기』 권18, 고국양왕 9年條.

사문(沙門)을 도인으로 칭하여 도교(道敎)의 도사(道士)와 구별하는 남조불교의 특징으로 보아, 편지를 주고받은 도인은 고구려 승려일 것이라 사료된다.²²

위 기록은 북쪽으로 유입된 불교 이전에 동진시대 사원이 1,768여 개가 건립²³되었을 정도로 융성했던 불교국가 동진과 고구려 사이에도 이미 사적으로 불교 교류가 있었음을 암시한다 할 수 있다. 그러나 비록 동진과 불교 교류가 있었다고는 하나, 고구려의 불교는 남조 불교와 달리 왕권의 직접적인 간섭과 왕권 강화의 수단으로 활용되었으므로, 고구려 불교는 남조의 불교보다는 ‘왕즉불(王卽佛)’ 사상을 표방한 북조의 왕권불교였음을 짐작하게 한다.

3. 미륵상생신앙의 근거

고구려의 불교 전래에 관하여 도안과 그 제자들이 실천·수행한 미륵상생신앙으로부터 영향을 받았다는 것뿐만 아니라, 이후 고구려에 퍼진 신앙은 미륵상생신앙이었다는 근거가 될 수 있는 몇몇 명문이 남아 있어 중요한 단서가 된다.

첫 번째 명문의 예가 고구려지역에서 출토된 금동판(金銅版)²⁴에서 확인되고 있는데, 그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왕의 영령이 도솔천에 왕생하여 미륵을 친견하고, 천손이 함께 만나고, 모든 생명이 좋은 일이 있기를 발원……(願王神昇兜率 查勤彌勒 天孫俱會 四生蒙慶).”²⁵

21 『고승전(高僧傳)』 권4, 「축잠심전(竺潛心傳)」, 286~374쪽.

22 신종원, 1992, 『新羅初期佛敎史研究』, 민족사, 206쪽.

23 이춘식, 2005, 『중국사서설』, 교보문고, 200쪽.

24 고구려 양원왕 2년(546)으로 추정되는 함경남도 신포시사지(新浦市寺址)에서 출토되었다.

25 『북녘의 문화유산』, 2006, 국립중앙박물관, 87쪽.

이는 고구려 왕실에서 미륵상생신앙을 갖고 있었던 명백한 근거라고 여겨진다. 고구려인들이 도솔천 상생을 꿈꿀 수 있었던 것은, 시조인 주몽을 천제의 아들로 인식하고 그 자손은 천손으로 여기며 사후에 천상에서 조상을 만난다고 여기는 내세관에서 비롯되었다고 보인다.²⁶ 그리하여 장천1호분의 목조 가옥 표현은 마치 사후에 도달할 도솔천궁을 나타낸 것이라고 볼 수도 있다. 미륵보살이 거주하는 공간인 도솔천궁을 의미하는 기와지붕과 기둥, 보 등의 장식은 북위시대 운강석굴에서도 표현된 중요한 공간 설정으로,²⁷ 일면 미륵상생신앙과 종교적 상관관계가 엿보인다고 할 수 있다.

두 번째 명문의 예는, 황해도에서 출토된 ‘신묘명금동삼존불’(그림 7)을 들 수 있다. 그 내용은 비구·선지식 등이 무량수불상을 조성하고 돌아가신 스승과 부모가 언제나 제불(諸佛)과 선지식을 만나고 미륵불의 처소에 태어나 미륵을 만나기를 발원하는 내용이다. 즉 도솔천 왕생을 발원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무량수불을 조성하면서 미륵보살이 거주하는 도솔천 왕생을 발원하는 혼합 신앙으로 전진이나 북위에서도 흔히 나타나는 현상이다. 이러한 신앙 형태는 경전에 대한 사상적 해석을 중시하기보다는 전래 당시 구복신앙의 연장선이었음을 알게 해주는 대목이기도 하다.

그렇다면 이러한 명문을 새기고 조성한 본존은 아미타불, 즉 무량수불이며, 그 협시 중에서 한쪽은 미륵보살임에 틀림없을 것이다. 그러나 양협시 보살 중에서 어느 쪽이 미륵보살인지는 분명하지 않다.

세 번째 예로는, 평양 평천리에서 출토된 ‘영강(永康)7년명금동광배’(551년)를 들 수 있다. 그 명문에 “죽은 어머니를 위해 미륵존상을 조성하고 미륵삼회에 참석하기를 기원”한다는 내용이 새겨져 있다.²⁸

26 김상현, 2007, 「고구려의 불교와 문화」, 『고구려의 문화와 사상』, 동북아역사재단, 90~91쪽.

27 고혜련, 2011, 앞의 책, 169·305쪽.

28 “爲亡母造彌勒尊像○○福願令亡者神昇兜○○慈氏三會.”

미륵삼회는 도솔천에 머무르던 미륵보살이 그 수를 다한 후에, 염부제로 하생하여 용화수 아래에서 미륵부처가 되어 세 번의 설법을 행하여 석가모니가 구제하지 못한 중생을 모두 구제한다는 설정이다.

그러나 미륵삼회에 참석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미륵정토, 즉 도솔천 왕생이 우선 조건이므로, ‘영강7년명’ 명문은 5~6세기 고구려 상류사회에 미륵상생신앙이 보편화되어 있었음을 알려준다고 할 수 있다.

즉 죽은 부모를 위하여 미륵존상을 조성한 이유는 부모가 도솔천에서 태어나 미륵보살과 함께 다시 하생하기를 바라는 간절한 효심이 작동한 것으로, 당시 고구려인들의 『상생경』 신앙이 아주 깊었다고 보인다. 고구려 사람들의 도솔천 왕생은 경전을 근거로 한 확실한 기원의 방법으로서, 경전에서는 도를 얻지 못한 자들이 각각 다음과 같이 서원을 낸다고 설명하고 있다. 고구려인들은 도를 얻지 못한 자들의 범위 안에 그들 스스로를 포함시키고 구복을 바라며 경전에서 그 해답을 구하고, 이에 부처는 수기로써 약속을 하고 있는 것이다.

“저희들 하늘·사람과 팔부중생은 이제 부처님 앞에서 진실한 서원을 세우니, 미래세에는 미륵을 만나 이 몸을 버리고서 모두 도솔천에 왕생할 수 있게 하소서.”

“너희들과 미래세에 복을 닦고 계율을 지닌 자는 모두 미륵보살 앞에 왕생하여 미륵보살의 보살핌을 받게 되리라.”²⁹

알려진 대로 ‘신묘명금동삼존불’과 ‘영강7년명금동광배’는 형식이 거의 동일한 것으로 간주되고 있다. 다시 말해 ‘신묘명’에 새겨진 협시 미륵보살과, 비록 미륵존상은 발견되지 않았지만 ‘영강7년명’에 새겨진 미륵존상은 같은 유형의 미륵을 나타낸 것으로 유추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고 하겠다.

29 『彌勒上生經』, “我等天人八部, 今於佛前發誠實誓願, 於未來世值遇彌勒, 捨此身已皆得上生兜率陀天, 汝等及未來世修福持戒, 皆當往生彌勒菩薩前, 爲彌勒菩薩之所攝受.”

지금까지 전래자와 명문을 통해 고구려에 전래된 불교신앙이 미륵상생이었음을 살펴보았다. 다음으로 고구려 고분벽화 중에서 불교적 색채가 가장 강한 장천1호분을 중심으로 고분에 나타난 벽화의 내용이 위에서 언급한 『상생경』을 중심으로 한 미륵신앙임을 고찰해보고자 한다.

Ⅲ. 장천1호분에 나타난 미륵신앙

1. 장천1호분 개요

중국 길림성 집안시 장천분지 동쪽 낮은 구릉 위에 자리잡은 장천1호분은, 고구려 고분벽화 중 불교적 색채가 가장 강한 고분으로 5세기 중반으로 편년되는 고분벽화 무덤이다. 고구려 고분 중 최초로 불상이 그려지고 불상과 보살상의 존상이 함께 표현된 유일한 불화 고분으로서, 농도 짙은 불교적 주제가 있는 두방 무덤 구조를 보여주고 있다.

벽화는 목선과 적갈색 안료를 이용해 앞방 벽 모서리에 기둥과 두공, 도리를 그려 무덤을 궁전 내부처럼 표현하였다. 목조건축 느낌이 나도록 묘사한 것은 장천1호분보다 앞서는 5세기 초반 축조된 각저총, 무용총과 공통된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앞방은 두 명의 서역 역사가 떠받치는 천장고임과 궁륭 부분에 4명씩 그려진 천자들과 비천, 부처를 향하여 오체투지하는 부부를 그린 ‘예불도’와 연화화생, 그리고 보살들 사이의 구름무늬, ‘보살도’ 아래에 사신도와 주작 한 쌍, 기린 등 서수가 묘사되어 있다. 또한 단과 단 사이에 다양한 연꽃, 연봉오리들이 하늘 세계를 장엄하고 있다. 벽면에는 실물 크기의 문지기 무사들과 점박이무늬의 고구려 전통 옷을 입고 10명으로 이루어진 1단의 합창단과 8명의 무용수가 추는 2단의 군무를 무덤주인 부부가 구경하는 화려한 현세의 생활이 파노라마처럼 한 화면을 차지하는 생활풍속도가 그려져 있다.³⁰

‘백희기악도’라고 일컬어지는 그림 사이사이에는 연꽃 또는 씨앗을 품은 연봉오리가 하늘에서 비가 내리듯하고, 신성한 나무 주위로 벌어지는 온갖 일화 등이 아주 자세하게 그려져 있다. 그리고 개, 매, 매사냥꾼, 흰말과 누런 말 등이 각각의 개체를 바로 알아볼 수 있을 만큼 상세히 그려져 있다. ‘백희기악도’라고 일컬어지는 이유는 다양하게 펼쳐지는 사냥놀이, 기예를 부리는 동물들과 서역인 놀이꾼들, 각저총과 비슷한 씨름, 여러 기악과 여인들의 놀이 등 다양한 유희가 그 내용이기 때문이다.³¹

그리고 널방의 벽면은 온통 연꽃만으로 장식되어 있고, 천장에는 삼죽오가 들어 있는 해, 절구질하는 옥토끼와 두꺼비가 들어 있는 달, ‘北斗七靑’이라는 글씨와 함께 국자 모양의 일곱 개 별자리 등 하늘세계를 묘사하였다. 특히 널방 공간에 서수나 선인들이 등장하지 않고 온통 연꽃만으로 장식한 것은 하늘세계가 곧 불교의 세계임을 의미한다고 생각된다.

2. 예불도에 나타난 미륵신앙

장천 1호분 앞방 천장부 고임 안쪽 부분에 그려진 ‘예불도’(그림 1)는 당시가 고구려 사회에 불교가 안착하는 최전성기였음을 여과 없이 보여주는 그림이다. 불상, 보살 존상과 비천상³² 등이 함께 표현된 유일한 고분으로, 불상, 보살상이 묘사되었다는 것은 대부분의 불교문화가 고구려 사회에 자리잡고 있었음을 의미한다. 대좌 위에 결가부좌로 선정인(禪定印)³³을 한 채 통견의 불상 뒤로 광배

30 전호태, 2015, 「고구려 장천1호분 연구」, 『고구려발해연구』 52, 209쪽.

31 안휘준, 2007, 『고구려 회화』, 151쪽. 사냥과 그것을 기회로 삼아 야유희가 함께 열린 것으로 기술했다. 장천1호분의 생활풍속도는 하루의 장면이 아니라 일생을 거쳐 일어난 여러 상황들을 한 화면에 그려 넣는 방식으로, 이 방식은 키질에서 동화를 거쳐 고구려에 전해졌으며 본생담과 같은 화면 분할의 방법으로 보인다.

32 허균, 2008, 『사찰 100美 100善 상』, 불교신문사, 336쪽. 비천은 고대 인도신화에 등장하는 건달바와 긴나라를 원형으로 한다. 불교가 인도로부터 중국에 전래될 때 비천도 그 뒤를 따른 것으로 보인다.

와 보리수가 그려져 있다. 불단 아래에는 양옆으로 사자를 배치하여 부처의 자리가 사자좌임을 나타내고 있다. 불상 오른쪽 바닥에는 묘주 부부로 보이는 남녀가 불상을 향해 절하고 있고, 그 옆으로 두 명의 여자 시종이 기다리고 있다. 왼쪽으로는 남녀가 일산을 받치고 있는데, 중심에서 멀어질수록 작게 그리는 중심원근법(中心遠近法)과 주인공을 크게 그리고 공양을 위한 공물을 들고 있는 시녀는 작게 그리는 주대종소법(主大從小法)이 함께 표현되었다.³⁴ 부처 옆으로는 비천들과 남녀쌍인 연화화생이 표현되어 있다.

‘예불도’ 양옆은 지붕을 떠받치고 있는 금강역사가 마치 각저총의 ‘씨름도’ 역사처럼 표현되어 있다. 이 역사들은 각저총과 무용총에서 널방 입구의 벽면을 가득 차지하고 있는 커다란 크기의 나무를 대신하고 있다.³⁵ 따라서 불교의 전반적인 상식과 문화가 보편화된 이후임을 감안할 때, 부처가 있는 이곳이 성스럽고 청정한 곳으로 수호해야 할 공간임을 불교식으로 나타낸 것으로 보인다. 이는 사찰의 금강역사나 불탑의 인왕상에 해당되는 경우와 같은 맥락이라고 생각된다.

필자는 앞서 고구려에 전해진 공식불교는 미륵상생신앙이라고 주장하였다. 따라서 장천1호분 양방 천장고임에 나타나는 불교문화는 미륵상생신앙을 중심으로 묘사된 것이라고 여기는 바이다.

흔히 ‘예불도’라고 알려진 <그림 1>은 『미륵상생경』에 의한 신앙 묘사로, 필

33 민병찬, 2005, 「고구려 고분벽화를 통해 본 초기 불교미술 연구」, 『고분벽화를 통해 본 고구려 문화』, 고구려연구재단, 135쪽. 선정인은 4~5세기 중엽까지 집중적으로 만들어진 도상이다. 그러나 실은 선정인을 중국의 예법인 拱手로 잘못 이해하여 당시의 미술에서 대체로 공수처럼 표현하였다.

34 김진순, 2008, 앞의 글, 44쪽. 일산을 들고 있는 남녀를 시종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여자의 옷차림이나 ‘주대종소법’으로 그려진 두 명의 시종이 뒤에서 무엇인가를 들고 기다리는 것으로 보아, 일산을 든 남녀는 시종은 아닌 듯하다.

35 이경란, 2016, 「5세기 고구려 고분벽화를 통해 본 미륵상생신앙」, 부경대학교 석사학위논문. 각저총의 큰 나무는 고구려 민간신앙에서 나타나는 수목신앙으로 이해하였다.

자는 부부로 추정되는 예배자가 있는 아랫단을 ‘하생예불도’, 만개한 연꽃 위로 묘사된 그림을 ‘상생보살도’라고 명명하고자 한다.

1) 상생보살도

필자가 주장하는 통칭 2단(이하 윗단)의 ‘상생보살도’는 지금까지의 장천1호분에 대한 연구에서는 ‘비천’으로 비정되었다. 대신 ‘예불도’ 좌우면 고임에 보이는 각각 네 명의 천자들은 ‘보살도’라 명명되었다. 활짝 핀 연꽃대 위에 묘사되어 있는 존상은 박락이 심하여 수인과 자세 형태는 구별할 수 없다. 정수리 위에 육계가 있으며, 장식이 없는 원광 뒤로 다섯 개의 선이 부챗살 모양으로 퍼진 관이 있고, 왼쪽은 거의 지워졌지만 오른쪽은 선명한 선이 역력한 천의 자락이 뻗어 올라 역동성이 느껴진다.

보살 양옆으로 비록 박락이 심하나 비천이 변(幡)과 같은 천의를 휘날리며 날고 있다. 또한 ‘상생보살도’ 위아래로 연꽃이 장엄(莊嚴)되어 있어 연화대 혹은



그림 1 장천1호분 예불도, 앞방 천장고임부

은 연화좌에 있음을 나타내고, ‘상생보살도’ 윗단에는 여러 구의 기악비천상이 배치되어 있어 이곳이 하늘의 세계임을 확인시켜 주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하늘세계를 묘사한 배경을 매개로 필자는, 장천1호분의 ‘상생보살도’가 지금까지의 통설인 천의를 훔달리는 비천이라는 설정이 아니라 도솔천에서 거주하는 미륵보살을 묘사한 것이라고 추정한다. 이에 대하여 경전을 근거로 다음과 같이 밝히고자 한다.

(1) 비천

첫째, 만약 지금까지의 연구에서 비정된 바와 같이 <그림 1>에서 보듯이 예불도 윗단의 벽화가 단순히 비천을 나타낸 것이라면, 중앙에 주인공 비천을 ‘주대종소법’으로 하면서 왜 양형시 비천을 묘사했는가 하는 점이다. 비천은 고대 인도의 건달바와 긴나라가 원형으로 하늘에서 불·보살의 법음을 축하하며 춤을 추고 공양을 내는 천인들이다. 비천은 기악상과 공양상으로 나눌 수 있는데, 악기를 소지하거나 향로와 같은 공양물을 가지고 있는 차이를 제외하면 양식은 비슷하다고 할 수 있다.

벽화를 포함하여 대다수의 불교회화에서 보이는 비천들은 좌우대칭 혹은 쌍비천상으로 묘사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고구려 불상에서 나타나는 비천은 ‘갑인년명(甲寅年銘) 왕연손(王延孫) 광배³⁶(그림 2)가 대표적인데 가장자리에 7구씩을 대칭을 이루어 14구를 조사하

36 곽동석, 1993, 「금동제일광삼존불의 계보-한국과 중국 산둥지방을 중심으로」, 『미술자료』 51, 12~13쪽. 법륜사 헌납보물 196호 금동광배, 높이 31cm의 금동일광삼존불 형식으로, 갑인년에 왕연손이 현재 부모를 위하여 석가상을 제작했다는 7행 59자의 명문이 새겨져 있다. 갑인년에 대해서는 대체로 594년으로 추정하는 설이 지배적이며, 복위 형식을 이어받았지만 율동감 등의 조형감각은 중국에서는 보이지 않는다고 하였다. 비록 삼존상은 사라졌지만 광배의 결구 형식으로 보아 계미명과 신묘명삼존불과 유사하다고 추측하고 있다.

소현숙, 2011, 「법륜사 헌납보물 갑인명왕연손 광배 연구」, 『백제문화』 44, 111~138쪽. 명문이 남조와의 친연성이 있다고 파악하고 백제 534년 양의 영향 아래 제작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 광배는 지금까지 594년 제작으로 추정되었으나, 소



그림 2 갑인년명 왕연손 광배,
6세기, 도쿄국립박물관



그림 3 보살명심존비상, 2세기,
인도 마투라박물관

였다.

왕연손 광배에서는 맨 위 탑을 조성하고 그 탑을 받치고 있는 두 명의 비천, 깃털 모양의 지물을 대칭의 비천, 요고를 두드리는 두 명의 비천, 동발을 들고 횡적과 배소를 부는 천인 등이 각각 대칭으로 조각되어 있다.

더 나아가 비천 묘사의 원형이라고 할 만한 2세기경의 인도 마투라식 초기 보살상의 형태를 보아도 비천은 대칭으로 묘사됨을 알 수 있다. 물론 <그림 3>에서도 주대종소법으로 불상은 크게 비천은 작게 동시에 대칭으로 묘사되었다.

장천1호분 예불도의 불상 옆에는 대칭이 아닌 나란히 묘사된 같은 크기의

현숙은 일본 학자 오니시 슈야(大西修也)와 요시무라 레이(吉村伶)의 연구를 예로 들면서 60년을 앞당겨 534년으로 추정하기도 한다.



그림 4 장천1호분 앞방의 천장고임부



그림 5 산동성 청주 용흥사지 출토 조상탑

비천이 묘사되었고, 필자 주장의 보살도 윗단에는 묘사된 세 명의 기악천이 동급으로 표현되었다.

또한 <그림 4>에서 보듯이 장천1호분 내에서도 앞방 천장고임부 안쪽 벽화에서 비천은 대칭으로 묘사된다. 윗단의 ‘상생보살도’에서와 같이 비천을 본존과 크기를 달리하여 좌우에서 협시하는 형식으로 표현하지 않는다.

육계와 두광으로써 천인임을 나타내기 위한 표시가 등장할 뿐, 필자 주장의 보살과 같이 두광 밖으로 부챗살 모양의 광배 혹은 보관 형식을 묘사하지 않았다. 그러한 표현은 장천1호분이 유일하다.

<그림 5>는 산동성 청주시에서 출토된 조상탑으로, 왕연손 광배에서와 같이

양쪽에서 탑을 받쳐 들고 두광을 표현하지 않은 대칭의 비천을 조각한 경우이다.

한편 장천1호분 선행연구자인 이정효는 장천1호분에 나오는 비천의 독특한 자세는 그 유례를 좀처럼 찾을 수 없다고 하면서, 비록 신강지역의 석굴사원에서 유사한 것을 찾을 수 있지만 용모와 의복은 많이 다르다³⁷고 하였다. 이는 반드시 비천으로 설정한 지금까지의 해석을 다른 각도에서 살펴볼 필요가 있음을 의미한다고 필자는 생각한다.

어쨌든 불상 제작 초기시대부터 비천의 묘사는 대칭을 이루는 구조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필자는 지금까지 비천으로 비정된 윗단의 존상을 비천도가 아니라, 주대중소법을 이용하여 비천들의 양협시를 받으며 보관을 착용하고 있는 도솔천의 미륵보살을 나타낸 ‘상생보살도’라고 주장하는 바이다.

(2) 보관

둘째, 미륵보살이라고 생각하는 근거는 부챗살로 퍼진 무늬가 닭벼슬처럼 생겼다 하여 명명된 계관형 보관(鷄冠形寶冠)³⁸을 들 수 있다. 우선 『상생경』에서 미륵보살의 보관에 대해 언급한 부분을 살펴보자.

“……몸은 서른두 가지 모습(32상)과 여든 가지 형호(80종호)를 다 구족하며, 정수리 위에는 살상투(肉髻)가 있으며, 머리털은 검푸른 유리빛이며, 석가비능가 마니와 백천만억 견속가 보배로써 하늘갓(天冠)을 장엄하리라. 그 천관에는 백만억 빛이 있어 날낫 빛 가운데 한량없는 백천의 화신 부처님이 여러 화신 보살을 시자로 삼고, 또 큰 보살들이 열여덟 가지 변화를 일으켜 마음대로 천관 속에 머물며…….”³⁹

37 이정효 외, 2005, 「장천1호분 예불도벽화의 불상양식 고찰」, 『석당논총』 38집, 235쪽.

38 광동석, 2016, 『한국의 금동불 I』, 164쪽.

39 『상생경』, “身如閻浮檀金色, 長十六由旬, 三十二相, 八十種好皆悉具足, 頂上肉髻髮紺瑠璃色, 釋迦毘楞伽摩尼, 百千萬億甄叔迦寶以嚴天冠. 其天寶冠有

경전의 내용과 같이 미륵보살을 상징하는 천관, 즉 보관에는 백만억의 보배로운 빛이 있어 밤낮 쉬지 않고 범륜행을 설하여 천자들을 깨달음으로 이끌게 한다. 한량없는 부처와 시자 보살들이 머무는 하늘갓(天冠)이며, 두광은 원만한 32상 80중호를 표현한 것이다. 보관의 존재야말로 미륵보살이 도솔천에서 천인들을 위해 설법하는 중요한 수단이 되는 셈이다.

이러한 이유로 미륵보살을 조상한다면 반드시 보관이 빛을 형상화하기 위한 동기가 된다. 장천 1호분의 상생보살도는 그러한 보관을 표현하기 위해 부처살무늬의 양식으로 나타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렇다면 장천1호분의 ‘상생보살도’에서 표현된 이러한 부처살무늬의 계관형 보관은 어디에서 비롯되었는가? 중국 섬서성에서 출토된 <그림 6>의 미륵보살입상⁴⁰에서 그 시원을 찾아볼 수 있다.

이 불상은 간다라 미륵보살상의 양식적 특징이 강하게 보이는 중국식 미륵보살상으로, 아직 육



그림 6 미륵보살입상, 2세기 후기

百萬億色，一一色中有無量百千化佛，諸化菩薩以為侍者……復有他方諸大菩薩，作十八變隨意自在在天冠中。”

- 40 아다치 기로쿠(足立喜六)의 『長安史蹟 研究』, 높이 33.3cm의 2세기 후기 보살상으로 중국 섬서성 삼원현 출토, 일본 교토 등정유린관(藤井有隣館) 소장.

계(肉髻)가 양식화⁴¹되기 이전인 상투는 머리카락의 표현이라기보다는 고대 중국의 관모인 칠량관(七梁冠)을 쓴 것 같은 모습이다.

고대 성인 남자의 상투는 장식에 있어 신분에 따라 크게 차이가 나는데, 미륵보살상에 대한 이해가 완전하지 않았던 2세기 후반 중국인으로서의 왕자를 상징하는 상투관, 즉 칠량관 형태로 이해한 듯하다. 비록 불완전한 이해일지라도 중국의 초기 불교시대부터 미륵보살이 제작되었다는 사실은 당시 사상을 알 수 있는 좋은 근거가 된다. 왜냐하면 위의 미륵보살상이 제작된 후 얼마 지나지 않아 불교의 중국화를 이룩한 석도안이 등장하는데, II장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석도안은 고구려에 불교를 전해준 부견이 열렬하게 신봉한 미륵상생신앙 승려이기 때문이다.

간다라식 섬서성 출토 미륵보살상의 칠량관 형태는 점차 부챗살모양의 계관형 보관으로 변해가는데, 6세기에 다수 제작되는 삼존불의 협시상과 독립상의 보관에서 그 형태가 집중적으로 보인다.

장천1호분의 ‘상생보살도’가 미륵상생신앙에 근거한 미륵보살도 벽화임을 주장하기 위하여, 장천1호분이 축조된 5세기를 지나 6세기 중엽의 유물들을 예로 들어보고자 한다. 지금까지 발견되는 삼국시대, 특히 고구려 양식은 장천1호분의 벽화가 가장 이른 시기라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밝혀진 고구려에서 가장 이른 시기의 삼존불은 계미명금동삼존불(563년)로서 여기에서도 협시 보살의 보관을 살펴볼 수 있지만, 계미명삼존불의 명문에는 돌아가신 아버지를 위하여 보화가 만들었다는 기록이 있을 뿐이므로, 사후세계를 위한 신앙인 것은 분명하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신앙에 근거했는지 여부를 알 수 없다.

대신에 황해도에서 출토된 ‘신묘명삼존불’은 일광삼존불⁴²로서 고구려불로

41 간다라 초창기 불상의 상투는, 상투구슬이 표현된 곱슬머리(2세기 전기)에서 상투 끈만 표현된 곱슬머리의 형태(2세기 중기)로, 상투끈조차 사라진 곱슬머리 살상투, 즉 육계(2세기 후기)로 변한다.

42 6세기대에 집중적으로 제작된 높이 20cm 미만의 작은 금동불로, 하나의 커다란 광

추정하고 있으며, 왕실이나 귀족사회의 사후 삶에 대한 생각과 사상을 알게 해 주는 중요한 유물로 광배 뒷면에 해서체의 67자 명문이 새겨져⁴³ 있다.

장천1호분의 축조시기가 대체로 5세기 중반 편년이 대세이지만 5세기 말에서 6세기로 비정하는 연구⁴⁴도 있다. 한편 ‘신묘명삼존불’은 장천1호분의 편년보다 뒤 시기인 6세기 존상이다. 편년 문제도 있겠거니와, 신앙은 한 사회에 정착하기까지 짧지 않은 시간이 소요되지만 한번 흡수되어 퍼진 신앙은 쉽게 사라지지 않는다. 특히 미륵상생신앙은 왕실이나 귀족인 상류사회를 중심으로 신앙된 것을 감안할 때, 그 사회의 흔들림 없는 기반을 바라는 5세기의 신앙은 6세기에 들어 더욱 공고해졌을 가능성도 없지 않으므로 불교 신앙형태는 크게 바뀌지 않았을 것이다.

더욱이 II장에서 언급한 것처럼 ‘신묘명’ 명문에서 알 수 있듯이 무량수, 즉 아미타신앙과 미륵신앙이 혼용되어 신앙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새롭게 유입된 사상과 기존의 사상이 함께 융합되고 완전 분화되지 않은 단계였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동요과정을 거치면서 아미타신앙과 미륵신앙은 별도의 신앙 형태로 분별되고 고정되었을 것이다. 어쨌든 5~6세기의 불교신앙은 혼재된 양상을 보여주고 있다.

다만 <그림 7> 두 보살의 보관은 형식에 변화를 준 계관형으로서 다른 보살임을 나타내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좌협시의 보관은 섬서성 출토의 미륵보살상에서 보이는 상투관 형식이 엮보이면서도 변형된 삼산관 형태로 나타난다. 우협시 보살의 보관은 언뜻 면류관을 씌운 듯한 형태이지만 부챗살모양의

배에 주존불과 양협시가 주대중소기법으로 조성되었다.

- 43 신묘명 금동삼존불(571년), 1930년 황해도 곡산 화촌면 출토, 높이 18cm, 571년, 삼성미술관 리움 소장으로 광배 뒷면에 67자의 명문이 새겨져 있다. “景四年在辛卯比丘○共諸善知識那婁賤奴阿王阿据五人共造無量壽像一軀願亡師父母生生心中常值諸佛善知識等值遇彌勒所願如是願共生一處見佛聞法.”
- 44 정호섭, 2009, 「고구려 벽화 고분에 대한 고고학적 연구성과와 과제」 <표 3>, 魏存成은 5세기 말~6세기 중반으로, 孫仁杰은 5세기 말~6세기로 비정하였다.



의신묘명 우협시 확대



의신묘명 좌협시 확대

그림 7

신묘명금동삼존불, 고구려, 리움미술관

5~6가닥으로 퍼진 계관형 보관이 강조된 육계 뒤에서 그림을 그린 것처럼 제작되었다.

양협시 보살의 육계나 보관의 표현이 아직 정형화된 양식으로 정립되지 못하고 있지만, 이는 계관형 보관의 변화과정이 2세기 후반 상투관에서 시작하여 5세기 후반 장천1호분 보살의 계관형의 벽화 표현을 거쳐 6세기 ‘신묘명삼존불’에 이르는 과정으로 이해될 수 있다.

장천1호분 ‘상생보살도’ 보관이 벽화로서 표현된 것인 데 반해 ‘신묘명삼존불’ 협시 보살의 보관 형태는 조각상에 나타나는 평면적인 계관형이라고 말할 수 있다.

또 다른 예로는 <그림 8~9>의 경주박물관 소장인 금동삼존불과 부여 출토 ‘정지원(鄭智遠)명 금동삼존불입상’에서도 계관형 보관의 형태를 발견할 수 있다. 경주박물관 소장의 삼존불 좌협시의 보관은 2세기 미륵보살의 칠량관 형의



그림 8 금동삼존불, 좌협시,
경주박물관



그림 9 정지원명 금동삼존불, 부여 출토,
국립부여박물관

보관 형식이 엇보이면서 육계 부분이 리본모양으로 나누어진 모습이 보인다. 정 지원명 삼존불은 정지원이 ‘죽은 아내의 조사(弔詞)를 위해 금상을 공경되게 조성하니 빨리 삼도를 떠나게 하여 달라’는 명문이 새겨져 있다.⁴⁵ 이 또한 죽은 이를 위한 조상문으로 경주박물관 삼존불과 닮은 꼴 형태의 좌·우협시 보관을 보이고 있다. 부여 부소산성 출토라는 이유로 백제 제작으로 여겨졌지만, 조각양식이나 당시 백제의 성씨 체계로 보아 백제 제작에 의문이 드는 불상이다.⁴⁶

45 “鄭智遠爲亡妻 趙思敬造金像 早離三途.”

46 곽동석, 2016, 『한국의 금동불 1』, 169쪽.

일광삼존불 형식은 중국 산둥성 지역에서도 다수 발견되는데, 6세기에 제작된 삼존불상은 대체로 높이가 8~9cm에 불과한 아주 작은 크기라는 점으로 미루어 이동이 쉽고 그에 따라 양식의 전파가 용이했음을 의미하기도 한다. 다시 말해 쉬운 이동성은 전쟁이 일상이던 당시에 각지의 문화가 다른 지역으로 쉽게 전파되기에 충분했다는 것을 짐작하게 해준다. 그러한 이유로 중국 산둥지역이나 난징을 비롯하여 고구려, 백제, 신라, 일본에 이르기까지 계관형 보관의 보살상을 협시로 하는 다수의 일광삼존불 형태가 제작되었을 것이다.

게다가 계관형은 각 지형으로 전파되면서 잘못 이해되거나 혹은 독자적인 지방적 성격을 띠면서 정형화된 관의 형태에서 벗어났다. 다소 거칠거나 투박하고 시간이 지나면서 각 지역의 조각자가 이해한 방식에 따라 불분명한 모양을 하게 되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러한 일광삼존불 협시 보살의 계관형 보관은 한국뿐만 아니라 남북조시기에 제작된 많은 수의 불상이 중국 산둥 지방과 난징지역을 중심으로 출토된 삼존불상조각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중국 산둥지방은 지정학적인 위치로 고구려와 가까운 거리에 있는 데다가 고구려 불상과 유사한 불상들이 다수 출토되어 고구려 불상 연구에 중요한 자료이다.

2008년 남경시 신가구(新街口) 덕기광장(德基廣場) 공사장에서 출토된 높이 11.3cm의 작은 삼존불은 대통원년이라는 조상기로 527년의 불상임을 알 수 있다(그림 10).⁴⁷ 여기에



그림 10 대통명삼존불, 난징 출토, 난징시 박물관

47 광동석, 2016, 위의 책, 158쪽.



그림 11 금동삼존불, 동위, 주청시 출토, 주청시박물관



그림 12 금동보살상, 양나라, 6세기, 난징시박물관

서는 양협시 보살의 보관 형태를 달리하여 변화를 주었는데, 우협시의 계관형 보관과 좌협시의 둥글게 퍼진 계관형의 변형된 모습이 특징이다.⁴⁸

〈그림 11〉은 1978년 산둥성 주청시 칭윈촌(靑雲村) 청운사에서 발견된 금동삼존불로, 여섯 구의 금동불이 한 향아리에서 발견되었다. 이 삼존불도 양협시의 보관은 6세기에 흔하게 보이는 계관형 보관을 하고 있지만, 대통명불상(양나라)과 달리 양협시의 보관이 크게 차이를 두지 않고 있다.

〈그림 12〉는 남경 덕기광장에서 대통명삼존불과 함께 발견된 독립 금동보살상이다. 독립보살상이라 할지라도 후대하기 좋은 작은 크기로, 그림에서 알

48 광동석은 위의 책에서 계관형으로 보지 않고 화관(花冠)으로 보았다. 광동석, 2016, 위의 책, 159쪽.

수 있듯이 네 갈래로 갈라진 닭벼슬 같은 계관형 보관의 모습이 또렷하다. 삼존불의 협시로 평면적인 표현이 된 지금까지의 예보다는 독립상으로 입체적 표현이 뛰어나 확실한 계관형을 나타낸 것으로 생각된다.

중국 산둥성 빈주시 박흥현 용화사지 출토 독존보살상(그림 13)의 보관은, 계관형 초기 형태의 점토를 붙인 듯한 거칠고 미숙한 수법이 눈에 띈다. 미숙한 점토형이지만 계관형의 형태가 확실하다고 할 수 있다. 이로 미루어 보아 남북조시대 중국 출토 보살상의 계관형 보관은 부챗살모양이 정확한 갯수로 정형화되지 않고 불상기법에 있어서도 지역의 특색과 작가의 역량이 아직은 거친 단계인 과도기의 양식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림 13 독존보살상, 산둥 박흥 용화사지 출토, 박흥현박물관

호림박물관 보살상의 보관은 2세기 섬서성 미륵보살 보관의 형태와 장천 1호분 보살의 형태를 합쳐서 입체적으로 표현한 형태이다(그림 14). 불상주조기법에 따라 부여 군수리 금동보살입상과 부여 신리 금동보살입상 계열로 인식되고 있다. 하지만 보관 형식에 있어서는 부여 출토 두 보살상과 큰 차이가 보인다. 군수리와 신리 보살상이 계관형의 변형된 삼상관 형식이라면, 호림박물관 보관은 육계 뒤로 넓게 펼쳐진 2세기 간다라식 미륵보살에서 보였던 칠량관 형태의 부챗살을 중심에 두고 양옆으로 부챗살을 편 듯한 보관형을 취하고 있다.

금동삼존불의 본존이었을 가능성⁴⁹이 있다고 생각되는 국립중앙박물관 소



그림 14 금동보살입상,
6세기, 호림박물관



그림 15 금동보살입상, 6세기,
국립중앙박물관

장 금동보살입상(그림 15)은 남경 출토 단독 보살상에 비해 단순한 형태를 취하고 있지만, 세 갈래로 나뉜 계관형 보관이 뚜렷하다. 부챗살 안에 꽃의 씨방을 묘사함으로써 계관형 보관에서 화관형 보관으로 인식의 변화를 가져온 형태라고 생각된다.

고구려에서 전래되었다고 알려진 일본 야마기현 선형산신사(宮城県 船形山神社)의 금동보살입상(그림 16)은 영주 속수사지에서 출토된 보살상과 전체적인

49 광동석, 2016, 위의 책, 132쪽.



그림 16 금동보살입상, 6세기.
후니가타야마신사

조형감, 보관, 영락, 천의 등 여러 면에서 유사하다. 그러나 속수사지의 보살보관은 파손으로 인해 그 형태를 단정하기 어렵다. 다만 형식의 유사점을 들어 속수사지의 보관 또한 계관형에서 화관형으로 이해한 가능성이 크다고 하겠다. 이들 양식은 고구려와 밀접한 교류가 있었던 중국 남북조시대 동위와 남조(南朝) 양(梁)의 보살상 양식을 따르고 있는 점에서 고구려 불교미술의 영향 관계를 말해주고 있다.

지금까지 6세기에 제작된 다수의 삼존불 형식과 단독보살상을 중심으로 계관형 보관에 대하여 살펴 보았다. 이로써 장천1호분의 ‘상생보살도’ 존상의 경우, 고구려 사회에 퍼진 미륵상생신앙을 배경으로

하여, 2세기 후반부터 중국에서 제작된 미륵보살의 보관이 계관형 보관의 초기 형태로 표현된 미륵보살임을 유추할 수 있었다. 또한 계관형 보관이 지역에 따라 화관 형태로 변화하고 있음을 살펴보았다.

2) 하생예불도

장천1호분 ‘예불도’는 『상생경』에 근거한 상생 신앙과 하생신앙이 함께 묘사된 것으로 필자는 생각한다. 석가모니가 미래세에 용화수 아래에서 깨달음을 얻는다고 분명히 밝히고 있는 것처럼 윗단의 ‘상생보살도’와 다르게 아랫단, 즉 지금까지 예불도라고 통칭되던 ‘하생보살도’는 불상 뒤로 보리수가 표현되었다. 이

보리수는 미륵보살이 하생하여 깨달음을 얻을 때의 용화수를 나타낸 것으로 보이고, 용화수 아래의 미륵부처를 만나 오체투지로서 예를 올리는 것을 묘사한 것이다(그림 1).

“부처님은 또 옷빨리에게 말씀하셨다. 어떤 선남자·선여인이 계(戒)를 범하여 못 악업을 저질렀더라도 미륵보살의 이름을 듣고서 온몸을 땅에 엎드려 성심껏 참회한다면 이 모든 악업이 곧 사라지게 된다.”⁵⁰

지금까지 선정인(禪定印)이라고 알려졌지만 공수(拱手)에 가까운⁵¹ 수인을 하고 있는 불상의 오른쪽으로 오체투지하는 남녀는 『상생경』에서 설명한 대로 현세에서 사냥으로써 못짐승을 살생하는 나쁜 업을 쌓아 계를 다 지키지 못하였다.⁵² 그러나 미륵의 명호를 부르고 미륵을 생각하는 마음에 지극정성으로 매달리면 도솔천에서 천인들이 연꽃을 뿌리며 마중을 나오고, 금 그릇 속에서 흘러 나오는 옥 같은 말씀을 듣고 깨달음을 이루는 그곳 천상의 땅, 도솔천에 상생할 수 있는 것이다. 최소한 장천1호분의 오체투지는 계를 지키기 못한 참회로서 공경 예배하는 장면을 연출하고 있는 것이다. 계의 실천과 참회의 중요성이 부각된 『미륵상생경』에서 질문과 대답의 제자가 옷빨리로 설정된 것도 우연이 아니라고 할 수 있다.

옷빨리는 왕실의 이발사였던 사람으로 천민이었던 그가 할 수 있는 최상의 수행은 지계를 지키는 일이었다. 그리하여 석가모니로부터 지계제일이라는 명

50 “佛告優波離，若善男善女人，犯諸禁戒造衆惡業，聞是菩薩大悲名字，五體投地誠心懺悔，是諸惡業速得清淨。”

51 자현, 2017, 『불화의 비밀』, 조계종출판사, 65쪽. 동아시아의 초기 불상에서는 인도의 명상 자세인 선정인을 잘못 파악하여 중국의 예법인拱手로 표현하곤 했다. 이는 인도문화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데서 기인했다고 한다.

52 이경란, 2016, 앞의 글. 장천1호분 백회기악도에는 피장자 일생의 사냥이라는 행위 속에서 여러 짐승들이 죽어가고 도망가며 공포에 질린 장면들이 묘사되어 있다.

칭을 부여받았고 『상생경』의 문답 제자인 것은, 그만큼 『상생경』에서 추구하는 도솔천 왕생을 위한 수행으로 지혜보다는 지계가 제일 중요함을 강조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미래세의 중생도 미륵보살의 대비한 이름을 듣고서 형상을 만들어 세우거나 향·꽃·의복과 비단, 일산·당기·번기로써 공양하고 오로지 한 생각으로 염원한다면, 목숨이 끝나려 할 적에 미륵보살이 그의 눈썹 사이 백호에서 광명을 내는가하면 여러 천자들과 함께 만다라꽃을 퍼부으며 이 사람을 맞이할 것이다. 이 사람이 곧 왕생하여 미륵보살을 뵈고 엎드려 예배 공경하면 머리를 들지도 않은 사이에 문득 법을 듣고서 곧 더없는 도(道)에 물러남이 없고 미래세에 가셔도 향하의 모래알 같은 모든 부처님 여래를 다 만나게 되리라.”⁵³

석가모니는 현세뿐만 아니라 미래세에 태어날 중생들에게도 미륵부처님께 공경 예배의 방법에 대해 설하신다. 예불도에서 불상의 왼쪽으로 일산을 들고 있는 남녀와 그 뒤로 공양물을 들고 있는 하인들은 『상생경』에서 설한 공양물을 바치고 있다. 일산은 부처를 우러르는 도구이고 구름무늬와 같은 장식은 당기를 표현한 것으로, 이곳이 부처님의 성스러운 곳임을 말한다. 그들은 미래세의 제자가 될 중생들이며 세세생생 다시 태어나도 현세의 복락과 지위를 여전히 누리며 부처 앞에 예를 올리고 있는 것이다.

이는 고구려 사람들의 윤회사상이 『상생경』의 내용과 맞물린다고 할 수 있는데, 몇 가지 명문의 예를 보자.

Ⅱ장에서 언급된 ‘신묘명삼존불’⁵⁴ 명문에 따르면 5인의 비구가 무량수불

53 “未來世中諸衆生等, 聞是菩薩大悲名稱, 造立形象, 香花衣服 繒蓋幢幡禮拜繫念, 此人命終時, 彌勒菩薩放置間白毫大人相光, 與諸天子雨曼陀羅花, 來迎此人, 此人須臾即得往生, 值遇彌勒, 頭面禮敬, 未舉頭頃便得聞法, 即於無上道得不退轉, 於未來世得治恒河沙等諸佛如來.”

54 1930년 황해도 곡산군 화촌면에서 출토된 고구려 불상(571년)으로 광배 뒷면에

1구를 만들면서 돌아가신 부모께서 태어날 때마다 마음속으로 늘 여러 부처를 만나기를 발원하는 내용이다.

景四年在辛卯比丘○ 共諸善知識那婁 賤奴阿王阿据五人 共造無量壽像一
軀 願亡師 父母生生心中常 值諸佛善知識等值 遇彌勒所願如是 願共生一
處見佛聞法.

여기에서 주목되는 부분은 ‘生生’이라는 표현이다. ‘태어날 때마다’라는 것은 고구려왕실이나 귀족들에게 죽음은 사후 도솔천에 태어나고 다시 하생하여 또 다른 삶을 사는 것이라는 불교적 윤회사상이 있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또 다른 보기였던 ‘영강7년명’ 광배에서도 죽은 부모가 도솔천에 올라 미륵을 만나고 용화삼회에 참석하기를 바란다고 하였다. 용화삼회는 미륵보살이 하생하여 미륵부처가 된 후에 화림원 용화수 아래에서 설한 세 차례 설법회를 말한다. 여기에서도 도솔천 상생과 염부제 하생을 함께 발원하고 있는 것이다. 상생을 한 다음에 다시 하생을 하는 것은 『상생경』의 중요한 터닝 포인트라고 할 수 있다.

다시 말해 고구려인들은 사람이 한 번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도솔천에 왕생하여 미륵의 설법을 듣다가 미래세에 미륵을 따라 내려와 미륵부처와 모든 부처를 만나게 된다는 상생신앙을 지녔던 것이다. 도솔천 상생이야말로 하생하여 다시 복락을 누릴 수 있는 선제 조건임을 『상생경』은 말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하생경』이 축법호에 의해 처음(303년) 한역되고 약 150년 후(저거경성 455년) 『상생경』이 번역되었기 때문에 하생신앙과 상생신앙을 하나의 체계로 인식한 것이다. 고구려인들은 사후 세계와 다시 돌아올 수 있는 세계를 한 연결고리로 인식했음이 분명하다.

이렇게 태어나고 또 태어나는 생생세세 관념은 상생경의 다음과 같은 말씀에 의한 발원일 수도 있다.

67자의 명문이 새겨져 있다.

“미륵의 명호만을 듣고서 합장 공경하여도 이 사람은 50겁 동안의 생사의 죄를 면할 수 있으리라. 만약 미륵에게 공경 예배하는 자가 있다면 백억 겁 동안의 생사의 죄를 제거할 것이며, 설령 천상에 왕생하지는 못하더라도, 미래세 용화수 아래에서 또한 만나게 되어 더없는 마음을 내리라.”⁵⁵

‘하생예불도’로 지칭한 예불도의 불상은 보리수 아래 사자좌 위에 선정인과 콧수염을 하고 통견 차림의 불상 형식을 하고 있다. 이는 ‘뚝섬 출토 선정불좌상’⁵⁶에서 볼 수 있듯이, 삼국시대에 전래된 초창기 불상은 중국에서 양식 화되었던 간다라식 불상이었고, 우리나라는 그것을 기본으로 해서 불상이나 벽화로 표현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았다고 생각된다. 간다라형식은 사자좌와 콧수염, 선정인의 형식을 갖춘 불보살상으로 ‘견염선정불좌상’⁵⁷ 이래로 간다라형식을 이어받아 중국 화시킨 양식으로 3세기 이후 꾸준히 조성되었던 불상의 한 예이다.

여기에 살상투와 통견 복식, 사자좌는 중국인들의 도교적 해석이 가해진 경우라고 할 수 있다(그림 17~19).



그림 17 견염선정불좌상, 3세기 전기. 하북성 출토, 하버드포그미술관 소장

- 55 “但聞彌勒名合掌恭敬，此人除却五十劫生死之罪，若有敬禮彌勒者，除却百億劫生死之罪，說佛生天，未來世中龍華菩提樹下亦得值遇，發無上心。”
- 56 서울 뚝섬에서 출토된 높이 4.9센티미터의 선정불 좌상으로 백제불이라는 견해도 있지만 장수왕의 남진 이후 고구려불이라는 것이 현재의 통설이다.
- 57 높이 .9센티미터의 금동불로 3세기 전기로 추정되며, 중국 하북성 석가장 부근에서 출토되었다. 미국 하버드대학 포그미술관 소장.



그림 18 퇴영선정불좌상, 3세기 후기,
소장처 미상



그림 19 자기석선정불좌상, 4세기 후반
중국고궁박물관 소장

특히 법상을 지키는 사자는 괴수에 가깝게 표현되었는데 이는 당시 중국인들이 경험하지 못한 사자에 대한 이해 부족이라고 여겨진다.

오늘날까지도 미륵부처의 존상은 정형화된 형식이 없는 데서 보듯이, 하생 미륵불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특정 불상양식이 아닌 위에서 언급한 대로 당시의 불교신앙에서 그 근거를 찾아야 한다고 생각된다.



그림 20 독섬 출토 선정불좌상, 5세기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IV. 맺음말

지금까지 예불도라 명명되어진 고구려 고분벽화 장천1호분의 벽화가 『미륵상생경』에 근거한 신앙을 나타낸 것으로, 윗단은 상생신앙인 보살도이고 아랫단은 하생신앙인 미륵부처임을 밝혔다.

고구려인들이 미륵상생신앙을 쉽게 받아들여지게 된 배경은 불교가 전래된 당시의 사상을 기반으로 하여, 미륵보살이 상주하는 도솔천과 시조를 천제의 아들로 인식하고 사후에 조상이 머무는 곳인 천을 불교식으로 이해하는 내세관을 가졌기 때문이다.

장천1호분 벽화에 조성된 불화는 조상이 천인이 되어 머무는 하늘, 즉 도솔천의 미륵보살을 나타낸 장면으로, 보살과 양협시 비천을 주대중소법으로 하여 삼존상 형식의 보살도로 묘사하였다. 미륵보살이 쓰고 있는 보관은 한량없는 부처와 시자 보살들이 머무는 천관으로, 중국의 초기 불교시대에 만들어진 2세기 후반의 섬서성 출토 미륵보살상에서 중국식 칠량관으로 묘사되었다.

부견이 전해준 후 고구려 사회에 안착한 불교는 상생신앙을 배경으로 하여 축조된 장천1호분에서 미륵보살의 보관을 칠량관 형태에서 변화한 부챗살모양의 계관형 보관으로서 그 장엄함을 나타내고 있다. 서울 독섬에서 출토된 불상이 유일한 5세기경의 고구려불인 것처럼 현실적인 제약이 있다. 따라서 삼존불들은 장천1호분의 축조시기보다 늦은 6세기 중국과 한국에서 다수 제작된 일광삼존불로 예를 들어 살펴보았다.

이러한 과정은 중국에서 시작되어 우리나라까지 이어진 보살의 계관형 보관을 통해 알 수 있었다. 삼존불의 협시와 독립상의 보살보관은 이동의 용이성으로 각 지역마다 조금씩 다른 형태의 계관형 보관으로 표현되다가, 작가의 이해에 따라서 비슷한 유형의 화관으로 변화하게 된다.

미래세의 교주는 미륵부처로서 석가모니의 수기를 통하여 죽고, 상생하고 하생하며, 세 번의 법회를 통하여 석가모니가 구제하지 못한 중생을 구제하는 것이다. 이러한 설정행위를 한 자도 석가모니이고 이것을 설명하는 자도 석가모

니이므로 ‘예배도’의 불상은 말하는 주체인 석가모니가 아니라 객체인 미륵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여겨진다.

만약 『상생경』의 최종 목적지가 도솔천이라면 마지막에 하생하는 방법에 대해 설명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도솔천에서도 묘한 즐거움을 만끽하며 내세를 살고 있는데 굳이 미륵보살을 따라 하생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그러나 석가모니는 하생할 수 있는 기회를 여러 차례에 걸쳐 설명하고, 마지막은 모든 중생이 하생을 서원하고 물러난다.

미륵하생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도솔천 왕생이 선행돼야 하므로, 윗단은 상생신앙인 도솔천의 미륵보살이고 아랫단은 미래세 용화수 아래의 하생신앙인 미륵부처라고 생각된다. 석가모니가 『상생경』에서 하생을 언급⁵⁸한 이유도 하생과 상생은 서로 맞물고 있는 톱니와 같은 하나의 체계이기 때문이다.

58 “爾乃下生於閻浮提，如彌勒下生經設。”

참고문헌

사료

『三國遺事』, 『三國史記』
『彌勒上生經』, 『彌勒下生經』, 『彌勒大成佛經』, 『彌勒下生成佛經』, 『彌勒來時經』
『梁高僧傳』, 『高僧傳』, 『妙法蓮華經』

연구 논문

강희정, 2006, 『관음과 미륵의 도상학』, 학연문화사.
곽동석, 2016, 『한국의 금동불 I』, 다른세상.
김영태, 1997, 『佛敎思想史論』, 민족사.
김상현, 2007, 「고구려의 문화와 사상」, 동북아역사재단.
대한불교조계종포교원, 2013, 『불교사의 이해』, 조계종출판사.
문명대 외, 2007, 『고구려불상과 중국 산동 불상』, 연구총서 2, 동북아역사재단.
박아람, 2009, 『고구려 벽화 연구의 현황과 콘텐츠 개발』, 동북아역사재단.
신종원, 1992, 『신라 초기 불교사 연구』, 민족사.
안휘준, 2007, 『고구려 회화』, 효형출판.
이춘식, 2005, 『중국사서설』, 교보문고.
자현, 2017, 『불화의 비밀』, 조계종출판사.
전호태, 2000, 『고구려 고분벽화 연구』, 사계절.
정선여, 2007, 『고구려 불교사 연구』, 서경.
최광식 외, 2007, 『고구려의 문화 사상』, 동북아역사재단.
허균, 2008, 『사찰 100美 100選 상』, 불교신문사.

곽동석, 1993, 「금동제일광삼존불의계보 - 한국과 중국 산동지방을 중심으로」, 『미술자료』 51.
권영필, 2007, 「고구려 벽화와 중앙아시아 미술의 연관성」, 『중앙아시아의 역사와 문화』, 솔.

- 김리나, 1996, 「高句麗 佛教彫刻樣式의 展開와 中國 佛教彫刻」, 『제4회 전국미술사 학대회 高句麗美術의 對外 交涉』, 예경.
- 김상현, 2005, 「중국 문헌 소재 고구려 불교사 기록의 검토」, 『고구려의 사상과 문화』.
- _____, 2007, 「고구려의 불교와문화」, 『고구려의 문화와 사상』, 동북아역사재단.
- 김진순, 2008, 「5세기 고구려 고분벽화의 불교적 요소와 그 연원」, 『한국미술사학연구』 258, 한국미술사학회.
- 김원룡, 1959, 「高句麗古墳壁畫에 있어서의 佛教的 要素」, 『백성욱박사 송수기념 불교학 논문집』, 동국대학교.
- 문명대, 1991, 「長天1號墓 佛像禮拜圖壁畫와 佛像의 始原問題」, 『先史와 古代』 1.
- _____, 1998, 「佛像의 受容問題와 長天1號墳 佛像禮拜圖壁畫」, 『講座 美術史』 10.
- 민병찬, 2005, 「고구려 고분벽화를 통해 본 초기 불교미술 연구」, 『고분벽화로 본 고구려 문화』, 고구려연구재단.
- 박이람, 2014, 「고구려 벽화의 북방문화적 요소」, 『고구려발해연구』 50, 고구려발해학회.
- 소현숙, 2011, 「법륜사 헌납보물 갑인명왕연손 광배 연구」, 『백제문화』 44, 공주대학교 백제문화연구소.
- 송철수, 2010, 「삼국시대 미륵신앙의 수용과 신앙형태에 대한 고찰」, 위덕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신동하, 1988, 「高句麗의 寺院造성과 그 意味」, 『한국사론』 19.
- 이경란, 2016, 「5세기 고구려 고분벽화를 통해 본 미륵상생신앙」, 부경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이정효·최덕경, 2005, 「장천1호분 예불도 벽화의 불상양식 고찰」, 『석당논총』 38집.
- 전호태, 1989, 「5세기 高句麗 古墳壁畫에 나타난 佛教의 來世觀」, 『한국사』 21, 서울대학교 국사학과.
- _____, 2012, 「고분벽화로 본 고구려와 중앙아시아의 교류」, 『한국고대사연구』 68, 한국고대사학회.
- _____, 2015, 「고구려 장천1호분 연구」, 『고구려발해연구』 52, 고구려발해학회.
- 정수일, 2002, 「高句麗와 西域 關係 試考」, 『高句麗研究』 14, 고구려연구회.
- 최연식, 2002, 「삼국시대 미륵신앙과 내세의식」, 『강좌한국고대사』 8, 가락국사적개발연구원.

도록

국립중앙박물관 편집부, 『북녘의 문화유산』, 2006, 삼인

최완수, 『한국불상의 원류를 찾아서 1, 2』, 2002·2007, 대원사

『고구려 고분벽화』, 2006

연합뉴스

교토뉴스



고구려의 미륵신앙 고찰 - 장천1호분의 예불도를 중심으로 -

이경란

5세기 고구려 사회는 광개토왕과 장수왕대의 왕권 확립과 국가적인 불교 흥포가 강력하던 시기였다. 4세기 말 전진으로부터 공식 유입된 불교는 부견이 신봉했던 미륵상생신앙 중심으로 왕실과 귀족사회에 퍼져 나갔다. 특히 고구려의 오랜 시간 수도였던 집안지역의 국내성을 중심으로 5세기 중반 형성된 장천1호분에는 일정한 미륵신앙의 흐름이 나타난다.

미륵상생신앙은 사후에 미륵보살이 천인들을 위하여 교화하고 있는 도솔천 왕생을 목표로 하며, 미래세에는 미륵보살을 따라 염부제에 왕생하기를 바라는 신앙이다. 묘락이 있는 도솔천의 모습은 『미륵상생경』에 자세히 묘사되어 있는데, 도솔천 왕생의 가장 중요한 조건인 십선(十善)과 관법(觀法)을 강조하고 있다.

5세기 중반으로 편년되는 장천1호분은 고구려의 모든 고분 중에서 불, 보살, 비천 등이 함께 나타나는 유일한 고분이다. 이 무렵은 불교가 정점을 찍으며 고구려 사회에 깊숙이 파고든 시기로서, 특히 벽화에 불상이 직접 표현된 것이 특징이다. 『미륵상생경』에 설명된 도솔천 왕생을 위한 생활이 나타나 있는 ‘예

불도'에는 도솔천에 머무르는 미륵보살과 염부제에 내려온 미래세의 미륵보살이 용화수 아래에서 깨달음을 얻어 부처가 된 후의 모습이 묘사된다. 『상생경』에서 석가모니가 설한 도솔천에서의 미륵보살과 미래세 용화수 아래에서의 미륵부처에 대하여 분명히 밝히므로, 장천1호분 '예불도'는 윗단의 상생신앙인 도솔천의 미륵보살과 아랫단의 하생신앙인 용화수하 미륵부처를 의미한다.

따라서 장천1호분의 불교세계는, 고구려 왕실과 귀족 중심으로 퍼진 천손사상과 불교의 전파로 인한 세세생생 윤회하면서 도솔천에 나고 다시 하생하여 용화삼회에서 미륵부처를 만나기를 바라는 염원이 담겨 있는 『미륵상생경』에 근거한 미륵상생신앙이다.

주제어: 장천1호분, 고구려 불교, 미륵상생신앙, 미륵하생신앙, 예불도, 보살도

ABSTRACT

A Study on the Maitreya faith of Koguryo: Centering on Buddhist service painting in The tomb Jangcheon 1

Lee Kyongran

In A.D. 372, the Northern Chinese Early Qin Dynasty sent a monk, a Buddhist image and Buddhist scriptures. This is the first official record of Koguryo's Buddhism. At that time, it was Taoist Buddhism from China and Koguryo people had Maitreya belief in Dosolcheon (Sangsaeng faith), judging from tomb murals in early-mid fifth century. The Koguryo people wished to be born in Dosolcheon where Maitreya is living to enlighten for god and men. And they wished to come down with Maitreya because Maitreya will save people in the future. This belief was spread to the royal family and the aristocratic society. In particular, a steady faith for Mireuk appears in the Jangcheon Tomb No. 1 centered on the Jian area, which was the long-time capital of Koguryo. The most important conditions of Doseolcheon are Ten Good Things, observation of the truth and practice of Buddhism.

The Jangcheon Tomb No. 1 is unique as it exhibits fire, Buddhist saints and Bicheon among all the ancient tombs of Koguryo. This period was when Buddhism peaked and deeply penetrated into Koguryo society. In particular, Buddhist images were expressed directly in mural paintings. “Yebuldo,” which shows the life of Doseolcheon king as described in the Sutra of Maitreya.

“Yebuldo” describes Mireuk Bodhisatva in Dosolcheon as Sangsaeng faith in its upper part while showing Mireuk Buddha as Hasaeng faith in its lower part.

Therefore, the Buddhist world of Jangcheon No. 1 is Maitreya belief of Dosolcheon and Maitreya belief earth where one lives through the royal family and nobility of Koguryo.

Keywords: Jangcheon Tomb No. 1, Mireuk Sangsaeng faith, Mireuk Hasaeng faith, Buddhist service painting

관대한 대일강화조약과 이승만 정권의 강화조약외교

– 일본의 군사적 주권 문제와 이를 둘러싼 한미 간의 마찰

윤석정 | 국민대학교 일본학연구소 연구원

- I. 머리말
- II. 관대한 대일강화조약과 미국의 대일정책
- III. 이승만 정권의 강화조약외교
- IV. 맺음말



I. 머리말

본고의 목적은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에 대한 이승만 정권의 외교를 일본의 군사적 주권 문제를 중심으로 고찰하는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강화조약의 준비과정에서 한국이 일본의 재군비를 어떻게 생각했는지 살펴보고, 그것이 미국의 관대한 대일강화조약 구상과 마찰을 겪는 과정을 논하고자 한다.

1951년 9월 8일 샌프란시스코에서 대일강화조약이 서명되었다. 소련, 폴란드, 체코슬로바키아 등의 공산 진영 국가들은 서명식에 결석하였고 공산 중국은 초청조차 받지 못했다. 냉전 구도가 첨예화되면서 패전국 일본은 서방 진영의 일원으로서 국제사회에 복귀하였다. 이러한 가운데 한국은 강화조약에 참석하지 못했고, 결국 일본과의 현안을 직접교섭으로 해결해야 하는 상황을 맞이하게 되었다.

선행연구는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이 패전국 일본에게 관대한 내용이었다고 지적하며 이를 아직까지 해결되지 않은 과거사 문제의 국제적 조건으로 규정한다. 한일회담 연구는, 한국이 강화조약에 서명국으로 참가하여 대일배상, 독도 영토 주권 문제 등을 해결하려고 했지만 냉전 정세 속에 조약이 패전국 일본의 과거사 책임을 추궁하지 않는 관대한 내용이 되면서 과거청산이 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¹ 결국 일본은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을 통해 서방 진영의 일원으

-
- * 투고: 2018년 11월 12일, 심사 완료: 2019년 2월 7일, 게재 확정: 2019년 2월 15일
 - * 본 논문은 저자의 박사학위논문 『李承晩政權の対日外交－「日本問題」の視点から』의 내용 중 일부를 수정, 보완한 것입니다. 유익한 논평을 해주신 익명의 심사자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 1 이원덕, 1996, 『한일과거사 처리의 원점』, 서울대학교출판부, 26~42쪽; 장박진, 2009, 『식민지 관계 청산은 왜 이루어질 수 없었는가』, 논형, 5장; 吉澤文寿, 2015, 『戦後日韓関係－国交正常化交渉をめぐって』, クレイン, 32~36쪽; 박진희, 2008, 『한일회담: 제1공화국의 정책과정과 한일회담 전개과정』, 선인,

로 국제사회에 복귀했지만 배상문제, 영토문제가 한일관계와 아시아의 미해결 문제로 남게 되었다는 것이다.² 또한 강화조약을 주도한 미국 측의 역사인식을 분석하는 연구도 있다. 국무부는 1910년의 한일합방이 국제적으로 승인되었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었고, 국무장관고문으로서 조약에 관여한 덜레스(John Foster Dulles)는 미개발 국가에 대한 서구제국의 정치적 지배를 옹호하는 인물이었다는 것이다.³

이처럼 선행연구는 대일배상, 영토문제, 역사인식 등을 중심으로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과 한일관계의 연관성을 논한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 그러나 다음

59~96쪽; 太田修, 2015, 『日韓交渉－請求権問題の研究』, クレイン, 73~80쪽.

- 2 최정준, 2018, 「미국의 동북아시아 냉전전략과 샌프란시스코 체제의 형성: 전후 영토문제와 배상문제를 중심으로」, 『동서연구』 제30권 1호; 강병근, 2017,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에 따른 'Korea/조선'의 독립승인과 한일 간 청구권 해결에 관한 일고찰」, 『동북아법연구』 제10권 제3호; 유지아, 2010, 「한국전쟁 전후, 대일강화조약 논의에 의한 아시아 내에서 일본의 안보와 위상: 한국과의 관계를 중심으로」, 『한일민족문제연구』 18권; 金民樹, 2002, 「対日講和条約と韓国参加問題」, 『國際政治』 第131号.
- 3 김승배, 2017, 「존 포스터 덜레스(John Foster Dulles)의 신념과 한·일관계의 양가성」, 『국제정치논총』 제57집 2호; 太田修, 2011, 「二つの講話条約と初期日韓交渉における植民地主義」, 李鍾元 외, 『歴史としての日韓国交正常化Ⅱ－脱植民地化編』, 法政大学出版局. 다만 일부 연구는 대일강화조약에서 한국의 서명국 참가, 독도 영토 주권, 배상문제가 패전국 일본에게 유리한 내용으로 처리된 이유로 냉전 논리보다는 점령기부터 이어진 일본의 치밀한 대미외교를 강조하기도 한다. 남기정, 2008,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과 한일관계: '관대한 평화'와 냉전의 상관성」, 『동북아역사논총』 제22호. 또한 한국이 강화조약에 서명국으로서 참가하지 못한 이유로 대일배상에 관한 이승만의 강경 입장, 영국에 대한 부실한 외교, 외교 인프라상의 문제점, 한국의 참가 당위성에 대한 국내 여론의 미형성 등 한국의 내재적 요인을 지적하는 연구도 있다. 유의상 2016, 『대일외교의 명분과 실리: 대일청구권 교섭과정의 복원』, 역사공간, 94~108쪽. 한편 한국이 강화조약의 준비과정에서 연합국에서 관련 연합국, 그리고 시정당국으로까지 그 지위가 하락했지만 적어도 조약 조문상 과거사 처리의 권리에 관해 실질적인 불이익을 받게 되었다고 평가하기는 어렵다는 주장도 있다. 장박진, 2014, 『미완의 청산: 한일회담 청구권 교섭의 세부과정』, 역사공간, 306쪽.

의 두 가지 추가적인 분석이 가능하다고 생각된다.

첫째, 일본의 군사적 주권 문제에 대한 이승만 정권의 인식과 대응이다. 공개되어 있는 외교문서를 면밀히 검토하면 한국이 강화조약 준비과정 중에 일본의 재군비와 그 귀추에 대해 관심을 보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미국과도 이 문제에 대해 비중 있게 논의한 흔적이 발견된다. 이에 본고에서는 한국이 일본의 재군비를 안보위협으로 인식하고 강화조약을 통해 일본의 군사적 주권을 억제할 것을 미국에게 제안했다는 점을 밝힐 것이다.

둘째, 일본의 군사적 주권과 관대한 강화조약의 상관성이다. 선행연구에 의하면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의 관대함이란 연합국에 의한 배상의 포기 등 과거 일본의 침략전쟁 및 식민지 지배의 책임을 묻지 않는 것이다. 그러나 당시 미국의 외교활동을 살펴보면 패전국 일본이 다른 국가들과 동등하게 군사적 주권을 갖도록 하여 재군비에 나설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 또한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의 관대함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앞서 설명한 한국의 입장을 미국이 구상한 관대한 강화조약의 맥락에서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지 분석이 필요할 것이다.

일본에 대한 이승만 정권의 위협인식과 그로 인한 미국과의 마찰은 기존의 한미관계 연구에서 많이 다뤄진 분야이다. 예를 들어 신옥희는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 체결 시기 미국의 대일인식과 이승만의 대일위협인식을 비교·분석한다. 한국전쟁이 발발하고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이 체결되면서 동북아시아에서는 전후 탈식민화의 일본문제에서 냉전적 위협의 표상인 북한문제로 위협전이(threat transition)가 일어나고 있었는데, 한국은 계속해서 일본을 잠재적 위협으로서 인식했기 때문에 미국과 알력이 있었다는 것이다.⁴ 그러나 신옥희의 연구는 이론적 시각을 가지고 미국과 이승만의 대일인식을 병행하면서 서술할 뿐, 한미 간에 일본위협에 대해 어떠한 외교적 논의가 있었는지, 그것이 관대한

4 신옥희, 2016, 「'일본문제'에서 '북한문제'로: 한국전쟁을 통한 동북아시아에서의 위협전이」, 『한국정치외교사논총』 제38집 1호.

강화조약의 관점에서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분석하고 있지 않다.

이와 같은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보고는, 이승만 정권이 강화조약을 통해 일본의 군사적 주권을 억제할 것을 주장하면서 미국이 추진하는 관대한 대일강화조약 구상과 충돌했다는 점을 밝힐 것이다. 한국과 미국은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을 통해 국제사회에 복귀하는 일본의 재군비에 대해 극심한 입장 차를 보였다. 이것은 일개 현안의 영역을 넘어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을 관대한 내용으로 할 것인가 아니면 패전국의 주권에 제약을 가하는 엄격한 내용으로 할 것인가라는, 조약 그 자체의 성격을 규정하는 문제로까지 확대되었다는 것이 본고의 주장이다.⁵ 이렇게 새로운 사실관계를 조명하고 이에 해석을 부여함으로써 이승만 정권의 강화조약외교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고자 한다.⁶

- 5 정성화는 이승만이 생각하는 대일강화조약의 기본정신은 패배자에 대한 가혹한 의무의 부과였으며, 이는 제1차 세계대전 이후 파리평화조약에 참여한 개인적 경험에서 기인하는 것이었다고 지적한다. 정성화, 1990,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과 한국·미국·일본의 외교정책의 고찰」, 『인문과학연구논총』 제7호, 145~146쪽. 본고에서는 이러한 분석을 참고로 하면서 일본의 군사적 주권 문제를 중심으로 그 구체적인 양상을 밝히겠다.
- 6 이러한 문제의식은 선행연구에서 주로 다뤘던 문제들의 중요성을 경시한다는 것은 아니다. 본고에서는 한국의 대일배상외교에 대한 약간의 고찰을 더할 것이다. 특히 이승만 대통령 재임기 문서군에서 발견한 Rough draft for comment & suggestion, *The Syngman Rhee Presidential Papers*(이하 *Rhee Papers*), 우남 B-203-009 문서를 중심으로 1951년 3월 23일 미국이 작성한 대일강화조약 잠정초안에 대한 한국의 입장을 분석할 것이다. 지금까지 3월 23일부 미국 초안에 대한 이승만 정권의 회답문서는 발견되지 않았고 미국 측의 외교기록을 통해 간접적으로 그 존재와 내용을 파악하고 있을 뿐이었다. 예를 들어 미국외교문서의 편집자는 1951년 5월 9일부의 외교문서에 미국 측 인사가 한국의 회답 내용을 언급하고 있다고 지적하지만 한국의 회답문서는 찾지 못했다고 기술하고 있다. Memorandum of Conversation, by the Officer in Charge of Korean Affairs in the Office of Northeast Asian Affairs (Emmons), "Japanese Peace Treaty," July 9, 1951, *Foreign Relations of the United States*(이하 *FRUS*): 1951, vol. 6, part 1: Asia and the Pacific(Washington D.C.: U.S. Government Printing Office, 1977), p. 1183의 주석2. 필자가 이승만 문서군에서 위의 문서를 발견하고 내용을 검토해 본 결과, 미국 초안의 내용을 언급하면서 이를 반박하는 내용이 담겨

본고는 다음과 같은 구성으로 이루어진다. 제Ⅱ장에서는 먼저 일본의 비군사화와 민주화를 목표로 했던 미국의 대일점령정책이 냉전을 배경으로 일본의 부흥으로 그 목표가 전환되는 과정을 살펴본다. 그리고 한국전쟁을 계기로 미국이 일본의 군사적 주권을 제약하지 않는 강화조약을 조속히 추진하는 가운데 이에 대한 주변국들의 반응 및 미국과의 외교적 접촉을 살펴봄으로써 관대한 강화조약에 대한 해석의 폭을 넓힐 것이다. 제Ⅲ장에서는 이승만 정권의 강화조약외교를 고찰할 것이다. 무엇보다 한국이 강화조약의 틀에서 일본의 군사적 주권을 제약할 것을 주장하면서 강화조약의 성격 규정을 두고 미국과 의견 차를 보이는 과정을 밝힌다.

II. 관대한 대일강화조약과 미국의 대일정책

1. 냉전과 대일점령정책의 전환

일본의 패전 이후 미국은 대일점령정책의 주요 목표로서 일본의 비군사화, 민주화를 내걸었다. 1945년 8월 22일에 작성된 ‘항복 이후 미국의 초기 대일방침’에서는 대일점령정책의 목표로서 다음의 두 가지를 제시하고 있다. (1) 일본이 두 번 다시 미국과 세계 평화의 위협이 되지 않도록 할 것, (2) 타국의 권리를 존중하며 UN의 원칙과 이상을 반영하는 미국의 목표를 지지하는 평화적이고 책임 있는 일본 정부를 만들어낼 것이다.⁷

이와 같은 일본의 비군사화, 민주화는 전승국 중심의 동아시아 질서 구상의

있다는 점, 그리고 문서의 작성 시기가 4월이라는 점으로 봤을 때 미국 초안에 대해 한국 정부가 회담을 준비하면서 작성한 문서가 확실하다고 생각된다.

7 “United States Initial Post Defeat Policy Relating to Japan (SWNCC-150/3),” 大蔵省財政史室, 1982, 『昭和財政史—終戦から講和まで』, 東洋経済新聞社, 63~67쪽.

일환이었다. 그 구상이란 미국, 영국, 소련, 중국이 협조관계를 유지하면서 일본을 비롯한 세계질서의 교란자였던 추축국들을 국제적 통제와 감시 속에서 강대국으로 부상하지 못하도록 약체화한다는 것이었다. 이렇게 일본을 무력화하는 데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일본의 비군사화 방침이었다. 전쟁포기와 전력 불보유, 교전권의 부인 등을 내용으로 하는 헌법 9조는 물론이고, 농지개혁, 재벌 개혁으로 대표되는 경제기구의 민주화, 나아가 군수생산용 기계설비의 철거로 인한 배상 지불 등은 일본의 전쟁능력을 제거하기 위한 비군사화정책의 일환이었다.⁸

초기 미국의 대일강화조약 구상은 상술한 국제질서 구상과 맥락을 같이하는 것이었다. 1947년 8월 국무부가 작성한 일본과의 강화조약 초안을 살펴보자. 이 초안에 의하면 일본은 주권 회복 이후 비군사화, 민주화에 대한 감시를 받기로 되어 있었다. 특히 국무부가 작성한 ‘비무장 및 비군사화 조약안’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5조는 미국, 영국, 중국, 소련이 세계 평화와 안전을 위해 일본을 완전하게 비무장 및 비군사화하고 점령정책이 종결되어도 일본의 전쟁 잠재력과 민주화과정을 감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⁹

그런데 미국과 소련의 상호 불신이 깊어가면서 위와 같은 대일구상은 전환의 필요성에 직면하게 되었다. 1947년 3월의 트루먼 독트린, 6월의 마셜 계획 등 미국과 소련 간의 갈등이 결정적이 되면서 미국은 국제 공산주의에 대항하기 위한 안전보장전략 수립에 나서게 되었다. 이러한 가운데 미국의 대일점령정책도 변화를 겪게 된다. 케넌(George F. Kennan)은 그 중심적 역할을 한 인물이었

8 添谷芳秀, 1991, 「東アジアの‘ヤルタ体制’」, 『法学研究』 64卷 2号, 45~47쪽.

9 Memorandum by the Chief of the Division of Northeast Asian Affairs (Borton) to the Counselor of the Department (Bohlen), “Draft Treaty of Peace for Japan,” August 6, 1947, *FRUS*: 1947, vol. 6: *Far East* (Washington D.C.: U.S. Government Printing Office, 1972), p. 478. 5조는 1946년 6월 국무부가 작성한 ‘비무장 및 비군사화 조약안’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것이었다. “Draft Treaty of Disarmament and Demilitarization,” 大藏省財政史室, 1982, 앞의 책, 221~222쪽.

다. 케넌은 국무부의 강화조약 초안에 대해 현실적인 접근법이 결여되어 있다고 혹평했다.¹⁰ 케넌은 일본이 정치경제적으로 불안정한 상황에 빠지면 공산주의의 침투를 불러올 것이라고 경고하면서 일본경제의 부흥을 점령정책의 주요 목표로 삼아야 한다고 제안하였다.¹¹

케넌의 제안은 미국이 패전국 일본을 냉전 전략의 관점에서 새롭게 정의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였다. 대일점령 초기에는 일본 군사력의 기반이 될지 모를 일본의 경제력은 약체화의 대상이고, 일본의 경제적 고난은 잘못된 행동을 한 일본이 짊어져야 할 응분의 부담이라는 관점이 지배적이었다.¹² 그러나 전승국 간의 대립이 패전국의 전후 지위에 변화를 가져오고 있었다. 이제 미국에게 일본은 소련과 협력하여 감시하는 대상이 아니라, 공산주의 위협에 대항하기 위해서 아시아의 전략적 거점이 되어야 할 존재가 되어가고 있었다.¹³ 케넌의 대일 전략은 미국의 국가안전보장회의(NSC) 보고서 13/2 ‘미국의 대일정책에 관한 권고’로 채택되었고 미국은 일본경제의 신속한 재건에 나섰다.

1948년 11월에 작성된 NSC48 ‘아시아에 관한 미국의 입장’은 미국이 생각하는 일본의 전략적 가치를 정리하고 있는 문서이다. NSC48이 주장하는 내용은 냉전 정세 속에 일본은 미국이 파트너로 삼아야 할 존재라는 것이었다. 아시

10 Memorandum by the Director of the Policy Planning Staff (Kennan) to the Under Secretary of State (Lovett), August 12, 1947, *FRUS*: 1947, vol. 6, pp. 486~487.

11 Memorandum by the Director of the Policy Planning Staff (Kennan), “Results of Planning Staff Study of Questions Involved in the Japanese Settlement,” October 14, 1947, *FRUS*: 1947, vol. 6, pp. 541~542.

12 “United States Initial Post Defeat Policy Relating to Japan (SWNCC-150/3),” 大蔵省財政史室, 1982, 앞의 책, 66쪽.

13 Memorandum by the Director of the Policy Planning Staff (Kennan) to the Secretary of State and the Secretary of State (Lovett), “PPS/23: Review of Current Trends in U.S Foreign Policy,” February 24, 1948, *FRUS*: 1948, vol. 1, Part.2: General: The United Nations (Washington D.C.: U.S. Government Printing Office, 1976), pp. 525~526.

아 정세의 예측 가능한 미래에 소련은 공산주의식 수법과 군사 및 외교적 압력으로 아시아를 지배하려 하고 있다. 이에 대한 미국의 즉각적인 목표는 아시아에서 소련의 영향력을 줄이고 봉쇄하는 것이다. 만약 일본이 소비에트 진영으로 넘어가면 소련의 입장은 더욱 강화될 것이며 세계의 세력균형은 미국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기울어질 것이다. 즉, 강대국의 잠재력을 지닌 일본이 서방 진영과 공산 진영 중에 어느 진영으로 향할지 그 선택은 아시아의 정치관계에 큰 영향력을 미치기 때문에 일본을 반드시 미국의 우방국으로 삼아야 한다는 것이었다.¹⁴

2. 일본의 군사적 주권과 관대한 대일강화조약

일본의 전략적 가치를 높게 평가하고 있던 미국에게 한국전쟁은 일본과의 강화를 촉진하는 계기가 되었다. 한국전쟁이 발발하자 덜레스는 대일강화조약을 추진해야 할 이유에 대해 다음의 세 가지로 정리했다. (1) 한국전쟁에 직면하여 일본인들이 미국의 방위력을 수용하게 되었다는 것, (2) 일본에 대한 점령의 부담을 덜어내고 일본의 경찰이 국내치안의 책임을 대신하는 것, (3) 한국전쟁의 의도는 미국의 대일강화조약 계획을 분쇄하려는 것인데 미국은 물러서지 않는다는 것이다. 덜레스는 대일강화조약에 대한 강한 의지를 표명함과 동시에 일본의 재군비를 추진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이다.¹⁵

1950년 9월 11일 국무부는 일본과의 강화조약에 대한 기본방침을 제시했다. 7개로 구성된 동 방침 속에 모든 연합국들은 일본과의 전쟁에서 발생한 배상을 포기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¹⁶ 여기에는 패전국 일본을 냉전의 파트너

14 NSC 48/1, December 23, 1949, *United States-Vietnam Relations 1945-1967*: vol. 8 (Washington D.C.: U.S. Government Printing Office, 1971), pp. 227~239.

15 유지아, 2010, 앞의 글, 78~79쪽.

16 Unsigned Memorandum Prepared in the Department of State, September 11, 1950, *FRUS*: 1950, vol. 6, pp. 1296~1297.

국가로서 재건한다는 미국의 전략이 반영되어 있었다. 무엇보다 선행연구에 의하면 대일배상을 포기함으로써 일본에 의한 침략전쟁 및 식민지 지배의 책임을 묻지 않는다는 대일강화조약의 관대함을 상징하는 부분이라 할 수 있다.

여기서 주목할 것은 기본방침이 강화 이후 일본이 서방 진영의 동등한 일원으로서 국제사회에 복귀한다는 입장을 제시한 점이다. 나아가 기본방침에는 패전국 일본의 재군비와 공업생산능력을 제한하는 그 어떤 규정도 존재하지 않는다. 즉, 베르사유 조약과는 다르게 기본방침에서 나타난 미국의 대일강화조약 구상은 패전국을 정치·군사적으로 제약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에 대하여 기본방침을 둘러싼 미국과 주변국의 논의를 통해 살펴보자. 대일강화조약으로 일본을 정치·군사적으로 제약하지 않는다는 미국의 구상은 관련 국가들의 반대에 직면하였다. 특히 일본의 군사적 주권을 제한하지 않은 것에 대해 걱정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었다. 1950년 10월 23일 뉴질랜드의 도이지(Frederick W. Doidge) 외교장관은 텔레스와 의 회담에서 일본의 재군비에 대해 우려의 뜻을 표했다. 도이지의 주장에 의하면, 대일강화조약에서 일본의 재군비를 허용한다면 일본이 제1차 세계대전 이후의 독일과 같은 길을 걸을 것이며 적절한 안전 조치가 필요하다는 것이었다.¹⁷ 호주의 스펀더(Percy C. Spender) 외교장관도 일본의 재군비에 그 어떤 제약도 두지 않는 점을 문제시하고 미국이 일본의 침략으로부터 호주를 지킨다는 확고한 보장을 요구하였다.¹⁸

1951년 2월 17일에 개최된 텔레스와 도이지의 회담에서 일본의 재군비 문제가 다시 거론되었다. 도이지는 뉴질랜드에게 일본은 악몽이며 다시 부상할지 모를 일본을 두려워하고 있다면서 일본의 재군비를 억제하지 않는 점에 걱정을

17 Memorandum of Conversation, by Colonel Stanton Babcock of the Department of Defense, "Japanese Peace Treaty," October 19, 1950, *FRUS*: 1950, vol. 6, p. 1323.

18 마이클·샤러 著, 市川洋一 訳, 2004, 『「日米関係」とは何だったのか』, 草思社, 59~60쪽.

표했다. 단기적으로는 주일미군의 주둔이 일본의 재부상에 대한 보장이 될지 모르겠지만, 뉴질랜드는 앞으로 오랫동안 일본을 상대해야 하며 탈레스의 대응은 장기적 시야가 결여되어 있다고 비판하였다. 동석하고 있던 호주의 스펀더도 여전히 호주 국민들은 일본을 두려워하고 있고 일본과의 ‘엄격한 평화(rigid peace)’를 바라고 있다면서 일본에 대한 불신을 여과 없이 드러냈다.¹⁹

두 외상의 혹독한 대일인식에 직면하는 가운데 탈레스는 자신의 의견을 밝혔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일본이 공격적인 대외정책을 선호하지 않게 하도록 하는 것이며, 그러기 위해서는 일본을 대등한 일원으로 받아들이고 주권행사에 제약을 두지 않는 조약이 적절하다는 것이었다. 탈레스는 언젠가 일본은 모든 방위책임을 지게 될 것인데 일본의 군사력이 자국중심주의가 아니라 집단안전보장의 목적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활용되도록 해야 할 것이며, 그 여부는 미국을 포함한 주변국가들이 일본과 어떠한 관계를 맺는가에 달려 있다고 강조했다.²⁰

전술한 과정은 대일강화조약의 성격을 이해하는 데 많은 시사점을 준다. 탈레스의 주장은, 제1차 세계대전 이후의 독일과 달리 일본이 전승국과 다시 대결하는 상황이 닥쳐서는 안 될 것이며 이를 위해서 조약이 패자에 대해 차별적이고 굴욕적인 것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었다. 이처럼 패전국 일본이 다른 국가들과 동등하게 군사적 주권을 갖도록 하여 재군비에 나설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 또한 대일강화조약의 관대함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미국은 강화조약의 틀에서 일본을 정치·군사적으로 제약하는 것이 아니라 서방 진영의 동등한 일원으로 맞이하여 냉전적 협력관계를 만들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한 것이다.

19 Memorandum by Mr. Robert A. Fearey of the Office of Northeast Asian Affairs, “Notes on Conversation among Ambassador Dulles, Ministers for External Affairs of Australia and New Zealand, and States,” February 17, 1951, *FRUS*: 1951, vol. 6, part. 1, p. 170.

20 *Ibid.*, p. 171.

Ⅲ. 이승만 정권의 강화조약외교

1. 한국의 강화조약외교와 대일배상문제

식민지 지배에서 해방되어 수많은 대일관계 현안을 가지고 있는 한국은 대일강화조약에 대해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었다. 특히 이승만은 대미외교를 중요시하였다. 이승만은 임병직 외무부 장관에게 미국, 프랑스, 영국을 상대로 한국의 대일강화조약 참가를 설득하라고 지시하면서, 미국 정부는 한국의 참가를 찬성하는 것 같지만 딜레스를 설득하지 못하면 아무것도 이룰 수 없을 것이라고 강조하였다.²¹

한국의 목표는 대일강화조약에 연합국 지위를 가지고 참가하는 것이었다. 1951년 1월 4일 장면 주미대사는 국무부 앞 각서에서 제2차 세계대전 당시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대일전을 수행했다며 일본의 침략으로 고통 받은 한국이 강화조약에 참가해야 할 당위성을 설명했다.²²

강화조약 참가와 함께 한국은 배상문제에 대해 목소리를 높이고 있었다. 장면은 러스크(Dean Rusk) 국무장관과의 회담에서 한국 참가의 정당성을 강조하면서, 만약 참가가 어려워진다면 일본과 별도로 평화조약을 맺을 것이며 한국은 일본의 식민지 지배에 대한 배상으로 잔여 청구권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²³ 장면의 발언에서 알 수 있듯이 한국은 연합국의 지위를 가지고 일본에게 배상을 청구한다는 입장이었다. 이승만은 시정방침연설에서 연합국의 일원으로 대일

21 (Top Secret) Instructions to the Foreign Minister from the President, November 30, 1950, *Rhee Papers* 우남B02, 우남B-021-071.

22 박진희, 2008, 앞의 책, 71쪽.

23 Memorandum of Conversation, by the Officer on Charge of Korean Affairs (Emmons), "Various Problem Relation to Korea," January 17, 1951, *FRUS*: 1951. vol. 7, part 1: Korea and China(Washington D.C.: U.S. Government Printing Office, 1983), p. 97.

강화조약에 참석하여 대일배상을 주장하고 일본에게 국제적 의무를 부과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²⁴

미국은 이승만 정권의 배상요구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이었다. 한국이 과도한 대일배상을 요구한다면 그것은 일본을 재건하려는 미국에게 부담으로 전가될 것이었다. 다만 한국의 강화조약 참가에는 분명 긍정적이었다. 1월 26일 텔레스는 장면과의 회담에서 한국의 참가에 동의를 표하고 앞으로 협의할 뜻을 밝혔다.²⁵ 미국은 냉전의 최전선에 위치한 한국의 국제적 위신을 고양하기 위해 한국의 강화조약 참가에 전향적인 자세를 보이고 있었다.

3월 23일 미국은 ‘대일강화조약 잠정초안’(이하 ‘미국 초안’)을 준비하여 일본을 포함한 관계 각국의 의견을 수렴하는 작업에 나섰다.²⁶ 이 초안은 미국이 한국의 강화조약 참가를 인정하고 있던 시기에 작성된 것이었다. 즉, 한국이 연합국으로서 대일강화조약에 참가했을 경우 이 초안의 적용을 받게 되는 것이었다.

미국 초안에서 배상문제는 14조에서 다루고 있다. 동 조항은 연합국이 일본이 배상을 지불할 능력이 없다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1941년 12월 7일부터 1945년 9월 2일까지의 기간 중에 연합국 내 및 일본이 포기한 지역, UN 신탁통치 하의 지역에 있던 일본재산을 적성재산으로서 몰수할 권리를 보장하고 있다. 다만 규정한 기간 내에 몰수되지 않은 재산과 종교 및 문화, 교육 활동 등 비정치 단체의 재산은 몰수에서 제외한다는 방침도 병행하고 있었다.²⁷

24 국회사무처, 1948, 『국회속기록』 제78호, 5쪽.

25 Memorandum of Conversation, by Mr. Robert A. Fearey of the Office of Northeast Asian Affairs, January 26, 1951, *FRUS*: 1951, vol. 6, part. 1, p. 817.

26 Provisional United States Draft of Japanese Peace Treaty, “Provisional Draft of a Japanese Peace Treaty,” March 23, 1951, *FRUS*: 1951, vol. 6, part. 1, pp. 944~950.

27 Provisional United States Draft of Japanese Peace Treaty, “Provisional Draft of a Japanese Peace Treaty,” March 23, 1951, *FRUS*: 1951, vol. 6,

만약 14조가 그대로 적용되면 한국은 굉장히 불리한 상황에 빠질 것이었다. 대일배상을 요구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한국에 남아 있는 일본재산의 소유권조차 위협받기 때문이다. 우선 참가 연합국들이 일본이 배상을 지불할 능력이 없다는 것을 인정한다는 것은, 일본에게 배상을 요구한다는 한국의 입장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었다. 거기에 다른 연합국과 다르게 한국은 일본의 식민지 지배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전시 중에 한반도 내 일본재산을 적성국가의 재산으로서 몰수하지 못했다. 여기에 예외조치마저 적용할 경우 재한일본재산의 대부분이 몰수 대상에서 제외될 것이었다. 35년간의 식민지배 기간을 생각하면 비정기 단체의 재산은 상당 규모였기 때문이다.²⁸

미국 초안을 확인한 한국은 자신들의 입장을 반영하기 위한 준비에 임한다. 4월 27일 작성된 한국 측의 ‘코멘트 및 제안을 위한 초안’(이하 ‘한국 초안’) 문서에는 미국 초안의 각 항목에 대한 한국 정부의 입장이 정리되어 있다. 예를 들어 서문에서는 베르사유 조약의 폴란드 사례를 들어 대일강화조약에 한국이 연합국의 일원으로 참가해야 한다는 입장을 개진하고 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제2차 세계대전에서 일본에게 선전포고를 하였고, 일본과 만주 및 대륙 중국에서 군사적 적대관계에 있었다는 점을 감안했을 때, 한국은 연합국의 조건을 충족하고 있다는 것이었다.²⁹

한국 초안은 미국 초안의 14조에 대해 적극적으로 반박하고 있다. 먼저 한미협정에 의해 한국 정부에 이양된 재한일본재산은 이미 한국의 국내법에 의해 처리되었다고 주장하였다. 1945년 12월 주한미군정령 33호에 의해 미군정에 귀속되었던 재한일본재산은 1948년 9월 한미 간의 협정에 의해 한국 정부에 이양되었다. 이후 재한일본재산은 귀속재산처리법에 의해 처분되었기 때문에

part 1, p. 948.

28 장박진, 2014, 앞의 책, 254~258쪽.

29 Rough draft for comment & suggestion, *Rhee Papers* 우남B24, 우남 B-203-009.

14조의 예외조치를 적용할 수 없다는 것이다. 한국이 제시한 또 다른 논리는 현실적인 문제로서 규정된 기간에 일본재산의 몰수를 집행할 수 없었다는 것이었다. 한국은 일본이 포기한 영토 및 신탁통치 지역에 해당하는데, 일반적으로 이 지역에서 1945년 9월 2일 이전에 일본의 재산을 적성국가의 재산으로서 몰수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논리이다. 나아가 한국은 자국에 남아 있는 일본재산의 정치성을 강조했다. 식민지 조선에서 일본인들이 펼친 활동은 일본 제국주의 활동의 일환이었기 때문에 모든 것이 정치적 성격을 지니고 있다는 것이었다. 식민지 지배에 대한 한국의 인식이 엮보이는 부분이다.³⁰

이상의 경과에서 알 수 있듯이 배상정책의 관점에서 보면 강화조약의 참가는 오히려 한국에게 더 불리한 결과를 가져오는 것이었다. 따라서 한국은 아시아태평양 전쟁 중에는 식민지 지배 상태였다는 점에 이해를 구하고 연합국과 동등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외교 활동을 수행하고 있었던 것이다. 외교적 성과 여부를 떠나 이승만 정권의 한국이 미국 초안을 확인하고 자신들의 주장을 표명하기 위해 초안을 작성했다는 것은 한국 외교에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었다. 즉, 한국은 강화조약을 주도하는 미국을 상대로 연합국 외교를 전개하고 있었던 것이다.

2. 일본의 재군비와 한국의 강화조약 구상

한국 초안은 배상문제 외에도 재일 코리안, 영토문제 등 다양한 현안을 언급하고 있다. 여기서 흥미로운 것은 초안이 일본에 관한 안보문제에 대해서도 목소리를 내고 있다는 점이다. 한국 초안은 미국 초안의 7조를 문제시하면서 일본의 재군비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 미국 초안의 7조에 의하면, 일본은 주권국가로서 UN헌장에 근거하여 개별적 및 집단적 자위권의 권리를 보유하고 있으며 집단

30 Rough draft for comment & suggestion, *Rhee Papers* 우남B24, 우남 B-203-009.

안전보장협정에 참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일본이 타국에 대해 공격적 위협이 되는 군비를 갖는 것이 아니라 자국의 안전을 지키고 UN헌장의 원칙에 입각하여 평화와 안전을 촉진하는 역할을 다한다는 내용이 들어 있다.³¹

위와 같은 내용의 미국 초안에 대해 한국 초안은 지역의 평화와 안전을 위해 한국의 중요성이 고려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어서 지역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제도를 만들어야 하며 일본이 한국의 안보를 위협할 수 있는 군비를 갖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나아가 한일 간의 군사경쟁은 양국의 경제에 심각한 문제를 가져오며 UN헌장의 목적에도 상반된다고 말하고 있다.³² 한국은 일본의 재군비를 안보위협으로 인식하고 대일강화조약을 통해 이를 억제할 것을 촉구한 것이다.

한국 주장의 근거에 있는 대일인식에 대해 살펴보자. 대한민국정부가 수립되고 나서부터 이승만은 일본의 재군비설에 대해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고 있었다. 이승만은 일본의 재군비가 한국의 안보환경에 가져올 여파를 일본에 대한 미국의 관여와 연관해서 생각하고 있었다. 이승만은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³³

만약 미국이 일본을 포기한다면 미국에 대항할 일소동맹의 가능성에 대하여 여하한 보증이 있을 것인가. 또한 그런 위험은 없을 것인가? 비통한 마음을 갖고 일본은 또다시 세계정복을 감히 기도하지는 않을지 모르나, 그리 멀지않은 과거에 일본군국주의자들은 미국의 적국과 합세하여 미국을 정복하려 하였던 것은 우리들의 기억도 새로운 사실이다. (중략) 일본으로부터 미국군대를 철퇴케 하는 것은,

31 Provisional United States Draft of Japanese Peace Treaty, "Provisional Draft of a Japanese Peace Treaty," March 23, 1951, *FRUS*: 1951, vol. 6, part 1, p. 946.

32 Rough draft for comment & suggestion, *Rhee Papers*, 우남B24, 우남B-203-009.

33 공보처, 1952. 『대통령이승만박사담화집』, 공보처, 143쪽.

미국은 군국주의는 일본인의 뇌리에서부터 말살되었다고 주장함에도 불구하고 일본으로부터 하여금 자유로히 과거의 그 무서운 야망을 추종케 하는 것이다. 이 상태는 공산주의 팽창을 방어하기 위하여 그 세력의 대부분을 이미 정비를 완료한 한국에게 또 한 개의 적을 만드는 것이므로, 점령당한 일본은 지금 또다시 38선을 통하여 이미 우리들의 세력을 시험한 공산주의 전파에 대한 강력한 민주주의적 보루로서 한국을 발전시키고 있는 우리들의 자유에 대하여 위협을 창조할 것이다.

이승만은, 미국이 일본에 적극적으로 관여하지 않으면 군국주의 부활과 공산주의와의 연대 등 전후 일본은 서방 진영에게 적대적인 방향으로 나아갈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것이다. 이승만의 경계심은 그가 전후 일본의 대외진로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말해준다. 이승만은 전후 일본이 한국의 안보환경에 커다란 영향을 주는 존재라고 생각하고, 미국에게 공산주의 위협과 일본의 재부상을 억제하는 지역 안정화의 역할을 기대한 것이다.

이는 이승만이 일본을 미국에 의해 통제되어야 할 대상으로 생각하고 있었다는 것을 말해준다. 이러한 이승만에게 소련 봉쇄를 위해 일본을 재건한다는 미국의 전략은 오히려 역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보였다. 일본은 군국주의를 완전히 청산하고 평화적이고 민주적인 국가로 다시 태어났는가? 만약 그렇지 않다면, 미국에 의해 재건되어 다시 강대국이 된 일본은 서방 진영의 충실한 파트너가 아니라 오히려 적대적인 자세를 보일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것이다. 맥아더(Douglas MacArthur) 연합군 최고사령관에 의하면 ‘일본은 열두 살의 소년과 같은’ 상태이지만, 이승만은 그러한 소년이 성인이 되었을 때 공격적 의도를 드러낼지도 모른다고 경계한 것이다.³⁴

이러한 이승만의 생각은 한국의 대일강화조약 구상에 반영되었다. 이승만은 시정방침연설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³⁵

34 강노향, 1966, 『주일대표부』, 동아PR연구소출판부, 73~74쪽.

35 국회사무처, 1948, 앞의 책, 5쪽.

우리는 극동 우호 제 국가와 더불어 일본의 금후 동향에 지대한 관심을 가질 것입니다. 제1차 세계대전 이후의 독일이 당시의 파리강화조약을 일방적으로 파기하고 재무장 국가로 등장하여 소위 추축(樞軸) 국가군의 주동국으로 제2차 세계대전의 직접 도화선이 되었던 역사적 사실을 전감(前鑑)한 우리는, 일본의 제국주의적 침략주의의 완전 포기와 향후의 민주주의적 재건에 관하여 맛당히 엄정한 감시를 게을리하지 아니할 것입니다.

이승만은 대일강화조약에서 일본의 군사적 주권을 제약하고 일본의 민주화·비군사화를 감시하는 내용의 강화조약을 구상하고 있었던 것이다. 이와 같은 한국의 구상은 텔레스가 생각하는 관대한 대일강화조약 구상과 정면으로 충돌하는 것이었다. 이러한 입장 차는 한미 간의 외교접촉에서 곧 표면화되었다.

3. 일본의 군사적 주권 문제와 한미 간의 논쟁

미국과 관계국들의 협의가 진행되는 가운데 한국의 참가는 반대에 직면하게 되었다. 영국은 제2차 세계대전에서 한국이 일본 식민지의 일부였다고 주장하면서 한국이 강화조약에 참가하는 것에 반대 의사를 밝혔다. 또한 소련이 외교적으로 승인하지 않은 한국이 서명국이 된다면 소련에게 강화조약을 방해할 구실을 줄 수 있다고 주장했다. 결국 미국은 영국의 주장을 수용하여 한국을 서명국에서 제외하고 조약의 내용에 한국의 권리를 규정하는 선에서 대처한다는 방침을 세웠다.³⁶

36 유의상, 2016, 앞의 책, 86~88쪽. 한국의 대일배상은 결국 청구권의 형태로서 대일강화조약 4조(a), (b)항으로 정리되었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4조(a)항은 한일 간의 특별협정을 통해 청구권 문제를 해결하고, 4조(b)항은 일본이 미군정에 의한 재한 일본재산 처리의 효력을 승인한다는 것이었다. 한일회담 연구에서 자세히 밝혔듯이, 이 조항의 해석을 둘러싼 한일 간의 입장 차로 청구권 교섭은 교착 상황에 빠지게 되고 회담은 중단과 결렬을 반복하며 장기화하였다.

1951년 7월 9일 델레스는 양유찬 주미대사와의 회담에서 한국을 참가국에서 제외할 뜻을 전했다. 델레스는 대일강화조약의 서명국은 제2차 세계대전에 일본과 교전 상태에 있었고 1942년 1월의 연합국 선언에 서명한 국가들이라고 하며, 한국은 이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말했다. 참가국 제외 통보를 받은 양유찬은 놀라움을 감추지 못하며 재고를 요구했지만 델레스는 입장을 바꾸지 않았다.³⁷

두 사람의 입장 차가 드러나는 가운데 화제는 어업문제로 옮겨갔다. 양유찬은 한국의 근해에서 일본어선들이 활동하는 것을 제한하는 조항을 삽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계속되는 일본어선의 침범 때문에 어업문제는 이미 한일 분쟁의 원인이 되고 있으며, 한국경제를 위해서라도 일본의 어업활동을 단속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이에 대해 델레스는 한국의 요구를 수용하면 교섭이 교착될 우려가 있다며 수용을 거부하였다.³⁸

언뜻 보면 어업문제에서 그치는 논쟁처럼 보이지만 양유찬은 그 이상을 주장하고 있었다. 미국의 외교문서에는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다.³⁹

나아가 양 대사가 어업문제와 관련해서 문제시한 것은, 일본의 재무장이 허용되면 어업문제와 지역안보문제를 포함한 다른 국제문제에 관해 앞으로 일본을 효과적으로 통제할 보장이 작용하지 않는다는 점이었다.

양유찬은 대일강화조약에 국제문제의 해결에 있어 일본의 무력사용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아야 한다고 주장한 것이다. 다시 말하자면 강화조약의 틀에서 일본의 군사적 주권에 제약을 가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37 Memorandum of Conversation, by the Officer in Charge of Korean Affairs in the Office of Northeast Asian Affairs (Emmons), "Japanese Peace Treaty," July 9, 1951, *FRUS*: 1951, vol. 6, part 1, pp. 1182~1183.

38 *Ibid.*, p. 1184.

39 *Ibid.*, p. 1184.

이에 대해 딜레스는 즉시 반대의 뜻을 밝혔다. 베르사유 조약과 같이 주권을 구속하는 조약(restrictive treaty)이 되면 필연적으로 대상국의 도전을 불러일으키게 된다는 것이었다. 미군을 일본에 주둔시키는 등 딜레스 또한 강화 이후의 일본을 어떠한 형태로든 통제해야 한다는 필요성 그 자체를 부정한 것은 아니었다. 그러나 강화조약으로 일본의 재군비를 억제할 생각은 없으며, 지금부터 일본을 군사적으로 증강시키면서 거기에 내재된 위험성을 관리하는 가운데 한국의 안보이익을 고려할 것이라고 역설하였다. 이어서 일본을 둘러싼 미소 간의 세력권 경쟁을 언급하며 소련이 일본을 서방 진영에서 이탈시키려 하고 있으며, 그렇기 때문에 일본에게 온화한 강화조약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⁴⁰ 딜레스는 아시아의 강대국인 일본과의 냉전 협력을 위해 관대한 대일강화조약을 통해 일본의 재군비를 허가하겠다는 뜻을 강조한 것이다.

열흘 뒤에 열린 7월 19일의 회담에서도 두 사람의 입장 차는 좁혀지지 않았다. 이제 논쟁의 범위는 일개 현안을 넘어 강화조약의 성격 그 자체에까지 다다르게 되었다. 딜레스는 한국이 요구하는 엄격한 조약은 일본을 국제사회의 일원으로 받아들여려는 미국의 방침과 충돌된다고 말했다. 그리고 아시아태평양전쟁에서 많은 희생을 치른 미국이 ‘자유주의적이며 비제한적인 조약(a liberal and non-restrictive treaty)’을 주장하는 것은 미래의 평화를 향한 구조적 기반을 만들기 위한 것이라고 역설하였다.⁴¹ 딜레스의 주장은 강화조약의 틀에서 일본을 정치·군사적으로 억제하는 것이 아니라 서방 진영의 동등한 일원으로 맞이하여 일본과 냉전적 협력관계를 만들어 나가야 한다는 것이었다.

딜레스의 주장에 대해 양유찬은 이대로 강화조약이 체결되면 한국은 일본의 경제력에 휘둘릴 우려가 있으며, 앞으로 한국의 안전보장에 심각한 문제가 된다고 반박했다. 그리고 미국이 일본을 강력하게 통제하지 않으면 한국은 일본의

40 Ibid.

41 Memorandum of Conversation, by the Officer in Charge of Korean Affairs in the Office of Northeast Asian Affairs (Emmons), “Japanese Peace Treaty,” *FRUS*: 1951, vol. 6, part 1, pp. 1203~1204.

압도적인 힘에 휘둘리면서 불리한 입장에 처하게 될 것이라고 호소했다. 또한 강화조약의 관대함이 향후 한국에게 엄청난 곤란함을 가져올 것이라면서 좀 더 엄격한 강화조약이 체결되어야 한다고 말했다.⁴²

한국의 우려를 전한 양유찬은 한 가지 제안을 하였다. 한국인들은 강화조약 이후 일본의 동향에 주목하고 있는데, 만약 미국이 앞으로 한국의 안보를 책임진다면 한국의 대일인식도 변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리고 그러한 방위조약이 가능한지 그 여부에 대해 델레스의 의중을 물었다.⁴³ 양유찬은 대일강화조약의 체결을 앞두고 미국이 일본에 대한 한국의 안보를 보장해야 한다고 촉구한 것이었다.

양유찬의 제안에 대한 델레스의 대답은 기록되어 있지 않다. 양유찬의 제안은 이렇다 할 성과를 얻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변영태 외무부 장관은 대일 강화조약의 참가국에서 제외된 한국의 안전보장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였다.⁴⁴

이번 강화조약은 자유제국의 대다수에 의해 수락되었지만 한국이 관계하는 한 우리들의 안전이 보장되었다고 생각하기 어렵다. 우리들이 합의하는 특수한 조치에 의해 우리들의 안전이 보장될 때까지 일본을 경계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1951년 9월 4일 샌프란시스코의 오페라하우스에서 대일강화조약의 개회식이 막을 올렸다. 미국의 트루먼(Harry S. Truman) 대통령은 개회식 연설에서 대일강화조약의 관대함을 강조했다. 그의 말을 빌리자면 일본과의 강화조약은 “보복의 정신에서 나오는 것이 아닌, 우리들의 자손이 평화롭게 살 수 있는 세계를 만들고자 하는 정신을 반영했다”는 것이었다.⁴⁵

42 Ibid., pp. 1204~1205.

43 Ibid., p. 1206.

44 국사편찬위원회, 2006, 『자료 대한민국사』 22권, 627쪽.

45 外岡秀俊 외, 2001, 『日米同盟半世紀—安保と密約』, 朝日新聞社, 78~79쪽.

강화조약 서명 이후 탈레스는 조약의 기본정신에 대해 다음과 같이 역설하였다. 강화조약의 목적은 전쟁 상태를 종결짓고 이와 동시에 전쟁의 재발을 방지하는 것이며, 이를 위해서는 조약이 패자에 대해 차별적이고 굴욕적인 것이 되어서는 안 된다. 그리고 징벌적 태도는 패자의 복수심을 유발할 뿐이며 제1차 세계대전 이후의 독일과 달리 일본이 전승국과 다시 대결하는 상황으로 가지 않기 위해 힘을 쏟겠다. 이러한 주장을 바탕으로 탈레스는 공산주의라는 새로운 위협에 직면하여 일본을 집단안전보장의 일원으로서 맞이할 것임을 다시 한번 강조하였다.⁴⁶

한편 이승만은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과 미국의 대일정책에 대한 경고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었다. 9월 3일의 기자회견에서 이승만은 오랫동안 대일투쟁을 계속해온 한국이 강화조약의 서명국에서 제외된 것은 납득이 가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리고 한국은 일본의 식민지배로 인해 수많은 고통을 겪었고 그것을 용서하고 잊기 위해 노력하겠지만, 일본의 재건은 위협요인을 내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일본이 극동의 공업국이 된다면 아시아 국가들은 또다시 일본의 힘에 휘둘릴 것이며, 패전 이후 일본의 민주화가 얼마만큼 진행되었는지 아직 불확실한데도 일본의 재군비를 허용했다는 것이었다. 이어서 이승만은 연합국의 대일 정책은 신생 일본의 진로가 분명해질 때까지 점진적으로 추진해야 하며 향후 동향을 주목해야 한다고 말했다.⁴⁷

이처럼 일본의 군사적 주권 문제를 둘러싼 한미 간의 의견 대립은, 일개 현안의 영역을 넘어 강화조약의 관대함 그 자체의 정당성을 묻는 문제로까지 확대되었던 것이다. 미국은 강화조약의 틀에서 일본을 정치·군사적으로 억제하는 것이 아니라 서방 진영의 동등한 일원으로 맞이하여 재군비에 나서는 일본과 냉전적 협력관계를 만들어 나가고자 하였다. 한편 한국은 일본이 군사적으로 재건되

46 탈레스가 《포린 어페어즈》에 기고한 논문의 일부이다. 논문의 전문은 John Foster Dulles, 1952, "Security in the Pacific," *Foreign Affairs* Vol. 30, No. 2, pp. 175~187.

47 국사편찬위원회, 2006, 앞의 책, 562~563쪽.

면 또다시 극단적인 대외정책을 취할 것을 경계하여 강화 이후에도 일본의 비군사화·민주화를 감시하는 엄격한 대일강화조약이 필요하다고 주장한 것이었다.

이승만의 정치고문인 올리버(Robert T. Oliver)는 한국의 주장을 미국 사회에 알리고 있었다. 올리버는 자신의 저서에서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이 일본의 재군비를 허용하고 미국이 일본에 대한 군사지원에 나서는 가운데 한국에게 일어날 수 있는 최악의 시나리오를 제시하였다. 일본이 군사적으로 제약을 받지 않는 가운데 공산주의가 일본을 통제하고 강력한 영향력을 구사하게 된다면 한국은 공산주의에 포위되는 절망적인 상황에 빠질 것이며, 역으로 공산주의에 대응하는 것이 일본 군국주의의 재부상을 가져온다면 한국은 1905년과 유사한 상황에 직면한다는 것이었다.⁴⁸ 올리버의 논의는 패전국 일본에게 관대함을 보인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이 향후 한국의 안보에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는 이승만의 생각을 반영하고 있었다.

IV. 맺음말

선행연구에서는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과 한일관계의 연관성에 대해 과거사 문제를 중심으로 접근함으로써 아직까지 해결되지 못한 한일 역사문제의 국제적 조건과 그 기원을 찾고 있다. 이에 본고는 이승만 정권의 강화조약외교를 일본의 군사적 주권 문제를 중심으로 고찰하였다.

일본의 비군사화와 민주화를 목표로 했던 미국의 대일점령정책은 냉전을 배경으로 그 목표가 일본의 부흥으로 전환되었다. 그리고 한국전쟁을 계기로 대일 강화조약을 조속히 추진하였다. 한편 미국이 일본의 군사적 주권을 제한하지 않는 내용으로 강화조약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 주변국들의 우려가 일어났다. 이에

48 Robert T. Oliver, 1952, *Verdict in Korea*, State College, PA: Bald Eagle Press, p. 173.

미국은 제1차 세계대전 이후의 독일과 같이 일본이 전승국과 다시 대결하는 상황이 닥쳐서는 안 될 것이며, 이를 위해서는 조약이 패자에 대해 차별적이고 굴욕적인 것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하며 관대함을 촉구하였다. 패전국 일본이 다른 국가들과 동등하게 군사적 주권을 갖도록 허용하여 서방 진영의 일원으로서 집단안전보장에 참여할 수 있게 하는 것 또한 대일강화조약의 관대함이었던 것이다.

한편 한국은 대일강화조약에 참가하여 연합국 지위 및 대일배상을 확보하는데 주력하고 있었다. 이와 동시에 한국이 중요시한 것은 일본의 군사적 주권 문제였다. 이승만은 전후 일본이 한국을 둘러싼 동아시아 안보환경에 커다란 영향을 주는 존재라고 생각하고 미국이 공산주의 위협과 일본의 재부상을 억제하는 지역 안정화의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리고 일본이 평화적이고 민주주의적인 국가로 재건되었는지 불확실한 상황에서 성급하게 일본을 재건했다가는 오히려 일본이 서방에 적대적인 국가가 될 것이라고 우려하였다. 이러한 대일인식 속에 이승만은 강화조약에서 일본의 군사적 주권을 제약하고 일본의 비군사화·민주화를 감시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관대한 대일강화조약을 추구하는 미국과 의견을 달리했다. 이처럼 한국과 미국의 입장 차는 일개 현안의 영역을 넘어 강화조약의 성격 그 자체에 관한 논쟁의 양상을 띠었다.

이상의 고찰은 이승만 정권 대일외교의 범위에 과거사 문제뿐만 아니라 일본의 재군비 문제까지 포함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가 강화조약 이후 한 일회담에 임하게 되는 한국의 대일인식을 보다 폭 넓게 이해하는 데 조금이라도 기여하길 바란다.

참고문헌

사료

- 공보처, 1952, 『대통령이승만박사담화집』, 공보처.
- 국사편찬위원회, 2006, 『자료 대한민국사』 22권, 국사편찬위원회.
- 국회사무처, 1948, 『국회속기록』 제78호.
- U.S. Department of State, 1972, *FRUS: 1947*, vol. 6: Far East, Washington D.C., U.S. Government Printing Office.
- _____, 1976, *FRUS: 1948*, vol. 1, Part.2: General: The United Nations, Washington D.C.: U.S. Government Printing Office.
- _____, 1976, *FRUS: 1950*, vol. 6: East Asia and The Pacific, Washington D.C.: U.S. Government Printing Office.
- _____, 1977, *FRUS: 1951*, vol. 6, part. 1: Asia and the Pacific, Washington D.C.: U.S. Government Printing Office.
- _____, 1983, *FRUS: 1951*, vol. 7, part 1: Korea and China, Washington D.C.: U.S. Government Printing Office.
- Rhee Papers*, 우남B02.
- _____, 우남B24.
- Office of the Secretary of Defense, 1971, *United States-Vietnam Relations 1945-1967*: vol. 8, Washington D.C.: U.S. Government Printing Office.
- 大蔵省財政史室, 1982, 『昭和財政史-終戦から講和まで』, 東京: 東洋経済新聞社.

연구 논저

- 강노향, 1966, 『주일대표부』, 서울: 동아PR연구소출판부.
- 강병근, 2017,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에 따른 'Korea/조선'의 독립승인과 한일 간 청구권해결에 관한 일고찰」, 『동북아법연구』 제10권 제3호.
- 김승배, 2017, 「존 포스터 덜레스(John Foster Dulles)의 신념과 한·일관계의 양가성」, 『국제정치논총』 제57집 2호.

- 남기정, 2008,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과 한일관계: '관대한 평화'와 냉전의 상관성」, 『동북아역사논총』 제22호.
- 박진희, 2008, 『한일회담: 제1공화국의 정책과정과 한일회담 전개과정』, 선인.
- 신옥희, 2016, 「'일본문제'에서 '북한문제'로: 한국전쟁을 통한 동북아시아에서의 위협전이」, 『한국정치외교사논총』 제38집 1호.
- 유의상, 2016, 『대일외교의 명분과 실리: 대일청구권 교섭과정의 복원』, 역사공간.
- 유지아, 2010, 「한국전쟁 전후, 대일강화조약 논의에 의한 아시아 내에서 일본의 안보와 위상: 한국과의 관계를 중심으로」, 『한일민족문제연구』 18권.
- 이원덕, 1996, 『한일과거사 처리의 원점』, 서울: 서울대학교출판부.
- 장박진, 2014, 『미완의 청산: 한일회담 청구권 교섭의 세부 과정』, 역사공간.
- 정성화, 1990,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과 한국·미국·일본의 외교정책의 고찰」, 『인문과학연구논총』 제7호.
- 최정준, 2018, 「미국의 동북아시아 냉전전략과 샌프란시스코 체제의 형성: 전후 영토문제와 배상문제를 중심으로」, 『동서연구』 제30권 1호.
- 金民樹, 2002, 「対日講和条約と韓国参加問題」, 『國際政治』 第131号.
- 外岡秀俊, 2001, 『日米同盟半世紀－安保と密約』, 朝日新聞社.
- 添谷芳秀, 1991, 「東アジアの'ヤルタ体制」, 『法學研究』 64卷 2号.
- 太田修, 2015, 『日韓交渉－請求權問題の研究』, クレイン.
- _____, 2011, 「二つの講話条約と初期日韓交渉における植民地主義」, 李鍾元 외, 『歴史としての日韓國交正常化Ⅱ－脱植民地化編』, 法政大學出版局.
- 吉澤文壽, 2015, 『戦後日韓關係－國交正常化交渉をめぐって』, クレイン.
- 마이클·샤ラー 著, 市川洋一 訳, 2004, 『「日米關係」とは何だったのか』, 草思社.
- Dulles, John Foster, 1952, "Security in the Pacific," *Foreign Affairs* Vol. 30, No. 2.
- Oliver, Robert T., 1952, *Verdict in Korea*, State College, PA: Bald Eagle Press.

관대한 대일강화조약과 이승만 정권의 강화조약외교

— 일본의 군사적 주권 문제와 이를 둘러싼 한미 간의 마찰 —

윤석정

본고의 목적은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과 이승만 정권의 외교를 일본의 군사적 주권문제를 중심으로 고찰하는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강화조약의 준비과정에서 한국이 일본의 재군비에 대해 어떻게 생각했는지 살펴보고, 그것이 미국의 관대한 대일강화조약 구상과 어떠한 마찰을 가져왔는지 고찰하였다.

일본의 비군사화와 민주화를 목표로 했던 미국의 대일점령정책은 냉전을 배경으로 그 목표가 일본의 부흥으로 전환되었다. 그리고 한국전쟁을 계기로 대일 강화조약을 조속히 추진하였다. 한편 일본의 군사적 주권을 제한하지 않은 내용으로 대일강화조약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 주변국들이 우려하자 미국은 제1차 세계대전 이후의 독일과 같이 일본이 전승국과 다시 대결하는 상황이 닥쳐서는 안 될 것이며 이를 위해서는 조약이 패자에 대해 차별적이고 굴욕적인 것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하며 관대함을 촉구하였다. 패전국 일본이 다른 국가들과 동등하게 군사적 주권을 갖도록 허용하여 서방 진영의 일원으로서 집단안전보장에 참여할 수 있게 하는 것 또한 대일강화조약의 관대함이었다.

한편 한국은 대일강화조약에 참가하여 연합국 지위 및 대일배상을 확보하는

데 주력하고 있었다. 이와 동시에 한국이 중요시한 것은 일본의 군사적 주권 문제였다. 이승만은 일본이 평화적이고 민주주의적인 국가로 재건되었는지 불확실한 상황에서 성급하게 일본을 재건했다가는 오히려 일본이 서방에 적대적인 국가가 될 것이라고 우려하였다. 이러한 인식 속에 이승만 정권은 강화조약에서 일본의 군사적 주권을 제약하고 일본의 비군사화·민주화를 감시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관대한 강화조약을 추구하는 미국과 의견을 달리했다. 이처럼 한국과 미국의 입장 차는 일개 현안의 영역을 넘어 강화조약의 성격 그 자체에 관한 논쟁의 양상을 띠었다.

주제어: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 관대한 조약, 이승만 정권, 군사적 주권

ABSTRACT

The Leniency of the Peace Treaty with Japan and the Syngman Rhee Administration: The Issues of Japanese Military Sovereignty and ROK-US Friction

Yoon Sukjung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Republic of Korea's foreign policy over the Peace Treaty with Japan focusing on Japanese military sovereignt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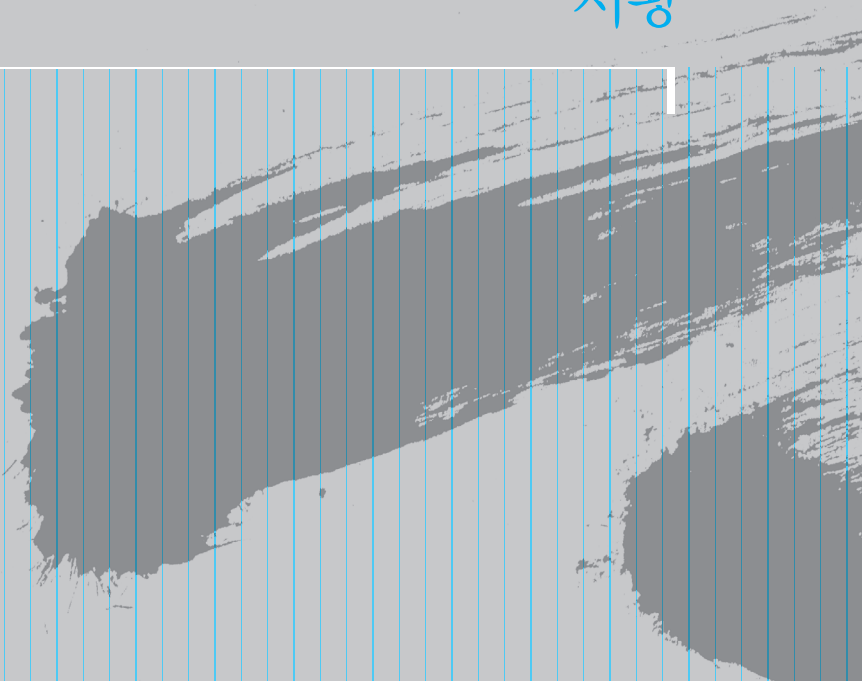
As the Cold War was coming, the United States regarded Japan as a strategic cornerstone. And when the Korean War broke out, the United States pushed forward a speedy plan to conclude a Peace Treaty with Japan. But regional states opposed the Peace Treaty for not restricting Japanese military sovereignty. Therefore, the United States persuaded the regional states to show the leniency and welcome Japan as an equal member of free nations. In other words, the leniency of the Peace Treaty with Japan not only waived compensation arising out of war acts, but also permitted Japan to rearm and participate in collective

security as an equal member of free nations.

In the process of concluding the Peace Treaty with Japan, the Syngman Rhee administration, which insisted to participate in the Peace Treaty with Japan, concentrated its attention on the compensation issue. At the same time, the Republic of Korea placed importance on the Japanese military sovereignty. The Republic of Korea insisted on a restrictive treaty that does not permit Japan's rearmament. But, the idea to restrain Japanese rearmament was alien to the lenient way of thinking of the United States. Hence, Korea's position raised disputes with the United States in regards to the characteristics of the Peace Treaty.

Keywords: Peace Treaty with Japan, leniency of the Peace Treaty, Syngman Rhee administration, military sovereignty

서평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요서를 통해 본 고구려-수 관계사

—『고구려-수 전쟁: 변경 요서에서 시작된 동아시아 大戰』

(이정빈 지음, 2018, 주류성)

김진한 | 한국교통대학교 강사

- I. 들어가며
- II. 책의 내용
- III. 소감
- IV. 나오며



I. 들어가며

7세기는 동아시아 국제질서가 재편되는 격동의 시대였다. 이러한 동아시아 국제질서를 재편시키는 단초를 열었던 사건은 바로 4차례에 걸쳐 충돌한 고구려-수 전쟁이었다. 그동안 학계에서는 동아시아 국제관계사에서 갖는 고구려-수 전쟁의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고 전쟁의 발발 배경과 경과, 결과 등 전반에 걸쳐 연구를 진행하였다. 그 결과 다양한 방면에서 많은 연구성과를 쌓았다. 최근 이정빈 교수가 펴낸 『고구려-수 전쟁』도 그 성과물 중 하나이다. 책 제목에서는 ‘고구려-수 전쟁’이라고 하였지만 양국 간 전쟁에 국한하지 않고 고구려-수 관계사 전반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였다.

이 책에서 가장 눈에 띄는 점은 고구려-수 전쟁을 ‘변경 요서에서 시작된 동아시아 대전(大戰)’이라고 규정한 것이다. 고구려나 수 어느 한쪽의 시선에서 바라볼 경우 일방적인 관점으로 흐를 수 있는 상황을, 양국의 접이지대이자 변경인 요서(遼西)라는 공간에 중점을 둬으로써 연구의 객관성을 놓치지 않으려는 저자의 노력이 엿보인다. 또한 치밀한 사료 분석을 통해 요서를 둘러싼 각 나라의 이해관계를 세밀하게 그려내고 있어 인상적이었다. 아래에서는 이 책의 전체적인 내용을 살펴보고 이에 대한 평자의 생각을 몇 가지 제시하며 글을 맺도록 하겠다.

II. 책의 내용

이 책은 저자의 박사학위논문인 「고구려-수 전쟁의 배경 연구」(2013년 8월, 경희대학교)를 중심으로 일부 내용을 수정하고 몇 편의 논문을 추가하였다. 이를 통해 고구려-수 전쟁의 배경을 검토하는 데 머무르지 않고 전쟁의 전후사를 중

합한 하나의 완결된 연구서를 갖추게 되었다. 이 책은 총 4부로 구성되었으며 각 부마다 2~4장씩 안내하였고 마지막에 보론을 넣었다. 이해의 편의를 위해 차례를 먼저 제시하고 각 장의 내용을 살펴보겠다.

머리말

제1부 변경 요서, 농목 전이지대의 동단

제1장 요서, 고구려와 동아시아의 변경

제2장 농목교역을 통해 본 고구려의 요서정책

제2부 동아시아 국제정세의 축소판 요서, 고구려와 수의 만남

제1장 고구려와 高寶寧 세력, 동아시아 국제관계의 재구성

제2장 요서를 둘러싼 고구려와 수의 경쟁

제3부 갈등의 공간 요서, 국지전에서 전면전으로

제1장 598년 고구려의 요서 공격과 수의 반격 시도

제2장 미봉된 화평, 화평의 이면

제3장 고구려 동돌궐 교섭과 그 배경

제4장 요서정책의 충돌, 전쟁 결정과 개시

제4부 전쟁과 요서의 재편, 새로운 국제질서를 향해

제1장 612년 전쟁과 고구려의 군사운용

제2장 요서의 재편과 고구려-당 관계

맺음말

보론: 6~7세기 고구려의 쇠뇌 운용과 군사적 변화

저자는 요서를 둘러싼 고구려-수 관계, 전쟁의 전후사(前後事)를 종합적으로 검토하기 위해 두 가지 사항에 특히 유의하였다. 하나는 요서의 역사성이다. 여기서 요서의 역사성이란 동아시아의 역사 속에서 탄생한 지정학적 요지라는 속성을 가진 것이다. 이러한 요서의 범위는 대체로 오늘날 요령성 서부와 내몽골자치구 남부의 일부를 가리킨다.

또 하나는 내륙아시아 유목세력의 동향이다. 요서는 화북평원만이 아니라 몽골고원과 통하고 있는 만큼 고구려-수 관계를 파악하는 데 몽골고원과 그 너머 내륙아시아 유목세력의 동향을 살펴보지 않을 수 없다.

제1부에서는 고구려-수 전쟁의 배경이 된 요서의 역사성에 대해 검토하였다. 제1장에서는 요서와 고구려 관계에 대해 ‘세력범위(세력권)’라는 개념으로 설명하고 있다. 여기서 세력범위란 군사적인 우위를 바탕으로 정치적인 영향력을 발휘하거나 경제적으로 수취하는 공간이다. 고구려는 요하 서안의 라(濼)를 비롯한 진(鎭)·봉(烽)·수(戍) 등 다양한 형태의 군사기지를 운용하였으며, 이는 요서의 동부에서부터 요동의 대성(大城)까지 이어져 있었다. 따라서 요서 동부는 라를 비롯한 각종 군사기지가 군정기구(軍政機構)로 기능하였고 이를 대성이 총괄하였다고 이해하였다.

또한 5~6세기 고구려는 요하상류·시라무렌유역 일대인 요서 북부에서 유연과 함께 동서로 세력범위를 형성하였으며, 의무려산~대릉하하류 일대인 요서 남부에서 북위와 동서로 세력범위를 형성하였다. 아울러 거란을 비롯한 말갈 등의 제종족은 요서 동부 고구려의 세력범위에 포함되었으며, 정치적으로 고구려와 주종관계를 맺었지만 쌍무적인 계약관계 속에서 국제정세에 따라 가변적이고 유동적인 태도를 취했다고 한다.

제2장에서는 농경사회와 유목·수렵사회의 상호교역을 ‘농목교역(農牧交易)’이라고 부르면서 고구려가 요서에서 농목교역을 중개한 사실을 논증하였다. 이를 통해 요서가 농목교역의 장으로서 동아시아의 요지로 부상하는, 즉 역사성을 획득하게 된 변화를 살펴보았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고구려가 내륙아시아의 유목세력과 중원왕조를 중개하면서 교역의 이득을 챙기고 이해관계를 조정하여 국제적 위상을 확보하였다고 한다.

제2부에서는 수의 등장을 전후한 국제질서의 재편과 고구려와 수의 관계 수립과정을 살펴보았다. 제1장에서는 고보령(高寶寧) 세력을 통해 요서를 둘러싼 고구려, 고보령, 북주, 수 등 동아시아 국제관계를 재구성하였다. 북제가 멸망한 이후, 돌궐의 지원을 받고 있던 고보령세력은 요서의 제종족을 둘러싸고 고

구려와 경쟁·갈등하였다. 한편, 고구려는 북주와 돌궐의 대립관계 속에 북주를 통해 돌궐을 견제하고자 북주와 우호관계를 수립하였으며, 수 왕조 수립 이후에도 우호관계는 지속되었다. 이로써 570년대 후반부터 580년대 전반까지의 국제관계는 ‘고구려·북주·수’ 대 ‘돌궐-고보령세력’의 대립구도였다고 보았다.

제2장에서는 580년대 중반 요서를 둘러싼 고구려와 수의 동향을 살펴보고 있다. 583년 수-돌궐 전쟁에서 돌궐이 패하고 요서의 고보령세력도 몰락하면서, 요서의 서부를 수가 차지하였다. 580년대 중반 돌궐이 쇠퇴함에 따라 요서의 북부 지역에 힘의 공백이 발생하자, 고구려는 서부 속말말갈을 공략하여 세력범위에 두고자 하였다.

한편, 수는 요서의 서남부로 진출하였으며 580년대 중반 거란의 제부(諸部)를 둘러싸고 고구려와 경쟁함으로써 우호관계가 유지되기 어려웠다. 580년대 후반 수는 유성(柳城)에 영주총관부를 설치하고 적극적으로 요서정책을 추진하면서 요서의 제종족을 둘러싸고 경쟁하였다. 다만 고구려는 수의 세력확장을 경계하면서도 수의 우위를 인정하고 양국관계의 안정을 도모함으로써 기존의 세력권을 보장받고자 하였다고 보았다.

제3부에서는 고구려와 수 전쟁의 전반적인 과정을 살펴보고 있다. 제1장에서는 598년 고구려의 대수 공격을 주도한 정치세력과 수의 반격을 주도한 정치세력을 추정하고, 양국 간 전쟁이 일어난 배경을 요서 일대의 교역권 장악을 둘러싼 문제로 풀어내고 있다. 즉 고구려 영양왕은 신진 귀족세력들과 함께 수의 세력확장을 저지함으로써 요서 제종족의 이탈을 방지하고 요서에서 세력균형을 유지하기 위해 요서 공격을 단행하였다. 한편, 수의 관롱집단(關隴集團)은 요서를 비롯한 동북아시아의 교역권을 장악하고자 즉각적인 반격을 시도하였다고 보았다.

제2장에서는 598년부터 607년까지 고구려와 수 사이의 소강국면을 화평기라고 규정하였다. 당시 수와 돌궐이 대립하고 있어 고구려와 수는 갈등을 미봉할 수 있었다. 그런 가운데 수가 요서에 진·수를 설치하여 고구려의 세력범위를 잠식해 감으로써 양국의 갈등도 점차 심화되었다고 이해하였다.

제3장에서는 607년 고구려의 동돌궐 교섭의 배경과 목적에 대해 살펴보았다. 그 결과 요서로 동진하는 수와 긴장관계가 높아지는 상황에 위기의식을 느낀 고구려가 최소한 동돌궐과의 대립은 피하고자 교섭을 맺게 되었음을 논하였다.

제4장에서는 수의 요서정책과 고구려의 대외정책을 주도한 정치세력을 살펴보고 있다. 수의 요서정책은 북방정책의 일환으로 추진되었다. 수는 장성을 수축하고 진과 수를 설치하면서 농목 전이지대를 장악함으로써 정치군사적 안정뿐만 아니라 교역권을 확보하고자 하였다. 이런 측면에서 요서는 농목 전이지대의 동단으로 동북아시아의 교역권과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었다. 또한 수 양제는 제위계승 분쟁을 통해 즉위하였기에 정통성에 한계를 안고 있었다. 이에 동북아시아의 교역권 장악뿐만 아니라 황제권 강화를 위해 고구려 공격을 주도하였다고 보았다.

한편, 고구려는 6세기 이후 정복전쟁과 영역확장이 지속되지 못하는 가운데 오히려 한강유역을 상실하였으며 농업생산력 역시 발전을 기대하기 어려웠다. 하지만 지배층의 사회경제적 요구는 가중되고 있었기에 교역에 대한 관심이 더욱 높아져갔다. 이에 고구려 지배층은 수의 북방정책과 요서정책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자 하였으며, 그 주도세력은 영양왕과 신진 귀족세력이었다. 고구려는 수와 요서에서 국지전을 벌이며 대응해 나갔지만, 수의 대군이 요서에 집결하면서 수세에 몰리기 시작하였다.

제4부에서는 고구려-수 전쟁과 이후 요서의 세력관계 재편을 검토하였다. 제1장에서는 612년 전쟁을 요하·요동성 전투와 평양성 전투, 압록강·살수 전투로 나뉘어 고구려의 전시 군사운용에 대해 살펴보았다. 요하·요동성 전투에서 제성(諸城)의 성병(城兵)은 토착병으로 구성되었으며, 이들은 성의 주민이자 군사로서 각 성의 통제를 받고 있었다. 이들 성은 대성과 상하 통속관계를 맺었으며 중앙의 군령을 받았다.

평양성 전투에서 고구려는 중앙5부병을 중심으로 전국의 여러 군사조직을 전시편제로 운용하여 전투를 치렀다. 그 지휘관은 왕제 건무로서 왕실에서 군사권의 일부를 행사하였다. 압록강·살수 전투를 통해 볼 때, 고구려의 최고 군사

권은 을지문덕이 행사하고 있었는데 그 배후에 영양왕이 있었다. 즉, 영양왕-을지문덕이 군사권을 행사하였지만 이는 지배층 전반의 합의를 통해 위임된 권력으로 이해하였다.

제2장에서는 고구려-수 전쟁이 끝난 이후 요서의 정세가 고구려-당 관계에 가지는 의미에 대해 살펴보았다. 수가 멸망한 뒤, 요서 일대는 고개도(高開道)가 해·거란-동돌궐과 연합하여 세력을 구축하며 고구려와 당을 위협하였다. 이에 고구려와 당은 이들을 견제하는 데 이해관계가 일치하여 우호관계를 맺었다. 비록 양국관계가 형식적으로는 차등이 있었을지라도 실질적으로는 대등한 관계였다. 이후 645년 고구려-당 전쟁이 일어나기 전까지 양국은 요서에서 대릉하·무려산 일대를 경계로 세력범위를 유지하였다고 한다.

마지막으로 보론에서는 6~7세기 쇠뇌 운용을 통해 고구려의 군사적 운영의 변화를 살펴보았다.

III. 소감

이 책을 읽으며 느꼈던 점들과 생각들을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

1. 요서 제종족과 고구려의 관계

저자는 요서 제종족과 고구려의 관계를 정치적으로는 주종관계이면서도 쌍무적 계약관계라고 보았다. 여기에서 쌍무적 계약관계라는 표현이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서양 중세의 주군과 봉신의 관계를 설명하는 용어를 엄두에 둔 것은 아닌가 생각한다. 만일 평자의 추측이 틀리지 않는다면 이를 바탕으로 요서 제종족과 고구려의 관계에 대해 생각해 보겠다.

서양의 중세 봉건제사회에서 주군은 봉신(가신)에게 영토를 하사하고 보호해주는 대신 봉신은 충성을 맹세하고 군사적 봉사를 제공한다. 하지만 어느 한

쪽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양자의 관계가 파기되는 쌍무적 계약관계를 맺고 있었다. 그런데 요서 제종족과 고구려 관계를 설명하는 데 쌍무적 계약관계라는 표현이 적절한지 의문스럽다.

서양의 주군이 봉신에게 주는 물적 토대가 영토라고 한다면, 고구려가 주는 것은 교역이나 물자 제공 같은 경제적 지원이다. 영토를 주는 것과 물자를 제공하는 등의 경제적 지원은 등치시키기 어렵다. 이는 저자가 책에서 구분한 영역(영토)과 세력범위의 차이와도 관련이 있다. 전자가 영역의 범위에 속한 중앙과 지방의 관계이지만 후자는 세력범위에 속하므로 같은 범주로 논할 성질이 아니다. 그리고 고구려가 제공하는 물자나 교역 등의 경제적 지원이 양자가 쌍무적인 계약을 맺을 만큼 결속력으로 작용하였느냐는 생각도 든다. 이는 고구려가 중개 교역을 장악하여 실질적으로 통제하였느냐는 문제와도 연관이 되기 때문이다.

2. 농목교역과 고구려

저자는 농목교역의 중요성을 이야기하면서 고구려가 내륙아시아의 유목세력과 중원왕조의 중간에서 양측이 필요로 한 교역물품을 모두 제공할 수 있었다는 사실을 주목하였다. 이로써 고구려가 중개교역의 이득을 챙길 수 있었을 뿐 아니라 양측의 이해관계를 조정하면서 나름의 국제적 위상을 확보할 수 있었다고 한다.

그런데 유연이나 돌궐 등의 유목세력이나 요서의 제종족이 중원왕조와 직접 교역하지 않고 고구려에 중개를 요청하였을까 하는 의문이 든다. 실제로 유연이나 돌궐, 요서의 제종족은 중원왕조와 직접 교류하거나 개시(開市)를 요청하였다. 만약 고구려가 교역에 대한 통제권을 틀어쥐고 있었다면 중개가 가능할 것이지만, 고구려의 요서 제종족에 대한 통제는 일시적이며 그 범위 또한 일부에 그쳤다. 저자가 서두에서 말했듯이, 요서는 두 개 이상의 국가 내지 정치세력 사이의 경계가 모호한 공간이자, 서로의 세력이 교차하는 중간지대 내지 완충지대이다. 따라서 이 지역에 대한 통제권을 완전히 확보하지 않은 상황에서 고구려

가 유목세력과 중원왕조의 중개교역을 담당하였다고 말하는 것은 확대해석이다.

이러한 논의의 연장에서 고구려가 유연이 필요로 한 농경사회의 물품을 제공할 수 있었다고 하는데 고구려 내부의 소비와 공급 여력, 고구려와 중원왕조의 정치적 상황, 유연과 중원왕조의 관계 등에 대한 다각적인 검토가 이루어져야 한다. 비록 고구려가 유연과 남조의 교류에 일정한 역할을 하였음은 분명하지만, 토욕혼이 유연과 남조의 교섭로¹로 더욱 자주 이용되었다. 또한 유연은 고구려를 거치지 않더라도 북조의 변경을 침입하여 약탈하거나 직접 교류하여 필요한 물품을 공급받았다. 고구려의 손을 빌릴 상황은 많지 않았다. 따라서 고구려가 한시적으로 유연과 중원왕조의 중개교역을 하였다고 볼 여지는 있지만 그 이득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었다고 생각한다.

3. 고구려와 북주의 관계

저자는 당시 국제관계를 고구려와 북주의 대립구도로 파악해 왔던 기존 연구를 비판하였다. 고구려와 북주를 대립관계로 보는 주된 근거인 『삼국사기』 「온달전」 북주와의 전투 기사(저자는 이를 ‘이산(隸山)전투’라 부르고 있다)를 분석한 결과, 고구려는 고보령을 북주의 영주자사로 인식하였으며, 이 전투는 고구려와 고보령세력의 대립을 반영하는 사건으로 해석하였다. 또한 북주의 고구려 책봉과 고구려의 기악(伎樂) 헌상 기록, 570년대 후반~580년대 전반 고구려와 돌궐의 대립관계 양상 등을 통해 북주와 고구려는 우호적인 관계를 수립하기 위해 노력하였던 것으로 이해하였다.

그런데 저자의 말대로 고구려가 고보령을 북주의 영주자사로 인식하였다면 오히려 당시 고구려가 북주와 대립하였음을 보여주는 유력한 근거가 된다. 왜냐하면 고구려는 북주의 영주자사와 전투를 벌였기 때문이다. 이는 양국이 우호관

1 『南齊書』卷59 芮芮虜, “芮芮常由河南道而抵益州.”

계를 유지하고자 했다는 저자의 주장과 배치된다.

또한 고구려가 「온달전」에 보이는 ‘후주(後周) 무제(武帝)’를 고보령으로 인식하였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 평자가 보기에 요서에 세력을 구축하고자 하는 고보령이 북주뿐만 아니라 고구려와도 대립함으로써 위험을 자초할 필요가 없었다고 생각한다. 북주와 고구려 사이에 낀 고보령이 자립을 도모할 수 있는 길은 고구려와 손을 잡아 국제정세를 자신에게 유리하게 이끌어가는 것이라고 판단된다. 더구나 요서의 동향에 누구보다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고구려가 고보령의 존재를 북주의 영주자사로 오판할 정도로 정세에 어두웠다는 생각은 들지 않는다. 『삼국사기』 「온달전」에 후주 무제라고 한 만큼 확실한 근거가 없는 이상 사료에 더 신뢰를 두고 싶다.

4. 사실관계 확인

저자는 “고구려가 5세기 이후 주변 제국의 교역권을 장악하고 있었다”(116쪽)고 하는데 이는 실상과 거리가 있다. 앞서 본 대로 일부 지역에 한해, 일시적으로 세력범위에 둔 적은 있지만 이를 주변 제국의 교역권 장악이라고 주장하기는 어렵다. 고구려가 5세기 이후 요서 일대의 교역권을 장악하고 있었다는 주장에 대해 좀 더 실증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다음으로 “위충의 영주총관 재직시 (해와 습의) 조공이 끊이지 않았다고 한 것은 이 무렵 고구려의 세력범위에 포섭된 사실을 말해준다”(120~121쪽)고 하였다. 그런데 저자가 인용한 사료(118쪽)에서는 “해·습은 (위충을) 외구(畏懼)하여 조공이 끊이지 않았다”고 하였다. 수를 고구려로 잘못 서술한 것은 아닌지 모르겠다. 사료에서 읽어낼 수 있는 사실은 해와 습이 수로 조공하고 있다는 점이기 때문이다.

5. 고구려 후기 정국에 대한 이해

저자는 고구려 귀족세력을 국내계 구세력과 평양계 신진세력으로 구분하고, 대외정책의 방향도 전자를 온건, 후자를 강경노선으로 보는 견해²를 받아들여 고구려 후기 정국을 살펴보았다. 신진 귀족세력은 국내성 도읍기에 형성된 전통적인 귀족세력에 대비되는 개념으로서 427년 평양 천도 이후 형성되었으며, 그 중심세력은 낙랑·대방계 호족과 중국계 망명인 등이 포함된다. 이에 따라 고구려 후기 정국은 두 세력의 대립구도 속에 전개되었으며 좀 더 역동적인 이해가 가능하게 되었다. 다만 이해관계로 복잡하게 얽힌 정치세력들을 단순화시킴으로써 다양한 모습을 이해하는 데 제약을 주기도 하였다.

예를 들어, 평양계 신진 귀족세력에 포함시킨 을지문덕을 보자. 그의 출신이 어디인지, 세계가 어떤지 알 수가 없다. 그를 평양계라고 규정지을 수 있는 근거가 사실상 없다. 또한 낙랑·대방계 호족과 중국계 망명인들을 지역적으로 넓게 보아 평양계라고 규정짓더라도, 그들을 평양지역에 있었던 고구려계 귀족세력과 동일한 정치적 지향성을 지녔다고 규정하기 어렵다. 6세기 이후에는 한수 유역에 자리한 세력이 새롭게 등장하기도 한다. 이들도 신진세력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평양계 귀족세력에 포함시킬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

출신지가 다양한 세력들을 평양계 신진 귀족세력이라고 뭉뚱그려 이해하거나, 국내계 귀족세력을 온건파로, 평양계 귀족세력을 강경파라고 성격을 규정하여 놓고 정국을 이해하는 것은 도식적이지 않을까 생각한다. 물론 절대적으로 사료가 부족한 제약 속에서 정치세력들에 대한 세세한 분석이 이루어지기 어렵다는 점을 고려할 때, 불가피한 측면도 있다. 이는 저자만이 아니라 이 시대를 연구하는 이들이 고민해야 될 문제이기도 하다.

2 임기환, 2004, 『고구려 정치사 연구』, 한나래.

6. 기타

① 저자는 고구려가 619년 당에 사신을 보내 우호관계를 수립하게 된 배경을 살펴보는 가운데 평자의 논문³을 검토하면서 평자가 “고구려가 당 중심의 국제질서에 편입되어 국제정세의 안정을 도모하였다”(228쪽)고 주장한 것으로 해석하였다. 이어 이를 비판하며 619년 당시 동아시아 최강자는 당이 아닌 동돌궐인 만큼 당이 동아시아의 국제정세를 주도하리라는 전망이 확고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하였다.

여기서 저자가 오해를 하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든다. 평자는 논문에서 밝혔듯이, 중원지역 안에서 다른 군웅세력과 비교해 당이 상대적인 우위에 있었음을 주목한 것이며, 고구려는 동돌궐을 견제하기 위해 당과 관계를 수립하였다고 보았다. 저자의 해석처럼 고구려가 당 중심의 국제질서에 편입되어 국제정세의 안정을 도모하였다고는 논문을 쓸 당시에도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② 전체적으로 백제나 신라 등 남쪽에 자리한 나라와의 관계에 대한 검토나 고구려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책 제목에서 이 점이 어느 정도 예상되기는 하였다. 하지만 대외관계라는 것이 여러 변수가 복합적으로 얽혀 전개되는 것이고, 고려할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 특히 6세기 중후반 남북조시대가 끝나고 수가 중원을 통일하면서 국제정세가 재편되기 시작하였으며, 수를 상대로 한 고구려·백제·신라 삼국의 외교 경쟁도 한층 치열하게 전개되었다. 고구려가 대수정책을 수립하고 관계를 맺는 과정에서 백제나 신라와의 관계 역시 이와 맞물려 중요한 변수로 작용하였다. 그런 점에서 여러 변수 중 하나인 남방제국과의 문제를 다루지 않은 것은 아쉬움으로 남는다.

3 김진한, 2009, 「榮留王代 高句麗의 對唐關係와 西北方情勢」, 『정신문화연구』 32-4.

IV. 나오며

이정빈 교수는 고구려사 연구를 선도하는 소장학자 가운데 한 사람이다. 이 교수의 연구영역은 고구려사에만 머물지 않고 교육사나 사학사까지 두루 걸쳐 있다. 최근에는 젊은 학자들과 함께 이른바 유사역사학의 고대사 왜곡에 대응해 학계의 성과를 대중들과 공유하려는 노력도 하고 있다.

이 교수는 최근의 연구성과를 수용하는 데 주저하지 않는다. 또한 치밀한 사료 분석으로 행간에 담긴 뜻까지 읽어내며, 복잡하게 얽힌 당시 국제관계를 유려하게 풀어내고 있다. 이 책도 앞으로 고구려-수 관계를 연구하는 데 자극제가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앞서 평자의 좁은 식견으로 몇 가지 생각들을 적어보며 문제를 제기하였다. 혹 곡해하였다면 이는 평자의 잘못이다. 앞으로의 연구가 더욱 기대된다.

동북아역사논총 규정 및 규칙

- 연구윤리위원회 구성·운영 규칙
- 편집위원회 규정
- 논총 간행 및 논문 심사 규정
- 논문 심사 내규
- 투고 방법 및 원고 작성 요령

[연구윤리위원회 구성·운영 규칙]

제정 2007. 9. 21. 규칙 제19호

개정 2010. 5. 28. 규칙 제43호

개정 2015. 12. 23. 규칙 제105호

타규개정 2017. 12. 27. 규칙 제180호

[시행 2018. 9. 3] [규정 제92호, 2018. 9. 3., 타규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동북아역사재단 연구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연구부정행위”(이하 “부정행위”라 한다)라 함은 연구를 제안, 수행하거나 연구결과를 발표하는 과정에서 행하여진 위조, 변조, 표절 등 연구의 진실성을 침해하는 다음의 행위를 말한다.
 - 1) “위조”라 함은 자료나 연구결과를 허위로 만들고 이를 기록하거나 보고하는 행위를 말한다.
 - 2) “변조”라 함은 연구와 관련된 자료, 과정 및 연구결과를 사실과 다르게 변경하거나 누락시켜 진실에 부합하지 않도록 하는 행위를 말한다.
 - 3) “표절”이라 함은 타인의 아이디어, 연구과정 및 연구결과 등을 적절한 인용 표시 없이 연구에 사용하거나 자신이 이미 발표한 연구결과를 적절한 인용 표시 없이 부당하게 발표하는 행위를 말한다.
2. “연구부적절행위”(이하 “부적절행위”라 한다)라 함은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대하여 학술적 공헌 또는 기여를 한 사람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거나, 학술적 공헌 또는 기여를 하지 않은 자에게 감사의 표시 또는 예우 기타 이유로 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행위를 말한다.
3. “제보자”라 함은 부정행위 또는 부적절행위를 인지한 사실 또는 관련 증거를 위원회에 알린 자를 말한다. 다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당해 주장이나 증언에 반하는 사실을 간과한 자는 제보자로 간주하지 않는다.

4. “피조사자”라 함은 제보 또는 위원회의 인지에 의하여 부정행위 또는 부적절행위의 조사 대상이 된 자 또는 조사 수행 과정에서 부정행위 또는 부적절행위에 가담한 것으로 추정되어 조사의 대상이 된 자를 말한다.
5. “예비조사”라 함은 본 조사 실시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제보된 사실에 대한 관련 정보를 수집하고 예비적인 사실 확인 절차를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
6. “본조사”라 함은 부정행위 또는 부적절행위의 혐의에 대한 사실 여부를 입증하기 위한 절차를 말한다.

제3조(기능) 위원회는 재단 소속의 연구자와 재단을 통하여 연구비를 지원 받은 자 및 재단 학술지에 원고를 게재한 자 등의 연구윤리와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연구윤리 관련 제도의 수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 부정행위 및 부적절행위의 예방조치에 관한 사항
3. 예비·본조사의 착수 및 조사결과의 승인에 관한 사항
4. 예비조사위원회, 조사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사항
5. 제보자 보호 및 피조사자 명예회복 조치에 관한 사항
6. 조사결과의 처리, 후속조치 및 재심의의 처리에 관한 사항
7. 기타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4조(구성)

1. 위원회는 사무총장, 실장(이하 “당연직 위원”이라 한다)을 포함하여 7인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사무총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논총편집위원장이 수행한다. <개정 2015. 12. 23, 2017. 12. 27, 2018. 9. 3>
2.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3. 당연직 이외의 위원은 재단 부연구위원 이상의 연구직 중에서 이사장이 임명하며, 그 임기는 2년으로 한다.

4. 위원회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연구직 직원 중에서 이사장이 임명한 자를 간사로 한다.
5. 위원장은 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전문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제5조(회의)

1. 위원회의 회의는 필요한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하고 주재한다.
2.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성립하며 출석위원 3분의 2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3.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위원이 아닌 자를 회의에 참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4. 회의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제6조(제보 및 증거보전)

1. 제보자는 위원장에게 구술·서면·전화·전자우편 등 가능한 모든 방법으로 제보할 수 있으며 실명으로 제보함을 원칙으로 한다.
2. 위원회는 제보에 대한 증거보전을 위하여 연구기록이나 증거의 상실, 파손, 은닉 또는 변조 등을 방지하기 위한 상당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7조(검증시효)

1. 제보의 접수일로부터 만 5년 이전의 부정행위 및 부적절행위에 대해서는 이를 접수하였더라도 처리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한다.
2. 5년 이전의 부정행위 및 부적절행위라 하더라도 재단의 운영상의 장애를 초래하거나, 재단의 위상을 심각하게 훼손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이를 조사할 수 있다.

제8조(예비조사위원회)

1. 위원회는 제6조 제1항에 의한 제보를 접수한 경우 예비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3인 이내의 위원으로 예비조사위원회를 구성한다.
2. 예비조사는 접수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착수하고, 조사 착수일로부터 30

일 이내에 완료하여 위원회의 승인을 받도록 한다.

3. 예비조사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검토를 실시한다.
 - 1) 제보내용이 부정행위와 부적절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 2) 제보내용이 구체성과 명확성을 갖추어 본조사를 실시할 필요성과 실익이 있는지 여부
 - 3) 제보일이 시효 기산일로부터 5년을 경과하였는지 여부
4. 예비조사 결과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 1) 제보의 구체적인 내용 및 제보자 신원정보
 - 2) 조사의 대상이 된 부정행위 혐의 및 관련 연구과제
 - 3) 본조사 실시 여부 및 판단의 근거
 - 4) 기타 관련 증거 자료

제9조(본조사 착수 및 기간)

1. 본조사는 위원회의 예비조사결과 승인 후 30일 이내에 착수되어야 하며, 이 기간 동안 본조사 수행을 위한 위원회(이하 “조사위원회”라고 한다)를 구성하여야 한다.
2. 본조사는 판정을 포함하여 조사 착수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완료하여야 한다.
3. 조사위원회가 제2항의 기간 내에 조사를 완료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 위원회에 그 사유를 설명하고 기간연장 요청을 하여야 한다.

제10조(조사위원회의 구성)

1. 조사위원회는 5인 내지 7인의 조사위원으로 구성하며 당해 연구 분야에 전문적인 지식 및 경험이 풍부한 자를 3인 이상 포함시켜야 한다.
2. 조사위원으로 전문성과 객관성을 가진 외부 인사를 2인 이상 위촉함을 원칙으로 한다.
3. 당해 조사 사안과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조사위원으로 위촉할 수 없다.

제11조(기피·제척·회피)

1. 피조사자 또는 제보자는 위원 또는 조사위원에게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때에는 그 이유를 밝혀 위원회에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
2. 당해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안건의 심의·의결 및 조사에 관여할 수 없다.
3.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가 있다고 판단하는 위원 및 조사위원은 위원회에 회피를 신청할 수 있다.
4. 기피 또는 회피 신청에 대한 결정에 기피신청된 위원이나 회피신청한 위원은 참여할 수 없다.

제12조(조사위원회의 권한과 책무)

1. 조사위원회는 조사과정에서 제보자·피조사자 및 참고인에 대하여 출석과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2. 조사위원회는 연구기록이나 증거의 상실, 파손, 은닉 또는 변조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상당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3. 조사위원회는 조사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조사대상 연구와 연구자에게 상당한 피해가 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

제13조(진술 기회의 보장) 조사위원회는 혐의 사실에 대해 피조사자에게 의견을 제출하거나 해명할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제14조(결과보고서의 제출)

1. 조사위원회는 조사 완료 후 10일 이내에 조사결과보고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2. 조사결과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1) 제보의 구체적 내용 및 제보자 신원정보
 - 2) 조사의 대상이 된 부정행위 또는 부적절행위 혐의 및 관련 연구과제
 - 3) 해당 연구과제에서의 피조사자의 역할과 혐의의 사실 여부

- 4) 관련 증거 및 증인
- 5) 조사결과에 대한 제보자와 피조사자의 주장 내용과 그에 대한 판단 및 처리결과
- 6) 조사위원 명단

제15조(조사결과에 따른 조치)

1. 위원회는 재단 소속 연구자의 행위가 부정행위 또는 부적절행위에 해당한다는 조사위원회의 조사결과를 승인한 때에는 이사장에게 징계 및 상당한 제재조치를 건의하여야 한다.
2. 위원회는 재단을 통하여 연구비를 지원 받은 자의 행위가 부정행위 또는 부적절행위에 해당한다는 조사위원회의 조사결과를 승인한 때에는 이사장에게 상당한 제재조치를 건의하고 소속 기관장에게 조사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3. 위원회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진실과 다른 제보를 하거나 연구윤리 관련 허위사실을 유포한 자에 대해 이사장에게 징계 또는 상당한 제재조치를 건의할 수 있다.

제16조(결과의 통지) 위원장은 조사결과에 대한 위원회의 결정을 서면으로 작성하여 지체 없이 피조사자 및 제보자에게 통지한다.

제17조(재심의) 피조사자 또는 제보자는 위원회의 결정에 불복할 경우 전조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이유를 기재한 서면으로 위원회에 재심을 요청할 수 있다.

제18조(비밀유지의 의무 등)

1. 위원회와 조사위원회는 제보자를 보호하고 피조사자의 명예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2. 제보·조사·심의·의결 및 건의 등과 관련된 일체의 사항은 비밀로 하되 상당한 공개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공개할 수

있다.

3. 위원, 조사위원, 조사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한 자, 이사장 및 관계 임직원은 심의·의결·조사 기타 직무수행 과정에서 취득한 정보를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 직을 그만둔 후에도 같다.

제19조(경비)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제20조(운영지침) 기타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별도로 정한다.

부 칙<제19호, 2007. 9. 21>

이 규칙은 이사장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제43호, 2010. 5. 28>

이 규칙은 이사장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제105호, 2015. 12. 2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내규와의 관계) 이 규칙은 직제규정 부칙(제68호) 제2조에 따라 개정된 것으로 본다.

부 칙<제180호, 2017. 12. 27>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7년 12월 2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내규와의 관계) 이 규칙은 직제규정 부칙(제83호) 제2조에 따라 개정된 것으로 본다.

부 칙<제92호, 2018. 9. 3> (직제규정)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교육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내규와의 관계 등) ① 이 규정 시행과 동시에 직제규정과 관련된 재단의 다른 내규는 별도의 개정 절차 없이 이 규정에 맞게 개정된 것으로 본다.

② 생략

[편집위원회 규정]

1. 편집위원회는 동북아 관련 고대·중세·근현대 연구 영역의 전문연구자 중, 동북아역사재단의 연구정책실장과 편집위원장의 추천을 받아 동 재단 이사장이 위촉한 연구자로 편집위원을 구성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2. 편집위원회는 위원장, 편집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동북아역사재단(이하 재단)의 동북아역사논총 발간사업 담당부서장이 수행함을 원칙으로 하나, 부득이한 경우 이사장이 지명할 수 있다. 편집위원장은 편집위원회의 회의를 주재하여 논총의 편집과 간행을 총괄하고, 재단소속 직원 중에서 논총의 편집과 간행 실무를 총괄할 편집간사를 임명할 수 있다.
3. 편집위원의 임기 만료 전 유고 시, [편집위원회 규정] 제1항의 편집위원 위촉 방법에 의해, 차기 호 논문 심사가 있기 전에 새로운 편집위원을 선정한다.
4. 편집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심의 결정한다.
 - 1) 『동북아역사논총』(이하 논총)의 편찬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
 - 2) 논총에 게재하기 위한 일체의 논문류에 대한 심사
 - 3) 논총 게재 기획논문, 자료소개, 서평, 설립 등에 대한 기획과 심사
 - 4) 기타 논총 관련 사업에 대한 기획과 심의
5. 편집위원회는 논총 발간 전에 개최하고, 편집위원회의 진행절차는 편집 및 토의사항을 중심으로 하여 기타 필요한 사항에 대해 논의한다. 편집간사는 편집위원회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참고자료 및 보고사항을 사전에 준비하고 회의록을 작성한다.
6. 편집위원은 원칙적으로 논총에 논문을 투고할 수 없으나 논총 기획연구 등 편

집위원회가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논문 투고가 가능하도록 한다.

※ 이 편집위원회 규정은 2004년 12월 24일 제정된 북방사논총 편집위원회 규정을 승계하여, 2006년 11월 22일 개최된 동북아역사논총 제1차 편집위원회 심의를 거쳐 개정되었고, 2013년 8월 30일, 2015년 2월 23일, 2016년 2월 24일, 2017년 5월 19일, 2018년 2월 23일 편집위원회에서 재개정되었음.

(논총 간행 및 논문 심사 규정)

1. 논총에는 다음과 관련된 특집, 논문, 설립, 자료소개, 서평 등의 글을 게재한다.
 - 1) 한국사(문화) 및 동아시아사(문화)와 관련된 문제
 - 2) 독도 및 영토 관련 문제
 - 3) 본 재단의 목적에 부합하는 논문
2. 논총은 3월 31일, 6월 30일, 9월 30일, 12월 31일 매년 4회 간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 편집위원회는 투고된 원고를 다음과 같은 과정과 내용으로 심사한다.
 - 1) 편집위원회는 투고된 모든 원고를 논문 제목, 형식요건, 원고분량의 적절성, 재단 목적에 대한 부합성 등을 기준으로 1차 심사하고, 참석 편집위원 과반수 통과 판정을 얻어 2차 심사에 회부한다.
 - 2) 편집위원회는 투고원고 중 논문류의 경우 편당 학계 전문가 3인의 심사자를 선정하여 2차 심사가 이루어지도록 한다. 2차 심사 때에는 공정성을 위해 필자명을 반드시 지운 뒤 심사한다.
 - 3) 심사위원은 심사 의뢰된 논문을 편집위원회의 정해진 양식에 따라 “수정 없이 게재(A)”, “검토 또는 수정 후 게재(B)”, “수정 후 재심사(C)”, “게재 불가(D)”의 네 등급으로 판정한 후 편집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중 B·C등급의 경우 수정사항이, D등급의 경우에는 게재 불가 이유가 반드시 명시되어야 한다.
 - 4) 편집위원회는 심사 통과 논문 편수가 논총의 일반적인 분량을 초과할 경우 편집위원회의 기획과 심사 성적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우선 게재 순위를 정한다.
4. 편집위원회는 심사위원과 심사과정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 일체를 대외비로

한다. 이외 투고자는 게재가 결정된 논문이라 할지라도 심사위원의 보완 요구가 있을 경우 이를 최대한 존중하여야 한다.

5. 편집위원회는 심사 결과를 투고자에게 서면 등의 방법으로 통보한다. 논문은 아래와 같은 항목에 의하여 심사한다.

- 1) 논문 제목의 적절성
- 2) 형식요건 및 체제의 정연성
- 3) 논리성 및 독창성
- 4) 학술적 가치
- 5) 인용자료의 적절성
- 6) 분량의 적절성
- 7) 요약문의 적절성

6. 편집위원회는 논중에 투고된 일체의 원고에 대해 심사 종료 후 돌려주지 않는다.

※ 이 심사규정은 2004년 12월 24일 제정된 북방사논총 심사규정을 승계하여, 2006년 11월 22일 동북아역사재단에서 개최된 제1차 편집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되었고 2018년 2월 23일 편집위원회에서 재개정되었음.

(논문 심사 내규)

1. 편집위원회는 심사 결과를 다음의 다섯 가지로 처리한다.
 - 1) 게재 가 : 3인 모두 A로 판정하는 경우 예) (A, A, A)
 - 2) 검토 또는 수정 후 게재 : 모두 B 이상으로 판정한 경우 / 2인이 B 이상이고 나머지 1인이 C로 판정한 경우
예) (A, A, B) (A, B, B) (B, B, B) (A, A, C) (A, B, C) (B, B, C)
 - 3) 수정 후 재심사 : 1인이 A 또는 B로 판정하고 2인이 C로 판정한 경우
예) (A, C, C) (B, C, C)
 - 4) 심사위원 교체 재심사 : 2인이 B 이상으로 판정하였는데 1인이 D로 판정한 경우, D 판정 1건에 대해서만 심사위원을 교체하여 재심사함
예) (A, A, D) (A, B, D) (B, B, D)
 - 5) 게재 불가 : 2인 이상이 C나 D로 판정한 경우 / 1인이 D로 판정하였는데 A가 포함되지 않고 C를 포함한 경우
예) (A, C, D) (A, D, D) (B, C, D) (C, C, C) (C, C, D) (D, D, D)
2. 편집위원회는 논문 편수가 논총의 수록 분량을 초과하거나 또는 편집위원회의 기획상 우선순위 등의 사정에 따라 심사 통과 원고 가운데 일부를 필자의 양해하에 차기 호 또는 차차기 호에 실을 수 있다. 이 가운데 단순히 논총 수록 분량 초과만이 원인일 때에는 심사 성적 순위로 해당 호 게재를 결정한다.
3. 심사 판정과 “검토 또는 수정 제의” 및 “게재 불가” 사유 등의 심사 결과 내용 통보는 심사위원이나 과정을 대외비로 한 상태에서 통보하며 공개하지 아니한다.
4. 투고 논문에 대한 심사결과, 게재불가로 판정받은 논문에 대해서는 수정 후 재투고하더라도 논총 게재대상 논문으로 접수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논문심사 결과에 대한 논문투고자의 이의신청 내용에 대해, 편집위원회가 편파 또는 불공정 심사로 인정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정한 경우, 1회에 한하여 심사위원 교체에 의한 재심사를 시행할 수 있다.

※ 이 심사 내규는 2004년 12월 24일 제정된 북방사논총 심사 내규를 승계하여, 2006년 11월 22일 동북아역사재단에서 개최된 제1차 편집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되었고, 2011년 10월 7일, 2018년 2월 23일 편집위원회에서 재개정되었음.

(투고 방법 및 원고 작성 요령)

1. 동북아역사논총(이하 논총으로 약함)은 전문적인 학술지로서 논문, 설립, 서평, 자료소개 등을 게재한다. 투고하고자 하는 원고는, 투고자가 동북아역사재단 《동북아역사논총》 온라인투고시스템(<https://nahf.jams.or.kr>)에 접속하여 반드시 회원가입을 한 이후에 《동북아역사논총》 온라인투고시스템(<https://nahf.jams.or.kr>)내의 논문투고 절차에 따라 동북아역사논총 편집위원회 앞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2. 원고는 반드시 컴퓨터 파일로 작성하여야 한다. 원고 제출방식은 동북아역사재단 《동북아역사논총》 온라인투고시스템(<https://nahf.jams.or.kr>)에 회원 가입 후 투고논문원고(그림 또는 별도의 표가 있을 경우 첨부파일로)를 제출해야 한다. 또한 심사통과 후의 최종원고 제출시에는 nonchong@nahf.or.kr로 제출하고 사진은 해상도 300dpi 이상으로 하여 별도 제출한다.
3. 원고분량은 200자 원고지 150장 내외를 기준으로 하되 충분한 논지 전개를 위해 부득이한 경우 70장가량 초과할 수 있다. 그림과 사진의 수량은 논지 전개를 위해 필요한 최소한으로 제한하며 초록도 국문 800자, 영문 400자 내외로 제한한다.
4. 원고는 제목, 필자(소속기관, 직위), 머리말, 본문, 맺음말, 참고문헌, 국문 초록, 국문 주제어, 영문초록, 영문 주제어의 순서로 구성한다.
5. 논문의 목차와 소제목은 머리말로부터 순서에 따라 I> 1> 1)> (1)로 번호 매김을 한다.
6. 본문은 까다로운 고유명사 또는 의미상의 혼동이 예상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한글로 작성하되, 한자가 필요한 경우에는 맨 처음만 한글(한자)로 병기하고 이후부터는 한글로만 표기한다.

7. 인용문은 본문의 문장 가운데에 삽입되는 경우 “ ” 표시로 묶고, 인용문이 길어 문단을 나눌 경우에는 “ ” 표시 없이 글자크기를 작게 하여 서술하고 괄호 안에 출전을 밝힌다.

8. 각주에서 현대문헌을 인용할 때에는 “필자”, “연도”, “논문”, “서책(출판사)”, “쪽수”의 순서로 한다. 앞서 인용한 문헌을 재인용할 때에는, 바로 위의 문헌을 인용할 경우에는 “필자”, “연도”, “위의 글(책)”, “쪽수”의 순서로, 바로 위 이전의 문헌을 인용할 경우에는 “필자”, “연도”, “앞의 글(책)”, “쪽수”의 순서로 인용한다.

예) 동북인, 2006, 『동북아사와 동북문화에 대하여』, 『동북아역사논총』 1호, 1~10쪽.

동북인, 2006, 위(앞)의 글(책), 1~10쪽.

9. 각주에서 고중세 문헌을 인용할 때에는 “작자(필요 시)”, “서책”, “편목”, “인용대문”의 순서로 한다. 이 중 고중세 문헌은 필요할 경우 판본명이나 영인본명을 밝힐 수 있고, 인용대문 중 전략, 중략, 후략 등은 “……”로 표기한다.

예) 東北人, 『東北集』(東北文化社景印本). “東北有高士, 東北公賢裔鵠雍, 是人也”.

10. 서양문헌을 인용할 때에는 책명은 이탤릭체, 논문은 큰따옴표로 표기하고 다음과 같은 순서와 방식으로 인용한다.

예) V. G. Childe, 1932, “Chronology of prehistoric Europe : a review,” *Antiquity* 6, pp. 206~212.

※ 이 투고 요령은 2004년 12월 24일 제정된 북방사논총 투고 요령을 승계하여, 2006년 11월 22일 동북아역사재단에서 개최된 제1차 편집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되었으며, 2015년 2월 23일, 2018년 2월 23일, 2018년 8월 19일 편집위원회에서 개정되었음.

● 편집위원장

장세운 동북아역사재단 운영기획실장

● 편집위원

강성호 순천대학교 사학과 교수

김경호 성균관대학교 동아시아학술원 교수

남상구 동북아역사재단 한일역사문제연구소장

남상호 경기대학교 사학과 교수

백종오 한국교통대학교 교양학부 교수

서현주 동북아역사재단 교육홍보실장

윤유숙 동북아역사재단 연구위원

이근우 부경대학교 사학과 교수

이영옥 전남대학교 역사교육학과 교수

이유표 동북아역사재단 연구위원

이현혜 한림대학교 사학과 명예교수

전진호 광운대학교 국제학부 교수

정병삼 숙명여자대학교 역사문화학과 교수

정재운 공주대학교 사학과 교수

정혜중 이화여자대학교 사학과 교수

홍성근 동북아역사재단 연구위원

● 편집간사

양인호 동북아역사재단 연구지원팀



前 北方史論叢

동북아역사논총 63호(2019. 3)

초판 1쇄 인쇄 2019년 3월 22일

초판 1쇄 발행 2019년 3월 31일

펴낸이 김도형

펴낸곳 동북아역사재단

등록 제312-2004-050호(2004년 10월 18일)

주소 서울시 서대문구 통일로 81

전화 02-2012-6065

팩스 02-2012-6189

ISSN 1975-7840

비매품

이 책의 출판권 및 저작권은 동북아역사재단이 가지고 있습니다.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를 받는 저작물이므로 어떤 형태나 어떤 방법으로도
무단전재와 무단복제를 금합니다.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